

국립국어원 2014-01-49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529-01

한국어교육 문법 · 표현 내용 개발 연구(3단계)

연구 책임자

양 명 희



국립국어원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3단계)”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의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연구 책임자: 양 명 희(중앙대학교)

연구 기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양명희

공동 연구원 안경화, 김재욱, 이선웅, 박성일, 현정희, 정선화,
김선효, 이정화, 서경숙, 이지용, 이나래

연구 보조원 이현주, 김지연

[국문 초록]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3단계)

본 연구는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 사업의 제3단계에 해당한다.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한국어 숙달도상 중급에 해당하는 문법 표현 항목을 선정하고 등급화 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어교육 문법의 표준적 준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중급 문법·표현 항목에 대한 문법 교육 내용을 심도 있고 충실하게 기술하여 한국어교육 문법의 기초 자료를 풍부하게 생성함으로써 한국어 교수자나 연구자, 교재 개발자가 학습자의 언어 발달과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중국어와의 대조언어학적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어 학습자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들에게 교수 시 유의할 점을 제공하고, 향후 다국어 대조를 기반으로 한 한국어교육 문법 표현 내용을 개발하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제1단계에서는 초급 단계에서 제시되는 문법·표현 선정 및 등급화, 문법 표현 내용 기술안 개발, 초급 문법 범주의 중국어·몽골어 대조 연구라는 세 가지 세부 연구 과제를 진행하였고, 2단계 연구에서는 1단계에서 선정된 초급 문법·표현 항목을 정련하고 초급 문법·표현 항목의 문법 교육 내용을 기술하였다. 3단계 연구에서는 2단계에서 선정된 중급 문법 표현 항목을 정련하고, 중급 문법·표현 항목의 교육 내용을 기술하였다. 항목 선정에서는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의 문법 항목을 기본으로 하고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의 문법 항목을 고려하였으며 한국어교재의 문법 항목을 참조하였다.

3단계에서 선정된 중급 문법·표현 항목은 조사 19개, 선어말어미 1개, 연결어미 28개, 전성어미 1개, 종결어미 17개, 표현 47개로 총 113개이며, 문법 교육 내용은 2단계에 이어 ‘표제어, 의미 및 용법, 예문, 도입, 형태 정보, 문장 구성 정보, 제약 정보, 확장, 유사 문법’으로 구성하여 기술하였다.

예문은 문법 표현이 사용된 담화 예문을 우선 제시하고 문장 예문을 제시하는 순서로 실제성을 높였다. 도입에서는 실제 수업 현장에서 교사가 해당 문법 표현 항목을 교수하기 위해 시작하는 담화 상황을 제시하였다. 형태 정보에서는 초급에서 주로 사용되는 동사, 형용사와의 결합형을 규칙화하여 보여주었다. 문장 구성 정보에서는 패턴화된 통사적 정보를 기술하였다. 제약 정보에서는 문장 구성에서 발생하는 동사 형용사 등의 결합 제약, 주어 인칭 제약, 동일 주어 제약, 시제 형태소 제약, 문장 종결 제약 등을 기술하였다. 확장에서는 해당 문법 표현 항목 관련형의 용법, 준말과 본말, 관용적 용법, 중·고급 용법 등 부수적이고 심화된 정보를 기술하였다. 유사문법에서는 해당 항목과 형태적 의미적으로 유사한 모든 문법 표현 항목들을 비교 대조하여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을 통해 선정된 한국어교육 중급의 표준 문법·표현 항목 및 기술된 중급 문법·표현 항목의 상세 내용과 중국어와의 대조언어학적 분석 자료는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이면서도 실제성이 높은 문법 교육을 실시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어교육 연구의 기초 자료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요어] 한국어 교육, 중급 단계, 문법 항목, 표현 항목, 선정, 등급화, 도입, 형태 정보, 문장 구성 정보, 제약 정보, 유사 문법, 대조언어학, 중국어 학습자

[목 차]

제1장 연구 목적 및 범위	1
1.1. 연구 목적	1
1.2. 연구 범위	3
제2장 문법표현 내용 기술 지침	9
2.1. 기술 필드	10
2.1.1. 기술 필드 분류	10
2.1.2. 각 필드의 내용	10
2.2. 필드별 지침	13
2.2.1. 표제어	13
2.2.2. 의미 및 용법, 예문	13
2.2.3. 도입	16
2.2.4. 형태 정보	17
2.2.5. 문장 구성 정보	21
2.2.6. 제약 정보	22
2.2.7. 확장	23
2.2.8. 유사 문법	25
2.3.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27
2.3.1. 주요 내용	27
2.3.2. 지침	27
제3장 중급 문법표현 내용 기술의 실제	30
3.1. 조사	30
3.1.1. ‘같이’	30
3.1.2. ‘대로’	34
3.1.3. ‘만큼’	39
3.1.4. ‘보고’	43
3.1.5. ‘뿐’	47
3.1.6. ‘아1’	51
3.1.7. ‘요1’	54

3.1.8. '으로부터'	58
3.1.9. '이고'	61
3.1.10. '이나마'	66
3.1.11. '이든'	70
3.1.12. '이든가'	74
3.1.13. '이라고'	79
3.1.14. '이란'	83
3.1.15. '이며'	87
3.1.16. '이면'	91
3.1.17. '이야'	95
3.1.18. '치고'	98
3.1.19. '커녕'	103
3.2. 선어말어미	107
3.2.1. '-었었'	107
3.3. 연결어미	112
3.3.1. '-거니와'	112
3.3.2. '-거든'	116
3.3.3. '-고도'	121
3.3.4. '-고서'	127
3.3.5. '-고자'	131
3.3.6. '-기에'	136
3.3.7. '-느라고'	143
3.3.8. '-는다거나1'	149
3.3.9. '-는다고1'	154
3.3.10. '-는다면1'	160
3.3.11. '-다가'	164
3.3.12. '-다시파'	170
3.3.13. '-더니'	174
3.3.14. '-더라도'	187
3.3.15. '-던데1'	190
3.3.16. '-도록'	193
3.3.17. '-든지2'	200
3.3.18. '-듯이'	205

3.3.19.	‘-어다가’	209
3.3.20.	‘-어도’	214
3.3.21.	‘-어야’	219
3.3.22.	‘-어야지1’	227
3.3.23.	‘-었더니’	233
3.3.24.	‘-으나’	245
3.3.25.	‘-으니2’	251
3.3.26.	‘-으므로’	263
3.3.27.	‘-을래야’	269
3.3.28.	‘-자마자’	273
3.4.	전성어미	278
3.4.1.	‘-던1’	278
3.5.	종결어미	283
3.5.1.	‘-거든2’	283
3.5.2.	‘-게5 · 6’	286
3.5.3.	‘-고4’	294
3.5.4.	‘-나요’	298
3.5.5.	‘-는구나’	302
3.5.6.	‘-는다’	307
3.5.7.	‘-는다니2’	310
3.5.8.	‘-는다면서1’	314
3.5.9.	‘-니2’	318
3.5.10.	‘-더군’	322
3.5.11.	‘-더라’	326
3.5.12.	‘-던데2’	331
3.5.13.	‘-어라1’	336
3.5.14.	‘-어야지2’	341
3.5.15.	‘-을걸’	347
3.5.16.	‘-자3’	352
3.5.17.	‘-잖아’	357
3.6.	표현	362
3.6.1.	‘-게 하다’	362
3.6.2.	‘-고 나다’	370

3.6.3. '-고 말다'	375
3.6.4. '-고 보다'	379
3.6.5. '-고 싶어 하다'	384
3.6.6. '-고 해서'	388
3.6.7. '-기 위해'	394
3.6.8. '-나 보다'	398
3.6.9. '-나 싶다'	404
3.6.10. '-는 김에'	408
3.6.11. '-는다거나2'	413
3.6.12. '-는 대로'	418
3.6.13. '-는 대신에'	428
3.6.14. '-는 만큼'	437
3.6.15. '-는 바람에'	445
3.6.16. '-는 반면에'	452
3.6.17. '-는 사이에'	458
3.6.18. '-는 줄'	463
3.6.19. '-는 탓에'	468
3.6.20. '-는 한'	476
3.6.21. '-려고 들다'	481
3.6.22. '만 같아도'	486
3.6.23. '만 아니면'	489
3.6.24. '-어 가다'	492
3.6.25. '-어 가지고'	497
3.6.26. '-어 놓다'	506
3.6.27. '-어 대다'	512
3.6.28. '-어 두다'	516
3.6.29. '-어 드리다'	520
3.6.30. '-어 버리다'	524
3.6.31. '-어서인지'	529
3.6.32. '-어야겠.'	533
3.6.33. '-어 오다'	541
3.6.34. '-어지다'	545
3.6.35. '에 대하여'	554

3.6.36. '에 따라'	557
3.6.37. '에 비하여'	561
3.6.38. '에 의하면'	564
3.6.39. '-으라니2'	568
3.6.40. '으로 인하여'	574
3.6.41. '-으면 안 되다'	578
3.6.42. '-으면 좋겠다'	585
3.6.43. '-은 결과'	590
3.6.44. '-은 다음에'	594
3.6.45. '-을 따름이다'	600
3.6.46. '-을 테니'	604
3.6.47. '-을 텐데'	613

제4장 연구의 의의와 과제	619
4.1. 연구의 의의	619
4.2. 향후 과제	621
4.3. 정책 제언	623

제1장 연구 목적 및 범위

1.1. 연구 목적

1.1.1. 연구의 필요성

1990년대 이후 한국어교육은 그야말로 눈부신 성장을 하였다. 한국어 학습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대학에는 한국어교사를 양성하는 학부와 대학원 과정이 신설되었고, 4년제 대학뿐 아니라 전문대학에도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교육과정이 개설되었다. 이와 함께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와 교육 자료 등이 끊임없이 개발되어 나오고, 한국어를 더 잘 가르치기 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와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몇 년 전부터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한국어교육이 확대되면서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활동하는 교사와 교육받는 학습자들에게 표준이 되는 교육 기준과 내용을 제시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에 힘입어 국립국어원에서는 2010년, 2011년 2년여에 걸쳐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단계별로 기능, 문화항목, 어휘, 문법 목록 등이 제안되었는데, 이는 한국어교재, 한국어능력시험(토픽), 국내 및 국외의 교육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도출된 결과이다.

이 연구의 결과물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데 그중 하나는 문법·표현 항목을 초급, 중급, 고급, 최고급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한 점이다. 국립국어원에서는 2005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 1, 2」를 발간한 바 있다. 이는 사전의 형식을 취한 한국어교육 문법서로, 항목별로 교육 단계가 표시되어 있지는 않다. 한국어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교사들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 1, 2」를 문법서 중 가장 많이 참고하는데,¹⁾ 문법서의 내용만으로는 문법 항목을 교육하기가 쉽지 않다. 다시 말하여 조금 더 쉬운 문법 설명, 풍부한 예문, 심도 있는 문법 정보 등 가르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문법 내용이 부족하며, 한편으로 한국어 문법교육의 연구 성과를 집적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렇게 해서 개발된 연구 사업이 바로 2012년부터 시작한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이다.

본 연구는 체계적이고 충실한 문법 교육을 하기 위한 문법 교육 내용을 기술하고, 한국어교육 연구자가 심도 있는 문법 내용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문법에 관한 기초 자료를 축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 현장의 교사들 중에는 이미 심도 있는 문법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겠으나 현장의 다른 교사들과 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이러한 연구 사업이 필요하며, 문법 교육 연구자들을 위해서도 앞으로 연구

1) 2013년 국립국어원의 연구보고서인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2단계)」에서 한국어교사를 대상으로 문법서 사용 실태를 조사한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2」의 사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 필요한 문법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어교육 문법 교육 내용에 대한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교육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을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 사업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집필 지침을 다듬어 수정을 거듭하여 올해로 3년째 연구 보고서를 내었다. 2012년에는 문법 내용 집필지침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와 중국어 및 몽골어와의 문법 범주 대조(초급)를 시도하였으며, 2013년에는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2단계)」의 초급 항목을 기초로 90항목의 초급 문법·표현 항목의 문법 내용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올 2014년에는 113항목의 중급 문법·표현 항목을 선정하여 문법 내용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심화된 문법 교육을 실시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어교육 연구의 기초 자료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 사업의 결과물은 2015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외국어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하려면 발음, 어휘, 문법에 대한 언어학적 지식이 밑바탕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영어교육이나 일본어교육 등 여타 외국어 교육에서 볼 수 있듯 다양한 문법서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비록 본 연구 결과물이 조사, 어미, 표현 등 형태별 문법 범주로 나뉘어 기술된 한계점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연구 성과물이 축적되면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문법 범주별 문법서가 나올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한국어교육에서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표준 문법의 틀과 내용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체계적인 문법 교육과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어 숙달도상 중급에 해당하는 문법·표현 항목을 설정하고 기본적인 내용 정보를 포함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어교육 문법의 표준적인 준거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문법·표현 항목에 대한 교육 내용을 심도 있고 충실하게 기술하여 한국어교육 문법의 기초 자료를 풍부하게 함으로써 한국어 교수자나 연구자, 교재 개발자, 그리고 학습자가 언어 발달과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그간 학계에 축적된 연구 자료와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기 개발된 한국어 문법서와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연구의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기존 연구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한층 체계적이고 충실한 문법·표현 내용 자료를 개발한다.

본 과업의 수행을 통하여 마련된 한국어교육 중급 표준 문법·표현 항목과 최적화된 기술은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심화된 문법 교육을 실시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어교육 연구의 기초 자료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범위

2012년 첫해에는 크게 세 가지 과제를 수행하였는데, 첫 번째 과제는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항목의 선정이다. 이미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2010, 2011)에서는 초, 중, 고, 최고급의 문법·표현 항목을 선정한 바 있는데 이 항목과 한국어능력시험의 급별 문법·표현 항목의 격차가 큼에 따라 둘의 목록을 비교하고 유사 항목을 통합하여 초급의 문법·표현 항목 90항목을 선정하였다. 두 번째 과제로는 문법·표현 내용 기술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국내외 교육용 문법서를 분석하고 실수요자 요구 조사 분석을 통해 범주별 기술을 시도하였다. 세 번째 과제는 언어 간 문법 범주 비교로 한국어와 중국어, 한국어와 몽골어의 문법 범주를 비교하였는데 높임법, 부정법, 문장종결법, 시제 등 초급에 해당하는 범주 비교를 한 바 있다.

2013년에는 2012년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초급 문법·표현 항목 90항목을 범주별로 집필하고, 중국인 학습자를 교수하는 교수자를 위한 도움말을 제시하였으며, 3단계 사업을 위한 중급 문법·표현 항목 126항목을 잠정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1단계에서 잠정적으로 정해 놓았던 집필 지침을 대폭 수정, 보완하였는데 이는 수요자인 한국어교사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올해는 이 사업의 3년차로, 중급 문법·표현 항목의 집필과 이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을 제시하고자 한다.

올해는 1, 2단계 연구의 논의를 중심으로 중급 수준의 문법·표현 항목을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둘째, 선정된 문법·표현 항목을 2단계의 집필 지침에 따라 기술하며, 초급이 아닌 중급 문법·표현 항목인 만큼 집필 지침을 수정, 보완한다. 셋째,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을 2단계의 지침에 따라 집필하되, 역시 중급 학습자에 맞게 지침 내용을 수정, 보완한다.

본 연구에서는 2단계 연구 결과로 정해진 중급 문법·표현 항목을 최종 검토하고, 선정된 중급 문법·표현 항목을 교육 내용을 기술할 것이다. 더불어 대조언어학적인 관점의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을 기술할 것이다.

1.2.1. 중급 문법·표현 항목의 최종 목록

2단계에서 선정된 중급의 문법·표현 항목의 내용을 집필하면서 중급 목록을 최종 확정한다. 집필 전에 선정된 문법·표현 항목은 집필 과정을 통해 변경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체 항목을 집필하게 되면 중급의 문법·표현 항목을 최종 검토한 것이 되고, 이에 따라 중급의 최종 항목이 결정된다.

먼저 2단계에서 선정된 중급 문법·표현 항목을 문법 범주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²⁾

<2단계에서 정련된 중급 문법·표현 항목>(126항목)

조사 (18)	같이, 이고, 이니(이며, 하며, 이다2), 커녕(ㄴ커녕, 는커녕, 은커녕), 이나마(나마), 대로, 이든(이든가, 이든지), 이라고1(라고1, 라3, 이라), 이란(란1), 으로부터, 만큼, 이면(면1), 보고, 뿐, 아(야), 이야(야), 요1, 치고
선어말어미(1)	-었었-
연결어미(33)	-거니와, -거든1, -고도, -고서, -고자, -기에, -느라고, -는다거나1, -는다고1, -는다면1, -는지, -다가1, -다시피, -더니, -더라도, -던데, -도록, -든지2, -듯이, -어다가, -어도, -어야, -어야지1, -으나, -으니2, -으므로, -을래야, -자니까3, -자마자, -니만큼, -을수록, -으려면, -으며
전성어미(1)	-던-
종결어미(22)	-거든2, -게6, -고4, -는구나, -는다, -는다니2, -더군, -더라, -던데2, -어라1, -잖아, -는걸, -는가, -고말고, -기는, -니, -냐, -더라고, -던가, -자, -나, -을걸
표현(51)	-게 하다, -고 나다, -고 들다, -고 말다, -고 보다, -고 싶어 하다, -고 해서, -을 위해, -은 결과, -는 김에, -은 다음에, -는 대로, -는 대신에, -는 듯, -는 만큼, -는 반면, -는 줄, -는 탓에, -는다거나2, -나 보다, -나 싶다, -는 바람에, -는 사이, -는 한, -을 따름이다, -을 테니, -을 텐데, -으면 안 되다, -으면 좋겠다, -어 가다, -어 가지고, -어 놓다, -어 대다, -어 두다, -어 드리다, -어 버리다, -어 오다, -어서인지, -어야겠-, -어지다, -으로 인하여, -만 같아도, -만 아니면, -에 대하여, -에 따라, -에 비하여, -에 의하여, -는다고 하다, -냐고 하다, -라고 하다, -자고 하다

위의 목록 중 집필 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항목은 113항목이다. 범주별로 살펴보면 먼저 조사는 ‘이든’과 ‘이든가’를 별도로 분리하여 집필하여 18항목에서 19항목으로 늘었다.³⁾

연결어미 중 ‘-자니까3’은 ‘버리자니까 아깝고 쓰자니까 쓸 데가 없다’의 ‘-자니까’이다. 말뭉치 빈도도 낮을 뿐 아니라 교재 빈도도 0이라 고급 문법 항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여 고급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또한 ‘-는지, -니만큼, -을수록, -으려면, -으며’는 <토픽>

2) 중급 문법·표현 항목의 선정과 정련에 대한 내용은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2단계)」 제4장을 참고하면 된다.

3) ‘이니, 이며, 하며, 이다2’는 의미 차이가 거의 없어 대표형을 ‘이니’로 하여 함께 기술하기로 하였는데 대표형을 ‘이니’로 삼지 않고 가장 빈도가 높은 ‘이며’를 대표형으로 하였다.

에는 중급 항목으로 선정되어 있으나 <표준 모형 2단계>에서는 고급 항목으로 선정되어 있어 최종적으로 중급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추가된 항목도 있다. ‘-더니’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있더니’는 용법 상 따로 교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목을 나누어 집필하였다. 그 결과 연결어미는 6항목이 줄고 1항목이 늘어 최종적으로 28항목이 집필되었다.

종결어미 중 ‘-는걸, -는가, -고말고, -기는, -냐, -더라고, -던가’ 역시 <토픽>에는 중급으로 선정되어 있으나 <표준 모형 2단계>에서 고급 항목으로 선정되어 있어 최종적으로 중급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집필 과정 중에 인용 방식의 종결어미 ‘-는다니2’와 함께 ‘-는다면서’도 함께 중급에서 교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는다면서1’을 추가하고, 연결어미 ‘-어야지1’과 종결어미 ‘-어야지2’를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종결어미 ‘-어야지’를 중급 항목으로 추가하였다. 그 결과 종결어미는 17항목이 집필되었다.

표현은 간접 인용을 할 때 사용하는 ‘-는다고 하다, -냐고 하다, -라고 하다, -자고 하다’를 별도의 표현 항목으로 집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외하였다. 이 표현 항목은 중급에서 인용문을 가르치면서 한꺼번에 교수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표현 형태보다는 문법 범주로 교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어말어미와 전성어미는 항목 변화가 없다. 최종 집필된 항목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중급 문법 · 표현 항목>(113항목)

조사 (19)	같이, 이고, 이며(이니, 하며, 이다2), 커녕(ㄴ커녕, 는커녕, 은커녕), 이나마(나마), 대로, 이든(이든지), 이든가, 이라고1(라고1, 라3, 이라), 이란(란1), 으로부터, 만큼, 이면(면1), 보고, 뿐, 아(야), 이야(야), 요1, 치고
선어말어미(1)	-었었-
연결어미(28)	-거니와, -거든1, -고도, -고서, -고자, -기에, -느라고, -는다거나1, -는다고1, -는다면1, -다가1, -다시피, -더니, -더라도, -던데, -도록, -든지2, -듯이, -어다가, -어도, -어야, -어야지1, -으나, -으니2, -으므로, -을래야, -자마자, -있더니
전성어미(1)	-던-
종결어미(17)	-거든2, -게5, -고4, -는구나, -는다, -는다니2, -더군, -더라, -던데2, -어라1, -잖아, -니, -자, -나, -을걸, -는다면서, -어야지2
표현(47)	-게 하다, -고 나다, -고 들다, -고 말다, -고 보다, -고 싶어 하다, -고 해서, -을 위해, -은 결과, -는 김에, -은 다음에, -는 대로, -는 대신에, -는 듯, -는 만큼, -는 반면, -는 줄, -는 탓에, -는다거나2, -나 보다, -나 싶다, -는 바람에, -는 사이, -는 한, -을 따름이다, -을 테니, -을 텐데, -으면 안 되다, -으면 좋겠다, -어 가다,

	-어 가지고, -어 놓다, -어 대다, -어 두다, -어 드리다, -어 버리다, -어 오다, -어서인지, -어야겠-, -어지다, -으로 인하여, -만 같아도, -만 아니면, -에 대하여, -에 따라, -에 비하여, -에 의하여
--	--

1.2.2. 중급 문법·표현 항목의 교육 내용 기술 및 집필 지침 보완

중급 문법·표현 항목에는 복합형이 많고 담화화용적 기능에서 부담이 많은 표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중급 문법·표현 항목의 내용 기술에 적합하게 내용 기술의 틀을 수정·보완한다. 또한 예문도 중급 수준에 맞게 수정하도록 한다.

몇 가지 수정·보완된 지침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담화예문을 중급에 맞추어 대화 교대 횟수를 2~3번으로 하고 대신 담화예문을 5개에서 2~3개로 줄임.

담화예문	<p>가: 한국에서 어디가 제일 아름다워요? 나: 제주도가 제일 아름다워요. 가: 맞아요. 제주도만큼 아름다운 곳은 없는 것 같아요.</p> <p>가: 엄마, 나 사랑해? 나: 그럼, 물론이지. 가: 얼마만큼 사랑하는데? 나: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지. 가: 나도 엄마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p>
------	---

- 2) 문법 형태에 따라 문법적 설명이 문법 형태의 기능을 설명하는 데 더 용이한 경우 도입 예문의 끝에 문법적 설명을 선택적으로 붙여 제시함.

<p>(1) 교사: (영화관에서 전화가 오는데 받지 않는 그림을 보여 주며) 지금 여기는 영화관이에요. 전화를 받을 수 있어요? 학생: 아니요. 교사: 왜요? 학생: 영화를 보니까 전화를 받을 수 없어요. 교사: 맞아요. 영화를 보느라고 전화를 받을 수 없어요. '-느라고'는 '-아/어서'와 '-으니까'처럼 '이유'의 의미가 있어요.</p> <p>(2)</p>
--

교사: (숙제를 하다가 잠을 자 버리는 학생 그림을 보여 주며) 숙제를 다 했어요?
학생: 아니요. 다 못 했어요. 자요.
교사: 맞아요.
학생: 숙제하다가 잤어요.
교사: 숙제를 하다가 잤어요. 자느라고 숙제를 못 했어요.

3) 담화 상황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괄호를 사용하여 담화 상황을 제시함.

담화 예문	<p>(공적 인터뷰)</p> <p>가: 저희 고려기획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p> <p>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광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려기획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p> <p>가: 그래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저희 회사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p> <p>나: 감성을 자극하는 광고가 많아 소비자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으나 음료 광고나 식료품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p>
-------	---

4) 문어에서 주로 사용하는 문법 형태는 대화가 아닌 글의 형태로 보임.

담화 예문	<p>(수필)</p> <p>곁에 가까이 두고 사귀는 사람, 오래두고 가까이 교류하는 사람이 바로 친구이다. 친구란 상대의 환경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늘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다.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좋은 일이 있더라도 늘 함께하는 인생의 동지이다. 자신의 삶도 힘드나 상대에게 내색하지 않고 조건 없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이며 상대의 행복을 질투나 시기심 없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p>
-------	---

1, 2단계의 문법 내용 기술 시와 마찬가지로 학교 문법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려하여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교육의 목적 및 학습자 집단의 차이를 반영하여 내용을 기술한다. 또한 학계와 교육 현장에 축적된 연구 성과와 교육 경험을 반영하여 교수에 필요한 실제적인 교육 정보를 제시한다.

1.2.3. 중국인 학습자를 가르치는 한국어교사를 위한 도움말 기술

2단계에서 기술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지침에 따라 중급의 문법·표현 항목

을 기술한다.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풍부한 설명을 제공하여 해당 언어 모국어 학습자를 교수하는 교수자들에게 충실한 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크게 한국어 문법·표현 항목에 대응하는 대응 표현과 중국인 학습자들이 주로 범하는 오류와 그 원인 등을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기술한다.

제2장 문법·표현 내용 기술 지침

1. 본서는 초보 한국어 교사를 위한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기술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초보 한국어 교사’는 한국어교육 경력 1~3년의 교사를 가리키며, 이는 국립국어원의 교사 교육 프로그램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2. 학습자의 수준에 따른 초급, 중급, 고급 문법·표현 항목은 국립국어원의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I,II(2010, 2011)의 수준별 문법 항목을 1차 대상으로 하되,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1단계)」(2012)에서 제시한 항목 정련 기준에 따라 부분적인 수정을 하였음을 밝힌다.
3. 기술에 사용된 문법 용어 중 반복되어 나타나며, 개념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용어들은 따로 <문법 용어 해설>을 두어, 개념 설명을 하였다. (2단계 보고서 참고)
4. 본서는 초보 한국어 교사들에게 교수에 필요한 문법·표현 내용 기술을 위해 국립국어원에서 출간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의 사전식 기술을 따르지 않고, 교안 작성에 필요한 의미 및 용법 설명과 예문, 학습자 오류와 이에 대한 설명, 그리고 혼동하기 쉬운 유사 문법 설명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5. 각 기술 필드 아래에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을 두어 중국어 화자를 교수하는 교사들이나 학습자들이 알아 두면 좋을 중국인 학습자들의 빈번한 오류 유형을 제시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2.1. 기술 필드

2.1.1. 기술 필드 분류

<기술 필드>	
1. 표제어	
2. 의미 및 용법, 예문	
3. 도입	
4. 형태 정보	
5. 문장 구성 정보	
6. 제약 정보	
7. 확장	
8. 유사 문법	

※ 기술 필드 구성 및 배열

· 크게 3단계로 구성

1~3: 용법과 예문

4~6: 해당 문법 항목의 기본적인 문법 내용

7~8: 확장된 해당 급의 용법과 해당 급 이상의 문법 내용

· 필드의 배열 및 내용

1~3: 문법 항목의 제시 및 예문을 통한 의미 및 용법 이해를 목표로 함.

4~5: 형태 정보와 문장 구성 정보를 통해 해당 문법 항목을 연습하고 활용하도록 함.

6: 주요 제약 정보를 익혀 오류를 최소화함.

7: 기본적인 해당 급의 문법 내용 이상을 요구하는 학습자를 위해 교사가 알아 두면 좋을 문법 지식과 중·고급 단계에서 필요한 용법을 제공함.

8: 유사 문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1.2. 각 필드의 내용

2.1.2.1. 표제어 제시

- 기술할 항목을 제시하는 필드이다.
- 대표형(1단계 사업 결과 반영)을 먼저 제시하고, 이형태, 관련형, 문법 범주, 간단한 의미를 차례로 기술한다.
- 의미 기술은 국립국어원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를 준용한다.

2.1.2.2. 의미 및 용법, 예문

- 의미 및 용법은 표제어에서 기술한 의미 단위에 따라 별도로 기술된다.

- 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쉽고 정확한 설명을 지향한다.
- 예문은 담화 예문과 문장 예문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 담화 예문은 해당 문법 항목이 자주 사용되는 담화 예문을 보여 줌으로써 의미를 좀 더 선명히 하고 상황에 맞게 문법 항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문장 예문 역시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예문을 보여 주는 것이 원칙이며, 문법 항목의 연습을 위해 다양한 결합 관계를 보인다.

2.1.2.3. 도입

- 도입은 교사가 문법 항목을 교수할 때 그 항목을 도입하기에 적절한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최소 두 개를 제시하되, 교실 내 환경을 이용하는 상황을 주로 제시하고 그림이나 사진을 이용하여 도입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 이를 제시한다.
- 도입에 의해 제시되는 문법 항목의 의미와 용법은 동일한 것인데 경우에 따라 더 큰 의미에 포함되는 세부적 의미가 포함되기도 한다.

2.1.2.4. 형태 정보

- 문법 항목으로 문장을 만들기 위한 기초 단계로, 해당 급에서 주로 사용되는 어휘와의 결합형을 규칙화하여 보여 주는 것이 목적이다.
- 수업 시간에서 다루어지는 불규칙 정보를 포함한다.
- 기술과 예시를 같이 보여 준다.

2.1.2.5. 문장 구성 정보

- 문장 구성 정보는 해당 항목으로 어떤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지 기술하는 필드이다.
- 자주 같이 사용되는 부사나 서술어, 문법 항목 등을 예문과 함께 기술한다.
- 문장 구성 정보는 패턴화하여 가르치는 정보를 말한다.

2.1.2.6. 제약 정보

- 문장을 구성하는 데 제약으로 설명해야 하는 내용을 기술하는 필드이다.
- 학습자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제약 정보 내용을 기술한다. 학습자 오류와 관계가 없다면 [형태 정보]에서 기술한다.

2.1.2.7. 확장

- 확장은 관련형의 용법과 해당 급에서 가르치지 않지만 알아두면 좋을 추가적 용법, 해당 급 이상의 용법을 기술하는 필드이다.
- 고급 용법은 사전식으로 의미를 세분화하지 않고 교수 시 필요한 용법을 단위로 하여 제시한다.

2.1.2.8. 유사 문법

- 교사나 학습자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유사 문법을 문법 설명과 예문을 함께 들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필드이다.
- 의미와 용법이 비슷하여 자주 오류를 보이는 문법 항목을 비교, 대조한다.

- 유사 문법 항목은 해당 급이 아닌 다른 등급에서 가르치는 경우도 기술한다.

※ 각 필드별로 상세 설명이 필요한 경우 + 기호를 사용하여 설명을 덧붙인다.

2.2. 필드별 지침

2.2.1. 표제어

- ‘대표형+이형태+문법 범주+간단한 의미 기술’의 순서로 기술한다.(※대표형 1단계 보고서 참고)

과[와][조사]: 1) 여러 사물이나 사람을 **연결**하거나 2) 행위를 **함께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

- 형태적 이형태가 아닌 경우, 즉 관련형은 { }로 표시한다.

-기 때문에{N 때문에/-기 때문이다}[표현] 어떤 일의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

- 표제어 표기: ① ‘붙임표’가 필요한 어미는 붙임표를 사용한다. ② 용언으로 끝나는 항목은 기본형 ‘-다’로 표기한다. ③ 1단계의 어깨번호를 유지한다. 이 어깨번호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 2」의 동음이의어 표지이다. ④ 진하게 표시한다.
- 문법 범주: 1단계에서 정리한 ‘조사(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 연결어미, 전성어미, 종결어미, 선어말어미, 표현’을 사용한다.
- 표제어에는 결합 정보를 제시하지 않는다.
- 간단한 의미 기술: ① 국립국어원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를 준용하되 다른 사전 및 교재의 의미 기술이 더 정확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이를 택한다. ② 교재, 참고 자료 등을 참고하여 교수하는 의미 단위를 제시한다. 이 의미 단위별로 나머지 다른 필드의 기술이 이루어진다. 의미가 두 개 이상일 때는 1), 2) 번호를 붙인다. ③ 주요 의미를 진하게 표시한다.

-어 있다[-아 있다/-여 있다][표현] 결과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표현.

-고 있다[표현] 1) 동작의 진행 2) 결과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표현.

2.2.2. 의미 및 용법, 예문

2.2.2.1. 의미 및 용법

- ‘결합정보+의미+용법’의 순서로 기술한다.
- 결합정보는 ‘~에 붙어’를 사용하며 소괄호로 표시한다.
- 체언은 ‘명사’라고 표현한다.⁴⁾

4) 국립국어원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 2」에서는 체언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명사’를 사용하였다. 「한국

- 용언은 ‘동사, 형용사, 이다(아니다)’를 구분한다.
- 동사 및 ‘있다, 없다’와 결합하는 경우 “동사나 ‘있다, 없다, 계시다’에 붙어”를 사용한다.
예) -는
- 의미는 ‘나타낸다’, 용법은 ‘사용한다’를 사용하여 일관성 있게 기술한다.

-고 있다1): (동사에 붙어) 어떤 동작이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지금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때 사용한다. 또한 진행의 의미가 확장되어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지속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때는 주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요즘 하고 있는 일을 설명할 때 사용한다.

- 종결어미, 표현 등은 기능을 밝혀 기술하는 것을 권장한다.

-고1):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어떤 상태나 행위를 나열함을 나타낸다. 시간의 순서와 관계없이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이나 내용을 대등하게 연결할 때 사용한다.

- 문법 정보 기술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 다음 예처럼 그 의미를 1), 2)로 나누어 기술하여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지 않는다.

-고 보다: (동사에 붙어) 1) ‘-고 보자/봅시다’ 등의 구성으로 쓰여 앞으로의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어떤 일을 먼저 할 것을 제안함을 나타낸다.
2) ‘-고 보니, -고 보면’의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한 후 뒤의 내용을 받아들이거나 새롭게 깨닫게 됨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 문어에 사용되는지, 구어에 사용되는지 기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시한다.

-고자: (동사나 ‘이다’에 붙어) 말하는 이가 뒤 절의 행위를 하는 목적이나 의도 및 희망을 나타낸다. 주로 문어에 사용한다.

- 구어에서 생략형이 사용되는 경우 이를 정보로 기술한다.

-는 대신에1): (동사에 붙어) 앞 절의 행위를 하지 않고 뒤 절의 행위로 대체함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구어에서는 ‘에’를 생략한 ‘-는 대신’을 더 많이 사용한다.

2.2.2.2. 예문

2.2.2.2.1. 담화 예문

- 문법 항목의 용법을 이해하고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의 담화 예문을 제시한다. 초급은 한 번 교대하는 예문을 4~5개 제시하며, 중급은 두 번 내지 세 번 교대하는 예문을 2~3개 제시한다.
- 도입의 예문이나 문장 예문과 겹치지 않는 상황으로 가장 전형적인 예를 들도록 한다.

담화예문	가: 감독님,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나: 감사합니다. 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 모든 선수들이 함께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

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 1단계」에서도 이를 따라 ‘명사’로 체언을 대표하였다.

	<p>가: 네, 선수들이 모두 열심히 노력한 결과 우승을 하게 되었군요. 우승을 정말 축하드립니다.</p> <p>가: 이번에 시행된 TOPIK 시험에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나: 전문적인 어휘가 많이 나와서 좀 어려웠습니다. 가: 그렇군요. 줄리아 씨는 어떻게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었나요? 나: 매일 신문을 읽고 기사에 나오는 모르는 어휘들을 열심히 암기한 결과 이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p>
--	--

- 가능하면 결합 정보를 모두 보여 줄 수 있도록 담화예문을 작성한다.
- 담화 상황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괄호를 사용하여 담화 상황을 제시한다.

담화 예문	<p>(공적 인터뷰)</p> <p>가: 저희 고려기획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광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려기획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가: 그래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저희 회사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 감성을 자극하는 광고가 많아 소비자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으나 음료 광고나 식료품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p>
-------	---

- 정보성이 없는 대화는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예) **교사:** (영화를 보는 그림을 보여 주며) 왜 영화관에 가요?

학생: 영화를 봐요.

- 격식적인 담화에서 사용하는 문법 형태는 대화가 아닌 글의 형태로 보일 수 있다.
예) -습니다
- 문어에서 주로 사용하는 문법 형태는 대화가 아닌 글의 형태로 보일 수 있다.
예) -으나

담화 예문	<p>(수필)</p> <p>곁에 가까이 두고 사귀는 사람, 오래두고 가까이 교류하는 사람이 바로 친구이다. 친구란 상대의 환경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늘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다.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좋은 일이 있더라도 늘 함께 하는 인생의 동지이다. 자신의 삶도 힘드나 상대에게 내색하지 않고 조건 없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이며 상대의 행복을 질투나 시기심 없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p>
-------	--

2.2.2.2.2. 문장 예문

- 문장 예문으로 문법·표현 항목을 연습할 수 있도록 전형적인 예문을 예로 든다.
- 주어가 있는 문장을 예로 드는 것이 원칙이나 1인칭 대명사가 주어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

- 예문은 10여 개를 제시한다.
- 도입이나 담화 예문과 겹치지 않는 예문을 만든다.
-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패턴을 보인다.
- 종결어미 ‘-어요’나 ‘-다’를 사용하는 문장의 예를 주로 보이되, 예문 말미에 격식적 어미인 ‘-습니다’의 예를 한두 개 정도 제시한다.
- 격조사 예문의 기술 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격조사가 결합된 어절의 성분을 고려하여 기본 문형의 예문을 먼저 제시한다.
예) 장소의 ‘에’
 - ② 받침에 따라 교체를 하는 경우 받침 있는 명사 뒤의 형태를 먼저 제시한다.
 - ③ 결합 빈도가 높은 명사를 먼저 배열하며, 다양한 명사 결합(사람, 사물, 동물, 장소 등)을 보인다.
- 보조사 기술 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 여러 성분과의 결합 관계를 제시한다.
 - ② 명사 외의 품사와 결합하는 경우 이를 제시한다.
 - ③ 연결 어미 뒤에 결합하는 조사를 기술한다.
- 어미 기술 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첫 번째 예문은 ‘-다’ 형식의 긍정문, 현재, 받침 있는 어간, 규칙형의 예로 한다.
 - ② 용언 결합형 → 이다, 아니다 → 있다, 없다(필요 시 넣음) 순으로 한다.
 - ③ 2에서 동사, 형용사의 결합 형태가 다르면 동사, 형용사 순으로 한다.
 - ④ 규칙 받침 o → 규칙 받침 x → 이형태나 음운 축약, 합음의 예(1~2개) → 불규칙 순으로 한다.
 - ⑤ 시제 형태소 제약이 있는 문장 예문은 후반부에 보인다.

2.2.2.2.3. 상세 설명

- 예문 아래 해당 문법 항목의 의미나 용법에 대한 상세 설명을 덧붙인다. 이때 시작하는 기호는 ‘+’이다.
- 예문에 대한 상세 설명은 담화 예문이나 문장 예문을 모두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단 예문과 용법을 연결시켜 설명한다.
- 의미 및 용법의 상세 설명에는 예문을 활용하여 의미 및 용법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여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필요한 경우 학교문법적 설명을 할 수 있다.

2.2.3. 도입

- 교실 내 환경을 이용하는 상황을 주로 제시하고 그림이나 사진을 이용하여 도입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 이를 제시한다.
- 도입은 교사와 학습자의 대화로 제시한다.
- 중급 항목의 경우 문법적 설명이 도입에 더 용이한 경우 도입 예문의 끝에 문법적 설명을 선택적으로 붙여 제시한다.

(1)

교사: (영화관에서 전화가 오는데 받지 않는 그림을 보여 주며)
 지금 여기는 영화관이에요. 전화를 받을 수 있어요?
 학생: 아니요.
 교사: 왜요?
 학생: 영화를 보니까 전화를 받을 수 없어요.
 교사: 맞아요. 영화를 **보느라고** 전화를 받을 수 없어요.
 '-느라고'는 '-아/어서'와 '-으니까'처럼 '이유'의 의미가 있어요.

- 목표 문법을 도입하고 설명을 붙이는 경우 이 설명은 예문 상황을 이용해서 한다. 설명이 필요 없으면 하지 않는다. 설명에서 '행위, 상태' 등의 용어는 쓰지 않는다.

교사: (의자에 앉은 후) 선생님이 지금 앉았어요, 섰어요?
 학생: 앉았어요.
 교사: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있어요. 선생님은 의자에 **앉아 있어요**.

- 도입에 의해 제시되는 문법 항목의 의미와 용법은 동일한 것인데 경우에 따라 더 큰 의미에 포함되는 세부적 의미가 포함되기도 한다.
- 도입 예문 아래 해당 문법 항목을 도입하는 방법에 관한 상세 설명을 덧붙인다. 이때 시작하는 기호는 '+'이다.

2.2.4. 형태 정보

- 문법 항목으로 문장을 만들기 위한 기초 단계로, 주로 사용되는 동사, 형용사와의 결합형을 규칙화하여 보여 주는 것이 목적이다. 문장 패턴 드릴에 활용할 정보를 준다.
- 축약형도 형태 정보에서 제시한다.
 예) 의: '나의'가 '내'로 축약되는 예
- 규칙형 뒤에 불규칙형을 제시한다.
- 예시는 형태별로 4~6개를 제시한다.
- 규칙형은 추가로 표로 정리해서 보여 준다.

①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으십시오'를 쓴다.	
예) 읽- + -으십시오 → 읽으십시오	앉- + -으십시오 → 앉으십시오
잡- + -으십시오 → 잡으십시오	찾- + -으십시오 → 찾으십시오
참- + -으십시오 → 참으십시오	먹- + -으십시오 → 먹으십시오
②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십시오'를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가- + -십시오 → 가십시오	쓰- + -십시오 → 쓰십시오
오- + -십시오 → 오십시오	하- + -십시오 → 하십시오
살- + -십시오 → 사십시오	만들- + -십시오 → 만드십시오

- + '-으십시오'는 동사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며, 특히 'ㄹ' 받침으로 끝나는 동사의 경우는 'ㄹ'이 탈락하고 '-ㄴ'이 결합한다.
- + 학습자들이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와 같이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 발음은 '-으십시오'로 나지만 동사 어간에 '-으십시오'가 붙은 형태이므로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로 쓰도록 주의한다.

①	받침 o	+ -으십시오	읽으십시오, 앉으십시오, 잡으십시오, 찾으십시오, 참으십시오, 먹으십시오
②	받침 x	+ -십시오	가십시오, 쓰십시오, 오십시오, 하십시오
	ㄹ 받침	+ -십시오 (어간 'ㄹ' 탈락)	사십시오, 만드십시오

③ 불규칙 동사

- 듣- 예)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 눕- 예) 어서 침대에 **누우십시오**.
- 낮- 예) 감기 빨리 **나으십시오**.

- 한 항목의 두 번째 의미를 기술할 때는 형태 정보를 상세히 기술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기술한다.
예) -고 있다2): 앞의 '-고 있다1)'을 참고하되, 일부 동사와만 결합하므로 이에 주의한다.
과2): 앞의 '과1)'을 참고한다.
- 설명되지 않은 형태 오류는 맨 마지막에 '✓' 기호를 하고 보인다.
예) -지만: ✓ 마셔지만(x), 마시지만(o)
- 기술 용어와 예시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동사, 형용사와 모두 결합하는 경우는 동사, 형용사 순으로 예를 보인다.
 - 예시 순서는 다음과 같다.: 받침o → 받침x → 음운 축약 → 합음 → 'ㅡ' 탈락 → 피동사(음운 축약의 예)
 - 불규칙 용어는 문장 예를 보인다. 불규칙 동사의 순서는 ㄷ, ㅂ, ㅅ, ㅎ, ㄹ 순으로 하되, 어휘는 초급에 해당하는 것만 제시한다.

1) 어/아 교체

- 기술 순서와 용어: 동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ㅏ, ㅑ'인 경우 '-아 있다'를 쓴다/동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ㅓ, ㅕ'가 아닌 경우 '-어 있다'를 쓴다/-'하다'가 붙은 동사 어간에는 '-여 있다'를 쓰는데, 흔히 줄여서 '해 있다'로 쓴다.

① 동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ㅏ, ㅑ'인 경우 '-아 있다'를 쓴다.

- | | |
|-----------------------|---------------------|
| 예) 남- + -아 있다 → 남아 있다 | 앉- + -아 있다 → 앉아 있다 |
| 살- + -아 있다 → 살아 있다 | 가- + -아 있다 → 가 있다 |
| 오- + -아 있다 → 와 있다 | 나오- + -아 있다 → 나와 있다 |

② 동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ㅌ, ㅊ'가 아닌 경우 '-어 있다'를 쓴다.

예) 들- + -어 있다 → 들어 있다 죽- + -어 있다 → 죽어 있다
 피- + -어 있다 → 피어 있다/퍼 있다 서- + -어 있다 → 서 있다
 닫히- + -어 있다 → 닫혀 있다 놓이- + -어 있다 → 놓여 있다

③ '-하다'가 붙은 동사 어간에는 '-여 있다'를 쓰는데, 흔히 줄여서 '해 있다'로 쓴다.

예) 입원하- + -여 있다 → 입원해 있다 정지하- + -여 있다 → 정지해 있다

①	ㅌ, ㅊ	+ -아 있다	남아 있다, 앉아 있다, 살아 있다, 가 있다, 와 있다, 나와 있다
②	ㅌ, ㅊ 이외	+ -어 있다	들어 있다, 죽어 있다, 피어 있다(퍼 있다), 서 있다, 닫혀 있다, 놓여 있다
③	-하다	+ -여 있다 (-해 있다)	입원해 있다, 정지해 있다

④ 불규칙 동사

붙- 예) 비가 많이 와서 한강의 물이 **붙어 있어요.**

눕- 예) 감기에 걸려서 **누워 있었어요.**

붓- 예) 어제 넘어져서 다리가 계속 **부어 있어요.**

- 예시는 받침 있는 동사, 'ㄹ' 받침 동사, 받침 없는 동사, 형용사 순으로 한다.
- 줄여 쓰는 형태에 대한 기술
 예) -어서
 + 어간 음절이 'ㄴ'로 끝나면 반드시 '서서'와 같이 줄여서 쓴다.
 + 어간 음절이 'ㄷ'로 끝나면 줄여서 '뒤서, 꺾서'와 같이 쓴다.
 + 이음절 이상의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ㅡ'일 때는 'ㅡ' 앞의 끝음절 모음에 따라 교체한다. 이때 'ㅡ' 모음은 탈락한다.
 + 어간 음절이 'ㅣ'로 끝나면 흔히 줄여서 '막혀서, 마쳐서'와 같이 쓴다. 어간 음절이 'ㄹ, ㄱ'로 끝나면 '보내서, 세서'로 줄여서 쓴다.

2) 받침 유무에 따른 교체

- 기술 순서와 용어

조사: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받침이 없으면 '∼'를 쓴다.

어미, 표현: 동사(및 형용사) 어간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없으면 '∼'를 쓴다.

①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과'를 쓴다.

② '이다, 아니다'는 '-지만'을 쓴다. 단,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주로 '명사+-지만'이라고 쓴다.

예) 학생이- + -지만 → 학생이지만 책이- + -지만 → 책이지만
 의사이- + -지만 → 의사이지만/의사지만 사람이- + -지만 → 사람이지만
 가수이- + -지만 → 가수이지만/가수지만 아니- + -지만 → 아니지만

+ 'N+-지만'은 격식적인 문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5) 기타 상세 설명의 기술 용어

- + 이음절 이상의 어간 끝음절 모음이 '으'일 때는 '으' 앞의 끝음절 모음에 따라 교체한다. 이때 '으' 모음은 탈락한다. 참고) -어도 되다
- + '이 아니다'의 '이'는 주격 조사 '이'와 형태가 같은 보격 조사로 주격 조사와 마찬가지로 명사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 참고) 이 아니다
- + 'ㄹ' 받침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명사형 어미 '-ㅁ'이 결합할 때 'ㄹ' 받침이 탈락하지 않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참고) -음
- + '-은'은 동사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며, 특히 'ㄹ' 받침으로 끝나는 동사의 경우는 'ㄹ'이 탈락하고 '-ㄴ'이 결합한다. 참고) -은
- + '-으면'은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데, 'ㄹ' 받침으로 끝나는 경우는 다른 받침과 달리 '-으면'이 아니라 '-면'이 결합한다. 참고) -으면
- + '가습니다', '요리합니다'는 격식적인 문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참고) -ㅂ니다
- + '아니다'에 어미 '-어요'가 붙은 '아니어요'는 줄여서 '아녀요'라고 쓴다. '아니여요'는 잘못된 표기이다. 참고) -어요
- + '-고 있다'는 동사와 결합하며, 어떤 동사가 와도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2.2.5. 문장 구성 정보

- 결합의 정도성에 따라 문장 구성 정보와 확장의 내용이 구분된다. 즉 문장 구성 정보는 패턴화하여 가르치는 정보를 말한다.

예) 문장 구성 정보의 예: -을테니까 ~ 하세요 / 비록 -을지라도 / 만약 -으면

확장의 예: 지금 -고 있다

- 제시 순서: 결합 용언(필요한 경우), 자주 같이 사용되는 부사나 서술어, 호응 구문, 부정문, 높임법

1) 유형 1: 결합 용언

① 착용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와 감정 및 인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타동사와 결합한다.

예) 동생이 시계를 **차고 있어요**.
 동생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 결합되지 않은 용언은 제약 정보에서 다룬다. 참고) -고 있다: 순간 동사와의 결합 제

약은 제약 정보에서 기술

2) 유형 2: 자주 같이 사용되는 부사나 서술어

① 현재 진행의 의미를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 '지금'과 같은 부사가 함께 사용된다.

예) 가: 지갑을 찾았어요?
나: 아니요, 지금 **찾고 있어요**.

예) 비록 -을지라도 / 만약 -면

3) 유형 3: 호응 구문

예) -을 테니까 ~하세요

4) 유형 4: 부정문, 높임법, 시제에 대한 정보

- 학습자들이 궁금해 하거나 오류를 보이는 정보를 기술한다.
- 부정문에 대한 정보는 부정 요소가 두 군데 전부 결합할 시, 뭔가 설명이 필요할 때 한다. 예를 들어 '-는 동안에'는 부정에 대한 정보가 필요 없으며, '-어야 되다'는 필요 하다.

② 부정문은 '-고 있지 않다, 안 -고 있다'로 쓴다. '안 -고 있다'는 주로 구어에서 쓴다.

예) 지금 비가 **오고 없어요**. (x)
지금 비가 **오고 안 있어요**. (x)
지금 비가 **오고 있지 않아요**. (o)
지금 비가 **안 오고 있어요**. (o)
지금 비가 **오지 않고 있어요**. (o)

③ 문장의 주체를 높일 경우에는 '-고 계시다'로 쓴다.

예) 할아버지께서 신문을 **보고 있으세요**. (x)
할아버지께서 신문을 **보고 계세요**. (o)

- 시제 정보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④ 과거는 '-고 있었다'로 쓴다. '-고' 앞에 '-었-'을 붙이지 않는다.

예) 눈이 **내렸고 있어요**. (x)
눈이 **내렸고 있었어요**. (x)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o)

※ 만약 '-었-'이나 '겠-' 중 하나라도 결합 제약이 있으면 제약 정보에서 같이 기술한다.

① 과거는 '-었기 때문에'로 쓴다.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밥을 다 **먹었기 때문에** 배가 불러요. (o)
밥을 다 **먹겠기 때문에** 배가 부를 거예요. (x)

2.2.6. 제약 정보

- 제약 정보에는 조사, 어미 등 문법 범주에 따라 제약으로 설명하는 것이 교수에 효과적인 정보를 말한다.
- 조사의 경우 조사 결합 제약은 제약 정보에서 제시한다.
예) 은1: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
- 어미의 경우 동사, 형용사 등 결합 제약, 주어 인칭 제약, 동일 주어 제약, 시제 형태소 제약, 문장 종결 제약 등이 있다.

①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날씨가 **춥고 있습니다**. (x)

수지가 **예쁘고 있습니다**. (x)

+ 형용사 뒤에 '-어지다'가 결합하여 동사가 되면 '-고 있-'이 결합할 수 있다.

- 이때 제시 순서는 동사·형용사 등 결합 제약, 주어 인칭 제약, 동일 주어 제약, 시제 형태소 제약, 문장 종결 제약, 기타로 한다.
- 동일 주어 제약이 있는 연결어미에 의한 접속문은 후행절의 주어를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제약이라고 할 수 없으나 학습자들이 오류를 자주 범하는 경우 이를 기술해 준다.
- 시제 형태소 제약에는 선행절에 시제 형태소를 사용할 수 없는 제약도 있고, '-지만'의 예처럼 선행절의 시제를 절대시제로 표시해야 하는 제약도 포함된다.
- 기술 용어: 과거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 문장 종결 제약의 기술 용어는 다음과 같이 한다.
예) 뒤 절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없다.
- 간략히 표로 제시할 수 있으면 표를 사용한다.

2.2.7. 확장

- 확장에는 해당 급에서 다루어지지 않지만 교사가 숙지하고 있어야 할 문법 정보와 중·고급 용법을 포함한다.
- 확장에 포함되는 정보는 관련형의 용법, 준말/본말, 자주 결합해서 사용하는 조사, 조사 생략, 관용적 용법 등이 포함된다.
- 제시 순서: 해당 급 이상의 용법을 맨 뒤에 제시한다.

1) 유형 1: 관련형의 용법

① 'N 때문에'의 구성으로 쓰기도 한다. 'N'만으로 이유나 원인을 추측할 수 있을 때 사용한다.

예) 저는 **부모님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싶기 때문에/효도하기 위해)

비 때문에 길이 막힌다. (비가 오기 때문에/비가 와서 앞이 잘 안 보여서..)

너 때문에 오늘 학교는 못 가겠다.

+ 'N+(이)기 때문에'는 '()이 N+이다'라는 문장에 '-기 때문에'가 결합한 것이므로 위의 문장을 아래의 문장으로 대체할 수 없다.

예) 저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요. (x)

비이기 때문에 길이 막힌다. (x)

너이기 때문에 오늘 학교는 못 가겠다. (x)

+ 'N+(이)기 때문에'의 구성으로 쓸 수 있는 문장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예) 저는 **아빠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합니다.

(나는 아버지므로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 주어와 N이 같음)

저는 **아빠 때문에** 열심히 일합니다.

(아빠에게 효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주어와 N이 같지 않음)

② '-기 때문이다'의 구성으로 쓰기도 한다. 문어에서는 주로 '왜냐하면'과 결합하여 사용한다.

가: 왜 한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예) 나: 한국 가수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 '-기 때문이다'를 사용하면 이유가 뒤 절에 온다.

예) 저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 제가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은 이유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2) 유형 2: 준말/본말

① '-지만'은 '-지마는'의 준말이다. 보통 '-지만'을 더 많이 사용한다.

예) 형은 키가 **크지만** 나는 키가 작아요.

= 형은 키가 크지마는 나는 키가 작아요.

나는 비록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청춘이다.

= 나는 비록 몸은 늙었지만은 마음은 청춘이다.

3) 유형 3: 자주 결합해서 사용하는 조사

① '는, 도, 만' 등의 조사와 함께 쓰인다.

예) 어머니**께서**는 늦게 주무세요.

할머니**께서도** 텔레비전을 보십니다.

아버지**께서만** 집에 일찍 들어오셨어요.

할아버지**께서만** 음식을 드십니다.

4) 유형 4: 조사 생략

③ 비격식적인 구어에서는 흔히 '을'을 생략한다. 격식적인 구어나 문어에서는 '을'을 잘 생략하지 않는다.

예) 커피∅ 잘 안 마셔요.

휴지∅ 주세요.

수업이 끝나고 누구~~도~~ 만나요?
식사 후에 어디~~로~~ 가요?

5) 유형 5: 관용적 용법

② '미안하다, 죄송하다, 실례하다' 등에 붙어, 부탁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상황에서 관용적으로 쓰인다.

예) **미안하지만** 그 책 좀 나한테 줘.
죄송하지만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실례지만 지금 어디 계세요?
바쁘시겠지만 같이 좀 갑시다.

6) 유형 6: 해당 급 이상의 용법

② 어떤 상황의 원인임을 나타낸다.

예) 이번 태풍**에** 집이 무너졌어요.
큰 소리**에**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비**에** 옷이 젖었어요.
오랜 유학 생활**에** 건강이 안 좋습니다.

2.2.8. 유사 문법

- 유사 문법은 해당 급의 항목과 유사한 모든 문법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설명은 두 항목 모두에서 한다.
- 각 용법에 따라 비교할 수 있도록 설명과 예시를 함께 제시한다.
- 화용적 차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제외. 화용인지 문법인지 헷갈릴 때, 관습화된 화용적 정보는 집필. (불분명한 것은 제외)
- 표로 제시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다.
 - 표 형식: ① 위에 항목을 쓰되, 왼쪽에 집필 표제어, 오른쪽에 유사 문법 항목(따옴표 사용하지 않음)을 쓴다. ② 첫 비교 칸에는 유사점을 쓴다.(의미 및 용법의 유사점. 공통적인 통사적 정보는 기술하지 않는다.) ③ 다음 칸에는 칸을 나누어 차이점을 기술한다.
- 2단계(초급)에서 기술한 유사 문법이 있는 경우 초급의 설명을 기초로 하되 수정 및 보완을 한다. *최종 서비스 단계에서 검토할 예정임.

으로	예3)
. 행위가 향하는 목적지를 나타낸다. 예) 수업이 끝나면 식당 에 오세요. 수업이 끝나면 식당 으로 오세요.	
· 도착점을 나타낼 때 쓸 수 없다. 예) 나는 서울 로 도착했다. (x)	· 도착점을 나타낼 때 쓸 수 있다. 예) 나는 서울 에 도착했다. (o)

· 목표점이나 방향, 경유지를 나타낼 때 쓸 수 없다. 예) 나는 부산 으로 떠났다.(목표점) (o) 화장실에 가려면 아래로 내려가세요.(방향) (o) 이 길 로 돌아가면 빠르다.(경유지) (o)	· 목표점이나 방향, 경유지를 나타낼 때 쓸 수 없다. 예) 나는 부산 에 떠났다.(목표점) (x) 화장실에 가려면 아래에 내려가세요.(방향) (x) 이 길 에 돌아가면 빠르다.(경유지) (x)
---	--

-어서1)	-으니까1)	-기 때문에
-------	--------	--------

· 어떤 일의 이유나 원인을 나타낸다.

· 과거 '-었-'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비가 왔어서 여행을 취소했다. (x)	· 과거 '-었-'과 결합한다. 예) 비가 왔으니까 여행을 취소했다. (o)	· 과거 '-었-'과 결합한다. 예) 비가 왔기 때문에 여행을 취소했다. (o)
· 뒤 절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이 올 수 없다. 예) 비가 와서 여행을 <u>취소</u> 하자. (x)	· 뒤 절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이 올 수 있다. 예) 비가 오니까 여행을 <u>취소</u> 하자. (o)	· 뒤 절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이 올 수 없다. 예) 비가 오기 때문에 여행을 <u>취소</u> 하자. (x)

- 표 아래에는 '+'를 사용하여 상세한 설명을 덧붙인다.

-은 후에	-기 전에
-------	-------

· 앞 절과 뒤 절의 시간의 선후 관계를 나타낸다.

· 앞 절의 행위가 뒤 절의 행위보다 먼저임을 나타낸다. · 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A, B라고 했을 때, 'A 은 후에 B'의 구성이 된다. 예) 철수는 운동을 한 후 샤워를 해요. 수지는 신문을 본 후 출근했어요.	· 앞 절의 행위가 뒤 절의 행위보다 나중임을 나타낸다. · 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A, B라고 했을 때, 'B 기 전에 A'의 구성이 된다. 예) 철수는 샤워를 하기 전에 운동을 해요. 수지는 출근하기 전에 신문을 봤어요.
---	---

+ '-은 후에'는 '후(後)'라는 한자어의 의미대로 이 절의 행위가 뒤 절의 행위보다 앞서 있거나 '-기 전에'는 '전(前)'이라는 한자어의 의미대로 이 절의 행위가 뒤 절의 행위보다 뒤에 일어남을 뜻한다. 그러므로 두 표현을 사용하여 동의의 문장을 만들려면 앞뒤의 동사가 바뀐다.

2.3.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2.3.1. 주요 내용

- 중국어 화자를 교수하는 교사들에게 기존 한국어 문법서에서 기술하지 않았던 중국어와의 대조언어학적인 정보를 포괄적이고 충실하게 제공하였다. 학습자의 모국어인 중국어와 목표어인 한국어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알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를 예측하고 그 원인을 밝힐 수 있게 하므로 한국어 교수 학습에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여긴다.
- 해당 항목의 한국어 기본 의미 내용 기술에 기초하여 중국어에 대응되는 형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학습자의 오류 말뭉치를 통해 교수·학습상의 난점이나 특징들을 제시한다.
-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은 ‘① 대응 표현’과 ‘② 용법과 오류’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한다.
 - ① 대응 표현에서는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각각의 항목에 대응하는 중국어 문법·표현을 제시한다. 그리고 대응 문법·표현의 한국어 예문과 중국어 예문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해당 문법·표현이 각각의 언어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 ② 용법과 오류에서는 기능 또는 의미상으로 유사하여 대응이 가능하지만 해당 문법·표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비롯한 용법상의 차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학습자들의 오류 예문을 원인별로 제공한다. 언어 간 오류와 언어 내 오류를 제시하고 설명한다. 또한 학습자가 많이 보이는 형태 오류도 기술한다. 기술 내용은 한국어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대조 기술할 것이며 문법적 차이로 발생하는 오류 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아래와 같이 기술할 것이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예) 한국어 문장 - 중국어 문장

② 용법과 오류

예) 대응 표현의 차이로 인한 오류문 제시, 대응 표현이 없어 생기는 오류문 제시, 학습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오류문 제시 등

2.3.2. 지침

① 대응 표현

- 일대일 대응 방식이 가능할 경우, 해당 중국어 문법·표현 항목을 제시한다.

‘하고’

① 대응 표현: ‘和’

- 일대다 대응 방식일 경우, 가능한 대응 표현을 모두 제시한다.

‘한테서’

- ① 대응 표현: '从', '向', '跟'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 대응 방식이 없을 경우, ‘없음’으로 표시한다.

‘-고’

- ① 대응 표현: 대응 표현 없음..

- 예문은 결합하는 방식과 품사의 양상을 다양하게 제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국어와 중국어의 해당 문법·표현을 진하게 표시하여 대응되는 형식을 보여 준다.

‘-었-’

- ① 대응 표현: ‘了’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친구와 같이 영화를 **봤어요**. - 和朋友去看电影了.

주말에 뭘 **했어요**? - 周末做什么了?

철수 씨 말을 듣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 听了哲洙的话, 心情可不好了.

어제 만난 사람이 철수 씨 형이**었어요**. - 昨天见到的那个人是哲洙的哥哥.

- ② 용법과 오류

- 한국어 문법·표현과 중국어 대응 표현의 사용상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제시하고 이로 인한 오류와 원인을 밝히고 오류 예문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교사는 학습자의 오류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유형

- 1) 중국어 대응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용법이 다를 때

‘-으려고1’

- 목적, 의도를 나타내는 ‘-으려고1’은 명령문이나 청유문과 결합하지 않지만 중국어 ‘为’, ‘为了’는 이런 제약이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이번 경기에 우승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x)

책을 빌리려고 도서관에 가세요. (x)

- 2) 중국어에는 한 가지 형식이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어에는 두 가지 이상의 형식이나 의미로 나타날 때

‘마다’

- 조사 ‘마다’와 관형사 ‘매’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이 모두 ‘每.....’이므로 학습자들이 ‘마다’로 실현되어야 하는 상황에 관형사 ‘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대응 표현 ‘每.....’가 명사 앞에 오므로 관형사 ‘매’의 용법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예) 나는 매 방학에 집에 가요. (x)
매 아침에 운동을 합니다. (x)
매 교실에 책상과 의자가 있어요. (x)

3) 중국어에 대응 표현이 없을 때

‘-으시-’

- 중국어에는 대응 표현이 없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으시-’를 사용해야 할 자리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 우리 교수님께서서는 키가 큼니다. (x)
할머니께서는 요즘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x)

- 중국어 예가 필요할 시 첨가한다.

‘-고 보다’

- 과거 ‘-었-’과 결합하지 않지만 대응하는 중국어는 과거완료 표현인 ‘了’가 올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배고프니까 일단 먹었고 보자. (x) - 太饿了, 先吃了再说. (o)
수능 시험을 끝냈고 보면 시원섭섭할 거예요. (x) - 考完了高考, 可能苦乐参半. (o)
늦었으니까 우선 영화표부터 샀고 보자. (x) - 太晚了, 先买了票再说. (o)

- 이런저런 이유로 해당 문법·표현 항목을 회피하는 경우도 용법과 오류에서 기술한다. 이 때 다음과 같이 회피 문장에 물음표(?)를 하고(문장 자체가 비문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뒤에 소괄호를 사용하여 (‘로 표현해야 할 경우)라는 정보를 준다.

‘-로 인하여’

- ‘때문에’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이 없으므로 ‘으로 인하여’를 회피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예) 시간이 부족한 관계 때문에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 (‘으로 인하여’로 표현해야 할 경우)
개인 사정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 (‘으로 인하여’로 표현해야 할 경우)
국제결혼 때문에 다문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 (‘으로 인하여’로 표현해야 할 경우)
선생님께서 몸살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 (‘으로 인하여’로 표현해야 할 경우)

제3장 중급 문법표현 내용 기술의 실제

3.1. 조사

3.1.1. ‘같이’

같이[조사] 비슷하거나 같은 정도임을 나타내는 조사.

같이: (명사에 붙어) 앞 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특징과 비슷하거나 같음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가: 겨울인데 날이 따뜻하네요. 나: 네, 겨울인데 봄같이 따뜻해요. 가: 봄은 또 여름같이 덥고요. 나: 날씨가 점점 이상해져서 걱정이에요.</p> <p>가: 아키라 씨는 한국어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나: 맞아요, 한국 사람같이 잘해요. 가: 저도 아키라 씨처럼 한국어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나: 흐음 씨도 잘해요.</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나 씨는 웃을 때 아이같이 귀여워요. · 우리 아버지는 마음이 바다같이 넓으세요. · 제주도는 그림같이 아름다워요. · 그 사람은 시계같이 정확한 사람이니까 약속에 늦지 마세요. · 저도 저 가수같이 노래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 배나무에 눈같이 하얀 꽃이 피었습니다. · 아이가 인형같이 예뻐요. · 우리 언니는 남자같이 씩씩해요. · 두 사람이 형제같이 친하게 지내요. · 우리 할아버지는 소같이 열심히 일하십니다.

+ ‘같이’는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상태나 특성이 비슷하거나 같음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겨울인데 봄같이 따뜻하다’고 하는 것은 겨울이지만 날씨가 봄과 비슷하다는 것, 즉 그 정도로 따뜻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도입]

(1)

교사: (가족 사진 중 형제나 자매를 가리키며) 이 두 사람은 얼굴이 비슷하지요? 어떤 사이일까요?

학생: 네, 형제인 것 같아요.

교사: 네. 맞아요. 형제예요.

(형제 아니지만 비슷한 두 친구 사진 보여 주며) 이 사람들은 형제가 아니예요. 친한 친구예요. 얼굴이 어때요?

학생: 얼굴이 비슷해요.

교사: 네, 두 사람은 친구이지만 얼굴이 형제 같아요. 형제 **같이** 닮았어요.

(2)

교사: (무서운 인상의 선생님 옆에 호랑이 사진) 이 선생님 별명이 호랑이 선생님이에요. 왜 호랑이 선생님일까요?

학생: 무서운 선생님이에요.

교사: 네, 맞아요. 이 선생님은 호랑이**같이** 무서워요.

+ '같이'를 도입할 때 사진이나 그림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의미를 인지시킬 수 있다.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서 공통 속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시킨 후 마지막으로 교사가 '같이'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시킴으로써 학생들이 목표 문법 '같이'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형태 정보]

① 명사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같이'를 쓴다.

예) 여름 + 같이 → 여름같이

인형 + 같이 → 인형같이

눈 + 같이 → 눈같이

요리사 + 같이 → 요리사같이

자매 + 같이 → 자매같이

시계 + 같이 → 시계같이

①	받침 o	+ 같이	여름같이, 인형같이, 눈같이
	받침 x	+ 같이	요리사같이, 자매같이, 시계같이

[확장]

① 부사격 조사 '와/과'나, 여럿을 나타내는 말(모두, 다)과 함께 쓰여 '함께', 또는 '다름없이'의 뜻으로 쓰인다. 이때 사용되는 '같이'는 명사 뒤에 붙는 조사가 아니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또한 이 경우 '같이'를 '처럼'으로 바꾸어 쓸 수 없다.

예) 주말에 친구와 같이(=함께) 재미있게 놀았어요. (o) / 주말에 친구와**처럼** 재미있게 놀았어요. (x)

모두 같이(=함께) 가요. (o) / 모두**처럼** 가요. (x)

- ② 형용사 '같다'의 활용형 '같은'은 'N 같은 N'의 구성으로 사용되어 비유의 의미를 갖는다. 학습자들이 조사 '같이'와 '처럼'이 대치되어 사용된다는 것을 과적용하여 'N처럼 N' 형태의 오류를 자주 범하기도 한다.

예) 다음 주에도 여름 **같은** 봄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사람은 저한테 동생 **같은** 존재예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저도 민수 씨 **같은** 사람이 좋아요. / 저도 민수 씨처럼 사람이 좋아요.(x)

- ③ 때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에 붙어 그 시간을 강조하는 뜻을 나타낸다.

예) 새벽**같이** 어디에 가는 거야?
 매일**같이** 공부만 해야 해서 너무 피곤해요.

- + '새벽같이 어디에 간다'는 것은 '새벽과 무엇이 비슷하거나 같다'는 뜻이 아니라 새벽이라는 시간을 강조하여 이렇게 이른 새벽에 어디에 가느냐고 묻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매일같이 공부만 한다는 것은 매일과 비슷하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공부한다는 것을 강조해 말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같이'를 '처럼'으로 바꾸면 어색하다.

[유사 문법]

- ① '같이', '처럼'

같이	처럼
앞말이 보이는 모양이나 전형적인 특징과 비슷함을 나타낸다.	
<p>.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과 유사함을 나타낸다.</p> <p>예) 수지 씨 얼굴이 사과같이 빨개요. 선생님같이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의 말씀같이 시험이 어려웠어요. (?) 언니의 예상같이 오늘은 날씨가 더웠어요. (?)</p>	<p>. 앞말이 지시하는 대상의 모양과 유사함을 나타낸다.</p> <p>예) 수지 씨 얼굴이 사과처럼 빨개요. 선생님처럼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의 말씀처럼 시험이 어려웠어요. 언니의 예상처럼 오늘은 날씨가 더웠어요.</p>

- + '처럼'은 큰 의미 차이 없이 조사 '같이'와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나 '불같이 화를 내다', '새처럼 날고 싶다' 등과 같이 비유적인 표현이 굳어져 사용되는 경우는 '처럼'과 '같이'를 바꾸어 사용하면 자연스럽지 않다.

- + '선생님의 말씀같이'가 어색한 것은 '같이'가 앞말의 전형적인 특징과 같음을 나타내는데 '선생님같이'의 경우 선생님의 전형성을 생각할 수 있지만 '선생님의 말씀같이'에서는 '선생님 말씀'의 전형적인 특징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처럼'의 경우 앞에 지시하는 대상의 드러난 특징과 유사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처럼'은 선생님이 하신 말씀과 유사하게라는 의미이므로 자연스럽다.

② '같이', '만큼'

같이	만큼
. 비슷한 두 대상을 비교할 때 사용한다.	
. 비교나 비유 둘 다 사용한다. 예) 집이 운동장 같이 넓다. (o) (비교) 선생님이 꽃 같이 아름답다. (o) (비유)	. 주로 비교할 때 사용한다. 예) 집이 운동장 만큼 넓다. (o) (비교) 선생님이 꽃 만큼 아름답다. (?)

+ '같이'가 비슷한 두 대상을 비교하면서 그 중 하나를 나타내는 말에 붙어 사용할 때 '만큼'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같이'와 '만큼'의 의미는 '같은 정도로'의 뜻을 나타낸다.

+ '만큼'은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를 나타내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꽃같이 아름답다'와 같이 비유의 의미로 사용될 때 '같이' 대신 '만큼'을 대치하면 어색하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像……一样', '跟……一样', '都', '就'

예) 제州도는 그림**같이** 아름답다. - 济州岛像一幅画一样美丽.

거실이 운동장**같이** 넓다. - 客厅跟运动场一样宽敞.

그는 매일**같이** 정시에 출근한다. - 他每天都按时上班.

새벽**같이** 출발하다. - 一大早就出发.

② 용법과 오류

- '같이'는 주로 명사에 붙지만 때로는 '-는 것'과 같은 표현 뒤에 결합하기도 한다. 중국어는 동사가 바로 '像……一样'과 결합하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바늘로 찌르는 **같이** 아프다. (x)

풍경이 그림을 그리는 **같이** 아름답다. (x)

- '같이'와 '처럼'은 모두 중국어의 '像……一样'에 대응되지만 '같이'는 형용사 '같다'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동일함의 의미인 '一样'의 의미와 가깝고 '처럼'은 비슷함의 의미인 '像'의 의미에 더 가깝다. 양자를 혼동하면 아래와 같이 어색한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예) 선생님 말씀**같이** 시험이 어려웠다. (?)

수지가 시체**같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다. (?)

- '같이'와 '만큼'은 모두 비슷한 두 대상을 비교할 때 사용하지만 '같이'는 상태나 특징을 비교하는 의미가 강하고, '만큼'은 정도나 한도를 비교하는 의미가 강하다. 그러므로 정도나 한도를 강조할 때는 '같이'가 사용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제가 얼마**같이** 사랑하는지 아세요? (x)

서양 배는 한국 배**같이** 맛있지 않다. (??)

나도 엄마**같이** 요리를 잘한다. (?)

- ‘같이’는 ‘와 같이’ 형식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때 ‘같이’와 ‘처럼’의 용법을 혼동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예) 그가 하는 것과 **처럼** 하면 돼요. (x)

주말에 친구와 **처럼** 재미있게 놀았다. (x)

3.1.2. ‘대로’

대로[조사] 1)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2)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내는 조사.

대로1): (명사에 붙어) 뒤에 나오는 행동이나 상태가 앞말에 근거하거나 앞말의 내용과 달라짐이 없음을 나타낸다.

[예문]

담화예문	<p>가: 내일부터 좀 일찍 오세요. 나: 네. 가: 전에도 말했는데 왜 계속 지각해요? 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선생님 말씀대로 일찍 오겠습니다.</p> <p>가: 민수야, 텔레비전 그만 보고 시험공부 해라. 나: 네. 그런데 아빠 이번 시험 잘 보면 아이패드 사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가: 그래. 나: 정말 사 주셔야 돼요. 전에도 약속 안 지키셨잖아요. 가: 이번에는 약속대로 아이패드 꼭 사 줄게.</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계획대로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갔다. ·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 드렸어요. · 아키라 씨 말대로 일본은 정말 덥더라구요. · 저 사람을 법대로 처벌해 주세요. · 설명서대로 했는데도 세탁기가 안 돌아가요. · 시킨 일을 다 했으니 계약대로 100만 원을 주세요. · 선생님 충고대로 열심히 공부하기로 했어요. · 어머니께 배운 방식대로 만들었는데 맛이 없어요. · 왜 시간표대로 수업을 운영하지 않는 거죠? · 의사의 조언대로 매일 운동을 해야겠어요.

- + '대로1)'은 앞 말에 근거하여 달라짐이 없음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계획대로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갔다'고 하는 것은 미리 계획한 내용에 준하여 다름이 없이 즉, 계획한 바와 같이 유럽으로 여행을 갔다는 것이다.

[도입]

(1)
교사: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되면 돈을 나누기로 했다가 문제된 사건을 보여 주며) 친구하고 같이 복권을 샀어요. 돈을 받으면 똑같이 나누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정말 복권이 당첨되었어요.
학생: 돈을 나누었어요?
교사: 아니요. 약속했지만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학생: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교사: 돈을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약속 대로 돈을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돈을 주지 않았어요.
학생: 그래서요?
교사: 법 대로 하겠다고 고소했대요.
(2)
교사: 올해 1월 1일에 어떤 결심을 했어요? 선생님은 매일 운동하기로 했어요.
학생1: 저는 공부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학생2: 저는 담배를 안 피우기로 했어요.
교사: 그래요? 결심을 지켰어요?
학생2: 네, 담배를 끊었어요.
교사: 우와, 새해 결심 대로 담배를 끊다니 정말 대단해요?

- + 앞 말에 준하여 다름없다는 뜻의 '대로1)'을 도입할 때 상황이나 그림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의미를 인지시킬 수 있다. 약속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약속한 내용을 지키는 것에 대해 '약속대로'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알려 주면 앞에 나오는 것에 준하여 다름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형태 정보]

- ① 명사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대로'를 쓴다.

예) 약속 + 대로 → 약속대로	연필 + 대로 → 연필대로
법 + 대로 → 법대로	바지 + 대로 → 바지대로
설명서 + 대로 → 설명서대로	너 + 대로 → 너대로

①	받침 o	+ 대로	약속대로, 연필대로, 법대로
	받침 x	+ 대로	바지대로, 설명서대로, 너대로

[문장 구성 정보]

- ① '대로'가 앞말에 준하여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나타낼 때 '대로' 앞에 오는 말은 '약속, 말, 말씀, 사실, 설명서, 책, 법' 등 근거가 될 만한 내용이나 사실 등을 나타내는 명사에 한한다.

예) 약속**대로** 자전거 사 줄게.

설명서**대로** 했어요.

말씀**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아키라**대로** 하겠습니다. (x)

저 집**대로** 수리하고 싶어요. (x)

- + 위에서 '아키라대로'라는 것이 어색한 것은 아키라의 무엇과 다름이 없다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저 집대로 수리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역시 무엇과 다름이 없는지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어색하다.

[확장]

- ① 관형사형 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의 뜻으로 쓰이는 '대로'는 의존명사이므로 조사 '대로'와 달리 앞말과 띄어 쓴다.

예) 어제 본 **대로** 말할게요.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세요.

좋을 **대로** 하세요.

- ② 의존명사 '대로'가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라는 의미이므로 '앞말에 준하여 다름없이'라는 조사 '대로1)'로 대치하여 바꾸어 쓸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 약속한 **대로** 자전거 사 줄게. = 약속**대로** 자전거 사 줄게.

설명서에서 읽은 **대로** 했어요. = 설명서**대로** 했어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 ① 대응 표현: '按', '按照',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이 일은 규칙**대로** 처벌하여라. - 这件事**按**规处罚.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 打算**按照**最初的计划进行.

시범 동작**대로** 조작하면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다.

- **按**示例操作, 会降低事故的危險.

결국은 그의 뜻**대로** 되었다. - 最终他如愿**以**偿.

- ② 용법과 오류

- 대응하는 중국어 '按照'는 조사 '대로'뿐만 아니라, 표현 '는 대로'와도 대응하여 쓰이므로 다음과 같은 띄어쓰기 오류가 나타난다.

예) 여러분들은 나의 말 **대로** 하세요. (x)

이번 일은 왕밍 씨의 맘 **대로** 해 보세요. (x)

처음 계획 **대로** 하십시오. (x)

대로2): (명사에 붙어) 서로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낸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재활용 쓰레기를 한 번에 버리지 말고 분리해서 버리세요. 나: 아, 새로 이사를 와서 잘 몰랐습니다. 어떻게 분리하면 되나요? 가: 종이는 종이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캔은 캔대로 분리해서 버리세요. 나: 네, 조심하겠습니다.</p> <p>가: 책 정리 중이에요? 나: 네, 안 보는 책 좀 버리려고요. 가: 도와 드릴까요? 나: 도와주시면 저야 감사하지요. 가: 어떻게 정리하면 돼요? 나: 한국어 책은 한국어 책대로 영어 책은 영어 책대로 정리하면 돼요.</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 아이는 큰 아이대로 작은 아이는 작은 아이대로 옷을 사달라고 졸랐다. · 신발을 그렇게 색깔별로 정리하지 말고 운동화는 운동화대로 구두는 구두대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딸은 딸대로 예쁘고 아들은 아들대로 예쁘니까 딸을 낳든 아들을 낳든 상관없어요. · 한라산은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다우니까 아무 때나 가도 돼요. · 학생 식당에서는 밥을 먹고 나서 숟가락은 숟가락대로 젓가락은 젓가락대로 따로 반납 통에 넣어야 해요. · 너도 힘들었겠지만 나는 나대로 고민하느라고 잠도 못 잤어. · 큰 것은 큰 것대로 따로 모아 놓으세요. · 저희 집은 식구가 많아서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나누어서 밥을 먹어요. · 겨울옷은 겨울옷대로 여름옷은 여름옷대로 따로 정리하세요. · 시간이 안 맞으니까 만나서 가지 말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가서 거기에서 만나자.

+ '대로2)'는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큰 아이는 큰 아이**대로** 작은 아이는 작은 아이**대로** 옷을 사달라고 졸랐다'고 하는 것은 큰 아이 따로, 작은 아이 따로 각각 졸랐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도입]

(1)

교사: (잘 정리된 책장 몇 가지 보여 주면서) 사람마다 책을 정리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책을 어떻게 정리해요?

학생: 한국어 책, 영어 책 이렇게요.

교사: 아, 한국어 책은 한국어 책**대로** 영어 책은 영어 책**대로** 정리하는군요. (색깔별로 서재를 정리한 사진을 보여 주며) 이 사람은 책을 좀 다르게 정리했어요. 어떻게 정리한 것 같아요?

학생: 색깔에 따라 정리했어요.

교사: 맞아요. 파란색 책은 파란색 책**대로** 노란색 책은 노란색 책**대로** 책을 색깔별로 정리했어요.

(2)

교사: (잘 정리된 옷장 보여 주면서) 선생님이 주말에 옷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은 옷을 어떻게 정리해요?

학생: 겨울옷, 여름옷 이렇게 정리해요.

교사: 네, 선생님도 겨울옷은 겨울옷**대로**, 여름옷은 여름옷**대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또 티셔츠는 티셔츠**대로** 바지는 바지**대로** 정리했어요.

+ 따로따로 구별된다는 뜻의 '대로2'를 도입할 때 그림이나 상황 설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의미를 인지시킬 수 있다. 겨울옷과 여름옷, 하의와 상의, 과일과 야채 등 범주별로 분리되는 것들을 보여 주면서 따로따로 되는 뜻을 인지시킬 수 있다.

[형태 정보]

앞의 '대로1'을 참고한다.

[문장 구성 정보]

① '대로'가 따로 구별된다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은 ~대로, ~은 ~대로'의 구성으로 쓰인다.

예)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 상관하지 말자.

운동화는 운동화**대로** 구두는 구두**대로** 정리하세요.

큰 것은 큰 것**대로** 따로 모아 주세요.

+ '대로'가 따로따로 구별된다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대부분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 '은'과 함께 쓰여 'A는 A대로 B는 B대로'의 구성으로 쓰이는데, 'B는 B대로' 부분을 전제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뒷부분을 생략하고 'A는 A대로'의 형태로도 쓸 수 있다. 즉, 위의 예문에서 '큰 것은 큰 것대로 모아 달라'고 하는 것은 '큰 것'과 '다른 것', 또는 '큰 것'과 '작은 것'을 따로따로 구별하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按', '按照' 또는 대응 표현 없이 사용됨.

예)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자기 습관에 맞춰 취침 시간을 조절하자. - 你**按**你的习惯, 我**按**我的习惯调整睡觉时间吧.

한국에서는 한국식**대로** 미국에서는 미국식**대로** 결혼식을 두 번 올렸다. - 在韩国**按照**韩国的方式, 在美国**按照**美国的方式举行了两次婚礼.

남편의 출근 시간과 아이들의 등교 시간이 달라서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나누어서 각자 아침밥을 먹어요. - 丈夫的上班时间和孩子们的上学时间不同, 所以大人**按照**大人的时间, 孩子们**按照**孩子们的时间各吃各的早饭.

딸은 딸**대로** 예쁘고 아들은 아들**대로** 예쁘니까 딸을 낳든 아들을 낳든 상관없어요. - 女儿有女儿的好, 儿子有儿子的好, 所以生男生女都一样.

부자는 부자**대로**, 노숙자는 노숙자**대로** 각자의 고민이 있기 마련이다. - 不管富翁, 还是乞丐, 各自都有一本难念的经.

너도 힘들었겠지만 나는 나**대로** 고민하느라고 잠도 못 잤어. - 知道你也很辛苦, 可我也因烦恼没睡好觉啊.

② 용법과 오류

- '대로'가 따로 구별된다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은 ~대로, ~은 ~대로'의 구성으로 쓰이는 데 중국어권 학습자는 대응 표현 없이 사용되는 중국어의 영향을 받아 회피 오류를 범하게 된다.

예) 딸은 딸의 좋은 점이 있고, 아들은 아들의 좋은 점이 있으니까 딸을 낳든 아들을 낳든 상관없어요.(?) ("딸은 딸**대로** 예쁘고 아들은 아들**대로** 예쁘니까"를 써야 할 경우)
부자이든 노숙자이든 모두 각자의 고민이 있기 마련이다.(?) ("부자는 부자**대로**, 노숙자는 노숙자**대로**"를 써야 할 경우)
너도 힘들었겠지만 나도 고민하느라고 잠도 못 잤어.(?) ("나는 나**대로**"를 써야 할 경우)

3.1.3. '만큼'

만큼[조사] 앞 말과 비슷한 정도임을 나타내는 조사.

만큼: (명사에 붙어) 뒤에 나오는 행동이나 상태가 앞말과 비슷한 정도임을 나타낸다.

[예문]

담화예문

가: 한국에서 어디가 제일 아름다워요?

	<p>나: 제주도가 제일 아름다워요. 가: 맞아요. 제주도만큼 아름다운 곳은 없는 것 같아요.</p> <p>가: 엄마, 나 사랑해? 나: 그럼, 물론이지. 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지. 가: 나도 엄마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생도 형만큼 키가 커요. · 제가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아세요? · 저도 선생님만큼 한국어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 우리 아이만큼 거짓말 못하는 사람도 없어요. · 이 옷은 그 옷만큼은 비싸지 않아요. · 저도 엄마만큼 요리를 잘해요. · 서양 배는 한국 배만큼 맛있지 않아요. · 아키라 씨만큼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 가족만큼 편한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 형인데 동생만큼도 가족 생각을 안 해요.

- + '만큼'은 뒤에 오는 것이 앞 말과 비슷한 정도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보조사이다. '동생도 형만큼 키가 크다'는 것은 동생의 키가 형과 비슷한 정도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 + 보조사 '은'이나 '도'와 결합한 형태인 '만큼은', '만큼도'의 형태도 사용된다. '이 옷은 그 옷만큼은 비싸지 않다'는 것은 보조사 '은'을 결합하여 이 옷과 그 옷의 대조적인 성격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도입]

(1)

교사: (티셔츠 그림이나 사진을 보이면서) 이 옷은 50만 원
이에요. 싸요, 비싸요?

학생: 티셔츠인데 오십만 원이요? 너무 비싸요.

교사: (가격이 가려진 더 비싸 보이는 티셔츠 사진 보이면서) 이 옷은 얼마일까요?

학생: 오십만 원이요.

교사: (가격표 48만 원 보이면서) 맞아요. 이 옷도 아까 그
옷**만큼** 비싸요. 이 백화점은 비싼 옷만 파는 백화점
인 것 같아요.

(2)

교사: (키 차이가 있는 형제 그림 보여 주며, 형은 190센티
미터 동생은 175센티미터) 형과 동생이에요. 형은 키

가 아주 커요. 동생도 키가 아주 커요?
 학생: 아니요.
 교사: 네, 동생도 아주 작은 것은 아니지만 **형만큼** 크지는 않아요.

+ '만큼'을 도입할 때 같은 정도임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림이나 행동을 제시하면 비슷한 정도를 나타내는 말임을 자연스럽게 인지시킬 수 있다. 가격이 거의 비슷한 옷을 보여 주면서 학생들에게 가격을 예측해 보게 하고 비슷하게 예측하면 이 옷도 아까 그 옷만큼 비싸다든지, 또는 차이가 나는 형제의 사진을 보여 주면서 동생은 형만큼 크지 않다든지 하는 예를 들어 '만큼'이 비슷한 정도를 비교하는 데 사용하는 조사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다.

[형태 정보]

① 명사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만큼'을 쓴다.

예) 가족 + 만큼 → 가족만큼 하늘 + 만큼 → 하늘만큼
 동생 + 만큼 → 동생만큼 아이 + 만큼 → 아이만큼
 너 + 만큼 → 너만큼 영어 + 만큼 → 영어만큼

①	받침 o	+ 만큼	가족만큼, 하늘만큼, 동생만큼
	받침 x	+ 만큼	아이만큼, 너만큼, 영어만큼

[제약]

① 정도의 판단이 필요 없는, 분명한 분량을 나타내는 명사에는 쓰이지 않는다.

예) 아저씨, 떡볶이 오백 원**만큼** 주세요. (x)
 아저씨, 떡볶이 저도 저 사람**만큼** 주세요. (o)
 물 한 잔**만큼** 주세요. (x)
 맥주 한 병**만큼** 주세요. (x)

+ '오백 원'은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만큼'과 함께 사용하면 어색하다. 반면 '저 사람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산 정도의 양'을 달라는 것으로 해석되어 사용이 가능하다.

+ '물 한 잔'이라든지 '맥주 한 병'도 모두 정해진 분량이 있는 것으로, 화자가 정도성을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만큼'이 사용되면 어색한 표현이 된다.

② 어느 정도인지를 묻기 위해 의문 대명사 '얼마'에 '만큼'을 결합한 형태인 '얼마만큼'을 사용할 수 있다. 단, 비슷한 의미이지만 부사인 '얼마나'에 '만큼'을 결합한 '얼마나만큼'은 사용할 수 없다.

예) 제가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아세요? (o)
 제가 **얼마나만큼** 사랑하는지 아세요? (x)

[확장]

① 어미 '-은, -는, -을' 뒤에 '만큼'이 쓰여 조사 '만큼'과 같은 의미 즉, 앞 말과 비슷한 정도임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때는 관형어 뒤에 사용되므로 조사가 아닌 의존명사이고 앞

말과 띄어 써야 한다.

예) 어제 일을 생각하면 죽고 싶을 **만큼** 창피해요.

들어 갈 수 없을 **만큼** 물이 차요.

주는 **만큼**만 받아주세요.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유사 문법]

① '만큼', '처럼', '같이'

만큼	처럼, 같이
. 비슷한 두 대상을 비교할 때 사용한다.	
. 주로 비교할 때 사용하며, 비유 표현에 사용하면 어색하다. 예) 동생도 형 만큼 크다. (o) 선생님이 꽃 만큼 아름답다. (?) 아키라는 번개 만큼 빨리 달린다. (?)	. 비교나 비유 표현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예) 동생도 형 처럼/같이 크다. (o) 선생님이 꽃 처럼/같이 아름답다. (o) 아키라는 번개 처럼/같이 빨리 달린다. (o)
. 보조사 '은', '도'와 결합할 수 있다. 예) 동생도 형 만큼은 크다. (o) 형인데 동생 만큼 도 가족 생각을 안 한다. (o)	. 보조사 '은', '도'와의 결합이 자연스럽게 않다. 예) 동생도 형 처럼은/같이 는 크다. (?) 선생님이 꽃 처럼도/같이 도 아름답다. (x)

+ '처럼'과 '같이'가 비슷한 두 대상을 비교하면서 그 중 하나를 나타내는 말에 붙어 사용할 때 '만큼'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도 의미가 다른 경우가 있다.

예) ㄱ. 수지 씨는 토끼**만큼** 귀가 길다.

 ㄴ. 수지 씨는 토끼**처럼** 귀가 길다.

(ㄱ)의 '토끼처럼 귀가 길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긴 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토끼보다 훨씬 짧은 귀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ㄴ)의 '토끼만큼 귀가 길다'는 것은 귀의 길이가 토끼와 비슷하다는 것이 되므로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다.

+ '만큼'은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를 나타내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키라 씨가 번개같이/처럼 빨리 달린다'와 같이 비유의 의미로 사용될 때 '처럼'이나 '같이' 대신 '만큼'으로 대체하면 어색하다. '번개만큼 빨리 달린다'는 것은 번개와 같은 정도로 빠르게 달린다는 의미인데 사람이 번개와 같은 정도로 빠를 수는 없기 때문에 어색하게 느껴진다.

+ '불같이 화를 내다', '눈처럼 깨끗하다'와 같이 굳어진 비유 표현은 '만큼'으로 바꾸어 쓸 경우 어색하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跟.....一样', '差不多', '有', '比', '像'

- 예) 동생도 형**만큼** 크다. - 弟弟也**跟**哥哥**一样**高.
 이 빌딩도 저 빌딩**만큼** 크다. - 这栋楼**跟**那栋**差不多**大.
 이 꽃도 저 꽃**만큼** 화려하다. - 这朵花**有**那朵花华丽.
 근처에는 이 빌딩**만큼** 높은 건물이 없다. - 附近没有**比**这更高的大楼了.
 집을 피라미드**만큼** 웅장하게 지었다. - 房子盖得**像**金字塔那么雄伟.

② 용법과 오류

- '만큼', '같이', '처럼'은 모두 '跟.....一样'과 대응되면서 비슷한 두 대상을 비교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같이'와 '처럼'은 비교뿐만 아니라 '像.....一样'의 의미로 비유의 대상에도 쓰이지만 '만큼'은 비유 표현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 예) 쇼밍 씨 얼굴이 사과**만큼** 빨갱다. (x)
 아이의 눈이 별**만큼** 초롱초롱하다. (x)
 배나무에 눈**만큼** 하얀 꽃이 피었다. (x)
 우리 할아버지는 소**만큼** 열심히 일하신다. (x)
 그녀의 피부가 눈**만큼** 하얗다. (x)

- '만큼'과 '보다' 모두 '比'와 대응되지만 비슷한 정도를 나타내는 대상이 '누구' 혹은 '무엇' 등과 같이 불특정할 때 '보다'는 사용할 수 있지만 '만큼'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 예) 철수는 누구**만큼**도 일찍 등교한다. (x)
 친구로서 함께 쌓은 우정은 무엇**만큼**도 소중하다. (x)

- 형용사 '같다'의 활용형 '같은'이 'N 같은 N'의 패턴으로 사용하지만 '만큼'은 이런 용법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하기 쉽다.

- 예) 저는 선생님**만큼** 사람이 되고 싶어요. (x)
 그녀는 앵두**만큼** 입술을 갖고 있다. (x)

3.1.4. '보고'

보고[조사]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조사.

보고: (명사에 붙어)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주로 구어에서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누구 보고 하는 말이에요?
------	--------------------------

	<p>나: 영수 씨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 그래요? 저는 저보고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p> <p>가: 친구 숙제를 왜 유진 씨가 하세요? 나: 친구가 저보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가: 그래요? 숙제는 자기가 해야 되니까 도와주지 마세요. 나: 그래도 저보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안 도와주기가 좀 그래서요.</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진 씨가 친구보고 바보라고 했어요. · 친구가 나보고 늦지 말라고 했어요. · 누구보고 잘못했다는 거야? · 너, 자꾸 우리 개보고 욕하지 마. · 수지 씨가 저보고 같이 등산 가자고 했어요. · 아이보고 담배를 사오라고 시켰다. · 누가 너보고 그런 일을 하게 했어? · 다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누구보고 해결해 달라고 하겠어요. · 애니 씨보고 내일 몇 시에 만날 수 있는지 물어 봐. · 저보고는 그러셔도 괜찮지만 우리 부모님께는 그런 나쁜 말 하지 말아 주세요.

+ '보고'는 사람이나 동물이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부사격 조사이다. '보고'의 이러한 쓰임은 '한테'와 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면 '한테'는 '주다, 가르치다, 보내다, 전화하다, 말하다, 던지다, 전하다, 선물하다' 등의 서술어와 두루 사용될 수 있는데 반해 '보고'는 주로 말을 한 대상이거나 시킴을 받는 대상임을 나타낼 때에만 쓰인다.

[도입]

<p>(1)</p> <p>교사: (어려움에 처한 올리브가 뽀빠이를 부르는 만화 그림 보여 주며) 여러분, 올리브는 위험할 때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해요?</p> <p>학생: 뽀빠이한테요.</p> <p>교사: 네, 올리브는 위험할 때 뽀빠이보고 도와달라고 해요.</p> <p>(2)</p> <p>교사: (앤디가 동생에게 심부름 시키는 그림을 보여 주며) 앤디 씨가 누구한테 물을 가져오라고 했어요?</p> <p>학생: 동생한테요.</p> <p>교사: 네, 앤디 씨는 동생보고 물을 가져오라고 시켰어요.</p>
--

+ '보고'를 도입할 때 선수 문법 '한테'와 상황 그림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의미 이해를 도울 수 있다. 학생이 '한테'를 이용해서 대답할 만한 상황 그림을 주고 학생이 '한테'를 이용하여 발화한 문장을 교사가 다시 목표 문법인 '보고'로 바꾸어 줌으로써 사용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형태 정보]

① 명사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한테'를 쓴다.

예) 학생 + 보고 → 학생보고 부모님 + 보고 → 부모님보고
 동생 + 보고 → 동생보고 친구 + 보고 → 친구보고
 나 + 보고 → 나보고 고양이 + 보고 → 고양이보고

①	받침 o	+ 보고	학생보고, 부모님보고, 동생보고
	받침 x	+ 보고	친구보고, 나보고, 고양이보고

[제약 정보]

① '말하다', '시키다'류 외의 동사와는 같이 사용되지 않는다.

예) 친구가 저**보고/한테** 같이 등산가자고 했어요. (o)
 엄마가 동생**보고/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o)
 할머니는 저**보고/한테** 책을 읽히셨습니다. (o)
 수지 씨가 동생**한테** 전화해요. (o)
 수지 씨가 동생**보고** 전화해요. (x)
 왕밍 씨가 고양이**한테** 생선을 줘요. (o)
 왕밍 씨가 고양이**보고** 생선을 줘요. (x)

+ '보고'는 '한테'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나 '보고'의 경우 서술어 제약이 있다. 위의 예문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테'는 '말하다, 시키다'류 동사 외에도 '전화하다, 주다, 팔다, 보내다' 등 방향성을 가지는 대부분의 동사와 함께 쓰일 수 있으나 '보고'는 그렇지 않다.

② 말한 내용의 인용 없이 단순히 '누구에게 말하다'의 의미로 '누구보고 말하다' 형태로 사용하면 부자연스럽다.

예) 친구가 저**보고/한테** 같이 등산가자고 이야기했어요. (o)
 친구가 저**보고** 이야기했어요. (??) /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o)
 민수**보고** 물어보세요. (??) / 민수**한테** 물어보세요. (o)

+ '한테'의 경우는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했어요.'와 같이 이야기한 내용을 밝히지 않아도 문장이 자연스러운 데 반해 '보고'의 경우는 '친구가 저보고 같이 등산가자고 이야기했어요.'와 같이 인용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자연스럽다.

[유사 문법]

① '보고', '더러', '한테'

보고, 더러	한테
. 행위의 영향을 받는 사람임을 나타내며, 모두 구어에 쓰인다.	
	· '말하다, 시키다'류 동사 외에 '주다, 전

<p>· '말하다, 시키다'류 동사와 같이 쓰인다. 예) 선생님께서 아이들보고/더러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o) 형이 동생보고/더러 물을 가져오라고 시켰어요. (o)</p> <p>개보고/더러 밥을 줍니다. (x) 친구보고/더러 편지를 보냅니다. (x)</p>	<p>화하다, 팔다, 보내다' 등 방향성이 있는 동사들과 꼭 넓게 쓰인다. 예) 선생님께서 아이들한테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o) 형이 동생한테 물을 가져오라고 시켰어요. (o) 개한테 밥을 줍니다. (o) 친구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o)</p>
<p>+ '보고'는 항상 '더러'로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더러'보다 '보고'가 사용 빈도가 더 높은 것 외에 다른 차이는 없다.</p> <p>+ '보고'는 항상 '한테'로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한테'는 '보고'로 교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p>	

② '보고', '더러', '에게'

보고, 더러	에게
· 행위의 영향을 받는 사람임을 나타낸다.	
· 주로 말할 때 쓴다.	· 말할 때나 글을 쓸 때 모두 쓴다.
<p>· '말하다, 시키다'류 동사와 같이 쓰인다. 예) 친구가 나보고/더러 가자고 말했다. (o) 형이 동생보고/더러 청소하라고 시켰다. (o) 아키라가 민수보고/더러 전화를 걸었다. (x)</p>	<p>· '말하다, 시키다'류 동사 외에 '주다, 전화하다, 팔다, 보내다' 등 방향성이 있는 동사들과 꼭 넓게 쓰인다. 예) 친구가 나에게 가자고 말했다. (o) 형이 동생에게 청소하라고 시켰다. (o) 아키라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o)</p>
+ '보고'와 '더러'는 '에게'로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에게'는 '보고'와 '더러'로 교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让', '叫', '要',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사장이 나**보고** 서류를 준비하게 했다. - 老板让我准备材料.
어린애**보고** 혼자 집에 있으라구? - 叫孩子一个人在家?
학생들**보고** 휴대폰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 我要学生们别玩手机.
사람들이 나**보고** 키가 크다고 해요. - 人们说我个子高.

② 용법과 오류

- '보고'는 어떤 행동을 하도록 시킴을 받는 대상임을 나타내면서 '-게 하다', '-도록 하다'와 같은 시킴을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어울려 사용된다. 이들의 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 예) 사장이 나**보고** 서류를 준비한다. (x)
 형이 동생**보고** 전화를 걸었다. (x)
 왕밍 씨가 강아지**보고** 먹이감을 물어온다. (x)
 누가 너**보고** 그 일을 했어? (x)

- '보고'는 말한 내용을 인용하는 문장에서 보통 '-라고 하다', '-다고 하다', '-자고 하다'와 같은 간접 인용 표현과 함께 쓰인다. 이들의 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 예) 왕밍 씨가 친구**보고** 바보 했어요. (x)
 누구**보고** 잘못했는거야? (x)
 쇼밍 씨가 저**보고** 같이 경복궁을 보았어요. (x)

- '한테'와 달리 '보고'는 "말을 하는 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행위나 동작, 상황을 나타내는 동사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에 쓸 수 없다. 양자를 혼동해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 예) 나는 천천히 그 사람**보고** 가까이 갔다. (x)
 수잔**보고** 남자친구가 생겼다. (x)
 음악 파일을 친구**보고** 얻었다. (x)
 소**보고** 여물을 주었니? (x)
 전화를 받지 않는 걸 보니 친구**보고** 급한 일이 있다. (x)

3.1.5. ‘뿐’

뿐[조사] 그것만이고 더 없음을 나타내는 조사.

뿐: (명사나 부사에 붙어) 앞말 외에는 더 없음을 나타낸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시험을 잘 볼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나: 믿을 건 노력뿐이니까 열심히 하세요. 가: 노력만 하면 될까요? 나: 그럼요, 노력만 하면 시험을 못 볼 리가 없어요.</p> <p>가: 남대문 시장이 한국에서 유명한 시장인가요? 나: 그럼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요. 가: 그래요? 그럼 남대문 시장에 꼭 가 봐야겠네요.</p>
------	---

문장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부모님뿐이다. · 제가 할 수 있는 외국어는 일본어뿐이에요. · 하루 종일 아이 걱정뿐이었습니다. · 지금 가진 돈이 만원뿐인데 부산까지 갈 수 있을까요? · 지금 먹어도 되는 건 물뿐이에요. 다른 음식은 드시지 마세요. ·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 어제 학교에 안 온 사람은 민수 씨뿐 아니에요. · 레이첼 씨는 수영뿐만 아니라 농구도 잘해요. · 이 벌레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위험하다. · 제주도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명한 관광지이다.

- + '뿐'은 앞의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시험을 잘 볼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의 대답으로 제시된 '믿을 건 노력뿐이니깐 열심히 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노력 외에는 없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도입]

<p>(1)</p> <p>교사: (드라마나 영화의 바람둥이 인물을 소개하며) 이 사람은 한 사람만 사랑해요?</p> <p>학생: 아니요. 여자 친구가 많아요.</p> <p>교사: 네. 맞아요.</p> <p>(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순정남을 소개하며)</p> <p>하지만 이 사람은 한 사람만 사랑해요.</p> <p>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에요.</p>	<p>(2)</p> <p>교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과 발명품 사진을 같이 보여 주며) 이 사람은 그림만 잘 그려요?</p> <p>학생: 아니요. 발명도 잘해요.</p> <p>교사: 네, 맞아요. 그림뿐만 아니라 발명도 잘해요.</p>
---	---

- + '뿐'을 도입할 때 선수 문법인 보조사 '만'을 이용하거나 사진이나 그림 또는 상황을 활용하여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의미를 자연스럽게 인지시킬 수 있다. 사진이나 그림을 보고 학생들이 '만'으로 대답한 것을 다시 교사가 목표 문법 '뿐'을 이용해 같은 내용의 문장을 만들며 도입한다.
- + 도입을 통해 '뿐'의 제한적 의미에 대해 학습자들이 잘 인지하게 되면 '만'을 '뿐'으로 재구성할 때 '한 사람만 사랑해요'를 '한 사람**뿐** 사랑해요'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님을 강조한다. 의미상으로 '만'과 '뿐'이 거의 비슷하지만 '뿐'은 항상 '뿐이다, 뿐 아니다'의 형태로만 쓰인다는 것을 강조해 준다.

[형태 정보]

- ① 명사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뿐'을 쓴다.

예) 가족 + 뿐 → 가족뿐 이것 + 뿐 → 이것뿐
 연필 + 뿐 → 연필뿐 친구 + 뿐 → 친구뿐
 영어 + 뿐 → 영어뿐 너 + 뿐 → 너뿐

①	받침 o	+ 뿐	가족 <u>뿐</u> , 이것 <u>뿐</u> , 연필 <u>뿐</u>
	받침 x	+ 뿐	친구 <u>뿐</u> , 영어 <u>뿐</u> , 너 <u>뿐</u>

[문장 구성 정보]

- ① 그것만이고 더 없음을 나타낼 때는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한 형태인 '뿐이다', '뿐 아니다'의 형태로 쓰인다.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뿐이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엄마는 항상 가족 걱정뿐이세요.
 이 식당은 메뉴가 두 가지뿐이지만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걱정하지 마. 시험 못 본 사람이 너뿐 아니야.
 오늘 지각한 사람이 민수 씨뿐 아니예요. 다섯 명이나 돼요.

- ② 앞 말에 제한되지 않고 다른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낼 때는 'N뿐(만) 아니라'의 형태로 쓰이며 앞 말에 제한되지 않고 다른 것이 더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예) 아키라 씨는 영어뿐만 아니라 몽골어도 잘한다.
 그 소식을 듣고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아주 기뻐했다.

[확장]

- ① 앞 말에 제한되지 않고 다른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낼 때는 'N뿐(만) 아니라'의 구성에서는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 뒷부분에 더해지는 것보다 더 기본적인 요인이어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아키라가 잘하는 외국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아키라 씨는 몽골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잘한다.'로 순서를 바꾸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은 영어를 잘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 아키라 씨는 영어뿐만 아니라 몽골어도 잘한다. (o)
 아키라 씨는 몽골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잘한다. (??)
 그 소식을 듣고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아주 기뻐했다. (o)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가족도 아주 기뻐했다. (??)

- ② 어미 '-을' 뒤에 쓰여 조사 '뿐'과 같은 의미 즉, 앞 말 이외에 더는 없음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때는 조사가 아닌 의존명사이므로 앞 말과 띄어 쓴다.

예) 어제 일을 생각하면 창피할 뿐이에요.
 레이첼은 공부를 잘할 뿐만 아니라 놀기도 잘한다.

이 도시는 교통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공기도 나쁘다.

이 가게 과일은 싱싱할 **뿐만 아니라** 값도 싸다.

[유사 문법]

① '뿐', '만', '밖에'

뿐	만	밖에
· 앞에 오는 말에 한정됨을 나타낸다.		
· 뒤에 '이다'나 '이 아니다'만 온다. 예) 흐엉 씨가 잘 먹는 것은 고기 뿐 이다. (o)	· 뒤에 긍정과 부정을 나타내는 말을 모두 쓸 수 있다. 예) 흐엉 씨가 고기 만 잘 먹어요. (o) 흐엉 씨가 고기 만 안 먹어요. (o)	· 뒤에 반드시 부정을 나타내는 말을 쓴다. 예) 흐엉 씨가 고기 밖에 안 먹어요. (o) 흐엉 씨가 고기 밖에 잘 먹어요. (x)

+ '뿐'이 제한의 의미로 쓰일 때는 항상 '뿐이다'의 형태로 쓰인다.

+ '밖에'는 항상 '없다, 모르다, 안 V, 못 V' 등과 같이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 앞에 오는 명사만 그러함을 강조한다.

+ '만'은 앞에 있는 것이 유일하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뒤에 긍정, 부정이 모두 올 수 있으며 '밖에'를 사용했을 때와 어감의 차이가 있다.

예) 냉장고에 물**만** 있어요.
냉장고에 물**밖에** 없어요.

냉장고에 '물밖에 없다'고 하면 냉장고에 있어야 할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강조되고, '물만 있다'고 하면 물의 존재가 강조되어 화자의 불만 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只有', '就', '仅仅是', '仅'

예) 한 사람**뿐**이다. - 只有一个人.

네가 할 수 있는 외국어는 이것**뿐**이냐? - 你能说的外语就这些吗?

지금 남은 건 죽 한 그릇**뿐**이에요. - 现在所剩的**仅仅**是一碗粥.

한류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 韩流**不仅**在亚洲, 在全世界也都流传开了.

② 용법과 오류

- 한국어에서 '뿐'은 조사와 의존명사로 구분되어 사용되지만 대응되는 중국어의 형식들은 이런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중국인 학습자는 다음과 같이 '을 뿐'을 사용해야 할 때 조사 '뿐'을 사용하거나, 명사가 아닌 말 뒤에 '뿐'을 붙여 사용하는 오류를 보인다.

예)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핑계**뿐**이다. (x)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 **뿐**이다. (x)

그는 겨우 몇 달간 학교에 다니기 **뿐**이다. (x)

- '뿐'이 조사로 쓰일 때는 앞 말과 띄어 쓰지 않으나 의존명사일 때는 앞 말과 띄어 쓴다. 중국어에는 띄어쓰기가 없으므로 양자를 잘 구분하지 못해 다음과 같은 띄어쓰기 오류가 나타난다.

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뿐이야**. (x)
 어머니는 매일 집 나간 자식 걱정 **뿐이에요**. (x)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함께 슬퍼하는 것 **뿐입니다**. (x)
 김치는 한국에서 **뿐** 아니라 세계에서 유명하다. (x)

- '만'과 '밖에'도 의미적으로는 '只有'와 대응되지만 구체적 사용에서는 '뿐'과 차이가 있는데 학습자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해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나는 아는 사람은 오직 한사람**만**이다. (x)
 그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노래**밖에**다. (x)
 이 식당은 메뉴가 두 가지**만**이지만 정말 맛있다. (x)
 김치는 한국**밖에** 아니라 세계에서 유명하다. (x)

3.1.6. ‘아1’

아1[야][조사] 손아랫사람이나 동물을 부를 때 사용하는 조사.

아1: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 손아랫사람이나 친구, 동물을 부를 때 사용한다. 보통 반말에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영수 야 , 동생 좀 불러 와. 나: 영철 아 , 엄마가 들어 오래. 다: 형, 알았어. 금방 갈게. 가: 애들 아 , 저녁 먹자. 나: 네, 엄마.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진아, 같이 놀자. · 친구들아, 잘 지내니? ·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 야옹아, 이리 와 봐. · 멍멍아, 저리 가. ·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 민준아, 주말에 같이 놀 수 있어? · 수지야, 지금 뭐해? 시간 있으면 커피 한 잔 하자. · 지영아, 혹시 이 선생님 전화 번호 알면 좀 가르쳐 줘.
--	--

+ '아'는 사람이나 동물을 부를 때 사용되는 호격조사이다. 보통 '영철아, 해피야'와 같이 사람이나 동물 이름을 부를 때 많이 사용되지만 '애들아, 나비야'와 같이 일반 명사에 붙어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도입]

(1)
교사: (친구 집 앞에서 친구를 부르는 아이 그림) 이 아이 이름은 민수예요. 민수는 지금 지연이하고 놀고 싶어요. 민수가 지연을 부르고 싶어요. 어떻게 부를까요?
학생: 지연~
교사: 한국에서는 친구를 부를 때 "지연" 하지 않고 "지연 아 ~" 이렇게 불러요.
(2)
교사: (강아지 사진을 보여 주며) 선생님 강아지예요. 이름은 해피라고 해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강아지를 어떻게 불러요?
학생: (각자 자기나라에서 강아지 부르는 것을 이야기함)
교사: 한국에서는 강아지 이름을 불러요. 해피 야 , 이리 와.

+ '아'를 도입할 때 동물이나 사람을 불러야 하는 상황과 제스처를 통해서 부를 때 사용하는 조사임을 인지시킬 수 있다.

+ 모르는 사람은 "저기요.", 나이 많은 사람은 "선생님, 사장님, 형, 언니", 친한 손아랫사람은 "이름+아/야" 등으로 구분해서 다양한 호칭어를 같이 소개하면서 도입해도 좋다.

[형태 정보]

①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아'를 쓴다.

예) 지연 + 아 → 지연 아	친구들 + 아 → 친구들 아
영철 + 아 → 영철 아	지영 + 아 → 지영 아
야옹 + 아 → 야옹 아	민준 + 아 → 민준 아

②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없으면 '야'를 쓴다.

예) 영수 + 야 → 영수 야	해피 + 야 → 해피 야
나비 + 야 → 나비 야	누나 + 야 → 누나 야
수지 + 야 → 수지 야	꼬꼬 + 야 → 꼬꼬 야

①	받침 o	+ 아	지연아, 친구들아, 영철아, 지영아, 야옹아, 민준아
②	받침 x	+ 야	영수야, 해피야, 나비야, 누나야, 수지야, 꼬꼬야

[제약 정보]

- ① 주로 손아랫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므로 높임말과 사용할 수 없다.

예) 민수**야**, 숙제 좀 하세요. (x)
 민수**야**, 숙제 좀 해. (o)
 친구들**아**, 같이 놀아요. (x)
 친구들**아**, 같이 놀자. (o)

- ② 손아랫사람이나 동물을 부를 때 주로 사용되지만 반말을 하는 친밀한 사이인 경우는 손위에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반말을 사용하는 친밀한 사이라 하더라도 '이름+아'의 형태로 사용하지 않는다.

예) 누나**야**, 숙제 좀 도와 줘. (o)
 지연 누나**야**, 숙제 좀 도와 줘. (o)
 지연**아**, 숙제 좀 도와 줘. (x) ('누나' 이름이 '지연'일 때)
 + '지연이'가 손아랫사람일 경우는 괜찮지만 누나일 경우라면 위의 문장과 같이 '지연아'라고 부르지 않는다.

- ③ 주로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 부를 때 사용하지만 시나 노래 등에서 사물을 의인화하여 부를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예) 바람**아**, 멈추어 다오.
 비**야**, 비**야**, 오지 마라.

[확장]

- ① 손아랫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인 인명에는 호격 조사 '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 아키라**야**, 오늘 같이 놀 수 있어? (??)
 아키라, 오늘 같이 놀 수 있어? (o)
 줄리앙**아**, 주말에 뭐 할 거야? (??)
 줄리앙, 주말에 뭐 할 거야? (o)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 ① 대응 표현: 대응 표현 없음.

예) 영철**아**, 학교 가자! - 英哲, 上学去吧!
 민주**야**, 너의 아빠 집에 계시니? - 明珠, 你爸在家吗?
 애들**아**, 이제는 밥 먹어야지. - 孩子们, 该吃饭了.
 멍멍**아**, 이리 오너라. - 小狗狗, 来!

② 용법과 오류

-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아'를 쓰고 받침이 없으면 '야'를 쓰는데 중국어에는 대응하는 표현이 없으므로 '아', '야'를 혼동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예) 영철**야**, 어서 일어나. (x)
 지영**야**, 학교 가자. (x)
 민준**야**, 공책 빌려줘. (x)
 영수**아**, 내일 학교 가니? (x)
 수지**아**, 선생님 오셨어? (x)
 꼬꼬**아**, 그만 울어대. (x)

- 높임말과 사용할 수 없는데 중국어에는 대응하는 높임 표현이 없으므로 높낮이를 구분하지 않고 '아'를 사용하거나 직함 뒤에 붙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啊'와 혼동하여 사용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예) 민수**야**, 숙제 좀 하세요. (x) / 민수**야**, 숙제 좀 해. (o)
 친구들**아**, 같이 놀아요. (x) / 친구들**아**, 같이 놀자. (o)
 김과장**아**, 내일 회의가 몇 시죠? (x)
 선생님**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남 같네요. (x)

3.1.7. '요1'

요1[조사] 청자에 대한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

요1: (해체의 종결어미나 명사, 부사, 연결어미 등의 뒤에 붙어) 청자에 대한 존대의 뜻을 나타낸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아키라 씨, 주말에 뭐했어요? 나: 남산에 갔다 왔어요. 가: 아, 남산요? 좋았겠네요. 누구하고 갔어요? 나: 동생하고요.</p> <p>가: 왕밍 씨는 한국 음식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나: 불고기요. 아키라 씨는요? 가: 저도 불고기를 제일 좋아해요. 나: 그럼 오늘 점심에 같이 불고기 먹어요.</p>
------	---

문장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 오늘 숙제는요? · 어서요. 어서 가요. · 잘하기는요? 할 줄 알기는 하지만 잘하지는 못해요. · 여의도 공원요? 여의도 공원이 어떤 곳이에요? · 음식을 안 남기고 다 먹으면요 후식을 드릴게요. · 제가요? 언제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 빨리요. 빨리 읽어 보세요. · 뭐라고요? 그 사람이 죽었다고요? · 아키라 씨는요 우리 반에서 한국어를 제일 잘해요. · 어디요? 서점이 어디 있어요? 안 보이는데요?
------	---

- + '요'는 청자를 존대할 때 사용하는 보조사로 '-아, -지, -네' 등의 해체 종결어미나 명사, 부사, 조사, 연결어미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 + 앞에 있는 말이나 상황을 통해 생략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경우 문장의 일부를 생략하고 '요'를 붙여 문장 전체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 + '이다'와 '아니다' 뒤에 붙는 연결어미 '-요'와 보조사인 '요'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디 가요?'의 답은 '공원이요.'가 아니라 '공원요.'로 써야 한다. 보조사 '요'가 문장 끝에 올 경우에는 그 앞에 문장을 끝맺는 종결어미가 오므로, 서술격 조사 '이' 다음에는 올 수 없다. '이다'의 어간과 연결어미 '-요'가 결합한 '이요'는 '여기는 공책이요, 저기는 학교입니다.'와 같이 사물을 열거할 때에 쓰인다.

[도입]

(1)

교사: 아키라 씨, 밍밍 씨 주말에 뭐 했어요? 두 사람이 이야기해 보세요.

학생: 밍밍 씨, 주말에 뭐 했어요?

학생: 공부했어요. 아키라 씨는 주말에 뭐 했어요?

학생: 친구하고 한강에서 자전거를 탔어요.

교사: 잘했어요. 그런데 아키라 씨가 밍밍 씨에게 먼저 주말에 뭐 했는지 물었어요. 밍밍 씨가 대답하고 다시 같은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문장을 다 말하지 않고 '아키라 씨는**요**?' 이렇게 '요'만 붙여서 말할 수 있어요. 친구가 전화해서 '지금 어디 있어요?'하고 물어 보면 '집에 있어요.'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집에**요**' 이렇게 말해도 돼요. 앞의 말을 반복하거나 상황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 '요'만 붙여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2)

교사: 동생이 오늘 예쁜 옷을 입었어요. 동생에게 예쁘다고

말해 주고 싶어요. 어떻게 말해요?
 학생: 오늘 예쁘네. 무슨 일 있어?
 교사: 맞아요. 동생에게는 '예쁘네.' 이렇게 말하면 좋아요.
 그런데 밍밍 씨가 예쁜 옷을 입었어요. 우리 어떻게 말할까요?
 학생: 밍밍 씨, 예쁘네요.
 교사: 네, 맞아요. 동생이나 친한 친구에게는 '예쁘네'라고 말하지만 나이가 많거나 높여야 하는 사람에게는 '예쁘네요, 예쁘시네요' 이렇게 말해요. 듣는 사람을 높이기 위해 '요'를 붙여서 말할 수 있어요.

- + 앞에 있는 말이나 상황을 통해 생략해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경우 문장의 일부를 생략하고 '요'를 붙여 문장 전체의 의미를 전달하는 용법을 설명하기 위해 두 사람이 같은 질문을 하게 하면 좋다. 서로 질문을 하도록 하고 나서 두 번째 질문하는 사람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말고 '요'를 사용해서 간략하게 말할 수 있음을 설명하면 좋다.
- + 보조사 '요'를 도입하면서 해체와 해요체를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다. '해체'의 종결어미에 '요'를 붙이면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해요'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서 보조사 '요'의 기능을 도입하고 나서 도입 1)번과 같은 문장 성분의 일부를 생략할 때 사용하는 용법을 설명하면 좋다.

[형태 정보]

- ① 앞에 오는 말의 끝음절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요'를 쓴다.

예) 학교 + 요 → 학교요 책 + 요 → 책요
 연필 + 요 → 연필요 바다 + 요 → 바다요
 누가 + 요 → 누가요 저기 + 요 → 저기요

①	받침 o	+ 요	학교요, 책요, 연필요
	받침 x	+ 요	바다요, 누가요, 저기요

[문장 구성 정보]

- ① '요'는 격식을 갖추어 말하거나 공식적인 상황보다는 친한 사이에서 편하게 말할 때 사용된다.

예) 아키라라고 해요.
 아키라라고 합니다.

- + '아키라라고 해'에 존대를 나타내는 보조사 '요'를 붙인 '아키라라고 해요'의 경우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편하게 말할 때 많이 사용되며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습니다'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② 보조사 '요'는 해체의 어미 '어, 지, 네, 거든' 등뿐만 아니라 명사, 부사, 조사, 연결 어미 등에 붙어 상대방에 대한 존대의 뜻을 나타낸다.

예) 가: 어제 친구 어디에서 만났어요?

나: 여의도요.

가: 아키라 씨, 밥은 보통 어디에서 먹어요?

나: 집에서요.

가: 무슨 걱정 있어요?

나: 없는데요 왜요?

- + '어제 친구 어디에서 만났느냐'는 질문에 '여의도에서 만났어요.'와 같은 완전한 문장으로 대답할 수도 있지만 문장 내용 중에 신정보에 해당하는 '여의도'에 보조사 '요'를 붙여 문장의 내용을 대신할 수 있다.

[확장]

- ① 말버릇처럼 할 말을 약간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요'의 억양을 올려 천천히 말하는 경향이 있다.

예) 저는요 밤을요 아주 잘 먹어요.

어제요 저요 한숨도 못 잤어요.

- + 말버릇처럼 사용하는 '요'는 어절 단위로 사용되며 어절마다 사용하기도 하고 처음 나타나는 어절에만 사용하기도 한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 ① 대응 표현: 대응 표현 없음.

예) 왕밍 씨, 우리가 끝내 이겼어요. - 王明, 我们终于赢了.

어서요. 시간이 없어요. - 快点啊, 没时间啦.

잘하기는요. 한국어를 잘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 好什么呀, 要能说好韩国语还远着呢.

아침 식사 전에 사과를 드시면요, 건강에 좋아요.

- 早饭前吃一个苹果, 有利于健康.

뭐라고요? 잘 안 들리는데요, 큰 목소리로 말해 주세요.

- 你说什么? 听不清, 请大声.

"숙제는 다 했니?" "아니요, 아직요". - "做完作业了吗?" "没有, 还没有呢."

- ② 용법과 오류

-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편하게 말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 '요'와 '-습니다', '-다'를 구분하지 않고 리포트나 논문에 '요'를 사용하거나 공식적인 장소에서 '요'를 사용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예)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의 품사에 대해 논의했어요. (x) ('했다'로 표현해야 할 경우)

본 논문에서는요, 한국어의 품사에 대해 논의했다. (x)

이 자리를 빛내주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해요. (x)

('합니다'로 표현해야 할 경우)

- 반말을 써도 되는 상대에 대해서도 '요'를 쓰는 오류가 나타난다.

예) 꼬마야, 금년에 몇 살이에요? (x) ('이니?'로 표현해야 할 경우)

멍멍아, **저리 가요**. (x) ('저리 가'로 표현해야 할 경우)

- 해라체를 사용해야 하는 문장에서 '요'를 쓰는 오류가 나타난다.

예)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여, **각성해요**. (x) ('각성하라'로 표현해야 할 경우)

총장은 **물러가요**. (x) ('물러가라'로 표현해야 할 경우)

아프니까, **청춘이요**. (x) ('청춘이다'로 표현해야 할 경우)

3.1.8. '으로부터'

으로부터[로부터][조사] 어떤 행위의 출발점이나 어떤 행위가 **비롯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조사.

으로부터: (명사에 붙어) 어떤 행위나 일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나 대상임을 나타낸다.

[예문]

담화예문	가: 제주도에 벚꽃이 피었다고 해요. 나: 서울보다 빨리 피네요. 가: 네, 꽃 소식은 남쪽 으로부터 올라와요. 나: 아, 단풍은 북쪽 으로부터 , 꽃은 남쪽 으로부터 시작되는군요. 가: 김 선생님이 내일부터 학교에 안 나오신다면서요? 나: 저도 친구 로부터 들었는데, 외국에 가시나 봐요. 가: 아, 가시기 전에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인사도 못 드렸어요. 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메일이라도 드려야겠어요.
문장예문	· 낮에는 바다 로부터 해풍이 불어서 시원해요. · 이 일은 지금 으로부터 30년 전에 일어났다. · 선생님 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어요. · 저는 형 으로부터 인생을 배웠어요. · 유진 씨는 부모님 으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 그 얘기를 누구 로부터 들었어요? · 이 병은 닭 으로부터 옮습니다. · 학교 로부터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 아키라 씨가 총장님 으로부터 상을 받았다.

+ '으로부터'는 어떤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주어진 행위가 시작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부사격 조사이다. 움직임의 경로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에 행위의 출발점을 나타내는 조사 '부터'가 결합한 형태이다. '꽃 소식은 남쪽으로부터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꽃의 개화가 남쪽에서 출발하여 다른 지점으로 이동됨을 나타낸다.

- + '으로부터' 앞에 '사람'이 올 때는 '에게서', '한테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친구로부터 들었다'는 것은 '친구에게서 들었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도입]

(1)

교사: (쉬운 한자를 몇 개 판서하면서) 한자예요. 이 한자를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학생: 아니요. 중국에서 왔어요.

교사: 맞아요. 한자는 중국**으로부터** 왔어요.

(2)

교사: (학생 물건 중 하나 가리키며) 이 시계 왕밍 씨가 샀
어요?

학생: 아니요. 부모님이 사 주셨어요.

교사: 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군요.

- + '으로부터'를 도입할 때 선수 문법 '에게서'나 '에서'를 이용해서 동일하게 출처를 나타낸다고 설명할 수도 있고 상황을 통해서 의미를 인지시킬 수도 있다.
- + 상황을 통해서 도입할 경우 한자가 중국에서 들어오고, 부모님이 선물을 주신 것과 같은 상황을 주고 교사가 '으로부터'를 이용하여 문장을 만듦으로써 사용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 + 선수 문법 '에게서'나 '에서'를 이용하여 출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도입할 경우 행위가 비롯되는 출발점이라는 것은 동일하나 '으로부터'가 이동의 경로나 방향이 강조된다고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형태 정보]

- ①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으로부터'를 쓴다.

예) 부모님 + 으로부터 → 부모님 으로부터	닭 + 으로부터 → 닭 으로부터
외국 + 으로부터 → 외국 으로부터	북쪽 + 으로부터 → 북쪽 으로부터
형 + 으로부터 → 형 으로부터	책 + 으로부터 → 책 으로부터

- ②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로부터'를 쓴다.

예) 학교 + 로부터 → 학교 로부터	누나 + 로부터 → 누나 로부터
나 + 로부터 → 나 로부터	여기 + 로부터 → 여기 로부터
하늘 + 로부터 → 하늘 로부터	유월 + 로부터 → 유월 로부터

①	받침 o	+ 으로부터	부모님 으로부터 , 닭 으로부터 , 외국 으로부터 , 형 으로부터 , 북쪽 으로부터 , 책 으로부터
②	받침 x	+ 로부터	학교 로부터 , 누나 로부터 , 나 로부터 , 여기 로부터

	ㄹ 받침	+ 로부터	하늘로부터, 유월로부터
--	------	-------	--------------

[문장 구성 정보]

- ① 도착점을 나타내는 '까지'와 짝을 이루어 사건의 범위를 표현하기도 한다.

예) 부모님**으로부터** 막내**까지** 모두 여섯 식구가 여행을 갔다.
 서울**로부터** 제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불교는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거쳐 일본**까지** 전해졌습니다.

[확장]

- ①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출발점이나 시작점을 나타낸다.

예) 우리 학교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세워졌다.
 우리 학교는 집**으로부터** 너무 멀어서 다니기가 어렵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로 가까운 위성이다.

- ② 맞서는 대상이나 벗어나는 대상을 나타낸다.

예)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지구를 지켜야 한다.
 폭력**으로부터** 모든 인간을 보호해야 한다.
 대학을 졸업하며 시험**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나는 올해 회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유사 문법]

- ① '으로부터', '에게서', '한테서'

으로부터	에게서	한테서
. 어떤 행위의 출발점이나 어떤 행위가 비롯되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 말할 때나 글을 쓸 때 모두 쓰인다.	. 말할 때나 글을 쓸 때 모두 쓰인다.	. 주로 말할 때 쓰인다.
. 출처를 나타내며, 앞에 오는 명사에 특별한 제약이 없이 사람, 동물, 장소, 시간 등이 모두 올 수 있다. 예) 사장님 으로부터 월급을 받았어요. (o) 회사 로부터 월급을 받았어요. (o) 지금 으로부터 1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o)	. 출처를 나타내며, 앞에 사람이나 동물이 온다. 예) 사장님 에게서 월급을 받았어요. (o) 회사 에게서 월급을 받았어요. (x)	. 출처를 나타내며, 앞에 사람이나 동물이 온다. 예) 사장님 한테서 월급을 받았어요. (o) 회사 한테서 월급을 받았어요. (x)

. 뒤에 오는 서술어에 제약이 거의 없다.	. 주로 '받다, 배우다, 듣다, 빌리다' 등의 서술어와 함께 쓴다. 예) 이 시계는 친구 에게서 받았어요. 이 책은 동생 에게서 빌렸다.	. 주로 '받다, 배우다, 듣다, 빌리다' 등의 서술어와 함께 쓴다. 예) 이 옷은 부모님 한테서 선물로 받았어요. 이 책은 친구 한테서 빌린 거예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从', '自', '由', '距'

- 예) 서울**로부터** 시작하여 비가 내리고 있어요. - 从首尔开始下着雨.
심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 从裁判那里受到了警告.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는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 开始了自上而下的改革.
이 일은 이사회**로부터** 결정한 것이다. - 此事由董事会决定的.
훈민정음의 창제는 지금**으로부터** 약 6백년 전의 일이다.
- 训民正音的创制距今大约六百年前的事了.

② 용법과 오류

- 중국어의 '从'은 '으로부터' 외에도 '에서', '한테서' 등 여러 조사들과 대응되므로 학습자는 이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하기 쉽다.

- 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공격을 받았다. (x)
친구**한테서** 받는 편지**한테서** 많은 용기를 얻었다. (x)

-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으로부터'를 쓰고, 끝음절이 'ㄹ'로 끝나거나 받침이 없으면 '로부터'를 쓰는 형태 정보를 혼동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 예) 중국에 계신 부모님**로부터** 국제 전화가 왔다. (x)
친구**으로부터** 들은 얘기이다. (x)
오늘**으로부터** 다이어트운동을 시작했다. (x)

- '으로부터'와 '부터'를 구분하지 못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 예) 친구**부터** 소식을 들었어요. (x)
아시아운동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세계 각지**부터** 선수들이 인천에 모여들었다. (x)
남대문**부터**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x)

3.1.9. '이 고'

이고[고][조사]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나열하여 똑같이 선택함을 나타내는 조사.

이고: (명사 뒤에 붙어) 둘 이상의 사물을 나열하여 같은 자격으로 모두 선택함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커피 였었어요? 나: 네, 컵을 잘못 드는 바람에 커피를 쏟았어요. 가: 가방 괜찮아요? 나: 아니요. 책이고, 공책이고, 필통이고 다 젖었어요.</p> <p>가: 아키라 씨는 정말 한국어를 잘하는 것 같아요. 나: 맞아요. 선생님들도 잘한다고 하셨어요. 가: 학생이고, 선생님이고 다들 아키라 씨를 칭찬해요. 나: 저도 아키라 씨처럼 한국어를 잘했으면 좋겠네요.</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수는 이번 시험에서 수학이고 과학이고 못 본 게 하나도 없어요. ·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없었던 일로 합시다. · 입맛이 없으니 밥이고 빵이고 다 먹기 싫어요. · 집에 불이 나서 옷이고 신발이고 모두 다 타 버렸어요. · 민수 씨는 사장이고 부사장이고 할 거 없이 모두 칭찬하는 직원입니다. · 저는 운동은 뭐든지 다 좋아해요. 축구고 야구고 농구고 다 재미있어요. · 저는 닭고기고 돼지고기고 소고기고 간에 고기라면 다 잘 먹어요. · 그 사람은 무엇이고 다 잘 먹어요. · 소방관들은 불이 난 곳이면 어디고 달려갑니다. · 오빠는 어떤 것이고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이걸로 사자.

+ '이고'는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모두 선택함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뒤에 '다, 모두, 간에, 할 거 없이' 등의 표현과 자주 결합하여 사용된다.

+ '무엇, 누구, 언제' 등의 의문대명사에 붙을 경우 '가리지 않고 전부'의 뜻이 있다.

[도입]

<p>(1)</p> <p>교사: 여러분 운동 좋아해요?</p> <p>학생: 네.</p> <p>교사: 어떤 운동을 좋아해요?</p> <p>학생: 야구를 좋아해요.</p>

교사: 야구만 좋아해요?

학생: 아니요, 농구도 좋아해요.

교사: 그래요? 선생님도 운동 좋아해요. 수영**이고** 야구**고** 축구**고** 다 좋아해서 주말마다 항상 운동을 해요. 선생님은 수영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영도 야구도 축구도 모두 좋아해요. '이고'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모두를 함께 말할 때 사용해요.

(2)

교사: 요즘 선생님 너무 피곤해요.

학생: 왜요? 선생님?

교사: 친한 친구가 남자 친구하고 싸웠대요. 그래서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자꾸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고민을 이야기해요. 선생님 친구가 낮에만 전화하는 것이 아니고 새벽에도 전화해요. 잠에도 전화해요. 항상 전화해서 힘들어요. '이고'는 이렇게 예로 든 여러 가지 모두가 그렇다는 것을 나타내요.

- + '이고'를 도입할 때 나열되는 여러 가지 모두가 선택되는 것을 예로 드는 것이 좋다. 이때 선호도의 차이가 없이 좋아하는 것들의 예를 들어 연결되는 항목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음을 보인다.
- + '이고'를 도입하면서 선수 문법인 조사 '도'를 이용할 수 있다. 먼저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 것들의 예를 들면서 A도 B도 C도 다 해당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 문장을 다시 A이고 B이고 C이고를 사용해서 바꾸어 줌으로써 나열되는 항목 모두가 선호도나 중요도의 차이 없이 어떤 조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형태 정보]

①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이고'를 쓴다.

예) 책 + 이고 → 책이고 돈 + 이고 → 돈이고
 우정 + 이고 → 우정이고 집 + 이고 → 집이고
 믿음 + 이고 → 믿음이고 말 + 이고 → 말이고

②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없으면 '고'를 쓴다.

예) 친구 + 고 → 친구고 축구 + 고 → 축구고
 학교 + 고 → 학교고 영어 + 고 → 영어고
 누구 + 고 → 부모고 언제 + 고 → 언제고

①	받침 o	+ 이고	책이고, 돈이고, 우정이고, 집이고, 믿음이고, 말이고
②	받침 x	+ 고	친구고, 축구고, 학교고, 영어고, 누구고, 언제고

[문장 구성 정보]

- ① 연결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 모두, 전부, 간에' 등과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다.

예)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청소고 빨래고 설거지고 **모두** 제가 할게요.

책**이고** 공책**이고** **간에** **다** 갖다 버리세요.

- + '돈**이고** 뭐고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돈도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뜻인데 빠짐없이 모두 필요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부사 '다'를 사용하고 있다. '책**이고** 공책**이고** **간에** **다** 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에 해당하든지 모두 버리라는 뜻이다. 조건에 관계없이 모두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간에'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 ② 둘 이상의 명사나 부사를 연결하여 나열하지만 앞에 '무엇, 언제, 어디, 누구, 아무' 등과 같은 의문대명사나 부정(不定)대명사가 오는 경우 하나의 명사 뒤에도 사용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나열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것의 나열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고'는 '모두 가리지 않고 전부'의 뜻을 가진다.

예) 무엇**이고** **다** 잘 먹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바빠서 여행을 전혀 못 가요. 어디**고** 가기만 해도 좋을 거 같아요.

저도 언제**고** 꼭 한번 그 나라에 가 보고 싶네요.

- + '무엇**이고** **다** 잘 먹는다'고 하는 것은 A이고 B이고 C이고 할 것 없이 **다** 잘 먹음을 함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어디**고** 가기만 해도 좋겠다'고 하는 것은 서울이고 부산이고 가까운 곳이고 먼 곳이고 할 것 없이 가기만 하면 전부 다 좋다는 뜻이다. 끝으로 '언제**고** 꼭 가 보고 싶다'고 하는 것은 가까운 미래고 먼 미래고 할 것 없이 언젠가는 꼭 한번 가 보고 싶다는 뜻이다.

- ③ 앞에 '무슨 N, 어떤 N, 어느 N'이 오는 경우에도 하나의 명사 뒤에 사용 가능하다. 이 역시 구체적으로 나열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것의 나열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고'는 '모두 가리지 않고 전부'의 뜻을 나타낸다.

예) 민수 씨는 무슨 일**이고** 열심히 해요.

아키라는 어떤 음식**이고** 맛있게 먹어요.

어느 집**이고** 걱정이 있어요.

- + '무슨 일**이고** 열심히 한다'는 것은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어떤 일도 **다** 열심히 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제약 정보]

- ① 영어에서 나열할 때는 접속사 쉼표(,)로 나열하고 마지막 항목 바로 앞에만 'and'를 넣어 주는 것과 달리 한국어에서는 대등하게 이어지는 모든 명사 뒤에 조사를 넣어 준다.

예) 올해는 날씨가 좋아서 사과고 배고 귤**이고** **다** 맛있다. (o)

올해는 날씨가 좋아서 사과, 배, 귤**이고** **다** 맛있다. (x)

- ② '과'로 나열할 때와 달리 마지막에 연결되는 항목 뒤에도 접속조사 '이고'를 넣어 준다.

예) 저는 과일은 사과**고** 배**고** 귤**이고** **다** 좋아해요. (o)

- 저는 과일은 사과**고** 배**고** 귤을 다 좋아해요. (x)
 저는 과일은 사과**와** 배**와** 귤을 다 좋아해요. (o)
 저는 과일은 사과**와** 배**와** 귤**과** 다 좋아해요. (x)
 + '과'로 접속할 경우는 마지막에 나열되는 항목에는 '과'가 붙지 않아야 하지만 '이고'로 접속할 경우에는 마지막 항목까지 '이고'가 붙어야 한다.
 + '과일은 사과고 배고 귤이고 다 좋아한다'는 것은 세 가지 모두 다 좋아하는 것은 물론이도 세 가지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과일도 좋아할 가능성이 있음을 함축한다. 이에 반하여 '과일은 사과와 배와 귤을 다 좋아해요'라고 하는 것은 '이며'의 경우보다 좋아하는 과일이 세 가지로 국한되는 느낌이 강하다.

[유사 문법]

① '이고', '이며', '이다', '하며', '이든', '이든지'

이고	이며, 이다, 하며	이든, 이든지
. 두 항목 이상을 나열할 때 사용한다. 예) 수지는 낮 이고 밤 이고 열심히 공부를 한다. 수지는 낮 이며 밤 이며 열심히 공부를 한다. 수지는 낮 이든 밤 이든 열심히 공부할 한다.		
. 연결되는 항목 간에 배제적인 선택의 의미가 없다. 예) 영수는 눈 이고 코 고 아버지를 꼭 닮았다.	. 연결되는 항목 간에 배제적인 선택의 의미가 없다. 예) 영수는 눈 이며 코 며 아버지를 꼭 닮았다.	. 연결되는 항목 간에 배제적인 선택의 의미가 있다. 예) 영수는 눈 이든 코 든 아버지를 닮았다.
. '무엇, 언제, 어디, 누구, 아무' 등과 같은 의문대명사나 부정(不定)대명사 뒤에 사용할 수 있다. 예) 무엇 이고 물어보세요. (o) 저는 언제 고 다 좋아요. (o)	. '무엇, 언제, 어디, 누구, 아무' 등과 같은 의문대명사나 부정(不定)대명사 뒤에 사용할 수 없다. 예) 무엇 이며 물어보세요. (x) 언제 하며 다 좋아요. (x)	. '무엇, 언제, 어디, 누구, 아무' 등과 같은 의문대명사나 부정(不定)대명사 오는 경우 하나의 명사 뒤에도 사용할 수 있다. 예) 무엇 이든 물어보세요.(o) 언제 든지 좋아요.(o)

- + '눈이며 코며 아버지를 닮았다', '눈이고 코고 아버지를 닮았다'는 눈과 코가 다 닮았다는 뜻이며, '눈이든 코든 아버지를 닮았다'는 아버지를 닮은 부분이 눈인지 코인지 모르지만 (어떤 것이어도 상관없음) 아버지를 닮았다는 뜻이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呀', '啊', '啦'와 대응되고 '不管', '不论'과도 부분 대응됨.

- 예) 미세먼지로 인해 산**이고** 강**이고** 다 오염되었어요.
 - 由于雾霾, 山**呀**河**呀**都被污染了.
 건강이 나빠지면 여행**이고** 뭐**고** 다 꿈같은 얘기예요.
 - 如果失去了健康, 旅行**啊**什么的都成了天方夜谭了.

서재에 난 화재로 인해 책~~이~~고 책상~~이~~고 다 타 버렸습니다.

- 书房着火, 书啊桌子啊都被烧掉了.

오늘은 청소고 빨래고 설거지고 모두 제가 할게요.

- 今天打扫啦, 洗衣服啦, 洗碗啦都由我来做吧.

우리 아이는 무엇~~이~~고 다 잘 먹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 我家孩子不管什么都吃得香, 可以省不少心.

② 용법과 오류

-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이고'를 쓰고 받침이 없으면 '고'를 쓰는데 대응하는 중국어는 이런 변화가 없으므로 양자를 혼동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예) 저는 과일은 사과고 배고 귤고 다 좋아해요. (x)

대학입시를 위해 친구고 우정고 뒤로 한 채 공부만 했습니다. (x)

건강이 나빠지면 사업이고 친구~~이고~~ 돈이고 뭐~~이고~~ 다 귀찮아져요. (x)

민수 씨에 대해 사장이고 동료~~이고~~ 부하 직원이고 다 칭찬해요. (x)

- 중국어의 '不管', '不论' 어휘들은 '관계없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이고'를 사용하지 않고 '관계없이'를 사용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예) 바빠서 여행을 전혀 못 가요. 어디 관계없이 가기만 해도 좋을 거 같아요. (?)

(‘어디고’로 표현해야 할 경우)

저는 언제 관계없이 꼭 한번 한국에 가고 싶어요. (?)

(‘언제고 꼭’으로 표현해야 할 경우)

저는 과일은 사과, 배, 귤, 관계없이 다 좋아해요. (?)

(‘사과고 배고 귤이고’로 표현해야 할 경우)

3.1.10. ‘이나마’

이나마[조사] 부족한 정도이지만 아쉬운 정도로 받아들임을 나타내는 조사.

이나마: (명사나 부사에 붙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부족하지만 아쉬운 대로 받아들임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가: 배고픈데 밥 좀 주세요.</p> <p>나: 밥이 없는데 어떡하죠? 이 빵이나마 드시겠어요?</p> <p>가: 네, 빵도 괜찮아요.</p> <p>나: 죄송해요. 밥을 못 해드려서.</p>
------	--

	<p>가: 집들이에 와 주셔서 감사해요.</p> <p>나: 네, 부자 되세요. 집이 조용하고 참 좋네요.</p> <p>가: 좋기는요. 좋지는 않지만 안 좋은 집이나마 우리 집이 있어서 정말 좋아요.</p> <p>나: 맞아요. 자기 집이 최고지요.</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은 망했지만 몸이나마 건강해서 다행이에요. · 여행 갈 시간이 없으니까 가까운 공원이나마 다녀와야겠어요. ·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얼굴이나마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 선생님 덕분에 잠깐 동안이나마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 빈 말이나마 칭찬해 줘서 고마워. · 소나기가 와서 잠시나마 시원하네요. · 이렇게나마 소식을 들어서 정말 기쁩니다. · 조금이나마 너를 이해하게 되어 다행이야. · 적은 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전화로나마 네 목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아졌어.

- + '이나마'는 앞에 나온 조건이 부족하거나 충분하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받아들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밥을 요청한 사람에게 '빵**이나마** 드시겠어요?'하고 물어보는 것은 요청한 밥이 빵에 비해 마음에 들지 않고 부족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겠는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 + 조사가 명사에 붙을 수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부사에 붙을 수 있다는 것은 잘 모르는 학습자가 많으므로 예문을 들 때 '조금**이나마**, 이렇게**나마**, 잠시**나마**' 등을 반드시 언급하는 것이 좋다.

[도입]

<p>(1)</p> <p>교사: (더운 날씨를 보여 주는 하루 동안의 기온 그래프 또는 더워 보이는 풍경의 사진을 보여 주며) 요즘 낮에 날씨가 너무 더워요. 밤에는 어때요?</p> <p>학생: 밤에는 덥지 않아요.</p> <p>교사: 네. 낮에는 정말 덥지만 밤이나마 덥지 않아서 다행이에요.</p> <p>(2)</p> <p>교사: (냉장고에 먹을 것이 거의 없는 그림. 물, 우유만 있음) 지금 배가 많이 고프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p> <p>학생: 우유 드세요.</p> <p>교사: 선생님은 우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배고 많이 고프니까 우유나마 먹어야겠어요.</p>
--

- + '이나마'를 도입할 때 사진이나 그림을 활용하거나 상황 예문을 들어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지만 그 정도라도 수용한다는 의미를 인지시킬 수 있다. 원하는 것을 완전히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임을 강조할 수 있도록 '낮에는 덥지만'이라든지 '우유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과 같은 불만족한 점을 앞 절에 넣어서 도입하는 것이 좋다.

[형태 정보]

①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이나마'를 쓴다.

예) 식당 + 이나마 → 식당이나마 말 + 이나마 → 말이나마
 공원 + 이나마 → 공원이나마 집 + 이나마 → 집이나마
 빵 + 이나마 → 빵이나마 며칠 + 이나마 → 며칠이나마

②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없으면 '나마'를 쓴다.

예) 사과 + 나마 → 사과나마 날씨 + 나마 → 날씨나마
 학교 + 나마 → 학교나마 하루 + 나마 → 하루나마
 너 + 나마 → 너나마 전화 + 나마 → 전화나마

①	받침 o	+ 이나마	식당이나마, 말이나마, 공원이나마, 집이나마, 빵이나마, 며칠이나마
②	받침 x	+ 나마	사과나마, 날씨나마, 학교나마, 하루나마, 너나마, 전화나마

[문장 구성 정보]

① 부사격 조사 '에서, 까지, 으로' 등과 결합할 수 있다.

예) 전화로**나마** 네 목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아졌어.
 왜 집에서도 정장을 입고 있어요? 집**에서나마** 편한 옷 입고 편하게 쉬세요.

가: 왜 친구하고 서울에서 만나서 같이 안 가고 부산에서 만나요?

나: 친구하고 같이 가면 좀 불편해서요. 부산**까지만** 편하게 가고 싶어요.

②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사용하면 공손성이 결여되어 어색한 문장이 된다.

예) 아키라 씨, 80점**이나마** 맞아서 다행이네요. (??)

가: 아키라 씨, 시험 잘 봤어요?

나: 아니요. 그래도 80점**이나마** 맞아서 다행이에요. (o)

+ 위의 예문에서 아키라의 시험 점수에 대해서 아키라 자신이 '80점이나마'라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아키라에게 직접 말을 걸면서 아키라가 '80점이나마' 받았다고 하면 어색하다. '이나마'가 만족스럽지 않은 조건이라는 의미로, 청자 앞에서 청자에 대한 평가로 '이나마'를 사용하면 공손하지 않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확장]

① 동일한 형태지만 다른 역할을 하는 부사 '이나마'와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부사 '이나

마'는 부족하고 모자라기는 하지만 그런 정도쯤인 것이 다행이라는 의미로, '이나마' 앞에 명사나 다른 부사가 오지 않는다.

예) **이나마**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큰 사고가 났는데 다리만 다쳤으니 **이나마** 다행이에요.

우리 사회가 **이나마**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노력 덕분입니다.

[유사 문법]

① '이나마', '이라도'

이나마	이라도
. 앞에 오는 것이 만족할 만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런대로 받아들일 만함을 나타낸다.	
. 차선의 선택이라기보다는 받아들이기에 조금 부족한 조건임을 강조한다.	. 차선의 선택임을 나타낸다.
예) 잠시 나마 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밥이 없는데 빵이나마 드시겠어요? 밥이 없으면 라면 이나마 주세요. (??)	예) 잠시 라도 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밥이 없는데 빵이라도 드시겠어요? 밥이 없으면 라면 이라도 주세요.

+ '이나마'는 받아들이기에 부족한 조건이라는 점에서 조사 '이라도'와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나 '이나마'의 경우가 부족한 조건이라는 것이 더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상대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상대에게 요청하면서 '이나마'를 사용하면 어색하다.

+ '밥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밥이 제일 좋지만 차선의 선택으로 라면도 괜찮다는 뜻이 강한데 '라면이나마 달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제공한 조건인 라면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이 강조되기 때문에 공손성이 결여되어 어색한 문장이 된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虽然……但', '尽管……也', '就是'

예) 사업은 망했지만 몸**이나마** 건강해서 다행이에요. - 虽然破产了, 但幸好身体还健康.

잠시**나마** 숨 돌릴 기회를 얻었다. - 虽然短暂, 但争取了喘气的机会.

낡은 것**이나마** 아직 쓸모가 있다 - 尽管旧了, 但也还有用.

자그마한 성의**나마** 받아주십시오. - 就是一点小小心意, 请收下吧.

② 용법과 오류

-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이나마'를 쓰고 받침이 없으면 '나마'를 쓴다. 양자를 혼동하여 오류가 나타난다.

예) 전화를 해주시니 조금**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x)

한창 바쁜 와중에 하루**이나마** 휴가가 나와서 다행이다. (x)

- '이나마'와 '이라도'를 혼동하여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여름 방학에 여행**이나마** 다녀오겠다. (x)

아무리 어려운 길**이나마** 친한 친구와 함께 가면 훨씬 쉬워진다. (x)

먹구름이 잔뜩 낀 것이 당장**이나마** 소나기가 올 것 같다. (x)

- '이나마'는 아쉬운 정도의 화용적 의미를 나타내지만 '이나마'를 사용하지 않고 비슷한 다른 표현으로 중국어의 '虽然.....但', '就是'의 문맥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들은 '이나마'를 회피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3.1.11. ‘이든’

이든[든]{이든지[든지]}[조사] 어떤 것을 선택하여도 차이가 없는 둘 이상을 나열하는 조사.

이든: (명사나 부사 뒤에 붙어) 어떤 것을 선택하여도 차이가 없는 둘 이상을 나열하여 연결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임신했다면서요? 축하해요. 나: 고맙습니다. 가: 아들인지 딸인지 아세요? 나: 아니요. 몰라요. 하지만 아들이든 딸이든 전 둘 다 좋아요.</p> <p>가: 우리 언제 만날까요? 나: 전 바쁘지 않으니까 민수 씨가 정하세요. 가: 그럼 내일이 좋아요? 모레가 좋아요? 나: 내일이든 모레든 상관없어요.</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밥이든 빵이든 먹을 거 있으면 좀 주세요. · 낮이든 밤이든 그렇게 공부만 하다가는 병 나겠어요. · 노래든 운동이든 뭐든 잘하는 거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요. · 저는 고기든 채소든 다 잘 먹어요. · 축구든 야구든 운동은 다 재미있는 거 같아요. · 우유든 주스든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 아무거나 가져다 먹어라. ·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 저는 어디든지 좋으니까 민수 씨가 편한 장소에서 만나기로 해요. · 민수 씨는 천재인 거 같아요. 물어보면 무엇이든지 모르는 게 없어요.

- + ‘이든’은 어떤 것을 선택하여도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는 접속조사로 두 개 이상의 명사나 부사를 대등하게 이어 준다.
- + ‘무엇, 누구, 언제’ 등의 의문대명사에 붙을 경우 ‘가리지 않고 전부’의 뜻이 있다.
- + ‘이든’, ‘이든지’는 의미와 용법에 차이가 전혀 없어 바꾸어 써도 무방하다.

[도입]

(1)

교사: 방학에 뭐 할 거예요?

학생: 여행 갈 거예요.

교사: 어디로 갈 거예요?

학생: 설악산으로 가려고요.

교사: 바다는 안 좋아해요?

학생: 저는 바다보다 산을 좋아해요.

교사: 그래요? 저는 바다, 산 모두 좋아요. 저도 산**이든** 바다**든** 어디**로든**지 여행가고 싶네요. 선생님은 바다도 산도 다 좋아요. 산에 가도 좋고 바다에 가도 좋아요. 이렇게 '이든, 이든지'는 어떤 것을 선택해도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요.

(2)

교사: 시험 끝났으니까 주말에 만나서 노래방에 가요. 몇 시쯤이 좋아요?

학생: 선생님은 몇 시가 좋으세요?

교사: 11시도 좋고 12시도 좋고 1시도 2시도 다 좋아요. 토요일에는 종일 시간이 있어요. 토요일은 오전**이든** 오후**든** 언제**든** 다 되니까 여러분이 좋은 시간으로 정하세요.

- + '이든'을 도입할 때 나열되는 여러 가지 중 어떤 것을 선택해도 차이가 없는 항목들을 예로 드는 것이 좋다. 선호도의 차이가 없는 것들을 예로 들어 연결 순서가 중요하지 않음을 보이면, '이든'이 어떤 것을 선택해도 차이가 없는 명사들을 연결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
- + '이든'을 도입하면서 선수 문법인 조사 '도'를 이용할 수 있다. 먼저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 것들의 예를 들면서 A도 B도 C도 다 해당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 문장을 다시 A이든 B이든 C이든을 사용해서 바꾸어 줌으로써 나열되는 항목 어떤 것도 선호도나 중요도의 차이 없이 어떤 조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형태 정보]

①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이든'을 쓴다.

예) 책 + 이든 → 책이든	돈 + 이든 → 돈이든
우정 + 이든 → 우정이든	집 + 이든 → 집이든
믿음 + 이든 → 믿음이든	말 + 이든 → 말이든

②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없으면 '든'을 쓴다.

예) 친구 + 든 → 친구든	축구 + 든 → 축구든
학교 + 든 → 학교든	영어 + 든 → 영어든

부모 + 든 → 부모든			언제 + 든 → 언제든
①	받침 o	+ 이든	책이든, 우정이든, 믿음이든, 돈이든, 집이든, 말이든
②	받침 x	+ 든	친구든, 학교든, 부모든, 축구든, 영어든, 언제든

+ '이든지'도 '이든'과 동일한 규칙에 따른다.

[문장 구성 정보]

- ① 둘 이상의 명사나 부사를 연결하여 나열하지만 앞에 '무엇, 언제, 어디, 누구, 아무' 등과 같은 의문 대명사나 부정(不定) 대명사가 오는 경우 하나의 명사 뒤에도 사용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나열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것의 나열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든'은 '모두 가리지 않고 전부' 또는 '언제나'의 뜻을 가진다.

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언제든지 좋아요.

+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하는 것은 A든 B든 C든 다 괜찮음을 함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좋다'고 하는 것은 오늘이든 내일이든 그 언제든 다 괜찮다는 뜻이다.

- ② 앞에 '무슨 N, 어떤 N, 어느 N'이 오는 경우에도 하나의 명사 뒤에 사용 가능하다. 이 역시 구체적으로 나열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것의 나열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든' 역시 '모두 가리지 않고 전부'의 뜻을 나타낸다.

예) 민수 씨는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해요.

아키라는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먹어요.

어느 집이든 걱정이 있어요.

+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한다'는 것은 회사일이든, 심부름이든, 집안일이든 다 열심히 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음식이든 잘 먹는다'고 하는 것은 매운 음식이든 단 음식이든 다 잘 먹는다는 것을 함축한다.

[제약 정보]

- ① 영어에서 나열할 때는 접속사 쉼표(,)로 나열하고 마지막 항목 바로 앞에만 'and'를 넣어 주는 것과 달리 한국어에서는 대등하게 이어지는 모든 명사 뒤에 넣어 준다.

예) 올해는 날씨가 좋아서 사과든 배든 귤이든 다 맛있다. (o)

올해는 날씨가 좋아서 사과, 배, 귤이든 다 맛있다. (x)

- ② '과'로 나열할 때와 달리 마지막에 연결되는 항목 뒤에도 접속조사 '이든'을 넣어 준다.

예) 저는 과일은 사과든 배든 귤이든 다 좋아해요. (o)

저는 과일은 사과든 배든 귤을 다 좋아해요. (x)

저는 과일은 사과와 배와 귤을 다 좋아해요. (o)

저는 과일은 사과와 배와 귤과 다 좋아해요. (x)

- + '과'로 접속할 경우는 마지막에 나열되는 항목에는 '과'가 붙지 않아야 하지만 '이든'으로 접속할 경우에는 마지막 항목까지 '이든'이 붙어야 한다.
- + '과일은 사과든 배든 귤이든 다 좋아한다'는 것은 세 가지 모두 다 좋아한다는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세 가지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과일도 좋아할 가능성이 있음을 함축한다. 이에 반하여 '과일은 사과와 배와 귤을 다 좋아해요'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과일이 세 가지로 국한되는 느낌이 '이든'의 경우보다 훨씬 더 강하다.

[유사 문법]

① '이든, 이든지', '이나1'

이든, 이든지	이나1
<p>. 무엇을 선택하든 차이가 없는 항목들을 연결하여 나열한다.</p> <p>. 두 항목 이상을 나열할 때 사용하며 연결되는 항목의 일부만 선택되거나 나열되는 항목의 중요도가 다르지 않다.</p> <p>예) 아침에는 보통 빵이든 과일이든 우유든 냉장고에 있는 거 아무거나 찾아 먹어요.</p> <p>+ 빵이든 과일이든 우유든 냉장고에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먹는다는 뜻으로 나열되는 항목의 어떤 것이 선택되어도 전혀 상관없다. 이 경우 '이든'은 '이나'로 바꾸어 쓸 수 있다.</p> <p>. 두 항목만을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p> <p>예) 아침에는 보통 빵이든 과일을 먹어요.</p> <p>(x)</p>	<p>. 두 항목 이상을 나열할 때 사용하며 연결되는 항목의 무엇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p> <p>예) 아침에는 보통 빵이나 과일이나 우유나 냉장고에 있는 거 아무거나 찾아 먹어요.</p> <p>+ 빵이나 과일이나 우유나 아무거나 상관없이 먹는다는 뜻으로 나열되는 항목의 어떤 것을 선택해도 전혀 상관없다는 점에서 '이든'과 같다.</p> <p>. 두 항목만을 연결하여 두 항목 중 하나만 선택됨을 나타낼 때도 사용한다.</p> <p>예) 아침에는 보통 빵이나 과일을 먹어요.</p> <p>+ '빵이나 과일을 먹는다'는 것은 빵 또는 과일 중 한 가지를 먹는다는 뜻으로 두 가지 중 한 가지만이 선택된다.</p>
<p>. 의문대명사 '언제'에 '이든', '이든지'가 붙으면 '어떠한 경우, 어떠한 시간이라고 하더라도'라는 의미가 강조되며 문장 종결에 제약이 없다.</p> <p>예) 언제든지 좋아요.</p> <p>언제든지 웃어요?</p> <p>언제든지 오세요.</p> <p>+ 언제든지 뒤에 명령문, 평서문, 의문문 등 다양한 문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p>	<p>. 의문대명사 '언제'에 '이나'가 붙은 '언제나'는 '언제든지'와 달리 명령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p> <p>예) 언제나 좋아요.</p> <p>언제나 웃어요?</p> <p>언제나 오세요. (?)</p> <p>+ '언제나'는 '항상'의 의미가 강조되며 '언제든지'는 '어떠한 경우, 어떠한 시간이라고 하더라도'라는 의미가 강조된다. 따라서 '언제나'는 명령문에 사용하면 어색한 경우가 많다.</p>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不论……还是, 不管……还是, 不论, 还是, 或者

예) 밥**이든** 죽**이든** 요기만 하면 돼요. - 不论饭还是粥, 只要吃一点就行.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해라. - 不论做什么事都要热心.

② 용법과 오류

-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이든'을 쓰고 받침이 없으면 '든'을 쓴다. 양자를 혼동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예) 노래**이든** 운동**이든** 잘하는 거 있으면 좋겠어요. (x)
저는 고기**이든** 채소**이든** 과일**이든** 다 좋아해요. (x)
무엇**든지** 철수 씨한테 물어보세요. 모르는 게 없어요. (x)

- 중국어에서 나열할 때는 세 번째 항목부터는 '还是', '或者'를 넣어주지 않아도 되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저는 사과**든** 배**든** 귤을 다 좋아해요. (x)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는 미국**이든** 영국**이든** 중국, 한국 모두 함께 힘써야 합니다. (x)
수영은 어른**이든** 아이**든** 노인과 청년들 다 좋아할 수 있는 운동이다. (x)
고기**든** 채소**든** 과일 다 맛있어요. (x)

3.1.12. '이든가'

이든가[든가][조사] 어떤 것을 선택하여도 차이가 없는 둘 이상을 나열하는 조사.

이든가: (명사나 부사 뒤에 붙어) 어떤 것을 선택하여도 차이가 없는 둘 이상을 나열하여 연결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언제 만날까요? 나: 저는 다음 주는 다 괜찮아요. 가: 저도 괜찮으니까 금요일이든가 토요일이든가 편한 시간으로 정하세요. 나: 그럼, 토요일 점심에 보는 게 어때요? 가: 네, 그럼 토요일 12시에 학교 앞 커피숍에서 만나요.</p> <p>가: 민수 씨 생일인데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나: 글썄요? 민수 씨는 독서가 취미니까 책이 어때요?</p>
------	---

	<p>가: 어떤 책이 좋을까요?</p> <p>나: 역사책이든가 소설책이든가 다 좋을 것 같아요.</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밥이든가 빵이든가 아무 거라도 먹을 거 있으면 좀 주세요. · 낮이든가 밤이든가 아무 때나 편한 시간에 오세요. · 저도 노래든가 운동이든가 뭐든 잘하는 거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요. · 이 길은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친구든가 언니든가 항상 누구랑 같이 다녀요. · 우리 학교 운동장에는 축구든가 야구든가를 하면서 노는 아이들이 항상 있어요. · 냉장고 열어보면 음료수가 많이 있어요. 우유든가 주스든가 아무거나 꺼내 드세요. · 우리 중에 누구든가 한 사람은 남아 있어야 해요. · 저는 어디든가 상관없으니까 민수 씨 편한 대로 정하세요. · 민수 씨는 천재인거 같아요. 어떤 것이든가 모르는 게 없어요. · 둘 중 어느 것이든가 선택하지 않은 수 없어요.

+ '이든가'는 어떤 것을 선택하여도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는 접속조사로 두 개 이상의 명사를 대등하게 이어 준다.

+ '무엇, 누구, 언제' 등의 부정대명사에 붙을 경우 '가리지 않고 전부'의 뜻이 있다.

[도입]

(1)

교사: 방학에 뭐 할 거예요?

학생: 여행 갈 거예요.

교사: 어디로 갈 거예요?

학생: 경주에 갈 거예요.

교사: 선생님은 유럽 여행 갈 거예요?

학생: 어느 나라에 가실 거예요?

교사: 아직 모르겠어요. 독일도 좋고 영국도 좋고 프랑스도 좋고 다 좋을 것 같아요. 독일**이든가** 영국**이든가** 프랑스**든가** 유럽에 있는 나라 어디**든가** 가려고 해요. 이렇게 '이든가'는 어떤 것을 선택해도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요. 독일에 가도 영국에 가도 프랑스에 가도 차이가 없이 다 좋다는 뜻이에요.

(2)

교사: 여러분 토요일에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몇 시쯤이 좋아요?

학생: 선생님은 몇 시가 좋으세요?

교사: 오전도 좋고 오후도 좋고 다 좋아요. 이번 토요일에

는 하루 종일 시간이 있어요. 토요일은 몇 **이든가** 다
되니까 여러분이 좋은 시간으로 정하세요.

- + '이든가'를 도입할 때 나열되는 여러 가지 중 어떤 것을 선택해도 차이가 없는 항목을 예로 드는 것이 좋다. 선호도의 차이가 없는 예로 연결 순서가 중요하지 않음을 보이면, '이든'이 어떤 것을 선택해도 차이가 없는 명사들을 연결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
- + '이든가'를 도입하면서 선수 문법인 조사 '도'를 이용할 수 있다. 먼저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 것들의 예를 들면서 A도 B도 C도 다 해당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 문장을 다시 A이든가 B이든가 C이든가를 사용해서 바꾸어 줌으로써 나열되는 항목 어떤 것도 선호도나 중요도의 차이 없이 어떤 조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 + '이든가'를 도입하면서 선수 문법인 조사 '이든지'를 이용할 수 있다. 어떤 것을 선택해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동일하면 사용 빈도가 '이든지'보다 떨어짐을 언급해 준다. 이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든지'를 '이든가'로 대체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오세요, 무엇이든지 물어 보세요'를 '언제든가 오세요, 무엇이든가 물어 보세요'로 바꾸면 어색함을 지적한다.

[형태 정보]

- ①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이든가'를 쓴다.

예) 책 + 이든가 → 책이든가	돈 + 이든가 → 돈이든가
우정 + 이든가 → 우정이든가	집 + 이든가 → 집이든가
말 + 이든가 → 말이든가	지하철 + 이든가 → 지하철이든가

- ②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없으면 '든가'를 쓴다.

예) 친구 + 든가 → 친구든가	축구 + 든가 → 축구든가
학교 + 든가 → 학교든가	영어 + 든가 → 영어든가
부모 + 든가 → 부모든가	언제 + 든가 → 언제든가

①	받침 o	+ 이든가	책이든가, 돈이든가, 우정이든가, 집이든가, 말이든가, 지하철이든가
②	받침 x	+ 든가	친구든가, 축구든가, 학교든가, 영어든가, 부모든가, 언제든가

[문장 구성 정보]

- ① 둘 이상의 명사나 부사를 연결하여 나열하지만 앞에 '무엇, 언제, 어디, 누구, 아무' 등과 같은 의문 대명사나 부정(不定)대명사가 오는 경우 하나의 명사 뒤에도 사용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나열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것의 나열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든가'는 '모두 가리지 않고 전부' 또는 '언제나'의 뜻을 가진다.

예) 그 사람은 무엇**이든가** 항상 열심히 해요.
다음 주는 언제**든가** 다 좋아요.

- + '무엇이든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은 A든가 B든가 C든가 할 것 없이 다 열심히 함을 함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언제든가 다 좋다'고 하는 것은 월요일이든가 화요일이든가

무슨 요일이든가 다 좋다는 뜻이다.

- ② 앞에 '무슨 N, 어떤 N, 어느 N'이 오는 경우에도 하나의 명사 뒤에 사용 가능하다. 이 역시 구체적으로 나열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것의 나열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든가' 역시 '모두 가리지 않고 전부'의 뜻을 나타낸다.

예) 민수 씨는 무슨 **일이든가** 열심히 해요.
아키라는 어떤 음식**이든가** 맛있게 먹어요.
어느 집**이든가** 걱정이 있어요.

- + '무슨 일이든가 열심히 한다'는 것은 회사일이든지, 심부름이든지, 집안일이든지 다 열심히 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음식이든가 잘 먹는다'고 하는 것은 매운 음식이든가 단 음식이든가 어떤 음식도 다 잘 먹는다는 것을 함축한다.

[제약 정보]

- ① 영어에서 나열할 때는 접속사 쉼표(,)로 나열하고 마지막 항목 바로 앞에만 'and'를 넣어 주는 것과 달리 한국어에서는 대등하게 이어지는 모든 명사 뒤에 넣어 준다.

예) 올해는 날씨가 좋아서 사과**든가** 배**든가** 귤**이든가** 다 맛있다. (o)
올해는 날씨가 좋아서 사과, 배, 귤**이든가** 다 맛있다. (x)

- ② '과'로 나열할 때와 달리 마지막에 연결되는 항목 뒤에도 접속조사 '이든'을 넣어 준다.

예) 저는 과일은 사과**든가** 배**든가** 귤**이든가** 다 좋아해요. (o)
저는 과일은 사과**든가** 배**든가** 귤을 다 좋아해요. (x)
저는 과일은 사과**와** 배**와** 귤을 다 좋아해요. (o)
저는 과일은 사과**와** 배**와** 귤**과** 다 좋아해요. (x)

- + '과'로 접속할 경우는 마지막에 나열되는 항목에는 '과'가 붙지 않아야 하지만 '이든가'로 접속할 경우에는 마지막 항목까지 '이든가'가 붙어야 한다.
+ '과일은 사과든가 배든가 귤이든가 다 좋아한다'는 것은 세 가지 모두 다 좋아한다는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세 가지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과일도 좋아할 가능성이 있음을 함축한다. 이에 반하여 '과일은 사과와 배와 귤을 다 좋아해요'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과일이 세 가지로 국한되는 느낌이 '이든가'의 경우보다 훨씬 더 강하다.

[유사 문법]

- ① '이든가', '이든, 이든지'

이든가	이든, 이든지
-----	---------

무엇을 선택하든 차이가 없는 말을 연결하여 나열한다.

예) 아침에는 보통 빵**이든가** 과일**이든가** 우유**든가** 냉장고에 있는 것을 찾아 먹어요.
아침에는 보통 빵**이든** 과일**이든** 우유**든** 냉장고에 있는 것을 찾아 먹어요.

. 의문대명사 '언제', '무엇' 등에 '이든가'가	. 의문대명사 '언제', '무엇' 등에 '이든'이 붙
------------------------------	-------------------------------

붙은 '언제든가', '무엇이든가'는 명령문에 사용되지 않는다. 예) 언제 든가 오세요. (?) 무엇 이든가 물어 보세요. (?)	은 '언제든', '무엇이든'은 명령문에 사용할 수 있다. 예) 언제 든 오세요. (o) 무엇 이든 물어 보세요. (o)
---	--

+ '빵이든가 과일이든가 우유든가 냉장고에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먹는다는 뜻으로 나열되는 항목의 어떤 것이 선택되어도 전혀 상관없다. 이때 '이든가'를 '이든, 이든지'로 바꾸어 써도 의미 변화가 없다.

+ '이든가'는 어떤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 강조되어 '언제나'의 경우처럼 '항상'의 의미가 강조되며, '언제든지'는 '항상'이라는 의미가 강조되지 않고 '어떠한 경우 어떠한 시간'이라고 하더라도라는 개별 시간이 강조된다. 따라서 '언제든가'는 명령문에 사용하면 어색한 경우가 많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或者, 要么

- 예) 현금**이든가** 수표**든가** 아무 거라도 다 가능합니다.
- 或者现金, 或者支票什么都可以.
사과**든가** 수박**이든가** 과일이면 아무거나 사도 돼.
- 要么苹果, 要么西瓜, 是水果的话买什么都可以.
배낭여행라면 버스**든가** 전철**이든가** 아무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최고이다.
- 如果是自由旅行的话, 要么大巴, 要么地铁, 反正最好利用公共交通.
그는 천재**든가** 미치광이**든가** 둘 중에 하나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 他要么是天才, 要么是疯子, 肯定是两者其一.
너, 형**이든가** 누나**든가** 아니면 동생**이든가** 아무 형제자매가 있니?
- 你有没有哥哥, 姐姐或者弟弟等兄弟姐妹?

② 용법과 오류

-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이든가'를 쓰고 받침이 없으면 '든가'를 쓰는데 양자를 혼동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 예) 왕밍 씨는 노래**이든가** 운동**이든가** 다 잘해요. (x)
저는 고기**이든가** 채소**이든가** 과일**이든가** 무엇**이든가** 다 좋아해요. (x)
언제**이든가**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x)

- 중국어에서 나열할 때는 두 항목이면 '或者'를 하나만 사용해도 되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 예) 저는 사과**든가** 배를 다 좋아해요. (x)
콜라는 미국**이든가** 중국, 한국 어린이들이 다 즐겨 마시는 음료이다. (x)
달리기는 어른, 어린이, 노인**이든가** 청년들 모두 다 할 수 있는 운동이다. (x)
마트에서는 고기, 채소**이든가** 과일**이든가** 다 팔아요. (x)

- '或者'가 '거나', '이든'과도 대응되므로 이들을 혼동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저는 주말이면 축구 경기**든**, 영화**이든가** 무언가를 즐깁니다. (x)
 현금**이든가** 수표**이든**, 아무 거라도 다 가능합니다. (x)

3.1.13. ‘이라고’

이라고[라고]{이라[라]}[조사] 앞에 오는 말이 **직접 인용**됨을 나타내는 조사.

이라고: 어떤 말을 직접 인용함을 나타낸다. 특정한 글귀나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옮길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선생님, 한국에서는 남편을 어떻게 불러요? 나: 사람마다 달라요. 선생님은 “여보!”라고 해요. 가: OO씨 나라에서는 어떻게 불러요? 나: 사람마다 다른데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많아요.</p> <p>가: 학교 앞에서 담배 피워도 돼요? 나: 안 돼요. 표지판 못 봤어요? 가: 무슨 표지판이요? 나: ‘금연 구역’이라고 하는 표지판이 붙어 있잖아요. ‘금연 구역’이라고 하는 말은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엄마는 밥 먹을 때마다 “많이 먹으렴.”이라고 말씀하신다. · 학생들이 복도에서 시끄럽게 떠들어서 교실 문 앞에 ‘수업 중’이라고 써서 붙여 두었다. · 군부대 앞에는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이라고 쓰여 있다. · 선생님께서 “내일은 여덟 시까지 학교에 와야 함”이라고 칠판에 썼다. · 나이가 많은 형을 부를 때는 ‘형님’이라고 해요. · 우정이란 ‘믿고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 불이 나면 “불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해야 돼요. · 안녕하세요.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토마스라고 불러 주세요. · ‘감사합니다’를 중국어로 뭐라고 해요? · 설날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합니다.

+ ‘이라고’는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옮겨 말할 때 사용하는 조사로, 문장을 그대로 옮겨 말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인용되는 문장에 따옴표를 사용한다. 이때 문장을 100% 그대로 옮겨 올 때는 큰따옴표, 문장의 일부나 글귀 등을 가져올 때는 작은따옴표를 사용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 '이라고'는 '이라'로, '라고'는 '라'로 줄여 쓸 수 있다.

[도입]

(1)

교사: 여러분 한국에서 설날에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세요?

학생 1: 해피 설날?

교사: 아, 해피 설날이 아니고 한국에서는 설날에 세배를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해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새해에 뭐라고 인사해요?

학생 2: 중국에서는 "신넌과일러"해요.

교사: 아 중국에서는 "신넌과일러"**라고** 하는군요.

교사: 아까 우리 반 친구가 한 말을 선생님이 그대로 말할 때 '라고'를 사용했어요. 오늘 공부하는 '라고'는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다시 이야기 할 때 사용해요.

(2)

교사: 여러분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들은 거 있어요?

학생: 네, "한국 여자들이 예뻐요." 들었어요.

교사: 아, "한국 여자들이 예뻐요."**라고** 들었어요?

학생: 저는 "한국 사람들은 친절해요." 들었어요.

교사: 아, "한국 사람들은 친절해요."**라고** 들었어요? 어때요? 정말 친절하고 예뻐요? 아까 여러분이 한 말을 선생님이 그대로 다시 할 때 '라고'를 사용했어요. '라고'는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다시 옮길 때 사용해요.

+ '이라고'를 도입할 때 학생 입에서 나온 문장을 교사가 다시 그대로 인용하는 과정을 통해 의미를 인지시킬 수 있다.

+ 경우에 따라서 직접 인용에 사용하는 '하고'를 배웠다면 선수문법을 이용해 도입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만을 설명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

[형태 정보]

① 앞에 오는 말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이라고'를 쓴다.

예) 병원 + 이라고 → 병원이라고

금연 + 이라고 → 금연이라고

수업 중 + 이라고 → 수업 중이라고

가족 + 이라고 → 가족이라고

형 + 이라고 → 형이라고

말 + 이라고 → 말이라고

② 앞에 오는 말의 끝음절에 받침이 없으면 '라고'를 쓴다.

예) 사랑해요 + 라고 → 사랑해요라고

엄마 + 라고 → 엄마라고

불이야 + 라고 → 불이야라고

여보 + 라고 → 여보라고

감사합니다 + 라고 → 감사합니다라고

주차금지 + 라고 → 주차금지라고

①	받침 o	+ 이라고	병원이라고, 가족이라고, 금연이라고, 형이라고, 수업 중이라고, 말이라고
②	받침 x	+ 라고	사랑해요라고, 엄마라고, 불이야라고, 여보라고, 감사합니다라고, 주차금지라고

[문장 구성 정보]

- ①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옮겨 오거나 자신의 생각을 나타낼 때 사용하기 때문에 ‘말하다, 이야기하다, 묻다’의 인용동사와 주로 사용된다.

예) 우리 선생님은 저만 보면 “공부해.”라고 말해요.

그 사람은 항상 “회의중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못 믿겠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궁금하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라고 물으면 돼요.

+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공부해”를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 ‘라고’를 사용하고 있다.

- ② 누가 어떤 것을 무엇으로 부를 때 ‘무엇으로’에 해당하는 말 뒤에 사용한다.

예) 우리 아빠는 나를 “공주님!”이라고 불러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생긴 것을 ‘테이블’이라고 하지 않고 ‘식탁’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스도 아키라’라고 합니다. ‘아키라’라고 불러 주세요.

+ 아빠가 딸을 부르는 애칭을 소개하면서 아버지가 부르는 말 “공주님”을 그대로 인용하기 위해 조사 ‘이라고’를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어떤 것의 명칭을 소개하기 위해 한국어로 불리는 말이 ‘식탁’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인용조사 ‘이라고’를 사용하고 있다. 세 번째 문장에서는 자기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 이름이 불리는 발음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서 조사 ‘이라고’가 포함된 ‘이라고 합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식의 자기 이름 소개는 주로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된다.

[유사 문법]

- ① ‘이라고’, ‘하고’

이라고	하고
-----	----

.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옮겨 전달할 때 사용한다. ‘말하다, 묻다, 생각하다’ 등과 같은 인용동사와 주로 사용된다.

예)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지 않아도 항상 “미안해요.”라고 말한다.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지 않아도 항상 “미안해요.” 하고 말한다.

. 혼자 생각한 것을 말하는 것처럼 표현할 때 쓸 수 없다. 예) 나는 ‘시험을 잘 봐야지’라고 결심했다. (x)	. 혼자 생각한 것을 말하는 것처럼 표현할 때 쓸 수 있다. 예) 나는 ‘시험을 잘 봐야지’ 하고 결심했다. (o)
---	--

. 어떤 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묘사할 때 사용할 수 없다. 예) 개가 "멍멍" 이라고 짖었다. (x)	. 어떤 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묘사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예) 개가 "멍멍" 하고 짖었다. (o)
. 자기 이름을 소개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예) 저는 김민수 라고 합니다. (o)	. 자기 이름을 소개할 때 사용할 수 없다. 예) 저는 김민수 하고 합니다. (x)
. 앞말이 직접 인용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조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예) 그가 "지금 갈게요." 라고 말했다. (o)	. 동사 '하다'의 활용형으로 앞말과 띄어 쓴다. 예) 그가 "지금 갈게요." 하고 말했다. (o)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대응 표현 없음.

- 예) 김 과장은 "이번 사태는 저의 책임입니다."**라고** 말하였다.
- 金科长说: "这次事件是我的责任".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고도 그는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 他救了处在危险中的人, 但还谦虚地说, "我只是做了应该做的事而已".
위험한 일이 닥치면 "사람 살려"**라고** 큰 소리로 말해야 해요.
- 遇到危险应大声喊: "救命啊".
이 후부터는 그를 박지성**이라고** 불러주세요. - 以后叫他"朴智星"吧.
'안녕하세요'를 독일어로 뭐**라고** 해요? - "你好"德语怎么说?
교수님 연구실 문에는 '외출'**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 教授研究室的门上写着'外出'.

② 용법과 오류

- '말하다, 이야기하다, 묻다' 등의 인용동사가 중국어에서는 인용문의 앞에 오므로 '이라고'를 사용하지 않고 중국식으로 표현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 예) 김 과장은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저의 책임입니다." (?)
그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고도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
교수님 연구실 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외출'입니다. (?)
'안녕하세요'는 독일어로 어떻게 말합니까? (?)

- '이라고'는 혼자 생각한 것을 말하는 것처럼 표현할 때나 어떤 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묘사할 때 사용할 수 없는데 이를 잘 몰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또한 이때 중국어에 대응하는 표현이 없으므로 인용문을 사용하지 않기도 한다.

- 예) 나는 '시험을 잘 봐야지'**라고** 결심했다. (x)
나는 결심했다. '시험을 잘 봐야지' (?)
전화벨 소리가 "따르릉"**라고** 울렸습니다. (x)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따르릉'. (?)

3.1.14. ‘이란’

이란[란][조사] 어떤 대상을 특별히 들어 **화제로 삼음**을 나타내는 조사.

이란: (명사에 붙어) 설명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을 화제로 삼아 이야기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사랑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나: 왜요? 여자 친구랑 무슨 일 있었어요? 가: 여자 친구가 왜 화를 내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 사랑이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이해해 주는 거 아닐까요?</p> <p>가: 진정한 친구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 진정한 친구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아닐까요? 가: 저는 진정한 친구란 믿어 주는 친구라고 생각해요. 나: 맞아요.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못 믿어도 끝까지 믿어 주는 친구 그게 바로 진정한 친구겠지요.</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이란 마음의 양식이다. · 말이란 듣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함부로 하면 안 돼요. · 돈이란 있으면 나중에 벌어도 되지만 공부는 지금 안 하면 안 돼요. · 사람이란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법이에요. · 생신이란 생일의 높임말이다. · 우정이란 믿고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 동요란 어린이들을 위해 만든 노래이다. ·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학교란 무엇인가?’입니다. · 참다운 봉사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다. · 좋은 부모란 어떤 사람일까?

+ ‘이란’은 화제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보조사로, 주어 자리에 온다. ‘책이란 마음의 양식이다’는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로 바꾸어 말할 수 있는데 ‘은’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란’을 사용하면 화제가 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도입]

(1)

교사: (로미오와 줄리엣이나 사랑에 관한 슬픈 전설 이야기를 보여 주고)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학생 1: 글썄요.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교사: 아, OO 씨는 사랑**이**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군요. □□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 2: 저는 사랑은 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교사: □□ 씨는 사랑**이**란 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군요.

학생 3: 선생님은요?

교사: 저는 사랑**이**란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사랑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되니까요. '이**란**'은 말하려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해요. '은'보다 주제가 더 강조되고 해설 투의 느낌이 있어서 주관적인 정의나 어떤 것을 해설할 때 자주 사용돼요

(2)

교사: 동요가 무엇인지 아세요?

학생: 아니요.

교사: 동화는 알아요?

학생: 아이들이 읽는 동화요.

교사: 맞아요. 동화는 어린이들을 위해 지은 이야기고 동요**란** 아이들을 위해 만든 노래를 말해요.

+ '이**란**'을 도입할 때 이미 앞에서 배운 주제의 '은'을 이용할 수 있다. '은'으로 학생들이 주관적인 정의를 내리는 문장을 만들면 다시 '이**란**'을 이용해 문장을 재발화해 준다. '은'과 '이**란**'은 주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이**란**'이 주제가 좀 더 강조되는 느낌이 있으며, 사전적인 정의와 같은 일반론으로 이야기할 때는 '은'을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러움을 알려준다.

+ '이**란**'을 도입할 때 학생들이 잘 모르는 개념이나 어휘를 주고 질문을 하면 그것을 설명 하면서 '이**란**'을 사용하는 방식으로도 도입할 수 있다. 이때 '이**란**'으로 설명되는 주제는 '은'으로 바꾸어 쓸 수 있지만 '이**란**'을 사용할 때 해설하는 느낌이 더욱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형태 정보]

①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이**란**'을 쓴다.

예) 사랑 + 이 란 → 사랑 이 란	돈 + 이 란 → 돈 이 란
우정 + 이 란 → 우정 이 란	삶 + 이 란 → 삶 이 란
믿음 + 이 란 → 믿음 이 란	말 + 이 란 → 말 이 란

②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없으면 '란'을 쓴다.

예) 친구 + 란 → 친구 란	봉사 + 란 → 봉사 란
학교 + 란 → 학교 란	동요 + 란 → 동요 란
부모 + 란 → 부모 란	커피 + 란 → 커피 란

①	받침 o	+ 이 란	사랑 이 란, 돈 이 란, 우정 이 란, 삶 이 란, 믿음 이 란, 말 이 란
---	------	--------------	---

②	받침 x	+ 란	친구란, 봉사란, 학교란, 동요란, 부모란, 커피란
---	------	-----	------------------------------

[문장 구성 정보]

- ① 어떤 주제를 화제로 삼아 이야기할 때 사용한다. 따라서 어떤 것을 지정하여 이야기하는 문장에는 사용할 수 없다.

예) 병원이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o)

여기는 병원이다. (o)

여기란 병원이다. (x)

여기는 아픈 사람들이 치료 받는 곳이다. (o)

여기란 아픈 사람들이 치료 받는 곳이다. (x)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o)

저 사람이란 한국 사람이다. (x)

우리 선생님은 김 선생님이다. (o)

우리 선생님이란 김 선생님이다. (x)

- + 화제에 대해서 정의하거나 설명하는 문장이 아닌 '여기는 병원이다'와 같이 단순히 지칭하는 문장에는 '이란'을 사용할 수 없다. 뒤에 '아픈 사람들이 치료 받는 곳이다'와 같이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앞에 '여기'와 같이 특정한 것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가 쓰인 경우 '이란'을 사용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 ② 보조사이지만 다른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사랑이란도 끌림이다. (x)

커피란이 여유다. (x)

[유사 문법]

- ① '이란', '은1'

이란	은1
. 문장의 주제를 나타낼 때 사용되며 주어의 위치에 온다. 예)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 (o) 책이란 마음의 양식이다. (o)	
. 주어 자리에만 온다. 예) 사랑 이란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 주어 자리뿐 아니라 목적어, 부사어 자리에도 온다. 예) 나는 빵 은 먹는다. 영희 는 오늘 학교 는 안 간다.
. 대조의 기능이 없다. 예) 생신 이란 생일의 높임말이고 연세 란 나이의 높임말이다. 겨울 이란 춥고 여름 이란 덥다. (x)	. 대조의 기능이 있다. 예) 겨울 은 춥고 여름 은 덥다.

<p>. 단순한 지정을 나타내는 문장에는 사용 할 수 없다.</p> <p>예) 생신이란 생일의 높임말이다. (o) 여기란 학교입니다. (x) 저란 마이클입니다. (x)</p>	<p>. 앞에 오는 주제에 특별한 제약이 없다.</p> <p>예) 생신은 생일의 높임말이다. (o) 여기는 학교입니다. (o) 저는 마이클입니다. (o)</p>
--	--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所谓, 是

예) 친구**란** 희로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

- 所谓朋友就是可以分享喜怒哀乐的人 .

우정**이란** 믿고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 我认为, 所谓友谊就是诚心诚意给予帮助的 .

인생**이란** 무엇인가? - 所谓人生是什么 ?

저는 사랑**이란**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 我认为爱是老师.

동요**란** 어린이들을 위해 만든 노래이다. - 童谣是为儿童做的歌曲

② 용법과 오류

-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이란'을 쓰고 받침이 없으면 '란'을 쓴다. 양자를 혼동하여 오류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란' 대신 '으란'을 사용하는 오류가 나타나기도 한다.

예) 커피**이란** 마실수록 중독되는 아편과 같은 것이다. (x)

좋은 책**란**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다. (x)

사랑**으란** 무엇인가? (x)

모성애**으란** 참으로 위대한 것이다. (x)

- '이란'은 '은'에 비해 화제로 삼는 어떤 대상을 특별히 들어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데, 중국 어에도 화제를 나타내는 '是'를 강조하는 '是…의'가 있다. 그런데 '이란'을 '是…的'로 무조건적으로 대응시켜 다음과 같은 오류를 보인다.

예) 지구**란** 둥글다. (x) - 地球是圆的.

모성애**란** 위대하다. (x) - 母爱是伟大的.

이 세상**이란** 아름답다. (x) - 这个世界是美丽的.

가을의 하늘**이란** 높고 푸르다. (x) - 秋天的天空是又高又蓝的.

- 어떤 것을 지정하여 이야기하는 문장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중국어 대응 표현 '是'는 이런 제약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저기**란** 학교이다. (x) - 这是学校.

이 분**이란** 저의 은사님이십니다. (x) - 这位是我的恩师.

이것**이란** 연필이다. (x) - 这是铅笔.

그쪽**이란** 우체국이다. (x) - 那便是邮局.

3.1.15. ‘이며’

이며[며]{하며, 이다[다]}[조사] 여러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면서 예를 들거나 대등하게 나열하는 조사.

이며: (명사 뒤에 붙어) 여러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대등하게 이어주는 조사로, 주로 나열하거나 예를 들 때 사용한다. 주로 구어에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가: 모레 유럽 여행 떠나신다면데요? 나: 네, 그런데 아직 짐을 못 쌌어요. 가: 15일 동안 여행하시려면 짐도 많겠어요. 나: 네, 옷이며, 라면이며, 비상약이며 가져가야 할 게 너무 많아 걱정이예요.</p> <p>가: 주말에도 못 쉬셨나 봐요. 피곤해 보이세요. 나: 네, 주말에도 청소며, 빨래며, 요리며 할 일이 많아서 못 쉬었어요. 가: 저도 주말에 집안일을 했어요. 나: 집안일은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이며, 영어며, 과학이며 공부할 게 정말 많아요. · 이사했더니 옷이며 신발이며 책이며 정리할 게 진짜 많아요. · 며칠 전에 가방을 분실해서 신분증이며, 돈이며, 열쇠며 중요한 물건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 아이가 눈이며 코며 입이며 아빠를 꼭 빼닮았네요. · 할머니 생신 상을 차리려고 과일이며, 채소며, 고기며 장을 많이 봤어요. · 다이어트를 하려면 과자며, 초콜릿이며, 사탕이며 이런 단 것들을 먹지 마세요. · 올해는 날씨가 좋아서 쌀하며, 과일하며 모두 풍년이에요. · 민수 씨는 김치며, 찌개며 못 하는 음식이 없네요. · 집에 오자마다 밥이다 떡이다 잔뜩 먹었더니 저녁 생각이 없어요. · 요즘은 피아노다 태권도다 영어다 배우는 게 많아서 아이들이 아주 바빠요.

+ ‘이며’는 두 개 이상의 명사를 대등하게 이어 나열해 준다.

+ ‘이며’, ‘하며’, ‘이다’는 의미와 용법에 차이가 거의 없어 바꾸어 써도 무방하며 ‘이다’의 사용 빈도가 다른 것에 비해 떨어진다.

[도입]

(1)

교사: OO 씨는 누구 닮았어요?
 학생: 엄마 닮았어요.
 교사: 눈, 코, 입 중에서 어디가 비슷해요?
 학생: 눈, 코, 입 모두 닮았어요.
 교사: 그래요? 눈**이며**, 코**며**, 입**이며** 모두 엄마를 닮았군요. '이며'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예로 들 때 사용하면 좋아요. 마이클 씨가 눈**하고**, 코**하고**, 입이 모두 엄마를 닮았어요. 눈, 코, 입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명사를 예로 들어 보여 줄 때 '이며, 하며, 이다'를 사용해요.

(2)

교사: 여러분, 한국 음식이 입에 맞아요?
 학생: 네.
 교사: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좋아하는 음식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학생: 삼계탕, 비빔밥, 불고기, 냉면.....
 교사: 그래요? 삼계탕도 비빔밥도 불고기도 냉면도 다 좋아해요? 지금 아키라 씨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여러 가지 말했어요. 아키라 씨는 삼계탕**이며** 비빔밥**이며** 불고기**며** 냉면**이며** 다 좋아해요. 여러 가지 명사를 이어서 말할 때 '이며, 하며, 이다'를 사용할 수 있어요.

- + '이며'를 도입할 때 나열되는 여러 가지가 동일한 자격을 가지는 것을 예로 드는 것이 좋다. 중요도나 선호도의 차이가 없는 것들을 예로 들어 항목의 연결 순서는 중요하지 않음을 보이면서 접속하면 '이며'로 나열되는 항목들이 대등하게 연결된다는 것을 쉽게 보일 수 있다.
- + '이며'를 도입하면서 선수 문법인 조사 '도'를 이용할 수 있다. 먼저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 것들의 예를 들면서 A도 B도 C도 다 해당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 문장을 다시 A이며 B이며 C이며를 사용해서 바꾸어 줌으로써 나열되는 항목 어떤 것도 선호도나 중요도의 차이 없이 어떤 조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형태 정보]

- ①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이며'를 쓴다.

예) 책 + 이며 → 책 이며	집 + 이며 → 집 이며
가방 + 이며 → 가방 이며	우산+이며 → 우산 이며
물 + 이며 → 물 이며	말 + 이며 → 말 이며

- ②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없으면 '며'을 쓴다.

예) 친구 + 며 → 친구 며	축구 + 며 → 축구 며
학교 + 며 → 학교 며	영어 + 며 → 영어 며
우유 + 며 → 우유 며	노래 + 며 → 노래 며

①	받침 o	+ 이며	책이며, 집이며, 가방이며, 우산이며, 물이며, 말이며
②	받침 x	+ 며	친구며, 축구며, 학교며, 영어며, 우유며, 노래며

+ '이다'도 '이며'와 동일한 규칙에 따른다.

③ 명사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하며'를 쓴다.

예) 책 + 하며 → 책하며 옷 + 하며 → 옷하며
 물 + 하며 → 물하며 과자 + 하며 → 과자하며
 우유 + 하며 → 우유하며 친구 + 하며 → 선물하며

①	받침 o	+ 하며	책하며, 옷하며, 물하며
	받침 x	+ 하며	과자하며, 우유하며, 친구하며

[제약 정보]

① 영어에서 나열할 때는 접속사 쉼표(,)로 나열하고 마지막 항목 바로 앞에만 'and'를 넣어 주는 것과 달리 한국어에서는 대등하게 이어지는 모든 명사 뒤에 조사를 넣어 준다.

예) 올해는 날씨가 좋아서 사과며 배며 귤이며 다 맛있다. (o)
 올해는 날씨가 좋아서 사과, 배, 귤이며 다 맛있다. (x)

② '과'로 나열할 때와 달리 마지막에 연결되는 항목 뒤에도 접속조사 '이며'를 넣어 준다.

예) 저는 과일은 사과**며** 배**며** 귤**이며** 다 좋아해요. (o)
 저는 과일은 사과**며** 배**며** 귤을 다 좋아해요. (x)
 저는 과일은 사과**와** 배**와** 귤을 다 좋아해요. (o)
 저는 과일은 사과**와** 배**와** 귤**과** 다 좋아해요. (x)

+ '과'로 접속할 경우는 마지막에 나열되는 항목에는 '과'가 붙지 않아야 하지만 '이며'로 접속할 경우에는 마지막 항목까지 '이며'가 붙어야 한다.

+ '과일은 사과며 배며 귤이며 다 좋아한다'는 것은 세 가지 모두 다 좋아한다는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세 가지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과일도 좋아할 가능성이 있음을 함축한다. 이에 반하여 '과일은 사과와 배와 귤을 다 좋아해요'라고 하는 것은 '이며'의 경우보다 좋아하는 과일이 세 가지로 국한되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하다.

[유사 문법]

① '이며, 이다, 하며', '이든, 이든지'

이며, 이다, 하며	이든, 이든지
------------	---------

. 두 항목 이상을 나열할 때 사용한다.

예) 수지는 낮**이며** 밤**이며** 열심히 공부를 한다.

수지는 낮**이든** 밤**이든** 열심히 공부를 한다.

<p>. 연결되는 항목 간에 배제적인 선택의 의미가 없다.</p> <p>예) 영수는 눈이며 코며 아버지를 꼭 닮았다.</p>	<p>. 연결되는 항목 간에 배제적인 선택의 의미가 있다.</p> <p>예) 영수는 눈이든 코든 아버지를 닮았다.</p>
<p>. '무엇, 언제, 어디, 누구, 아무' 등과 같은 의문대명사나 부정(不定)대명사 뒤에 사용할 수 없다.</p> <p>예) 무엇이며 물어보세요. (x)</p> <p>언제다 다 좋아요. (x)</p>	<p>. '무엇, 언제, 어디, 누구, 아무' 등과 같은 의문대명사나 부정(不定)대명사 오는 경우 하나의 명사 뒤에도 사용할 수 있다.</p> <p>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p> <p>언제든지 좋아요.</p>

+ '눈**이며** 코**며** 아버지를 닮았다'는 눈과 코가 다 닮았다는 뜻이며, '눈**이든** 코**든** 아버지를 닮았다'는 아버지를 닮은 부분이 눈인지 코인지 모르지만(어떤 것이어도 상관없음) 아버지를 닮았다는 뜻이다.

[중국어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啦', '呀', '啊'에 대응되거나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됨.

예) 매일 과자**며**, 탄산음료**며**, 햄버거**며** 이런 것들을 먹으니까 어떻게 다이어트가 되겠어?

- 每天竟吃饼干**啊**, 碳酸饮料**啊**, 汉堡等, 怎么能减肥吗?

긴 여행이어서 옷**이며**, 라면**이며**, 비상약**이며** 가져가야 할 게 너무 많아요.

- 因为是长期旅行, 衣服**啦**, 方便面**啦**, 常备药**啦**等要带的东西太多了.

논**하며** 밭**하며** 모두 홍수로 잠겼다. - 水田, 旱地都被洪水淹了.

하루 종일 빵**이니** 과자**니** 라면**이니** 군것질을 했더니 저녁이 되어도 아직 배불러요.

- 一整天都吃面包, 饼干, 方便面等零食, 到了晚上也不饿.

요즘 아이들은 학원에서 피아노**다** 태권도**다** 영어**다** 배우는 게 정말 많아요.

- 最近孩子们在培训中心学钢琴, 跆拳道, 英语等各种各样.

② 용법과 오류

-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의 유무에 따라 '이며' 혹은 '며'를 다르게 쓰지만 중국어는 이런 변화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퇴근하는 길에 마트에 들려 과일**이며**, 채소**이며**, 고기**이며** 많이 샀어요. (x)

매일 수학**며**, 영어**며**, 과학**며** 국어**며** 공부만 해요. (x)

아이의 눈**이며** 코**이며** 입**이며** 왕명 씨를 꼭 빼닮았네요. (x)

- 한국어에서는 대등하게 이어지는 모든 명사 뒤에 '이며'를 넣어 주지만 중국어에서는 마지막 명사 뒤에는 '이며' 대신 '等(등)', '都(모두)'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긴 여행이어서 옷**이며**, 라면**이며**, 비상약 등 가져가야 할 게 너무 많아요. (?)

('비상약**이며**'로 표현해야 할 경우)

주말에는 청소**며** 빨래**며** 설거지 모두 제가 할게요. (?)

(‘설거지며 모두’로 표현해야 할 경우)

황사가 덮쳐 도시의 주택**이며**, 다리**며**, 자동차 등 모두 모래로 뒤덮였습니다. (?)

(‘자동차며’로 표현해야 할 경우)

- ‘무엇, 언제, 어디, 누구, 아무’ 등과 같은 의문 대명사 뒤에 사용할 수 없지만 중국어는 대응 표현이 없을 때 마지막에 의문 대명사가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수학**이며**, 영어**며**, 과학 등 무엇**이며** 물어보세요. (x)

내일**이며**, 모레**며**, 언제**며** 다 좋아요. (x)

3.1.16. ‘이면’

이면[면][조사] 어떤 것을 지정하여 예로 들 때 쓰는 조사.

이면: (명사 뒤에 붙어) 둘 이상의 사물을 이어서 예로 들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우리 아이는 공부를 못하는데 민수는 공부를 잘 해서 좋겠어요. 나: 아니에요. 잘하기는요. 가: 민수는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나: 공부는 잘하는데 몸이 약해서 늘 걱정이예요.</p> <p>가: 생일 선물로 뭐 사 줄까? 나: 글썄... 가: 화장품? 아님 영화 보여 줄까? 나: 화장품은 아직 있고, 보고 싶은 영화는 다음 달에 개봉해 가: 아르바이트해서 받은 돈 있어. 화장품이면 화장품, 영화면 영화 다 좋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식당은 냉면이면 냉면, 갈비탕이면 갈비탕 맛있는 음식이 없어요. · 요즘 정말 바빠요. 평일이면 평일, 주말이면 주말 안 바쁜 날이 없어요. · 우리 아이는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잘하는 게 하나 없어 걱정이예요. · 이 백화점에는 가방이면 가방, 시계면 시계 모두 비싼 물건뿐이다. · 그 사람은 외모면 외모, 성격이면 성격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으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리면 요리, 청소면 청소 안 힘든 집안일이 없는 거 같아요. · 저희 회사는 모기면 모기, 파리면 파리 어떤 벌레도 모두 잡아 드립니다. · 아키라는 농구면 농구, 탁구면 탁구 못하는 운동이 없어요. · 저 사람은 영어면 영어, 중국어면 중국어 못 하는 외국어가 없어요. · 우리 선생님은 한국 노래면 한국 노래, 팝송이면 팝송 모르는 노래가 없어요.
--	---

+ '이면'은 어떤 것을 지정하여 예로 들 때 사용하는 보조사이다.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못하는 게 없다'고 하는 것은 수학과 영어를 예로 들어 말하자면 뒤의 내용과 같다는 것이다. 즉 두 가지 예가 모두 잘하는 범주에 든다는 것이고 지정하여 두 가지를 말하지만 이것 외에도 많은 것을 잘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도입]

(1)
교사: (인기 있는 가수이자 연기자인 사람 사진 보여 주며) 이 사람 알아요? 이 사람이 뭘 잘해요?
학생: 노래를 잘해요.
학생: 영화에도 나왔어요.
학생: 춤도 잘 춰요.
교사: 맞아요. 이 사람은 춤, 연기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춤 이면 춤, 연기 면 연기,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좋아해요.
(2)
교사: 한국어 공부 어때요?
학생: 재미있지만 어려워요.
교사: 쓰기, 듣기, 읽기, 말하기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려워요?
학생: 다 어려워요.
교사: 맞아요. 외국어 공부는 쓰기, 듣기, 읽기, 말하기 모두 어려워요. 외국어 공부는 쓰기 면 쓰기, 말하기 면 말하기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어요.

+ '이면'을 도입할 때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도입하는 게 좋다.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것이 없는 다재다능한 가수를 예로 들어 그 사람이 잘하는 것 중의 한두 가지를 예로 들어 말할 때 '이면'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때 예로 드는 것은 단순한 예에 불과하고 예의 내용보다는 뒤에 오는 문장 즉,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게 없다는 사실이 강조된다.

[형태 정보]

①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이면'을 쓴다.

예) 과학 + 이면 → 과학이면 춤 + 이면 → 춤이면
 밥 + 이면 → 밥이면 운동 + 이면 → 운동이면
 책 + 이면 → 책이면 겨울 + 이면 → 겨울이면

②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없으면 '면'을 쓴다.

예) 영어 + 면 → 영어면 청소 + 면 → 청소면
 축구 + 면 → 축구면 노래 + 면 → 노래면
 쓰기 + 면 → 쓰지면 학교 + 면 → 학교면

①	받침 o	+ 이면	과학이면, 춤이면, 밥이면, 운동이면, 책이면, 겨울이면
②	받침 x	+ 면	영어면, 청소면, 축구면, 노래면, 쓰지면, 학교면

[문장 구성 정보]

① 지정하여 예로 드는 것이 'A이면 A, B이면 B'의 형태로 고정된다.

예) 우리 아이는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o)
 우리 아이는 운동**이면** 공부, 공부**면** 운동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X)

+ '이면'으로 연결되는 두 명사는 두 세트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A이면 A, B이면 B'의 형태로 고정되어 사용되며 접속조사의 경우처럼 이어지는 순서를 바꾸어 'A이면 B, B이면 A'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지정하여 예로 드는 것이 두 가지 이상이 되어야 한다. 즉, 'A이면 A' 한 세트로만은 사용되지 않는다.

예) 우리 아이는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o)
 우리 아이는 운동**이면** 운동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X)

+ '이면'으로 예로 드는 명사는 두 세트 이상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A이면 A' 한 세트의 형태로 사용하면 어색하다.

③ 지정하여 예로 드는 것이 'A이면 A, B이면 B' 두 세트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A이면 A, B이면 B, C이면 C'의 세 세트로 구성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예) 그 가수는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가수는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 그 가수가 잘하는 것을 예로 들어 춤과 노래를 말하고 다른 것도 모두 잘한다는 뜻으로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해도 되지만 잘하는 것의 구체적인 정보를 더 많이 주기 위해 예를 세 가지 이상 들어 주는 경우도 있다.

④ 지정하여 예로 드는 것이 뒤에 오는 내용과 부합하며 예를 들지 않은 다른 것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많다는 것이 강조되기 때문에 뒤에 오는 문장에는 예외적인 것이 없음

을 강조하기 위한 '~는 게 하나도 없다', '모두/전부 ~' 등과 같이 전체를 아우르는 조건이 주로 나온다.

- 예) 우리 아이는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o)
 우리 아이는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잘하는 게 많아요. (??)
 우리 아이는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모두 잘해요. (o)
 이 백화점에는 **가방이면** 가방, **시계면** 시계 모두 비싼 물건뿐이다. (o)
 이 백화점에는 **가방이면** 가방, **시계면** 시계 비싼 물건이 많아요. (??)
 이 백화점에는 **가방이면** 가방, **시계면** 시계 안 비싼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o)
 +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거의 모든 분야를 잘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뜻이다. 그런데 이때 '못하는 게 없다'는 문장을 단순 긍정문으로 바꾸어 '잘하는 게 많다'고 하면 어색해진다. 이는 예외 없이 다 잘한다는 뜻이 강조되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백화점의 물건이 모두 비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모두 비싼 물건뿐이다'라고 한 것을 단순 긍정문인 '비싼 물건이 많다'라고 하면 어색하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대응 표현 없음.

- 예) 이 가수는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뭐든지 다 잘해요.
 - 这位歌手要唱能唱, 要跳能跳, 样样都行.
 메시는 축구 황제답게 **스피드면** 스피드, **개인기면** 개인기 모두 세계 최고의 선수예요.
 - 梅西不愧为足球先生, 要速度有速度, 要球技有球技, 样样都是世界顶尖级的选手.
 왕밍 씨는 **공부면** 공부, **성격이면** 성격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으니 다른 애들이 시기할 정도로 부러워할 수밖에 없겠조.
 - 王明学习也好, 性格也好, 什么都不缺, 难怪别的学生们羡慕得都要嫉妒了.
 이 식당은 **냉면이면** 냉면, **갈비탕이면** 갈비탕 다 맛있습니다.
 - 这个饭店冷面像冷面的样, 排骨汤有排骨汤的样, 样样都好吃.

② 용법과 오류

-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이면'을 쓰고 받침이 없으면 '면'을 쓰는데 중국어는 형태 변화가 없으므로 양자를 혼동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 예) 쓰레기가 많으면 **모기이면** 모기, **파리이면** 파리 모든 벌레들이 달려든다. (x)
 이 친구는 **운동이라면** 농구**면** 농구, **배드민턴면** 배드민턴 못하는 것 없이 다 잘해요. (x)
 뮤지컬 배우는 **춤면** 춤, **노래이면** 노래, **연기이면** 연기 뭐든 다 잘해요 돼요. (x)

- 중국어에 대응하는 표현이 없고 상황에 따라 다른 형태로 번역되므로 '이면'의 사용을 회피하여 다른 형식을 사용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 예) 왕밍 씨는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든지 다 잘 합니다. (?)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로 표현해야 하는 경우)
 이 백화점에는 **가방이며, 시계며** 모두 비싼 물건뿐이다. (?)
 ('가방이면 가방, 시계면 시계'로 표현해야 하는 경우)
 이 가수는 **노래가 필요하면 노래, 춤이 필요하면** 춤 어느 하나 못 하는 것 없어요. (?)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으로 표현해야 하는 경우)

3.1.17. ‘이야’

이야[야][조사]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

이야: (명사나 부사어, 어미 뒤에 붙어) 당연히 그러하고 더 말할 나위가 없다는 뜻으로 강조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가: 민수가 시험을 못 봐서 속상해요. 나: 그래요? 민수는 수학도 잘하고 똑똑하잖아요. 가: 수학이야 잘하지요. 그런데 국어 시험을 얼마나 못 봤는지 몰라요.</p> <p>가: 유진아, 바빠? 안 바쁘면 나 좀 도와줘. 나: 언니, 나 지금 바빠. 청소해야 돼. 가: 청소야 나중에 하면 되잖아. 이것 좀 도와줘. 나: 알았어. 그럼 이따가 청소 도와줘야 돼. 알았지?</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면이야 잘 끓이지. 다른 요리를 못해서 문제지. · 형이야 책 읽는 것을 좋아하니까 도서관에 자주 가겠지. · 돈이야 나중에 벌어도 되지만 공부는 지금 안 하면 안 돼요. · 노래를 잘이야 못하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 복습을 매일 하지는 못하지만 가끔이야 합니다. · 서울에서야 여기가 제일 아름답지요. · 잘 찾아보세요. 아직 어린 아이인데 멀리야 갔겠어요? · 어제야 바빠서 못 갔지만 오늘은 갈 수 있어. · 전화야 할 수 있지만 편지는 못 할 것 같아요. · 이 정도야 저도 혼자 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 ‘이야’는 강조할 때 사용하는 보조사이다. ‘수학이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수학이라고 하면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잘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때 수학을 제외한 다른 것도 다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암시된다.

[도입]

(1)

교사: (인기 있는 가수 여러 팀 사진 보이면서) 누가 춤을 제일 잘 춰요?

학생: OO이요.

교사: 맞아요. 춤**이야** OO이 제일 잘 추지요. 노래도 잘 해요?

학생: 아니요. 노래는 잘 못해요.

교사: 그래요. OO은 춤**이야** 잘 추지만 노래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2)

교사: (수업 안 듣고 다른 행동 하는 학생에게) 수업 안 듣고 뭐 해요?

학생: 단어 찾아요.

교사: 단어**야** 쉬는 시간에 찾으시면 되지요. 단어 찾지 말고 수업 들으세요.

+ '이야'를 도입할 때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도입하는 게 좋다. 춤은 잘 추지만 노래는 잘 못하는 것으로 유명한 가수를 예로 들어 춤이라고 하면 당연히 잘 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노래는 못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할 때 "춤이야 잘 추지만 노래는 잘 못해요."와 같이 말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형태 정보]

①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이야'를 쓴다.

예) 과학 + 이야 → 과학이야
밥 + 이야 → 밥이야
책 + 이야 → 책이야

친구들 + 이야 → 친구들이야
운동 + 이야 → 운동이야
돈 + 이야 → 돈이야

②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없으면 '야'를 쓴다.

예) 영어 + 야 → 영어야
축구 + 야 → 축구야
나 + 야 → 나야

청소 + 야 → 청소야
노래 + 야 → 노래야
학교 + 야 → 학교야

①	받침 o	+ 이야	과학이야, 친구들이야, 밥이야, 운동이야, 책이야, 돈이야
②	받침 x	+ 야	영어야, 청소야, 축구야, 노래야, 나야, 학교야

[문장 구성 정보]

① 강한 대조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이야'를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고 뒤에 오는 절에 대조를 나타내는 보조사 '은'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 저 가수는 춤**이야** 잘 추지만 노래는 잘 못해. (o)
저 가수는 춤**이야** 잘 추지만 노래**야** 잘 못해. (x)
우리 아이는 영어**야** 잘 하지만 수학은 엉망이에요. (o)
우리 아이는 영어**야** 잘 하지만 수학**이야** 엉망이에요. (x)

- + '춤이야 잘 추지만 노래는 잘 못한다'는 것은 춤과 대조적으로 노래 실력은 형편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때 춤과 노래 실력을 대조하기 위하여 '이야'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대조적인 내용으로 수반되는 뒤 절의 경우 보조사 '은'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제약 정보]

- ① 대조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조적인 내용이 뒤에 오지 않더라도 대조적인 내용을 암시한다. 따라서 대조적인 의미가 전혀 담기지 않은 단순 강조에는 사용될 수 없다.

예) 우리 아이가 농구**야** 잘하지요. (o)

이 식당은 김치**야** 정말 맛있어요. (x) (다른 음식도 맛있는 경우)

이 식당은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o)

- + '우리 아이가 농구야 잘한다'는 것은 다른 것은 잘 못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기 때문에 뒤에 대조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도 자연스럽다. 그런데 '이 식당은 김치가 정말 맛있다'와 같이 대조적인 내용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강조의 의미는 '이야'를 사용하여 바꾸면 어색하다. '김치가 정말 맛있다'는 것은 다른 음식의 맛을 짐작할 어떠한 근거도 제공하지 않고 김치 맛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이 식당은 김치야 정말 맛있다'고 하면 다른 것은 맛이 별로라는 내용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확장]

- ① 조사 '에서, 부터, 까지, 에게, 한테' 등과 결합할 수 있다.

예) 서울**에서야** 여기가 가장 아름답지.

여기**부터야** 잘 아니까 혼자 갈 수 있어.

내일**까지야** 못 하겠지만 주말까지는 할 수 있어요.

동생**에게야** 잘 해요. 언니한테 함부로 해서 그렇지.

- + 조사 '에서, 부터, 까지, 에게, 한테' 등과 결합할 때 '에서야'와 같이 '이야'가 조사 뒤에 붙는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 ① 대응 표현: 대응 표현 없음.

예) 돈**이야** 나중에 벌면 되지만 돈을 버느라 건강을 잃어서는 안 돼요.

- 钱可以以后再挣, 不过为了挣钱失去健康不值得.

영어**야** 모국어니까 잘하는 거지. - 英语是母语, 当然说的很好.

하루 이틀 야근하는 것**쯤이야** 견딜 수 있습니다. - 一两天加班不在话下.

그 사람은 키가 좀 작을 뿐이지 인품**이야** 그만이지.

- 他只是个子矮, 人嘛, 当然不错.

운동을 잘**이야** 못하지만 그럭저럭 할 수는 있습니다.

- 运动不算太好, 就那么会几个.

서울**에서야** 63빌딩이 제일 높지요. - 在首尔最高楼莫过于63大厦.

아까 금방 떠났는데 멀리**야** 가지 못했을 겁니다. - 刚出发不久当然走不远的.

- ② 용법과 오류

-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이야'를 쓰고 받침이 없으면 '야'를 쓰는데 대응하는 중국

어에는 이런 구분이 없으므로 '이야'와 '야'를 혼동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예) 과학**야** 아이들의 흥미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x)

밥**야** 매일 먹어야지요. (x)

노래**이야**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이다. (x)

남자라면 축구**이야** 한번쯤은 다 해봤을 것이다. (x)

- 중국어에 대응하는 표현이 없으므로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회피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예) 가수니깐 노래는 잘 부르지만 춤은 정말 못 춰요. (?)

(‘노래야 잘 부르지만’으로 표현해야 하는 경우)

영어는 모국어니까 잘하는 거지. (?) (‘영어야 모국어니까’로 표현해야 할 경우)

내일까지 어렵겠지만 주말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

(‘내일까지야’로 표현해야 할 경우)

형에게 잘 하지요. 동생한테 함부로 해서 그렇지. (?)

(‘형에게야’로 표현해야 할 경우)

3.1.18. ‘치고’

치고[조사] 1) 그 전체가 예외 없이 2) 그 중에서는 예외적임을 나타내는 조사.

치고1): (명사에 붙어) 그 전체가 예외 없이 모두 뒤의 내용과 같음을 나타낸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우리 아이들은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걱정이에요. 나: 아이치고 사탕 싫어하는 아이 못 봤어요. 가: 이가 썩어 큰일이에요.</p> <p>가: 무슨 걱정 있어요? 나: 어젯밤에 부모님이 심하게 싸우셔서 좀 걱정돼요. 가: 괜찮을 거예요. 부부치고 안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치고 공부 좋아하는 사람 없다. · 아이치고 병원 가기 좋아하는 아이 봤어요? · 유진 씨 애기치고 믿을 만한 거 있어요? · 사람치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 다른 사람 욕하는 사람치고 잘되는 사람 없어요. · 남자치고 예쁜 여자 안 좋아하는 사람 없지 않아요? · 한국 사람치고 김치 싫어하는 사람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식당 음식치고 맛있는 거 있어요? · 회사 다니는 엄마치고 안 바쁜 사람 있어요? · 브라질 사람치고 축구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	---

+ '치고1'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앞 명사가 예외 없이 뒤에 오는 내용과 같음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아이치고 사탕 싫어하는 아이 못 봤어요'에서 앞 명사 '아이'는 특정한 아이 한 명이 아니라 일반적인 아이를 말하는 것으로 아이라고 하면 뒤의 내용 '사탕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잘 들어맞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도입]

(1)
교사: 한국 사람들은 밥 먹을 때 항상 무엇을 같이 먹지요?
학생: 김치요.
교사: 한국 사람 중에 김치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학생: 아니요.
교사: 네, 맞아요. 한국 사람 치고 김치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2)
교사: (공부하기 싫어서 책상 앞에서 멍하게 있는 초등학생 아이 사진) 이 아이는 공부를 좋아할까요?
학생: 아니요.
교사: 네, 공부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숙제도 안 해요. 아이들 중에서 숙제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학생: 아니요. 아이들은 모두 숙제를 싫어해요.
교사: 맞아요. 아이 치고 숙제 좋아하는 아이는 없는 것 같아요.

+ '치고1'을 도입할 때 일반적인 경향이 드러나는 그림이나 상황을 예로 들어 학생들의 의미 이해를 도울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모두 좋아한다든지, 아이들은 숙제를 싫어한다든지 하는 사실이 일반적이라는 것에 학생들이 동의하면, 교사가 그 문장을 '치고'로 바꾸어 줌으로써 '치고'의 문법적 의미를 맥락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형태 정보]

① 명사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치고'를 쓴다.

예)	학생 + 치고 → 학생치고	사람 + 치고 → 사람치고
	동생 + 치고 → 동생치고	아이 + 치고 → 아이치고
	남자 + 치고 → 남자치고	부부 + 치고 → 부부치고

①	받침 o	+ 보고	학생치고, 사람치고, 동생치고
	받침 x	+ 보고	아이치고, 남자치고, 부부치고

[문장 구성 정보]

① 뒤에 부정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말이나 수사의문문과 함께 쓴다.

- 예) 사람**치고** 돈 싫어하는 사람 없다. (o)
 사람**치고** 돈 싫어하는 사람 있다. (x)
 아이들**치고** 안 싸우는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o)
 아이들**치고** 안 싸우는 아이가 많아요. (x)

+ 뒤에 부정적 내용이나 수사의문문을 같이 써서 '치고1' 앞에 오는 명사가 뒤의 오는 조건에 예외 없음이 강조된다.

[확장]

① 구어에서는 '치구'로 발음하기도 한다.

예) 애들**치구** 안 싸우는 애가 어디 있어요. 애들은 싸우면서 커요.

② '치고1'을 강조하기 위해 보조사 '치고서'를 사용하기도 한다.

- 예) 한국 사람**치고/치고서** 김치 싫어하는 사람 없다.
 부모**치고/치고서**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학생**치고/치고서** 공부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치고2): (명사에 붙어) 뒤의 내용이 앞의 명사의 경우는 예외적임을 나타낸다. 앞 명사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 뒤의 내용이 좀 다른 것임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저 선수는 키가 별로 크지 않네요. 나: 맞아요. 저 사람은 농구 선수 치고 키가 작은 편이에요. 가: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나: 뭘요. 한국어 잘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가: 아니에요. 6개월 배운 사람 치고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문장예문	· 우리 아이는 아이 치고 매운 음식을 잘 먹는 편이에요. · 오늘은 겨울 날씨 치고 정말 따뜻하네요. · 그 사람은 가수 치고 노래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 작은 회사 치고 그 회사처럼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는 없다. · 우리 언니는 많이 먹는 거 치고 살이 안 썩어요. · 학생식당 음식 치고 비싸네요. · 제 남자친구는 남자 치고 요리를 잘 해요. · 저 사람은 축구 선수 치고 는 달리기를 잘 못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사람은 유치원 선생님치고는 친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백화점 세일 기간치고는 사람이 많지 않네요.
--	--

- + '치고2)'는 앞 명사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 조금 다른 예외적인 상황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농구 선수치고 키가 작다'고 하는 것은 농구 선수들이 키가 큰 것이 일반적이지만 언급하는 선수의 경우 키가 작아서 예외적이라는 것이 강조된다.
- + 일반적인 예와 다르다는 예외성을 강조하기 위해 '저 사람은 축구 선수치고는 달리기를 잘 못해요'처럼 보조사 '는'과 결합한 형태인 '치고는'을 사용할 수 있다.

[도입]

(1) 교사: 축구 선수들은 보통 키가 커요? 학생: 네, 키가 큰 편이에요. 교사: (축구 선수들 사이에 키 작은 메시 사진 보여 주며) 이 선수는 어때요? 학생: 키가 작아요. 교사: 맞아요. 메시 선수는 축구 선수 치고 키가 작은 편이에요.
(2) 교사: 학생 식당 음식 어때요? 학생1: 싸요. 학생2: 맛없어요. 교사: (특식 메뉴 삼계탕 등을 언급하거나 비싼 음식 사진 보이며) 이건 어때요? 학생1: 비싸요. 학생2: 맛있어요. 교사: 삼계탕은 학생 식당 음식 치고 비싼 편이에요. 교사: 삼계탕은 학생 식당 음식 치고 맛있어요.

- + '치고2)'를 도입할 때 운동선수들은 키가 크다든지 학생식당 음식은 싸다든지 하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생각을 묻고 예외적인 예를 들어 줌으로써 학생들이 '치고2)'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형태 정보]

앞의 '치고1)'을 참고한다.

[제약 정보]

- ① 치고1)과 달리 뒤에 부정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문장이나 수사의문문이 올 필요가 없다.

예) 공부 안 한 거**치고** 시험을 잘 봤어요.
공부 열심히 한 거**치고** 시험을 못 봤어요.

+ '치고2'는 뒤에 오는 내용이 앞의 명사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임을 나타내므로 뒤에 수사 의문문이 올 수 없으며, 긍정과 부정 모두 올 수 있다.

[확장]

① 구어에서는 '치구'로 발음하기도 한다.

예) 개는 아이**치구** 생각이 깊은 편이야.

② '치고2'는 보조사 '는'과 결합할 수 있으며 '는'과 결합하면 일반적인 경향과 다르다는 예외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다.

예) 우리 아이는 아이**치고**는 잘 뛰는 편이다.

오늘은 여름**치고**는 덥지 않네요.

공부 안 한 거**치고**는 시험을 잘 봤어요.

+ '치고2'에 보조사 '는'이 결합한 경우 줄여서 '치곤'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예) 우리 아이는 아이**치곤** 잘 뛰는 편이다.

오늘은 여름**치곤** 덥지 않네요.

공부 안 한 거**치곤** 시험을 잘 봤어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凡是……(没)有', '作为', '就……而言', 또는 대응 표현 없이 쓰임.

예) 한국 사람**치고** 김치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 凡是韩国人, 没有不喜欢泡菜的.

웬만한 학생**치고** 다 개인 컴퓨터를 갖고 있다. - 凡是学生, 一般都有个人电脑.

오늘은 겨울 날씨**치고** 좀 따뜻하다. - 作为冬天, 今天的天气比较暖和.

명문 대학생**치고** 학생 수준이 형편없다. - 就名牌大学生而言, 学生素质太差了.

요즘은 대학생**치고** 휴대폰 없는 사람이 없다. - 现在大学生没有人没有手机的.

② 용법과 오류

- 중국어 대응 표현 '作为'는 '치고'뿐 아니라 자격을 나타내는 '으로서'와도 대응된다. 이를 혼동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오늘은 겨울 날씨**치고** 좀 따뜻하다. (x)

회사 다니는 엄마**치고** 안 바쁜 사람 있어요? (x)

브라질 사람**치고** 축구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x)

- '치고'의 두 의미, 즉 '예외 없이 모두 뒤의 내용과 같다'와 '뒤의 내용이 앞의 명사의 경우는 예외적이다'의 의미를 혼동해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오늘은 겨울 날씨**치고** 춥지 않은 날이 없다. (x)

아이들**치고** 병원 가기 좋아하는 애가 많다. (x)

메시는 축구 선수**치고** 키가 작을 수 있어요? (x)

사람**치고** 돈 싫어하는 사람 있다. (x)

- 학습자들이 '치고'의 사용에서 회피 오류를 보일 수 있다.

예) 한국 사람이면 김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

(‘한국 사람**치고**’로 표현해야 하는 경우)

유진 씨 얘기한다면 믿을 만한 거 있어요? (?)

(‘유진 씨 얘기**치고**’로 표현해야 하는 경우)

그 사람은 가수이면서도 노래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

(‘가수**치고**’로 표현해야 하는 경우)

제 남자친구는 남자인데 요리를 잘 해요. (?)

(‘남자**치고**’로 표현해야 하는 경우)

3.1.19. ‘커녕’

커녕{**ㄴ커녕**, **느커녕**, **은커녕**}[조사] 어떤 것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보다 못한 것도 부정됨을 나타내는 조사.

커녕: (명사나 부사 뒤에 붙어) 앞의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보다 덜한 것이나 못한 것까지도 부정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점심 먹었어요? 나: 점심커녕 아침도 못 먹었어요. 가: 무슨 일 있어요? 나: 오늘은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p> <p>가: 우산 가져 왔어? 나: 아니. 우산은 왜? 가: 일기예보에서 비 온다고 했거든. 나: 일기예보는 안 맞을 때가 많아. 비커녕 구름도 없는데, 뭐.</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공부커녕 아직 숙제도 못했어요. · 민수는 부모님 말씀커녕 선생님 말씀도 안 듣는 아이다. · 저축커녕 겨우겨우 먹고 살기만 해요. · 집에서커녕 학교에서도 공부를 안 하니 어떻게 공부를 잘하겠어요? · 대학콘커녕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어요. · 빨린커녕 천천히도 못 걸겠다. · 미안해 하기는커녕 화를 내서 정말 당황했어요. · 폭우는커녕 이슬비도 안 왔어요. · 100점은커녕 50점도 못 받을 거 같아요. · 시간이 없어서 밥은커녕 우유도 못 마셨어요.

- + '커녕'은 앞에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부정하며 뒤에 오는 것도 부정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보조사 '은'과 결합하여 '은커녕, 는커녕'의 형태로 자주 쓰인다. 받침 없는 명사나 부사 뒤에 사용되는 '는커녕'은 '대학곤커녕, 빨린커녕'처럼 'ㄴ커녕'으로 줄여 쓸 수 있다.

[도입]

(1)
교사: 여러분 한국 음식 만들 줄 아세요?
학생: 네, 불고기를 만들 줄 알아요.
학생: 김치찌개를 만들어 봤어요.
교사: 우와, 대단해요. 선생님은 한국 사람인데도 김치찌개를 못 만들어요. 당연히 불고기도 못 만들고요. 한국 사람이지만 불고기 커녕 김치찌개도 못 만들어요.
(2)
교사: (열심히 공부하는 아키라 그림 보여 주며) 아키라 씨가 시험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친구도 안 만나고 매일 매일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데 어제 시험을 봤어요. 시험에서 몇 점 받았을까요?
학생: 100점이에요.
학생: 90점이에요.
교사: (F학점을 받고 슬퍼하는 그림 보여 주며) 100점 커녕 70점도 못 받아서 진급을 못하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도서관에서만 공부하지 말고 한국 친구들과 한국어로 이야기도 많이 해 보세요. 책으로만 공부해서는 잘할 수 없어요.

- + '커녕'을 도입할 때 부정적인 내용을 예로 들고 그것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보기 두 가지를 이용하면 좋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김치찌개나 불고기를 예로 들어 불고기를 못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쉬운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김치찌개조차 못 만든다는 것을 예로 들면 '커녕'이 앞에 이야기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뒤의 예도 부정됨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조사임을 이해할 수 있다.

[형태 정보]

- ① 명사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커녕'을 쓴다.

예) 밥	+ 커녕	→ 밥커녕	용돈	+ 커녕	→ 용돈커녕
아침	+ 커녕	→ 아침커녕	지하철	+ 커녕	→ 지하철커녕
공부	+ 커녕	→ 공부커녕	아이	+ 커녕	→ 아이커녕
비	+ 커녕	→ 비커녕			

①	받침 o	+ 커녕	밥커녕, 용돈커녕, 아침커녕, 지하철커녕
	받침 x	+ 커녕	공부커녕, 아이커녕, 비커녕

- ② 강조를 위해 보조사 '은'과 결합할 때는 받침이 있으면 '은커녕', 받침이 없으면 '는커녕'이 사용된다.

①	받침 o	+ 은커녕	밥은커녕, 용돈은커녕, 아침은커녕, 지하철은커녕
②	받침 x	+ 는커녕	공부는커녕, 아이는커녕, 비는커녕

+ '는커녕'은 '공분커녕'과 같이 'ㄴ커녕'으로 줄여 쓸 수 있다.

[문장 구성 정보]

- ① 앞의 것뿐만 아니라 뒤의 것도 부정되는 상황에 쓰이는 조사이기 때문에 추가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 '도'나 불만족한 선택을 나타내는 '이라도', '조차' 등과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

예) 시험공부**커녕** 아직 숙제도 못했어요.
100점**커녕** 70점**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밥**은커녕** 물조차 못 마셨어요.

+ '시험공부커녕 아직 숙제도 못했다'는 것은 부정적인 상황이 시험공부를 못한 것에 그치지 않고 숙제를 못한 것도 있음을 나타낸다.

- ② 부정적인 상황에 쓰이며, 뒤에 긍정적인 내용이 올 경우 어색하다.

예) 프랑스어**커녕** 영어도 못합니다. (o)
프랑스어커녕 영어도 잘합니다. (x)

- ③ 앞에 오는 명사와 뒤에 오는 명사의 순서가 바뀌면 어색한 경우가 많다.

예) 된장찌개**커녕** 라면도 못 끓인다. (o)
라면**커녕** 된장찌개도 못 끓인다. (?)

+ '된장찌개커녕 라면도 못 끓인다'는 것은 음식의 수준을 생각하면 된장찌개보다는 라면이 더 쉽고 그것조차도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앞의 예보다 더 쉬운 뒤의 예까지도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므로 라면과 된장찌개의 순서를 바꾸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확장]

- ① '앞의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뒤의 내용이 됨'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앞의 내용만 부정된다.

예) 상은커녕 벌을 받았다.
축하는커녕 야단만 맞았다.

[유사 문법]

- ① '커녕', '는 고사하고', '는 말할 것도 없고'

커녕	는 고사하고	는 말할 것도 없고
앞에 오는 내용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러함을 강조한다.		

<p>. 부정적인 상황에만 쓰인다.</p> <p>예) 된장찌개커녕 라면도 못 끓인다. (o)</p> <p>= 된장찌개는 고사하고 라면도 못 끓인다. (o)</p> <p>된장찌개커녕 라면도 끓일 줄 안다. / 잘 끓인다. (x)</p> <p>= 된장찌개는 고사하고 라면도 끓일 줄 안다. / 잘 끓인다. (x)</p>	<p>. 부정적인 상황과 긍정적인 상황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p> <p>예) 된장찌개는 말할 것도 없고 라면도 못 끓인다. (o)</p> <p>라면은 말할 것도 없고 된장찌개도 끓일 줄 안다. / 잘 끓인다. (o)</p>
--	---

+ '는 말할 것도 없고'는 못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둘 중 어려운 것이 앞에 오며, 잘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긍정적인 상황에서는 둘 중에서 쉬운 것이 앞에 온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别说, 甭说

- 예) 수진은 한국어**커녕** 영어조차 몰라서 한국인이랑 의사소통이 안돼요.
 - 秀珍别说韩国语, 连英语都不会, 没法跟韩国人沟通.
- 다 회사를 위한 것인데 칭찬**은커녕** 책망을 듣게 되어 억울합니다.
 - 都是为了公司好, 可别说是奖励, 还听到了谩骂, 好冤啊!
- 지금 월급으로는 밥**커녕** 입에 풀칠도 못 할 것입니다.
 - 现在的收入甭说吃饭, 连粥都喝不上了.
- 전문가 추천도서 중에는 학생들에게 이롭기**는커녕** 아주 해로운 것들도 섞여 있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 专家推荐书目中, 甭说对学生有益, 倒还掺杂着有害青少年健康的, 真让人难以理解.
- 이 사막은 나무**커녕** 풀도 자라지 못하는 불모지에요. - 这个沙漠别说树, 寸草不生.
 딸아이가 옆에서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방해만 되었어요.
 - 女儿在旁边甭说她帮忙, 反而总是帮倒忙.
- 부자**는커녕** 동전 한 닢 없는 거지신세가 되었어요.
 - 别说是富翁, 已经沦落到连一个硬币都也没有的乞丐了.
-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먹었는데 건강해지기는**커녕** 다 죽게 되었어요.
 - 按大夫给的处方吃药了, 可别说恢复健康, 人都快要不行了.

② 용법과 오류

- 뒤에 긍정적인 내용이 올 경우 어색하지만 대응하는 중국어의 '别说', '甭说'는 이런 제약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 예) 왕밍은 프랑스어**커녕** 영어도 잘합니다. (x) - 王明甭说法语, 英语也很好. (o)
- 그녀는 한국 음식 중에서 된장찌개**는커녕** 배추김치도 할 줄 알아요. (x)
- 她对韩国的饮食, 别说是酱汤, 连辣白菜都会做呢. (o)
- 저의 남편은 라면**은커녕** 된장찌개도 잘 끓이거든요. (x)
- 我丈夫甭说方便面, 也会做酱汤呢. (o)

3.2. 선어말어미

3.2.1. ‘-었었-’

-었었-[-았었-/-였었-][선어말어미] 현재와 다르거나 단절되어 있는 과거의 사건을 나타내는 어미.

-었었-: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어떤 동작이나 작용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 완료되었음을 나타낸다. 과거의 사건 내용이 현재와 다르거나 단절되어 있을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이 사진의 아이는 누구예요? 나: 저예요. 가: 그래요? 몰라보겠는데요. 지금과는 많이 다르네요. 나: 네, 어렸을 때는 키가 작았었어요. 고등학교 때 갑자기 키가 훌쩍 컸어요.</p> <p>가: 흐영 씨,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나: 아니에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가: 베트남에서 한국말을 공부하고 한국에 왔어요? 나: 아니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어를 하나도 몰랐었어요.</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전까지 부산에 살았었어요. · 예전에는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었었죠. · 그때는 이루고 싶은 꿈이 많았었어요. · 작년 여름 방학에는 제주도에 여행을 갔었어요. · 지난겨울에는 눈이 많이 왔었어요. · 아기를 낳기 전에는 낳신했었어요. · 그는 왕년에 씨름 선수였었다. · 그 당시에는 친한 친구가 아니었었다. · 얼마 전까지 여기에 포스터가 붙어 있었었어요. · 어렸을 때는 쌍꺼풀이 없었었어요.

+ ‘-었었-’은 어떤 동작이나 작용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 완료되어 현재까지 이어지지 않고 단절됨을 나타낸다. ‘2년 전까지 부산에 살았었어요’는 그 이전부터 2년 전까지는 부산에 살았지만 지금은 부산에 살지 않음을 의미한다. ‘예전에는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었었죠’는 예전에는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음을 의미한다.

[도입]

(1)

교사: 고등학교 때 외국어를 배웠어요?

학생: 네.

교사: ('네'라고 대답한 학생에게) 미도리 씨는 어떤 외국어를 배웠어요?

학생: 영어를 배웠어요.

교사: 지금도 영어를 배워요?

학생: 아니요, 지금은 안 배워요.

교사: 미도리 씨는 고등학교 때 영어를 배웠어요. 지금은 배우지 않아요. 미도리 씨는 고등학교 때 영어를 **배웠었어요**. 현재까지 이어지지 않고 과거에 끝난 이야기를 할 때 '-었었-'을 사용해요.

(2)

교사: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 사진을 보여 주며)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학생: 카세트 플레이어요.

교사: 카세트 플레이어로 뭘 해요?

학생: 음악을 들어요.

교사: 요즘도 카세트 플레이어로 음악을 들어요?

학생: 아니요.

교사: 맞아요. 요즘에는 휴대전화나 MP3로 음악을 들어요. 하지만 예전에는 카세트 플레이어로 음악을 **들었었어요**.

+ '-었었-'은 (1), (2)와 같이 과거의 동작이나 작용이 현재까지 이어지지 않고 단절됨을 나타내므로 현재와 과거를 비교하며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ㅏ, ㅑ'인 경우 '-았었-'을 쓴다.

예) 찾- + -았었- + -다 → 찾았었다

작- + -았었- + -다 → 작았었다

가- + -았었- + -다 → 갔었다

보- + -았었- + -다 → 봤었다

아프- + -았었- + -다 → 아팠었다

고프- + -았었- + -다 → 고팠었다

+ 어간 음절이 'ㅏ'로 끝나면 '갔었-'으로 줄여서 쓴다.

+ 어간 음절이 'ㅑ'로 끝나면 줄여서 '봤었-'과 같이 쓴다.

+ 2음절 이상의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ㅡ'일 때는 'ㅡ' 앞의 끝음절 모음에 따라 교체한다. 이 때 'ㅡ' 모음은 탈락한다.

②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ㅏ, ㅑ'가 아닌 경우 '-었었-'을 쓴다.

예) 먹- + -었었- + -다 → 먹었었다

싫- + -었었- + -다 → 싫었었다

서- + -었었- + -다 → 섰었다 주- + -었었- + -다 → 주었었다/줬었다
 쓰- + -었었- + -다 → 썼었다 예쁘- + -었었- + -다 → 예뻤었다
 막히- + -었었- + -다 → 막히었었다/막혔었다
 마시- + -었었- + -다 → 마시었었다/마셨었다
 보내- + -었었- + -다 → 보내었었다/보냈었다
 세- + -었었- + -다 → 세었었다/셋었다 베- + -었었- + -다 → 베었었다/베했었다
 있- + -었었- + -다 → 있었었다 없- + -었었- + -다 → 없었었다

- + 어간 음절이 'ㄷ'로 끝나면 '섰었-'으로 반드시 줄여서 쓴다.
- + 어간 음절이 'ㅌ'로 끝나면 줄여서 '줬었-'과 같이 쓴다.
- + 2음절 이상의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ㅡ'일 때는 'ㅡ' 앞의 끝음절 모음에 따라 교체한다. 이 때 'ㅡ' 모음은 탈락한다.
- + 어간 음절이 'ㄹ'로 끝나면 흔히 줄여서 '막혔었-, 마셨었-'과 같이 쓴다. 어간 음절이 'ㅈ, ㅊ'로 끝나면 '보냈었-, 셋었-, 베했었-'으로 줄여서 쓴다.

- ③ '-하다'가 붙은 동사 및 형용사 어간에는 '-었었-'을 쓰는데, 흔히 줄여서 '-했었-'으로 쓴다.

예) 하- + -었었- + -다 → 하였었다/했었다 일하- + -었었- + -다 → 일하였었다/일했었다
 도착하- + -었었- + -다 → 도착하였었다/도착했었다
 운동하- + -었었- + -다 → 운동하였었다/운동했었다
 시원하- + -었었- + -다 → 시원하였었다/시원했었다
 똑똑하- + -었었- + -다 → 똑똑하였었다/똑똑했었다

①	ㅏ, ㅑ	+ -았-	찾았었다, 작았었다, 갔었다, 봤었다, 아팠었다, 고팠었다
②	ㅏ, ㅑ 이외	+ -었-	먹었었다, 싫었었다, 섰었다, 줬었다, 썼었다, 예뻤었다, 막혔었다, 마셨었다, 보냈었다, 셋었다, 베했었다, 있었었다, 없었었다
③	-하다	+-였-(-했-)	했었다, 일했었다, 도착했었다, 운동했었다, 시원했었다, 똑똑했었다

- ④ '이다', '아니다'는 '-었었-'을 쓴다.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있으면, '-이었었-', 받침이 없으면 주로 '-였었-'이라고 쓴다.

예) 학생이- + -었었- + -다 → 학생이었었다
 의사이- + -었었- + -다 → 의사이었었다/의사였었다
 아니- + -었었- + -다 → 아니었었다

⑤ 불규칙

걸- 예) 지난번에 차가 끊겨서 집까지 2시간이나 **걸었었어요.**
 춥- 예) 겨울 방학에 강원도에 갔는데 서울보다 훨씬 **추웠었어요.**
 낫- 예) 옛날에는 배 아플 때 엄마가 배를 쓰다듬어 주면 **나았었어요.**

파랗- 예) 비가 온 후라서 그런지 하늘이 아주 **파랬었어요**.

부르- 예) 예전에 노래방에 가서 자주 **불렀었어요**.

[문장 구성 정보]

① 추측의 '-겠-'과 결합할 수 있다.

예) 차라리 모르는 게 **좋았었겠다**.
 일하면서 공부하느라 **힘들었었겠다**.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했었겠네요**.

② '-고', '-지만' '-는데'와 같은 문장을 연결하는 어미와 결합할 수 있다.

예) 초등학교 때는 우표를 **모았었고** 중학교 때부터 엽서를 모으기 시작했다.
 부모님이 반대를 **했었지만** 두 사람은 결혼을 했다.
 어렸을 때는 김치를 안 **먹었었는데** 지금은 잘 먹어요.

[제약 정보]

① '-고서', '-어서', '-느라고'와 같은 어미와는 결합하지 않는다.

예) 동생이 군대에 갔다 **왔었고서** 남자다워졌다. (x)
 동생이 군대에 갔다 **왔었어서** 남자다워졌다. (x)
 어젯밤에 TV를 **봤었느라고** 공부를 못했다. (x)

[유사 문법]

① '-었었-', '-었-'

-었었-	-었-
------	-----

·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 현재와 다르거나 단절된 과거의 사건을 나타낸다. 예) 그는 결혼했었다 . 부장님, 댁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	· 단순히 어떤 동작이나 작용이 과거에 일어났음을 나타내거나 행위가 완료되어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예) 그는 결혼했다 . 부장님, 댁에서 전화 왔어요 .
--	--

+ '그는 결혼했었다'는 그가 과거에 결혼을 했으나 현재는 결혼한 상태에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는 결혼했다'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일에 이야기하는 것이거나 과거에 결혼을 했고 지금도 결혼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

+ '부장님 댁에서 전화가 왔었어요'는 과거에 전화가 왔으나 부장님이 받지 못 하였을 때 말한다. 그러나 '부장님 댁에서 전화 왔어요'는 전화가 왔고 지금 연결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말할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 '了'와 '昨天', '曾经', '前不久' 등 과거 시간명사가 사용된 문장으로 실현됨.

예) 오늘 회의에 많은 학자들이 **참석했다**.

- 今天开会参加了很多知名学者.

어제 나는 적지 않은 돈을 **썼다**.

昨天我花了不少钱.

그는 왕년에 운동 **선수였었다**.

- 他曾经是运动选手.

얼마 전까지 여기에 포스터가 붙어 **있었었어요**.

- 前不久还贴着海报.

② 용법과 오류

- '-있었-'은 동사 뒤에 놓여 단절되어 있는 과거의 사건을 나타낸다. 중국어에는 그에 대응되는 고정 표현은 없고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는 '过'를 사용하든가 혹은 대체로 과거 시간 명사로 단절되어 있는 과거의 사건을 나타낸다.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过'를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는 '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있었-'과 '적'을 혼동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2년 전까지 부산에서 살았적이 있다. (x)

그때는 이루고 싶은 꿈이 많았적었다. (x)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한국에 왔었적이 있다. (x)

- '-있었-'과 '-었-'은 중국어에서 대부분 경우, 특히 과거 시간명사가 사용되는 경우 동일한 표현으로 대응된다. 이로 인하여 '-있었-'을 써야 할 경우와 쓰지 말아야 할 경우를 혼동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이 길이 막히었다. (x) ('막혔었다'로 표현해야 할 경우)

사춘기 때 난 부모님이 엄청 싫었다. (x) ('싫었었다'라고 표현해야 할 경우)

그는 그 시절에 유명한 강패였다. (x) ('강패였었다'로 표현해야 할 경우)

- 중국어는 과거 시간 명사로만 단절되어 있는 과거의 사건을 표현할 수 있다.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이런 중국어 표현의 영향으로 인하여 '-있었-'을 사용하지 않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아기를 낳기 전에는 매우 날씬하다. (x)

나는 어렸을 때 아주 예쁘다. (x)

그 친구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주 똑똑하다. (x)

3.3. 연결어미

3.3.1. ‘-거니와’

-거니와[연결어미] 앞 절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뒤의 사실을 **덧붙임**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거니와: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와 같이 앞의 사실에 더해 뒤의 사실이 어떠함을 나타낸다. 앞의 내용을 인정하면서 뒤의 내용을 덧붙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 예문	<p>가: 월드컵이 시작돼서 응원 열기가 정말 뜨겁네요. 나: 선생님도 축구 좋아하세요? 가: 그럼요. 축구 선수 김민준 씨 팬이에요. 앤디 씨는 축구 선수 중에 누구 좋아하세요? 나: 전 김영수 선수를 정말 좋아해요. 공격도 잘하거니와 수비도 정말 완벽하게 잘하거든요.</p> <p>가: 현우 씨 형님께서 결혼하신다면서요? 나: 네. 다음 달에 하세요. 가: 형수 되실 분은 어떤 분이세요? 나: 성격도 정말 중거니와 음식 솜씨도 좋으세요.</p> <p>(텔레비전 뉴스) 가: 사고 현장에 김영수 기자 불러 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나: 네, 현장에 나와 있는 김영수입니다. 가: 이번 사고로 인명 피해도 상당히 컸다고 들었습니다. 나: 네. 인명 피해도 상당히 컸거니와 지역 주민들의 물질적 피해도 상당했습니다.</p>
문장 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준이는 노래도 잘하거니와 춤도 잘 춘다. · 이번 사고로 손해를 본 돈도 돈이거니와 인명 피해도 컸다. · 날도 어둡거니와 비까지 내리고 있으니 내일 떠나는 게 좋겠다. · 그는 일도 잘하거니와 성격도 좋아서 어디를 가나 환영을 받는다. · 경주는 박물관 구경을 할 수 있거니와 왕의 무덤도 볼 수 있어서 여행하기 좋다. · 사형 제도는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이거니와 비인도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 · 비빔밥은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거니와 채소가 많아 건

	<p>강에도 좋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시 한 번 말하거니와 내일은 절대 늦으시면 안 됩니다.· 거듭 부탁드리거니와 이번 회의는 매우 중요하니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는 알찬 대학 시절을 보냈다. 그는 학과 공부도 열심히 했거니와 자원봉사 등의 활동도 활발히 했다.
--	--

- + '-거니와'는 구어보다는 문어에 주로 사용되고 구어에 사용될 경우에는 격식적인 상황이나 뉴스 등에서 주로 사용된다. '민준이는 노래도 잘하거니와 춤도 잘 춰요.'보다는 '민준이는 노래도 잘하거니와 춤도 잘 춘다.' 또는 '김민준 씨는 노래도 잘하거니와 춤도 잘 춥니다.'와 같이 문어나 격식적인 문장에서 자주 사용된다.

[도입]

(1)
교사: 마이클 씨, 지난 방학에 제주도에 다녀왔지요? 제주도 는 어땠어요?
학생: 경치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교사: 그래요. 경치가 정말 아름답지요? 그리고 사람들도 아주 친절해요.
학생: 아, 정말 그랬어요.
교사: 제주도는 경치도 아름답거니와 사람들도 친절해요.
(2)
교사: 히로 씨는 술 마셔요?
학생: 아니요. 안 마셔요.
교사: 담배는요?
학생: 담배도 안 피워요. 건강에 안 좋거든요.
교사: 그렇군요. 여러분, 히로 씨는 술은 물론 안 마시고 담 배도 안 피워요. 히로 씨는 술도 안 마시거니와 담배 도 안 피워요.

- + '-거니와'를 도입하기 위해 학습자들의 여행 경험이나 한국에 대한 인상에 대해 묻는 것도 좋다. 혹은 학습자의 습관이나 어떤 대상에 대한 좋은 점을 물어 두 개 이상의 사실을 덧붙여서 말하도록 유도한다. '-고'는 두 사실을 단순히 나열하거나 연결하지만 '-거니와'는 앞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에 대해 뒤의 사실을 더하는 느낌이 있다는 설명을 덧붙일 수 있다.

[형태 정보]

-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거니와'를 쓴다.

예) 먹- + -거니와 → 먹거니와

읽- + -거니와 → 읽거니와

출- + -거니와 → 출거니와
 길- + -거니와 → 길거니와
 가- + -거니와 → 가거니와
 사- + -거니와 → 사거니와

돕- + -거니와 → 돕거니와
 만들- + -거니와 → 만들거니와
 보- + -거니와 → 보거니와
 일하- + -거니와 → 일하거니와

①	받침 o	+ -거니와	먹거니와, 읽거니와, 출거니와, 돕거니와, 길거니와, 만들거니와
	받침 x	+ -거니와	가거니와, 보거니와, 사거니와, 일하거니와

+ 명사의 경우에는 받침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거니와' 혹은 '-이려니와'가 결합된다. 앞말의 받침이 없을 때에는 주로 '이'를 생략해 '-거니와' 혹은 '-려니와'로 쓴다.

예) 학생 + -이거니와/-이려니와 → 학생이거니와/학생이려니와
 친구 + -이거니와/-이려니와 → 친구이거니와/친구이려니와/친구거니와/친구려니와

[문장 구성 정보]

① 앞 절의 내용을 동의하면서 '-은 물론 더 나아가'의 뜻으로 뒤 절과 대등하게 이어진다.

예) 이 식당은 가격도 **싸거니와** 음식 맛도 좋다.
 서울의 지하철은 **편리하거니와** 요금도 저렴하다.

② 보조사 '도'와 함께 쓰이거나 부사 '또한'이나 '물론'과 함께 쓰일 수 있다. '-거니와'와 결합하는 명사나 '-거니와'에 후행하는 명사에 모두 주격 조사나 목적격 조사가 결합하면 어색할 수 있다.

예) 이 식당은 가격**이** **싸거니와** 음식 맛이 좋다. (?)
 이 식당은 가격**도** **싸거니와** 음식 맛도 좋다. (o)
 이 식당은 가격**도** **싸거니와** 또한 음식 맛도 좋다. (o)
 이 식당은 가격**도** **싸거니와** 물론 음식 맛도 좋다. (o)

③ 비격식적인 구어보다 토론, 뉴스 등의 격식적인 문어에서 주로 사용된다.

예) 이 가방은 디자인도 **예쁘거니와** 가격도 싸. (?)
 이 가방은 디자인도 **아름답거니와** 가격도 저렴하다. (o)
 이 가방은 디자인도 **아름답거니와** 가격도 저렴합니다. (o)

+ '-거니와'는 격식적인 문어의 느낌이 강해서 뒤 절의 어미가 '-는다' 혹은 '-습니다' 형태와의 결합이 우세하며 함께 사용되는 어휘도 격식적인 문어에 사용되는 어휘와의 결합이 우세하다. 비격식적인 종결 어미와 결합한 문장은 완전히 비문법적이지는 않지만 부자연스럽다.

[제약 정보]

①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거나, 주제 혹은 화제가 같아야 한다.

예) (저는) 몸도 아프**거니와** (저는) 기분도 좋지 않습니다. (o)
 (수지는) 하는 일마다 열심히 **하거니와** (수지에게) 운도 따라서 늘 성공합니다. (o)

저는 수학을 **잘하거니와** 제 동생은 영어를 잘해요. (x)

② 과거 '-었-', 추측·의지의 '-겠-'과 결합할 수 있다.

예)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니와** 유일한 동생마저 죽었다. (o)
이제 술도 **끊겠거니와** 담배도 피우지 않겠습니다. (o)

③ 뒤 절에 명령문이나 청유문, 의문문이 올 수 없다.

예) 노래도 **부르거니와** 춤도 추세요. (x)
회의 후에 식사도 같이 **하거니와** 차도 한 잔 마십시오. (x)
오늘 경주에 가서 박물관도 **가거니와** 왕의 무덤에도 갈 거예요? (x)

[확장]

① '-거니와'가 '다시 말하다, 다시 설명하다, 거듭 덧붙이다' 등에 붙어서 담화 표지로 사용될 때는 앞 절과 뒤 절을 연결하는 의미가 약화된다. 이때 '-는데' 정도로 바뀌어서 표현할 수도 있다.

예) 다시 한 번 **말하거니와** 오늘 10시까지 귀가하셔야 합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이번 시험은 대단히 중요하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又.....又', '也.....也', '不仅.....也'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이 식당은 가격도 **싸거니와** 음식 맛도 좋다. - 这个饭店的饭菜又好吃, 又便宜.
민수는 노래도 **잘하거니와** 춤도 잘 춘다.
- 敏洙唱歌也好, 跳舞也好. / 敏洙不仅歌唱得好, 跳舞也好.
형은 술도 안 **마시거니와** 담배도 안 피운다. - 哥哥不喝酒, 不抽烟.

② 용법과 오류

- 보조사 '도'나 부사 '물론, 또한' 등이 함께 자주 사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누나는 커피를 안 마시거니와 차를 안 마신다. (x)
누나는 커피를 안 마시거니와 차도 안 마신다. (o)
누나는 커피도 안 마시거니와 차도 안 마신다. (o)
누나는 커피도 안 마시거니와 차도 안 마신다. (x)
(‘누나는 커피도 안 마시거니와 물론 차도 안 마신다’로 표현해야 할 경우)

- 덧붙이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뒤 절에 오는 내용이 더 강조되는데 이를 단순히 병렬을 나타내는 '-고'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예) 형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운다. (x)
(‘형은 술도 안 마시거니와 담배도 안 피운다’로 표현해야 할 경우)
곡조도 좋고 가사는 더욱 좋다. (x) (‘곡조도 좋거니와’로 표현해야 할 경우)

- 격식적인 문어에서 주로 사용되므로 뒤 절의 어미는 ‘-는다’ 혹은 ‘-습니다’가 주로 온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형은 술을 안 마시거니와 담배를 안 피워요. (x)
 형은 술을 안 마시거니와 담배도 안 피운다. (o)
 형은 술을 안 마시거니와 담배도 안 피웁니다. (o)

- ‘-거니와’는 격식적인 문어에 주로 사용되는 어미로 뒤 절에 주어나 목적어가 생략되고 서술어만 오면 문장이 어색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국어는 그렇지 않아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이 식당은 가격도 싸거니와 맛있다. (x)
 이 식당은 싸거니와 맛있다. (x)
 이 식당은 가격도 싸거니와 맛도 좋다. (o)
 이 산은 높거니와 가파롭다. (x)
 이 산은 높고 가파롭다. (o)

- ‘돈도 돈이거니와, 체면도 체면이거니와’ 같은 한국어 표현에 해당하는 중국어는 중복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예) 이번 사고로 인해 돈이거니와 인명피해도 컸다. (x)
 이번 사고로 인해 돈도 돈이거니와 인명 피해도 컸다. (o)
 이번 실수로 인해 체면이거니와 경제적인 손실도 만만치 않았다. (x)
 이번 실수로 인해 체면도 체면이거니와 경제적인 손실도 만만치 않았다. (o)

3.3.2. ‘-거든’

-거든{거들랑}[연결어미] 앞 절이 뒤 절에 대해 조건이나 가정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 거든**: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뒤 절의 행위를 하게 하는 조건이나 가정으로,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상태에 있게 되는 경우를 앞 절에 미리 제시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 예문	가: 선생님, 그동안 고맙습니다. 나: 아키라 씨, 고향에 조심히 돌아가세요. 가: 네, 감사합니다. 나 : 고향에 도착하거든 전화해 주세요. 가: 네, 그렇게 할게요.
-------	---

	<p>가: 흐영 씨, 한국에 살아 보니까 어때요?</p> <p>나: 문화가 달라서 좀 힘들어요. 예절이 복잡해서 실수도 많이 해요.</p> <p>가: 그래요? 무슨 실수를 했는데요?</p> <p>가: 한국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서 부모님과 식사하는데 제가 먼저 먹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부모님이 식사를 시작하시거든 그때 먹읍시다.”라고 말했어요. 창피했어요.</p> <p>가: 왕밍 씨, 퇴근 안 해요?</p> <p>나: 일을 아직 못 끝냈어요.</p> <p>가: 연말이라 일이 많지요?</p> <p>나: 네, 일이 많아서 혼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p> <p>가: 하다가 힘들거든 전화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p> <p>나: 네, 감사합니다.</p>
문장 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무 비싸거든 사지 마세요. · 오후에 날씨가 좋지 않거든 내일 오세요. · 수완 씨를 만나거든 안부 좀 전해 주세요. · 지금은 눈이 내리니까 이따 그치거든 나갑시다. · 중요한 일이 있거든 이제 그만하고 나가 보세요. · 날씨가 춥거든 제 점퍼를 입으세요. · 첫 월급을 받거든 고생하신 부모님께 모두 드리겠어요. · 찌개가 짜거든 말씀하세요. 다시 끓여 드릴게요. · 조금 더 기다렸다가 줄리아 씨가 오거든 그때 같이 먹어요. · 지하철에서 몸이 불편한 사람을 보거든 자리를 양보하세요.

+ ‘도착하거든 전화해 주세요’에서 ‘전화해 주세요’의 조건이나 가정을 앞 절인 ‘도착하다’가 나타내고 있다. ‘부모님이 식사를 시작하시거든 그때 먹읍시다’에서 ‘먹읍시다’의 조건을 앞 절인 ‘부모님이 식사를 시작하다’가 나타내고 있다. 그러한 조건이나 가정을 드러내기 위해 연결어미 ‘-거든’을 사용한다.

[도입]

(1)	<p>교사: 미도리 씨, 한국어 문법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p> <p>학생: 학교에 와서 선생님께 물어봐요. (여쭙 봐요)</p> <p>교사: 미도리 씨는 문법을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봐요.</p> <p>여러분도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거든 저한테 물어보세요.</p>
(2)	<p>교사: (옷 가게에서 고민하며 옷을 사는 여자의 그림 보여 주며) 레이첼 씨가 지금 옷을 사고 있어요. 친구 생일이라서 예쁜 치마를 선물할 거예요. 이 옷이 친</p>

구한테 안 맞으면 어떻게 할까요?
 학생: 치마를 바꿔야 해요.
 교사: 맞아요. 사이즈가 안 맞으면 바꿔요. 레이첼 씨가 친구한테 선물을 주면서 말해요. "영수증이 있으니까 치마가 안 **맞거든** 바꾸세요."

+ '-거든'이 조건의 의미가 있음을 전달하기 위해 '-으면'과 유사한 상황을 예문으로 들어 학습자에게 의미를 추측해 보도록 유도한다. '음식이 맵거든 드시지 마세요.'나 '바쁘거든 내일 만납시다.'처럼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예문과 상황을 풍부하게 많이 들어 주면서 의미를 자연스럽게 유추하게 한다. 그 후 '-거든'과 '-으면'을 대비하여 제약 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여 준다.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거든'을 쓴다.

예) 먹- + -거든 → 먹거든 읽- + -거든 → 읽거든
 가- + -거든 → 가거든 보- + -거든 → 보거든
 춥- + -거든 → 춥거든 돕- + -거든 → 돕거든
 길- + -거든 → 길거든 만들- + -거든 → 만들거든

①	받침 o	+ -거든	먹거든, 읽거든, 춥거든, 돕거든, 길거든 만들거든
	받침 x	+ -거든	가거든, 보거든

② '이다, 아니다'는 '-이거든'을 쓴다. 단,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주로 '명사+-거든'을 쓴다.

예) 학생이 + -거든 → 학생이거든 선생님이 + -거든 → 선생님이거든
 친구이 + -거든 → 친구이거든/친구거든 부자이 + -거든 → 부자이거든/부자거든
 아니- + -거든 → 아니거든

[문장 구성 정보]

①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일에 더 자주 사용한다. 즉 막연한 가정보다는 조건의 의미가 더 두드러진다.

예) 내가 억만장자가 **되거든** 너한테 자동차 사줄게. (??)
 내가 부자가 **되거든** 너한테 자동차 사줄게. (o)
 내가 월급 **받거든** 너한테 맛있는 저녁 사줄게. (o)

[제약 정보]

① 과거는 '-었거든'으로 쓴다.

예) 다 **먹었거든** 이제 출발하자.
 친구하고 다 **놀았거든** 집에 들어와서 숙제해라.

+ '-거든'은 조건을 덧붙여 명령, 청유, 화자의 약속을 나타내므로 화자보다 상위자에게는 강한 느낌의 '-거든'보다는 '-으면'을 쓰면 부드러운 느낌이 있다. (ㄱ)과 (ㄷ)보다는 (ㄴ)과 (ㄹ)이 더 부드럽고 공손한 느낌을 준다.

- 예) ㄱ. 할아버지, **도착하시거든** 전화주세요.
ㄴ. 할아버지, 도착하시면 전화주세요.
ㄷ. 할머니, 제가 첫 월급 **타거든** 맛있는 거 사 드릴게요.
ㄹ. 할머니, 제가 첫 월급 타면 맛있는 거 사 드릴게요.

② 뒤 절에 평서문과 감탄문이 잘 결합하지 못한다.

- 예) 비가 **오거든** 바람도 불니다. (x)
봄에 꽃이 **피거든** 정말 아름답구나. (x)

+ 뒤 절에 명령문, 청유문이 주로 온다.

+ 뒤 절이 평서문이라도 '-겠-', '-을 것이다' 혹은 '-을게요' 등이 결합할 경우에는 쓸 수 있다.

- 예) 먹기 **싫거든** 먹지 마라.
비가 **오거든** 가지 마라.
아버지가 **오시거든** 같이 놀이공원에 놀러 가자.
비가 **그치거든** 산책할 거예요.
시험에 **불거든** 한턱낼게요.
고향에 **돌아가거든** 꼭 전화드리겠습니다.

+ 비슷한 의미의 '-으면'은 뒤 절에 평서문이나 감탄문을 쓸 수 있다.

- 예) 비가 **오거든** 바람도 불니다. (x)
비가 오면 바람도 불니다. (o)
봄에 꽃이 **피거든** 정말 아름답겠구나. (x)
봄에 꽃이 피면 정말 아름답겠구나. (o)

[확장]

- ① 예스러운 표현으로 수사의문문 용법으로 사용되는 '-거든'의 의미도 있으나 고급에서 가르칠 수 있는 항목이며 읽기 등의 내용 측면에서 언급하면 될 듯하다. 이때의 '-거든'은 주로 '어찌, 하물며' 등의 부사와 함께 쓰여 강조 서술의 의미를 갖는다.

- 예) 짐승도 부모의 은혜를 **알거든** 하물며 사람은 말해서 무엇하랴.
나이가 어린 아이도 도우려 **하거든** 어찌 그는 이 상황을 모른 척하고 있는가.

[유사 문법]

- ① '-거든', '-으면'

-거든	-으면
· 앞 절이 뒤 절에 조건이나 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 동사, 형용사, 명사와 결합한다.	

예) 고향에 돌아가면 연락해. 고향에 돌아가거든 연락해.	
· 비교적 조건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사용된다. 예) 내가 대통령이 되거든 너한테 큰 집을 사 줄게. (?)	· 실현될 가능성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과 조건에 사용된다. 예) 내가 대통령이 되면 너한테 좋은 집을 사 줄게. (o)
· 앞 절에 '-거든'이 오면 뒤 절은 명령, 청유, 약속 등과 결합하고 평서와의 결합은 제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 시험에 합격하거든 저녁을 살게. (o) 시험에 합격하거든 저녁을 같이 먹자. (o) 시험에 합격하거든 저녁을 사. (o) 시험에 합격하거든 저녁을 삽니다. (x)	· '-으면'은 뒤 절의 제약이 없다. 예) 시험에 합격하면 저녁을 살게. 시험에 합격하면 저녁을 같이 먹자. 시험에 합격하면 저녁 사. 시험에 합격하면 저녁을 삽니다.

+ '-거든'과 '-으면'이 두 행위가 연결될 때 앞 절이 뒤 절의 조건이나 가정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거든'은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는 점, 또한 뒤 절 제약이 엄격하다는 점에서 '-으면'과 차이점을 가진다.

② '-거든', '-거들랑', '-걸랑'

-거든, -거들랑, -걸랑
· '-거들랑'은 '-거든'에 조사 '을랑'이 결합된 형태로 '-거든'의 의미와 거의 유사하게 사용된다. '-걸랑'은 '-거들랑'의 준말로 '-거든'과 거의 유사하게 사용된다. 예) ㄱ. 집에 도착 하거든 전화하세요. ㄴ. 집에 도착 하거들랑 전화하세요. ㄷ. 집에 도착 하걸랑 전화하세요. ㄱ. 출거든 코트를 입어라. ㄴ. 출거들랑 코트를 입어라. ㄷ. 출걸랑 코트를 입어라.

+ '-거들랑', '-걸랑'은 사용 빈도 면에서 '-거든'보다 구어적인 느낌이 강하다. 또한 '-거들랑', '-걸랑'은 나이가 든 사람이나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이 더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如果).....就', '(要是).....就', '(要是).....的话'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도착하거든** 메일 보내세요.
- (如果)到了, 就发邮件.

- (要是)到了, 就发邮件.
- (要是)到了的话, 就发邮件.
- 到了, 发邮件.

② 용법과 오류

- 앞뒤 문장이 시간적 선후 관계가 있을 때, 이에 대응하는 중국어 문장은 앞 문장에 동작의 완료를 뜻하는 '了'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了'를 '-었-'으로 그대로 번역하여 문장을 만드는 오류가 나타난다.

예) 비가 그쳤거든 그때 나가요. (x)
비가 그치거든 그때 나가요. (o)
왕명 씨가 왔거든 함께 먹어요. (x)
왕명 씨가 오거든 같이 먹어요. (o)

- 중국인 학습자들은 중국어의 영향으로 인해 앞 절이 뒤 절의 조건이 되는 경우 '-거든'을 사용하지 않고 두 문장으로 표현하는 오류를 범한다.

예) 엄마가 오다. 같이 출발하자. (x)
엄마가 왔다. 같이 출발하자. (x)
엄마가 오거든 같이 출발하자. (o)

- 상위자에게는 '-거든'보다 '-으면'을 사용하는 것이 더 부드러운 표현인데 중국어에서는 둘의 대응 표현에 구별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예) 선생님, 도착하시거든 문자 주세요. (??)
선생님, 도착하시면 문자 주세요. (o)

- '-거든'의 뒤 절에는 평서문과 감탄문이 결합하지 않는다. 중국어 대응 표현에는 이러한 제약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거든'과 '-으면'의 중국어 대응 표현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두 용법을 혼동할 수 있다.

예) 수지가 북경 대학에 합격하거든 정말 기쁠 것 같구나. (x)
수지가 북경 대학에 합격하면 정말 기쁠 것 같구나. (o)
가을이 되거든 단풍이 물든다. (x)
가을이 되면 단풍이 물든다. (o)

3.3.3. '-고도'

-고도[연결어미] 앞 절의 내용과 반대되거나 앞 절의 내용과 유사한 다른 특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 고도: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앞 절의 사실이나 내용과 반대가 되는 말이 오거나, 앞 절의 사실이나 내용과는 (반드시 반대가 되는 것은 아니라도) 그것과는 다

른 특성이 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 예문	<p>가: 소설 <소나기>를 읽어 봤어요?</p> <p>나: 네. 지난주에 읽었어요.</p> <p>가: 어떤 내용이었어요?</p> <p>나: 소년과 소녀의 첫사랑 이야기예요.</p> <p>나중에는 소녀가 죽게 되는데, 참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p> <p>가: 주말에 친구들과하고 춘천 남이섬에 갔어요.</p> <p>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었어요.</p> <p>나: 뭐 먹었어요?</p> <p>가: 이름을 잘 몰라요. 이름이 어려워서 맛있게 먹고도 몰라요.</p> <p>나: 혹시 닭갈비하고 막국수 아니에요?</p> <p>가: 유진 씨, 피곤해 보여요.</p> <p>나: 네, 어제 새벽까지 쇼트트랙 경기를 봤어요.</p> <p>가: 한국 선수가 금메달 땀어요?</p> <p>나: 아니요. 1등이었는데 마지막에 넘어져서 은메달 땀어요.</p> <p>가: 아쉽네요.</p> <p>나: 네, 기쁘고도 아쉬운 경기였어요.</p>
문장 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어서 하는 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산다. · 너는 선생님한테 그렇게 야단을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니? · 어린 아이인데 매운 고추를 먹고도 울지도 않는다. · 동생은 내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척 했다. · 아까 그렇게 많이 놀고도 또 놀고 싶니? · 그 가수는 콘서트에서 2시간을 노래하고도 지칠 줄 모른다. · 그 소설은 잔인하고도 끔찍한 백성들의 현실을 담았다. · 아침에 궁궐에 가면 아름답고도 평온한 느낌을 받는다. · 나는 영화감독이 돼서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 만들고 싶다. · 언니와 나는 가족이고도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 '-고도'는 동사와 결합될 때에는 주로 앞 절과 상반된 내용이 결합되고, '이다'나 형용사와 결합될 때에는 주로 앞 절과는 다른 것을 덧붙이는 내용이 결합된다. 즉 동사가 결합된 '젊어서 하는 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산다.'는 앞 절의 내용과 반대되는 혹은 앞 절에서 기대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이 연결된다. 반면 형용사가 결합된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 만들고 싶다'는 앞 절의 내용에 더 덧붙이되 '슬프다'와는 다른 '아름답다'는 특성을 덧붙이게 된다. '언니와 나는 가족이고도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가족이다'에 '고도'가 붙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일반적인) 가족과 다른 특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도입]

(1)

교사: 왕밍 씨, 이번 시험 잘 봤어요?

학생: 아니요. 잘 못 봤어요.

교사: 시험 준비를 많이 못 했어요?

학생: 아니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잘 못 봐서 속상해요.

교사: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왕밍 씨는 시험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왕밍 씨는 시험공부를 많이 **하
고도** 시험을 잘 못 봤어요.

(2)

교사: 아사코 씨는 요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요?

학생: 네. 지난주에 시작했어요.

교사: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해 보니까 어때요?

학생: 좀 힘들지만 아르바이트 하면서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재미있어요.

교사: 그렇군요. 아사코 씨는 아르바이트가 **힘들고도** 재미있
군요.

+ '-고도'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을 들어 학습자에게 의미를 이해시키도록 한다. '왕밍'이 공부를 많이 하였으면 시험을 잘 보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험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시험을 잘 못 본 상반된 상황처럼 학습자들에게 친숙하면서도 흔히 발생할 법한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형용사를 예로 들 때는 상반된 상황도 좋고 '물건 값이 싸다/질이 좋다'나 '영화가 아름답다/슬프다'와 같이 반대되는 두 속성이 모두 들어 있는 예문을 들어도 좋다. 또한 '-지만'과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같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예인 '철수는 착하다/성실하다'(철수는 착하고도 성실하다)나 '그의 행동은 잔인하다/끔찍하다'(그의 행동은 잔인하고도 끔찍하다) 등으로 단계적으로 예문을 확장해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고도'를 쓴다.

예)	먹-	+	-고도	→	먹고도	읽-	+	-고도	→	읽고도
	춡-	+	-고도	→	춡고도	돕-	+	-고도	→	돕고도
	길-	+	-고도	→	길고도	만들-	+	-고도	→	만들고도
	가-	+	-고도	→	가고도	보-	+	-고도	→	보고도
	싸-	+	-고도	→	싸고도	예쁘-	+	-고도	→	예쁘고도

①	받침 o	+	-고도	먹고도, 읽고도, 춡고도, 만들고도
	받침 x	+	-고도	가고도, 보고도, 예쁘고도, 싸고도

[문장 구성 정보]

- ① 보통은 앞 절과 뒤 절에 동사와 동사, 혹은 동사와 형용사가 연결되면 상반되는 의미를 지니고, 앞 절과 뒤 절에 형용사와 형용사가 연결되면 다른 내용을 덧붙이는 의미를 지닌다.

예) 영수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을 하지 못했다.
그 가수는 돈을 많이 벌**고도** 행복하지 않았다.
이 음식은 고소하**고도** 담백하다.
시장은 활기차**고도** 생동감이 있는 곳이다.

- ② 앞 절과 반대되는 내용이 연결될 때 뒤 절에 '못'이나 '안' 등의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주로 함께 쓰인다.

예) 영화는 슬픈 영화를 보**고도** 울지 않는다.
현우는 시험에 떨어지**고도** 여전히 공부를 안 한다.
동생은 아버지가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척했다.

- ③ 앞 절과 반대되는 내용이 연결될 때 뒤 절에 의문문이나 의미상의 강조를 위한 반어법에 자주 나타난다.

예) 아까 그렇게 많이 먹**고도** 배가 고파?
그렇게 고생하**고도** 또 배낭여행을 가고 싶니?
김영수 씨, 본인이 이런 문제를 만들**고도** 책임을 안 지십니까?

[제약 정보]

- ①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거나 주제 혹은 화제가 같아야 한다.

예) 그 영화는 **아름답고도** (그 영화는) 슬펍습니다. (o)
흐영 씨는 토픽 공부를 열심히 **하****고도** (흐영 씨는) 시험에 떨어졌어요. (o)
미도리 씨는 실수를 **하****고도** 히로 씨는 사과하지 않았어요. (x)
경주가 역사가 **깊****고도** 제주도가 아름다웠어요. (x)

- ② 과거의 '-었-', 추측·의지의 '-겠-'과 결합할 수 없다.

예) 그는 많은 돈을 벌**고도** 자신을 위해 돈을 쓰지 않았다. (o)
그는 많은 돈을 벌**었고****고도** 자신을 위해 돈을 쓰지 않았다. (x)
페이페이 씨는 고향에 **도착하****고도** 나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이다. (o)
페이페이 씨는 고향에 **도착하겠****고도** 나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이다. (x)

- ③ 뒤 절에 명령문, 청유문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공부를 열심히 **하****고도** 시험에 떨어지세요. (x)
오래간만에 **만나****고도** 인사하지 맙시다. (x)

[유사 문법]

① '-고도', '-지만'

-고도	-지만
<p>· 앞과 뒤에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용언이 쓰인다.</p> <p>예) 공부를 열심히 하고도 시험을 못 봤다. (o)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시험을 못 봤다. (o) 그 영화는 아름답고도 슬펐다. (o) 그 영화는 아름답지만 슬펐다. (o)</p>	
<p>· 앞 절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뒷 절에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p> <p>예) 그는 부지런하고도 성실하다. 수지는 똑똑하고도 지혜롭다.</p>	<p>· 앞 절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뒷 절에 이어질 수 없다.</p> <p>예) 그는 부지런하지만 성실하다. 수지는 똑똑하지만 지혜롭다.</p>
<p>+ 앞 절과 뒷 절의 내용이 대조적으로 이어질 때는 구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앞 절과 뒷 절의 내용이 유사하게 이어지면서 강조나 의미의 더해짐을 나타낼 때는 '-지만'을 사용할 수 없다.</p>	

② '-고도', '-기도 하고 -기도 하다

-고도	-기도 하고 -기도 하다
<p>· 앞과 뒤에 서로 상반되는 용언이 쓰이기도 하고 비슷하거나 관련 있는 용언이 쓰이기도 한다. 결합된 용언이 동사일 경우 '-고도'를 '-기도 하고 -기도 하다' 혹은 '-기도 하다'로 교체하면 어색하지만, 형용사일 경우는 '-기도 하고 -기도 하다'로의 교체가(어감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자연스럽게 성립한다.</p> <p>예) 공부를 열심히 하고도 시험을 못 봤다. (o)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시험을 못 보기도 했다. (x) 그 영화는 아름답고도 슬펐다. (o) 그 영화는 아름답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다. (o)</p>	
<p>· 앞 절의 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특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이다.</p> <p>예) 그는 열심히 일하고도 인정을 받지 못했다. 수지는 친구를 많이 사귀고도 외롭다고 말한다.</p>	<p>· 앞 절의 내용과 뒤 절의 내용이 둘 다 일어나거나, 둘 다 그러한 속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종결 표현이다</p> <p>예) 그는 가끔 따뜻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차갑기도 했다. 이 커피숍은 조용하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했다.</p>
<p>+ '-고도'는 연결어미로서 앞 절과 뒤 절의 내용이 반대되거나 혹은 또 다른 면이 있음을 드러낸다. 반면 '-기도 하고 -기도 하다'는 상반되는 속성이 오기도 하고 두 속성을 한꺼번에 모두 드러내기도 한다.</p>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即使.....也', '既.....又'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 예) 어린 아이인데 매운 고추를 **먹고도** 울지도 않는다.
- 那么小的孩子, 即使吃了辣椒都不哭.
이 음식점의 음식은 **맛있고도** 싸다. - 这个饭店的饭菜, 既好吃又便宜.
그렇게 많이 **자고도** 또 자겠대. - 睡了那么长时间, 还要睡.

② 용법과 오류

- '-고도'의 앞뒤 절에는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오지만 양보의 기능은 없다. 그러나 이를 혼동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 예) 철수는 비가 오고도 우산을 쓰지 않는다. (x)
철수는 비가 와도 우산을 쓰지 않는다. (o)

- 뒤 절에 '못' 부정문과 '안' 부정문 사용에 오류가 나타난다.

- 예) 그는 시험에 떨어지고도 공부를 못 한다. (x)
그는 시험에 떨어지고도 공부를 안 한다. (o)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도 안 듣는 척한다. (x)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척한다. (o)

- '-고도'가 형용사와 결합하면 뒤 절에도 형용사가 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即使.....也'는 뒤 절에 동사가 올 수 있어 이를 혼동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 예) 수지는 힘들고도 수업하러 갔다. (x)
오늘 수업은 힘들고도 재미있었다. (o)

- 대응하는 중국어는 앞 절의 동사에 동작 완료를 나타내는 '了'가 결합된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 예) 그렇게 많이 잤고도 또 자겠대. (x)
그렇게 많이 자고도 또 자겠대. (o)
그렇게 많이 먹었고도 또 먹고 싶대요. (x)
그렇게 많이 먹고도 또 먹고 싶대요. (o)

- '-고도'를 사용해야 할 자리에 대조를 나타내는 '-지만'이나 단순한 연결을 나타내는 '-고'를 사용하여 다른 특성이 더 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회피 오류가 나타난다.

- 예) 영수 씨는 대학을 졸업하지만 취직을 하지 못했다. (x)
영수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을 하지 못했다. (o)
그 가수는 돈을 많이 벌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
그 가수는 돈을 많이 벌고도 행복하지 않았다. (o)

이 음식은 고소하고 담백하다. ('고소하고도'로 표현해야 할 경우)
시장은 활기차고 생동감이 있는 곳이다. ('활기차고도'로 표현해야 할 경우)

3.3.4. '-고서'

-고서[연결어미]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고서: (동사에 붙어) 앞 절의 동작과 뒤 절의 동작이 시간의 순서대로 일어난 것임을 나타낸다. 앞 절의 동작이 뒤 절의 동작보다 먼저 일어났음을 강조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영수 씨, 벌써 8시인데 퇴근 안 하세요? 나: 지금 하던 일을 마저 끝내고서 퇴근하려고요. 가: 네. 그럼 저 먼저 퇴근할게요. 수고하세요. 나: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일 배요.</p> <p>(인터뷰) 가: 영화감독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나: 어렸을 때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를 보고서 나도 저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가: '시네마 천국'이 어떤 영화길래 영화감독이라는 꿈을 갖게 했나요? 나: 영화를 좋아하는 소년 '토토'와 마을의 낡은 영화관의 영사 기사의 우정을 그린 영화인데 몇 번을 봐도 미소를 짓게 하는 영화예요. 제가 '시네마 천국'을 보고 그런 것처럼 제 영화를 보고서 사람들이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는 전화를 받고서 밖으로 나갔다. · 다음 주까지 이 책을 읽고서 독후감을 써 오세요. · 컵라면 용기에 끓는 물을 붓고서 3분만 기다리면 돼요. · 눈을 감고서 눈 주위를 가볍게 눌러 주면 피로가 풀려요. · 결혼하고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 비가 오고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 취직을 하고서 첫 월급을 타면 뭘 할 거예요? · 그녀는 아침마다 커피를 한 잔 마시고서 일을 시작한다. · 세계 시장에 진출하지 않고서 경제 성장을 이루기는 어렵다. · 옛날에는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서 결혼하기도 했어요.

+ '-고서'는 동사 뒤에 붙어 먼저 하는 동작과 나중에 하는 동작을 순서대로 연결하여 한 문장으로 만들 때 사용하는 연결어미이다. 위 예문 '그는 전화를 받고서 밖으로 나갔다'는

앞 절의 전화를 받는 동작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뒤 절의 밖으로 나가는 동작이 이어진 것이다. '다음 주까지 이 책을 읽고서 독후감을 써 오세요'는 앞 절의 책을 읽는 동작이 이루어진 후에 뒤 절의 독후감을 쓰는 동작이 이어지는 것이다.

[도입]

(1)

교사: 중국에서는 밥을 먹으면서 차를 마시는 것 같던데 맞아요?

학생: 네. 맞아요.

교사: 한국에서는 어떤 것 같아요?

학생: 한국에서는 밥을 먹은 후에 차를 마시는 것 같아요.

교사: 맞아요. 보통 한국에서는 밥을 **먹고서** 차를 마셔요. 앞에는 먼저 하는 것, 뒤에는 나중에 하는 것을 말할 때 '-고서'를 써요.

(2)

교사: 여러분은 아침에 이를 먼저 닦아요? 세수를 먼저 해요?

학생1: 저는 이를 먼저 닦아요.

학생2: 저는 세수를 먼저 해요.

교사: 네, 요스케는 이를 **닦고서** 세수를 해요. 수완은 세수를 **하고서** 이를 닦아요.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고서'를 쓴다.

예)	읽- + -고서 → 읽고서	잡- + -고서 → 잡고서
	받- + -고서 → 받고서	넣- + -고서 → 넣고서
	가- + -고서 → 가고서	보- + -고서 → 보고서
	만나- + -고서 → 만나고서	모르- + -고서 → 모르고서
	알- + -고서 → 알고서	만들- + -고서 → 만들고서

①	받침 o	+ -고서	읽고서, 잡고서, 받고서, 넣고서, 알고서, 만들고서
	받침 x	+ -고서	가고서, 보고서, 만나고서, 모르고서

[제약 정보]

① 형용사, '이다'와 결합하지 않는다.

- 예) 수지가 **귀엽고서** 예쁘다. (x)
 배가 **고프고서** 밥을 먹었다. (x)
 그는 **미국인이고서** 한국어를 배웠다. (x)

- ② 과거의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선희가 밥을 **먹고서** 학교에 갔다. (o)
선희가 밥을 **먹었고서** 학교에 갔다. (x)
선희가 밥을 **먹고서** 학교에 갈 것이다. (o)
선희가 밥을 **먹겠고서** 학교에 갈 것이다. (x)

- ③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다른 경우 앞 절의 주어에는 주격 조사 '이'를 써야 한다. 보조사 '은'은 올 수 없다.

예) 아이가 학교에 **가고서** 어머니는 청소를 시작했다. (o)
아이는 학교에 **가고서** 어머니는 청소를 시작했다. (x)
부모님이 **이혼하고서** 아이가 비뚤어졌다. (o)
부모님은 **이혼하고서** 아이가 비뚤어졌다. (x)

[확장]

- ① 여러 개의 동작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앞 동작에는 '-고'만 쓰고 마지막 동작에만 '-고서'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예) 남편이 넥타이를 **매고** 양복을 **입고서** 회사에 갔다.
그녀는 항상 저녁을 **먹고** 운동을 **하고서** 잠을 잔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서** 비로소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 ② 앞 절의 내용이 뒤 절의 내용의 이유나 근거임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다.

예) 동생이 상한 음식을 **먹고서** 배탈이 났어요.
영철이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서**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선생님께 꾸중을 **듣고서** 울음을 터뜨렸다.

- ③ 앞 절의 동작이나 동작의 결과가 지속되면서 뒤 절의 내용이 진행될 때 사용할 수 있다.

예) 언니가 새 정장을 **입고서** 면접을 보러 나갔다.
한국에서는 신발을 **벗고서** 집에 들어가요.
어머니가 아픈 동생을 **업고서** 병원까지 뛰어갔어요.

- ④ 앞 절의 내용이 뒤 절의 내용의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다.

예) 인천에서 배를 **타고서** 제주도에 갈 수 있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물에 빠진 아이를 구했어요.
벽에 귀를 **대고서** 옆방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 ⑤ 앞과 뒤의 내용이 서로 대립 관계에 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대립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 보조사 '도'를 덧붙일 수 있다.

예) 그는 자기가 잘못을 **하고서(도)** 도리어 화를 냈다.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도)** 못 들은 체 했다.

아이는 나쁜 짓을 **하고서(도)** 천진하기만 하다.

- ④ '-고서' 뒤에는 '까지', '는', '도', '야' 등의 보조사가 올 수 있다.

예) 위험을 **무릅쓰고서까지** 여행을 갈 필요가 있을까요?
 이 돈 **갖고서는** 서울에서 방 한 칸 얻기 힘들다.
 그녀는 아이를 돌이나 **놓고서도**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
 아기는 젖을 실컷 **먹고서야** 잠이 들었다.

[유사 문법]

- ① '-고서', '-고'

-고서	-고
· 동작의 시간적 순서를 나타낸다.	
· 동작의 시간적 순서를 나타낸다. 단순한 나열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예) 노래를 하고서 춤을 쳤어요. (o) 장미는 예쁘고서 향기로워요. (x) 그는 의사이고서 한국 사람이에요. (x)	· 동작의 시간적 순서뿐만 아니라 단순한 나열의 의미도 가진다. 예) 노래를 하고 춤을 쳤어요. (o) 장미는 예쁘고 향기로워요. (o) 그는 의사이고 한국 사람이에요. (o)
· 과거의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아이가 학교에 갔고서 어머니는 청소를 시작했다. (x) 내일 서울의 날씨는 비가 오겠고서 춥겠습니다. (x)	· 단순한 나열의 의미인 경우 과거의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할 수 있다. 예) 아이는 학교에 갔고 어머니는 청소를 시작했다. (o) 내일 서울의 날씨는 비가 오겠고 춥겠습니다. (o)

+ '-고서'는 동작의 시간적 순서만을 나타낼 뿐 단순한 나열의 의미는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노래를 하고서 춤을 쳤어요'는 '노래를 한 후에 춤을 쳤다'는 의미이다. 이와 달리 '노래를 하고 춤을 쳤어요'는 시간적 순서를 나타낼 수도 있고 단순한 나열을 나타낼 수도 있다. 단순한 나열의 경우는 앞과 뒤의 절을 바꾸어도 의미가 같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 ① 대응 표현 : '等 ... 以后', '先 ... 然后', '... 以后'. 혹은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취직을 **하고서** 첫 월급을 타면 뭘 할 거예요?
 - 等找到工作以后, 拿到第一份工资, 你要做什么?
 나는 아침마다 커피를 한잔 **마시고서** 일을 시작한다.
 - 每天早晨我都先喝一杯咖啡, 然后开始工作.
 결혼을 **하고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 结婚以后, 他完全变了另一个人.
 큰 아들은 오늘 아침을 **먹고서** 학교로 갔다.
 - 今天大儿子吃了早饭, 去了学校.

② 용법과 오류

- '-고서'는 과거의 '-었'과 결합하지 않지만 중국어의 대응 표현은 '了'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了'는 과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완료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과거나 미래에 다 쓰일 수 있다. 대부분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了'가 과거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동생이 빵을 **먹었고서** 체육대회에 갔다. (x) (弟弟吃了早饭以后去参加运动会了.)

승진하였고서 우리 한번 파티하자. (x) (等升了职, 我们开个派对吧.)

집이 **있었고서** 바로 결혼했다. (x) (一有了房子, 我们就结婚了.)

- '-고서'가 미래의 일을 가정하는 절에 쓰일 경우 중국어 '等 ... 以后'에 주로 대응되는데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중국어 표현을 그대로 직역하여 잘못된 한국어 문장을 구사함으로써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예) 취직을 **기다리고서** 우리 결혼하자. (x) (等我找到工作了, 我们就结婚吧.)

퇴근을 **기다리고서**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자. (x) (等下了班, 我们一起去吃饭吧.)

기다리고서 논문을 다 마무리 우리 여행하자. (x) (等我写完论文, 我们一起去旅行吧.)

-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다를 경우 앞 절의 주어에는 주격조사 '이'를 써야 하고, 보조사 '은'은 올 수 없다. 반면에 중국어는 한국어와 언어 유형이 다른 고립어이므로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정확한 조사 사용에 소홀하기 쉬워 다음과 같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예) 아이들은 잠이 **들고서** 엄마는 수업 준비를 시작했다. (x)

부모는 **돌아가고서** 자식들은 이민을 했다. (x)

나는 대학에 **가고서** 엄마는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x)

3.3.5. '-고자'

-고자[연결어미] 어떤 행동의 목적이나 의도나 희망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 고자: (동사나 '이다, 아니다'에 붙어) 말하는 이가 어떤 행위를 하는 목적이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다. 주로 문어 혹은 준구어에 쓰인다.

[예문]

담화 예문	(방송 대담) 가: 요즘 취업난이 심각합니다. 나: 최근 취직 문제로 고민하는 대학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가: 취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조언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 막연히 취직을 꿈꾸지 말고 자신이 들어가고자 하는 회사를 우선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원하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	---

	<p>(강연)</p> <p>가: 오늘 강연을 해 주실 분은 한국대학교의 김민준 교수님입니다.</p> <p>나: 안녕하십니까? 좋은 부모가 되고자 '자녀 사랑 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p> <p>가: 교수님, 우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p> <p>나: 우선 자녀의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즉 자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지요.</p>
문장 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는 성공하고자 열심히 노력했다. · 우리는 되도록 빨리 도착하고자 서둘렀다. · 정부는 일자리는 늘리고자 대책을 세웠습니다. · 김민준 씨는 대통령이 되고자 결심했습니다. · 샤오잉은 김 선생님을 만나고자 사무실에 갔다. · 좋은 작가이고자 한다면 꾸준히 좋은 글을 써야 한다. · 저희는 앞으로 좋은 학생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나는 대학에 합격하고자 밤낮없이 열심히 공부했다. · 저는 그 일을 박 선생님과 의논을 하고자 찾아갔습니다. · 수지는 체중을 줄이고자 열심히 운동을 했다.

+ '-하고자'는 뒤 절의 행동에 대한 의도나 목적을 앞 절에서 나타낼 때 사용하는 연결어미이다. '성공하기' 위해,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다'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한다.

[도입]

<p>(1)</p> <p>교사: 샤오잉 씨, 어제 김 선생님을 만났지요?</p> <p>학생: 네.</p> <p>교사: 왜 김 선생님을 만났어요?</p> <p>학생: 대학교 추천서를 받으려고 전화드렸어요.</p> <p>교사: 아, 네. 샤오잉 씨는 추천서를 받으려고 김 선생님을 만났어요.</p> <p>샤오잉 씨는 추천서를 받고자 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하고자'는 '-으려고'하고 비슷해요. 하지만 인터뷰나 토론, 연설할 때 혹은 글을 쓸 때 자주 써요.</p> <p>(2)</p> <p>교사: 한국어로 이야기할 때 발음이 중요해요. 미도리 씨는 발음 연습을 어떻게 해요?</p> <p>학생: CD를 많이 들어요.</p>
--

교사: 아키라 씨는요?
 학생: 저는 드라마 보면서 따라 해요.
 교사: 그렇군요. 미도리 씨는 발음 연습을 **하고자** CD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아키라 씨는 발음 연습을 **하고자** 드라마 대사를 따라합니다.

+ 학습자들이 의미와 문법적 제약이 유사한 '-으려고1'을 이미 학습하였기 때문에 '-으려고1'을 이용하여 의미 도입을 한 다음, '-으려고1'과 '-하고자'의 차이에 대해 제시 단계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의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하고자'를 쓴다.

예) 먹- + -하고자 → 먹고자 읽- + -하고자 → 읽고자
 돕- + -하고자 → 돕고자 만들- + -하고자 → 만들고자
 가- + -하고자 → 가고자 보- + -하고자 → 보고자
 쓰- + -하고자 → 쓰고자 일하- + -하고자 → 일하고자

①	받침 o	+ -하고자	먹고자, 읽고자, 돕고자, 만들고자
	받침 x	+ -하고자	가고자, 보고자, 쓰고자, 일하고자

② '이다'는 '-이고자'를 쓴다.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도 '-하고자'로 줄여 쓰지 않는다.

예) 학생이- + -하고자 → 학생이고자 (o)
 친구이- + -하고자 → 친구이고자 (o)
 친구이- + -하고자 → 친구고자 (x)

[문장 구성 정보]

① 부정문보다는 긍정문에 더 많이 사용된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정문보다는 긍정문과의 결합이 자연스럽다.)

예) 그는 상사로부터 칭찬을 **받고자** 열심히 노력했다.
 그는 상사로부터 칭찬을 **받지 않고자** 일부러 노력하지 않았다.
 영수는 의논을 **하고자** 사무실로 찾아왔다.
 영수는 의논을 **안하고자** 사람들을 피했다.

+ '-하고자'는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문법이므로 칭찬을 받거나 의논을 하는 사건의 발생을 의도하는 것이 자주 생기는 일인 반면, 어떤 일을 하지 않거나 발생되지 않게 하려고 의도하는 것은 덜 자주 생기는 일이므로 뒤의 상황을 나타내는 문장은 덜 자주 쓴다.

② 일상 구어에서 빈번히 사용되지 않으며, 연설이나 보고와 같은 공식적인 말이나 글에 주로 쓰인다.

예) (1) 우리는 일찍 **도착하고자** 되도록 빨리 출발했어. (?)
 직원들은 이 일을 빨리 **끝내고자** 열심히 했어요. (?)

(2) 우리는 일찍 **도착하고자** 되도록 빨리 출발했다. (o)

직원들은 이 일을 빨리 **끝내고자** 열심히 했습니다. (o)

+ '-고자'는 격식적인 문어체의 느낌이 강해서 뒤 절의 어미가 '-다' 혹은 '-습니다'와의 결합이 자연스럽다. 함께 사용되는 어휘도 격식적인 문어체와 어울리는 어휘와의 결합이 우세하다. (1)이 비문법적이지는 않지만 (1)보다는 (2)가 더 자연스럽다.

[제약 정보]

① 의지가 없는 주어(무생물)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비가 내리**고자** 날씨가 흐렸다. (x)

충직한 개는 주인을 만나**고자** 20km를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o)

+ 의도를 드러내려면 주어가 의지나 사유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상정되어야 하므로 '날씨'와 같은 기상 현상 등의 무생물은 주어로 올 수 없다.

②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거나, 주제 혹은 화제가 같아야 한다.

예) (민준이는) 체중을 줄이**고자** (민준이는)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o)

(미도리는) 토픽(TOPIK) 시험에서 **합격하고자** (미도리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o)

민준이는 체중을 줄이**고자** 꾸영은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x)

미도리는 토픽(TOPIK) 시험에서 **합격하고자** 아사코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x)

③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춤고자** 밖으로 나왔어요. (x)

수지는 건강이 **좋고자** 아침마다 운동을 합니다. (x)

④ 과거 '-었-', 추측·의지의 '-겠-'과 결합할 수 없다.

예) 그는 많은 돈을 벌**고자** 밤늦게까지 일했다. (o)

그는 많은 돈을 벌**었고자** 밤늦게까지 일했다. (x)

수완 씨는 한국어를 잘**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o)

수완 씨는 한국어를 잘**하겠고자** 노력할 것이다. (x)

⑤ 뒤 절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이 올 수 있다

예) 시험에 **합격하고자** 노력하세요. (x)

건강을 **유지하고자** 같이 운동합시다. (x)

[확장]

① '-고자 하다' 구성으로 쓰여서 말하는 이가 어떤 행위를 하려는 의도나 희망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상태를 원함을 나타낸다.

예) 이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이곳을 **떠나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 좋은 **부모이고자** 합니다.

[유사 문법]

① '-고자', '-으려고1'

-고자	-으려고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행동의 목적이나 의도, 희망의 의미를 나타낸다. 동사와 결합한다 <p>예) 한국어를 잘하려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한국어를 잘하고자 열심히 공부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다'와 쓸 수 있다. <p>예) 나는 훌륭한 선생님이고자 한다. (o) 저희들은 좋은 부모이고자 노력합니다. (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다'와 쓸 수 없다. <p>예) 나는 훌륭한 선생님이려고 한다. (x) 저희들은 좋은 부모이려고 노력합니다. (x)</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격식을 갖춘 말이나 공식적인 장소에서의 대화, 글에서 많이 사용한다. <p>예) 여러분께 중요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식적.비공식적 말이나 글에서 모두 사용한다. <p>예)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너를 만나려고 왔어.</p>

+ '-고자'와 '-으려고1'은 말하는 이의 목적이나 의도 및 희망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고자'는 '이다'와 결합할 수 있고 연설이나 보고와 같은 공식적인 말이나 글에 주로 쓰인다는 점에서 '-으려고1'과 차이가 있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为了'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발음을 **연습하고자** CD를 많이 듣습니다.
- 为了练习发音, 我多听CD. / 我多听CD就是为了练习发音.
저는 그 일을 박 선생님과 **의논하고자** 찾아갔습니다. - 我去找朴老师商量那件事.

② 용법과 오류

- '-고자 하다' 구성으로 쓰여서 말하는 이가 어떤 행위를 하려는 의도나 희망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상태를 원함을 나타낸다. 의도나 희망을 나타내는 중국어 표현의 영향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예) 오늘은 태권도의 역사에 대해 한번 공부 계획입니다. (x)
오늘은 태권도의 역사에 대해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o)
여행을 하려 생각합니다. (x) ('여행을 하고자 합니다'로 표현해야 할 경우)

- 대응하는 중국어 문장의 순서대로 문장을 만들어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나는 사무실에 가고자 김 선생님을 만난다. (x)
나는 김 선생님을 만나고자 사무실로 갔다. (o)
철수는 결심하여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 (x)

철수는 대통령이 되고자 결심했다. (o)
 정부는 대책을 세우고자 일자리를 늘렸다. (x)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고자 대책을 세웠다. (o)

- 뒤 절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없으나 중국어는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결합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다이어트를 하고자 내일부터 함께 운동합시다. (x)
 다이어트를 하고자 내일부터 함께 운동할 것이다. (o)
 다이어트를 하고자 내일부터 운동하세요. (x)
 다이어트를 하고자 내일부터 운동한다. (o)

3.3.6. ‘-기에’

-기에 [연결어미] 어떤 행위나 일의 **원인**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기에: (동사,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앞 절이 뒤 절의 원인이나 이유, 근거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주로 문어에 쓰인다.

[예문]

<p>담화 예문</p>	<p>형이나 누나, 동생이 없는 외동아들인 나는 명절 때는 친척집에 가는 것을 좋아했다. 부모님도 내가 늘 외로움을 많이 탄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명절이면 친척들과 함께 보내려고 하셨다. 나는 특히 큰집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우리 가족끼리 보내는 조용한 명절보다는 큰집에서 보내는 떠들썩한 명절이 좋았기 때문이다. 큰집에 가면 명절 음식 준비로 분주한 친척들, 기름 냄새로 가득한 집안 공기, 소리를 지르며 물려다니는 어린 아이들, 이런 것이 진짜 명절이기에 큰집에서 명절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다.</p> <p>(방송 대담)</p> <p>가: 청소년들이 교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은 꼭 필요합니다.</p> <p>나: 교우 관계라는 것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된다고 보십니까?</p> <p>가: 스마트폰만 있으면 원만한 교우 관계가 유지된다는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연락이나 의견 교환 등이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p> <p>나: 전 오히려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의 교우 관계를 망치고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들은 학생이기에 무엇보다도 학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이 학생들의 학업과 학교생활, 교우</p>
--------------	---

	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문장 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가 부탁하기에 나도 한번 가 보았다. · 밖에서 큰 소리가 나기에 모두 밖으로 나갔다. · 꽃이 정말 싸고 예쁘기에 한 송이 샀다. · 바람이 불고 큰비가 오기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연락했다. · 다른 사람들이 모두 신발을 신고 들어가기에 나도 그렇게 했다. · 맛있어 보이기에 하나 사 왔어요. ·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니? · 어젯밤에 얼마나 울었기에 눈이 툭툭 부었니? · 약속한 사람이 누구기에 이렇게 서두르세요? · 오해가 없어야겠기에 오늘 일을 설명 드리러 왔습니다.

+ '-기에'는 뒤 절의 일이나 행동에 대한 원인, 이유, 근거를 앞 절에 나타낼 때 사용하는 연결어미이다. '(그곳에) 한번 가 보거나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간' 것의 원인이나 이유가 앞 절에 드러내기 위해 '그가 부탁하기에, 밖에서 큰 소리가 나기에'와 같이 '-기에'를 사용한다.

[도입]

<p>(1)</p> <p>교사: 여러분, 오늘 노래 한 곡 들을까요?</p> <p>학생들: 네, 좋아요.</p> <p>교사: 선생님이 좋아하는 노래예요. 한 번 들어 보세요. (이정석의 <사랑하기에> 20초 정도 듣기)</p> <p>(♫)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사랑한다면 왜 헤어져야 해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p> <p>여러분 이 노래 들으니까 어때요?</p> <p>학생: 슬퍼요. 헤어지는 노래인 것 같아요.</p> <p>교사: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것을 믿을 수 없어요. 왜 믿을 수 없다고 해요?</p> <p>학생: 사랑해서요.</p> <p>교사: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다는 말을 믿을 수 없어요. 사랑하기에 떠난다는 말을 믿을 수 없어요.</p> <p>(2)</p> <p>교사: 이 영화 보셨습니까?</p> <p>학생: 아닙니다. 재미있습니까?</p> <p>교사: 저도 예매만 하고 아직 안 봐서 재미있는지 모르겠습니다.</p> <p>학생: 인기가 많습니까?</p>

교사: 잘 모르겠습니다. 영화평이 **좋기에** 예매했습니다.

- + 학습자들이 의미와 문법적 제약이 유사한 '-어서, -기 때문에'를 이미 학습하였기 때문에 '-어서'나 '-기 때문에'를 이용하여 의미 도입을 한 다음 '-기에'를 도입한다. 이후 '-기에'와 '-어서', '-기 때문에'의 차이에 대해 문어와 구어, 제약 등에 대해 제시 단계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형태 정보]

-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의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기에'를 쓴다.

예)	먹- + -기에 → 먹기에	읽- + -기에 → 읽기에
	작- + -기에 → 작기에	춥- + -기에 → 춥기에
	돕- + -기에 → 돕기에	만들- + -기에 → 만들기에
	가- + -기에 → 가기에	보- + -기에 → 보기에
	싸- + -기에 → 싸기에	예쁘- + -기에 → 예쁘기에

①	받침 o	+ -기에	먹기에, 읽기에, 작기에, 춥기에, 돕기에, 만들기에
	받침 x	+ -기에	가기에, 보기에, 싸기에, 예쁘기에

- + 명사의 경우에는 받침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기에'가 결합되나 받침이 없을 때는 '이'가 생략되어 '기에'만 결합되기도 한다.

예)	학생 + -이기에 → 학생이기에
	친구 + -이기에 → 친구이기에/친구기에

[문장 구성 정보]

- ① '-기에'는 비격식적인 구어보다는 연설이나 보고, 내레이션 등과 같은 격식적인 문어에 주로 쓰인다.

예)	ㄱ. 날씨가 덥기에 내가 문을 열어 뒀어. (?)
	ㄴ. 날씨가 덥기에 제가 문을 열어 두었습 니다 .

- + '-기에'는 격식적인 문어에 주로 쓰이므로 어미 '-다' 혹은 '-습니다' 형태와 잘 어울린다. (ㄱ)이 비문법적이지는 않지만 (ㄴ)보다는 (ㄴ)이 더 자연스럽다.

- ② 앞 절이 뒤 절의 행위를 하는 근거로서 작용되어야 한다. 뒤 절에 주로 형용사보다는 동사가 결합된다.

예)	ㄱ. 친구가 부탁하기에 나는 마음이 무거웠다. (?)
	ㄴ. 날씨가 시원하기에 나는 기분이 좋았다. (?)
	ㄷ. 아이가 까불기에 나는 기분이 나빴다. (??)

ㄱ.	친구가 부탁하기에 나는 그곳에 한번 가 보았다. (o)
ㄴ.	날씨가 시원하기에 나는 캠핑 갈 준비를 했다. (o)
ㄷ.	아이가 까불기에 나는 아이를 혼내주었다. (o)

- + '-기에'와 결합한 앞 절을 이유나 근거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거나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뒤 절에 연결될 때 가장 자연스럽다. (ㄱ), (ㄴ), (ㄷ)과 같이 뒤 절에 기분이나 느낌이 나타나면 다

소 어색하다.

- ③ 평서문일 경우 부사 '마침'과 어울리며 수사의문문일 경우(의문사와 함께 쓰였을 경우)에는 '도대체, 대체'와 자주 쓰인다.

예) 시장에서 **마침** 세일을 **하기에** 나는 구두를 하나 구입했다.
동생이 **마침** **들어오기에** 나는 동생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도대체 돈이 **뭇기에** 나는 돈에 매달리는 것일까?
대체 그가 어떤 **존재기에** 나는 그에게 꿈쩍을 못할까?

[제약 정보]

- ① 뒤 절의 주어가 의지가 없는 무생물 주어일 경우에 잘 결합하지 않는다.

예) 비가 **내리기에** 상황이 더욱 안 좋아졌다. (x)
동생이 **들어오기에** 방안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해졌다. (x)

- ②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앞 절에는 1인칭 주어가 오지 않는다.

예) ㄱ. 날씨가 **춥기에** (내가) 옷을 많이 입었습니다. (o)
ㄴ. 형이 늦게 **오기에** 어머니가 늘 기다리십니다. (o)
ㄷ. 철수가 체중이 **늘기에** (철수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x)
ㄹ. 내가 토픽(TOPIK) 시험에 **합격했기에**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x)
+ '-기에'는 (ㄷ)처럼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동일하면 비문법적이고, (ㄱ), (ㄴ)과 같이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동일하지 않을 때 문법적이다. (ㄹ)이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다름에도 비문이 되는 것은 앞 절의 주어로 1인칭이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 ③ 뒤 절에 명령문이나 청유문, 감탄문이 결합하지 않는다.

예) ㄱ. 날씨가 **덥기에** 창문을 엽시다. (x)
ㄴ. 날씨가 **덥기에** 창문을 열어라. (x)
ㄷ. 시원한 바람이 **불기에** 창문을 여는군요. (x)
ㄹ. 시원한 바람이 **불기에** 창문을 열어라. (x)
ㅁ. 시원한 바람이 **불기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o)
+ '-기에'가 결합하면 뒤 절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결합하지 않는다. 뒤 절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을 결합하여 쓰고자 하면 (ㄱ)과 같이 앞 절에 '-으니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ㄱ)은 감탄형 어미가 (ㄴ)은 명령문 어미가 와서 어색한 예이고, (ㄷ, ㄹ) 역시 감탄문이 절에 와서 어색하다.

[확장]

- ① '-기에'는 앞 절에 1인칭 주어가 결합되어서는 안 되지만, '심심하다, 슬프다, 외롭다' 등의 심리형용사와 결합하는 경우 혹은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인칭 주어를 쓸 수 있다.

예) (내가) 너무 **심심하기에** (내가) 혼자 영화를 보러 나갔다.

- (내가) 영화를 보다가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있기에** (내가) 얼른 손으로 입을 막았다.
- + (ㄱ)과 (ㄴ)의 앞 절에는 모두 '-기에'가 사용되었지만 올바른 문장으로 성립한다. (ㄱ)에서는 '심심하다'와 같은 심리 형용사가 사용되었기 때문이고, (ㄴ)에서는 무의식적인 행위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1인칭 주어 제약이 해소되었다.

[유사 문법]

① '-기에', '-길래'

-기에	-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 절이 뒤 절의 원인, 이유, 근거를 나타낸다. <p>예) 아이가 울기에 어머니가 가서 달래주었다. 아이가 울길래 어머니가 가서 달래 주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문어나 격식적인 구어에 쓰인다. <p>예) 수지가 인사를 안 하기에 혼을 내 줬다. 수지가 인사를 안 하기에 혼을 내 줬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구어에 쓰인다. <p>예) 비가 오길래 안 갔습니다. 비가 오길래 안 갔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뒤 절의 주어 제약이 없다. <p>예) 수지가 울기에 내가 달래 줬다. 수지가 울기에 어머니가 달래 줬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뒤 절의 주어로 1인칭이 와야 한다. <p>예) 꽃이 예쁘길래 내가 한 다발 샀다. (o) 꽃이 예쁘길래 민수가 한 다발 샀다. (x)</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가 공동 관찰자로서 작용하거나 혹은 추측의 경우에는 뒤 절의 주어로 3인칭도 허용된다. <p>예) 동생은 어머니 생신이길래 선물을 샀어요. (o) (화자가 이러한 상황을 모두 관찰하였을 경우 성립이 가능함.) 동생이 까불길래 형이 때렸겠지. (o)</p>

- + '-기에'와 '-길래'는 의미와 용법 면에서 유의 관계에 있지만 '-길래'가 구어에 더 많이 사용되고 '-기에'가 문어나 격식적인 구어에 더 많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결합 제약에서 보면 앞 절의 주어가 1인칭이 결합될 수 없다는 제약은 '-기에'와 '-길래'가 모두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이 제약은 '슬프다, 심심하다' 등의 일부 용언과 결합하면 해소된다.) 반면 뒤 절의 주어로 1인칭만 결합된다는 제약은 '-길래'에 있다. '-길래'는 뒤 절의 주어로 대부분 1인칭이 결합되는데 이 제약은 추측이나 공동 관찰자적 시각이 개입되면 역시 해소될 수 있다.

② '-기에', '기 때문에', '-으므로'

-기에	-기 때문에	-으므로
-----	--------	------

· 앞 절이 뒤 절의 원인, 이유, 근거를 나타낸다.

예) 아이가 **울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서 달래 주었다.

비가 **오므로** 행사가 취소될 가능성이 큼니다.

아이가 장난이 심하**기에** 어머니가 가서 혼내 주셨어요.

<p>· 과거를 나타내는 '-었-', 추측·의지를 나타내는 '-겠-'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p> <p>예) 꽃이 아름다웠기에 꽃을 한 송이 샀어요. (o)</p> <p>꽃이 향기롭겠기에 꽃을 한 송이 샀어요. (o)</p>	<p>· 과거를 나타내는 '-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추측·의지를 나타내는 '-겠-'을 사용할 수 없다.</p> <p>예) 꽃을 좋아했기 때문에 꽃을 선물해요. (o)</p> <p>꽃을 좋아하겠기 때문에 꽃을 선물했어요. (o)</p>	<p>· 과거를 나타내는 '-었-', 추측·의지를 나타내는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p> <p>예) 꽃을 좋아했으므로 꽃을 선물했습니다. (x)</p> <p>꽃을 좋아하겠으므로 꽃을 선물했습니다. (x)</p>
<p>· 격식적인 문어로 더 많이 사용된다.</p> <p>예) 비가 오기에 행사를 취소했습니다.</p> <p>비가 오기에 행사를 취소했어. (??)</p>	<p>· 격식적인 문어로 더 많이 사용된다.</p> <p>예) 비가 오기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p>	<p>· 격식적인 문어로 더 많이 사용된다.</p> <p>예) 비가 오므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p>

+ '-기에', '-기 때문에', '-으므로'는 모두 격식적 상황이나 문어에서 더 많이 사용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뒤 절에 청유문이나 명령문과 같은 문장 유형이 올 수 없다는 점도 같다. 시제 어미와의 결합 측면에서 '-기 때문에'와 '-기에'는 '-었-'과 '-겠-'의 결합 제약을 보이지 않지만 '-으므로'는 결합 제약을 보이지 않는다.

③ '-기에', '-어서', '-으니까'

-기에	-어서	-으니까
<p>· 앞 절이 뒤 절의 원인, 이유, 근거를 나타낸다.</p> <p>예) 아이가 울기에 어머니가 가서 달래주었다.</p> <p>아이가 우니까 어머니가 가서 달래 주었다.</p> <p>아이가 울기에 어머니가 가서 달래 주었다.</p>		
<p>· '-기에'는 주로 문어에 사용한다.</p> <p>예) 비가 오기에 행사를 취소했습니다.</p>	<p>· 문어와 구어에 두루 사용한다.</p> <p>예) 비가 와서 행사를 취소했습니다.</p> <p>비가 와서 행사를 취소했어.</p>	<p>· 문어와 구어에 두루 사용한다.</p> <p>예) 비가 오니까 행사를 취소했습니다.</p> <p>비가 오니까 행사를 취소했어.</p>
<p>· 뒤 절에 청유문과 명령문을 사용할 수 없다.</p>	<p>· 뒤 절에 청유문과 명령문을 사용할 수 없다.</p>	<p>· 문장의 종결 제약이 없다.</p>

예) 시간이 없기에 서두르세요. (x) 시간이 없기에 서두릅시다. (x)	예) 시간이 없어서 서두르세요. (x) 시간이 없어서 서두릅시다. (x)	예) 시간이 없으니까 서두르세요. (o) 시간이 없으니까 서두릅시다. (o)
· 과거를 나타내는 '-었-', 추측·의지를 나타내는 '-겠-'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예) 꽃이 아름다웠기에 꽃을 한 송이 샀어요. (o) 꽃이 향기롭겠기에 꽃을 한 송이 샀어요. (o)	· 과거를 나타내는 '-었-', 추측·의지를 나타내는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꽃을 좋아했어서 꽃을 선물해요. (x) 꽃을 좋아하겠어서 꽃을 선물해요. (x)	· 과거를 나타내는 '-었-', 추측·의지를 나타내는 '-겠-'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예) 꽃을 좋아했으니까 꽃을 선물해요. (o) 꽃을 좋아하겠으니까 꽃을 선물해요. (o)
· 주로 앞 절이 뒤 절의 행위를 하게 된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예) 아이가 울기에 아이에게 사탕을 하나 주었다. 자꾸 까불기에 아이를 혼내 주었다.	· 보편적인 결과에 대한 원인을 밝히는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연의 현상이나 사물의 변화로 발생한 결과를 설명할 때는 '-어서'를 주로 사용한다. 예)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났다.	· 주로 주관적인 행동의 동기, 주장이나 추론의 전제, 명령 따위의 근거를 제시하는 이유를 나타낸다. 예) 배가 고프니까 빨리 집에 돌아가요. 집에서 책만 읽으니까 친구가 없지.

+ 사용 측면에서 빈도가 높은 것은 '-으니까'와 '-어서'이다. '-기에'는 뒤 절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없다는 제약에서 볼 때 '-어서'와 비슷하다. 반면 '-었-'과 '-겠-'과의 결합에 있어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보면 '-으니까'와 비슷한 면이 있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 因为...所以, 所以..., 之所以...是因为 또는 대응 표현 없이 실현됨.

예) 그가 **부탁하기에** 나도 한번 가 보았다.

- 因为他再三嘱咐, 所以我去看了一下./ 他一再拜托, 我就去看了一下.

너무 **심심하기에** 혼자 영화보러 갔다.

- 太没意思了, 所以自己去看电影了./ 太无聊, 就自己去看电影了.

영화평이 **좋기에** 영화보러 갔어요.

- 我之所以去看这部电影, 是因为影评写得非常不错./ 影评不错, 就去看喽.

② 용법과 오류

- '-기에'는 문어에 많이 쓰이는데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구어에 잘못 사용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친구가 오기에 제가 방을 청소했어. (x)

내가 가기에 너도 가자. (x)
 눈이 오기에 기분이 좋아. (x)

- '-기에'는 수사 의문문일 경우에는 '도대체, 대체'와 호응한다. 이런 경우에는 중국어 대응 표현은 '因为...所以'가 아니라서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기에'를 사용하지 않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도대체 돈이 며, 나는 돈에 매달리는가? (x)
 대체 그가 어떤 존재, 나는 꿈쩍 못할까? (x)
 도대체 그 사람 얼마나 좋아, 벌써 결혼하자 하나? (x)

- '-기에'는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지 않아야 되지만 중국어 因为...所以는 앞 뒤 절의 주어가 같아도 표현 가능하다. 그러므로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이 소주는 냉장고에 두었기에 (소주는) 아주 시원하다. (x)
네가 엄마 딸이기에 (네가) 이렇게 예쁜 거야. (x)
난 오늘 아프기에 (내가) 학교로 가지 못했다. (x)

- 뒤에 명령형이나 청유형, 감탄형이 결합하지 않지만 중국어 '因为...所以'는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 모두 가능하다.

예) 창문을 열기에 시원하네요. (감탄) (x)
 다음 주 휴식하기에 여행을 갑시다. (청유) (x)
 중국인이기에 이 쪽에서 기다려 주세요. (명령) (x)

3.3.7. ‘-느라고’

-느라고{-느라}[연결어미] 앞 절이 뒤 절의 **이유나 원인**이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 느라고**: (동사에 붙어) 앞 절의 어떤 행위가 뒤 절의 행위를 하지 못했거나 혹은 뒤 절에 발생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한다. ‘-느라고’는 구어에서 ‘-느라’로 더 많이 쓰인다.

[예문]

담화 예문	가: 요즘 힘들어 보여요. 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요. 가: 일하느라고 쉬지도 못하나 봐요. 일도 좋지만 좀 쉬면서 하세요. 나: 일이 너무 많아서 쉴 수가 있어야지요. 가: 민준 씨, 아까부터 불렀는데 못 들었어요?
-------	---

	<p>나: 그래요? 책을 읽느라 못 들었어요.</p> <p>가: 무슨 책이에요?</p> <p>나: 한국 역사책인데 재미있어요. 한번 읽어 볼래요?</p>
문장 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를 보느라고 민준 씨의 전화를 못 받았어요. · 시험공부를 하느라고 요즘 친구를 못 만나요. · 숙제를 하느라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못 봤어요. · 책을 읽느라고 지하철에서 못 내렸어요. · 쇼핑을 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 친구하고 노느라고 숙제를 못했어요. · 콘서트 가느라고 친구와의 약속도 잊어버렸어요. · 정신없이 밥을 먹느라고 뉴스를 못 들었어요. · 어제 이사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 집에서 자느라고 집에 누가 온 줄도 몰랐어요. · 아이를 돌보느라고 고생이 많았지요?

+ '영화를 보느라고 민준 씨의 전화를 못 받았어요.'에서 민준이가 전화를 못 받은 이유는 전화를 받을 시간에 영화를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시험공부를 하느라고 요즘 친구를 못 만나요.'에서 요즘 친구를 못 만나는 이유는 시험공부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앞 절이 뒤 절의 이유나 원인을 드러낸다.

+ 구어에서는 '-느라고'보다는 '-느라'가 더 많이 쓰인다.

[도입]

(1)	<p>교사: (영화관에서 전화가 오는데 받지 않는 그림을 보여 주며)</p> <p>지금 여기는 영화관이에요. 전화를 받을 수 있어요?</p> <p>학생: 아니요.</p> <p>교사: 왜요?</p> <p>학생: 영화를 보니까 전화를 받을 수 없어요.</p> <p>교사: 맞아요. 영화를 다 보고 친구에게 전화해서 말해요.</p> <p>"전화를 못 받아서 미안해요. 영화를 보느라고 전화를 받을 수 없어요."</p> <p>'-느라고'는 '-아/어서'와 '-으니까'처럼 '이유'의 의미가 있어요.</p>
(2)	<p>교사: (숙제를 하다가 잠을 자 버리는 학생 그림을 보여 주며)</p> <p>숙제를 다 했어요?</p> <p>학생: 아니요. 다 못 했어요. 그냥 자요.</p> <p>교사: 맞아요.</p> <p>학생: 잠을 자서 숙제 다 못 끝냈어요.</p> <p>교사: 자느라고 숙제를 못 했어요.</p>

+ 앞 절에서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뒤 절에서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함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숙제를 못 했다, 전화를 못 받았다' 등과 같이 부정 부사(안, 못)와 결합된 문장의

로 도입한다.

[형태 정보]

- ① 동사 어간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느라고'를 쓴다.

예) 먹- + -느라고 → 먹느라고 읽- + -느라고 → 읽느라고
 듣- + -느라고 → 듣느라고 돕- + -느라고 → 돕느라고

- ②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느라고'를 쓴다. 단, 'ㄹ'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가- + -느라고 → 가느라고 쉬- + -느라고 → 쉬느라고
 자- + -느라고 → 자느라고 놀- + -느라고 → 노느라고
 살- + -느라고 → 사느라고 만들- + -느라고 → 만드느라고
 열- + -느라고 → 여느라고

①	받침 o	+ -느라고	먹느라고, 읽느라고, 듣느라고, 돕느라고,
②	받침 x	+ -느라고	가느라고, 쉬느라고, 자느라고
	ㄹ 받침	+ -느라고 (어간 'ㄹ' 탈락)	노느라고, 사느라고, 만드느라고, 여느라고

[문장 구성 정보]

- ① '-느라고'는 문어와 구어에 모두 사용되고, 구어일 경우에 '-느라'가 더 많이 사용된다.

예) 친구의 전화를 **받느라고** 드라마를 못 봤어요.
 친구의 전화를 **받느라** 드라마를 못 봤어요.
 텔레비전을 **보느라고** 숙제를 못 했어요.
 텔레비전을 **보느라** 숙제를 못 했어요.

- ② '-느라고'의 '-느-'가 행위의 진행을 의미하므로 동사가 결합된다. 뒤 절에도 동사가 결합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경우에 따라 뒤 절에 '있다, 없다'나 바쁘다, 힘들다, 피곤하다' 등의 형용사가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예외를 제외하고는 앞 절과 뒤 절에 모두 동사가 사용됨이 자연스럽다.

예) 수지는 **공부하느라고** 요즘 운동을 못 해요. (o)
 수지는 **예쁘느라고** 숙제할 시간이 없어요. (x)
 수지는 **공부하느라고** 요즘 데이트할 시간이 없어요. (o)
 수지는 **공부하느라고** 요즘 정말 바빠요/피곤해요/힘들어요. (o)

- ③ 담화 상황으로 볼 때 단순한 이유나 원인을 말할 때보다는 변명이나 공치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 동생을 **돌보느라** 시험공부를 못 했어요.

요즘 계속 **않느라고** 전혀 일을 못하고 있어요.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어머니 **모시느라고** 힘들어요.

- + 예에서 보듯 '-느라고'는 일반적으로 이유를 나타내기보다는 변명하는 상황에서 사용된다. 즉 시험공부를 못한 것을 동생을 돌보았기 때문으로 변명하고 있으며, 전혀 일을 못하고 있음을 계속 앓고 있기 때문으로 변명하고 있다.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어머니 모시느라고 힘들어요'는 공치사로 사용된 예이다. 상대의 고생이나 자신의 고생에 대해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공치사하고 있다.

[제약 정보]

- ①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아야 하고, 주로 뒤 절의 주어는 생략한다.

예) 민수가 **노래하느라고** (민수가) 공부를 못 했어요. (o)
민수가 **노래하느라고** 수지가 공부를 못 했어요. (x)
앤디 씨가 밥을 **먹느라고** (앤디 씨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o)
앤디 씨가 밥을 **먹느라고** (수지 씨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x)
고양이가 **자느라고** (고양이가) 주인이 오는 줄도 모른다. (o)
개가 주인을 만나 **반기느라고** (개가) 배고픈 줄도 모른다. (o)

- ② 과거를 나타내는 '-었-', 미래.추측을 나타내는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숙제를 **하느라고** 친구 생일 파티에 못 갔어요. (o)
숙제를 **했느라고** 친구 생일 파티에 못 갔어요. (x)
숙제를 **하겠느라고** 친구 생일 파티에 못 갈 거예요. (x)

- ③ 뒤 절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없다.

예) **자느라고** 전화 못 받아라. (x)
공부하느라고 드라마를 보지 마세요. (x)
자느라고 전화를 받지 말자. (x)
공부하느라고 드라마를 보지 맙시다. (x)

[확장]

- ① 일반적으로 기상이나 자연 현상과 관련된 경우에는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달라도 무방하다.

예) 비가 **오느라고** 구름이 졌다.
잎이 **돋느라고** 꽃이 먼저 떨어졌다.

- + 앞 절과 뒤 절이 '비'와 '구름', '잎'과 '꽃'으로 주어가 다르지만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이 다. 자연의 변화나 기상과 관련된 경우에는 주어 제약이 해소가 된다고 보거나 혹은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동일 주어 제약이 지켜진다고 볼 수도 있다.

- ② '-느라고'는 '목적'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이때는 '-으려고'나 '-기 위해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예) 아들 **공부시키느라** 집까지 팔았다.
 = 아들 **공부시키려고** 집까지 팔았다.
 회사 **살리느라** 아내의 보석이며 결혼반지까지 팔았다.
 = 회사 **살리려고** 아내의 보석이며 결혼반지까지 팔았다.
 회사에 **출근하느라**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 + 앞 절이 목적이나 목표가 되어 이 목적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뒤 절의 행위가 일어나게 되었다. 즉 아들 공부시키기 위해 집을 팔았음을, 회사를 살리기 위해 아내의 보석과 결혼반지를 팔았음을,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앞의 목적을 위해 뒤의 행위를 하는 것이 드러난다.

[유사 문법]

① '-느라고', '-어서', '-으니까'

-느라고	-어서	-으니까
<p>· 앞 절이 뒤 절의 원인, 이유, 근거를 나타낸다.</p> <p>예) 드라마를 봤으니까 숙제를 못 했어요. 드라마를 봐서 숙제를 못 했어요. 드라마를 보느라고 숙제를 못 했어요</p>		
<p>· 뒤 절에 청유문과 명령문이 올 수 없다.</p> <p>예) 숙제하느라고 드라마 보지 마세요. (x) 숙제하느라고 드라마 보지 맙시다. (x)</p>	<p>· 뒤 절에 청유문과 명령문이 올 수 없다.</p> <p>예) 시간이 없어서 서두르세요. (x) 시간이 없어서 서두릅시다. (x)</p>	<p>· 뒤 절에 청유문과 명령문이 올 수 있다.</p> <p>예) 배가 고프니까 식사부터 하세요. (o) 배가 고프니까 식사부터 합시다. (o)</p>
<p>· 동사와 결합한다.</p> <p>예) 공부하느라 약속을 못 지켰어요. (o) 머리가 아프느라고 시험공부를 못 했어요. (x) 학생이느라고 돈이 없어요. (x)</p>	<p>· 동사, 형용사, '이다'와 결합한다.</p> <p>예) 공부를 많이 해서 시험을 잘 봤어요. 날씨가 추워서 집에 있었어요. 학생이라서 돈이 없어요.</p>	<p>· 동사, 형용사, '이다'와 결합한다.</p> <p>예)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시험을 잘 봤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집에 있자. 학생이니까 돈이 없어요.</p>
<p>·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아야 된다는 제약이 있다.</p> <p>예) 민준이가 공부하느라 (민준이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o) 민준이가 공부하느라 수</p>	<p>·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아야 된다는 제약이 없다.</p> <p>예) 민준이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o) 민준이가 아파서 어머니가 오셨어요. (o)</p>	<p>·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아야 된다는 제약이 없다.</p> <p>예) 민준이가 배가 아프니까 병원에 갔어요. (o) 민준이가 아프니까 어머니가 오셨어요. (o)</p>

<p>지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x)</p>		
<p>· 과거를 나타내는 '-었-', 미래·추측을 나타내는 '-겠-'과는 결합하지 않는다. 예) 숙제를 하느라고 친구 생일 파티에 못 갔어요. (o) 숙제를 했느라고 친구 생일 파티에 못 갔어요. (x) 숙제를 하겠느라고 친구 생일 파티에 못 갈 거예요. (x)</p>	<p>· 과거를 나타내는 '-었-'과는 결합하지 않고 미래·추측을 나타내는 '-겠-'과도 자유롭게 결합하지 않는다. 예) 꽃을 좋아했어서 꽃을 선물해요. (x) 꽃을 좋아하겠어서 꽃을 선물해요. (x)</p>	<p>· 과거를 나타내는 '-었-', 미래·추측을 나타내는 '-겠-'과 결합한다. 예) 꽃을 좋아했으니까 꽃을 선물해요. (o) 꽃을 좋아하겠으니까 꽃을 선물해요. (o)</p>
<p>· 주로 앞 절이 뒤 절의 결과에 대해 원인이나 근거의 역할을 하면서도 변명 혹은 공치사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느라고'를 사용한다. 예) 동생을 돌보느라 시험공부를 못 했어요.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p>	<p>· 보편적인 결과에 대한 원인을 밝히는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연의 현상이나 사물의 변화로 발생한 결과를 설명할 때는 '-어서'를 주로 사용한다. 예)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났다.</p>	<p>· 주로 주관적인 행동의 동기, 주장이나 추론의 전제, 명령 따위의 근거를 제시하는 이유를 나타낸다. 예) 배가 고프니까 빨리 집에 돌아가요. 집에서 책만 읽으니까 친구가 없지.</p>

+ '-느라고'는 앞 절이 뒤 절의 근거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으니까', '-어서'와 유사한 의미를 드러낸다. 이유의 연결어미 중에서도 '-느라고'는 제약이 심한 편이다. 동사만을 취하는 서술어 제약, 앞 절과 뒤 절의 동일 주어 제약, 시제 선어말어미 '-었-'과 '-겠-'과의 결합 제약 등이 있다. 또한 '-느라고'는 의미 면에서도 단순한 인과 관계를 넘어서 자신의 입장에서 어떤 행위를 하지 못했거나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됨에 대한 변명의 기능이 주를 이룬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因为).....所以', '为了'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요즘 세미나를 **하느라고** 너무 바쁩니다. - (因为)这几天有学术会, **所以**很忙./ **为了**开学术会, 这几天很忙. / 这几天开学术会, 很忙.

숙제를 **하느라고** 친구 생일 파티에 못 갔어요. - 写作业了, **所以**没去参加朋友的生日宴会. / **为了**写作业, 没去参加朋友的生日宴会. / 写作业了, 没去参加朋友的生日宴会.

② 용법과 오류

- 주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데, 대응하는 중국어 '(因为).....所以', '为了'는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이유나 원인을 모두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사용 방법의 차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왕밍은 과자를 사느라고 슈퍼에 갔어요. (??)

수지는 공부하느라고 도서관에 갔어요. (??)

- '-느라고'는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으나, 대응하는 중국어 '(因为).....所以'는 앞 절에 형용사를 자유롭게 사용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제가 바쁘느라고 가지 못했어요. (x)

수지가 못생기느라고 탈락되었어요. (x)

날씨가 덥느라고 에어컨을 틀었어요. (x)

힘드느라고 일을 그만뒀어요. (x)

- 목적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중국어 '为了'에 대응되는데, 이때 중국어는 뒤 절에 청유문과 명령문이 올 수 있으나 한국어는 올 수 없다. 이런 차이로 인해 오류가 생긴다.

예) 아들을 공부시키느라고 미국에 가십시오. (x)

기억에 남는 방학을 보내느라고 여행을 갑시다. (x)

- '-느라고'에 의해 연결된 한국어 문장을 중국어로 표현해야 할 경우 두 개의 단일문으로 치환되는 경우가 많아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수업했다. 그래서 전화를 받지 못했다. (x)

(‘수업하느라고 전화를 받지 못했다’로 표현해야 할 경우)

음악을 들었다.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x)

(‘음악을 듣느라고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로 표현해야 할 경우)

3.3.8. ‘-는다거나1’

-는다거나[-는다거나1, -다거나1, -라거나1, -라거나1][연결어미]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나열할 때 쓰이는 연결 어미.

- 는다거나: (동사,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는다거나 -는다거나'의 구성으로 쓰여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나열하는 데에 사용한다.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가정하여 나열하거나 실제 존재하는 명제의 내용을 나열하는 데에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1) (방송 대답)</p> <p>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많은데요.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없을까요?</p> <p>나: 우선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고 되도록 바깥 활동을 많이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p>
------	--

	<p>가: 우울증에 좋은 음식이나 약이 있을까요?</p> <p>나: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한다거나 약을 섭취한다거나 하면 우울증 증세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p> <p>(2)</p> <p>가: 히로 씨는 주말을 어떻게 보내세요?</p> <p>나: 책을 읽는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하면서 주말을 보내요.</p> <p>가: 저는 주말에도 일이 많아서 좀 바빠요.</p> <p>나: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가벼운 운동을 한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 보세요.</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은 적절하게 칭찬을 한다거나 꾸짖는다거나 해야 예절을 익힐 수 있다. · 평소에는 식당에서 밥을 사 먹는다거나 간단히 샌드위치를 사 먹는다거나 하면서 점심을 해결해요. · 명절에는 가족과 여행을 한다거나 친척을 만나러 간다거나 해요. · 할아버지께서는 스마트 폰으로 음악을 듣는다거나 드라마를 본다거나 하는 말을 믿지 않으세요. · 한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단어를 공부한다거나 문법을 공부한다거나 하는데 이것보다 한국 사람과 말할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 날씨가 춥다거나 비가 온다거나 하면 일찍 들어가세요. · 여름철에는 특히 음식이 상했다거나 맛이 변했다거나 하면 드시지 말고 버려야 해요. · 아이들은 촉감이 좋지 않다거나 맛이 없다거나 하는 이유로 채소를 싫어한다. · 부모님은 자신의 자식들이 의사라거나 변호사라거나 약사와 같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갖기를 바란다. · 범인은 자신은 절대 범인이 아니라거나 선량한 시민일 뿐이라거나 하는 말을 떠들어 댔다.

+ '-는다거나'는 여러 가지 사실을 나열하거나 예로서 덧붙일 때 사용하는 연결어미이다. '아이들은 적절하게 칭찬을 한다거나 꾸짖는다거나 해야 예절을 익힐 수 있다.'에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예절을 익힐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하게 칭찬하기, 꾸짖기' 등의 방법을 나열하였다. 또한 '평소에는 식당에서 밥을 사 먹는다거나 간단히 샌드위치를 사 먹는다거나 하면서 점심을 해결해요.'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식당에서 사 먹기, 샌드위치 사 먹기' 등의 방법을 예로서 나열하고 있다.

[도입]

(1)

(아파트를 싫어하는 이유에 대한 그래프를 보여 주며)

교사: '아파트에 왜 살고 싶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래프로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가장 많이 대답했어요?

학생: 층간 소음 문제 때문이라고 대답했어요.

교사: 그 다음으로 어떤 대답이 가장 많아요?

학생: 이웃 간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대답했어요.

교사: 사람들은 층간 소음이 **발생한다거나** 이웃 간의 소통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이유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2)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에 대한 그래프를 보여 주며)

교사: 히로 씨는 왜 한국어 배워요?

학생: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어를 배워요.

교사: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설문 조사 그래프를 보세요. 어떤 대답이 많아요?

학생: 히로 씨처럼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했어요.

교사: 그렇군요. 또 어떤 대답이 많아요?

학생: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말했어요.

교사: 맞아요. 학생들은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다거나**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싶다거나** 하는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 '-는다거나'는 어떤 예나 사건 및 행위를 열거할 때 사용하므로 그러한 용법이 들어날 수 있도록 이유를 여러 명에게 물어보고 그 이유를 열거하면서 정리하거나, 설문조사에 나타난 다양한 대답을 열거하면서 정리하거나 설명하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의미를 이해시킬 수 있다. '-거나'가 단순히 두 명제를 열거하여 그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는다거나'는 명제 자체의 나열에 초점이 있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는다거나'를 쓴다.

예) 먹- + -는다거나 → 먹는다거나	읽- + -는다거나 → 읽는다거나
앉- + -는다거나 → 앉는다거나	잡- + -는다거나 → 잡는다거나
웃- + -는다거나 → 웃는다거나	신- + -는다거나 → 신는다거나

②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ㄴ다거나'를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가- + -ㄴ다거나 → 간다거나	오- + -ㄴ다거나 → 온다거나
공부하- + -ㄴ다거나 → 공부한다거나	자- + -ㄴ다거나 → 잔다거나
놀- + -ㄴ다거나 → 논다거나	만들- + -ㄴ다거나 → 만든다거나

+ '-는다거나/ㄴ다거나'는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며, 특히 'ㄹ' 받침으로 끝나는 경우는 'ㄹ'이 탈락하고 '-ㄴ다거나'가 결합한다.

예) 나는 잠이 안 오면 목욕을 **한다거나** (나는) 따뜻한 우유를 마신다. (o)
 힘들어하는 민수를 위해서 네가 민수를 **도와준다거나** 내가 민수를 도와준다거나
 해야 한다. (o)

[유사 문법]

① '-는다거나1', '-거나'

-는다거나1	-거나
--------	-----

- 동사나 형용사 등에 결합하여 둘 이상의 사건이나 행동을 나열한다.
 예)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행사는 취소됩니다.
 =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하면 행사는 취소됩니다.
 한국에서는 너무 **춥거나 덥거나** 하는 날에는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음식이 있어요.
 = 한국에서는 너무 **춥다거나 덥다거나** 하는 날에는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음식이 있어요.
- '-거나 -거나' 혹은 '-는다거나 -는다거나'와 같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거나 -거나 하
 다'나 '-는다거나 -는다거나 하다'의 형태로 '하다'를 붙여 사용한다.
 예) 시간이 **없거나 바쁘거나** 나중에 오세요. (x)
 시간이 **없거나 바쁘거나** 하면 나중에 오세요. (o)
 시간이 있으면 **노래한다거나 쉰다거나** 시간을 보내요. (x)
 시간이 있으면 **노래한다거나 쉰다거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개 이상의 행위나 상태를 제시하여 어느 쪽이든 상관없음을 나타내지 않는다. 예) 주말에 밥을 먹는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해도 다 좋아요. (??) 친구가 기다린다거나 만다거나 항상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아요.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개 이상의 행위나 상태를 제시하여 어느 쪽이든 상관없음을 나타낸다. 예) 주말에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거나 다 좋아요. (o) 친구가 기다리거나 말거나 항상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아요. (o)
---	--

+ '-거나'와 '-는다거나'는 동사와 형용사가 모두 결합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사건이나 행동, 예를 나열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거나'에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상관없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거나 말거나' 꼴로 쓰여 '-거나'와 결합하는 상태나 행동에 대해 긍정과 부정을 나열하고 그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음을 나타낼 수도 있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 要么...要么, (或者)...或者, 可能...可能..., 也许...也许...

- 예) 책을 **읽는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하면서 주말을 보내요.
 - 周末**要么**看书, **要么**看电影.
 평시에 등산을 **한다거나** 탁구를 **친다거나** 하죠.
 - 平时**或者**登山, **或者**打乒乓球.
 동생은 지금 영화를 **본다거나** 게임을 **논다거나** 하겠죠.

- 弟弟现在可能在看电影, 也可能在玩儿游戏.
- 弟弟现在也许在看电影, 也许在玩游戏.

② 용법과 오류

- '-는다거나'는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나열하며 그 중에 어느 하나도 완전 생략 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어는 앞부분에 사용되는 접속사 하나를 생략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이런 용법상의 차이로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중국어처럼 '는다거나' 하나를 생략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명절에는 가족과 여행을 하고 친척을 만나러 간다던가 해요. (x)
날씨가 춥다 비가 온다던가 하면 일찍 들어가 쉬세요. (x)
주말에는 드라마를 보고 청소를 한다던가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x)

- '-는다거나'와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 중에 '或者'의 한국어 표현 '혹은'으로 '-는다거나'를 대체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비가 온다 혹은 눈이 오면 행사는 취소합니다. (x)
시간이 없다 혹은 바쁘다 내일 오세요. (x)
오후 시간은 노래를 하고 혹은 쉬며 시간을 보내요. (x)

- '-는다거나 -는다거나 하다'의 형태로 자주 사용되는 데 중국어는 접속사 외에 '하다'처럼 함께 쓰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다'를 빠뜨리거나 틀리게 표현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스트레스를 받을 때 친구를 만나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사람들의 대답이 많았다. (x)
너는 학교에 늦는다거나 학교를 빠진다거나 없니? (x)
회사에 지각한다거나 결석한다거나 마세요. (x)

- 형태정보에서 경우에 따라 '-는다거나, -ㄴ다거나, -다거나, -라거나' 로 표현이 됨으로 이 표현들을 혼동함으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예) 종이로 만들다거나 그림을 그리다거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x)
날씨가 춥는다거나 바람이 부는다거나 하면 바로 돌아 오세요. (x)
학교다거나 회사다거나 하는데는 구내 식당이 있을 것이다. (x)

3.3.9 '-는다고1'

-는다고1[-ㄴ다고1, -다고1, -라고3] [연결어미] 근거나 이유, 목적 및 의도를 나타낼 때 쓰이는 연결어미.

-는다고1: (동사,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앞 절이 뒤 절에 대해서 어떤 상황의 이유, 근거, 원인을 나타내거나 어떤 행위의 목적, 의도를 나타내는 데 쓴다.

[예문]

담화예문	<p>(1)</p> <p>가: 엄마, 수지 어디 갔어요?</p> <p>나: 도서관에 간다고 아침 일찍 나갔어.</p> <p>가: 그래요? 같이 영화 보러 가기로 했는데...</p> <p>나: 책 빌린다고 갔으니까 금방 돌아오겠지. 조금만 기다려 봐.</p> <p>(2)</p> <p>가: ('쿨룩쿨룩' 기침하는 소리)</p> <p>나: 감기 걸렸니?</p> <p>가: 네. 창문이 열려 있는 걸 모르고 잤더니 목이 좀 아파요.</p> <p>나: 참, 어제 환기시킨다고 열어 놓았는데 닫는 걸 잊어버렸네.</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생은 자기도 간다고 때를 쓴다. · 수지는 덥다고 아이스크림을 먹자고 했다. · 어머니는 오늘은 김치를 담그신다고 바쁘실 거라고 하셨다. · 수지가 영어 공부를 한다고 밤새 팝송을 들었다. · 민준이는 책을 읽는다고 늦은 밤인데도 환히 불을 켜다. · 아키라는 데이트한다고 2시간 전부터 멋을 부리고 있다. · 입시를 앞둔 학생들은 공부한다고 늦게 집에 돌아가곤 했다. · 떡국을 먹는다고 나이를 더 먹는 게 아니야. · 동생은 키가 작다고 굽 높은 구두만 신는다. · 친한 친구라고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는다고1'은 뒤 절에 상황에 대한 이유나 원인, 목적을 드러내는 연결어미이다. '수지는 덥다고 아이스크림을 먹자고 했다.'에서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며, 수지가 아이스크림을 먹자고 한 이유는 더워서 혹은 덥기 때문이다 또한 '동생은 자기도 간다고 때를 쓴다.'의 문장에서 동생은 자신도 가려고 때를 쓴다는 의미가 된다.

[도입]

<p>(1)</p> <p>(수지가 집에서 어머니께 인사하고 나서는 그림/ 수지가 커피숍에 도착한 그림. 첫 번째 그림: 수지의 말풍선에는 '친구 만나고 올게요.'라고 되어 있는 그림을 제시하며)</p> <p>교사: 지금 수지는 어머니께 뭐라고 했어요?</p> <p>학생: 친구를 만나고 온다고 했어요.</p> <p>교사: 네. 여러분 수지는 어디에 가요?</p> <p>학생: 커피숍에 가요.</p> <p>교사: 네. 수지는 친구를 만난다고 커피숍에 갔어요.</p>
--

(2)

(수지가 비가 오는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뛰어가는 그림/ 수지가 눈이 와서 좋아하는 그림 - 두 그림을 교차 편집)

교사: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날씨가 어때요?

학생: 날씨가 나빠요. 비가 와요.

교사: 맞아요. 수지 씨는 뭐해요?

학생 : 비가 와서 뛰어가요.

교사 : 맞아요. 수지 씨는 비가 온다고 뛰어가요.

여러분, 이 그림은 날씨가 어때요?

학생: 눈이 와요.

교사: 이 그림에서 수지 씨 기분은 어때요?

학생: 눈이 와서 수지 씨 기분이 좋아요.

교사: 맞아요. 수지 씨는 눈이 온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 '-는다고'는 어떤 행위의 근거, 이유 혹은 목적 등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 이유의 어미 '-어서'나 '-(으)니까'로 도입하여 이유를 나타내는 의미임을 숙지시킬 수 있다. 또한 '-어서'나 '-(으)니까'와 차이를 보이기 위해서 (1)처럼 간접 인용의 의미와 근거 혹은 이유의 의미로 해석되는 예로 시작하여 형용사가 사용된 문장을 가급적 많이 들어 '-는다고'가 이유나 근거의 의미임을 명백히 제시한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는다고'를 쓴다.

예) 먹- + -는다고 → 먹는다고	읽- + -는다고 → 읽는다고
앉- + -는다고 → 앉는다고	잡- + -는다고 → 잡는다고
웃- + -는다고 → 웃는다고	신- + -는다고 → 신는다고

②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ㄴ다고'를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가- + -ㄴ다고 → 간다고	오- + -ㄴ다고 → 온다고
공부하- + -ㄴ다고 → 공부한다고	자- + -ㄴ다고 → 잔다고
놀- + -ㄴ다고 → 논다고	만들- + -ㄴ다고 → 만든다고

+ '-는다고/ㄴ다고'는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며, 특히 'ㄹ' 받침으로 끝나는 경우는 'ㄹ'이 탈락하고 '-ㄴ다고'가 결합한다.

①	받침 o	+ -는다고	먹는다고, 읽는다고, 앉는다고, 잡는다고 웃는다고, 신는다고
②	받침 x	+ -ㄴ다고	간다고, 온다고, 공부한다고, 잔다고
	ㄹ 받침	+ -ㄴ다고 (어간 'ㄹ' 탈락)	논다고, 만든다고

- ③ 형용사 어간 뒤에는 '-다고'를 쓴다.

예) 춥- + -다거나 → 춥다고	높- + -다고 → 높다고
예쁘- + -다거나 → 예쁘다고	착하- + -다고 → 착하다고
길- + -다거나 → 길다고	따뜻하- + -다고 → 따뜻하다고

- ④ '이다, 아니다'에는 '-라고'를 쓴다. 단,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주로 '명사+-라고'라고 쓴다.

예) 외국인- + -라고 → 외국인이라고	꽃이- + -라고 → 꽃이라고
학교이- + -라고 → 학교라고	친구이- + -라고 → 친구라고
아니- + -라고 → 아니라고	

[문장 구성 정보]

- ① 앞 절에 동사, 형용사, '이다, 아니다'가 자유롭게 결합한다.

예) 동생은 책을 **읽는다고** 잠을 안 잤다.
동생은 날씨가 **춥다고** 옷을 챙겨 입고 나갔다.
동생은 자신도 **어른이라고** 부모님께 간섭하지 말라고 했다.

- ② 뒤 절에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이 올 수 있다.

예) 수지는 집들이 요리를 **한다고** 아주 바빴다. (o)
수지는 집들이 요리를 **한다고** 아주 바쁘니? (o)
공부 좀 **한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마라. (o)
우리 나중에 성공해도 돈 좀 **있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자. (o)

- ③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으시-'는 '-니라고'와 결합한다.

예) 할머니께서는 집들이 요리를 **하신다고** 아주 바쁘시다.
할아버지께서는 신물을 **읽으신다고** 불을 켜셨다.

+ '-으시-' 뒤에 결합하는 연결어미 '-는다고'는 '-으시-'가 받침 없이 끝나기 때문에 '-니라고'가 결합한다.

[제약 정보]

- ①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아야 하며, 유정물이 주어로 온다.

예) 동생은 잠이 안 **온다고** (동생은)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마셨다. (o)
동생은 잠이 안 **온다고** 형은 동생에게 따뜻한 우유를 한 잔 주었다. (x)
비가 **온다고** 날씨가 점점 흐려졌다. (x)

+ '-는다고'는 주어의 의지나 의도를 나타내거나 주어가 생각하는 이유에 근거하여 후행 사건이 행해지는 것이므로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아야 한다. '날씨'는 유정물 주어가 아니므로 문장이 성립될 수 없다.

- ② 과거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는-'이 없이 '-었-'이나 '-겠-'이 결합하면 간접 인용 표지로서의 의미가 부각된다.

예) ㄱ. 동생은 어제 일을 많이 해서 정말 **피곤했다고** 오늘 회사에 안 갔다. (간접 인용)

ㄴ. 수지는 자기도 함께 여행을 **가겠다고** 때를 쓴다. (간접 인용)

ㄱ.' 동생은 어제 일을 많이 해서 정말 **피곤하다고** 오늘 회사에 안 갔다. (o)

ㄴ.' 수지는 자기도 함께 여행을 **간다고** 때를 쓴다. (o)

- + ㄱ', ㄴ'처럼 '-었-'과 '-겠-'이 사용되지 않더라도 과거나 미래의 의미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 반면 ㄴ처럼 '-었-'이나 '-겠-'이 사용되면 타인의 말을 따온다는 간접 인용의 의미가 더 두드러지게 부각된다.

[확장]

- ① 주로 속담이나 관용구와 함께 쓰여 어떠한 상황을 빗대어 제시할 때 쓰인다.

예)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고** 매사에 조심하세요.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니?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고** 항상 말조심하세요.

- + 이미 있는 속담이나 말을 이용하여 그에 빗대어 다른 사실을 주장함을 나타낸다. '-는다는 말이 있듯이', '-는다고 하더니'의 뜻으로 사용된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고 매사에 조심하세요.'는 속담을 인용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어떠한 행동을 촉구할 때의 근거나 이유로 삼을 때 '-는다고1'를 사용하였다. 즉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라는 말은 아무리 확실한 일도 반드시 점검하고 확인한 후 그 일에 임하라는 뜻이므로 그 말처럼 모든 일에 조심하고 신중을 기하라는 것이다.

[유사 문법]

- ① '-는다고1', '-어서1'

-는다고1	-어서1)
<p>· 앞 절이 뒤 절에 대하여 이유를 나타낸다.</p> <p>예) (학생들이) 날씨가 춥다고 학생들이 결석을 많이 했어요.</p> <p>비가 많이 내려서 학생들이 결석을 많이 했어요.</p> <p>·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지 않아도 된다.</p> <p>예) 수지가 아프다고 어머니께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o)</p> <p>수지가 아프다고 (수지가) 병원에 갔어요. (o)</p> <p>수지가 아파서 어머니께서 걱정하신다. (o)</p> <p>수지가 아파서 (수지가) 병원에 갔어요. (o)</p>	<p>· 앞 절이 뒤 절에 대하여 이유를 나타낸다.</p> <p>예) (학생들이) 날씨가 춥다고 학생들이 결석을 많이 했어요.</p> <p>비가 많이 내려서 학생들이 결석을 많이 했어요.</p> <p>·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지 않아도 된다.</p> <p>예) 수지가 아프다고 어머니께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o)</p> <p>수지가 아프다고 (수지가) 병원에 갔어요. (o)</p> <p>수지가 아파서 어머니께서 걱정하신다. (o)</p> <p>수지가 아파서 (수지가) 병원에 갔어요. (o)</p>
<p>· 유정물이 주어로 올 수 없다.</p> <p>예) 비가 온다고 날씨가 점점 흐려졌다. (x)</p>	<p>· 유정물이 주어로 올 수 있다.</p> <p>예) 태풍이 오고 있어서 빗줄기가 점점 세졌다. (o)</p>
<p>· 뒤 절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이 올 수 있다.</p> <p>예) 많이 안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o)</p>	<p>· 뒤 절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이 올 수 없다.</p> <p>예) 비가 와서 택시를 타세요. (x)</p>

많이 안다고 무시하지 맙시다. (o)	비가 와서 택시를 탑시다. (x)
+ '-는다고1'와 '-어서1'는 앞 절이 뒤 절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나타낸다. '-는다고1'은 형용사가 오면 이유나 근거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고 동사가 오면 간접 인용과 이유 및 근거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는다고1'은 '-어서1'에 비해 후행절 제약이 크지 않으나 '-는다고'가 기본적으로 간접 인용에서 유래한 연결어미이므로 주어는 발화와 관련된 유정물 혹은 사람 주어로 제약된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 为了, 因为, 또는 어순으로, 혹은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동생은 영어공부를 **한다고** 밤새 팝송을 들었다.

- 弟弟为了学英语, 听了一晚上流行歌曲.

동생은 키가 **작다고** 굽 높은 구두만 신는다..

- 妹妹因为个子矮, 老穿高跟鞋.

책 **빌린다고** 갔으니 금방 돌아오겠지.

- 去借书了, 很快就会回来的.

엄마는 **덥다고** 아이스크림을 먹자고 했다.

- 妈妈觉得热, 要吃冰淇淋.

② 용법과 오류

- '-는다고'가 어떤 행위의 목적, 의도를 나타 낼 때 중국어의 어순에 대응된다. 중국어는 사건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행위를 나열함으로써 목적, 의도를 나타낸다. 이런 표현의 차이로 인하여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어순을 중국어 어순에 맞춰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예) 큰 딸은 커피숍에 가서 친구를 만나요. (x)

(‘큰 딸은 친구 만나러 커피숍에 가요’라고 표현해야 할 경우)

서점에 갔으니 책 사러 금방 올 거예요. (x)

귀국 결혼하니 두 집이 빨리 상견례를 해요 . (x)

- ‘为了...’, ‘因为...’ 는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는다고’ 에 비하여 ‘위하여’, ‘기 때문에’ 라는 표현에 더 익숙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몇 가지 표현을 혼동함으로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예) 동생은 자기도 가기 때문에 때를 쓴다. (x)

민준이는 책을 읽기 위하여 늦은 밤인데도 불을 환히 켜다. (x)

(‘책을 읽는다고’로 표현해야 할 경우)

동생은 요리를 하기 때문에 아주 바빴다. (x)

(‘요리를 하느라고’로 표현해야 할 경우)

- 형태 정보에서 경우에 따라 ‘-니다고, -다고, -라고’ 로 표현이 됨으로 이 표현들을 혼동함으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예) 그는 친구들이랑 밥을 먹다고 저녁에 나갔다. (x)

그는 자기가 예쁘라고 많이 교만해 진 것 같다. (x)

회사에서는 그들이 외국인다고 많이 보살펴 주었다. (x)

3.3.10. ‘-는다면1’

-는다면1 [-ㄴ다면1, -다면1, -라면2] [연결어미] 어떤 상황을 가정하여 뒤 절에 따르는 문장의 행위나 상태의 조건을 나열할 때 쓰는 연결어미.

-는다면1: (동사,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어떤 상황을 가정한다는 뜻으로, 그 조건에 따라 다른 어떤 행위를 하거나 다른 어떤 상태에 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1)</p> <p>가: 지금 가면 수지 생일 파티에 너무 늦을 것 같아. 나: 그래도 안 가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가: 지금 간다면 9시가 넘는데 괜찮을까? 나: 한 시간이라도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빨리 가자.</p> <p>(2)</p> <p>가: 형, 오늘 어머니가 병원에 가신다고 그러셨지? 나: 그래? 난 못 들었는데. 가: 어머니께서 병원에 가신다면 내가 모셔다 드리려고. 나: 그럼, 내가 지금 전화로 여쭙 볼게.</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께서 가신다면 저도 가겠습니다. · 아이가 밥을 많이 먹는다면 좋을 텐데. · 동생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 이 비밀을 영원히 지켜준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민다면 어떻게 하지요? · 민준이가 아버지 회사에 취직하기 싫다면 어찌죠? · 네가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 손님들이 일찍 오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 히로 씨도 먹겠다면 라면을 두 개 끓일게요. · 어제 효영이 한국에 왔다면 오늘은 학교에 올 거예요.

+ ‘-는다면’은 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단순히 가정하거나 앞 절의 주어가 ‘그러하다고 말한다’면’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이다. ‘네가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에서 ‘나라면’은 단순히 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가정하게 된다. ‘어머니께서 가신다면 저도 가겠습니다.’의 예에서 어머니가 간다는 가정 하에서 혹은 어머니가 간다고 말한다면 화자도 가겠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앞 절이 뒤 절의 조건이 된다.

[도입]

(1)

(먹구름이 꺼서 하늘이 흐리고 수지는 집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그림을 보여 주며)

교사: 여러분, 지금 날씨가 어때요?

학생: 날씨가 안 좋아요./ 날씨가 흐려요.

교사: 맞아요. 오늘 수지는 놀이공원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오늘 갈 수 있을까요?

학생: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못 가요.

교사: 그래요. 비가 오면 놀이공원에 못 가요. 비가 **온다면** 놀이공원에 못 가요.

(2)

교사: 여러분은 한국어를 한국 사람처럼 잘하게 되면 뭐하고 싶어요?

학생: 저는 대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싶어요.

교사: 아, 수지 씨는 한국어를 **잘한다면** 대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싶군요. 아키라 씨는 어때요?

학생: 저는 한국 여행을 많이 하고 싶어요. 여행할 때 한국어를 잘 못하면 힘들거든요.

교사: 아키라 씨는 한국어를 잘하게 **된다면** 한국 여행을 많이 할 거예요.

+ '-는다면'은 어떠한 상황이나 사건이 일어난다는 가정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가정 상황으로 도입하며 자연스럽게 의미를 알게 한다. '-는다면'은 '-(으)면'보다 불가능한 상황,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도 잘 쓰임을 주지시킨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는다면'을 쓴다.

예) 먹- + -는다면 → 먹는다면 읽- + -는다면 → 읽는다면
 앉- + -는다면 → 앉는다면 잡- + -는다면 → 잡는다면
 웃- + -는다면 → 웃는다면 신- + -는다면 → 신는다면

②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ㄴ다면'을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가- + -ㄴ다면 → 간다거나 오- + -ㄴ다면 → 온다거나
 공부하- + -ㄴ다면 → 공부한다거나 자- + -ㄴ다면 → 잔다거나
 놀- + -ㄴ다면 → 논다거나 만들- + -ㄴ다면 → 만든다거나

+ '-는다면/ㄴ다면'은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며, 특히 'ㄹ' 받침으로 끝나는 경우는 'ㄹ'이 탈락하고 '-ㄴ다면'이 결합한다.

①	받침 0	+ -는다면	먹는다면, 읽는다면, 앉는다면, 잡는다면, 웃는다면, 신는다면
---	------	--------	---------------------------------------

②	받침 x, ㄹ 받침	+ -ㄴ 다면	간다거나, 온다거나, 공부한다거나, 잔다거나, 논다거나, 만든다거나
---	---------------	---------	--

③ 형용사 어간 뒤에는 '-다면'을 쓴다.

예) 춥- + -다면 → 춥다면

예쁘- + -다면 → 예쁘다면

길- + -다면 → 길다면

높- + -다면 → 높다면

착하- + -다면 → 착하다면

따뜻하- + -다면 → 따뜻하다면

④ '이다, 아니다' 뒤에는 '-라면'을 쓴다. 단,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주로 '명사+-라고'라고 쓴다.

예) 외국인- + -라면 → 외국인이라면

학교- + -라고 → 학교라면

아니- + -라고 → 아니라면

꽃- + -라면 → 꽃이라면

친구- + -라고 → 친구라면

[문장 구성 정보]

① '앞 절에 동사, 형용사, '이다, 아니다'가 자유롭게 결합한다.

예) 네가 안 **간다**면 나도 안 가겠다. (o)

옷이 **작다**면 내가 바꿔 올게요. (o)

내가 **학생**이라면 좋겠어요. (o)

내가 학생이 **아니**라면 좋겠어요. (o)

② 가정을 나타내므로 뒤 절에 현재나 미래 시제와 결합한다.

예) 동생이 대학에 **입학한다**면 나는 동생에게 컴퓨터를 사 주었다. (x)

동생이 대학에 **입학한다**면 나는 동생에게 컴퓨터를 사 준다. (o)

동생이 대학에 **입학한다**면 나는 동생에게 컴퓨터를 사 줄 거예요. (o)

③ 뒤 절에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이 올 수 있다.

예) 돈이 **없다**면 외출하지 않겠어요. (o)

돈이 **없다**면 외출하지 마세요. (o)

돈이 **없다**면 외출하지 맙시다. (o)

그 문제를 해결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요? (o)

④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으시-'는 '-ㄴ 다면'과 결합한다.

예) 할머니가 다음 주말에 생신 파티를 **하**신다면 우리 가족은 모두 갈 것이다. (o)

[제약 정보]

①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

예) 나는 잠이 안 온다면 (나는) 목욕을 하거나 따뜻한 우유를 마셔요. (o)
내 친구 민준이가 어렵다면 (나는) 언제나 민준이를 도와줄 거예요. (o)

② 과거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수지가 지난 주말에 생일 파티를 했는다면 우리가 갔다. (x)
수지가 다음 주말에 생일 파티를 하겠는다면 우리가 갈 것이다. (x)
수지가 다음 주말에 생일 파티를 한다면 우리가 갈 것이다. (o)
수지가 지난 주말에 생일 파티를 했다면 지금은 피곤해서 자고 있을 것이다. (o)
수지가 다음 주말에 생일 파티를 하겠다면 철수가 다음주 초에는 한국에 돌아올 것이다. (o)

+ '-는다면'은 '-는-'이 현재를 나타내므로 '-었-'이나 '-겠-'과 결합하지 못한다. 그러나 '-는'이 없으면 '했다면, 하겠다면'과 같이 '-었-'과 '-겠-'이 결합할 수 있다.

[확장]

① 예를 들어 설명하는 말이나 표현과 함께 쓰여 뒤 문장을 설명한다.

예) 제 논의를 **정리한다면**, 한 마디로 이러한 논의 자체가 소모적이라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덧붙인다면**, 유해하다고 인식되어 온 소금이 우리의 신체 대사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두 시간 동안 변호사님을 기다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두 시간 30분입니다.

+ '제 논의를 정리한다면, 한 마디로 이러한 논의 자체가 소모적이라는 것입니다.'에서 논의를 정리한 내용이 뒤에 연이어 나오는 문장이라는 의미가 된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덧붙인다면, 유해하다고 인식되어 온 소금이 우리의 신체 대사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문장에서 참고적으로 덧붙인 설명이 그 뒤에 연이어 나오는 문장이라는 의미가 된다.

[유사 문법]

① '-는다면', '-으면'

-는다면	-으면
<p>· 어떤 상황을 가정할 때 사용한다.</p> <p>예) 내일 비가 온다면 소풍이 취소됩니다. 내일 비가 오면 소풍이 취소됩니다.</p>	
<p>·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는 가정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 즉 '누군가 어떠하다고 말한다면'의 의미가 있다.</p> <p>예) 네가 김치를 잘 먹는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니? (o)</p>	<p>·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는 가정을 나타내는 의미가 없다.</p> <p>예) 네가 김치를 잘 먹으면 누가 그 말을 믿겠니? (x)</p>

+ '-으면'은 '-는다면'과 같이 어떠한 상황을 가정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으면'은 '어떤 사람이 어떠한 말을 했다고 가정하면'의 의미, 즉 누군가의 발화 상황(내용)을 가정

하는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반면 ‘-는다면’은 ‘-는다’에서 알 수 있듯이 간접 화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누군가의 발화 상황(내용)을 가정하는 의미가 있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 如果...就, 的话, 就, 那么.

예) 당신이 **간다면** 저도 갈 거예요.

- 如果你去,我就去.

어머니께서 병원에 **가신다면** 제가 모셔다 드리겠어요.

- 妈妈想去医院的话, 我就陪您去吧.

너도 **먹는다면** 라면을 두 개 끓일게요.

- 你也吃的话, 我就煮两个方便面.

원장님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반드시 출근하지 않을 것이다.

- 院长不上班, 那么他肯定也不来上班的.

② 용법과 오류

- ‘-는다면’은 앞 절에만 사용되지만 그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뒤 절에만 사용되는 표현도 있다. 그러므로 사용 위치를 혼동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손님들이 일찍 오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x)

너도 라면을 먹다면 내가 두 개 끓는다면 할게요. (x)

만약 교수님이 중국에 오셨는다면 우리 만납시다. (x)

- ‘-는다면’이 명사 뒤에 쓰일 때 특히 명사가 받침이 없는 경우 ‘친구라면’은 중국어에서는 동사 ‘이다’를 빠뜨린 틀린 문장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중국어 표현 방법대로 ‘이다’를 써넣으려고 함으로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친구이다라면 의리가 있어야 한다. (x)

학교이다라면 이 정도 설비는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x)

청주이다라면 내가 그쪽으로 갈게. (x)

- 형태정보에서 경우에 따라 ‘-ㄴ다면1, -다면1, -라면2’로 표현이 됨으로 이 표현들을 혼동함으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예) 만약 내일 **출는다면** 가지 맙시다. (x)

친구**이라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x)

매일 이렇게 **만들은다면** 크리스마스까지 엄청 많이 만들겠어요. (x)

3.3.11. ‘-다가’

-다가{-다}[연결어미] 이전 상황의 중단이나 새로운 상황으로의 전환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다가: (동사, 형용사, '이다'에 붙어) 앞 절의 어떤 행위나 상태가 뒤 절의 다른 행위나 상태에 의해 중단되고 바뀌게 됨을 나타낸다. 구어에서 '-다'가 '-다가'보다 더 많이 사용된다.

[예문]

담화 예문	<p>가: 오전에 비가 많이 왔는데 이제는 맑아졌네요. 나: 큰비가 내려서 오후까지 계속 비가 내릴 것 같았는데 금방 그쳤어요. 가: 네, 거짓말같이 비가 내리다가 그쳤어요. 나: 비가 온 후라서 공기가 더 상쾌해요.</p> <p>가: 어, 저 선수 이제 영화배우로 나오네요. 나: 정말? 축구 선수였다 영화배우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가: 저 정도면 연기력도 좋은 편인데요. 나: 축구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여러 가지 재능이 많은 것 같아요.</p>
문장 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까는 눈이 내리다가 이제 비가 내려요. · 수지는 요리를 하다가 전화를 받고 나갔어요. · 영철이는 친구하고 테니스를 치다가 한쪽 팔을 다쳤다. · 민준이는 집에 오다가 백화점에 들렀다. · 왕밍은 잠을 자다가 한국어를 잘하는 꿈을 꿔다. · 꾸영은 밥을 먹다가 집 밖으로 나갔다. · 어머니는 책을 읽으시다가 갑자기 텔레비전을 켜셨다. · 유진이는 부산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 아이가 조용하다가 저렇게 시끄럽게 울어요. · 어머니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용돈을 주시다가 대학생이 되니까 안 주신다. · 날씨가 춥다가 덥다가 해요.

+ '-다가'는 앞 절의 행동이 중단되거나 뒤 절의 행동으로 바뀔을 나타낸다. '아까는 눈이 내리다가 이제 비가 내려요.'에서 '눈이 내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건이 '비가 내리'는 사건에 의해 중단되고 '비가 내리'는 상황으로 전환하게 된다. '어머니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용돈을 주시다가 대학생이 되니까 안 주신다.'에서 어머니는 내가 대학생이 되자 용돈 주는 행위를 중단하였음을 나타낸다.

+ '날씨가 춥다가 덥다가 해요.'는 날씨가 추웠다가 이 상태가 중단되고 덥게 됨을 번갈아가며 반복함을 나타낸다. '-다가 -다가 하-'는 두 가지 이상의 상태나 행위가 번갈아 일어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데 '수지가 울다가 웃다가 해요.', '아기가 잠을 자다가 깨다가 한다.' 등이 그 예이다.

[도입]

(1)

교사: (숙제를 하다 말고 그대로 펼쳐놓고 자는 학생의 그림을 보여 주며)

이 학생이 지금 자고 있어요. 숙제를 다 했을까요?
학생: 아니요.
교사: 숙제 안 하고 뭐해요?
학생들: 자요.
교사: 맞아요. 숙제를 했어요. 지금은 안 하고 잠을 자요.
이 학생은 숙제를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숙제를 못했어요.
(2)
교사: (회사에 다니다가 학생이 되어 학교에서 강의 듣는 그림을 보여 주며)
이 남자는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지금은 뭐 해요?
학생: 대학생이에요. 공부해요.
교사: 네, 이 남자는 회사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학생이에요. 예전에는 회사원
이었다가 지금은 대학생이에요.

- + 학습자들이 '-다가'의 의미 즉, 앞의 행위나 사건의 중단과 뒤의 행위나 사건으로의 전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숙제를 하다가 자 버렸어요(숙제를 다 못했음), 편지를 쓰다가 올렸어요(편지를 다 쓰지 못했음), 밥을 먹다가 전화를 받았어요(밥을 다 먹지 못했음)' 등과 같이 후행 행위나 사건에 의해 앞선 행위가 중단되거나 미완으로 끝나 버리는 예문을 많이 들어 주는 것이 좋다.
- + '눈이 오다가 비가 와요.'나 '어렸을 때 서울에 살다가 부산에 살아요.', '손을 올렸다가 내려요'는 앞선 행위가 충분히 지속되지 못하였거나 미완되었다는 의미가 약하기 때문에 도입 부분에서 예문으로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형태 정보]

- ① 동사나 형용사 어간의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다가'를 쓴다.

예) 먹- + -다가 → 먹다가	읽- + -다가 → 읽다가
가- + -다가 → 가다가	보- + -다가 → 보다가
작- + -다가 → 작다가	춡- + -다가 → 춡다가
싸- + -다가 → 싸다가	예쁘- + -다가 → 예쁘다가
돕- + -다가 → 돕다가	만들- + -다가 → 만들다가

①	받침 o	+ -다가	먹다가, 읽다가, 작다가, 춡다가, 돕다가, 만들다가
	받침 x	+ -다가	가다가, 보다가, 싸다가, 예쁘다가

- + 명사의 경우에는 받침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다가'가 결합된다.

예) 학생 + 이다가 → 학생이다가
친구 + 이다가 → 친구이다가

[문장 구성 정보]

- ① '-다가'는 행위의 중단이나 행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용사보다는 동사

의 사용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렇다고 해서 형용사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가도'의 형태가 더 자연스럽다.

예) 저녁이 되자 아이들이 **놀다가** 집에 들어갔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영화를 **보다가**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 미셀이 **립다가** 갑자기 예뻐 보였다.

지영이는 **성실하다가도** 가끔씩 저렇게 결석을 해요.

② 새로운 상황이나 행위로의 전환의 의미보다 단순히 '중단'만을 드러낼 경우 뒤 절에 '말다, 그만두다, 그치다, 멈추다, 포기하다'와 결합이 자연스럽다.

예) 영수가 옷을 **벗으려다가** 그만두었다.

아키라 씨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멈추었다.

비가 **오다가** 그쳤다.

[제약 정보]

①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아야 하고, 주로 뒤 절의 주어는 생략한다.

예) 영화가 재미없어서 수지가 영화를 보다가 (수지가) 자 버렸다. (o)

영화가 재미없어서 수지가 영화를 보다가 내가 자 버렸다. (x)

앤디 씨가 밥을 먹다가 (앤디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o)

앤디 씨가 밥을 먹다가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x)

+ 다음 예처럼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지 않지만 앞뒤 절의 주제가 '기상' 혹은 '날씨'로 같을 때는 문장이 성립한다.

예) 비가 오다가 눈이 내렸다. (o)

바람이 불다가 우박이 내렸다. (o)

② 뒤 절에 명령문이나 청유문, 감탄문, 의문문이 결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평서문과의 결합이 가장 우세하다.

예) 너 **자다가** 악몽 꾀라.

우리 **자다가** 꿈꾸자.

고양이들도 **자다가** 꿈을 꾸는구나.

넌 밥을 **먹다가** 어디를 가니?

영화가 재미없어서 **보다가** 자 버렸어요.

[확장]

① '-다가'와 '-다가'의 준말인 '-다'는 문어와 구어에 모두 사용될 수 있으며, 구어에서는 '-다'가 더 많이 쓰인다.

예) 숙제를 **하다가** 전화를 받았다.

숙제를 **하다** 전화를 받았어요.

밥을 **먹다가** 텔레비전 뉴스를 보았다.

밥을 **먹다** 텔레비전 뉴스를 봤어요.

② '-다가 -다가 하다'의 형태로 쓰여 두 행위나 상황이 번갈아 일어남을 나타낸다.

예) **오다가 가다가** 하면서 길에서 만나게 되는 고등학교 동창은 참 반갑다.

교통이 복잡해서 버스가 **가다가 서다가** 하였다.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했다.

+ '오다가 가다가 하다, 가다가 서다가 하다'는 앞 절이 단순하게 뒤 절에 의해 중단된 행위라기보다는 '오고 가고 오고 가고' 혹은 '가고 서고 가고 서고'와 같이 앞 절과 뒤 절이 반복적으로 교차되면서 일어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일 경우에는 형용사와의 결합이 제약되고 '오다-가다', '서다-가다'와 같이 주로 대립되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쓰인다. 이 경우에 '-다가'보다 '-다' 형태로 더 자주 쓰인다.

③ '-다(가) -다(가)'의 형태로 쓰여 행위의 계속을 나타낸다. 동일한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와 결합된다.

예) **먹다가 먹다가** 지쳐서 잤어요.

하다가 하다가 다 못해서 그냥 포기했어요.

④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기도 한다.

예) 수지는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앤디는 늦게까지 밖에서 **놀다가** 어머니께 꾸중을 들었다.

+ 자연적, 객관적 인과 관계에 의한 원인이나 이유보다는 주어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발생하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즉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 교통사고를 내려는' 의도나 '늦게까지 밖에서 놀아서 어머니께 꾸중을 들으려는' 의도가 없음이 드러난다.

[유사 문법]

① '-으니까', '-어서', '-다가'

-으니까	-어서	-다가
<p>· 앞 절이 뒤 절의 원인, 이유, 근거를 나타낸다.</p> <p>예) 새 구두를 신고 나가니까 발이 아팠어요. 새 구두를 신고 나가서 발이 아팠어요. 새 구두를 신고 나갔다가 발이 아팠어요.</p> <p>· 문어와 구어에 두루 사용한다.</p> <p>예) 김민준 씨는 노름했으니까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김민준 씨는 노름해서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김민준 씨는 노름하다가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p>		
<p>· 문장의 종결 제약이 없다.</p> <p>예) 배가 고프니까 식사부 터 하세요. (o) 배가 고프니까 식사부</p>	<p>· 뒤 절에 청유문과 명령문이 올 수 없다.</p> <p>예) 시간이 없어서 서두 르세요. (x)</p>	<p>· 뒤 절에 청유문과 명령문이 올 수 있다.</p> <p>예) 그렇게 노름하다가 재 산을 날리세요.</p>

터 합시다. (o)	시간이 없어서 서두 룹시다. (x)	그렇게 노름하다가 재 산을 날립시다.
· 과거를 나타내는 '-었-', 미 래·추측을 나타내는 '-겠-'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예) 꽃을 좋아했으니까 꽃을 선물해요. (o) 꽃을 좋아하겠으니까 꽃 을 선물해요. (o)	· 과거를 나타내는 '-었-', 미 래·추측을 나타내는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꽃을 좋아했어서 꽃을 선 물해요. (x) 꽃을 좋아하겠어서 꽃을 선물해요. (x)	· 과거를 나타내는 '-었-'과 결 합할 수 있으나, 미래·추측을 나타내는 '-겠-'과는 결합하지 못한다. 예) 그 가수는 술을 마시고 운 전했다가 경찰서에 가게 되었어요. (o) 그 가수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겠다고 경찰서에 가 게 될 거예요. (x)
· 주로 주관적인 행동의 동기, 주장이나 추론의 전제, 명령 따위의 근거를 제시하는 이유 를 나타낸다. 예) 배가 고프니까 빨리 집에 돌아가요. 집에서 책만 읽으니까 친 구가 없지.	· 보편적인 결과에 대한 원인 을 밝히는 의미가 강하다. 따 라서 일반적인 자연의 현상이 나 사물의 변화로 발생한 결 과를 설명할 때는 '-어서'를 주로 사용한다. 예)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람들 이 많이 죽었다.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났다.	· 주로 앞 절이 뒤 절의 결과 에 대해 의도하지 않게, 우연 적으로 원인이나 근거가 된 경우에 사용한다. 예) 수지는 욕심을 부리다가 있던 재산도 모두 날렸다. 민수는 친구를 집에 데리 고 왔다가 어머니께 꾸중 을 들었다.

+ '-다가'는 주어가 의도하지 않은 우연적인 인과 관계를 드러낼 때 사용한다. 원인이나 근
거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중에서 사용 측면에서 빈도가 높은 것은 '-으니까'와 '-어서'이다.
'-다가'는 뒤 절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으니까'와 비슷하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刚才, 一开始..., 现在..., 등 시간 명사, 혹은 的时候, 혹은 동사의 중복, 또는
대응 표현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어머니는 책을 **읽으시다가** 갑자기 텔레비전을 켜셨다.

- 妈妈**刚才**还看书来着, 突然又打开电视了.

저는 부산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 我**一开始**住釜山, **现在**搬到首尔了.

엄마는 요리를 **하다가** 손을 베었다.

- 妈妈做饭**的时候**, 把手给划破了.

비가 **내리다가** 그쳤어요.

雨下下就停了.

축구 **선수였다가** 영화배우가 되었다.

从足球选手改行当了演员.

② 용법과 오류

- '-다가'는 앞의 행위나 사건의 중단과 뒤의 행위나 사건으로의 전환을 나타내는데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의 다양한 표현이 있다. 그중에서 동사를 중복하여 표현하는 중국어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비가 오다오다가 그쳤다. (x) (雨下下就停了)

숙제를 하다하다가 잠들어 버렸다. (x) (作业写着写着就睡着了)

텔레비전을 보다보다가 울기 시작했다. (x) (看着看着电视就哭起来了)

- '-다가'는 중국어에서 대조되는 두 개 문장에 대응되는 경우가 많다. '금방전까지.../지금은...'의 형식으로 전환을 나타낸다.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이런 중국어 표현을 그대로 한국어에 적용함으로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예) 저녁이 되니 금방까지 아이들이 놀다 지금 집에 갔다. (x)

그 말을 들으니 동생이 금방 밉다 지금 예쁘다. (x)

아이는 방금 전까지 조용하다 지금 운다. (x)

- '-다가'는 중국어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 때' 혹은 '무엇을 하면서'등 표현에만 대응되기도 한다.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이런 중국어의 표현을 그대로 한국어에 옮겨 옴으로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숙제를 하고 있을 때 전화를 받았다. (x)

나는 요리를 배울 때 손을 베었다.(x)

수지는 한국어 공부를 할 때 그 친구를 만났다. (x)

3.3.12. ‘-다시피’

-다시피[연결어미] 듣는 사람이 지각하고 있는 것과 같음이나 어떤 동작에 유사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 다시피**: (동사, '있다'와 '없다'에 붙어) 앞 절의 내용이 듣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것임을 나타내거나 앞 절의 동작에 가까움을 나타낸다.

[예문]

담화 예문	<p>가: 오늘은 한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영수 교수님을 모시고 물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p> <p>나: 네, 안녕하십니까?</p> <p>가: 최근 과일이나 채소와 같은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으로 보십니까?</p> <p>나: 아시다시피 계속 되는 가뭄으로 농산물 생산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농산물 가격이 오를 전망입니다.</p>
-------	--

	<p>가: 엄마, 아버지 벌써 나가셨어요?</p> <p>나: 아침 일찍 급히 나가셨어.</p> <p>가: 일요일인데 무슨 일이 있으세요?</p> <p>나: 나도 몰라. 거의 뛰다시피 하시면서 나가셨어.</p>
문장 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시다시피 이런 상황입니다. ·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 아까 보셨다시피 영화관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 들으셨다시피 이번 주에는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하기 싫어서 울다시피 하면서 겨우 일을 끝냈어요. · 여자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거의 굶다시피 해요. · 일이 너무 많아서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했어요. · 너무 바빠서 거의 날다시피 해서 출근했어요. · 수지는 게임을 좋아해서 PC방에서 거의 살다시피 해요. · 민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거의 매일 먹다시피 한다. · 텔레비전을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면서 방학을 보낸다.

+ '-다시피'는 듣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거나 지각하고 있는 일에 대해 언급한다. '보시다시피 이런 상황입니다.'는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의미이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는 상대방이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의미이다.

+ '-다시피'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거의 그 동작에 가깝게 함을 의미하는데 '하기 싫어서 울다시피'나 '매일 굶다시피'는 '거의 우는 것처럼, 거의 매일 굶는 것처럼'의 의미를 나타낸다.

[도입]

(1)

교사: 수지 씨, 말하기 시험이 언제 있어요?

학생: 다음 주 월요일에 있어요.

교사: 샤오잉 씨, 시험이 언제 있어요?

학생: 말하기 시험은 월요일에 있고, 쓰기 시험은 화요일에 있어요.

교사: 네, 맞아요. 여러분이 모두 아는 것처럼, 모두 **아시다시피** 다음 주에 시험이 있어요.

(2)

교사: 샤오잉 씨, 요즘 시험공부 많이 하고 있어요?

학생: 매일 새벽까지 공부해요. 그리고 가끔 잠도 자지 않고 공부하기도 했어요.

교사: 그래요? 잠을 많이 못 자는군요.

학생: 네. 그래서 늘 피곤해요.

교사: 여러분, 샤오잉 씨는 잠을 많이 안 자고 새벽까지 공부해요. 밤을 거의 **새우다시피** 하면서 시험공부를 하고 있어요.

+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같이(-는 바와 같이)'의 의미로 시작하여 '앞선 행동과 거의 가깝게 함'의 의미로 순차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 '-는 것과 같이'나 '-는 것처럼' 등으로 환언하여 학습자에게 제시하면서 그 의미를 자연스럽게 유추해 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의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다시피'를 쓴다.

예)	먹-	+ -다시피	→	먹다시피		읽-	+ -다시피	→	읽다시피
	가-	+ -다시피	→	가다시피		보-	+ -다시피	→	보다시피
	있-	+ -다시피	→	있다시피		없-	+ -다시피	→	없다시피
	돕-	+ -다시피	→	돕다시피		만들-	+ -다시피	→	만들다시피

①	받침 o	+ -다시피	먹다시피, 읽다시피, 돕다시피, 만들다시피
	받침 x	+ -다시피	가다시피, 보다시피, 사다시피, 공부하다시피

[문장 구성 정보]

① '-다시피'는 '듣는 사람이 이미 알거나 지각하는 것처럼'의 의미를 드러낼 경우 '알다, 보다, 느끼다, 짐작하다' 등의 동사와 잘 결합하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동의를 구하며 화자 혹은 주어의 판단을 객관화시킨다.

예) **보시다시피** 내년 3월에는 건물이 완성될 예정입니다.
이미 **짐작하셨다시피**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너도 **알다시피** 내가 좀 바쁘잖아.

+ '-다시피'는 모두 문어와 구어에서 사용될 수 있다. 지금의 상태를 나타내면 과거 시제 선언어말어미 '-었-'이 결합하지 않고,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상태만을 나타낼 때는 문맥에 따라 '-었-'이 결합하기도 한다.

② '-다시피'가 '앞선 행동과 거의 가깝게 함'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다시피 하다'의 형태로 사용된다.

예) 수지는 시험공부를 하느라고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한다.
히로는 수영을 좋아해서 수영장에서 먹고 **자다시피** 한다.

+ 다음 예처럼 사실감을 강조하거나 과장하려는 의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 소방관들은 밤새 산불을 끄느라 강물을 모두 **퍼올리다시피** 했다.
쓴 약을 먹은 동생은 **뒹굴다시피** 하면서 몸부림을 쳤다.

[제약 정보]

①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단, '있다, 없다'는 결합할 수 있다.

예) 매일 날씨가 **춥다시피** 해서 살 수가 없다. (x)
학생들이 모두 하나같이 **성실하다시피** 하니까 입학은 걱정하지 마세요. (x)

[유사 문법]

① '-듯이', '-다시피'

-듯이	-다시피
<p>· 앞 절의 내용과 같거나 유사함을 나타낸다. 예)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광고는 10초의 예술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광고는 10초의 예술이다. · 문어와 구어에 두루 사용한다. 예) 사람마다 성격에 차이가 있듯이 추구하는 이상도 모두 달라요. 사람마다 성격에 차이가 있다시피 추구하는 이상도 모두 달라요.</p>	
<p>· 관용적 용법으로 사용되어 비슷한 사실을 비교하여 말할 때 쓰인다. 예) 비가 오듯이 땀이 쏟아진다. (o) 시험을 못 봤다고 아이를 쥐 잡듯이 잡았다. (o)</p>	<p>· 관용적 용법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예) 비가 오다시피 땀이 쏟아진다. (x) 시험을 못 봤다고 아이를 쥐 잡다시피 잡았다. (x)</p>
<p>· 형용사와 결합할 수 있다. 예) 외모가 꽃처럼 예쁘듯이 성격도 역시 고왔다. (o)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이 나라마다 풍습도 다릅니다. (o)</p>	<p>· 형용사와 결합할 수 없다. 예) 외모가 꽃처럼 예쁘다시피 성격도 역시 고왔다. (x)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다시피 나라마다 풍습도 다릅니다. (x)</p>
<p>· '-는/은/을 듯이'로 사용되어(의존 명사) 어떤 상황이 앞 상황과 유사하다고 추측함을 나타낸다. 예) 수지는 기분이 좋은 듯이 노래를 부르면서 학교에 갔다. 아기 고양이는 죽을 듯이 울기 시작했다.</p>	<p>· 추측의 의미가 없다. 예) 고양이는 죽었다시피/죽다시피 하면서 울기 시작했다. (x) 민수는 지금쯤 쉬다시피 하면서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 (x)</p>

+ '-다시피'는 연결어미로만 사용되어 '듣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같음' 혹은 '앞서 말한 내용과 같거나 유사함'을 드러낸다. 반면 '-듯이'는 '땀이 비가 오듯이, 나비가 춤을 추듯이'와 같이 비유적 의미 더 강하며, '-는/은/을' 뒤에 의존명사 '-듯이' 결합된 '-는/은/을 듯이'의 형태로 사용되어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다시피'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지 못한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 如您所..., 几乎.

예) **아시다시피** 난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 如您所见, 我今天什么也做不了.
보시다시피 이런 상황입니다.

- 如您所见, 就是这种现状.
- 들으셨다시피** 이번주에는 약속이 다 잡혀 있습니다.
- 如您所闻, 这周日程已经排满了.
- 요즘 일이 많아서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해요.
- 这几天事很多, 几乎天天通宵.
- 남동생은 거의 PC방에서 **살다시피** 해요.
- 弟弟几乎天天泡在网吧.

② 용법과 오류

- '-다시피'는 '듣는 사람이 이미 알거나 지각하는 것처럼'의 의미를 드러낼 경우 중국어 '如您所...'의 격식에 대응되거나 혹은 이 격식을 떠나서 풀어서 표현한 구어체에 대응되기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대응관계로 인하여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마치 당신이 보아 우린 늘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x)
 마치 당신이 들었어 이번 주에는 하루도 쉴 수 없습니다. (x)
 당신 들었어. 정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x)

- '-다시피'가 '앞선 행동과 거의 가깝게 함'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다시피 하다'의 형태로 사용된다. 중국어는 부사 '几乎'에 대응되어 한국어와 상이한 대응관계를 나타낸다. 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예) 그는 요즘 수영에 빠져서 수영장에서 자다시피다. (x)
 나는 요즘 거의 집에서 논다. (x)
 ('나는 요즘 집에서 놀다시피 한다'로 표현해야 할 경우)
 요즘은 거의 밤을 새우며 공부한다. (x)
 ('요즘은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한다'로 표현해야 할 경우)

3.3.13. '-더니'

-더니[연결어미] 과거에 관찰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해 1) 뒤이은 행위나 상황, 2) 반대되는 사실 3) 결과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더니1**: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과거에 관찰하여 알게 된 사실에 뒤이어 일어난 행위나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 예문	가: 민준 씨, 혹시 영철 씨 어디 갔는지 아세요? 자리에 없네요. 나: 글썄요. 전화를 받더니 사무실 밖으로 나가던데요. 가: 그래요? 어딜 갔지? 나: 회사 근처에 있겠죠. 전화 한 번 해 보세요.
-------	--

	<p>(뉴스)</p> <p>가: 어젯밤 타이어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창고에 있던 타이어가 타며 유독 가스를 내뿜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현재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p> <p>김민준 기자, 불길이 잡혔나요?</p> <p>나: 네, 밤사이 진화 작업으로 불길은 많이 잡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기와 함께 불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p> <p>가: 화재 원인은 밝혀졌나요?</p> <p>나: 최초 목격자에 따르면 '핑'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번쩍이더니 시커먼 연기가 치솟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 폭발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p>
문장 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철이는 냉장고 문을 열더니 물을 꺼내 마셨다. · 남편이 침대에 눅더니 금세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더라고요. ·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더니 비가 쏟아졌다. · 어제 지각하더니 오늘도 또 늦는다고? · 후배가 책을 빌려 가더니 감감무소식이에요. ·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 동생이 집에 들어오더니 인사도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 소형차의 판매가 2012년부터 하락세를 보이더니 올해까지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 할아버지께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시더니 제 손에 쥐어 주셨어요.

+ '-더니1)'의 앞 절에는 말하는 사람이 과거에 직접 관찰한 사실이 나타나고 뒤 절에는 관찰한 사실에 뒤이은 행위나 상황이 나타난다. '영철이는 냉장고 문을 열더니 물을 꺼내 마셨다'는 말하는 사람이 '영철이가 냉장고 문을 여는 것'을 보았고 그 후에 '영철이가 물을 꺼내 마시는' 행위를 했음을 나타낸다. '후배가 책을 빌려 가더니 감감무소식이에요'는 '후배가 책을 빌려 가는 것'을 보았고 그 후에 '후배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도입]

<p>(1)</p> <p>교사: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에 낀 사람을 구출하는 동영상을 보여 준 후에) 이 동영상 보니까 어때요?</p> <p>학생: 감동적이에요. /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등</p> <p>교사: 네, 맞아요. 이 동영상을 못 본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해요. 어떻게 할까요? 우선 한 사람이 지하철을 타다가 다리가 끼어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p>

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학생: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모두 나왔어요. 그리고 지하철을 밀었어요. 그래서 다리가 낀 사람을 구출했어요.
 교사: 네, 사람들이 모두 **나오더니** 지하철을 밀어서 다리가 낀 사람을 구출했어요. 이렇게 '-더니'는 여러분이 과거에 직접 보고 알게 된 일에 대해 순서대로 이야기할 때 사용해요.

+ '-더니'는 말하는 사람이 직접 관찰하여 알게 된 사실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연결어미이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어떤 사건이 담긴 동영상을 보게 하고 이를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더니'를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더니'를 쓴다.

예) 먹- + -더니 → 먹더니	받- + -더니 → 받더니
짓- + -더니 → 짓더니	덥- + -더니 → 덥더니
좋- + -더니 → 좋더니	가- + -더니 → 가더니
보- + -더니 → 보더니	만나- + -더니 → 만나더니
걸- + -더니 → 걸더니	멀- + -더니 → 멀더니

①	받침 ㅇ	+ -더니	먹더니, 받더니, 짓더니, 덥더니, 좋더니, 걸더니, 멀더니
	받침 x	+ -더니	가더니, 보더니, 만나더니

② '이다, 아니다'는 '-더니'를 쓴다. 단,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주로 '명사+-더니'라고 쓴다.

예) 모양이- + -더니 → 모양이더니	느낌이- + -더니 → 기색이더니
야단이- + -더니 → 야단이더니	눈치이- + -더니 → 눈치이더니/눈치더니
난리이- + -더니 → 난리이더니/난리더니	아니- + -더니 → 아니더니

[제약 정보]

①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거나 화제가 동일적이어야 한다.

예) 수지가 가방을 **챙겨들더니** (수지가) 밖으로 나갔다. (o)
 수지가 가방을 **챙겨들더니** 선희가 밖으로 나갔다. (x)
 비가 **내리더니** 눈이 온다. (o)
 비가 **내리더니** 잠이 온다. (x)

+ '비가 내리다'와 '눈이 오다'는 날씨에 관한 것으로 화제가 동일적이므로 '-더니'로 연결할 수 있다. 그러나 '비가 내리다'와 '잠이 오다'는 화제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더니'로 연결할 수 없다.

② 앞 절과 뒤 절의 주어는 대부분 3인칭이며 2인칭은 드물게 나타난다.

- 예)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시더니** (선생님이) 반장을 찾으셨다.
자동차 보닛에서 연기가 **나더니** 자동차가 멈춰버렸어요.
너는 지난번엔 시계를 **잃어버리더니** 이번엔 지갑이니?
+ 1인칭 주어의 행위가 객관화되어 관찰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사람을 관찰하여 한 이야기를 간접인용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1인칭 주어를 '-더니'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예) 꿈속에서 내가 두 손으로 날갯짓을 **하더니** 하늘을 날았어.
내가 술에 취해서 술값을 **계산하더니** 집으로 가더라.
- ③ '-더니'를 사람의 심리나 기분, 감정 또는 감각을 나타내는 형용사와 함께 쓸 때는 1인칭 주어를 사용한다.
- 예)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어지럽더니** 저혈압이래요. (o)
아침에 일어나면 지영이가 **어지럽더니** 저혈압이래요. (x)
아까부터 (내가) **배고프더니** 이제는 속이 쓰려요. (o)
아까부터 현우가 **배고프더니** 이제는 속이 쓰려요. (x)
+ 단, 간접인용문의 경우는 3인칭 주어가 형용사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이는 3인칭 주어가 한 자신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 예) 지영이가 며칠 전부터 목이 **아프더니** 감기에 걸렸다고 해요./걸렸대요. (o)
아까부터 현우가 **배고프더니** 이제는 속이 쓰리다고 해요./쓰리대요. (o)
- ④ 뒤 절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이 올 수 없다.
- 예) 딸기를 **씻더니** 함께 먹읍시다. (x)
히로는 책을 **펴더니** 56쪽을 읽으세요. (x)
이 자료를 **검토하더니** 보고서를 작성하십시오. (x)
- ⑤ 뒤 절에 미래시제가 올 수 없다.
- 예) 마이클이 교실에 **들어오더니** 자리에 앉겠습니다. (x)
마이클이 교실에 **들어오더니** 자리에 앉을 것이다. (x)
마이클이 교실에 **들어오더니** 자리에 앉는다. (o)
마이클이 교실에 **들어오더니** 자리에 앉았다. (o)

[확장]

- ① '-더니'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조사 '마는'을 결합시켜 '-더니마는' 또는 '더니만'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 예) 형이 자기 과자를 다 **먹더니마는/먹더니만** 동생의 과자를 빼앗아 먹었다.
한 청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마는/일어나더니만**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했어요.
아버지는 까만 양복을 꺼내 **입으시더니마는/입으시더니만** 말도 없이 나가셨다.
- ② 간접인용에 '-더니'를 붙여 다른 사람에게서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이나 속담이나 격언처럼 잘 알려진 표현을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예) 이번에는 자신 **있다더니** 정말 해 냈구나.
동아리 때문에 **바쁘다더니** 연애하느라고 바빴던 거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 **준다더니**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어요.
옷이 **날개라더니** 좋은 옷을 입으니 사람이 달라 보인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누가 **받아간다더니** 뽀 빠지게 일하면 뭐 해.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就 ...'.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원장님은 전화를 **받더니** 사무실 밖으로 나갔어요.
- 院长接了电话, 就从办公室出去了.
남편은 침대에 **눕더니** 금세 코를 골기 시작했다.
- 老公一躺在床上就打起呼噜来了.
동생이 집에 **오더니** 인사도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 弟弟回家连个招呼都不打,就回自己房间了.
학생이 책을 **빌려가더니** 감감무소식이예요.
- 学生借走了书以后, 没信儿了.

② 용법과 오류

- 중국어 연동문에 대응되는 표현이다. '-더니1'은 앞 문장의 끝에 위치하여 사용되지만 중국어는 두 번째 문장의 앞자리에 놓인다. 이런 중국어와의 상이한 어순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장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예) 여자 친구는 한참 망설이다 입을 더니 열었다. (x)
아빠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다, 더니 주셨어요 제 손에. (x)
아기는 우유를 실컷 먹고더니 잤다. (x)

- '-더니'와 '이다'의 결합에서 중국어권 학습자는 형태에 익숙하지 못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지난번에는 야단더니... (x)
지난번 그림은 다른 느낌더니... (x)

- '-더니'는 뒤 절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이 올 수 없지만 중국어는 자유롭게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있다.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이런 사용상의 차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사과를 씻더니 함께 먹읍시다. (x)
65쪽을 펴더니 함께 읽어 주세요. (x)

-**더니2**: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과거에 관찰하여 알게 된 사실과 대조적인 사실이나 상황이 있음을 나타낸다.

[예문]

담화 예문	<p>가: 어서 오세요. 오래간만에 오셨네요.</p> <p>나: 네. 잘 지내셨어요?</p> <p>가: 저야 늘 그렇죠. 전에는 자주 오시더니 요즘은 얼굴 뵈기가 힘드네요.</p> <p>나: 네, 요즘 너무 바빠서 수영장에 올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p> <p>가: 수진 씨, 몇 달 전부터 일본어를 배운다면서요? 어때요? 배울 만해요?</p> <p>나: 처음에는 쉬운 것 같더니 배울수록 어렵네요.</p> <p>가: 네. 외국어 배우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합쳐서 6년이나 영어를 배웠어도 간단한 대화도 쉽지 않으니…….</p> <p>나: 그래도 일본어는 한국어하고 문법도 비슷하고 단어도 같은 한자어가 많아서 영어보다는 배우기 쉬워요.</p>
문장 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희는 늘 바지만 입더니 오늘은 치마를 입고 왔어요. · 아이가 이 장난감을 잘 가지고 놀더니 지금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 어제는 덥더니 오늘은 꽤 쌀쌀하네. · 미셀은 매운 음식을 하나도 못 먹더니 이젠 잘 먹네요. · 노래가 끝나는가 싶더니 다시 시작됐다. · 감기가 낫는 듯하더니 또 기침이 나네요. · 한 동안 잠잠하더니 영철이가 또 사고를 쳤구나. · 수지는 중학교 때는 공부를 잘하더니 왜 그렇게 성적이 떨어졌대요? · 동생이 살 빼겠다고 다이어트에 열심이더니 며칠 만에 포기하고 말았어요. · 제 아내는 연애할 때는 말이 별로 없더니 결혼 3년차인 지금은 잔소리가 끝이 없어요.

+ ‘-더니2)’는 앞 절에서 말하는 사람이 과거에 경험하거나 관찰하여 알게 된 사실을 말하고, 그 후에 나타나는 대조적인 사실이나 상황을 뒤 절에서 말한다. ‘선희는 늘 바지만 입더니 오늘은 치마를 입고 왔어요’는 말하는 사람이 ‘선희가 늘 바지만 입는다’는 것을 직접 보고 알았고, 이전과는 대조적으로 ‘오늘은 치마를 입었다’는 것이다.

[도입]

<p>(1)</p> <p>교사: 어제 날씨가 어땠어요?</p> <p>학생: 비가 왔어요.</p> <p>교사: 오늘 날씨는 어때요?</p> <p>학생: 좋아요.</p> <p>교사: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이렇게 ‘-더니’는 앞에 내가 과거에 보고 안 사실이 오고, 그 후에 나타난 반대되는 일을 뒤에 말할 때 써요.</p>

(2)

교사: 선생님이 어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결혼 전에는 아주 날씬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집에만 있었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학생: 살이 찼을 것 같아요.

교사: 네. 결혼 전에는 **날씬하더니** 이제는 살이 많이 찼어
요.

- + 도입(1)과 같이 날씨에 대조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도입에 이용할 수 있다. 가을에는 아침과 저녁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더우므로 이를 '아침에는 쌀쌀하더니 낮에는 덥네요'와 같은 예문으로 도입할 수 있다.

[형태 정보]

'-더니1)'을 참고한다.

[제약 정보]

- ①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거나 화제가 동질적이어야 한다.

예) 동생이 커피를 자주 **마시더니** (동생이) 안 마신다. (o)

동생이 커피를 자주 **마시더니** 형이 안 마신다. (x)

비가 **오더니** 어느새 해가 났다. (o)

비가 **오더니** 어느새 친구가 갔다. (x)

- + '비가 오다'와 '해가 나다'는 날씨에 관한 것으로 화제가 동질적이므로 '-더니'로 연결할 수 있다. 그러나 '비가 오다'와 '친구가 가다'는 화제가 동질적이지 않으므로 '-더니'로 연결할 수 없다.

- ② 앞 절과 뒤 절의 주어는 대부분 3인칭이며 2인칭은 드물게 나타난다.

예) 남자 친구가 연애 초기에는 자주 **전화하더니** (남자 친구가) 요즘에는 잘 안 해요.

앤디 씨가 김치를 안 **먹더니** (앤디 씨가) 이제는 잘 먹어요.

너는 지각 한 번 안 **하더니** (너는) 웬 결석이야?

- + 1인칭 주어의 행위가 객관화되어 관찰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사람을 관찰하여 한 이야기를 간접화법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1인칭 주어를 '-더니'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예) 꿈에서 내가 잠깐 하늘을 **날더니**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

내가 아주 어렸을 때는 물을 **좋아하더니** 7~8 살부터 싫어했대.

- ③ '-더니'를 사람의 심리나 기분, 감정 또는 감각을 나타내는 형용사와 함께 쓸 때는 1인칭 주어를 사용한다.

예) (저는) 처음에는 **기쁘더니** 시간이 갈수록 부담스러워요. (o)

민준이는 처음에는 **기쁘더니** 시간이 갈수록 부담스러워요. (x)

(저는)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가렵더니** 이젠 다 나아서 괜찮아요. (o)

지영이는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가렵더니** 이젠 다 나아서 괜찮아요. (x)
+ 단, 간접인용문의 경우는 3인칭 주어가 형용사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이는 3인칭 주어가 한 자신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 민준이는 처음에는 **기쁘더니** 시간이 갈수록 부담스럽다고 해요./부담스럽대요.
지영이는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가렵더니** 이젠 다 나아서 괜찮다고 해요./괜찮대요.

④ 뒤 절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이 올 수 없다.

예) **피곤해 하더니** 힘냅시다. (x)
아키라는 책을 **펴더니** 덮으세요. (x)
어머니는 텔레비전을 **켜더니** 끄십시오. (x)

⑤ 뒤 절에 미래시제가 올 수 없다.

예) 앤디 씨가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다시 나가겠습니다. (x)
앤디 씨가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다시 나갈 것이다. (x)
앤디 씨가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다시 나간다. (o)
앤디 씨가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다시 나갔다. (o)

[확장]

① '-더니'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조사 '마는'을 결합시켜 '-더니마는' 또는 '더니만'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예) 밤새 눈이 **오더니마는/오더니만** 다 녹아 버렸다.
양 팀의 선수들이 유니폼을 **벗더니마는/벗더니만** 서로 바꿔 입었다.
형은 공부도 운동도 **잘하더니마는/잘하더니만** 동생은 시원치 않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대응 표현 없음.

예) 동생은 전에는 매운 음식을 하나도 못 **먹더니** 이젠 잘 먹네요.
- 弟弟以前一点辣的都吃不了, 现在挺能吃的.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 昨天下雨, 今天天气挺好的.
결혼 전에는 **날씬하더니** 이제는 살이 많이 찼어요.
- 结婚之前挺瘦的, 现在胖多了.

② 용법과 오류

- 중국어에는 '-더니2'에 대응되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중국어의 영향으로 '-더니2'를 사용하지 않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전에는 자주 오다 요즘은 얼굴 못 본다. (x)
(‘전에는 자주 오더니 요즘은 얼굴을 보기 힘들다’로 표현해야 할 경우)
처음에는 쉬운 것 같다 배울수록 어렵다. (x)
(‘처음에는 쉬운 것 같더니 배울수록 어렵다’로 표현해야 할 경우)

오전에는 덩다 오후에는 춥다. (x)

(‘오전에는 덩더니 오후에는 춥다’로 표현해야 할 경우)

- ‘-더니’와 ‘이다’의 결합에서 중국어권 학습자는 형태에 익숙하지 못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지난번에는 야단더니 이번에는 괜찮다. (x)

지난번 그림은 동양화 느낌더니 이번 그림은 또 다르네. (x)

- ‘-더니2’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조사 ‘마는’을 결합시킨다. 중국어에는 ‘-더니2’에 대응되는 표현이 없을뿐더러 더욱이 강조하는 표현 ‘마는’도 없다.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많이 혼동을 겪을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다.

예) 밤새 눈이 왔다마는 다음날 다 녹아 버렸다. (x)

(‘밤새 눈이 오더니마는 다음날 다 녹아 버렸다’로 표현해야 할 경우)

어제 연습할 때는 잘 하다마는더니 오늘은 시원치 않네. (x)

- 더니3**: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과거에 관찰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말할 때 사용한다.

[예문]

<p>담화 예문</p>	<p>가: 수지야, 취직 축하한다. 나: 감사합니다, 할머니. 가: 여행사에 취직했다면서? 수지가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더니 여행사에 취직했구나. 나: 네,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도 여행 보내드릴게요.</p> <p>가: 영철 씨, 어디 갔어요? 나: 배 아프다고 약 사러 갔어요. 가: 아까 영철 씨가 밥을 급하게 먹더니 체했나 보네요. 많이 아프면 오늘은 조퇴하라고 하세요. 나: 네, 알겠습니다.</p>
<p>문장 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완은 시간 날 때마다 그 노래를 듣더니 가사를 다 외웠어요. · 민준이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놀더니 학교에서 잘렸어요. · 그 선수는 날마다 꾸준히 연습하더니 좋은 기록을 냈어요. · 분티앙이 밤을 새서 보고서를 쓰더니 지친 것 같아요. · 언니가 커피를 많이 마시더니 잠이 안 오나 봐요. · 아이들이 폭력적인 영화를 자주 보더니 성격이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를 하더니 양성 종양이래요. · 후배가 이 회사 저 회사 면접을 보러 다니더니 다 떨어졌대요. · 그녀는 한눈팔지 않고 한 우물만 파더니 결국 성공했구나.

	· 영수가 그렇게 담배를 피워대더니 결국 병이 나고 말았구나.
--	---

- + ‘-더니3)’는 앞 절에서 말하는 사람이 과거에 경험하거나 관찰하여 알게 된 사실을 말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뒤 절에서 말할 때 사용한다.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더니 여행사에 취직했구나’는 말하는 사람이 ‘수지가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한다’는 사실을 과거에 관찰을 통해 알았고 그 결과로 현재 ‘여행사에 취직을 했다’는 것이다. ‘밥을 급하게 먹더니 체했나 보네요’는 말하는 사람이 ‘영철이 밥을 급하게 먹는’ 것을 보았고, ‘체했다’는 결과를 추측한 것이다.

[도입]

(1)
교사: 여러분 동창회에 가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학생: 네, 있어요.
교사: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하던 친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학생: 의사가 되었어요./ 학생을 가르쳐요. 등
교사: 네, 그 친구는 공부를 잘 하더니 의사가 되었어요./ 공부를 잘 하더니 선생님이 되었어요. 이렇게 ‘-더니’는 앞에 내가 과거에 보고 안 사실이 오고, 그 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말할 때 써요.

[형태 정보]

‘-더니1)’을 참고한다.

[제약 정보]

- ①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거나 화제가 동질적이어야 한다.

예) 동생이 군대에 갔다 **오더니** (동생이) 남자다워졌다. (o)
 동생이 군대에 갔다 **오더니** 형이 남자다워졌다. (x)
 비가 **오더니** 기온이 떨어졌다. (o)
 비가 **오더니** 성적이 떨어졌다. (x)

- + ‘비가 오다’와 ‘기온이 떨어지다’는 날씨에 관한 것으로 화제가 동질적이므로 ‘-더니’로 연결할 수 있다. 그러나 ‘비가 오다’와 ‘성적이 떨어지다’는 화제가 동질적이지 않으므로 ‘-더니’로 연결할 수 없다.

- ② 앞 절과 뒤 절의 주어는 대부분 3인칭이며 2인칭은 드물게 나타난다.

예) 미셀이 열심히 **운동하더니** 날씬해졌어요.
 민준이가 공부는 안 하고 음악만 **들더니** 음악평론가가 되었어요.
 너는 지각 한 번 안 **하더니** (너는) 역시 개근상을 받는구나.

- + 1인칭 주어의 행위가 객관화되어 관찰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사람을 관찰하여 한 이야기를 간접화법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1인칭 주어를 '-더니'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예) 꿈에서 내가 귀신한테 **쫓기더니** 잡히고 말았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좋아하더니** 수의사가 되었다고 대견해 하시더라.

- ③ '-더니'를 사람의 심리나 기분, 감정 또는 감각을 나타내는 형용사와 함께 쓸 때는 1인칭 주어를 사용한다.

예) (저는) **불안하더니**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o)

마이클 씨는 **불안하더니**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x)

(저는) 자꾸 허리가 **아프더니** 디스크래요. (o)

마이클 씨는 자꾸 허리가 **아프더니** 디스크래요. (x)

- ④ 뒤 절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이 올 수 없다.

예) 날씨가 **좋더니** 여행을 갑시다. (x)

배탈이 **나더니** 병원에 가세요. (x)

비행기를 **타더니** 핸드폰을 끄십시오. (x)

- ⑤ 뒤 절에 미래시제가 올 수 없다.

예) 앤디 씨가 한국 사람과 **결혼하더니** 한국말을 배우겠다. (x)

앤디 씨가 한국 사람과 **결혼하더니** 한국말을 배울 것이다. (x)

앤디 씨가 한국 사람과 **결혼하더니** 한국말을 배운다. (o)

앤디 씨가 한국 사람과 **결혼하더니** 한국말을 배웠다. (o)

[확장]

- ① '-더니'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조사 '마는'을 결합시켜 '-더니마는' 또는 '더니만'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예) 현우는 코피가 터지도록 **공부하더니마는/공부하더니만** 전교 1등을 했다.

동생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더니마는/먹더니만** 살이 확 찼어요.

아버지는 가족들이 말려도 안 **들더니마는/들더니만** 결국 주식으로 재산을 다 날려 버렸어요.

[유사 문법]

- ① '-더니3)', '-어서2)'

-더니3)	-어서2)
·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에 대한 이유나 원인, 근거를 나타낸다.	
· 앞 절에 주로 3인칭 주어가 나타난다.	· 주어의 인칭 제약이 거의 없다.
예) 동생이 날짜 지난 우유를 먹더니 배탈이 났어요. (o)	예) 동생이 날짜 지난 우유를 먹어서 배탈이 났어요. (o)

<p>제가 낱 짜 지난 우유를 먹더니 배탈이 났어요. (x)</p> <p>딸이 그 노래를 여러 번 들더니 가사를 다 외웠어요. (o)</p> <p>제가 그 노래를 여러 번 들더니 가사를 다 외웠어요. (x)</p> <p>네가 늦더니 영화를 못 봤잖아. (x)</p>	<p>제가 낱 짜 지난 우유를 먹어서 배탈이 났어요. (o)</p> <p>딸이 그 노래를 여러 번 들어서 가사를 다 외웠어요. (o)</p> <p>제가 그 노래를 여러 번 들어서 가사를 다 외웠어요. (o)</p> <p>네가 늦어서 영화를 못 봤잖아. (o)</p>
<p>· '미안하다, 죄송하다, 반갑다, 고맙다, 감사하다' 등과 어울려 자주 쓰이는 인사말처럼 관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p> <p>예) 만나더니 반가워요. (x)</p> <p>도와주시더니 감사합니다. (x)</p>	<p>· '미안하다, 죄송하다, 반갑다, 고맙다, 감사하다' 등과 어울려 자주 쓰이는 인사말처럼 관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p> <p>예) 만나서 반가워요. (o)</p> <p>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o)</p>

② '-더니3)', '-으므로'

-더니3)	-으므로
-------	------

·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에 대한 이유나 원인, 근거를 나타낸다.

<p>· 격식적인 상황이나 글보다는 일반적인 대화에서 많이 사용한다.</p> <p>예) 김 과장님이 결혼을 하시더니 일찍 집에 들어가시네요.</p> <p>동생이 몇 달 동안 저녁을 끓더니 살이 많이 빠졌어요.</p>	<p>· 일반적인 대화보다는 주로 격식적인 상황이나 글에서 많이 사용한다.</p> <p>예) 성적이 우수하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p> <p>그 친구는 열심히 노력하므로 곧 한국어 실력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p>· 앞 절에 주로 3인칭 주어가 나타난다.</p> <p>예) 동생이 낱 짜 지난 우유를 먹더니 배탈이 났어요. (o)</p> <p>제가 낱 짜 지난 우유를 먹더니 배탈이 났어요. (x)</p> <p>딸이 그 노래를 여러 번 들더니 가사를 다 외웠어요. (o)</p> <p>제가 그 노래를 여러 번 들더니 가사를 다 외웠어요. (x)</p> <p>네가 늦더니 영화를 볼 수 없다. (x)</p>	<p>· 주어의 인칭 제약이 거의 없다.</p> <p>예) 동생이 낱 짜 지난 우유를 먹었으므로 배탈이 났다. (o)</p> <p>제가 낱 짜 지난 우유를 먹었으므로 배탈이 났다. (o)</p> <p>딸이 그 노래를 여러 번 들었으므로 가사를 다 외웠다. (o)</p> <p>제가 그 노래를 여러 번 들었으므로 가사를 다 외웠다. (o)</p> <p>네가 늦었으므로 영화를 볼 수 없다. (o)</p>
<p>· 뒤 절에 미래시제가 올 수 없다.</p> <p>예) 영수는 성적이 우수하더니 좋은 학교</p>	<p>· 뒤 절에 미래시제가 올 수 있다.</p> <p>예) 영수는 성적이 우수하므로 좋은 학교에</p>

에 입학했습니다. (o) 영수는 성적이 우수하더니 좋은 학교 에 입학할 겁니다. (x)	입학했습니다. (o) 영수는 성적이 우수하므로 좋은 학교에 입학할 겁니다. (o)
---	--

③ '-더니3)', '-으니'

-더니3)	-으니
-------	-----

·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에 대한 이유나 원인, 근거를 나타낸다.

· 앞 절에 주로 3인칭 주어가 나타난다. 예) 동생이 낱자 지난 우유를 먹더니 배 탈이 났죠. (o) 제가 낱자 지난 우유를 먹더니 배탈 이 났죠. (x) 딸이 그 노래를 여러 번 듣더니 가사 를 다 외웠죠. (o) 제가 그 노래를 여러 번 듣더니 가사 를 다 외웠죠. (x) 네가 늦더니 영화를 못 봤죠. (x)	· 주어의 인칭 제약이 거의 없다. 예) 동생이 낱자 지난 우유를 먹었으니 배탈이 났죠. (o) 제가 낱자 지난 우유를 먹었으니 배 탈이 났죠. (o) 딸이 여러 번 그 노래를 들었으니 가 사를 다 외웠죠. (o) 제가 여러 번 그 노래를 들었으니 가 사를 다 외웠죠. (o) 네가 늦었으니 영화를 못 봤죠. (o)
· 뒤 절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이 올 수 없다. 예) 어제 술을 많이 마시더니 머리가 아 프죠? (o) 어제 술을 많이 마시더니 물을 많이 드세요. (x) 어제 술을 많이 마시더니 해장국 먹 으러 갑시다. (x)	· 뒤 절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이 올 수 있다. 예) 어제 술을 많이 마셨으니 머리가 아 프죠? (o) 어제 술을 많이 마셨으니 물을 많이 드세요. (o) 어제 술을 많이 마셨으니 해장국 먹 으러 갑시다. (o)
· 뒤 절에 미래시제가 올 수 없다. 예) 영수는 성적이 우수하더니 좋은 학교 에 입학했습니다. (o) 영수는 성적이 우수하더니 좋은 학교 에 입학할 겁니다. (x)	· 뒤 절에 미래시제가 올 수 있다. 예) 영수는 성적이 우수하니 좋은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o) 영수는 성적이 우수하니 좋은 학교에 입학할 겁니다. (o)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 ① 대응 표현: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 '... 终于', '... 后来', '... 以后'.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열심히 **공부하더니** 결국 성공했구나.
- 如此下功夫学习, 终于成功了.
친구가 한국인과 **결혼하더니** 한국말을 배운다.

- 朋友跟韩国人结了婚, 后来也学会了韩国语.

동생이 군대에 갔다 **오더니** 남자다워졌다.

- 弟弟参军回来以后, 变得很男人了.

자꾸 배가 **아프더니** 맹장염이래요.

- 老是肚子疼, 原来是阑尾犯了.

② 용법과 오류

- 중국어에는 '-더니3'에 대응되는 표현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중국어의 영향으로 '-더니3'를 사용하지 않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자꾸 허리가 아파 디스크래요. (x)

꿈에서 나는 귀신한테 쫓기 잡히고 말았다. (x)

불안해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x)

(‘불안하더니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로 표현해야 할 경우)

- ‘-더니’와 ‘이다’의 결합에서 중국어권 학습자는 형태에 익숙하지 못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시험 성적 때문에 야단더니 끝내 사고를 치고 말았다. (x)

지난번 만났을 때 아주 피곤한 기색더니 결국은 과로로 쓰러지고 말았다. (x)

3.3.14. ‘-더라도’

-더라도[연결어미] 앞 절을 인정을 하거나 가정을 해도 뒤 절은 그 기대에 어긋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 더라도**: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앞 절의 내용을 인정하거나 가정한다고 해도 앞 절의 내용으로 기대하는 바가 뒤 절에서 부정됨을 나타낸다.

[예문]

<p>담화 예문</p>	<p>가: 내일 문화 체험 가는 거 다들 알고 있죠? 나: 네. 그런데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가: 일기예보에서 내일은 맑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혹시 비가 오더라도 갈 거예요. 나: 네, 알겠습니다.</p> <p>가: 꾸영 씨, 왜 숙제 안 해 왔어요? 나: 어제 친구가 한국에 와서 숙제를 못 했어요. 가: 친구가 왔더라도 숙제는 해야죠. 나: 네, 죄송합니다.</p>
<p>문장 예문</p>	<p>· 무슨 일이 있더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폭력은 안 된다. · 바쁘더라도 식사는 꼭 챙겨 드세요. · 집 앞 슈퍼에 가더라도 화장을 꼭 하고 나가요. ·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 결혼식에는 안 가더라도 초상집에는 가야 한다. · 잠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피로는 어느 정도 풀린다. · 주연은 아니더라도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 주었다. · 당뇨병은 완치는 어렵더라도 적절한 식이요법과 약물요법으로 쉽게 조절할 수 있다. · 비록 지금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사람이더라도 실패를 반전의 기회로 삼아 더 크게 성공하는 경우도 많다.
--	---

+ ‘-더라도’는 앞 절의 내용을 인정하거나 가정한다고 해도 앞 절의 내용으로 기대하는 바가 뒤 절에서 그 기대가 부정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이다. 즉 첫 번째 담화 예문은 내일 비가 온다고 가정을 한다고 해도 문화 체험을 간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담화 예문은 꾸영의 친구가 한국에 왔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숙제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입]

(1)	<p>교사: 여러분 한국어 공부가 어때요? 학생: 재미있지만 어려워요. 교사: 그럼 어려우니까 포기할 거예요? 학생: 아니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교사: 그래요. 여러분은 한국어 공부가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p>
(2)	<p>교사: 여러분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부모님께 소개했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학생: 부모님을 설득해야죠. 교사: 그래도 계속 반대하시면요? 학생: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결혼할 것 같아요. 교사: 네. 분티안 씨는 부모님께서 결혼을 반대하시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p>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더라도’를 쓴다.

예) 먹- + -더라도 → 먹더라도	말- + -더라도 → 말더라도
짓- + -더라도 → 짓더라도	무겁- + -더라도 → 무겁더라도
보- + -더라도 → 보더라도	타- + -더라도 → 타더라도

만나- + -더라도 → 만나더라도

예쁘- + -더라도 → 예쁘더라도

①	받침 o	+ -더라도	먹더라도, 멀더라도, 짓더라도, 무겁더라도
	받침 x	+ -더라도	보더라도, 타더라도, 만나더라도, 예쁘더라도

- ② '이다, 아니다'는 '-더라도'를 쓴다. 단,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주로 '명사+-더라도'라고 쓴다.

예) 책이- + -더라도 → 책이더라도 선생님이- + -더라고 → 선생님이더라도
 경우이- + -더라도 → 경우이더라도/경우더라도
 의사이- + -더라도 → 의사이더라도/의사더라도
 아니- + -더라도 → 아니더라도

[문장 구성 정보]

- ① 흔히 부사 '아무리', '비록'과 함께 쓰여 '-더라도'의 의미를 강조한다.

예) 아무리 **힘들더라도** 끝까지 해 낼 거예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비록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얻는 것이 있다.

[유사 문법]

- ① '-더라도', '-어도'

-더라도	-어도
------	-----

· 앞의 내용에 대한 기대가 어긋난다는 뜻을 나타낸다.

예) 비가 **오더라도** 소풍을 갈 거예요.

비가 **와도** 소풍을 갈 거예요.

· '-어도'에 비해 더 가정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 예) 비가 왔더라도 소풍을 갔을 것이다. (o) 비가 왔더라도 소풍은 갔다. (x)	· '-더라도'에 비해 덜 가정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높다. 예) 비가 왔어도 소풍을 갔을 것이다. (o) 비가 왔어도 소풍은 갔다. (o)
--	---

+ '비가 왔더라도 소풍을 갔을 것이다', '비가 왔어도 소풍을 갔을 것이다'는 비가 안 와서 소풍을 갔지만 혹시 비가 왔다고 가정을 해도 소풍을 갔을 것이라는 공통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더라도'는 가정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실현된 것이 확실한 사건에는 쓰지 않는다.

- ② '-더라도', '-을지라도'

-더라도	-을지라도
------	-------

· 앞의 내용에 대한 기대가 어긋난다는 뜻을 나타낸다.

· ‘-을지라도’에 비해 덜 가정적이다. 예) 실패로 끝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에게 억만금이 있더라도 자식에게는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것이다.	· ‘-더라도’에 비해 더 가정적이며 화자의 강한 의지, 결심을 나타낸다. 예) 실패로 끝날지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에게 억만금이 있을지라도 자식에게는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것이다.
---	---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 即使 ... 也, ...也

- 예) 주연이 **아니더라도** 좋은 연기를 보여 줘야 한다.
- 即使不是主演, 也要尽力演好.
결혼식에는 **안 가더라도** 초상집에는 가야 된다.
- 即使不去参加婚礼, 也要参加葬礼.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폭력은 안 된다.
- 再生气, 也不能使用暴力.
비가 **오더라도** 소풍을 갔을 것이다.
- 下雨也会去郊游的.

② 용법과 오류

- ‘-더라도’는 중국어 접속사에 대응된다. 중국어 접속사는 앞 절의 앞자리와 뒤 절의 앞자리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중국어 접속사의 위치에 영향을 받아 ‘-더라도’를 뒤 절에 사용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설령 아무리 바쁘고 식사는 꼭 드시더라도. (x)
비가 오도 놀러도 가다. (x)

- 접속사 ‘即使 ... 也’ 중 앞 절에 놓이는 접속사 ‘即使’가 생략되고 ‘也’만 뒤 절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많은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也’를 ‘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더라도’와 혼동하여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예) 공부가 어렵다도 포기하지 말아요. (x)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다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요. (x)
텔레비전을 보다도 너무 늦게까지 보지 말아요. (x)

- 동사나 형용사와 결합할 때 형태 정보가 익숙하지 않아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누가 아무리 반대해더라도 나는 나의 꿈을 포기 하지 않겠다. (x)
아무리 집을 짓더라도 이렇게 소음이 크고 서야 되겠어요? (x)
다른 사람을 도와더라도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지. (x)

3.3.15. ‘-던 데1’

-던데1[연결어미] 뒤 **결과** 관련하여 말하는 사람이 **과거에** 경험하거나 관찰한 사실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던데1: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와 상관있는 과거에 경험하거나 관찰한 사실을 나타낸다. 주로 구어에서 사용한다.

[예문]

담화 예문	<p>가: 오, 추워. 날씨가 너무 춥네요. 이러다 얼어 죽겠어요.</p> <p>나: 그러게요. 일기 예보에서 이번 주말까지 강추위가 지속될 거라고 하네요.</p> <p>가: 아이고, 그래요? 더 두꺼운 코트를 사야겠어요.</p> <p>나: 요즘 백화점에서 세일을 많이 하던데 이번에 한 번 사세요.</p> <p>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물건을 사면 싸다면서?</p> <p>나: 응. 물건을 받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가격은 훨씬 싸.</p> <p>가: 주문하기 어렵지 않아? 난 영어 잘 못해.</p> <p>나: 별로 어렵지 않던데 내가 알려 줄게.</p>
문장 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즘 지각이 잦던데 무슨 일 있어요? · 좋은 사람인 것 같던데 한번 만나 보는 게 어때요? · 영철 씨는 사람은 아주 좋던데 일처리는 좀 꼼꼼하지 못해요. · 불고기가 정말 맛있던데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 다른 팀은 점심 먹으러 가던데 우리도 식사하고 합시다. · 요즘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감기 조심하세요. · 지난번에 보니까 중국어를 잘하시던데 중국어를 전공하셨어요? ·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던데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 그 식당 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던데 정말 맛있나 봐요. · 저는 그 영화 별로던데 요즘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 '-던데1' 는 과거 회상을 나타내는 '-더'와 연결 어미 '-는데'가 결합한 형태로 뒤 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말하는 사람이 과거에 경험하거나 관찰한 사실을 말할 때 사용하는 연결어미이다. 주로 뒤 절에는 질문이나 제안, 설명 등이 온다. '요즘 지각이 잦던데 무슨 일 있어요?'는 무슨 일이 있냐는 질문에 관련하여 말하는 이가 과거에 관찰하여 알게 된 사실 즉, '지각이 잦다'는 것을 말한다. '좋은 사람인 것 같던데 한번 만나 보는 게 어때요?'는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에 관련하여 말하는 이가 과거에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 즉, '좋은 사람인 것 같다'는 것을 말한다.

[도입]

(1)

교사: 여러분, 영화 좋아해요? 요즘 본 영화 중에서 재미있었던 영화가 뭐예요?

학생: '스파이더맨'이 재미있었어요.

교사: 선생님이 주말에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무슨 영화가 좋을까요?

학생: '스파이더맨'이 재미있어요. '스파이더맨'을 보세요.

교사: 이럴 때 마이클 씨가 "스파이더맨이 **재미있던데** 스파이더맨을 보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던데'는 자신이 경험해서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제안, 명령, 질문, 설명할 때 사용해요.

(2)

(두 남녀 히로와 미도리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한 사람이 보고 있는 그림을 보여 준다.)

교사: 여기 히로 씨와 미도리 씨가 있어요. 두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학생: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어요.

교사: 선생님이 어제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다음날 히로 씨에게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할까요?

학생: 히로 씨, 어제 미도리 씨하고 손 잡고 걸어가는 것을 봤어요. 미도리 씨하고 사귀어요?

교사: 이럴 때 "어제 히로 씨가 미도리 씨하고 손 잡고 **걸어가던데** 미도리 씨하고 사귀어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던데'는 자신이 관찰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질문, 제안, 명령, 설명할 때 사용해요.

+ '-던데1'을 도입하기 위해 말하는 이가 직접 경험하거나 관찰한 사실을 근거로 제안이나 명령, 질문 등을 하는 상황을 설정한다. '-던데1'은 말하는 이가 직접 경험하거나 관찰한 사실을 근거로 이야기할 때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던데'를 쓴다.

예)	먹-	+ -던데	→	먹던데	받-	+ -던데	→	받던데
	걸-	+ -던데	→	걸던데	짓-	+ -던데	→	짓던데
	덥-	+ -던데	→	덥던데	좋-	+ -던데	→	좋던데
	가-	+ -던데	→	가던데	보-	+ -던데	→	보던데
	예쁘-	+ -던데	→	예쁘던데	모르-	+ -던데	→	모르던데

①	받침 o	+ -던데	먹던데, 받던데, 걸던데, 짓던데, 덥던데, 좋던데
	받침 x	+ -던데	가던데, 보던데, 예쁘던데, 모르던데

- ② '이다, 아니다'는 '-던데'를 쓴다. 단,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주로 '명사+-던데'라고 쓴다.

예) 모양이- + -던데 → 모양이던데 기색이- + -던데 → 기색이던데
야단이- + -던데 → 야단이던데 눈치이- + -던데 → 눈치이던데/눈치던데
난리- + -던데 → 난리이던데/난리던데 아니- + -던데 → 아니던데

[문장 구성 정보]

- ① '-던데1'은 완료를 나타내는 '-었-'과 결합하여 과거에 어떤 사건을 경험하거나 관찰할 당시 이미 그 사건이 끝났음을 나타낸다.

예) 다른 직원들은 다들 **퇴근했던데** 김 대리는 퇴근 안 해?

분당까지 지하철이 **뚫렸던데** 지하철로 갑시다.

밤새 눈이 많이 **내렸던데**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 + 다른 직원들이 이미 퇴근해서 없는 것을 봤을 때 '다른 직원들은 다들 **퇴근했던데** 김 대리는 퇴근 안 해?'라고 말한다. 다른 직원들이 퇴근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다른 직원들은 다들 **퇴근하던데** 김 대리는 퇴근 안 해?'라고 말해야 한다.

[제약 정보]

- ① '-던데1'를 사람의 심리나 기분, 감정 또는 감각을 나타내는 형용사와 함께 쓸 때는 1인칭 주어를 사용해야 한다.

예) 나는 국수를 먹으면 금방 **배고프던데** 너는 안 그래?

조카가 생기니까 저는 정말 **기쁘던데** 제 동생은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말만 들어도 남인 나도 **섭섭하던데** 가족들은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확장]

- ① 간접 인용에 '-던데1'를 붙여 말하는 이가 과거에 들어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한다.

예) 모레가 수지 씨 **생일이라고 하던데/생일이라던데** 선물 샀어요?

내일부터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던데/추워진다던데** 감기 조심하세요.

영수 씨가 주말에 집들이한다고 **오라고 하던데/오라던데** 같이 가요.

3.3.16. '-도록'

-도록[연결어미] 1) 행위에 대한 목적, 2) 동작이나 작용의 정도나 한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도록1): (동사와 일부 형용사에 붙어) 뒤에 나오는 행위에 대한 목적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문]

<p>담화 예문</p>	<p>(방송 인터뷰에서)</p> <p>가: 올림픽에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p> <p>나: 어렸을 때부터 올림픽에 나가는 게 꿈이었는데 꿈을 이루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p> <p>가: 내일부터 경기를 치를 텐데 각오 한 말씀해 주세요.</p> <p>나: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가: 요즘 건망증이 심해서 걱정이예요.</p> <p>나: 무슨 일 있었어요?</p> <p>가: 어제가 어머니 생신이었는데 까맣게 잊어버렸지 뭐예요.</p> <p>나: 어머니가 서운해 하셨겠네요. 그래서 저는 가족의 생일을 잊지 않도록 달력에 표시를 해 놔요.</p> <p>가: 저도 그래야겠어요.</p>
<p>문장 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도록 칭찬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 소화가 잘 되도록 익혀 먹는 것이 좋아요. · 구급차가 지나가도록 길을 비켜 주었다. ·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 노약자와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육교에 승강기를 설치했다. · 실수하지 않도록 꾸준히 연습해야 해요. · 중요한 회의니까 늦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 병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술과 담배는 삼가세요. · 유리로 만든 제품이니까 깨지지 않도록 조심히 다루세요. ·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었다.

+ '-도록1)'은 동사와 일부 형용사에 붙어 뒤에 나오는 문장의 행위에 대한 목적을 나타낸다.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은 최선을 다하는 목적을, '가족의 생일을 잊지 않도록'은 달력에 표시하는 목적을 나타낸다.

[도입]

<p>(1)</p> <p>교사: 여러분이 음식을 해서 먹었는데 많이 남았어요. 남은 음식을 어떻게 해요?</p> <p>학생: 냉장고에 넣어요.</p> <p>교사: 왜 냉장고에 넣어요?</p> <p>학생: 냉장고에 안 넣으면 음식이 상해요.</p> <p>교사: 네, 맞아요.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남은 음식은 냉장고에 넣어야 해요. 목적을 말할 때 '-도록'을 써요.</p> <p>(2)</p> <p>교사: 아이들이 약 먹는 것을 좋아할까요?</p>

학생: 아니요.
 교사: 왜 싫어할 것 같아요?
 학생: 약이 써서요.
 교사: 맞아요. 딸기 맛이 나는 감기약을 주면 아이들이 먹을까요?
 학생: 네, 아이들이 잘 먹을 거예요.
 교사: 네,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딸기 맛이 나는 감기약을 만들었어요.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도록'을 쓴다.

예) 먹- + -도록 → 먹도록	받- + -도록 → 받도록
건- + -도록 → 건도록	돕- + -도록 → 돕도록
짓- + -도록 → 짓도록	낱- + -도록 → 낱도록
가- + -도록 → 가도록	보- + -도록 → 보도록
만나- + -도록 → 만나도록	모르- + -도록 → 모르도록

①	받침 〇	+ -도록	먹도록, 받도록, 건도록, 돕도록, 짓도록, 낱도록
	받침 ×	+ -도록	가도록, 보도록, 만나도록, 모르도록

[제약 정보]

① 일반적으로 형용사와는 결합하지 않으나 일부 형용사와는 결합할 수 있다.

예) 펭귄은 영하의 날씨에도 생존이 **가능하도록** 진화하였다. (o)
 이 에어컨은 자연 바람에 **가깝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o)
 신부가 **예쁘도록** 화장을 곱게 했다. (x)
 음식이 **맛있도록** 여러 가지 양념을 넣었다. (x)

② 과거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나무가 잘 **자라도록** 비료를 줘요. (o)
 나무가 잘 **자랐도록** 비료를 줬어요. (x)
 나무가 잘 **자라겠도록** 비료를 줄 거예요. (x)

[확장]

① '-도록' 뒤에 '은', '만' '까지' 따위의 보조사가 올 수 있다.

예) 가족의 생사만이라도 알 수 **있도록**은 해야 한다.
 화초가 겨울에 얼어 죽지 **않도록**만 주의해 주세요.

② '-도록' 다음에 주로 '하다', '만들다'와 같은 서술어가 붙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거나 시킴을 나타내기도 한다.

예)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작문을 하나씩 써 **오도록 하였다**.
건강을 위해 짬 음식은 **삼가도록 하세요**.
그녀는 그가 **질투하도록 만들었다**.

③ 뒤 절을 생략하여 단정적으로 명령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쓰이기도 한다.

예) 조용히 **자습하도록**.
30분 간 휴식 후 다시 이 자리에 **모이도록**.
이상 상황이 발생할 시 바로 **보고하도록**.
+ '-어라'보다는 단호한 느낌이 있으며 군대나 학교 등과 같이 단정적인 명령이 전달되는 집단에서 주로 사용한다.

[유사 문법]

① '-도록 하다', '-게 하다'

-도록 하다	-게 하다
<p>·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거나 시킴을 나타낸다.</p> <p>예) 선생님이 학생을 자리에 앉도록 하였다. 선생님이 학생을 자리에 앉게 하였다.</p>	
<p>· 시킴을 당하는 사람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아도 사동의 의미가 사라진다.</p> <p>예) 제가 학생을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피사동자인 학생이 생략되면 주어진 '제'가 스스로 '앉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게 되며 따라서 사동의 의미가 사라진다)</p>	<p>· 시킴을 당하는 사람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아도 사동의 의미가 유지된다. 이때 시킴을 당하는 사람은 문맥상 생략된 것으로 이해된다.</p> <p>예) 제가 학생을 자리에 앉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게 하겠습니다. (피사동자인 학생이 생략되어도 주어진 '제'가 누군가를 앉게 만든다는 의미를 갖는다.)</p>
<p>· 듣는 사람에게 어떠한 행동을 직접 시키는 경우에도 사용한다.</p> <p>예) 식사 후에 약을 먹도록 해라. (듣는 사람 스스로가 식사 후에 약을 먹어야 함을 의미한다.)</p>	<p>· 듣는 사람에게 어떠한 행동을 직접 시키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p> <p>예) 식사 후에 약을 먹게 해라. (듣는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식사 후 약을 먹게 해야 함을 의미한다.)</p>

-도록2) 뒤에 나오는 동작이나 작용의 정도나 한계를 나타낸다.

[예문]

담화 예문	<p>가: 목소리가 왜 그래요? 감기 걸렸어요?</p> <p>나: 아니에요. 어젯밤에 우리나라 팀 월드컵 경기가 있었잖아요.</p> <p>가: 아, 그래서 응원을 했어요?</p>
-------	---

	<p>나: 네, 목이 쉬도록 응원했는데 저서 너무 아쉬워요.</p> <p>가: 너 어제 몇 시에 들어왔어?</p> <p>나: 어제 회식이 있어서 좀 늦게 들어왔어.</p> <p>가: 12시가 넘도록 네가 안 들어와서 어제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알아?</p> <p>나: 그랬어? 전화하려고 했는데 배터리가 없어서 못 했어.</p>
문장 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마에 멍이 들도록 세게 부딪쳤어요. · 마흔이 넘도록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 취하도록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아요. · 발에 물집이 잡히도록 걸어 다녔어요. · 손가락에 굳은살이 박이도록 기타 연습을 했다. · 흰 셔츠가 누레지도록 오래 입어요. ·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 아토피에 걸리면 미치도록 가려워서 밤에 잠도 못 자요. · 1년이 다 되도록 연락이 없어요. · 몇 달이 지나도록 도주한 범인을 못 찾고 있어요.

+ '-도록2)'는 동작이나 작용의 방식이나 한계를 나타낸다. '목이 쉬도록'은 응원을 하는 정도를 표현하고, '12시가 넘도록'은 '그 시간에 이를 때까지'의 의미로 시간의 한계를 나타낸다.

+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아토피에 걸리면 미치도록 가려워서 밤에 잠도 못 자요'와 같은 예문에서는 실제로 배가 터지거나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배가 부른 정도나 가려운 정도를 과장되게 비유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도입]

<p>(1)</p> <p>교사: 여러분이 본 영화 중에서 가장 슬펐던 영화는 뭐예요?</p> <p>학생: '내 머릿속의 지우개'요.</p> <p>교사: 그 영화를 보고 많이 울었어요?</p> <p>학생: 네, 많이 울어서 눈이 빨개졌어요.</p> <p>교사: 많이 울면 눈이 빨개지고 통통 붓죠? 그렇게 될 때까지 울었을 때 '눈이 통통 붓도록 울었어요.'라고 해요.</p> <p>(2)</p> <p>교사: 여러분은 시험공부를 미리 해요?</p> <p>학생: 네 / 아니요.</p> <p>교사: ('아니요.'라고 대답한 학생에게 묻는다.) 그럼 언제 시험공부를 해요?</p> <p>학생: 시험 보기 전날에 해요. 잠을 안 자고 공부해요.</p>

교사: 맞아요. 시험 보기 전날에 잠을 안자고 아침까지 공부했어요. **밤새도록** 공부를 했어요.

[형태 정보]

앞의 '-도록1)'을 참고한다.

[제약 정보]

① 일반적으로 형용사와는 결합하지 않으나 일부 형용사와는 결합할 수 있다.

- 예) 신부의 모습이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어요. (o)
 숨이 **가쁘도록** 달렸는데도 버스를 놓쳤어요. (o)
 얼굴이 **빨강도록** 부끄러웠어요. (x)
 그 드라마를 **재미있도록** 봤어요. (x)

② '-도록'은 과거의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 예) **밤늦도록** 발표 준비를 했어요. (o)
밤늦었도록 발표 준비를 했어요. (x)
밤늦겠도록 발표 준비를 할 거예요. (x)

[확장]

① '-도록' 뒤에 '은', '만' '까지' 따위의 보조사가 올 수 있다.

- 예) 10km가 **지나도록**은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시다.
 코피가 **터지도록**만 공부하면 어느 대학이든 갈 수 있어.
밤늦도록까지 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② '-도록'을 넣어 뒤 절의 정도를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들이 많다.

- 예) 목이 **빠지도록** 기다린다.
 문지방이 **닿도록** 드나든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코가 **빠들어지도록** 술을 마셨어요.
 뼈가 **빠지도록** 일했어요.

[유사 문법]

① '-도록2)', '-게'

-도록2)	-게
· 정도나 방식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이다.	
예) 목이 터지도록 응원했어요. 목이 터지게 응원했어요.	
· 주로 동사와 결합한다.	· 형용사와 동사 모두 결합이 자유롭다.

<p>예)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쉽도록 설명해 주십니다. (x) 친구가 종이를 길도록 잘라서 나에게 주었어요. (x) 목이 빠지도록 기다렸어요. (o)</p>	<p>예)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o) 친구가 종이를 길게 잘라서 나에게 주었어요. (o) 목이 빠지게 기다렸어요. (o)</p>
<p>· 시간의 한계를 나타낼 때도 사용한다. 예) 친구는 12시가 되도록 오지 않았다. (o) 3년이 지나도록 그는 소식이 없다. (o) 그는 (낮부터) 밤늦도록 잤다. (그가 이전부터 밤늦게까지 잤다는 의미로 시간적 한계를 나타낸다.)</p>	<p>· 시간의 한계를 나타낼 때는 사용할 수 없다. 예) 친구는 12시가 되게 오지 않았다. (x) 3년이 지나게 그는 소식이 없다. (x) 그는 밤늦게 잤다. (그가 밤늦은 시간에 잤다는 의미로 잠이 든 시점을 나타내며 따라서 시간적 한계를 나타내지는 않는다.)</p>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 ‘为了’, ‘为使’.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 예) 실수가 **없도록** 여러 번 체크하십시오.
- 为了不出差错, 多检查几遍.
- 아이들이 잘 **먹도록** 딸기 맛이 나는 감기약을 만들었어요.
- 生产了草莓味感冒药, 好使小孩儿吃得容易一些.
- 밤이 **늦도록** 공부하다.
- 晚上学习学得很晚.
- 거리에 갔다 **오도록** 용돈을 주세요.
- 给我点零花钱, 我要上街.
 - 我要上街, 给我零花钱.

② 용법과 오류

- 동사와 일부 형용사에 붙어 뒤에 뒤 절 행위에 대한 목적을 나타낸다. 반면에 중국어는 목적을 나타내는 내용이 뒤 절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중국어 어순의 영향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 예) 딸기 맛이 나는 감기약을 만들었어 아이들이 잘 먹는다. (x)
딸기 맛이 나는 감기약을 만들었다. 아이들이 먹기 쉽다. (x)
아이들이 잘 먹도록 딸기 맛이 나는 감기약을 만들었어요. (o)

- 정도를 나타낼 때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은 한국어와 어순이 반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시간의 한계를 나타낼 때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한국어 어순과 같다. 이처럼 중국어의 상이한 대응 방식으로 인해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어순에 많은 혼동을 일으킨다. 어순이 서로 다른 경우는 물론이고 같은 경우여라도 다른 경우와 혼동되어 오류가 나타난다.

- 예) 소리치도록 목이 쉬었다. (x)

소리쳐서 목이 쉬도록 되었다. (x)

목이 쉬도록 소리쳤다. (o)

그 사람은 대학 입학시험을 준비하도록 밤늦게 공부한다. (x)

그 사람은 밤늦도록 대학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o)

- '-도록' 뒤에 '은', '만' '까지' 따위의 보조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중국어에는 이런 표현이 없으므로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예) 문제 유형이라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x)

(‘알 수 있도록은’으로 표현해야 할 경우)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x)

(‘들리지 않도록만’으로 표현해야 할 경우)

- 시간의 한계를 나타낼 때 반드시 동사에 붙어야 하나 대응하는 중국어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에 ‘되다, 넘다, 지나다’와 같은 동사를 쓰는 경우도 있고 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중국어권 학습자는 한국어 동사 ‘되다, 넘다, 지나다’ 등을 생략하는 오류를 범한다.

예) 일 년도록 연락이 없어요. (x)

일 년이 다 되도록 연락이 없어요. (o)

마흔도록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x)

마흔이 되도록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o)

3.3.17. ‘-든지2’

든지2[연결어미]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나열하여 그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든지2: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나열하여 그중 어느 것을 선택 하거나 그 어느 것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음을 나타낸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여보세요? 거기 한국대학교지요?</p> <p>나: 네, 맞습니다.</p> <p>가: 그 대학에 입학 원서를 내려고 하는데 이메일로 제출해도 되나요?</p> <p>나: 이메일로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시든지 우편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p> <p>가: 네, 알겠습니다.</p> <p>가: 수진 씨, 결혼 날짜 잡으셨다면서요? 축하해요.</p> <p>나: 네, 감사합니다.</p> <p>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지 정하셨어요?</p>
------	---

	<p>나: 아직이요. 이제 남자 친구랑 의논해 보고 정해야죠.</p> <p>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딜 가든지 좋을 거예요.</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을 듣든지 영화를 보든지 책을 읽든지 하루에 2시간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지위가 정해진다. · 이미 결정된 일이니 좋든지 싫든지 간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든지 나가 쫓으면 좋겠어요. · 너는 자는 거니? 공부를 하는 거니? 자든지 공부를 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해. · 더 이상은 봐 줄 수가 없으니 자퇴를 하든지 전학을 가든지 네가 결정해라. ·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 영수 씨는 워낙 성실해서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거예요. · 대학에 가든지 말든지 내 인생이니까 참견하지 마세요. ·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 할 일은 해야지.

- + '-든지2'는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나열하여 그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이 있음을 나타낸다. '음악을 듣든지 영화를 보든지 책을 읽든지 하루에 2시간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는 '음악을 듣는 것', '영화를 보는 것', '책을 읽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해도 좋으니 '하루에 2시간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 + '어디, 무엇, 언제, 누구' 등의 부정대명사는 지시 대상이 일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지시할 수 있으므로 '-든지2'와 함께 쓰인다.

[도입]

(1)

교사: 여러분 딸꾹질이 날 때 어떻게 해요?

학생1: 물을 마셔요.

학생2: 숨을 참아요.

교사: 네, 맞아요. 딸꾹질이 나면 물을 **마시든지** 숨을 참아요. 딸꾹질이 날 때 물을 마셔도 되고, 숨을 참아도 돼요. 둘 중에 어떤 것을 해도 상관없을 때 '-든지'를 써요.

(2)

교사: 여러분이 며칠 동안 아무 것도 못 먹었다면 어떨까요? 맛있는 음식이 있을까요?

학생: 아니요. 다 맛있을 것 같아요.

교사: 샌드위치를 먹어도 맛있고, 김치를 먹어도 맛있고, 평소에 싫어하던 음식도 맛있을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무엇을 **먹든지** 다 맛있겠죠.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든지'를 쓴다.

예)	먹- + -든지 → 먹든지	듣- + -든지 → 들든지
	입- + -든지 → 입든지	앉- + -든지 → 앉든지
	싫- + -든지 → 싫든지	좋- + -든지 → 좋든지
	가- + -든지 → 가든지	보- + -든지 → 보든지
	만나- + -든지 → 만나든지	예쁘- + -든지 → 예쁘든지

①	받침 o	+ -든지	먹든지, 들든지, 입든지, 앉든지, 싫든지, 좋든지
	받침 x	+ -든지	가든지, 보든지, 만나든지, 예쁘든지

[문장 구성 정보]

① '-든지 -든지 하다'의 형태로 자주 쓰인다.

예) **취직하든지 진학하든지 해야지.**
 내일 영화를 **보든지** 드라이브를 **가든지** 하자.
 예산이 부족하니 축제를 **미루든지 취소하든지** 합시다.

② '-든지 -든지'의 형태로 서로 대립되거나 반대되는 것을 나열할 때 사용한다.

예) 그가 **오든지 가든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제가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관심 끄세요.
 유학을 **가든지 안 가든지** 그것은 네가 결정할 문제이다.
 학벌이 **좋든지 나쁘든지** 실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옆에 **있든지 없든지** 신경을 안 쓴다.

③ '어디, 무엇, 언제, 누구' 등의 부정대명사와 함께 쓰인다.

예) 어디에 **가든지** 연락 자주 해.
 무엇을 **하든지**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언제 **만나든지** 반가운 친구예요.
 누구와 **살든지** 기본적인 예절은 지켜야 해요.
 + 부정대명사는 지시 대상이 일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지시할 수 있으므로 흔히 '-든지'와 함께 쓰인다.

[제약 정보]

① 과거의 '-었-'과는 결합하나 미래·추측의 '-겠-'과는 결합하지 않는다.

예) 그가 이미 퇴근을 **했든지** 외근을 나간 것 같아요. (o)
 그가 이따가 퇴근을 **하겠든지** 외근을 나갈 거예요. (x)
 그녀가 전에 누구와 **사귀었든지** 관심 없어요. (o)
 그녀가 앞으로 누구와 **사귀겠든지** 관심 없어요. (x)

[확장]

① '-든지'는 종결어미처럼 문장의 끝에 와서 제안이나 명령의 의미로 사용된다.

예) 시간이 남으니까 게임을 좀 **하든지**.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을 **하든지**.
 그렇게 힘들면 **그만두든지**.
 많이 아프시면 약을 좀 **드시든지요**.

+ 비교듯이 말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

예) 아니꼬우면 네가 **사장하든지**.
 한 대 쳐 **보시든지**.

② '-든지'는 조사 '는'과 함께 쓰여 의미를 강조한다.

예) 영수가 **가든지 오든지** 나와 아무 상관없다.
 키가 **크든지 작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대학을 **가든지 말든지** 자신이 결정할 문제예요.

③ '-든지 -든지' 또는 '부정대명사+든지'의 문형은 보통 축약형 '-든'으로 교체할 수 있다.

예) 영수가 **가든지 오든지** 나와 아무 상관없다.
 = 영수가 **가든 오든** 나와 아무 상관없다.
 키가 **크든지 작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 키가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 **가든지** 자주 연락하세요.
 = 어디에 **가든** 자주 연락하세요.

+ 단, 부정대명사와 결합하지 않고 '-든지'가 한 번만 나타날 때 또는 문장의 끝에 올 때는 '-든'으로 교체할 수 없다.

예) 메일로 **보내든지** 팩스로 보내요. (o)
 메일로 **보내든** 팩스로 보내요. (x)
 그렇게 힘들면 **그만두든지**. (o)
 그렇게 힘들면 **그만두든**. (x)

④ '-든지'는 보통 '-든가'로 교체할 수 있다. 단, '-든가'를 부정대명사와 함께 사용하는 것은 매우 어색하다.

예) 영수가 **가든지 오든지** 나와 아무 상관없다.
 = 영수가 **가든가 오든가** 나와 아무 상관없다.
 키가 **크든지 작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 키가 **크든가 작든가** 중요하지 않아요.
 메일로 **보내든지** 팩스로 보내세요.
 = 메일로 **보내든가** 팩스로 보내세요.
 그렇게 힘들면 **그만두든지**.
 = 그렇게 힘들면 **그만두든가**.

어디에 **가든지** 자주 연락하세요. (o)

어디에 **가든가** 자주 연락하세요. (x)

[유사 문법]

① '-든지2', '-거나'

-든지	-거나
<p>· 선택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이다.</p> <p>예) 노래를 하든지 춤을 추든지 해야 한다.</p> <p>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거나 해야 한다.</p>	
<p>· 자연스럽게 부정대명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p> <p>예) 무엇을 먹든지 잘 먹는다.</p> <p>언제 가든지 아름다운 곳이다.</p>	<p>· 부정대명사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 기는 하나 어색하다.</p> <p>예) 무엇을 먹거나 잘 먹는다.</p> <p>언제 가거나 아름다운 곳이다.</p>
<p>· 문장의 끝에 올 수 있다.</p> <p>예) 심심하면 나 좀 도와주든지. (o)</p> <p>시간이 남으면 게임을 좀 하든지. (o)</p>	<p>· 문장의 끝에 올 수 없다.</p> <p>예) 심심하면 나 좀 도와주거나. (x)</p> <p>시간이 남으면 게임을 좀 하거나. (x)</p>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 '要么 ... 要么 ...', '(或者) ... 或者 ...', '不管', '还是'.

예) 음악을 **들든지** 영화를 **보든지** 하세요.

- 要么听音乐, 要么看电影吧!

- (或者)听音乐, 或者看电影吧!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 不管我见谁, 你不用管.

가든지 안 가든지 그것은 네가 결정할 문제이다.

- 去还是不去, 由你来决定.

② 용법과 오류

- '-든지'는 '-든지 -든지 하다'의 형태로 자주 쓰인다. 중국어는 '要么 ... 要么 ...'에 대응될
뿐 '하다'에 대응 표현이 없다. 이런 상이한 대응 관계로 인하여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하
다'를 생략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취직하든지 진학하든지 했다. (x)

내일 영화를 보든지 드라이브를 가든지 십시다. (x)

이번 행사를 미루든지 취소하든지 세요. (x)

- '-든지 -든지'의 형태로 서로 대립되거나 반대되는 것을 나열할 때 사용한다. 이때 대응되
는 중국어 표현은 '동사+不+동사'로서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든지 -든지' 표현 대신에 중

국어 표현 그대로를 사용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 예) 그가 가다안가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x) (去不去)
 제가 결안결혼 관심 마세요. (x) (结不结婚)
 집이 깨아니깨끗 상관 하지 맙시다. (x) (干不干净)

- ‘-든지’는 부정대명사와 함께 사용할 때 중국어 ‘不管’에 대응되어 어느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이 있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不管’은 문장 맨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중국어 어순의 영향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 예) 가든지 어디 연락 자주 해. (x)
 살든지 누구와 참아야 된다. (x)
 하든지 무엇 자세가 중요하다. (x)

3.3.18. ‘-듯이’

-듯이[연결어미]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거의 같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 듯이**: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앞 절의 내용이 뒤 절의 내용과 거의 같음을 나타낸다. 비유적으로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한다.

[예문]

담화 예문	<p>가: 차를 사든지 해야지, 원!</p> <p>나: 왜요? 차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p> <p>가: 10년을 탔더니 자꾸 고장이 나네요. 지난달에 수리했는데 또 말썽이네요.</p> <p>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이곳저곳이 아프듯이 기계도 마찬가지죠.</p> <p>가: 여보, 지난달에 받은 보너스 어디다 썼어?</p> <p>나: 그냥 좀 쓸 데가 있어서 썼어.</p> <p>가: 아니,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애길 좀 해봐.</p> <p>나: 아니, 그게 사실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어.</p>
문장 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신욕을 하면 피로가 눈 녹듯이 사라져요. · 고인 물이 썩듯이 변화를 두려워하면 도태되기 마련이다. · 신문 사회면에서 보듯이 나날이 흉악한 범죄가 늘어가고 있다. ·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성격도 천차만별이에요. ·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 때 낙엽이 떨어지듯이 사람도 나이가 들면 신체의 기능이 떨어진다. · 부부 간에도 서로에 대한 배려, 믿음, 애정이 기본이듯이 기업 간에

	<p>도 마찬가지로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스트셀러가 곧 좋은 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듯이 최다 관객을 동원했다고 해서 꼭 좋은 영화라고는 할 수 없어요. ·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릴 때 어떤 습관을 기르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 연초에 약속했듯이 건강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등산을 가기로 했어요.
--	--

+ '-듯이'는 앞 절의 내용과 뒤 절의 내용이 유사함을 바탕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한다. 첫 번째 담화 예문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이곳저곳 아픈 것'과 '기계가 오래 돼서 자주 고장이 나는 것'이 유사함을 나타낸다. 두 번째 담화 예문은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것'과 '어떤 일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충 얼버무리며 넘어가는 것'이 유사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도입]

<p>(1)</p> <p>교사: (벚꽃이 흩날리는 사진을 보여 주며) 이 꽃 본 적이 있어요?</p> <p>학생: 네, 있어요.</p> <p>교사: 이 꽃 이름 알아요?</p> <p>학생: 몰라요.</p> <p>교사: 벚꽃이에요. 벚꽃이 떨어지는 모습이 눈 내리는 모습하고 비슷하죠?</p> <p>학생: 네.</p> <p>교사: 눈이 내리듯이 벚꽃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문장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모습이나 내용이 비슷할 때 '-듯이'를 사용해요.</p> <p>(2)</p> <p>교사: 여러분, 부모님과 전화 통화해요?</p> <p>학생: 네, 가끔 해요.</p> <p>교사: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무슨 말씀을 하세요?</p> <p>학생: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p> <p>교사: 여러분은 한국에 공부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요.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같은 내용이에요. 앞과 뒤의 내용이 거의 같을 때 '-듯이'를 사용해요.</p>
--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듯이'을 쓴다.

예) 먹- + -듯이 → 먹듯이	받- + -듯이 → 받듯이
걸- + -듯이 → 걸듯이	덥- + -듯이 → 덥듯이
짓- + -듯이 → 짓듯이	좋- + -듯이 → 좋듯이
가- + -듯이 → 가듯이	보- + -듯이 → 보듯이
귀하- + -듯이 → 귀하듯이	모르- + -듯이 → 모르듯이

①	받침 ○	+ -듯이	먹듯이, 받듯이, 걸듯이, 덥듯이, 짓듯이, 좋듯이
	받침 ×	+ -듯이	가듯이, 보듯이, 귀하듯이, 모르듯이

[문장 구성 정보]

① '-듯이'를 넣어 다음과 같은 관용 표현으로 자주 사용한다.

예) 밥 **먹듯(이)** 하다.
 이 **잡듯(이)** 뒤지다.
 제 집 **드나들듯(이)** 하다.
 가뭄에 콩 **나듯(이)** 하다.
 물 **쓰듯(이)** 돈을 쓰다.
 불 **보듯(이)** 뻔하다.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다.

② '-듯이'는 속담을 인용할 때 자주 사용한다.

예)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과제를 해치웠어요.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부모에게 자식은 모두 소중한 거예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듯이** 모두가 힘을 합치면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바늘 가는 데 실 **가듯이** 실적이 오르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③ 과거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여 쓰인다.

예) 독일이 통일을 **이루었듯이** 우리도 하루 빨리 통일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하셨듯이** 엄하게 자식을 키우고 싶지는 않아요.
 제목만 봐도 **짐작하겠듯이** 이 책은 칭찬의 효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문법]

① '-듯이', '-는/은/을 듯이'

-듯이	-는/은/을 듯이
· 유사성을 나타낸다.	
·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유사함을 나타낸다. 예) 비가 오듯(이) 땀이 쏟아진다.	· 뒤의 상황이 앞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짐작하거나 추측함을 나타낸다. 예) 비가 온 듯(이) 땅이 젖어 있다.

	비가 오는 듯(이) 소리가 난다. 비가 올 듯(이) 하늘이 흐리다.
· 어미이므로 앞말의 어간에 붙여 쓴다.	· '-듯이'가 의존명사이므로 관형사형 어미 '-는/은/을'과 '듯이'를 띄어 쓴다.

+ '비가 오듯이 땀이 쏟아진다'는 땀이 쏟아지는 모습이 비가 오는 것과 유사함을 나타낸다. '비가 온 듯이 땅이 젖어 있다'는 땅이 젖어 있는 모습을 보고 비가 온 것 같다고 추측하여 말할 때 사용한다. '비가 오는 듯이 소리가 난다'는 들리는 소리가 빗소리와 같다고 추측하여 말하는 것이다. '비가 올 듯이 하늘이 흐리다'는 하늘이 흐린 것이 마치 비가 올 것 같다는 추측을 하게 한 것이다.

+ '-는/은/을 듯이'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미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

예) 마치 자기가 직접 **본 듯이** 말했다.

그는 **부자인 듯이** 돈을 펄펄 쓰고 다닌다.

'마치 자기가 직접 본 듯이 말했다'는 실제로는 보지 않았으나 본 것처럼 말했다는 의미이고, '그는 부자인 듯이 돈을 펄펄 쓰고 다닌다'는 실제로는 부자가 아님에도 부자처럼 돈을 쓴다는 의미이다.

② '-듯이', '-다시피'

-듯이	-다시피
<p>· 앞 절의 내용과 같거나 유사함을 나타낸다. 예)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광고는 10초의 예술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광고는 10초의 예술이다. · 문어와 구어에서 두루 사용한다. 예) 사람마다 성격에 차이가 있듯이 추구하는 이상도 모두 달라요. 사람마다 성격에 차이가 있다시피 추구하는 이상도 모두 달라요.</p>	
· 관용적 용법으로 사용되어 비슷한 사실을 비교하여 말할 때 쓰인다. 예) 비가 오듯이 땀이 쏟아진다. (o) 시험을 못 봤다고 아이를 쥐 잡듯이 잡았다. (o)	· 관용적 용법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예) 비가 오다시피 땀이 쏟아진다. (x) 시험을 못 봤다고 아이를 쥐 잡다시피 잡았다. (x)
· 형용사와 결합할 수 있다. 예) 외모가 꽃처럼 예쁘듯이 성격도 역시 고왔다. (o)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이 나라마다 풍습도 다릅니다. (o)	· 형용사와 결합할 수 없다. 예) 외모가 꽃처럼 예쁘다시피 성격도 역시 고왔다. (x)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다시피 나라마다 풍습도 다릅니다. (x)
· '-는/은/을 듯이'로 사용되어(의존 명사) 어떤 상황이 앞 상황과 유사하다고 추측함을 나타낸다.	· 추측의 의미가 없다. 예) 고양이는 죽었다시피/죽다시피 하면서 울기 시작했다. (x)

예) 수지는 기분이 좋은 듯이 노래를 부르면서 학교에 갔다. 아기 고양이는 죽을 듯이 울기 시작했다.	민수는 지금쯤 쉬다시피 하면서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 (x)
---	--

+ '-다시피'는 연결어미로만 사용되어 '듣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같음' 혹은 '앞서 말한 내용과 같거나 유사함'을 드러낸다. 반면 '-듯이'는 '땀이 비가 오듯이, 나비가 춤을 추듯이'와 같이 비유적 의미 더 강하며, '-는/은/을' 뒤에 의존명사 '-듯이' 결합된 '-는/은/을 듯이'의 형태로 사용되어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다시피'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지 못한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就) 像...'.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 예)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성격도 천차만별이에요.
 - 就像每个人的长相不同, 人的性格也是千姿百态.
 부모님 세대가 **하셨듯이** 엄하게 자식을 키우고 싶지는 않아요.
 - 我们可不想像我们上一辈那样严格要求孩子.
 - 제목만 봐도 **짐작하듯**이 이 책은 칭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一看书名就能猜得到, 这本书是关于称赞的.

② 용법과 오류

- 과거 '-었-', 미래 '-겠-'과 결합하여 쓰일 때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어는 과거나 미래를 어휘 형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었-', '-겠-'과 동사의 위치나 용법을 혼동하여 오류가 생길 수 있다.

- 예) 진시황이 통일을 이루어**듯이**. (x)
 얼굴 표정만 봐도 짐작하**듯이**겠 오늘 크게 혼날 것 같다. (x)
 교수님이 말씀하시**었듯이** 사람은 늘 겸손해야 합니다. (x)

- '-듯이'를 넣어 관용표현에 쓰일 경우 대부분 중국어 '(就) 像...'에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의 관용구나 또 다른 표현에 대응된다. 이런 중국어와의 상이한 대응 관계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 예) 땀이 등에 쏟아**지다**. (x)
 ('땀이 비오듯 쏟아**지다**'로 표현해야 할 경우)
 물이 흐르**듯이** 돈을 쓰다. (x)
 ('물 쓰**듯이** 돈을 쓰다'로 표현해야 할 경우)

3.3.19. '-어다가'

-어다가[-아다가/-여다가][연결어미] 앞선 행위의 대상을 가지고 다른 장소에서 뒤의 행위를 함을 나타내는 어미.

-어다가: (동사에 붙어) 앞서 어떤 행위를 하고 난 뒤에 그 행위의 대상을 가지고 뒤의 행위를 함을 나타낸다. 앞 절의 행위와 뒤 절의 행위가 일어난 장소가 다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 예문	<p>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책 샀어요?</p> <p>나: 아니요. 서점에 가서 물어봤는데 절판됐대요.</p> <p>가: 그래요? 그럼 어떡하죠?</p> <p>나: 도서관에서 빌려다가 읽어야죠.</p> <p>가: 부침개에 꽃이 있네요. 이게 뭐예요?</p> <p>나: '화전'이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봄이 되면 산에서 꽃을 따다가 '화전'을 만들어 먹곤 했어요.</p> <p>가: 참 예쁘네요. 맛있겠어요.</p> <p>나: 네, 드셔 보세요.</p>
문장 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에서 잠든 아이를 안아다가 방에 눕혔어요. · 물고기를 잡아다가 매운탕을 끓여 먹었어요. · 이달 말까지 추천서를 받아다가 제출해야 해요. · 동대문에서 옷감을 끊어다가 치마를 만들었어요. · 들꽃을 꺾어다가 꽃병에 꽂아 내 방 창가에 두었다. · 아이가 발로 차 버린 이불을 끌어다가 덮어 주었다. ·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사다가 드려요. · 부부는 부모가 없는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고 있다. · 대형 마트에서 외국 농산물을 싼 가격에 수입해다가 판매하고 있다. · 할머니께서 장독에서 된장을 꺼내다가 싸 주셨다.

+ '차에서 잠든 아이를 안아다가 방에 눕혔어요'는 차에서 잠든 아이를 안았고 그 행위의 대상인 아이를 옮겨 방에 눕혔다는 것이다. '물고기를 잡아다가 매운탕을 끓여 먹었어요'는 강이나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고 그 행위의 대상인 물고기를 다른 장소에서 매운탕으로 끓였다는 것이다.

[도입]

<p>(1)</p> <p>교사: 미도리 씨, 김치를 담글 줄 알아요?</p> <p>학생: 아니요.</p> <p>교사: 김치를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p> <p>학생: 마트에서 사 와요.</p> <p>교사: 미도리 씨는 마트에서 김치를 사요. 그리고 집에서 그 김치를 먹어요. 미도리 씨는 김치를 마트에서 사다가 (집에서) 먹어요.</p>
--

(2)

교사: 책을 읽고 싶은데 책을 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학생: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요.

교사: 맞아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요. 그리고 집에서 읽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가** (집에서) 읽어요.

+ 앞 절의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와 뒤 절의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지시키도록 한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ㅏ, ㅑ'인 경우 '-아다가'를 쓴다.

예) 안- + -아다가 → 안아다가 잡- + -아다가 → 잡아다가
 사- + -아다가 → 사다가 짜- + -아다가 → 짜다가
 고- + -아다가 → 고아다가/과다가 담그- + -아다가 → 담가다가

+ 어간 음절이 'ㅏ'로 끝나면 '사다가, 짜다가'로 줄여서 쓴다.

+ 어간 음절이 'ㅑ'로 끝나면 줄여서 '과다가'와 같이 쓴다.

+ 이음절 이상의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ㅡ'일 때는 'ㅡ' 앞의 끝음절 모음에 따라 교체한다. 이때 'ㅡ' 모음은 탈락한다.

② 동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ㅓ, ㅕ'가 아닌 경우 '-어다가'를 쓴다.

예) 얻- + -어다가 → 얻어다가 이러- + -어다가 → 이러다가
 꾸- + -어다가 → 꾸어다가/꿔다가 쓰- + -어다가 → 써다가
 빌리- + -어다가 → 빌리어다가/빌려다가 끓이- + -어다가 → 끓이어다가/끓여다가
 꺼내- + -어다가 → 꺼내어다가/꺼내다가 세- + -어다가 → 세어다가/세다가

+ 어간 음절이 'ㅓ'로 끝나면 '이러다가'로 반드시 줄여서 쓴다.

+ 어간 음절이 'ㅕ'로 끝나면 줄여서 '꿔다가'와 같이 쓴다.

+ 2음절 이상의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ㅡ'일 때는 'ㅡ' 앞의 끝음절 모음에 따라 교체한다. 이때 'ㅡ' 모음은 탈락한다.

+ 어간 음절이 'ㅣ'로 끝나면 흔히 줄여서 '빌려다가, 끓여다가'와 같이 쓴다. 어간 음절이 'ㅐ, ㅑ'로 끝나면 '꺼내다가, 세다가'로 줄여서 쓴다.

③ '-하다'가 붙은 동사 어간에는 '-여다가'를 쓰는데, 흔히 줄여서 '-해다가'로 쓴다.

예) 구하- + -여다가 → 구하여다가/구해다가
 전하- + -여다가 → 전하여다가/전해다가
 대출하- + -여다가 → 대출하여다가/대출해다가
 수입하- + -여다가 → 수입하여다가/수입해다가
 복사하- + -여다가 → 복사하여다가/복사해다가
 준비하- + -여다가 → 준비하여다가/준비해다가

①	ㅏ, ㅑ	+ -아다가	안아다가, 잡아다가, 사다가, 짜다가, 과다가, 담가다가
---	------	--------	---------------------------------

②	ㅏ, ㅑ 이외	+ -어다가	얻어다가, 이려다가, 꺾다가, 써다가, 빌려다가, 끓여다가, 꺼내다가, 세다가
③	-하다	+ -여다가 (-해다가)	구해다가, 전해다가, 대출해다가, 수입해다가, 복사해다가, 준비해다가

④ 불규칙

- 싯- 예) 산지에서 바로 **싯어다가** 팔고 있어요.
 짓- 예) 시를 **지어다가** 연인에게 바쳤어요.
 부르- 예) 선생님이 학생을 **불러다가** 야단을 쳤다.

[문장 구성 정보]

- ① '-어다가'의 앞 절과 뒤 절에는 타동사가 쓰인다.

- 예) 냉장고에서 주스를 **꺼내다가** 친구에게 주었다.
 버려진 새끼 고양이를 **주워다가** 기르고 있어요.

[제약 정보]

- ① '-어다가'의 앞 절에 쓰이는 타동사의 목적어는 동작을 한 이후에도 남아 있어야 한다. 동작을 한 이후에 목적어가 남아 있지 않는다면 '-어다가'와 결합할 수 없다.

- 예) 밥을 **먹어다가** 설거지를 했어요. (x)
 접시를 **깨다가** 치웠어요. (x)

- ②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아야 한다.

- 예) 앤디가 꽃을 **사다가** (앤디가) 여자 친구에게 주었어요. (o)
 앤디가 꽃을 **사다가** 마이클이 여자 친구에게 주었어요. (x)

- ③ 과거의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 예) 은행에서 돈을 **찾아다가** 선물을 샀어요. (o)
 은행에서 돈을 **찾았아다가** 선물을 샀어요. (x)
 은행에서 돈을 **찾아다가** 선물을 살 거예요. (o)
 은행에서 돈을 **찾겠어다가** 선물을 살 거예요. (x)

- ④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으시'와 결합하지 않는다.

- 예) 어머니께서 숙을 **뜯어다가** 떡을 만드셨어요. (o)
 어머니께서 숙을 **뜯으셔다가** 떡을 만드셨어요. (x)

[확장]

- ① '-어다가'는 '-어다'로 줄여 쓸 수 있다.

- 예) 샌드위치를 **만들어다가** 공원에서 남자친구하고 같이 먹었어요.
 = 도시락을 **만들어다** 공원에서 남자친구하고 같이 먹었어요.
 길에 떨어진 낙엽을 **주워다가** 책갈피를 만들었어요.

= 길에 떨어진 낙엽을 **주워다** 책갈피를 만들었어요.

② '-어다 주다'의 구성으로 쓰이기도 한다.

- 예) 선배가 집 앞까지 **태워다** 줬어요.
어머니께서 김치를 **담가다** 주셨어요.
제가 공항까지 **바래다** 드릴까요?

[유사 문법]

① '-어다가', '-어서'

-어다가	-어서
· 선행절과 후행절의 행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연결한다. 예)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다가 먹었어요.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서 먹었어요.	
· 선행절과 후행절의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가 다르다. 예)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다가 집에서 먹었어요. (o)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다가 (편의점에서) 먹었어요. (x)	· 선행절과 후행절의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에 제약이 없다. 예)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서 집에서 먹었어요. (o)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서 (편의점에서) 먹었어요. (o)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过来, 出来.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 예) DVD를 **빌려다가** 집에서 봤어요.
- 把DVD借过来,在家看.
냉장고에서 주스를 **꺼내다가** 친구에게 한잔 따라 주었다.
- 从冰箱里拿出来饮料,给朋友到了一杯.
대형 마트에서 외국 농산물을 싼 가격에 **수입해다가** 판매하고 있다.
- 在大型超市,销售以最低廉的价格进口的农产品.

② 용법과 오류

- '-어다가'는 중국어의 방향보어 '过来, 出来'에 대응되는 경우가 많다. 방향보어는 그 의미가 다양하므로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대응 표현들을 혼동함으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 예) 냉장고에서 주스를 들고내서 친구에게 주었다. (x) (拿出来)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걸어서 집에서 읽어요. (x) (接过来)
선생님이 학생을 부르걸어와서 야단을 쳤다. (x) (叫过来)

- '-어다가'는 과거의 '-었-', 미래 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어는 '了'와 결합 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예) 너는 그 꽃을 샀다가 사장님 방으로 가져가라. (x)

선생님은 학생을 불렀다가 야단을 쳤다. (x)

그는 은행에서 돈을 찾았다가 선물을 살 거예요. (x)

- '-어다가'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가 다르지만 중국어 '过来'는 같은 공간에서 위치만 다른 경우에도 사용가능하다.

예) 걸어오다가 여기에 앉으세요. (x)

- 走过来, 坐在这里.

뛰어오다가 엄마의 품에 안겼다. (x)

- 跑过来扑向了妈妈的怀抱.

두 살 된 남동생은 기어 오다가 텔레비전 앞에 와서 일어섰다. (x)

- 两岁的弟弟爬过来, 站到了电视前边.

3.3.20. '-어도'

-어도[-아도/-여도][연결어미] 사실이나 가정에 대한 기대가 어긋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 어도**: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앞 절에서 말하는 사실이나 가정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 뒤 절에서 어긋남을 나타낸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여보세요? 거기 보일러 에이에스 센터지요?</p> <p>나: 네, 맞습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p> <p>가: 그게 보일러를 켜도 찬 물만 나와서요. 지난번에 고쳤는데 또 그러네요.</p> <p>나: 아, 그러세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기사가 오늘 3시 이후에 방문할 수 있는데 접수해 드릴까요?</p> <p>가: 네, 되도록 빨리 와 주세요.</p> <p>가: 요즘에는 커피숍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시끄러워서 집중을 못 할 것 같은데 신기해요.</p> <p>나: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카페의 소음은 다른 소음들과 달리 귀에 쉽게 익숙해져서 신경이 쓰이지 않는대요. 오히려 다른 소음을 중화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p> <p>가: 아, 그래서 시끄러워도 집중을 할 수 있는 거구나.</p> <p>나: 카페의 소음을 녹음해서 인터넷으로 들려주는 사이트도 생겼대요.</p>
문장예문	<p>· 그는 키가 작아도 농구를 잘 해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 몇 번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 저는 물만 마셔도 살이 쪼요. · 자식에게는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아요. ·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 아무리 피곤해도 화장은 깨끗하게 지우고 자요. · 자식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요. ·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 · 영수는 미남은 아니어도 인기가 많아요. · 그는 세상을 떠났어도 그의 음악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	---

+ '-어도'는 동사나 형용사, '명사+이다' 뒤에 붙어 앞 절에서 말하는 사실이나 가정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 뒤 절에서 어긋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이다.

[도입]

(1)	<p>교사: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있어요?</p> <p>학생: 네, 불고기요.</p> <p>교사: 그럼 불고기를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날마다 먹으면 어떨까요?</p> <p>학생: 싫어요.</p> <p>교사: 네, 좋아하는 음식도 너무 자주 먹으면 질려요. 하지만 선생님은 김치를 날마다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보통 날마다 먹으면 질린다고 생각해요. 그런 보통의 생각과 다를 때 '-어도'를 써요.</p>
(2)	<p>교사: (다이아몬드 반지 그림을 보여 주며) 이게 뭐예요?</p> <p>학생: 다이아몬드요.</p> <p>교사: 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프러포즈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죠? 왜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할까요?</p> <p>학생: 예뻐서요. / 여자들이 좋아해서요.</p> <p>교사: 네, 그런 이유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어요. 보통 시간이 지나면 물건들은 낡고 썩지만 다이아몬드는 그렇지 않아요. 다이아몬드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사랑을 약속하려고 다이아몬드를 선물하는 거예요.</p>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ㅏ, ㅑ'인 경우 '-아도'를 쓴다.

예) 찾- + -아도 → 찾아도 좁- + -아도 → 좁아도
 좋- + -아도 → 좋아도 가- + -아도 → 가도
 사- + -아도 → 사도 오- + -아도 → 와도
 아프- + -아도 → 아파도 고프- + -아도 → 고파도

+ 어간 음절이 'ㅏ'로 끝나면 '가도, 사도'로 줄여서 쓴다.

+ 어간 음절이 'ㅑ'로 끝나면 줄여서 '와도'와 같이 쓴다.

+ 이음절 이상의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ㅡ'일 때는 'ㅡ' 앞의 끝음절 모음에 따라 교체한다.
 이때 'ㅡ' 모음은 탈락한다.

②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ㅏ, ㅑ'가 아닌 경우 '-어도'를 쓴다.

예) 먹- + -어도 → 먹어도 울- + -어도 → 울어도
 서- + -어도 → 서도 두- + -어도 → 두어도/뒤도
 슬프- + -어도 → 슬퍼도 기쁘- + -어도 → 기뻐도
 막히- + -어도 → 막히어도/막혀도 마시- + -어도 → 마시어도/마셔도
 보내- + -어도 → 보내어도/보내도 세- + -어도 → 세어도/세도
 있- + -어도 → 있어도 없- + -어도 → 없어도

+ 어간 음절이 'ㅏ'로 끝나면 '서도'로 반드시 줄여서 쓴다.

+ 어간 음절이 'ㅑ'로 끝나면 줄여서 '뒤도'와 같이 쓴다.

+ 이음절 이상의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ㅡ'일 때는 'ㅡ' 앞의 끝음절 모음에 따라 교체한다.
 이때 'ㅡ' 모음은 탈락한다.

+ 어간 음절이 'ㅣ'로 끝나면 흔히 줄여서 '막혀도, 마셔도'와 같이 쓴다. 어간 음절이 'ㅞ, ㅟ'로 끝나면 '보내도, 세도'로 줄여서 쓴다.

③ '-하다'가 붙은 동사 및 형용사 어간에는 '-어도'를 쓰는데, 흔히 줄여서 '해도'로 쓴다.

예) 하- + -어도 → 하여도/해도 말하- + -어도 → 말하여도/말해도
 공부하- + -어도 → 공부하여도/공부해도 사랑하- + -어도 → 사랑하여도/사랑해도
 날씬하- + -어도 → 날씬하여도/날씬해도 친절하- + -어도 → 친절하여도/친절해도

①	ㅏ, ㅑ	+ -아도	찾아도, 좁아도, 좋아도, 가도, 사도, 와도, 아파도, 고파도
②	ㅏ, ㅑ 이외	+ -어도	먹어도, 울어도, 서도, 뒤도, 슬퍼도, 기뻐도, 막혀도, 마셔도, 보내도, 세도, 있어도, 없어도
③	-하다	+ -여도 (-해도)	해도, 말해도, 공부해도, 사랑해도, 날씬해도, 친절해도

④ '이다' 앞의 명사에는 '이어도'가 오는데, 받침이 있으면 '이어도', 받침이 없으면 주로 '명사+여도'라고 쓴다.

예) 책이- + -어도 → 책이어도 학생이- + -어도 → 학생이어도

- 장마이- + -어도 → 장마여도 의사이- + -어도 → 의사여도
남자이- + -어도 → 남자여도 아니- + -어도 → 아니어도
+ '이다' 앞의 명사는 말할 때 '-어도'보다 '-라도'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책이라도', '학생이라도', '장마라도', '의사라도'처럼 사용할 수 있다.
+ '아니다'는 말할 때 '아니어도'보다 '아니라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⑤ 불규칙

- 듣- 예) 그 아이는 머리가 좋아서 한 번만 **들어**도 다 외워요.
춤- 예) 날씨가 **추워**도 짧은 치마만 입어요.
낮- 예) 병이 다 **나아**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해요.
빨강- 예) 이 떡볶이는 보기에는 **빨개**도 별로 맵지 않아요.
부르- 예) 배가 **불러**도 디저트는 먹을 수 있어요.

[문장 구성 정보]

- ① 흔히 부사 '아무리'와 함께 쓰여 기대 부정의 의미를 강하게 나타낸다.

- 예)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식사는 꼭 챙겨 드세요.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을 때려서는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확장]

- ① '-어도 되다/좋다/괜찮다/상관없다'의 구성으로 쓰여 허락이나 허용의 의미를 나타낸다.

- 예) 여기 **앉아**도 돼요?
 시험지를 제출한 학생은 집에 **가**도 좋아요.
 노래를 잘 **못해**도 괜찮아요.
 말만 통한다면 10살 **연상이어도** 상관없어요.
+ '-어도 좋다'는 아래의 예와 같이 의문형으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부자연스럽다.
예) 저 집에 **가**도 좋아요?
 이거 **먹어**도 좋아요?
 에어컨을 **켜**도 좋아요?

- ② 동일한 동사나 형용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어도 -어도'의 구성으로 써서 강조의 뜻을 나타낸다.

- 예) 양이 하도 많아서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아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사막이에요.
 미워도 미워도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해도 해도** 너무 하네요.

- ③ '~만 -어도'의 구성으로 쓰여 최소한의 조건을 과장하여 말할 때 사용한다.

- 예)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레몬은 너무 시어서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인다.
우리 집 강아지는 **발소리만 들어도** 주인인지 아닌지 알아요.
바로 **병원에만 갔어도** 살았을 텐데.

[유사 문법]

① '-어도', '-더라도'

-어도	-더라도
-----	------

· 앞의 내용에 대한 기대가 어긋난다는 뜻을 나타낸다.

예) 비가 **와도** 소풍을 갈 거예요.

비가 **오더라도** 소풍을 갈 거예요.

· '-더라도'에 비해 덜 가정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높다. 예) 비가 왔어도 소풍을 갔을 것이다. (o) 비가 왔어도 소풍은 갔어. (o)	· '-어도'에 비해 더 가정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 예) 비가 왔더라도 소풍을 갔을 것이다. (o) 비가 왔더라도 소풍은 갔어. (x)
---	--

+ '비가 왔더라도 소풍을 갔을 것이다', '비가 왔어도 소풍을 갔을 것이다'는 비가 안 와서 소풍을 갔지만 혹시 비가 왔다고 가정을 해도 소풍을 갔을 것이라는 공통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더라도'는 가정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실현된 것이 확실한 사건에는 쓰지 않는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虽然 ... 但(是)', '即使 ... 也', '也 ...', '但 ...', '就 ...'.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비가 **와도** 나는 가겠다.

- 虽然下雨, 但(是) 我还是要去.

저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찌요.

- 我即使喝水也会胖的.

몇 번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 读了几遍也不知道什么意思.

그는 키가 **작아도** 농구를 잘 해요.

- 他个子矮, 但篮球打得挺好.

그 아이는 머리가 좋아서 한번만 **들어도** 다 외워요.

- 那个小孩儿很聪明, 听一遍就能背下来.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您的恩惠没齿难忘.

② 용법과 오류

- '-어도'는 사실과 가정 모두에 대해 기대가 어긋남을 나타낼 수 있는 반면에 중국어는 사실과 가정에 대한 대응 표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사실에 대한 기대가 어긋남에 대한 중국어 표현은 '虽然 ... 但(是)'이고 가정에 대한 어긋남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即使'

... 也'이다.

예) 영수는 미남은 아니어도 인기가 많아요. (미남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 永洙虽然长得不怎么帅, 但是很有人气. (o)

- 永洙即使长得不怎么帅, 人气也很好. (x)

호랑이에게 물려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x) (호랑이에게 물려 가는 것은 가정이다.)

- 即使被老虎叼走了, 也要打起精神. (o)

- 虽然被老虎叼走了, 但是要打起精神. (x)

3.3.21. '-어야'

-어야[-아야/-여야][연결어미] 1) 필수 조건 2) 가정을 해도 효과나 영향이 없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어야1):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앞의 내용이 뒤에 오는 내용의 필수 조건임을 나타낸다.

[예문]

담화 예문	<p>가: 제 발음이 이상한가 봐요. 사람들이 제가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p> <p>나: 그랬어요? 속상했겠네요.</p> <p>가: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p> <p>나: 발음은 듣기가 중요해요. 많이 들어야 정확히 따라할 수 있거든요.</p> <p>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살이 잘 안 빠져요.</p> <p>나: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p> <p>가: 아침, 저녁은 안 먹고 점심에 한 끼만 먹고 있어요.</p> <p>나: 그러면 안 돼요. 식사를 잘 챙겨 먹으면서 운동해야 살을 뺄 수 있어요.</p>
문장 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 담배를 끊어야 건강해 저요. ·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사랑할 수 있는 법이에요. · 밤이 깊어야 새벽이 온다. · 감기는 잘 쉬어야 빨리 나아요. · 이제 초가집은 민속촌에나 가야 볼 수 있지. · 한국어능력시험에서 4급을 따야 졸업할 수 있어요. ·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어떡해야 내 마음 알겠니? · 외국어는 자꾸 써야 잊어버리지 않아요. · 땀을 흘려 번 돈이어야 함부로 쓰지 못한다.

+ '-어야1)'은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뒤 절의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의

절의 내용이 반드시 필요한 조건임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이다. '술, 담배를 끊어야 건강해져요.'에서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술, 담배를 끊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사랑할 수 있는 법이에요.'에서는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

[도입]

(1)

교사: 여러분 해외여행을 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학생: 여권이에요.

교사: 여권 없이 해외여행을 갈 수 있어요?

학생: 아니요. 못 가요.

교사: 네, 맞아요. 여권이 없으면 해외여행을 갈 수 없어요.

여권이 **있어야** 해외여행을 갈 수 있어요. 꼭 필요한 조건을 말할 때 '-어야'를 써요.

(2)

교사: 수면제를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학생: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야 해요.

교사: 처방전 없이 살 수 있어요?

학생: 아니요. 살 수 없어요.

교사: 네. 맞아요. 처방전이 꼭 필요해요. 수면제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 '-어야'를 도입할 때는 뒤 절의 내용을 이루기 위해 앞의 절의 내용이 반드시 필요한 조건임을 학습자들이 인지할 수 있게 한다.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ㅏ, ㅑ'인 경우 '-아야'를 쓴다.

예) 앓- + -아야 → 앓아야

자- + -아야 → 자야

사- + -아야 → 사야

보- + -아야 → 봐야

아프- + -아야 → 아파야

고프- + -아야 → 고파야

+ 어간 음절이 'ㅏ'로 끝나면 '사야, 자야'로 줄여서 쓴다.

+ 어간 음절이 'ㅑ'로 끝나면 줄여서 '봐야'와 같이 쓴다.

+ 2음절 이상의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ㅡ'일 때는 'ㅡ' 앞의 끝음절 모음에 따라 교체한다. 이때 'ㅡ' 모음은 탈락한다.

② 동사, 형용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ㅏ, ㅑ'가 아닌 경우 '-어야'를 쓴다.

예) 먹- + -어야 → 먹어야

서- + -어야 → 서야

두- + -어야 → 두어야/뒤야

꾸- + -어야 → 꾸어야/꿔야

기쁘- + -어야 → 기뻐야

예쁘- + -어야 → 예뻐야

- 막히- + -어야 → 막히어야/막혀야 마시- + -어야 → 마시어야/마셔야
 보내- + -어야 → 보내어야/보내야 세- + -어야 → 세어야/세야
 있- + -어야 → 있어야 없- + -어야 → 없어야
- + 어간 음절이 'ㄷ'로 끝나면 '서야'로 반드시 줄여서 쓴다.
 + 어간 음절이 'ㅌ'로 끝나면 줄여서 '뒤야, 꺾야'와 같이 쓴다.
 + 2음절 이상의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ㅡ'일 때는 'ㅡ' 앞의 끝음절 모음에 따라 교체한다. 이 때 'ㅡ' 모음은 탈락한다.
 + 어간 음절이 'ㅣ'로 끝나면 흔히 줄여서 '막혀야, 마셔야'와 같이 쓴다. 어간 음절이 'ㅈ, ㅊ'로 끝나면 '보내야, 세야'로 줄여서 쓴다.

③ '-하다'가 붙은 동사, 형용사 어간에는 '-여야'를 쓰는데, 흔히 줄여서 '-해야'로 쓴다.

- 예) 하- + -여야 → 하여야/해야 말하- + -여야 → 말하여야/말해야
 공부하- + -여야 → 공부하여야/공부해야 시작하- + -여야 → 시작하여야/시작해야
 건강하- + -여야 → 건강하여야/건강해야 깨끗하- + -여야 → 깨끗하여야/깨끗해야

①	ㅏ, ㅑ	+ -아야	앉아야, 자야, 사야, 봐야, 아파야, 고파야
②	ㅏ, ㅑ 이외	+ -어야	먹어야, 서야, 뒤야, 꺾야, 기뻐야, 예뻐야, 막혀야, 마셔야, 보내야, 세야, 있어야, 없어야
③	-하다	+ -여야 (-해야)	해야, 말해야, 공부해야, 시작해야, 건강해야, 깨끗해야

④ '이다' 앞의 명사에는 '이어야'가 오는데, 받침이 있으면 '이어야', 받침이 없으면 주로 '명사+여야'라고 쓴다.

- 예) 사람이- + -어야 → 사람이어야 방학이- + -어야 → 방학이어야
 장소이- + -어야 → 장소여야 휴가이- + -어야 → 의사여야
 남자이- + -어야 → 남자여야 아니- + -어야 → 아니어야
- + '이다' 앞의 명사는 말할 때 '-어야'보다 '-라야'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사람이라야', '방학이라야', '장소라야', '휴가라야', '남자라야'처럼 사용할 수 있다.
 + '아니다'의 경우 '아니어야' 대신 '아니라야'를 쓰기도 한다.

⑤ 불규칙

- 걷- 예) 많이 **걸어야** 건강에 좋아요.
 덥- 예) 날씨가 **더워야** 에어컨이 잘 팔려요.
 젖- 예) 밥을 **지어야** 저녁을 먹지.
 빨강- 예) 사과는 **빨개야** 맛있어요.
 부르- 예) 많이 **불러야** 노래 실력이 늘어요.

[문장 구성 정보]

① '-어야 하다', '-어야 되다'의 구성으로 쓰여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거나 어떤 상태로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예) 약을 먹기 전에 꼭 밥을 **먹어야** 해요.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내일까지 **반납해야** 해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매일 운동을 **해야** 됩니다.

② 뒤 절에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 '-을 수 있다'가 자주 쓰인다.

예) 키가 **커야** 농구 선수가 **될 수** 있어요.
욕심을 **버려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요.

③ 과거의 '-었-'과 결합하여 현재의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인 결과로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을 말할 때 사용한다.

예)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합격을 하지요.
지하철을 **탔어야** 늦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갔어야** 결판을 지었을 텐데.

+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실제로는 합격을 못 했다는 것이다. 늦지 않기 위해서는 지하철을 탔어야 했는데 지하철을 타지 않아서 늦었다는 것이다. 결판을 짓기 위해서는 내가 갔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결판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약 정보]

① 미래·추측의 '-겠-'과는 결합하지 않는다.

예)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야** 합격을 할 거예요. (x)
서두르겠어야 지각하지 않을 거예요. (x)

다음 주 금요일까지 **기다리겠어야** 결과가 나와요. (x)

+ 단 '-어야 하-'에 '-겠-'을 붙여 '-어야 하겠-'을 사용하여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상황이 아니면 안 된다고 강한 의지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 주로 축약형인 '-어야겠'을 사용한다.

예) 아이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겠습니다./투자해야겠습니다.**
두통이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좀 **가 봐야 하겠습니다./가 봐야겠어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있어야겠습니다.**

② 뒤 절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없다.

예) 9시가 **돼야** 수업을 시작합니다. (o)
9시가 **돼야** 수업을 시작하십시오. (x)
9시가 **돼야** 수업을 시작합시다. (x)

[확장]

① '-아야' 뒤에 보조사 '만'이 올 수 있다.

예) 사람은 사회를 **이루어야만** 사람답게 살 수 있다.
너는 꼭 화를 **내야만** 말을 듣더라.
소중한 것을 **잃어 봐야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다.

② 연결어미 '-지'와 함께 '-어야지'로 쓰여 필수 조건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다.

- 예) 물을 많이 **마셔야지** 몸속 노폐물이 잘 배출돼요.
가정이 **편안해야지** 사회생활도 잘 할 수 있어요.
숙제를 해 **놓아야지** 마음 편히 놀지.

[유사 문법]

① '-어야1)', '-으면'

-어야1)	-으면
<p>· 조건의 뜻을 나타낸다. 예) 겨울이 가야 봄이 온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p>	
<p>· 앞선 행위나 상태가 뒤 상황에 대한 필수적인 조건임을 나타낸다. 예) 매년 방학이 되어야 여행을 가요. 찬 음식을 먹어야 배가 아파요. (여행을 가려면 반드시 방학이 되어야 하고, 배가 아프려면 반드시 찬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p>	<p>· 앞선 행위나 상태가 뒤의 내용에 대한 조건임을 나타낸다.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조건을 나타낼 때도 사용한다. 예) 매년 방학이 되면 여행을 가요. 찬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파요.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조건을 나타낼 뿐, 여행을 가려면 반드시 방학이 되어야 한다면 배가 아프려면 찬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의미는 가지지 않는다.)</p>
<p>· 뒤 절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없다. 예) 모두 모여야 회의를 시작합니다. (x) 수업이 끝나야 연락 주십시오. (x)</p>	<p>· 뒤 절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있다. 예) 모두 모이면 회의를 시작합니다. (o) 수업이 끝나면 연락 주십시오. (o)</p>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只有 ... 才', '才...'.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 예) 많이 **들어야**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다.
- 只有多听, 发音才能准确.
외국어는 자꾸 **써야** 잊어버리지 않는다.
- 外语得常用, 才能忘不掉.
땀을 흘려 번 **돈이어야** 함부로 쓰지 못한다.
- 血汗钱, 可不能乱花啊.

② 용법과 오류

- '-어야'는 중국어의 접속사 '只有 ... 才'에 대응되며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중국어 접속사의 위치대로 앞 절의 맨 앞과 뒤 절의 주어 뒤에 '-어야'를 표현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 예) 오직 감기는 쉬다**어야** 빨리 나아요. (x)

내 눈으로 직접 보아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x)

한국어시험능력에서 4급을 따다 졸업하여야 수 있어요. (x)

- '-어야'는 '-어야 하다', '-어야 되다'의 구성으로 쓰이지만 중국어는 '只有 ... 才'에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표현에 대응되기 때문에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표현을 혼동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약을 먹기 전에 꼭 여야하다 밥을 먹다. (x)

약속은 반드시 지키다. (x)

건강을 위해서 매일 운동 요구합니다. (x)

- '-어야'는 과거의 '-었-'과 늘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것이 아니지만 '只有 ... 才'는 자연스럽게 앞 절에 과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상이한 표현 차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예) 이제 초가집은 민속촌에 갔어야 볼 수 있다. (x)

술, 담배를 끊었어야 빨리 건강해 저요. (x)

날씨가 더웠어야 에어컨이 잘 팔려요. (x)

- 어야2**: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아무리 가정하여도 뒤 절의 내용에 효과나 영향이 없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예문]

담화 예문	<p>가: 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요. 나: 선풍기 좀 틀까요? 가: 이런 날씨에는 선풍기를 틀어 봐야 더운 바람만 나와요. 나: 그럼 우리 아이스크피라도 한 잔 마시러 가요.</p> <p>가: 선배, 오늘은 제가 밥 살게요. 나: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내가 낼게. 가: 아니에요.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이 있어요. 나: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야 얼마나 벌겠어? 나중에 취직하면 그때 한턱내.</p>
문장 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밤새 울어야 소용없어. · 아무리 돈이 많아야 재벌만큼 많겠어? · 호텔이 아무리 좋아야 자기 집만 하겠어요? · 유진이가 와야 도움도 안 돼요. · 너무 멀어서 여기서 소리쳐 봐야 안 들릴 거야. · 그 사람한테 부탁해 봐야 거절할 게 뻔하지. · 말해 봐야 내 입만 아프지. · 잔소리를 해 봐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걸요. · 이제 와서 사과해야 받아줄 리가 없지.

· 밥도 안 먹고 **일해야**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 '-아야2)'는 앞 절의 내용이 맞는다고 인정한다 해도 그 효과나 영향이 없음을 말할 때 사용한다. 즉 선풍기를 튼다고 해도 더운 바람만 나와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고, 아르바이트로 돈을 번다고 해도 큰돈을 벌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도입]

(1)

교사: 여러분은 후회되는 일이 있어요?

학생: 네.

교사: 어떤 일이 후회가 돼요?

학생: 고등학교 다닐 때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렸는데 지금은 후회가 돼요.

교사: 그래요. 후회가 된다고 그 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학생: 아니요.

교사: 맞아요. 이제 와서 **후회해야**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예요. 앞의 것을 해도 효과나 영향이 없을 때 '-어야'를 써요.

(2)

교사: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알아요?

학생: 네.

교사: 양치기 소년은 어떤 사람이에요?

학생: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교사: 맞아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나도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학생: 평소에 거짓말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교사: 맞아요. 평소에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진실을 **말해 봐야** 믿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 학습자가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모를 경우 간단하게 줄거리를 이야기해 주면서 설명한다. 그림책을 보여 주며 설명하는 것도 좋다.

[형태 정보]

앞의 '-어야1)'을 참고한다.

[문장 구성 정보]

① 흔히 부사 '아무리'와 함께 쓰여 양보의 의미를 강하게 나타낸다.

예) **아무리** **줄라야** 소용없어.
아무리 **후회해 봐야** 되돌릴 수 없어요.
 호텔이 **아무리** **좋아야** 자기 집만 하겠어요?

② 뒤 절에는 항상 부정적인 내용이 온다.

예) 전화를 **걸어야** 받지도 않아요.

밤늦게까지 **일해 봐야**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요.

한국의 겨울이 **추워야** 시베리아만 하겠어요?

+ 한국의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시베리아 보다는 춥지 않다는 내용이므로 부정어가 쓰이지 않았어도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다.

[제약 정보]

① 과거의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호텔이 **좋았어야** 제 집만은 못했어요. (x)

밤새 **울었어야**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x)

용서를 **빌겠어야**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x)

진실을 **말하겠어야** 믿어주는 사람은 없을 걸요. (x)

② 뒤 절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없다.

예) 메일을 **보내야** 읽지도 않습니다. (o)

메일을 **보내야** 읽지 마십시오. (x)

메일을 **보내야** 읽지 맙시다. (x)

[확장]

① '-어야2)'는 흔히 시도를 나타내는 '-어 보-'와 결합하여 사용된다.

예) 너무 늦어서 지금 **가 봐야** 다 끝났을 거예요.

역지로 공부 **시켜 봐야**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양이 적어서 **먹어 봐야** 배가 안 부를 것 같다.

② 수치나 수량을 짐작하여 말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

예) 베이징에서는 **길어야** 사흘 정도 머물 예정이에요.

그 호수의 수심은 **깊어야** 10미터이다.

그는 나이가 **많아야** 스물일곱쯤 돼 보인다.

한 학급에 학생이 적으면 7명, **많아야** 14명 정도예요.

[유사 문법]

① '-어야2)', '-어도'

-어야2)	-어도
· 앞의 내용에 대한 기대가 어긋난다는 뜻을 나타낸다. 예) 이제 와서 후회해야 바뀌는 건 없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바뀌는 건 없어요.	
· 뒤 절에는 주로 부정적인 내용이 온다. 뒤 절에 긍정적인 내용이 올 경우 양보의 의미는 사라지고 조건의 의미를 갖는다.	· 뒤 절에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이 모두 올 수 있다. 예) 아무리 졸라도 꿈쩍도 안 해요.

예) 아무리 줄라야 꿈쩍도 안 해요. 비가 와야 등산을 갈 거예요. 공부를 많이 안 해야 성적이 좋아요.	비가 와도 등산을 갈 거예요.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성적이 좋아요.
---	--

+ '비가 와야 등산을 갈 거예요.'는 비가 오지 않으면 등산을 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등산을 가기 위한 조건으로 비가 와야 함을 의미한다. '공부를 많이 안 해야 성적이 좋아요'도 공부를 많이 안 하면 성적이 좋다는 뜻으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공부를 많이 안 해야 함을 의미한다.

+ '-어야2)'와 '-어도'는 뒤 절의 내용이 기대 또는 예상과 다를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어야2)'의 경우는 앞 절의 내용이 맞다고 인정한다고 해도 효과나 영향이 없음을 나타내므로 뒤 절에 부정적인 내용이 온다. 그러나 '-어도'는 '-어야2)'와 같은 뒤 절 내용의 제약이 없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 ① 대응 표현: '再 ... 也', '也'.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돈이 아무리 **많아야** 재벌만큼 있겠어?
- 你再有**也**比不上那些富豪吧!
밤새 **울어야** 소용이 없어.
- 你哭一晚上**也**没有用.

② 용법과 오류

- '-어야'는 중국어의 접속사 '再 ... 也'에 대응된다.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再'를 한국어 '아무리'로 직역하여 '아무리'를 써야 할 때와 쓰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지 않고 전부 '아무리'를 사용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아래 문장들은 '아무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잘못 사용된 문장들이다.

예) 아무리 전화를 걸어야 받지도 않아요. (x)
아무리 밤새 울어야 소용없어. (x)
이제 와서 아무리 사과해야 받아줄 리가 없지. (x)

- '-어야'는 중국어 '也'에 대응된다.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也'를 '도'로 직역한다든가 혹은 중국어 '也'의 위치에 직접 '-어야'를 대체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말해 보다 소용도 없어. (x)
밥도 안 먹고 일해요. 누가 이해어야지 않아요. (x)
잔소리를 하도 누구도 안 들어요. (x)

3.3.22. '-어야지1'

-어야지1[-아야지/-여야지][연결어미] 필수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어야지1: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앞의 내용이 뒤에 오는 내용의 필수 조건임을 나타낸다. 주로 구어에서 사용한다.

[예문]

담화 예문	<p>가: 다음 주부터 휴가인데 뭐 할 거예요?</p> <p>나: 그냥 집에 있으려고요.</p> <p>가: 왜요? 모처럼 휴가인데 여행이라도 좀 가지 않고.</p> <p>나: 돈이 있어야지 여행을 가죠.</p> <p>가: 영수 씨는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요?</p> <p>나: 한국 남자들은 보통 말로 잘 표현을 안 해요.</p> <p>가: 애정 표현을 해야지 상대방이 알 수 있죠. 표현을 안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p> <p>나: 쑥스러워서 잘 안 하기도 하고 말을 안 해도 마음이 통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p>
문장 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뭘 좀 먹어야지 약을 먹지. · 한국에서 식사할 때는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어야지 먹을 수 있어요. · 폭 쉬어야지 피로가 풀리지. · 겨울에 눈이 많이 와야지 다음 해에 풍년이 든대요. · 많이 봐야지 그림을 보는 안목이 생겨요. · 일을 해야지 먹고살죠. · 제가 어떻게 해야지 아내의 화가 풀릴까요? · 부지런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 키가 크고 날씬해야지 모델이 될 수 있어요. · 평균이 몇 점 이상이어야지 합격이에요?

+ '-어야지1'은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뒤 절의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의 절의 내용이 반드시 필요한 조건임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이다. '일을 해야지 먹고살죠.'에서는 일을 하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고, '뭘 좀 먹어야지 약을 먹지.'에서는 뭘 좀 먹는 것이 약을 먹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다. '-어야지1'보다 필수 조건의 뜻이 좀 더 강하다.

[도입]

<p>(1)</p> <p>교사: (운전 면허증을 보여 주며) 이게 뭐예요?</p> <p>학생: 운전 면허증이요.</p> <p>교사: 운전 면허증이 있으면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운전 면허증이 없어도 운전을 할 수 있어요?</p> <p>학생: 아니요, 운전 면허증이 없으면 운전을 할 수 없어요.</p>
--

교사: 맞아요. 운전을 하려면 운전 면허증이 꼭 필요해요.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지** 운전을 할 수 있어요. 꼭 필요한 조건을 말할 때 '-어야지'를 써요.

(2)

교사: 중학생, 고등학생이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있어요?

학생: 아니요, 못 사요.

교사: 그럼 언제부터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있어요?

학생: 스무 살부터요.

교사: 스무 살이 되지 않으면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없어요.

스무 살이 **돼야지**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있어요.

+ '-어야지'를 도입할 때는 뒤 절의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의 절의 내용이 필수 조건임을 학습자들이 인지할 수 있게 한다.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ㅏ, ㅑ'인 경우 '-아야지'를 쓴다.

예) 찾- + -아야지 → 찾아야지	줍- + -아야지 → 줍아야지
좋- + -아야지 → 좋아야지	가- + -아야지 → 가야지
사- + -아야지 → 사야지	오- + -아야지 → 와야지
바쁘- + -아야지 → 바빠야지	고프- + -아야지 → 고파야지

+ 어간 음절이 'ㅏ'로 끝나면 '가야지, 사야지'로 줄여서 쓴다.

+ 어간 음절이 'ㅑ'로 끝나면 줄여서 '와야지'와 같이 쓴다.

+ 2음절 이상의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ㅡ'일 때는 'ㅡ' 앞의 끝음절 모음에 따라 교체한다. 이 때 'ㅡ' 모음은 탈락한다.

②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ㅓ, ㅕ'가 아닌 경우 '-어야지'를 쓴다.

예) 먹- + -어야지 → 먹어야지	울- + -어야지 → 울어야지
서- + -어야지 → 서야지	두- + -어야지 → 두어야지/뒤야지
슬프- + -어야지 → 슬퍼야지	기쁘- + -어야지 → 기뻐야지
막히- + -어야지 → 막히어야지/막혀야지	마시- + -어야지 → 마시어야지/마셔야지
보내- + -어야지 → 보내어야지/보내야지	세- + -어야지 → 세어야지/세야지
있- + -어야지 → 있어야지	없- + -어야지 → 없어야지

+ 어간 음절이 'ㅓ'로 끝나면 '서야지'로 반드시 줄여서 쓴다.

+ 어간 음절이 'ㅕ'로 끝나면 줄여서 '뒤야지'와 같이 쓴다.

+ 2음절 이상의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ㅡ'일 때는 'ㅡ' 앞의 끝음절 모음에 따라 교체한다. 이 때 'ㅡ' 모음은 탈락한다.

+ 어간 음절이 'ㅣ'로 끝나면 흔히 줄여서 '막혀야지, 마셔야지'와 같이 쓴다. 어간 음절이 'ㅐ, ㅑ'로 끝나면 '보내야지, 세야지'로 줄여서 쓴다.

③ '-하다'가 붙은 동사 및 형용사 어간에는 '-여야지'를 쓰는데, 흔히 줄여서 '해야지'로 쓴다.

예) 하- + -여야지 → 하여야지/해야지
 말하- + -여야지 → 말하여야지/말해야지
 공부하- + -여야지 → 공부하여야지/공부해야지
 사랑하- + -여야지 → 사랑하여야지/사랑해야지
 친절하- + -여야지 → 친절하여야지/친절해야지
 따뜻하- + -여야지 → 따뜻하여야지/따뜻해야지

①	ㅏ, ㅑ	+ -아야지	찾아야지, 줘야지, 좋아야지, 가야지, 사야지, 와야지, 바빠야지, 고파야지
②	ㅏ, ㅑ 이외	+ -어야지	먹어야지, 울어야지, 서야지, 뒤야지, 슬퍼야지, 기뻐야지, 막혀야지, 마셔야지, 보내야지, 세야지, 있어야지, 없어야지
③	-하다	+ -여야지 (-해야지)	해야지, 말해야지, 공부해야지, 사랑해야지, 친절해야지, 따뜻해야지

④ '이다' 앞의 명사에는 '이어야지'가 오는데, 받침이 있으면 '이어야지', 받침이 없으면 주로 '명사+여야지'라고 쓴다.

예) 책이- + -어야지 → 책이어야지 학생이- + -어야지 → 학생이어야지
 채소이- + -어야지 → 채소여야지 의사이- + -어야지 → 의사여야지
 남자이- + -어야지 → 남자여야지 아니- + -어야지 → 아니여야지

+ '이다' 앞의 명사는 말할 때 '-어야지'보다 '-라야지'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책이라야지', '학생이라야지', '채소라야지', '의사라야지', '남자라야지'처럼 사용할 수 있다.
 + '아니다'는 말할 때 '아니여야지'보다 '아니라야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⑤ 불규칙

듣- 예) 여러 번 **들어야지** 기억할 수 있어요.
 चु- 예) 날씨가 **추워야지** 내복 판매량이 늘어요.
 짓- 예) 밥을 **지어야지** 먹죠.
 하얗- 예) 얼굴이 **하얘야지** 분홍색이 잘 어울려요.
 부르- 예) 배가 **불러야지** 그만 먹어요.

[문장 구성 정보]

① '-어야지 되다'의 구성으로 쓰여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거나 어떤 상태로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주로 구어에서 사용한다.

예) 식후 30분 전에 약을 **먹어야지 돼요**.
 은행에서 빌린 돈을 다음 달까지 **갚아야지 돼요**.
 건강을 유지하려면 꾸준히 운동을 **해야지 돼**.

+ '-어야'는 '-어야 하다', '-어야 되다'를 모두 사용하지만 '-어야지'의 경우는 '-어야지 하다'를 쓸 수 없다.

② 뒤 절에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 '-을 수 있다'가 자주 쓰인다.

예)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춰야지** 아이돌 가수가 **될 수 있어요**.

꿈을 크게 **가져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야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③ 과거의 '-었-'과 결합하여 현재의 부정적인 상황이 일어난 것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이야기할 때 사용한다.

예) 뭘 좀 **먹었어야지** 힘을 쓰지요.

더 일찍 **일어났어야지** 늦지 않았을 거예요.

사장님이 **갔어야지** 결판이 났을 텐데.

+ 힘을 쓰기 위해서는 뭘 좀 먹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먹지 못해서 힘을 쓸 수 없었다는 의미이며, 더 일찍 일어났어야지 늦지 않았을 것인데 실제로는 일찍 일어나지 않아서 늦었다는 의미이며, 결판이 나려면 사장님이 갔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사장님이 가지 않아서 결판이 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제약 정보]

① 미래·추측의 '-겠-'과는 결합하지 않는다.

예) 연습을 열심히 **하겠어야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예요. (x)

일찍 **일어나겠어야지** 지각하지 않을 거예요. (x)

다음 주는 **되겠어야지** 검사 결과가 나와요.(x)

② 뒤 절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없다.

예) 10시가 **돼야지** 문을 열어요. (o)

10시가 **돼야지** 문을 여십시오. (x)

10시가 **돼야지** 문을 엽시다. (x)

[확장]

① '-아야지' 뒤에 보조사 '만'이 올 수 있다.

예) 사람은 사회를 **이루어야지만** 사람답게 살 수 있다.

너는 꼭 화를 **내야지만** 말을 듣더라.

소중한 것을 **잃어 봐야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다.

[유사 문법]

① '-어야지', '-으면'

-어야지	-으면
· 조건의 뜻을 나타낸다.	
예) 날씨가 더워야지 에어컨이 잘 팔린다.	
날씨가 더우면 에어컨이 잘 팔린다.	
· 앞선 행위나 상태가 뒤 상황에 대한 필수	· 뒤의 내용에 대한 조건임을 나타낸다. 반

<p>적인 조건임을 나타낸다. 예) 봄이 되어야지 꽃이 피어요. 우유를 먹어야지 배가 아파요. (꽃이 피려면 반드시 봄이 되어야 하고, 배가 아프려면 반드시 우유를 먹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p>	<p>복되는 상황에 대한 조건을 나타낼 때도 사용한다. 예) 봄이 되면 꽃이 피어요. 우유를 먹으면 배가 아파요. (어떤 상황에 대한 조건을 나타낼 뿐, 봄이 되면 자연스럽게 꽃이 피는 것이지 꽃이 피려면 반드시 봄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p>
<p>· 뒤 절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없다. 예) 모두 모여야지 출발합시다. (x) 회의가 끝나야지 연락 주십시오. (x)</p>	<p>· 뒤 절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있다. 예) 모두 모이면 출발합시다. (o) 회의가 끝나면 연락 주십시오. (o)</p>

+ '-어야지'는 '-어야'로 바꾸어도 의미상 차이가 없다. 하지만 '-어야지'가 좀 더 강조적이고 주로 구어에서 사용한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 只有 ... 才, 才.

예) **부지런해야지** 성공을 할 수 있어요.

- 只有勤奋才能成功.

돈이 **있어야지** 여행을 가죠.

- 有钱才能去旅行啊!

② 용법과 오류

- '-어야지 되다'의 구성으로 쓰여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거나 어떤 상태로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때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조동사 '得, 应该+동사'로서 한국어와는 전혀 다른 어순으로 쓴다. 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예) 식후 30분 전에 먹어야지 약을. (x)

선생님께 빌린 돈을 다음 달까지 어야 갚다. (x)

건강하려면 꾸준히 운동을 여야 하다. (x)

- '-어야지1'은 앞 절의 끝에 붙어 사용하지만 중국어는 '才'는 뒤 절의 앞에 붙어서 사용된다. 이런 어순상의 차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예) 많이 보다, 어야지 그림을 보는 안목이 생긴다. 안다. (x)

키가 크고 날씬하다, 모델이 되어야지? (x)

겨울에 눈이 많이 오다어야지 다음 해에 풍년이 들어요. (x)

- '-어야지1'은 과거의 '-었'과 결합하여 사용 가능하지만 중국어 대응 표현은 '了'가 아닌 다른 여러 표현에 대응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예) 먹어야지 좀 뭘 , 힘이 납니다. (x)

더 일찍 일어나어야지 늦지 않을 거예요. (x)

선생님이 가어야지 결판이 났을 건데요. (x)

3.3.23. ‘-었더니’

-었더니[-왔더니/-였더니][연결어미] 과거에 직접 관찰한 사실이나 경험한 것에 이은
1) 반응 2) 발견 3) 결과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었더니1): (동사에 붙어) 과거에 직접 관찰하거나 경험한 행위에 대한 반응을 나타낸다.

[예문]

담화 예문	<p>가: 어쩌다가 손을 다치셨어요? 나: 우리 집 개가 신발을 물고 있길래 빠앗았더니 제 손을 물더라고 요. 가: 많이 아프셨겠어요. 소독은 하셨죠? 나: 그럼요. 바로 소독하고 약 발라서 괜찮아요.</p> <p>(신문 기사) 대도시 초등학교 4~5학년 153명에게 ‘주말에 주로 하는 일’에 대해 물었더니(복수응답), ‘컴퓨터 게임 및 오락’이라는 응답이 68명(2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텔레비전 및 비디오 시청’(52명·17%)이었으며, ‘학습지나 숙제’ ‘친구와 놀기’가 각각 44명(14%)으로 뒤를 이었다. ‘독서’와 ‘운동’은 각각 27명(9%)에 불과했다.</p>
문장 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머리를 짧게 잘랐더니 사람들이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았다. · 내가 재채기를 했더니 수지가 휴지를 건네주었다. · 교수님이 어려운 질문을 했더니 학생들이 고개를 숙이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 여자 친구에게 프러포즈했더니 감동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 제가 잔소리를 좀 했더니 동생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 여자가 ‘불이야’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 게시판에 글을 올렸더니 친구들이 댓글을 많이 달았어요. · 아이가 넘어졌더니 지나가던 학생이 일으켜 줬어요. · 아기에게 자장가를 들려주었더니 스르르 잠이 들었다.

+ ‘-었더니’는 동사에 붙어 과거에 경험하거나 관찰한 완료된 사실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할 때 사용한다. ‘머리를 짧게 잘랐더니 사람들이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았다’는 말하는 사람이 ‘머리를 짧게 자른’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무슨 일 있냐고 물었다)을 이야기하고 있다. ‘내가 재채기를 했더니 수지가 휴지를 건네주었다’도 ‘내가 재채기를 한’ 행동에 대한 수지의 반응(휴지를 건네주었다)을 나타내는 것이다.

[도입]

(1)

교사: 여러분이 어디 가는데 길을 잘 몰라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은 적이 있어요?

학생: 네. / 아니요.

교사: ('네'라고 대답한 학생에게) 줄리아가 길을 **물었더니** 지나가던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학생: 친절하게 대답해 줬어요.

교사: 줄리아가 길을 물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친절하게 대답해 줬어요. 줄리아가 길을 **물었더니** 지나가던 사람이 친절하게 대답해 줬어요. 이렇게 '-었더니'는 과거에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을 이야기할 때 사용해요.

(2)

교사: 인터넷으로 물건을 산 적이 있어요?

학생: 네. / 아니요.

교사: ('네'라고 대답한 학생에게) 무엇을 샀어요?

학생: 구두요.

교사: 얼마 만에 집에 도착했어요?

학생: 하루 만에 도착했어요.

교사: 인터넷으로 구두를 **주문했더니** 하루 만에 도착했어요.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ㅏ, ㅑ'인 경우 '-았더니'를 쓴다.

예) 찾- + -았더니 → 찾았더니	앉- + -았더니 → 앉았더니
가- + -았더니 → 갔더니	타- + -았더니 → 탔더니
오- + -았더니 → 왔더니	보- + -았더니 → 봤더니
담그- + -았더니 → 담갔더니	잠그- + -았더니 → 잠갔더니

+ 어간 음절이 'ㅏ'로 끝나면 '갔더니, 탔더니'로 줄여서 쓴다.

+ 어간 음절이 'ㅑ'로 끝나면 줄여서 '왔더니, 봤더니'와 같이 쓴다.

+ 이음절 이상의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ㅡ'일 때는 'ㅡ' 앞의 끝음절 모음에 따라 교체한다.
이때 'ㅡ' 모음은 탈락한다.

② 동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ㅏ, ㅑ'가 아닌 경우 '-었더니'를 쓴다.

예) 먹- + -었더니 → 먹었더니	울- + -었더니 → 울었더니
서- + -었더니 → 섰더니	두- + -었더니 → 두었더니/뒀더니
쓰- + -었더니 → 썼더니	꼬- + -었더니 → 꺾더니
마시- + -었더니 → 마시었더니/마셨더니	옮기- + -었더니 → 옮기었더니/옮겼더니

보내- +- 었더니 → 보내었더니/보냈더니 세- + -었더니 → 세었더니/셋더니

- + 어간 음절이 'ㄷ'로 끝나면 '셨더니'로 반드시 줄여서 쓴다.
- + 어간 음절이 'ㅌ'로 끝나면 줄여서 '뒀더니'와 같이 쓴다.
- + 이음절 이상의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ㅡ'일 때는 'ㅡ' 앞의 끝음절 모음에 따라 교체한다.
이때 'ㅡ' 모음은 탈락한다.
- + 어간 음절이 'ㄹ'로 끝나면 흔히 줄여서 '마셨더니, 옮겼더니'와 같이 쓴다. 어간 음절이 'ㄹ, ㄱ'로 끝나면 '보냈더니, 썼더니'로 줄여서 쓴다.

③ '-하다'가 붙은 동사 어간에는 '-었더니'를 쓰는데, 흔히 줄여서 '했더니'로 쓴다.

- 예) 하- + -었더니 → 하였더니/했더니
 말하- + -었더니 → 말하였더니/말했더니
 공부하- + -었더니 → 공부하였더니/공부했더니
 대답하- + -었더니 → 대답하였더니/대답했더니
 시작하- + -었더니 → 시작하였더니/시작했더니
 전화하- + -었더니 → 전화하였더니/전화했더니

①	ㅏ, ㅑ	+ -았더니	찾았더니, 앉았더니, 갔더니, 탔더니, 왔더니, 봤더니, 담갔더니, 잠갔더니
②	ㅏ, ㅑ 이외	+ -었더니	먹었더니, 울었더니, 썼더니, 두었더니, 썼더니, 곶더니, 마셨더니, 옮겼더니, 보냈더니, 썼더니
③	-하다	+ -었더니 (-했더니)	했더니, 말했더니, 공부했더니, 대답했더니, 시작했더니, 전화했더니

④ 불규칙

- 견- 예) 텔레비전 출연 후에 길을 **걸었더니** 사람들이 알아보더라고요.
 돕- 예) 선배의 과제를 좀 **도왔더니** 선배가 밥을 사겠다고 하네요.
 짓- 예) 유명 연예인이 시골에 집을 **지었더니**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누르- 예) 초인종을 **눌렀더니** 집주인이 나왔어요.

[문장 구성 정보]

① '었더니'는 간접인용절에 쓰이면 뒤에는 주로 말한 내용에 대한 상대의 반응이 나온다.

- 예) 예쁘다고 **했더니** 여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얼마냐고 **물었더니** 그건 파는 물건이 아니라고 했다.
 아이한테 그만 **올라고 했더니** 더 크게 운다.
 주말에 만나자고 **했더니** 바쁘단다.

[제약 정보]

① 앞 절의 주어와 뒤 절의 주어가 다르며, 주로 앞 절에는 1인칭 주어가 나타난다. 단, 타

인의 행위를 시작부터 끝까지 관찰했을 때는 3인칭 주어를 쓸 수 있다.

- 예) 내가 계산을 **했더니** 선배가 한사코 내 손에 돈을 쥐어주었다.
내가 그녀에게 나이를 **물었더니** 그녀는 비밀이라고 하였다.
선생님이 숙제를 많이 내 **주셨더니** 학생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② 뒤 절에 미래시제가 올 수 없다.

- 예)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더니** 학생들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x)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더니** 학생들이 자리에 앉을 거예요. (x)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더니**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요. (o)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더니** 학생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o)

[확장]

① '-었더니'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조사 '마는'을 결합시켜 '-었더니마는' 또는 '-었더니만'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 예)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따졌더니마는/따졌더니만** 교환해준다고 한다.
연예인이 차에서 **내렸더니마는/내렸더니만** 순식간에 팬들이 몰려들었다.
바빠서 한동안 연락을 **못 했더니마는/했더니만**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就'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됨.

- 예) 내가 재채기를 **했더니** 엄마가 휴지를 건네주었다.
- 我打了一个喷嚏,, 妈妈**就**递给了我手纸.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했더니** 하루 만에 도착했어요.
- 网上定的书, 一天**就**到了.
여자 친구에게 프러포즈를 **했더니** 여자 친구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 我向女朋友求婚, 女朋友感动得留下了眼泪.

② 용법과 오류

- '-었더니'는 과거 표현이지만 중국어 대응 표현은 과거 표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 예)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하다 하루 만에 도착했다. (x)
내가 집에 들어가 어머니는 요리를 했다. (x)
(엄마가) 전화하더니 (이모가) 내일 바쁘다고 했다. (x)

- '-었더니'는 간접인용과 함께 자주 쓰여 말한 내용에 대한 상대의 반응을 나타내지만 중국어 대응 표현은 그런 용법이 없기 때문에 간접인용을 나타내는 '说'를 중국어 어순 그대로 사용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 예) 말하다 예쁘다 얼굴이 빨갛다. (x)
그에게 말하다 주말에 만나자 그가 말했다 바쁘다. (x)

물어 얼마입니까 안 파는 물건이다. (x)

- '-었더니' 형태 정보에서 '-았더니', '-었더니', '-했더니', 불규칙 활용 등에 익숙하지 못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예) 초인종을 누르었더니 주인이 나왔다. (x)
전화하였더니 받는 사람이 없다. (x)
집 생각이 나서 울았더니 눈이 부었다. (x)

-었더니2): (동사에 붙어) 과거에 직접 경험한 것에 이어 알게 된 사실을 나타낸다.

[예문]

담화 예문	<p>가: 모임에 마이클 씨도 온대요? 나: 잘 모르겠어요. 아까 전화했더니 안 받더라고요. 가: 마이클 씨가 와야 재미있는데. 나: 이따가 한 번 더 전화해 볼게요.</p> <p>가: 여보세요? 선희 씨, 오늘 세미나 203호 강의실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203호에 갔더니 아무도 없던데요. 나: 강의실이 203호에서 305호로 바뀌었어요. 가: 그래요? 왜 저한테는 연락을 안 해 주셨어요? 나: 메일 보냈는데 확인 안 하셨어요? 아무튼 이제 세미나 시작하니까 빨리 오세요.</p>
문장 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꼭지를 틀었더니 누런 물이 나왔다. · 값을 치르려고 지갑을 열었더니 천 원짜리 지폐 한 장밖에 없었다. · 경찰이 연예인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잡았더니 초등학교 이었다. · 시계를 봤더니 벌써 12시다. · 유명한 맛집을 찾아갔더니 정기 휴일이었다. · 오랜만에 조카를 만났더니 몰라보게 예뻐졌어요. ·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저녁밥을 짓고 계셨다. · 텔레비전을 켰더니 올림픽 개막식을 방송하고 있었다. · 아침에 일어났더니 가족들은 모두 나가고 아무도 없었다. · 뒤를 돌아보았더니 어머니가 아직도 서 계시는 것이었다.

- + '-더니2)'는 동사에 붙어 과거에 직접 어떤 행동을 하고 그로 인해 알게 된 사실을 이야기할 때 사용한다. '수도꼭지를 틀었더니 누런 물이 나왔다.'는 '수도꼭지를 트는'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누런 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값을 치르려고 지갑을 열었더니 천 원짜리 지폐 한 장밖에 없었다'는 '지갑을 여는' 행위를 한 후에 '천 원짜리 지폐 한 장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도입]

(1)

교사: 동대문 시장에 가 본 적이 있어요?

학생: 네. / 아니요.

교사: ('네'라고 대답한 학생에게) 어땠어요?

학생: 예쁘고 싼 옷이 많았어요.

교사: 그럴 때 '동대문 시장에 **갔더니** 예쁘고 싼 옷이 많았어요.'라고 말해요. 과거에 직접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후에 알게 된 사실을 이야기할 때 '-었더니'를 사용해요.

(2)

교사: 여러분 순대 먹어 봤어요?

학생: 네. / 아니요.

교사: ('네'라고 대답한 학생에게) 어땠어요?

학생: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교사: 그럴 때 '순대를 **먹어 봤더니** 생각보다 맛있었어요.'라고 말해요.

[형태 정보]

앞의 '-었더니1)'을 참고한다.

[문장 구성 정보]

① '-어 보다'와 결합하여 '-어 봤더니'의 형태로 자주 사용한다.

예) 소포가 와서 **열어 봤더니** 먹을거리들이 한가득 들어 있었어요.

배가 아파서 **만져 봤더니** 차갑더라고요.

그 가수의 신곡을 **들어 봤더니** 좋던데요.

수돗물을 생수와 **비교해 봤더니** 물맛은 수돗물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 '-어 보다'는 경험, 시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경험이나 시도로 인해 알게 된 것을 표현하기 위해 '었더니2)'와 자주 함께 쓰인다.

[제약 정보]

① 앞 절의 주어와 뒤 절의 주어가 다르며, 주로 앞 절에는 1인칭 주어가 나타난다. 단, 타인의 행위를 시작부터 끝까지 관찰했을 때는 3인칭 주어를 쓸 수 있다.

예) (내가) 무심코 창문을 **봤더니** 둥근 보름달이 떠 있었다.

(내가) 오랜만에 고향에 **갔더니** (고향이) 몰라보게 변해 있었다.

(내가) 일찍 **출근했더니** 아주머니들이 청소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창문을 **열었더니** 벌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② 뒤 절에 미래시제가 올 수 없다.

- 예)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요리를 하겠습니다. (x)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요리를 할 거예요. (x)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요리를 해요. (o)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o)

[확장]

- ① '-었더니'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조사 '마는'을 결합시켜 '-었더니마는' 또는 '-었더니만'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 예) 다리가 아파서 **봤더니마는/봤더니만** 멍이 들어 있었다.
초인종이 울려서 **나갔더니마는/나갔더니만** 아무도 없었다.
잠결에 눈을 **떴더니마는/떴더니만** 벽시계가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 ① 대응 표현: '一看, 一下'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됨.

- 예) 아침에 **일어났더니** 가족들은 모두 나가고 아무도 없었다.
- 早上起来一看, 家人都早已出去, 就剩我自己了.
순대를 **먹어 봤더니**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 尝了一下米肠, 比想象得好吃.
텔레비전을 **켰더니**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상영하고 있었다.
- 打开电视, 正好演我喜欢的电影.

- ② 용법과 오류

- '-었더니'는 과거 표현이지만 중국어 대응 표현은 과거 표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 예) 수도꼭지를 **틀다** 누른 물이 나왔다. (x)
시계를 **보다** 벌써 12시다. (x)
아침에 **일어나다** 가족들은 모두 나갔다. (x)

- '-었더니'는 중국어 '一看'에 대응되어 과거에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나타낸다.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중국어를 직역하여 표현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 예) 유명한 맛집을 찾아 **한번 보니** 정기 휴일이었다. (x)
텔레비전을 켜 **한번 보니** 뉴스를 하고 있었다. (x)
머리를 돌아 **한번 보니** 어머니가 아직 서 있었다. (x)

- '-었더니'는 중국어 '一下'에 대응되어 과거에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나타낸다.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중국어를 그대로 직역하여 표현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 예) 순대를 맛보니 **한번** 맛있다. (x) (尝了一下米肠, 真的很好吃.)
무심코 창문을 보다 **한번** 둥근 보름달이 떠 있었다. (x)
(无意间望了一下窗外, 一轮明月挂在天上.)

방 안을 쳐다 보다 **한번** 사람이 짝 차 있었다. (x)

- '-었더니' 형태 정보에서 '-았더니', '-었더니', '-했더니', 불규칙 활용 등에 익숙하지 못하여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예) 배가 아파서 **만져바았더니** 차갑더라고요. (x)

오랜만에 조카를 **만나었더니** 예뻐졌다. (x)

얼마냐고 **물어했더니** 다 팔렸다고 했다. (x)

-었더니3): (동사에 붙어) 과거에 직접 관찰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다.

[예문]

담화 예문	<p>가: 아, 배고프다. 마이클 씨, 우리 점심 먹으러 가요. 나: 네, 좋아요. 뭐 먹을까요? 가: 마이클 씨는 불고기를 좋아한다고 했죠? 불고기 먹으러 갈까요? 나: 오늘은 다른 거 먹어요. 며칠 동안 계속 불고기를 먹었더니 질렸어요. 가: 유진 씨, 얼굴이 좀 부은 것 같아요. 나: 어젯밤에 라면을 끓여 먹고 잤더니 얼굴이 부었어요. 티가 많이 나요? 가: 그럴 때는 차가운 녹차 티백을 얼굴에 올려놓거나 차가운 손가락으로 마사지를 해 주면 붓기가 금방 빠져요. 나: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p>
문장 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몇 시간 동안 수다를 떨었더니 배고파요. · 너무 바빠서 하루 종일 굴었더니 속이 쓰려요. · 커피를 많이 마셨더니 잠이 안 오네요. · 며칠 잠을 섰더니 피곤해요. · 오랜만에 운동을 했더니 몸이 쑸다. · 야외 수영장에서 장시간 햇빛을 쬘었더니 피부가 빨강게 되었다. · 조카가 휴대 전화를 떨어뜨렸더니 액정이 깨졌어요. · 고깃집에서 회식을 했더니 온몸에 냄새가 났어요. · 한동안 집안일에 신경을 못 썼더니 집안이 엉망이에요. · 깜빡하고 펜 뚜껑을 닫지 않았더니 잉크가 다 말라서 안 나와요.

+ '-었더니3)'은 말하는 사람이 과거에 관찰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결과를 말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몇 시간 동안 수다를 떨었더니 배고파요'는 말하는 사람이 '몇 시간 동안 수다를 떨었고' 그 때문에 '배고프다'는 것이다. '너무 바빠서 하루 종일 굴었더니 속이 쓰려요'는 말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굴었고' 그 때문에 '속이 쓰리다'는 것이다.

[도입]

(1)

교사: 여러분은 우유를 마시기 전에 유통 기한을 잘 확인해요?

학생: 네./ 아니요.

교사: 선생님이 지난번에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시고 날짜를 보니까 일주일이나 지났더라고요. 그 후에 선생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학생: 배탈이 났어요.

교사: 네, 맞았어요. '날짜 지난 우유를 **먹었더니** 배탈이 났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과거에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할 때 '-었더니'를 써요.

(2)

교사: 숙제를 안 해 간 적이 있어요?

학생: 네./ 아니요.

교사: ('네'라고 대답한 학생에게)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학생: 수업 후에 남아서 숙제하라고 하셨어요.

교사: 그럴 때 '숙제를 안 해 **갔더니** 선생님께서 수업 후에 남아서 숙제하라고 하셨어요.'라고 말해요.

[형태 정보]

앞의 '-었더니1)'을 참고한다.

[제약 정보]

- ① 주로 앞 절에는 1인칭 주어가 나타난다. 단, 타인의 행위를 시작부터 끝까지 관찰했을 때는 3인칭 주어를 쓸 수 있다.

예) (내가) 아침을 안 **먹었더니** 배가 고파요.

(내가) 꾸준히 운동을 **했더니** 살이 쏙 빠졌어요.

동생이 컴퓨터에 물을 **쏟았더니** 컴퓨터 전원이 안 들어와요.

+ 뒤 절에 심리나 감각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오는 경우 앞 절에는 주로 1인칭 주어가 온다.

예) (내가) 남자 친구하고 **헤어졌더니** 너무 슬퍼요.

(내가) 어제 술을 많이 **마셨더니** 머리가 아파요.

(내가) 동창을 오랜만에 **만났더니** 정말 반갑더라고요.

- ② 뒤 절에 미래시제가 올 수 없다. 주로 과거 시제가 온다.

예) 밤을 **샀더니** 과제를 다 끝내겠습니다. (x)

밤을 **샀더니** 과제를 다 끝낼 거예요. (x)

밤을 **샀더니** 과제를 다 끝냈어요. (o)

③ 뒤 절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이 올 수 없다.

- 예) 술을 많이 **마셨더니** 물을 많이 드세요. (x)
 어제 늦게까지 **일했더니**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x)
 술을 많이 **마셨더니** 같이 해장국 먹으러 갑시다. (x)
 어제 늦게까지 **일했더니** 오늘은 일찍 들어갑시다. (x)

[확장]

① '-었더니'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조사 '마는'을 결합시켜 '-었더니마는' 또는 '-었더니만'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 예) 날짜 지난 우유를 **먹었더니마는/먹었더니만** 배탈이 났어요.
 에어컨을 켜 놓고 **자았더니마는/자았더니만** 감기에 걸렸어요.
 열심히 **공부했더니마는/공부했더니만** 성적이 쑥 올랐어요.

[유사 문법]

① '-었더니3)', '-어서2)'

-었더니3)	-어서2)
·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에 대한 이유나 원인, 근거를 나타낸다.	
<p>· 앞 절에 과거 또는 완료를 나타내는 '-었-'과 함께 사용한다.</p> <p>예) (제가) 날짜 지난 우유를 먹었더니 배탈이 났어요. (제가) 오랜만에 운동을 했더니 몸이 쑥셔요.</p>	<p>· 앞 절에 과거 또는 완료를 나타내는 '-었-'을 사용할 수 없다.</p> <p>예) 날짜 지난 우유를 마셔서 배탈이 났어요. 오랜만에 운동을 해서 몸이 쑥셔요.</p>
<p>· 앞 절에 주로 1인칭 주어가 나타난다.</p> <p>예) (제가) 날짜 지난 우유를 먹었더니 배탈이 났어요. (o) 동생이 날짜 지난 우유를 먹었더니 배탈이 났어요. (x) (제가) 여러 번 그 노래를 들었더니 가사를 다 외웠어요. (o) 동생이 여러 번 그 노래를 들었더니 가사를 다 외웠어요. (x) 네가 늦었더니 영화를 못 봤어. (x)</p>	<p>· 주어의 인칭 제약이 거의 없다.</p> <p>예) (제가) 날짜 지난 우유를 먹어서 배탈이 났어요. (o) 동생이 날짜 지난 우유를 먹어서 배탈이 났어요. (o) (제가) 여러 번 그 노래를 들어서 가사를 다 외웠어요. (o) 동생이 여러 번 그 노래를 들어서 가사를 다 외웠어요. (o) 네가 늦어서 영화를 못 봤어. (o)</p>
· '미안하다, 죄송하다, 반갑다, 고맙다, 감사	· '미안하다, 죄송하다, 반갑다, 고맙다, 감사

<p>하다' 등과 어울려 자주 쓰이는 인사말처럼 관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p> <p>예) 만났더니 반가워요. (x)</p> <p>도와주셨더니 감사합니다. (x)</p>	<p>하다' 등과 어울려 자주 쓰이는 인사말처럼 관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p> <p>예) 만나서 반가웠어요. (o)</p> <p>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o)</p>
--	---

② '-었더니3)', '-으므로'

-었더니3)	-으므로
--------	------

·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에 대한 이유나 원인, 근거를 나타낸다.

<p>· 격식적인 상황이나 글보다는 주로 구어에서 사용한다.</p> <p>예) 결혼을 했더니 제 시간이 너무 없더라고요.</p> <p>선크림을 발랐더니 피부가 잘 안 타던데요.</p>	<p>· 일반적인 대화보다는 주로 격식적인 상황이나 문어에서 사용한다.</p> <p>예) 성적이 우수하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p> <p>그 친구는 열심히 노력하므로 곧 한국어 실력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p>· 앞 절에 주로 1인칭 주어가 나타난다.</p> <p>예) (제가) 날짜 지난 우유를 먹었더니 배탈이 났어요. (o)</p> <p>동생이 날짜 지난 우유를 먹었더니 배탈이 났어요. (x)</p> <p>(제가) 여러 번 그 노래를 들었더니 가사를 다 외웠어요. (o)</p> <p>동생이 여러 번 그 노래를 들었더니 가사를 다 외웠어요. (x)</p> <p>네가 늦었더니 영화를 못 봤어. (x)</p>	<p>· 주어의 인칭 제약이 거의 없다.</p> <p>예) (제가) 날짜 지난 우유를 먹었으므로 배탈이 났다. (o)</p> <p>동생이 날짜 지난 우유를 먹었으므로 배탈이 났다. (o)</p> <p>(제가) 여러 번 그 노래를 들었으므로 가사를 다 외웠다. (o)</p> <p>동생이 여러 번 그 노래를 들었으므로 가사를 다 외웠다. (o)</p> <p>네가 늦었으므로 영화를 볼 수 없다. (o)</p>
<p>· 뒤 절에 미래시제가 올 수 없다.</p> <p>예) 성적이 올랐더니 학교에서 상을 주었다. (o)</p> <p>성적이 올랐더니 학교에서 상을 주겠다. (x)</p> <p>성적이 올랐더니 학교에서 상을 줄 것이다. (x)</p>	<p>· 뒤 절에 미래시제가 올 수 있다.</p> <p>예) 성적이 올랐으므로 학교에서 상을 주었다. (o)</p> <p>성적이 올랐으므로 학교에서 상을 주겠다. (o)</p> <p>성적이 올랐으므로 학교에서 상을 줄 것이다. (o)</p>

③ '-었더니3)', '-으니'

-었더니3)	-으니
·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에 대한 이유나 원인, 근거를 나타낸다.	
<p>· 앞 절에 주로 1인칭 주어가 나타난다.</p> <p>예) (제가) 날짜 지난 우유를 먹었더니 배탈이 났죠. (o) 동생이 날짜 지난 우유를 먹었더니 배탈이 났죠. (x) (제가) 여러 번 그 노래를 들었더니 가사를 다 외웠죠. (o) 동생이 여러 번 그 노래를 들었더니 가사를 다 외웠죠. (x) 네가 늦었더니 영화를 못 봤죠. (x)</p>	<p>· 주어의 인칭 제약이 거의 없다.</p> <p>예) (제가) 날짜 지난 우유를 먹었으니 배탈이 났죠. (o) 동생이 날짜 지난 우유를 먹었으니 배탈이 났죠. (o) (제가) 여러 번 그 노래를 들었으니 가사를 다 외웠죠. (o) 동생이 여러 번 그 노래를 들었으니 가사를 다 외웠죠. (o) 네가 늦었으니 영화를 못 봤죠. (o)</p>
<p>· 뒤 절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없다.</p> <p>예) 어제 술을 많이 마셨더니 머리가 아프죠. (o) 어제 술을 많이 마셨더니 물을 많이 드세요. (x) 어제 술을 많이 마셨더니 해장국 먹으러 갑시다. (x)</p>	<p>· 뒤 절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있다.</p> <p>예) 어제 술을 많이 마셨으니 머리가 아프죠. (o) 어제 술을 많이 마셨으니 물을 많이 드세요. (o) 어제 술을 많이 마셨으니 해장국 먹으러 갑시다. (o)</p>
<p>· 뒤 절에 미래시제가 올 수 없다.</p> <p>예) 성적이 올랐더니 학교에서 상을 주었다. (o) 성적이 올랐더니 학교에서 상을 주겠다. (x) 성적이 올랐더니 학교에서 상을 줄 것이다. (x)</p>	<p>· 뒤 절에 미래시제가 올 수 있다.</p> <p>예) 성적이 올랐으니 학교에서 상을 주었다. (o) 성적이 올랐으니 학교에서 상을 주겠다. (o) 성적이 올랐으니 학교에서 상을 줄 것이다. (o)</p>

[중국어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대응 표현 없음.

예) 커피를 많이 **마셨더니** 잠이 안 오네요.

- 喝了很多咖啡, 失眠了.

며칠 잠을 **설쳤더니** 피곤하네요.

- 好几天没睡好觉, 好累.

너무 바빠서 하루 종일 **굶었더니** 속이 쓰리네요.

- 实在太忙, 饿了一天了, 胃都难受.

② 용법과 오류

- '-었더니'는 '-니까', '-으므로' 등 표현과 혼동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고깃집에서 회식을 하니까 온몸에 냄새가 났어요. (x)

결혼을 함으로 시간이 없다. (x)

하루종일 굶으므로 힘이 없네요. (x)

- '-었더니' 형태 정보에서 '-았더니', '-었더니', '-했더니', 불규칙 활용 등에 익숙하지 못하여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예) 오랜만에 운동을 하았더니 몸이 쑤신다. (x)

술뚜껑을 닫지 않아더니 음식이 상했다. (x)

전화를 떨구었더니 액정이 깨졌어요. (x)

3.3.24. '-으나'

-으나[-나][연결어미] 앞 절이 뒤 절과 반대되는 내용임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 으나: (동사,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앞 절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뒤 절에서 말할 때 사용한다. 주로 문어에서 더 많이 쓴다.

[예문]

담화 예문	<p>(공적 인터뷰)</p> <p>가: 저희 고려기획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p> <p>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광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려기획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p> <p>가: 그래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저희 회사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p> <p>나: 감성을 자극하는 광고가 많이 소비자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으나 음료 광고나 식료품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p> <p>(수필)</p> <p>곁에 가까이 두고 사귀는 사람, 오래두고 가까이 교류하는 사람이 바로 친구이다. 친구란 상대의 환경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늘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다.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좋은 일이 있더라도 늘 함께 하는 인생의 동지이다. 자신의 삶도 힘드나 상대에게 내색하지 않고 조건 없이</p>
-------	---

	도울 수 있는 사람이며 상대의 행복을 질투나 시기심 없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문장 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은 내리나 그리 춥지 않다. · 어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으나 반갑지가 않았다. · 철수는 키는 작으나 믿음직하다. · 어제는 날씨가 좋았으나 오늘은 날씨가 흐리다. · 동생은 노래를 잘 부르나 저는 잘 부르지 못합니다. · 오늘은 새벽까지 공부하겠으나 내일은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다. · 대학 합격 소식을 들었으나 기쁘지 않았습니다. · 그 모임에는 가기 싫으나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 수지는 내 친구이나 그를 믿지 않습니다. · 아내는 직장인이나 나는 아직 학생입니다.

+ '눈이 내리나 그리 춥지 않다.'는 눈이 내리는 것을 말하고 눈이 내리면 추울 것을 예상하지만 그것과 반대로 춥지 않다는 내용이 연결되고 있다. 또한 '어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으나 반갑지가 않았다.'에서는 동창을 오랜만에 만나면 응당 반가워야 하나 그와 반대로 반갑지가 않음을 대조하여 말하고 있다. 모두 의미상의 큰 차이가 없이 '-지만'과 바꾸어 쓸 수 있다.

[도입]

(1)

교사: (가족사진을 보여 주며)

선생님 가족사진이에요. 제 동생이에요. 누구 닮았어요?

학생: 아버지, 어머니.

교사: 동생은 아버지를 닮았어요. 선생님은 누구 닮은 것 같아요?

학생: 어머니, 아버지.

교사: 맞아요. 저는 어머니를 닮았어요. 저는 어머니를 **닮았으나** 동생은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지만'하고 비슷한 의미로, 글을 쓸 때 발표를 하거나 토론할 때 '-으나'를 많이 써요.

(2)

교사: (학생 식당의 오늘의 메뉴 보여 주며)

학생 식당 음식은 맛있어요?

학생: 아니요. 맛이 없어요.

교사: 네, 비싸요?

학생: 아니요, 비싸지는 않아요.

교사: 맞아요. 학생 식당 음식은 **싸나** 맛이 없습니다. '-으나'는 '-지만'하고 비슷한 의미입니다. '-으나'는 신문이나 소설처럼 '-다', 인터뷰처럼 '-습니다'와 함께 주로 쓰입니다. '그 식당은 맛은 없지만 음식 값이 싸요.'는 '그 식당은 맛은 **없으나** 음식 값이 싸입니다.'처럼 쓸 수 있어요. 바꿔 보세요. '김치는 맵지만'

맛있어요.’

학생: 김치는 **매우나** 맛있습니다.

교사: 좋아요. 인터뷰나 발표할 때, 글을 쓸 때 ‘-으나’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 ‘-으나’의 여러 의미 중에서 앞 절과 뒤 절의 내용이 대조됨 혹은 반대됨을 들어 의미를 주는 것이 학습자를 쉽게 이해시킬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만’이 들어간 문장으로 도입해 볼 수 있다.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으나’를 쓴다.

예) 먹- + -으나 → 먹으나 읽- + -으나 → 읽으나
 입- + -으나 → 입으나 앉- + -으나 → 앉으나
 있- + -으나 → 있으나 없- + -으나 → 없으나

②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나’를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가- + -나 → 가나 보- + -나 → 보나
 사- + -나 → 사나 쉬- + -나 → 쉬나
 살- + -나 → 사나 만들- + -나 → 만드나
 멀- + -나 → 머나 길- + -나 → 기나

+ ‘-으나’는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 특히 ‘ㄹ’ 받침으로 끝나는 경우는 ‘ㄹ’이 탈락하고 ‘-나’가 결합함에 주의한다.

①	받침 o	+ -으나	먹으나, 읽으나, 입으나, 앉으나
②	받침 x	+ -나	가나, 보나, 사나, 쉬나
	ㄹ 받침	+ -나 (어간 ‘ㄹ’ 탈락)	사나, 만드나, 머나, 기나

③ ‘이다, 아니다’는 ‘-나’를 쓴다. 단,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주로 ‘명사+-나’라고 쓴다.

예) 여름이- + -나 → 여름이나 학생이- + -나 → 학생이나
 친구이- + -나 → 친구이나/친구나 편지이- + -나 → 편지이나/편지나
 아니- + -나 → 아니나

④ 불규칙

건- 예) 어두운 산 속을 **걸으나** 무섭지 않다.
 덥- 예) 수지는 날씨가 **더우나** 뜨거운 커피를 시켰다.
 짓- 예) 철수가 미소를 **지으나** 기분이 좋은 것 같지는 않다.
 하얗- 예) 민준이는 얼굴은 **하야나** 건강한 편이다.

[문장 구성 정보]

- ① '-으나'는 문어에 사용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예) 여름이나 덥지 않았다.

여름이나 덥지 않아요. (??)

동생은 키가 작으나 나는 키가 크다.

동생은 키가 작으나 저는 키가 커요. (??)

[제약 정보]

- ① 과거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한다.

예) 이 식당은 가격은 비싸나 맛은 하나도 없다. (o)

비가 왔으나 우리 학교는 운동회를 했다. (o)

오늘은 참겠으나 다음에는 참지 않을 것이다. (o)

[확장]

- ① 서로 반대되는 동사나 형용사를 함께 반복하여 사용하여 어떤 경우에도 결과나 행동이 동일함을 나타낸다. 구어에서 자주 사용된다.

예) 앓으나 서나 당신 생각.

싫으나 좋으나 우리는 일을 함께 해야 해.

들으나 마나 한 이야기는 그만 하세요.

+ '앓으나 서나'는 서로 반대되는 동사를 '-으나'로 연결하여 '앓아도 당신을 생각하며 서도 당신을 생각한다'는 의미로 어떻게 있든 결과는 동일함을 드러낸다. '들으나 마나'처럼 동사나 형용사 뒤에 동사 '말다'의 활용형 '마나'가 사용되어 동일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 ② '어디, 어느, 누구, 무엇' 등과 함께 쓰여 어느 경우에도 마찬가지임을 나타낸다. 구어에서 자주 사용한다.

예) 여름에는 어디를 가나 더워요.

그 식당에서는 뭘 먹으나 맛이 없다.

세계 어느 도시를 가나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

[유사 문법]

- ① '-으나', '-지만'

-으나	-지만
· 앞 절과 뒤 절의 내용이 대조됨을 나타낸다.	
예) 저는 키가 크지만 동생은 키가 작아요.	
저는 키가 크나 동생은 키가 작습니다.	
· 반대되는 의미뿐만 아니라 앞 내용을 인정하면서 그것에 조건이나 다른 내용을 덧붙여 말함을 나타낸다.	
예) 참외 맛도 좋으나 수박 맛은 더 좋다.	
수지는 공부도 잘하지만 성격이 아주 좋아요.	

<p>· 주로 문어, 격식적 구어에 사용된다.</p> <p>예) 나는 수학은 잘하나 영어는 못해요. (??) 친구는 수학은 잘하나 영어는 못한다. (o)</p>	<p>· 문어와 구어에 모두 쓰인다.</p> <p>예) 저는 수학은 잘하지만 영어는 못해요. (o) 친구는 수학은 잘하지만 영어는 못한다. (o)</p>
<p>·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등과 같은 관용적 용법이 없다.</p> <p>예) 미안하나 그 책 좀 나한테 줘. (x) 죄송하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x) 실례이나 지금 어디 계세요? (x)</p>	<p>· ‘미안하다, 죄송하다, 실례하다’ 등에 붙어, 부탁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상황에서 관용적으로 쓰인다.</p> <p>예) 미안하지만 그 책 좀 나한테 줘. 죄송하지만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실례지만 지금 어디 계세요? 바쁘시겠지만 같이 좀 갑시다.</p>
<p>· 반복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용법이 있다.</p> <p>예) 앓으나 서나 당신 생각. (o) 예) 하나 마나 한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o)</p>	<p>· 반복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용법이 없다.</p> <p>예) 앓지만 서지만 당신 생각. (x) 예) 하나 마나 한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x)</p>

+ ‘-으나’와 ‘-지만’은 앞 절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뒤 절에 이어서 말할 때 사용한다. 주로 ‘-으나’는 문어나 격식적 구어에 사용되며 ‘-지만’은 문어나 구어에 상관없이 자주 사용된다. 특히 ‘-지만’은 앞 절의 내용을 인정하면서 그것에 다른 내용을 덧붙일 때 사용한다는 점에서 ‘-으나’와 차이를 보인다.

② ‘-으나’, ‘-는데2’

-는데2	-으나
<p>· 앞의 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이야기가 이어짐을 나타낸다.</p> <p>예) 날씨가 나쁜데 사람들이 등산을 간다. 날씨가 나쁘나 사람들이 등산을 간다.</p>	
<p>· 앞 절은 뒤 절의 배경 상황이 되며, 대립되는 배경 상황 제시의 의미를 가진다.</p> <p>예) 수지 씨는 수영을 좋아하는데 잘하지 못해요.</p>	<p>· 앞 절과 뒤 절의 내용이 대등하며, 대립의 의미를 가진다.</p> <p>예) 수지 씨는 쇼핑을 좋아하나 샤오잉 씨는 안 좋아해요.</p>
<p>· 비교적 중립적 연결 기능을 담당하는 연결 어미로서 ‘-으나’보다 ‘대립’의 의미가 약하다. 따라서 뒤 절이 생략되면 대립의 의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p> <p>예)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을 잘 못 봤</p>	<p>· ‘대립’의 의미를 이미 가지고 있는 연결 어미로서 뒤 절이 생략되어도 대립되는 결과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p> <p>예) 열심히 공부했으나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열심히 공부했으나..... (시험을 잘 못 봤어요.)</p>

어요/ 시험이 취소됐어요/ 시험 문제가 잘못 나왔어요.....)	
--	--

+ '-으나'와 '-는데2)'는 반대되거나 대조되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는데2)'의 기본적인 용법은 배경에 대한 제시이므로 앞 절과 뒤 절이 대등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앞 절이 뒤 절의 상황이나 진술의 배경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략되면 뒤의 내용을 하나로 명확히 찾아내지 못하고 다양하게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반면 '-으나'는 대립의 의미를 잘 드러내므로 뒤 절이 생략이 되어도 쉽게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虽然)...但(是), 可(是), 只是 .

예) 눈은 내리나 그리 춥지 않아요.

- 虽然下雪, 但是没有那么冷.

- 下雪, 但没那么冷.

아내는 직장인이나 나는 아직 학생입니다.

- 我爱人有工作, 可(是)我还是学生.

그 사람은 내 남편이나 나는 그를 별로 믿지 않습니다.

- 他是我的老公, 只是我不怎么相信他.

② 용법과 오류

- '-으나'는 반대되는 의미만을 나타내며 앞 내용을 인정하거나 다른 내용을 덧붙인다는 의미는 없다. 그러나 중국어 '但是'는 다른 내용을 덧붙이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중국어와의 상이한 대응관계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예) 너는 참 잘 생겼으나 나는 더 잘 생겼다. (x)

너 영어를 잘하나 나는 너보다 더 잘 한다. (x)

어제는 날씨가 추웠으나 오늘은 더 춥다. (x)

- '-으나'에 가장 많이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但(是)'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但(是)'의 사용 위치를 그대로 한국어에 옮겨 온다던가 혹은 '그러나'를 사용하여 두 절로 표현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저는 어머니를 닮았고 동생은 아버지를 닮았으나. (x)

학생 식당 음식은 싸다. 그러나 맛이 없습니다. (x)

김치는 매워나 그러나 맛있습니다. (x)

- '-으나'는 '어디, 어느, 누구, 무엇' 등과 함께 쓰여 어느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낸다. 그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 '不管'은 전혀 전환관계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여름에는 상관안하고 어디 가나 덥다. (x)

그 식당은 부관 멀 먹어도 맛이 없다. (x)

세계 어느 도시 가도 상관 안 해요 다 비슷해요. (x)

3.3.25. ‘-으니2’

-으니2[-니][연결어미] 1) 이유나 근거 2) 발견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니1):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앞 절의 내용이 뒤 절의 내용에 대한 이유나 원인, 판단의 근거임을 나타낸다. 앞 절에 나타난 이유나 원인으로 인해 뒤 절에 그에 따른 결과나 판단이 나오게 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어, 비가 와요. 나: 그래요? 야외 음악회가 취소되겠죠? 가: 아마 비가 오니 취소될 것 같아요. 나: 아쉽네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공연인데. 가: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겠죠.</p> <p>가: 언제쯤 들어올 거야? 나: 한 6시쯤 올 것 같아요. 가: 식당에 6시로 예약을 해 두었으니 늦지 마. 나: 알겠어요. 어머니.</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이 되니 모기가 많아졌다. · 이 음식은 맛이 없으니 다른 음식을 시켰다. · 민준 씨는 부지런하니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 그렇게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었으니 배탈이 나지. · 그 영화는 무서우니 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 · 바람이 심하게 부니 창문을 좀 닫지 그러니? · 오랜만에 영화를 보니 정말 재미있었다. · 재미있게 놀다 보니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 친구와 약속이 있으니 다음에 같이 식사합시다. · 육류보다는 채소가 좋다고 하니 야채를 많이 먹어야겠다.

+ ‘-으니1’)은 앞 절의 동작이나 상황이 일어나거나 어떤 상태로 인하여 뒤의 상황이 일어나게 될 때 사용하는 연결어미이다. ‘여름이 되다’, ‘이 음식이 맛이 없다’와 같이 이유나 원인이 먼저 제시되면서 뒤 절에 ‘모기가 많아지다’, ‘다른 음식을 시키다’와 같은 결과가 따라온다.

[도입]

(1)

교사: (달력을 보여 주며)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이 수지 씨 생일이예요.

학생: 우리 같이 생일 파티를 해요.
 교사: 네, 집에서 같이 생일 파티를 해요. 모두 집에 모여
 주세요. 수지 씨 생일 파티를 해야 **하니** 모두 참석하세
 요.

(2)

교사: (그림을 보여 주며)
 이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고 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학생: 배가 아프니까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지 마.
 교사: 맞아요. 여기는 병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말해요.
 “배가 **아프니**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지 마십시오.”
 (그림을 보여 주며) 비가 오고 있어요. 창문이 열려
 있어요. 친구에게 뭐라고 말해요?

학생: “비가 오니까 문을 닫아 줘.”
 교사: 맞아요. 이 그림을 보세요. 선생님이 말해요.
 “비가 **오니** 문을 닫아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으니’는
 ‘-으니까’와 비슷한데 더 격식적인 상황이나 문어적인 상
 황에 자주 사용돼요.

+ ‘-으니1)’을 도입할 때 (1)처럼 행위의 이유와 결과를 끌어내어 문장을 만들어 제시하도록 한다. (2)에서 보듯 그림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각자 생각하는 이유나 원인을 이야기하도록 유도한다. 초급에서 ‘-으니까’를 배웠으므로 ‘-으니까’의 상황을 활용하여 ‘-니’를 도입할 수 있다.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으니’를 쓴다.

예) 먹- + -으니 → 먹으니 읽- + -으니 → 읽으니
 입- + -으니 → 입으니 앉- + -으니 → 앉으니
 있- + -으니 → 있으니 없- + -으니 → 없으니

②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니’를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가- + -니 → 가니 보- + -나 → 보니
 사- + -니 → 사니 쉬- + -나 → 쉬니
 살- + -니 → 사니 만들- + -나 → 만드나니
 멀- + -니 → 머니 길- + -나 → 기니

+ ‘-으니’는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 특히 ‘ㄹ’ 받침으로 끝나는 경우는 ‘ㄹ’이 탈락하고 ‘-니’가 결합함에 주의한다.

①	받침 ㅁ	+ -으니	먹으니, 읽으니, 입으니, 앉으니
---	------	-------	--------------------

예) 비가 오고 **나니** 풍경이 달라졌어요.

= 비가 오고 **나니까** 풍경이 달라졌어요.

오늘은 만나기 **힘드니** 내일 만납시다.

= 오늘은 만나기 **힘드니까** 내일 만납시다.

+ '-으니'는 문어와 구어에서 두루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으니'를 구어에서 사용할 경우에 '-니까'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유사 문법]

① '-으니1)', '-는데1)'

-으니1)	-는데1)
<p>· 이유나 근거를 드러냄을 나타낸다.</p> <p>예) 비가 오니 오늘은 집에서 쉽시다.</p> <p>비가 오는데 오늘은 집에서 쉽시다.</p>	
<p>· 앞 절의 내용이 뒤 절의 제안이나 명령의 직접적인 이유로 사용된다.</p> <p>예) 날씨가 좋으니 공원에 갑시다. (공원에 가자고 하는 이유를 강조, 다소 딱딱하고 강한 권유)</p>	<p>· 이유나 근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배경 설명을 통해 듣는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으니'보다 더 부드러운 권유를 나타낸다.</p> <p>예) 날씨가 좋은데 공원에 갑시다. (공원에 가자고 하는 권유를 꺼낸 배경 설명, 부드러운 권유)</p>

+ '-으니1)'과 '-는데1)'은 모두 이유나 근거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특히 제안의 의미나 근거를 나타낼 때 '-는데1)'이 '-으니1)'보다는 주관적으로 강한 주장을 나타내는 의미가 적어 더 부드럽게 느껴진다.

② '-으니1)', '-어서2)'

-으니1)	-어서2)
<p>·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에 대한 이유나 원인, 근거를 나타낸다.</p> <p>예) 머리가 아프니 학교에 못 갑니다.</p> <p>머리가 아파서 학교에 못 갑니다.</p>	
<p>· 문장의 종결 제약이 없다.</p> <p>예) 시간이 없으니 서두르세요. (o) 시간이 없으니 서두릅시다. (o)</p>	<p>· 뒤 절에 청유문과 명령문을 사용할 수 없다.</p> <p>예) 시간이 없어서 서두르세요. (x) 시간이 없어서 서두릅시다. (x)</p>
<p>· 앞 절에 과거를 나타내는 '-었-', 미래를 나타내는 '-겠-'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겠-'을 쓸 자리에는 '-을 테니'를 쓰는</p>	<p>· 앞 절에 과거를 나타내는 '-었-', 미래를 나타내는 '-겠-'을 사용할 수 없다.</p>

<p>것이 더 자연스럽다.</p> <p>예) 꽃을 좋아했으니 꽃을 선물해요. (o) 꽃을 좋아하니 꽃을 선물해요. (o) 꽃을 좋아하겠으니 꽃을 선물해요. (??) 꽃을 좋아할 테니 꽃을 선물해요. (o)</p>	<p>예) 꽃을 좋아했어서 꽃을 선물해요. (x) 꽃을 좋아해서 꽃을 선물해요. (o) 꽃을 좋아하겠어서 꽃을 선물해요. (x)</p>
<p>· 주로 주관적인 행동의 동기, 주장이나 추론의 전제, 명령 따위의 근거를 제시하는 때의 이유를 나타낸다.</p> <p>예) 배가 고프니 빨리 집에 돌아가요. 집에서 책만 읽으니 친구가 없지.</p>	<p>· 보편적인 결과에 대한 원인을 밝히는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연의 현상이나 사물의 변화로 발생한 결과를 설명할 때는 '-어서'를 주로 사용한다.</p> <p>예)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났다.</p>
<p>· 관용적인 인사말의 의미로는 사용하지 않는다.</p> <p>예) 만나니 반가워요. (??/x)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x)</p>	<p>· '미안하다, 죄송하다, 반갑다, 고맙다, 감사하다' 등과 어울려 자주 쓰이는 인사말처럼 관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p> <p>예) 만나서 반가워요. (o)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o)</p>

+ '-으니1)'과 '-어서2)'는 모두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 주관적인 행동의 이유일 때는 '-으니1)'을, 객관적인 사실이나 보편적인 원인일 때는 '-어서2)'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관용적 인사말일 경우에 '-어서2)'를 쓰는 것이 보통이다.

③ '-으니1)', '-으므로'

-으니1)	-으므로
<p>·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에 대한 이유나 원인, 근거를 나타낸다.</p> <p>예) 그 사람은 착하게 살았으니 꼭 성공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착하게 살았으므로 꼭 성공할 것입니다.</p> <p>· (도치된 문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면) 종결어미처럼 사용할 수 없다.</p> <p>예) 토요일에 제주도에 갑니다. 주말에는 수업이 없으니. (x) 토요일에 제주도에 갑니다. 주말에는 수업이 없으므로. (x) 영수 씨는 인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니. (x) 영수 씨는 인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므로. (x)</p>	
<p>· 문어나 구어에서 두루 쓰인다.</p> <p>예) (친구에게) 넌 공부를 잘하니 상을 받는구나!</p>	<p>· 일반적인 대화보다는 주로 격식적인 상황이나 글에서 많이 사용한다.</p> <p>예) 성적이 우수하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p>

그 친구는 열심히 노력하니 한국어 실력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 친구는 열심히 노력하므로 곧 한국어 실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뒤 절에 청유문과 명령문이 올 수 있다. 예) 많이 일했으니 이제 쉬세요. (o) 비가 오니 택시를 탑시다. (o)	· 구어 혹은 비격식적 문체에서 뒤 절에 청유문과 명령문이 올 수 없다. 예) 많이 일했으므로 이제 쉬세요. (x) 비가 오므로 택시를 탑시다. (x)

+ '-으니1)'과 '-으므로'는 모두 이유나 원인, 근거를 나타낸다. '-으므로'는 문어나 격식적인 구어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나 '-으니1)'은 그러한 제약이 없다. 또한 뒤 절의 제약 면에서도 '-으니1)'이 자유롭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 대응 표현 없음.

- 예) 여름이 **되니** 모기가 많아졌다.
- 夏天了,蚊子多了.
그렇게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었으니** 배탈이 나지.
- 吃那么多冰淇淋, 能不拉肚子吗?
바람이 심하게 **부니** 창문을 좀 닫지 그러니?
- 风太大了,关上窗户呗.

② 용법과 오류

- '-으니1)'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이 없기 때문에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중국어 표현의 영향으로 인해 '-으니1)'을 사용하지 않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 예) 그 영화는 **무섭다**, 보지 않아도 좋아요. (x)
친구와 **약속이 있다**, 다음에 같이 식하십시오. (x)
채소가 좋다, 야채를 많이 먹어야겠다.(x)

- '-으니1)' 과 '-아서'를 혼동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 예)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갑시다. (x)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창문을 좀 닫지 그러니? (x)
5분밖에 남지 **않아서** 서둘러. (x)

- 미래를 나타낼 때 '-을 테니'와 '-겠'사용을 혼동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 예) 제가 책상을 **뒹아 놓겠으니** 걱정 마세요. (x)
지금 길이 **막히겠으니** 조금 이따가 출발하세요. (x)
수업이 좀 있다 **끝나겠으니** 반시간 후에 다시 전화 주세요. (x)

-**으니2)**: (동사에 붙어) 앞 절의 내용이 진행된 결과 뒤 절의 내용처럼 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남을 나타낸다. 즉 앞 절의 행위 후에 뒤 절에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 즉 발견의 의미로 사용된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웬 고양이예요? 나: 밖에서 울고 있는 고양이를 데리고 왔어요. 가: 그래요? 어떻게 찾았어요? 나: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 보니 고양이 한 마리가 울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p> <p>가: 방학 때 뭐 해요? 나: 제주도에 갔다 왔어요. 가: 여행이 재미있었어요? 나: 제주도에 가니 바다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친절했어요. 가: 제주도가 생선회가 유명한데 먹어 봤어요? 나: 네. 생선회를 먹어 보니 생각보다 맛있었어요.</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와 놀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 동네 서점에 가니 휴일이라서 문을 닫았다. · 아침에 일어나니 동생이 벌써 나가고 없었다. · 봄이 되니 예쁜 꽃이 많이 피었어요. · 학교에 가니 친구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 · 창문을 여니 고양이 한 마리가 울고 있었어요. · 한국어를 배워 보니 정말 재미있어요. · 한국에 살아 보니 한국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 한 시간 정도 기다리니 주문한 음식이 왔어요. · 경주에 가 보니 정말 아름다웠어요.

- + '-으니2)'는 동사 뒤에 붙어 앞의 행동을 한 결과 뒤의 사실을 발견할 때 사용하는 연결어미이다. '친구와 놀면서' '시간이 많이 간 것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동네 서점에 가서' '휴일이라 문을 닫은 것'을 알게 되었다.
- + '-으니2)'는 내가 이미 했던 경험이나 행동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어떤 사실을 전하기 위해 그 사실을 알게 된 배경을 설명할 때 사용한다. 따라서 문장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주어는 대부분 말하는 사람 자신이 되며 뒤 절은 주로 과거형이 온다. '-으니1)'과의 의미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 '-으니2)'는 주로 경험, 시도를 나타내는 '-어 보다'와 함께 사용된다.

[도입]

<p>(1)</p> <p>교사: 여러분, 한국어를 공부해 보니까 어때요?</p> <p>학생1: 좀 어려워요.</p> <p>학생2: 재미있어요.</p> <p>교사: 그래요. 한국어 공부가 어려워요. 재미있어요.</p>
--

학생: 한국어 공부가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교사: 맞아요.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한국어를 공부해 **보니** 어렵지만 재미있었어요.

(2)

교사: 주말에 뭐 했어요?
학생: 친구하고 <난타> 공연을 봤어요.
교사: 난타 공연을 보니까 어땠어요?
학생: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교사: 난타 공연을 봤어요. 공연이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난타 공연을 **보니**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 학습자들이 '-으니까'를 학습한 후에 배우게 되니 자연스럽게 이전에 학습한 내용인 '-으니까'를 도입할 때 이용하는 것도 좋다. '-으니2'를 도입할 때 학습자나 교사가 공유하는 경험이나 학생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한다. 그리고 경험을 토대로 새로 알게 된 사실을 '-으니'를 통해 연결하여 제시한다.

[형태 정보]

'-으니1'을 참고하되, '-으니1'과 마찬가지로 동사와만 결합함에 주의한다.

[문장 구성 정보]

① 앞 절의 주어는 주로 말하는 사람이고, 뒤 절의 주어는 대부분 앞 절의 주어와 다르다.

예) (내가) 한국어를 배워 **보니** (한국어가) 어려웠어요.
(내가) 창밖을 **보니** 고양이 한 마리가 울고 있었어요.
(내가) 친구한테 **전화하니**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내가) 제주도를 **여행하니** (경치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② '-어 보다, -고 보다, -다가 보다'와 결합하여 '-어 보니, -고 보니, -다가 보니'의 형태로 많이 사용한다.

예) 가까이 가 **보니** 선생님은 생각보다 많이 늙으셨다.
그 말을 듣고 **보니** 그 사람이 더 좋은 사람 같았다.
이야기하다 **보니** 그 친구가 내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 '-어 보다'는 경험, 시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러한 경험이나 시도에 따라 뒤 절에 어떠한 발견을 하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기 위해 '-으니2'와 함께 자주 사용된다.

[제약 정보]

①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으니2'는 형용사와의 결합이 제약되는데 만약 형용사가 결합되면 이유나 근거의 의미로 해석된다.

예) 음식이 맛이 **없으니** 사람들이 먹지 않는다. ('으니1'의 의미로 해석)

그 사람은 **부지런하니** 성공했다. ('으니1')의 의미로 해석)
부산에 **도착하니** 동생이 기차역에 나와 있었어요. ('으니2')의 의미로 해석)
옛날 노래를 **들으니**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으니2')의 의미로 해석)

② 뒤 절에 미래시제와는 결합하지 않는다.

예) 백화점에 **가니** 세일을 하겠어요. (x)
백화점에 **가니** 세일을 할 거예요. (x)
백화점에 **가니** 세일을 해요. (o)
백화점에 **가니** 세일을 했어요. (o)

③ 과거 '-었-'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밖에 **나갔으니** 비가 오고 있었어요. (x)
회의를 **마쳤으니** 6시였어요. (x)

[확장]

① '-어 보니, -고 보니, -다가 보니'는 '-어 보니까, -고 보니까, -다가 보니까'의 형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예) 가까이 **가 보니** 그 집은 아주 컸습니다.
= 가까이 **가 보니까** 그 집은 아주 컸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더 좋은 그림 같습니다.
=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더 좋은 그림 같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그 사람은 내 친구의 형이었습니다.
=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내 친구의 형이었습니다.

+ '-으니'는 문어와 구어에서 두루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구어의 경우에 '-으니까'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 대응 표현 없음.

예) 아침에 **일어나니** 동생이 벌써 나가고 없었다.
- 早上起来,弟弟已经出去了.
봄이 되니 예쁜 꽃이 많이 피었어요.
- 春天到了,满地都是盛开的花朵.
바람이 심하게 **부니** 창문을 좀 닫지 그러니?
- 风太大了,关上窗户呗.

② 용법과 오류

- '-으니2'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이 없기 때문에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중국어 표현의 영향으로 인해 '-으니'를 사용하지 않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창문을 열어 고양이 한 마리가 울고 있었어요. (x)

한시간 정도 기다리 주문한 음식이 나왔어요. (x)

경주에 가 보아 정말 아름다웠어요. (x)

- '-으니2'뒤 절은 주로 과거형이 온다. 그런데 중국어는 뒤 절이 형용사일 경우 과거형을 사용하지 않고 형용사 원형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런 중국어의 영향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예) 설악산에 가보니 정말 아름답다. (x)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우습다. (x)

한국의 어느 가을날 하늘을 보니 정말 높다. (x)

- '-으니2'는 과거 '-었-'과 결합하지 않지만 중국어는 행동의 완료를 나타내는 '了'와 결합 가능함으로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과거형을 사용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한 시간 정도 기다렸니 주문한 음식이 왔어요. (x)

봄이 됐니 정말 여기저기 풀들이 싹트기 시작하네요. (x)

한국어를 한번 배웠보니 정말 재미있어요. (x)

- 으니3**: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앞 절의 내용을 뒤 절에서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 예문	<p>총명하고 활을 잘 쏘는 사람이 있으니 사람들은 그를 주몽이라 불렀다. 주몽은 해모수와 유화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용맹함과 총명함을 시기하는 일곱 명의 왕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어머니 유화의 권유로 남쪽으로 도망치게 된다. 남쪽에 나라를 세우니 그 나라가 고구려가 된다.</p> <p>가: 박사님, 생선은 우리 몸은 영양분이 많다고 하던데요. 나: 네. 오메가 3나 몸에 좋은 지방이 많이 들어 있어서 우리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가: 특히 아이들에게 좋은 생선이 있을까요? 나: 등 푸른 생선은 아이들에게 좋은 생선이니 이런 생선으로는 고등어와 삼치가 있습니다. 이런 생선을 아이들에게 많이 먹이면 아이들의 성장과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됩니다.</p>
문장 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건물은 매우 크니 그 규모가 아시아 최대라 할 만한다. · 그 때 나타난 사람이 있었으니 우리 반 친구 수지였다. · 주말마다 가는 곳이 있으니 그곳은 작은 자원봉사 단체였다. ·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했으니 하루에 10시간은 보통이었다. · 주몽이 고구려의 시조가 되니 고구려의 역사가 시작된다. · 요구르트가 몸에 좋은 음식이니 매일 아침마다 먹는다. · 아버지는 여행 가서 내 선물을 사 오시니 그것은 보통 작은 소품이거나

	<p>초콜릿이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지는 똑똑하다는 소문이 있으니 어떤 것이라도 한 번 들으면 모두 외워 버린다.· 과일은 비타민 C를 많이 함유하고 있으니 이 과일을 매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된다.
--	---

- + '동생은 똑똑하다'에 대한 보충으로 뒤 절에 '어떤 책이라도 한 번 보면 모두 외운다.'는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 또한 '이 건물은 매우 크니 그 규모가 아시아 최대라 할 만하다.'의 예문에서 '그 규모가 아시아 최대라 할 만하다.'의 뒤 절의 내용이 앞 절의 내용 '이 건물은 매우 크다'에 대한 부과적인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 + 구어보다는 문어, 혹은 강연, 방송의 내레이션 등의 격식적인 말하기에 자주 사용된다.

[도입]

<p>(1)</p> <p>교사: 샤오잉 씨, 중국에서 유명한 곳이 어디입니까?</p> <p>학생: 만리장성이 가장 유명합니다.</p> <p>교사: 그렇습니까? 또 유명한 곳이 어디입니까?</p> <p>학생: 음, 천안문이요. 그리고 남쪽에도 좋은 곳이 아주 많아요.</p> <p>교사: 여러분, 중국에서 유명한 곳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만리장성입니다. 중국에서 유명한 곳이 많이 있으니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만리장성입니다.</p> <p>(2)</p> <p>교사: 한국에 살면서 뭐가 가장 그리십니까?</p> <p>학생1: 고향 친구하고 가족입니다.</p> <p>학생2: 가족하고 어머니가 만들어 주시는 음식입니다.</p> <p>교사: 수지 씨는 뭐가 가장 그리십니까?</p> <p>학생3: 가족이 가장 그리습니다.</p> <p>교사: 외국에 살면 그리운 것이 있는데 보통은 가족이 가장 그리운 것 같습니다. 외국에 살면 그리운 것이 많으니 보통은 가족이 가장 그리운 것 같습니다.</p>

- + '-으니3)'은 앞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 후행절이 부연하는 기능을 갖는다. 도입할 때 앞 절의 내용에 대하여 예를 덧붙이거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함을 충분히 보여 준다. 어떤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예나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도록 유도하여 의미를 이해시킨다.

[형태 정보]

'-으니1)'을 참고한다.

[문장 구성 정보]

- ① 앞 절의 주어와 뒤 절의 주어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

예) 한강은 아주 큰 **강이니** 세계 어느 강도 이만 못하다.
그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니** 그 때 나이가 서른셋이었다.
이번에 미스코리아에 뽑힌 여학생이 **있으니** (그 학생은) 바로 우리 학교 학생이다.

- ② 질문과 대답을 한 문장으로 구성할 수 있다.

예) 거기가 어딘가 **하니** 바로 천국이다.
이게 누군가 **하니** 바로 네 동생이다.

[제약 정보]

- ①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한강은 아주 큰 **강이겠으니** 세계 어느 강도 이만 못할 것이다. (x)
그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겠으니** 그 나이가 서른셋일 것이다. (x)

[확장]

- ① 앞에 기술된 사실을 뒤에서 다시 부연하여 설명함(덧붙임)을 나타낼 때에는 '-으니3)'을 '-으니까'와 바꾸어 쓸 수 없다.

예) 그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니** 그 때 나이가 서른셋이었다. (o)
그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니까** 그때 나이가 서른셋이었다. (x)
한강은 아주 큰 **강이니** 세계 어느 강도 이만 못하다. (o)
한강은 아주 큰 **강이니까** 세계 어느 강도 이만 못하다. (x)

[유사 문법]

- ① '-으니3)', '-으니까'

-으니	-으니까
-----	------

- 주로 주관적인 행동의 동기, 주장이나 추론의 전제, 명령 따위의 근거를 제시하는 이유를 나타낸다.

예) 드라마를 **봤으니까** 숙제를 못 했어요.
드라마를 **보니** 숙제를 못 했어요.

· 앞 절의 내용을 뒤 절에서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일 때 사용한다. 예) 이 건물은 매우 크니 그 규모가 아시아 최대라 할 만하다. (o)	· 앞 절의 내용을 뒤 절에서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일 때 사용하지 못한다. 예) 이 건물은 매우 크니까 그 규모가 아시아 최대라 할 만하다. (x)
---	--

+ '-으니3)'과 '-으니까'는 주관적인 이유를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서로 유사하나 앞 절의 내용에 뒤 절의 내용을 덧붙일 때는 '-으니3)'을 사용한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대응 표현 없음.

예) 동생은 **똑똑하니** 어떤 책이라도 한 번 보면 모두 외운다.

- 弟弟很聪明, 不管什么书过目不忘.

요구르트가 몸에 좋은 **음식이니** 매일 아침마다 먹는다.

- 酸奶对身体好, 我每天早上都要吃.

거기가 **어딘가 하니** 천국이다.

- 知道那是哪儿吗? 就是天国.

② 용법과 오류

- '-으니3'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이 없기 때문에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중국어 표현의 영향으로 인해 '-으니3'를 사용하지 않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이건 좋은 생각이, 내가 받아들이마. (x)

이 과일은 비타민을 많이 함유하고 있. 매일 섭취하는 것이 좋다. (x)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했, 하루에 5시간 밖에 자지 않았다. (x)

- '-으니3'은 질문과 대답을 한 문장으로 구성할 수 있다. 중국어 표현과의 상이한 대응관계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예) 알다 거기가 어디, 바로 천국이다. (x) (知道那是哪儿吗? 就是天国.)

여기다 누군가 네 동생이다. (x) (以为是谁呢? 原来是你弟弟啊!)

알니 이거 무엇. 바다에서 주어진 돌이다. (x) (知道这是什么吗? 是从海边捡来的石头.)

3.3.26. '-으프로'

-으프로[-프로][연결어미]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프로**: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앞의 내용이 뒤에 오는 내용의 이유나 근거임을 나타낸다. 주로 문어에서 사용한다.

[예문]

담화 예문	<p>(보건 안내문)</p> <p>독감은 접촉을 통해 전파되므로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반드시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은 면역력이 약하므로 예방 접종을 받고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다.</p> <p>(방송 인터뷰)</p> <p>가: 여름철에는 어떻게 피부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p>
-------	---

	<p>나: 여름철에는 자외선으로 피부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 주어야 합니다.</p> <p>가: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므로 수분 보충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p> <p>나: 네, 맞습니다. 제철 채소나 과일을 먹으면 수분뿐만 아니라 비타민도 함께 보충할 수 있을 겁니다.</p>
문장 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돼지는 먹이를 가리지 않고 먹으므로 농산 부산물이나 채소 찌꺼기 등을 이용하여 기를 수 있다. · 상업 방송은 시청률에 따라 광고 수입이 결정되므로 시청자의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므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 감자는 햇빛을 받으면 초록색으로 변하므로 그늘에 보관해야 한다. · 오늘은 황사가 심하므로 노약자 및 어린이는 외출을 삼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창업할 경우 성공 확률이 높지 않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사회를 떠나서는 인간답게 살 수 없다. · 앞으로 관광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므로 적극적인 관광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 내일부터 장마에 접어들게 되겠으므로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 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 '-으므로'는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 뒤에 붙어 뒤 절의 행위나 상태의 이유, 근거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연결어미이다. 앞 절에 이유나 근거가 나타나며 뒤 절에는 그로 인한 결과나 결론이 나타난다.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의 이유나 근거로 '독감은 접촉을 통해 전파됨'을, '어린이나 노인이 예방 접종을 받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의 근거로 '면역력이 약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도입]

<p>(1)</p> <p>교사: (상장을 보여 주며) 이 학생은 왜 상장을 받았을까요?</p> <p>학생: 성적이 우수해요.</p> <p>교사: 네,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상장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p> <p>학생: '위 학생은 성적이 우수하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함.'</p> <p>교사: 네, 이 학생은 성적이 우수해서 상장을 받았어요. 이렇게 상장처럼 격식적인 글이나 상황에서 이유를 말할 때 '-으므로'를 사용해요.</p> <p>(2)</p> <p>교사: 선생님 아버지는 O형이에요. 선생님 어머니도 O형이</p>
--

에요. 그럼 선생님의 혈액형은 뭡까요?
 학생: O형이요.
 교사: 어떻게 알았어요?
 학생: 선생님 부모님이 모두 O형이에요.
 교사: 맞아요. 부모님이 모두 **O형이므로** 저도 O형이에요.

+ '-으므로'는 일상적인 말보다는 글이나 연설, 발표 때 주로 사용되므로 도입 (1)의 경우 실제적인 자료, 상장을 보여 주며 도입을 한다. 학생들이 상장의 내용을 읽으며 '-으므로'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도입 (2)와 같이 '-으므로'는 논리적인 근거를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므로 논리적인 예시를 통해 도입할 수 있다.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으므로'를 쓴다.

예) 먹- + -으므로 → 먹으므로	읽- + -으므로 → 읽으므로
작- + -으므로 → 작으므로	좋- + -으므로 → 좋으므로
있- + -으므로 → 있으므로	없- + -으므로 → 없으므로

②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므로'를 쓴다.

예) 가- + -므로 → 가므로	주- + -므로 → 주므로
크- + -므로 → 크므로	예쁘- + -므로 → 예쁘므로
살- + -므로 → 살므로	만들- + -므로 → 만들므로
멀- + -므로 → 멀므로	길- + -므로 → 길므로

①	받침 o	+ -으므로	먹으므로, 읽으므로, 작으므로, 좋으므로, 있으므로, 없으므로
②	받침 x	+ -므로	가므로, 주므로, 크므로, 예쁘므로,
	ㄹ 받침	+ -므로 (어간 'ㄹ' 탈락)	살므로, 만들므로, 멀므로, 길므로

③ '이다, 아니다'는 '-므로'를 쓴다.

예) 주말이- + -므로 → 주말이므로	가족이- + -므로 → 가족이므로
경우이- + -므로 → 경우이므로	회사이- + -므로 → 회사이므로
아니- + -므로 → 아니므로	

④ 불규칙

듣-	예) 그는 매일 라디오를 들으므로 오늘도 들었을 것이다.
춥-	예) 겨울에는 밖이 추우므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
붓-	예) 밤에 잔 음식을 먹으면 몸이 부으므로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빨강-	예) 아이의 얼굴이 빨가므로 열이 나는지 체온을 재 보았다.

[문장 구성 정보]

- ① 주로 격식적 상황이나 문어에서 사용한다.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공문서, 연설문, 발표문, 설명문 등과 같이 격식적이고 논리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된다.

예)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하였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이므로** 물을 아껴 씁시다.

길이 **미끄러우므로** 주의하십시오.

[유사 문법]

- ① '-으므로', '-어서'

-으므로	-어서
<p>· 이유나 근거를 나타낸다.</p> <p>예) 길이 미끄러우므로 조심해야 한다.</p> <p>길이 미끄러워서 조심해야 한다.</p>	
<p>· 문어 혹은 격식적 문체에서 뒤 절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있다.</p> <p>예) 교통이 혼잡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십시오. (o)</p> <p>교통이 혼잡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십시오. (o)</p>	<p>· 뒤 절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없다.</p> <p>예) 교통이 혼잡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십시오. (x)</p> <p>교통이 혼잡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십시오. (x)</p>
<p>· 과거의 '-었-', 미래, 추측의 '-겠-'과 결합한다.</p> <p>예) 추위가 풀렸으므로 야외 활동에 지장이 없었다. (o)</p> <p>추위가 풀리겠으므로 야외 활동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o)</p>	<p>· 과거의 '-었-', 미래, 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p> <p>예) 추위가 풀렸어서 야외 활동에 지장이 없었다. (x)</p> <p>추위가 풀리겠어서 야외 활동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x)</p>
<p>· 주로 격식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며 공문서, 발표문 등에서 논리적 판단의 근거를 제시할 때 자주 사용된다.</p> <p>예) 99.9% 유전자가 일치하므로 친자 관계가 성립함.</p> <p>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으므로 형을 감한다.</p>	<p>· 보편적인 결과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연의 현상이나 사물의 변화로 발생한 결과를 설명할 때는 주로 사용한다.</p> <p>예)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다.</p> <p>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났다.</p>

- ② '-으므로', '-으니까'

-으므로	-으니까
<p>· 이유나 근거를 나타낸다.</p> <p>예) 길이 미끄러우므로 조심해야 한다.</p> <p>길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격식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며 공문서, 발표문 등의 문어에서 논리적 판단의 근거를 제시할 때 주로 사용된다. 주관적인 행동의 동기, 주장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p>예) 99.9% 유전자가 일치하므로 친자 관계가 성립함. (o)</p> <p>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으므로 형을 감한다. (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주관적인 행동의 동기, 주장이나 추론의 전제, 명령 따위의 근거를 제시하는 이유를 나타내며 주로 구어에서 사용한다. <p>예) 배가 고프니까 빨리 집에 돌아가요. (o)</p> <p>집에서 책만 읽으니까 친구가 없지. (o)</p>
---	--

③ '-으므로', '-기 때문에'

-으므로	-기 때문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유나 근거를 나타낸다. <p>예) 길이 미끄러우므로 조심해야 한다.</p> <p>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어 혹은 격식적 문체에서 뒤 절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있다. <p>예) 길이 미끄러우므로 조심하십시오. (o)</p> <p>길이 미끄러우므로 조심합시다. (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뒤 절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없다. <p>예)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x)</p> <p>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조심합시다. (x)</p>

④ '-으므로', '-으니1)

-으므로	-으니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에 대한 이유나 원인, 근거를 나타낸다. <p>예) 그 사람은 착하게 살았으므로 꼭 성공할 것입니다.</p> <p>그 사람은 착하게 살았으니 꼭 성공할 것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치된 문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면) 종결어미처럼 사용할 수 없다. <p>예) 토요일에 제주도에 갑니다. 주말에는 수업이 없으므로. (x)</p> <p>토요일에 제주도에 갑니다. 주말에는 수업이 없으니. (x)</p> <p>영수 씨는 인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므로. (x)</p> <p>영수 씨는 인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니. (x)</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대화보다는 주로 격식적인 상황이나 문어에서 사용한다. <p>예) 성적이 우수하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p> <p>그 친구는 열심히 노력하므로 곧 한국어 실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어와 구어에서 두루 쓰인다. <p>예) (친구에게) 너 공부를 잘하니 상을 받는구나!</p> <p>그 친구는 열심히 노력하니 한국어 실력이 좋아질 것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어 혹은 비격식적 문체에서 뒤 절에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뒤 절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이 올 수 있다.

<p>유문이나 명령문이 올 수 없다.</p> <p>예) 많이 일했으므로 이제 쉬세요. (x)</p> <p>비가 오므로 택시를 탑시다. (x)</p>	<p>예) 많이 일했으니 이제 쉬세요. (o)</p> <p>비가 오니 택시를 탑시다. (o)</p>
--	---

+ '-으니1)'과 '-으므로'는 모두 이유나 원인, 근거를 나타낸다. '-으므로'는 주로 문어나 격식적인 구어에서 사용하나 '-으니1)'은 그러한 제약이 없다. 또한 뒤 절의 제약 면에서도 '-으니1)'가 자유롭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因为)所以'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부모님이 모두 O형**이므로** 저도 O형이에요

- 父母都是O型, 所以我也是O型.
- 因为父母都是O型, 所以我也是O型.
- 父母都是O型, 那我也是O型.

밤에 짠 음식을 먹으면 몸이 부**으므로** 먹지 않는 것이 좋다.

- 晚上吃咸的会浮肿, 所以最好不要吃.
- 晚上吃咸的会浮肿, 最好不要吃.

위 학생은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함.

- 此学生表现优秀, 起到了模范带头作用, 特发此证.

② 용법과 오류

- 불규칙 형태 변화로 인해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예) 날씨가 춥**으므로** 오늘은 집에 머무릅시다. (x)

날씨가 추우**므로** 오늘은 집에 머무릅시다. (o)

밤에 라면을 먹으면 얼굴이 붓**으므로** 먹지 맙시다. (x)

밤에 라면을 먹으면 얼굴이 부**으므로** 먹지 맙시다. (o)

- '-으므로', '-어서'의 용법을 혼용하여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예) 교통이 혼잡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십시오**. (x)

교통이 혼잡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십시오**. (o)

추위가 풀렸**어서** 야외 활동에 지장이 없었다. (x)

추위가 풀렸**으므로** 야외 활동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x)

- 명사가 올 때는 '이다, 아니다'와 결합한 후 '-므로'가 붙는데, 대응하는 중국어는 명사에 직접 붙**으므로** 아래와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위 학생은 타의 모범**므로** 이 상장을 수여함. (x)

위 학생은 타의 모범**이므로** 이 상장을 수여함. (o)

- 此学生表现优秀, 起到了模范带头作用, 特发此证.

- 문어에서 주로 사용되**므로** 아래와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집에서 박혀 있으므로 친구가 없지. (x)

- 你一个人总是闷在家里, 所以没有朋友.

배가 고프므로 빨리 집에 돌아가요. (x)

- 肚子饿, 所以快点回家.

- 중국어는 아주 명확한 이유와 근거를 나타낼지라도 '因为.....所以'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으므로'를 사용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예) 주말, 사람이 많다. (x)

- 周末, 人多.

한 가족, 이런 것은 따질 필요가 없다. (x)

- 一家人, 不要计较这些.

학생이 아니, 들어갈 수 없다. (x)

- 不是学生, 不能进去.

3.3.27 '-을래야'

-을래야[-르래야][연결어미]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 을래야**: (동사에 붙어)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나타낸다. 뒤에 의도와는 반대되는 내용이 와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사용한다. 주로 구어에서 사용한다.

[예문]

담화 예문	<p>가: 민준 씨, 또 커피 드세요? 도대체 하루에 몇 잔이나 마시는 거예요?</p> <p>나: 보통 4~5잔은 마시는 것 같아요.</p> <p>가: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예요? 건강에 안 좋을 텐데…….</p> <p>나: 저도 알고는 있는데 중독이 되어서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p> <p>가: 유진 씨, 명절에 고향에 가세요?</p> <p>나: 아니요, 저희 가족은 명절에 할아버지를 모시고 통일 전망대에 가요.</p> <p>가: 거긴 왜요?</p> <p>나: 우리 할아버지 고향이 평양이거든요. 분단이 되어서 고향에는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p>
문장 예문	<p>· 그 사람은 하도 거짓말을 잘해서 믿을래야 믿을 수 없어요.</p> <p>· 마음에 드는 구석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서 앉을래야 앉을 자리가 없어요. · 그 사고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악몽과도 같아요. · 여행을 갈래야 갈 시간이 있어야 말이죠. · 그런 짓을 하다니 도저히 용서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래야 숨길 수 없대요. · 매일 얼굴을 보니까 안 친해질래야 안 친해질 수 없었죠. · 예전 모습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변했다. · 그 영화는 너무 슬퍼서 울지 않을래야 울지 않을 수 없어요.
--	--

+ '-을래야'는 '-으려고 하다'와 '-어야'가 결합한 '으려고 해야'의 준말로 말하는 이의 의도를 나타낸다. 뒤에는 주로 그 의도를 실현시킬 수 없는 상황이 와서 결국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중독이 되어서 커피를 끊으려고' 노력을 해도 '끊을 수 없음'을, '분단이 되어서 고향에 가려고' 해도 '갈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도입]

(1)	<p>교사: (청국장 사진을 보여 주며) 여러분, 청국장을 알아요?</p> <p>학생: 네.</p> <p>교사: 청국장을 좋아해요?</p> <p>학생: 네. / 아니요.</p> <p>교사: ('아니요.'라고 대답한 학생에게 묻는다.) 줄리아 씨는 청국장을 왜 싫어해요?</p> <p>학생: 특이한 냄새가 나서요.</p> <p>교사: 청국장을 먹으려고 해 봤어요?</p> <p>학생: 네, 먹으려고 해 봤지만 냄새 때문에 못 먹었어요.</p> <p>교사: 네. 줄리아 씨는 청국장을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청국장 냄새가 너무 강해서 먹을래야 먹을 수 없었어요. '-을래야'는 어떤 일을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을 때 사용해요.</p>
(2)	<p>교사: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역 사진을 보여 주며)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탄 적이 있어요?</p> <p>학생: 네, 있어요.</p> <p>교사: 이 사진처럼 지하철에 사람이 정말 많죠? 바로 탔어요?</p> <p>학생: 아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바로 못 탔어요.</p> <p>교사: 네. 요스케 씨는 지하철을 타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탈래야 탈 수가 없었어요.</p>

+ 도입할 때는 말하는 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으나 결국 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한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을래야'를 쓴다.

예) 먹- + -을래야 → 먹을래야 입- + -을래야 → 입을래야
 앉- + -을래야 → 앉을래야 읽- + -을래야 → 읽을래야

②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ㄹ래야'를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가- + -ㄹ래야 → 갈래야 주- + -ㄹ래야 → 줄래야
 보- + -ㄹ래야 → 볼래야 하- + -ㄹ래야 → 할래야
 살- + -ㄹ래야 → 살래야 만들- + -ㄹ래야 → 만들래야

+ '-을래야'는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 특히 'ㄹ' 받침으로 끝나는 경우는 'ㄹ'이 탈락하고 '-ㄹ래야'가 결합함에 주의한다.

①	받침 o	+ -을래야	먹을래야, 입을래야, 앉을래야, 읽을래야
②	받침 x	+ -ㄹ래야	갈래야, 줄래야, 볼래야, 할래야
	ㄹ 받침	+ -ㄹ래야 (어간 'ㄹ' 탈락)	살래야, 만들래야

③ 불규칙

듣- 예)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다.
 돕- 예) 당사자가 원치 않으니 **도울래야** 도울 방법이 없다.
 짓- 예) 허가가 떨어지지 않으니 공장을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다.

[문장 구성 정보]

① 뒤 절에는 부정 형태의 문형인 '-이/가 없다', '-을 수가 없다'가 오며 앞 절의 동사를 반복해서 사용한다.

예)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려서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어요.
 살이 너무 찌서 전에 입던 옷을 **입을래야** 입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집은 아파트라서 강아지를 **키울래야** 키울 수 없어요.
 절판되어서 **살래야** 살 수 없는 모델이에요.
 말을 잘 해서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 없어요.

② 부사 '도저히'와 함께 쓰여 어떤 행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음을 강조하여 나타낸다.

예)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어요.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서 도저히 **기다릴래야** 기다릴 수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약 정보]

- ① 과거의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시간이 안 맞아서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어요. (o)
시간이 안 맞아서 **만났을래야** 만날 수가 없었어요. (x)
시간이 안 맞아서 **만나겠을래야** 만날 수가 없겠어요. (x)

[확장]

- ① '-을래야'는 자주 쓰이지만 비표준어이다. 표준어는 '-으려야'이며, '-으려야'는 '-으려고 하여야'의 준말이다. 그러나 '-으려고 하여야'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도저히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다.

예) = 그 사람은 도저히 **미워하려야**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다.
너무 배가 불러서 더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다.
= 너무 배가 불러서 더 **먹으려야** 먹을 수가 없다.

- ② 어떤 것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낼 때 관용적으로 '떨래야 떨 수 없다'를 사용한다.

예) 육체와 정신은 **떨래야** 떨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김치는 한국인에게 **떨래야** 떨 수 없는 먹거리이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 ① 대응 표현: 대응 표현 없음.

예) 여행을 **갈래야** 갈 시간이 없다.
- 想去旅行都没有时间.
담배를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 这烟怎么也戒不了.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탈래야** 탈 수 없다.
- 地铁人太多, 都没法上去.
청국장 냄새가 너무 안 좋아서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었어요.
- 臭酱汤味道太难闻了, 尝试了几次还是不行.

- ② 용법과 오류

- 동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바뀌는데 이를 혼용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예) 너무 멀어서 **가을래야** 갈 수가 없었어요. (x)
같이 **사을래야** 살 수가 없었어요. (x)
만들~~을~~래야 만들 수가 없었어요. (x)

- 중국어의 대응 표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형식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여행을 가고 싶어 시간이 있어야 말이죠. (x)
(‘여행을 갈래야 갈 시간이’로 표현해야 할 경우)
청국장 냄새가 안 좋아서 먹을 수 없어요. (?)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어요’로 표현해야 할 경우)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서 타지 못해요. (?)

(‘탈래야 타지 못해요’로 표현해야 할 경우)

-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떨래야 떨 수 없다’는 중국어 ‘离不开, 分不开, 密不可分’ 등 다양한 표현에 대응된다.

예) 육체와 정신은 떨래야 떨 수 없는 관계에 있다.

肉体和精神是密不可分的.

김치는 한국인에게서 한 끼도 떨래야 떨 수 없는 먹거리이다.

对韩国人来说, 辣白菜是一顿都离不开桌的.

3.3.28. ‘-자마자’

-자마자[연결어미]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이나 동작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 자마자**: (동사에 붙어) 앞 절의 동작이 이루어진 후, 바로 뒤이어 다음 절의 사건이나 동작이 일어남을 나타낸다.

[예문]

담화 예문	<p>가: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p> <p>나: 네, 전 집에 들어가자마자 에어컨부터 켜요.</p> <p>가: 정말 요즘에는 에어컨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p> <p>나: 그러게요.</p> <p>가: 첫눈에 반한 적이 있어요?</p> <p>나: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영화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p> <p>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제 친구는 첫눈에 반해서 한 달 만에 결혼한걸요.</p> <p>나: 와, 대단하네요.</p>
문장 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 빌린 돈은 월급을 받자마자 갚을게요. · 지하철을 타자마자 문이 닫혔어요. · 로미오와 줄리엣은 처음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졌어요. ·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자마자 매점으로 달려갑니다. · 신제품이 나오자마자 불티나게 팔려 나갔다. · 도둑이 경찰을 보자마자 도망을 갔어요. · 집에 오자마자 손발을 깨끗이 씻으세요.

	· 동생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 우리 졸업하자마자 결혼하자.
--	--

+ '-자마자'는 어떤 일이 바로 연이어 일어날 때 사용하는 연결어미이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에어컨부터 켜요'는 집에 들어가서 바로 에어컨을 켜다는 의미이다.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진다'는 (누군가를) 만나고 바로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다.

[도입]

(1)
교사: 여러분 요즘 디지털카메라 많이 사용하죠?
학생: 네.
교사: 예전에는 필름 카메라를 사용했죠. 필름 카메라하고 비교했을 때 디지털카메라의 좋은 점은 뭘까요?
학생: 필름이 필요 없어요. / 편리해요. 등
교사: 맞아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디지털카메라는 사진을 찍고 바로 볼 수 있어요. 사진을 찍자마자 볼 수 있어요. 앞의 일이 있고 뒤의 일이 곧 바로 일어날 때 '-자마자'를 사용해요.
(2)
교사: 밤에 침대에 누운 후에 잠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학생: 20분이요, 30분이요.
교사: 아주 피곤하면요?
학생: 바로 자요.
교사: 맞아요. 너무 피곤하면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들어요.

+ '-자마자' 앞 절의 동작이나 작용이 끝나고 시간의 간격이 거의 없이 바로 뒤 절의 동작이나 작용이 이어지는 것임을 강조하여 알려준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자마자'를 쓴다.

예)	먹-	+ -자마자	→	먹자마자	읽-	+ -자마자	→	읽자마자
	돕-	+ -자마자	→	돕자마자	만들-	+ -자마자	→	만들자마자
	타-	+ -자마자	→	타자마자	보-	+ -자마자	→	보자마자
	마시-	+ -자마자	→	마시자마자	도착하-	+ -자마자	→	도착하자마자

①	받침 o	+ -자마자	먹자마자, 읽자마자, 돕자마자, 만들자마자
	받침 x	+ -자마자	타자마자, 보자마자, 마시자마자, 도착하자마자

[문장 구성 정보]

- ① 앞 절과 뒤 절의 행위에 시간의 차이가 거의 없이 일어남을 강조하기 위해 흔히 '곧', '바로'와 같은 부사와 함께 사용된다.

예) 침대에 **눕자마자** 곧 잠이 들었어요.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 ② '-자마자'로 연결되는 문장의 앞 절에는 부정 표현이 올 수 없다.

예) 철수가 **오자마자** 영희가 갔습니다. (o)
철수가 **안 오자마자** 영희가 갔습니다. (x)
철수가 **오지 않자마자** 영희가 갔습니다. (x)
여자는 그 사실을 **알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o)
여자는 그 사실을 **모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x)

- + 앞 절의 동작이 이루어지고 나서 곧이어 뒤 절의 동작이 이루어지거나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앞 절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동작이나 상황이 올 수 없다.

[제약 정보]

- ①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날씨가 **춥자마자** 코트를 입었어요. (x)

예쁘자마자 남자 친구가 생겼어요. (x)

- + 형용사 뒤에 '-어지다'가 결합하여 동사가 되면 '-자마자'가 결합할 수 있다.

예) 날씨가 **추워지자마자** 코트를 입었어요. (x)

예빠지자마자 남자 친구가 생겼어요. (x)

- ②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

예) 저는 **출근하자마자** (저는) 커피를 한 잔 마셔요. (o)
아들이 식탁에 **앉자마자** 어머니는 음식을 내왔다. (o)
총소리가 **나자마자**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o)

- ③ 과거의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전화를 **받자마자** 밖으로 나갔어요. (o)
전화를 **받았자마자** 밖으로 나갔어요. (x)
오늘은 일이 **끝나자마자** 집에 가야 해요. (o)
오늘은 일이 **끝나겠자마자** 집에 가야 해요. (x)

[유사 문법]

- ① '-자마자', '-자1'

-자마자	-자1)
·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이나 동작을 나타낸다. 예)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학생들이 제자리에 앉았다.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자 학생들이 제자리에 앉았다.	
· 뒤 절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있다.	· 뒤 절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없다.

예) 회의가 끝나자마자 연락하세요. (o) 회의가 끝나자마자 밥 먹으러 가자. (o)	예) 회의가 끝나자 연락하세요. (x) 회의가 끝나자 밥 먹으러 가자. (x)
· 앞 절의 주어와 뒤 절의 주어가 같아도 달라도 된다. 예) 나는 집에 가자마자 (나는) 손을 씻었다. (o) 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강아지가 달려 나왔다. (o)	· 앞 절의 주어와 뒤 절의 주어가 달라야 한다. 예) 나는 집에 가자 (나는) 손을 씻었다. (x) 내가 집에 도착하자 강아지가 달려 나왔다. (o)

② '-자마자', '-는 대로'

-자마자	-는 대로2)
· 앞 절의 동작이 이루어지고 곧 다음 절의 동작이 일어남을 나타낸다. 예) 도착하자마자 연락드리겠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 앞뒤의 상황이 우연적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예) 집을 나서자마자 비가 왔다. (o) 수업이 끝나자마자 전화벨이 울렸다. (o)	· 앞뒤의 상황이 우연적인 경우에 사용할 수 없다. 예) 집을 나서는 대로 비가 왔다. (x) 수업이 끝나는 대로 전화벨이 울렸다. (x)
· 과거 상황에서도 많이 쓰인다. 예) 집에 들어가자마자 잤어요. (o) 밥을 먹자마자 이를 닦았어요. (o)	· 과거 상황에는 잘 쓰이지 않는다. 예) 집에 들어가는 대로 잤어요. (x) 밥을 먹는 대로 이를 닦았어요. (X)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一 ... 就'

- 예) 메일을 **읽자마자** 답장을 했는데요.
- 一收到邮件, 就回信了.
동생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뛰어들어 갔다.
- 弟弟一回家就跑进卫生间去了.

② 용법과 오류

- '-자마자'는 형용사와 결합하지 못하고 동사의 어간에만 붙는다. 형용사 뒤에 '-어지다'가 결합하여 동사가 되면 '-자마자'가 결합할 수 있다. 반면에 중국어 '一 ... 就'는 동사뿐만 아니라 형용사와도 결합할 수 있다. 이런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 예) 날씨가 **춥자마자** 코트를 입었어요. (x)
그녀는 **날씬하자마자** 회사에 취직했다. (x)

기다렸다가 뜨겁자마자 바로 꺼내세요. (x)

- ‘一 … 就’는 앞 절과 뒤 절에 나뉘어서 사용하는 반면에 한국어 ‘-자마자’는 앞 절 동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자마자’를 쓴다. 분포 위치가 서로 다르므로 인해 다음과 같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예) 한국에 **오다**, 곧 강의를 시작했다. (x)

곧 한국에 **오여** 강의를 시작했다. (x)

한국에 **곧 오자** 강의를 시작했다. (x)

- 중국어 ‘一 … 就’는 ‘-자마자’의 의미 외에도 ‘-기만 하면’의 뜻으로 앞뒤 절의 내용이 필연적인 관계에 있음을 나타낼 경우에도 사용된다. 이로 인하여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기만 하면’으로 표현해야 할 경우에 ‘-자마자’를 사용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저는 커피를 마시자마자 잠을 못자요. (x)

오후가 되자마자 잠이 와요. (x) (‘오후가 되기만 하면’으로 표현해야 할 경우)

나는 감기에 걸리자마자 코가 막혀요. (x)

3.4. 전성어미

3.4.1. ‘-던1’

-던1[전성어미] 명사, 대명사를 수식하게 하며 과거 상황을 **회상함**을 나타내거나 과거의 상황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전성어미.

-던1: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여러 번 또는 한동안 계속된 과거의 사건이나 행위, 상태를 다시 떠올림을 나타내거나 과거의 사건, 행위, 상태가 완료되지 않고 중단되었음을 나타낸다. ‘-던’ 앞에 오는 말과 결합하여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형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신문 기사)</p> <p>오늘 낮 12시 30분 경 부산의 한 사거리에서 정모 씨(53)가 몰던 직행버스가 신호 대기 중이던 또 다른 버스와 택시를 잇따라 들이받아 안에 타고 있던 오모 씨(22) 등 승객 27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p> <p>가: 인사동에 오니까 난생 처음 보는 물건들이 많네요.</p> <p>나: 인사동에는 골동품이나 오래된 책, 그림 등 진귀한 물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에요.</p> <p>가: 그런데 저건 뭐예요? 먹는 거예요?</p> <p>나: 네. 그건 ‘달고나’라고 하는데 군것질거리가 많지 않던 시절에 아이들이 즐겨 먹던 과자예요.</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제 읽던 책을 어디에 뒀는지 안 보이네요. · 제가 살던 곳은 하루에 버스가 두 대밖에 오지 않는 시골이었어요. · 예전에는 언니가 입던 옷을 물려받아 입어서 새 옷이 별로 없었어요. · 재미있게 보던 드라마가 끝나서 아쉬워요. · 산업 발달로 인해 깨끗하던 강이 오염됐어요. · 어렸을 때부터 기르던 개가 죽어서 너무 슬퍼요. · 다른 사람들이 쓰던 물건은 찢찢해서 중고는 안 사요. · 그렇게 얌전하던 아이가 코미디언이 되다니 깜짝 놀랐어요. · 앞에 가던 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 날 뻔 했어요. · 대학 졸업 후에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을 이어 받기로 했어요.

- + '-던1'은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게 하는 전성어미로 여러 번 또는 한동안 계속된 과거의 사건이나 행위, 상태를 다시 떠올리는 의미를 나타내거나 과거의 사건, 행위, 상태가 완료되지 않고 중단되었다는 미완의 의미를 나타낸다. '어제 읽던 책'은 어제 책을 읽고 있었으나 아직 다 읽지 못하고 읽기가 중단되었음을 나타낸다. '제가 살던 곳'은 과거에 한동안 살았으나 지금은 살지 않는 곳을 다시 떠올리며 이야기할 때 사용한다.

[도입]

(1)

교사: (교사가 마시던 물을 보여 주며) 이게 뭐예요?

학생: 물이에요.

교사: 누가 이 물을 마시고 있어요?

학생: 선생님이요.

교사: 선생님이 이 물을 다 마셨어요?

학생: 아니요. 아직 다 안 마셨어요.

교사: 네. 이것은 선생님이 **마시던** 물이에요. 뒤에 오는 명사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과거에 시작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할 때 '-던'을 사용해요.

(2)

교사: (1960년대 강남의 사진을 보며 주며) 여러분 여기가 어디인지 알겠어요?

학생: 몰라요.

교사: 여기는 1960년대 강남이에요. 어때요?

학생: 시골 같아요. / 지금의 강남이랑 너무 달라요.

교사: 네, 옛날에 강남은 논과 밭뿐이었어요. 그런데 70년대부터 개발을 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어요. 논과 **밭뿐이던** 강남이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뒤에 오는 명사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과거에 여러 번 또는 한동안 계속되었던 것을 떠올리며 이야기할 때 '-던'을 사용해요.

[형태 정보]

-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던'을 쓴다.

예)	먹- + -던 → 먹던	듣- + -던 → 듣던
	입- + -던 → 입던	살- + -던 → 살던
	좋- + -던 → 좋던	싫- + -던 → 싫던
	가- + -던 → 가던	보- + -던 → 보던
	만나- + -던 → 만나던	말하- + -던 → 말하던
	예쁘- + -던 → 예쁘던	날씬하- + -던 → 날씬하던

①	받침 o	+ -던	먹던, 듣던, 입던, 살던, 좋던, 싫던
---	------	------	------------------------

	받침 ×	+ -던	가던, 보던, 만나던, 말하던, 예쁘던, 날씬하던
--	------	------	--------------------------------

② '이다, 아니다'는 '-던'을 쓴다.

예) 학생이- + -던 → 학생이던 중심이- + -던 → 중심이던
 의사이- + -던 → 의사이던 예의이- + -던 → 예의이던
 장난이 아니- + -던 → 장난이 아니던

[문장 구성 정보]

① 완료를 나타내는 어미 '-었-'과 함께 '-었던'으로 사용한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상태가 현재에는 지속되지 않고 단절되었음을 나타낸다.

예) 어제 저녁에 **먹었던** 음식 이름이 뭐지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어인데 뜻이 생각이 안 나요.
 학교 다닐 때는 **조용했던** 영수가 연예인이 되다니 깜짝 놀랐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생이었던** 수지가 벌써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 '-던'은 과거에 시작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일, 혹은 과거에 자주 한 일에 쓰이는 데 반해,
 '-었던'은 과거에 시작해서 이미 과거에 끝났고 현재와는 단절된 경우에 쓰인다.

예) 어제 **먹던** 찌개를 오늘 또 먹었어요.
 → 어제 먹다가 남은 찌개를 오늘 또 먹었음을 뜻한다.
 어제 **먹었던** 찌개를 오늘 또 먹었어요.
 → 어제 찌개를 먹었고, 오늘도 그것과 같은 새 찌개를 먹었음을 뜻한다.

[유사 문법]

① '-던', '-은'

-던	-은
----	----

· 명사를 수식하며 과거의 사실을 이야기한다.

<p>· 과거에 완료되지 않은 행위를 나타낸다.</p> <p>예) 어제 읽던 책을 어디에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다른 사람이 먹던 걸 아무렇지도 않게 먹어요. (o)</p>	<p>· 과거에 완료된 행위를 나타낸다.</p> <p>예) 어제 읽은 책을 어디에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다른 사람이 먹은 걸 아무렇지도 않게 먹어요. (x)</p>
<p>· 과거에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에는 사용하지만 한 번만 일어난 일에는 사용하지 않는다.</p> <p>예) 이곳은 제가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예요.</p>	<p>· 과거에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에도 사용하고 한 번만 일어난 일에도 사용한다.</p> <p>예) 이곳은 제가 예전에 자주 간 카페예요. 이곳은 제가 결혼한 곳이에요.</p>

이곳은 제가 결혼하던 곳이에요.	
<p>+ '어제 읽던 책'은 아직 다 읽지 않았다는 미완의 의미가 들어있으나 '어제 읽은 책'은 어제 다 읽었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던'에는 미완의 의미가 담겨 있으므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먹던 걸 아무렇지도 않게 먹어요'는 성립이 가능하다. 다른 사람이 먹다가 다 먹지 않았으므로 그 남은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은'은 과거에 완료된 행위를 나타내므로 '그는 다른 사람이 먹은 걸 아무렇지도 않게 먹어요'는 성립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먹어서 이미 없으므로 그가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p> <p>+ '-던'은 과거에 완료되지 않은 행위나 과거에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에 사용하므로 '제가 결혼하던 곳'은 '결혼을 하다가 끝내지 못한 곳'이나 '결혼을 여러 번 한 곳'이라는 의미가 된다.</p>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 '的'

예) 그렇게 **얌전하던** 아이가 코미디언이 되다니 깜짝 놀랐어요.

- 那么**安静**的女孩儿当了喜剧演员, 真是吓了一跳.

내가 **살던** 곳은 충북대학교 부근이었다.

- 我**住过**的地方是忠北大学附近.

나는 늘 언니가 **입던** 옷을 물려받아 입었다.

- 我一直都穿姐姐**穿过**的衣服.

② 용법과 오류

- '-던'은 과거에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에는 사용하지만 한 번만 일어난 일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어 대응 표현 '的'는 한번 일어난 일과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예) 아빠가 사 준 노트. (x) ('아빠가 사 주던 노트'로 표현해야 할 경우)

우리가 어릴 때 먹은 과자. (x) ('우리가 어릴 때 먹던 과자'로 표현해야 할 경우)

친구가 입은 옷을 물려받아 입었다. (x) ('친구가 입던 옷'으로 표현해야 할 경우)

- '-던'은 전성어미로서 중국어 '的'과 가장 많이 대응된다. 중국어 '的'는 그 용법이 다양하여 '-던' 외에도 '-의', '-것' 등에 대응된다.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이 여러 가지 표현을 혼동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재미있게 보의 드라마가 끝나서 아쉬워요. (x)

내가 가장 즐겨 먹것 과자입니다. (x)

앞에 가던의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다. (x)

- '-었던'은 중국어 '(曾经) ... 过'에 대응되어 과거에 일어났지만 현재는 단절된 상태를 나타낸다.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중국어 표현의 영향으로 인해 '-었'을 사용하지 않거나 '曾经'에 대응되는 시간부사를 무조건 사용한다든가 '过'를 '-적'으로 표현하는 등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어제 저녁에 먹적이 있는 음식 이름이 뭐지요? (x)

일찍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생이었던 수지가 지금은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

다. (x)

이전에 가적던 곳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x)

3.5. 종결어미

3.5.1. ‘-거든2’

-거든2{-거든요}[종결어미] 질문에 대한 **대답** 또는 앞의 내용에 대한 **이유나 사실** 등을 당연한 듯이 말함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거든2: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어떤 이유나 사실을 당연한 듯이 말할 때에 사용한다. ‘-거들랑’과 거의 유사하다. 주로 구어에서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어제 왜 늦게 들어왔니? 나: 엄마, 죄송해요. 앤디 씨가 아파서 병원에 같이 갔어요. 가: 그래? 어디가 아프데? 나: 배가 아파서요. 앤디 씨는 매운 것을 먹으면 배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김치도 떡볶이도 잘 못 먹어요.</p> <p>가: 미도리 씨. 오늘 많이 피곤해 보여요. 나: 어제 리포트 쓰느라 늦게 잤거든요. 가: 그래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군요. 나: 아니에요. 요즘 공부를 거의 못했어요. 매일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밍 씨가 왜 기분이 좋으냐면 지금 중국 음식을 먹거든요. · 왜 커피를 안 마시느냐면 커피만 마시면 잠을 못 자거든요. · 설희가 내일 왜 못 오느냐면 시험을 치거든. · 현우는 인기가 많아. 친구들의 고민을 잘 들어주거든. · 꾸영은 오늘 학교에 못 와. 어제 병원에 입원했거든. · 우산을 왜 들고 왔느냐면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했거든. · 어제 왜 집에 일찍 갔느냐 하면 머리가 많이 아팠거든. · 왜 교복을 입느냐 하면 난 아직 학생이거든. · 줄리아 씨는 영어를 못해요. 미국 사람이 아니거든요. · 샤오밍 씨는 요즘 밥을 안 먹어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 ‘-거든2’는 앞 문장에서 이유나 원인을 물으면 뒤 문장에서 그 이유나 사실을 당연한 듯이 말할 때에 대체로 사용한다. ‘매일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원인과 ‘요즘 공부를 거의 못한다’는 결과가 있을 경우, 앞 문장에서 결과를 제시하면 뒤 문장에서 ‘-거든’을 사용하여 원인을 제시한다.

[도입]

(1)
 교사: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고 배가 아파서 우는 그림을 보여 주면서) 이 아이는 왜 울고 있어요?
 학생: 배가 아파서요.
 교사: 왜 배가 아파요?
 학생: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어서요.
 교사: 맞아요. 이때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었거든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든'은 어떤 행동의 이유를 말할 때에 사용해요.

(2)
 교사: (교사가 여러 번 하품을 하는 행동은 한다.) 오늘 오후는 많이 졸리네요.
 학생: 선생님, 피곤하세요?
 교사: 네, 조금 피곤해요. 어제 새벽까지 연구를 했거든요. 지금처럼 피곤한 이유를 설명할 때에 '-거든'을 사용할 수 있어요.

+ '-거든'은 원인의 문장과 결과의 문장을 각각 준비한다. 결과의 문장을 먼저 만든 후에 원인의 문장을 만들 때에 '-거든'을 사용할 수 있음을 가르친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다', '배가 아프다'의 문장을 준비한 다음 '배가 아파요,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었거든요'처럼 '-거든'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거든'을 쓴다.

예) 잡- + -거든 → 잡거든 듣- + -거든 → 듣거든
 멀- + -거든 → 멀거든 놀- + -거든 → 놀거든
 달리- + -거든 → 달리거든 공부하- + -거든 → 공부하거든
 착하- + -거든 → 착하거든 예쁘- + -거든 → 예쁘거든

+ 어떤 동사나 형용사가 와도 형태가 변하지 않음에 주의한다.

①	받침 o	+ -거든	잡거든, 듣거든, 놀거든, 멀거든
	받침 x	+ -거든	달리거든, 공부하거든, 예쁘거든, 착하거든

② '이다, 아니다'는 '-거든'을 쓴다. 단,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주로 '명사+-거든'이라고 쓴다.

예) 학생이- + -거든 → 학생이거든 책이- + -거든 → 책이거든
 과자이- + -거든 → 과자이거든/과자거든 아니- + -거든 → 아니거든

[문장 구성 정보]

- ① 앞 문장에 '왜 ~ -느냐면(느냐고 하면, 느냐 하면)'이 자주 쓰인다.

예) 왕밍 씨가 왜 기분이 좋으냐면 지금 중국 음식을 **먹거든요**.
왜 커피를 안 마시느냐면 커피만 마시면 잠을 못 **자거든요**.
선희가 내일 왜 못 오느냐면 시험을 **치거든**.

- ② '-거든'은 구어적 상황에서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사용하며, 듣는 사람이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을 때는 보조사 '요'를 덧붙여 '-거든요'로 쓴다.

예) 우산을 왜 들고 왔느냐면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했거든요**.
어제 왜 집에 일찍 갔느냐 하면 머리가 많이 **아팠거든요**.

[제약]

- ① 회상 '-더-'와는 결합할 수 없다.

예) 선희가 어제 한국에 **도착하더거든요**. (x)
조금 전에 학교에서 **출발하더거든**. (x)

- ② 미래·추측 '-겠-'은 '-거든'과 결합할 수 없다.

예) 내일 아침에 **지각하겠거든**. (x)
오늘 오후에 일찍 학교에 **가겠거든**. (x)

[확장]

- ① 어떤 사실이나 현상을 먼저 제시한 후, 뒤에 이야기가 지속됨을 나타낸다.

예) 어제 가방을 새로 **샀거든**. 근데 동생이 똑같은 가방을 사서 온 거야.
꾸영 씨가 내년에 한국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요.
경복궁은 한국에서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경복궁에 갈 거예요.
쑤완 씨가 어릴 때에는 **똥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날씬해요.

- ② '-거든'과 '-거들랑'은 의미와 기능이 유사하여 교체가 가능하다. 다만, '-거들랑'은 더 구어적이며 여성이 많이 사용하고 '-거든'보다 사용 빈도가 낮다.

가: 어제 왜 그렇게 늦었어?

예) 나: 미안해.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같이 **갔거들랑**.

가: 경주를 어떻게 잘 알아?

나: 작년에 경주에 여행을 **갔거들랑**.

가: 김치를 왜 못 먹어요?

나: 매운 것을 먹으면 배가 **아프거들랑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 ① 대응 표현: 없음.

예) 왜 밥을 남겼느냐고? 아까 떡을 많이 **먹었거든요**.

为什么剩饭了呢? 因为刚才吃了很多打糕.

경복궁은 한국에서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경복궁에 갈 거예요.

景福宫是韩国有名的景点, 明天打算去景福宫.

② 용법과 오류

- 종결어미 '-거든요(요)'는 어떤 사실이나 현상을 제시한 후 뒤에 이야기가 지속됨을 나타낸다. 중국어에서는 종결어미 '-거든요(요)'에 대응되는 표현이 없다 보니 마땅히 써야 하는 경우에도 중국어의 영향으로 인해 보통의 평서문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예) 요즘 왜 기분이 좋냐고요? 나 사실 여자 친구가 생겼어요. (x)

(‘나 사실 여자 친구가 생겼거든요’로 표현해야 할 경우)

왜냐하면 어제 리포트를 쓰느라고 늦게 잤어요. (x)

(‘왜냐하면 어제 리포트를 쓰느라고 늦게 잤거든요’로 표현해야 할 경우)

왜냐하면 논문 쓰기 때문에 늦게 잤어요. (x)

(‘왜냐하면 논문 쓰기 때문에 늦게 잤거든요’로 표현해야 할 경우)

- 종결어미 '-거든요(요)'는 어떤 사실을 제시할 때 두 개의 문장 중 뒤 문장의 끝에 쓰인다. 그런데 중국어 접속사는 두 개의 문장에 대칭되게 분포되어 사용하므로 '-거든요(요)'를 어느 문장 끝에 써야 할지에 대해 중국어권 학습자는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국어의 '-거든요'를 사용할 만한 의미를 중국어는 병렬문으로 표현하는 일이 많아 한국어에서도 '-고'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예) 동생은 어릴 때 똥똥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날씬했거든요. (x)

누나는 어릴 때 똥똥하고 지금은 날씬해졌어요. (x)

엄마는 작년까지도 건강하고 지금은 많이 아파요. (x)

3.5.2. ‘-게5·6’

-게5·6{-게요}[종결어미] 1) 상대방의 의도를 묻거나 2) 물은 근거를 제시함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 게5**: (동사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의 의도를 물을 때에 사용한다. ‘-으려고’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 주로 구어에서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1)</p> <p>가: 누나 뭐 해요?</p> <p>나: 반죽 만들고 있어.</p>
------	--

	<p>가: 그걸로 뭐 하게요?</p> <p>나: 부침개 만들려고.</p> <p>(2)</p> <p>가: 영수야. 이번 방학에 뭐해?</p> <p>나: 아직 계획을 못 잡았어.</p> <p>가: 나랑 같이 갈래?</p> <p>나: 어딜 가게?</p> <p>가: 제주도에 자전거 여행 가려고.</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이어트를 한다더니 치킨을 먹게? · 할 일이 이렇게도 많은데 놀게요? · 어떻게 고향에 가게? · 좀 전에 빵을 샀는데 또 과자를 사게? · 벌써 집에 오게? · 나무로 뭐 하게요? · 남은 음식을 다 버리게요? · 시험이 끝났는데도 공부하게? · 10시도 안 되었는데 벌써 자게? · 이제부터 매일 운동하게요?

+ '그걸로 뭐 하게요?'는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의 구어적 표현이다. 이처럼 '-게 5'는 구어적 상황에서 듣는 사람의 의도를 묻고자 할 때에 사용한다.

[도입]

<p>(1)</p> <p>교사: (칠판에 '주말의 계획'을 적은 뒤에) 마이클 씨, 주말에 뭐 할 거예요?</p> <p>학생: 주말에는 친구들과 야외로 놀러 가려고 해요.</p> <p>교사: 주말에 소풍을 가려고요? 주말에 소풍을 가게요?</p> <p>학생: 네, 주말에 날씨가 좋다고 해요.</p> <p>교사: 주말에 할 일을 물어보려고 할 때 '-게'를 쓸 수 있어요. '주말에 소풍을 가게요?', '집에서 공부하게요?'처럼 말할 수 있어요.</p> <p>(2)</p> <p>교사: (독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쉰완 씨, 읽고 싶은 책이 있어요?</p> <p>학생: 예, 한국 소설을 읽고 싶어요.</p> <p>교사: 어떤 소설을 읽어 보려고요? 어떤 소설을 읽어 보게요? '-게'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물을 때 쓸 수 있어요. 어떤 소설을 읽어 보게요?(동일한 질문을 한 번 더 반</p>

예) 운동을 싫어하더니 이제는 **운동하게**? (o)
 자주 청소하니 집이 **깨끗하게**? (x)
 동생은 어린이지만 키가 **크게**? (x)

② '-게5'는 상대방의 의도를 물으므로 1인칭과 3인칭 주어와는 결합하지 못한다.

예) 난 오늘부터 매일 **운동하게**? (x)
 너는 오늘부터 매일 **운동하게**? (o)
 그/그녀는 오늘부터 매일 **운동하게**? (x)

③ '-게5'는 선어말 어미 '-었-, -는-, -겠-'과 결합하지 않고 높임의 '-시-'와는 결합한다.

예) 버스로 고향에 **가시게요**? (o)
 버스로 고향에 **갔게**? (x)
 버스로 고향에 **가는게**? (x)
 버스로 고향에 **가겠게**? (x)

[확장]

① '-게5'는 한번 짐작해서 답해 볼 것을 권할 때에도 쓸 수 있다.

예) 내가 어느 나라에서 **왔게**?
 그 친구의 별명이 **뭘게요**?

+ 이 경우에는 과거 '-었-'과 결합할 수 있다.

[유사 문법]

① '-게5', '-으려고1'

-게5	-으려고1
· 의도를 나타낸다.	
· 종결어미이다. 예) 지금 명동에 가게요 ? *나는 친구를 만나게 명동에 갔어요.	· 연결어미이다. 뒤의 절을 줄여 종결어미처럼 쓰기도 한다. 예) 나는 친구를 만나려고 명동에 갔어요. 명동에 왜 갔어? - 친구를 만나려고 .
· 비공식적 상황에서 주로 사용한다. 예) 여러분,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요 ? (x)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요 ? (o)	· 공식적·비공식적 상황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예)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o) 너를 만나려고 왔어. (o)

+ '-게5'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면 어색하거나 무례한 표현이므로 '-으려고'를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여러분, 이제부터 운동을 시작하게요?'보다 '여러분, 이제부터 운동을 시작하려고 해요?'와 같은 문장이 더 적절하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 의문 대명사 혹은 '吗'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어딜 **가**게?

- 去哪儿?

그거로 뭐 **하**게요?

- 用那些干什么?

열시도 안 되었는데 벌써 **자**게?

- 还不到十点呢, 就睡啊?

남은 음식을 다 **버리**게요?

- 剩下的饭菜都要扔吗?

12시가 넘었는데 안 **자**게?

- 都十二点多了, 还不睡?

② 용법과 오류

- 듣는 사람의 의도를 물을 때 중국어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대응 표현을 사용한다. 단순 의문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하는 의문 형식과 혼동하여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예) 이렇게 더러운데 앉게아니않게? (x)

날씨도 이렇게 추운데 기다아니기다리게? (x)

이렇게 힘든데 운아니운동? (x)

- '-게'는 동사에만 붙어서 사용하지만 중국어는 듣는 사람의 의도를 물어볼 때 동사 외에 형용사도 아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이런 미세한 어감을 구별하기는 쉽지 아닐뿐더러 이런 상이한 표현 차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예) 이쁘지게? (x) (漂亮吗?)

이아니이쁘게? (x) (是不是漂亮?)

낮에도 이렇게 추우게? (x)

힘아니힘들게? (x) (累不累?)

- '-게'는 '이다, 아니다'와 결합할 수 없지만 중국어는 '이다, 아니다'와 충분히 결합하여 듣는 사람의 의도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차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예) 그가 변호사이게? (x)

이게 미국이게? (x)

자기 자식도 돌보지 않은 사람이 엄마이게? (x)

- **게6**: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추정하여 묻은 뒤에 그 추정의 근거를 스스로 제시할 때에 사용한다. 주로 구어에서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1)</p> <p>가: 영수 씨, 지금 어디예요?</p> <p>나: 학교예요.</p> <p>가: 무슨 일이에요? 아직까지 학교에 있게요.</p> <p>나: 내일 오전에 시험이 있어요.</p> <p>(2)</p> <p>가: 지금 나갈 거니?</p> <p>나: 응.</p> <p>가: 근데 무슨 날이니? 화장을 다 하게.</p> <p>나: 오늘 남자 친구와 첫 데이트해.</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먹을 게 없나 봐요? 만두를 먹게. · 영희가 바지가 없나 봐요? 치마를 입게요. · 너 제정신이니? 이렇게 늦게까지 안 들어오게. ·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봐요? 곱게 차려입으셨게. · 오늘 바쁜가 봐요? 아침 일찍 나오게요. · 무슨 일 있어요? 오늘 따라 표정이 어두우시게. · 내가 어떻게 이걸 만들어? 그러면 내가 건축가이게. · 제가 왜 교복을 입어요? 제가 학생이게요. · 주사를 못 놓는다고? 그러면 간호사가 아니게. · 성적이 올랐나 봐? 웃고 있게.

+ '-게6'는 말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추정하여 질문한 뒤 그 추정의 근거를 스스로 제시할 때에 사용한다. '무슨 일이에요? 아직까지 학교에 있게요?'는 '아직까지 학교에 있으므로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이다'는 의미를 지니며, '무슨 날이니? 화장을 하게'는 '화장을 하는 것을 보니 특별한 날일 것이다'의 의미를 지닌다.

[도입]

<p>(1)</p> <p>교사: (한국 음식을 소개한 뒤에) 흐영 씨, 한국 음식은 맵지 않아요?</p> <p>학생: 별로 안 매워요. 맛있어요.</p> <p>교사: 베트남에도 매운 음식이 있나 봐요? 매운 음식을 잘 먹게요.</p> <p>학생: 네, 있어요.</p> <p>교사: 좀 전에 '베트남에도 매운 음식이 있나 봐요? 매운 음식을 잘 먹게요.'라고 물었어요. 이때 '-게'는 어떤 사실을 추측한 뒤, 그 사실의 결과를 말할 때 써요.</p> <p>(2)</p>
--

교사: (늦잠을 자는 그림, 일찍 일어난 그림을 보여 주면서)
이 친구는 매일 늦잠을 잤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이 친구는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학생1: 시험이 있어요.

학생2: 여행을 가요

교사: 아마 시험이 있거나 여행을 갈 거예요. '시험이 있어
요? 일찍 일어나게요', '여행을 가나 봐? 일찍 일어나
게'처럼 쓸 수 있어요. 이처럼 추측한 행동의 결과를
말할 때에 '-게'를 쓸 수 있어요.

+ '-게6'의 경우, 교사는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두 문장을 우선 작성한다. 원인에 해당하는 문장을 만들고, 결과에 해당하는 문장에 '-게6'을 사용한다. '베트남에 매운 음식이 있나 봐요?'처럼 먼저 어떤 현상의 결과에 해당되는 것을 질문한 뒤에 '매운 음식을 잘 먹게요'처럼 근거를 제시할 때에 '-게6'을 사용할 수 있다.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게'를 쓴다.

예) 먹- + -게 → 먹게	듣- + -게 → 듣게
작- + -게 → 작게	많- + -게 → 많게
보- + -게 → 보게	크- + -게 → 크게

①	받침 o	+ -게	먹게, 듣게, 작게, 많게
	받침 x	+ -게	보게, 크게

② '이다, 아니다'는 '-게'를 쓴다. 단,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주로 '명사+-게'라고 쓴다.

예) 책상이- + -게 → 책상에게	의사이 + -게 → 의사이게/의사게
학교이 + -게 → 학교에게/학교게	아니- + -게 → 아니게

[문장 구성 정보]

① 앞 문장은 의문문이나 '~은가 봐(요)', '~나 봐(요)'와 같은 표현과 자주 쓴다.

예)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어두우시게**.
지금 먹을 게 없나 봐요? 만두를 **먹게**.

② 부정문은 부사 '안'이 더 자연스럽다.

예) 오늘 바쁜가 봐요? 아침 일찍 **안 나오게요**. (o)
오늘 바쁜가 봐요? 아침 일찍 **나오지 않게요**. (x)

오늘 언니가 바쁜가 봐요? 아침 일찍 **안 나오게요**. (o)

오늘 언니가 바쁜가 봐요? 아침 일찍 **나오지 않게요.** (o)

성적이 안 올랐어? 혼자서 **안 웃게.** (o)

성적이 안 올랐어? 혼자서 **웃지 않게.** (x)

영희가 성적이 안 올랐어? 혼자서 **안 웃게.** (o)

영희가 성적이 안 올랐어? 혼자서 **웃지 않게.** (o)

+ 부정문은 문장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으면 부사 '안'이 적절하지만, 3인칭 주어가 나타나면 부사 '안'과 부정 표현 '-지 않다'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③ '-게6'는 구어적 상황에서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사용하며, 듣는 사람이윗사람이거나 높여야 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해요체의 '-게요'로 쓴다.

예) 어떻게 이걸 만들어요? 이걸 만들면 제가 **요리사게요.**

감기가 다 나으셨나 봐요. 운동을 하러 **나오셨게요.**

[제약 정보]

① '-게6'은 1인칭 주어와 결합하지 못한다.

예) 성적이 올랐나 봐? 내가 혼자서 **웃게.** (x)

성적이 올랐나 봐? 네가 혼자서 **웃게.** (o)

성적이 올랐나 봐? 그/그녀가 혼자서 **웃게.** (o)

② '-게'는 현재 '-는-', 미래 및 추정 '-겠-'과 결합하지 못하고, 과거 '-었-'과 높임 '-시-'와는 결합한다.

예) 지금 먹을 게 없나 봐요? 만두를 **먹는게.** (x)

내일 먹을 게 없어요? 만두를 **먹겠게.** (x)

어제 먹을 게 없나 봐요? 만두를 **먹었게.** (o)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어두우시게.** (o)

[확장]

① '-게6'는 어떤 사건이나 상태가 아님을 강하게 표현하는 수사 의문문에서 쓸 수 있다.

예) 그걸 내가 알면 **천재게?**

제가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으면 4급 시험에 **합격했게요?**

+ 이 경우에는 과거 '-었-'과 결합할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평서문에 대응됨.

예) 빵을 **먹게.**

- 吃面包.

곱게 **차려입으셨게.**

- 穿的那么漂亮.

웃고 **있게.**

- 笑着呢.

② 용법과 오류

- 추정의 근거를 스스로 제시할 때 중국어는 특별한 고정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평서문을 사용한다.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평서문을 사용하던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만두를 먹는다. (x)

(‘만두를 먹게’로 표현해야 할 경우)

표정이 어두우다 (x)

(‘표정이 어두우게’로 표현해야 할 경우)

- ‘-게’는 동사에만 붙어서 사용하지만 중국어는 듣는 사람의 의도를 물어볼 때 동사 외에 형용사도 아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이런 미세한 어감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을 뿐더러 이런 상이한 표현 차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예) 이쁘지게? (x) (漂亮吗?)

이아니이쁘게? (x) (漂不漂亮?)

낮에도 이렇게 추우게? (x)

힘아니힘들게? (x) (累不累啊?)

- ‘-게5’는 ‘이다, 아니다’와 결합할 수 없지만 ‘-게6’은 ‘이다, 아니다’와 결합할 수 있다. 반면에 중국어는 ‘-게5’, ‘-게6’ 모두 ‘이다, 아니다’와 결합할 수 있다. 이런 불규칙적인 대응 관계와 ‘-게5’와 ‘-게6’의 미세한 어감 차이를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정확하게 사용하고 분별하기 쉽지 않아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이게 책상게? (x)

이게 미국게? (x)

자기 자식도 돌보지 않은 사람이 엄마이다게? (x)

3.5.3. ‘-고4’

-고4{-고요}[종결어미] 앞의 말에 추가적 내용을 이어서 서술하거나 질문함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 고4: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상대방의 말에 어떤 내용을 추가적으로 덧붙여 서술하거나 질문할 때에 사용한다. 주로 구어에서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가: 내일은 어디로 갈까? 나: 명동에 가요. 경복궁에도 가고요. 가: 그래? 거기 갔다가 저녁에는 뭘 먹고 싶어? 나: 삼계탕 먹고 싶어요. 그리고 떡볶이도 먹고 싶고요.</p> <p>가: 삼촌, 안녕하세요? 나: 응, 잘 지냈어?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가: 네, 두 분 다 건강하세요. 나: 할머니는 요즘 어떠세요? 저번에 다리를 다치셨잖아요. 가: 많이 좋아지셨어. 이제는 혼자서 산책도 하셔. 식사도 잘하시고. 나: 정말 다행이네요.</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지 씨는 빵을 먹어요. 왕밍 씨는 과자를 먹고요. · 지금 된장찌개를 만들고 있어. 반찬도 만들고. · 일본은 스시로 유명해요. 한국은 김치로 유명하고요. · 잘 지냈어? 동생도 잘 지내고? · 한국어 문법이 너무 어려워요. 말하기도 어렵고요. · 앤디 씨는 미국 사람이예요. 분티안 씨는 캄보디아 사람이고요. · 한국어로 말하는 것이에요? 영어가 아니고요? · 제주도로 간다고요? 부산이 아니고요? · 현우가 발표한다고? 영수가 아니고? ·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머니도 안녕하시고요?

+ '-고4'는 말하는 사람이나 상대방이 언급한 내용을 덧붙여 말하거나 질문할 때에 사용하는다. '잘 지냈어? 부모님도 건강하시고?'와 같이 '잘 지냈어?'를 물은 뒤에 '부모님도 건강하시고?'를 덧붙이고자 할 때에 '-고'를 사용한다.

[도입]

(1)

교사: 여러분, 중국의 수도는 어디예요?

학생: 베이징이에요.

교사: 영국의 수도는 어디예요?

학생: 런던이에요.

교사: 네, 맞아요.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이에요. 영국은 **런던 이고요**. 이처럼 '-고'는 앞의 내용과 비슷한 것을 이어서 말할 때 써요.

(2)

교사: 선생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예요?

학생: 한국 사람이예요.

교사: 꾸영 씨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학생: 베트남 사람이에요.
 교사: 네, 맞아요. 선생님은 한국 사람이에요. 왕밍 씨는 베트남 **사람이고요**. 앞의 내용과 비슷한 것을 이어서 말하고자 할 때에 '-고'를 사용할 수 있어요.

+ '-고'를 도입할 때는 어떠한 이야기를 먼저 한 다음, 다른 내용을 덧붙이고자 할 때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어간 뒤에 '-고'를 쓴다.

예) 찾- + -고 → 찾고 읽- + -고 → 읽고
 놀- + -고 → 놀고 만들- + -고 → 만들고
 밝- + -고 → 밝고 좁+ -고 → 좁고
 가- + -고 → 가고 다니- + -고 → 다니고
 크- + -고 → 크고 예쁘- + -고 → 예쁘고

+ 어떤 동사나 형용사가 와도 형태가 변하지 않음에 주의한다.

①	받침 o	+ -고	찾고, 읽고, 놀고, 만들고, 밝고, 좁고
	받침 x	+ -고	가고, 다니고, 크고, 예쁘고

② '이다, 아니다'는 '-고'를 쓴다. 단,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주로 '명사+-고'로 쓴다.

예) 학생이- + -고 → 학생이고 선생님이- + -고 → 선생님이고
 가방이- + -고 → 가방이고 종이이- + -고 → 종이이고/종이고
 과자이- + -고 → 과자이고/과자고 아니- + -고 → 아니고

[문장 구성 정보]

① '-고'는 말하는 사람보다 아랫사람이거나 친한 친구 사이에서 사용한다. 높임 표현으로는 '-요'가 결합한 '-고요'의 형태를 사용한다.

예) 어제는 찌개를 만들었어요. 반찬도 **만들었고요**.
 일본은 스시로 유명해요. 한국은 김치로 **유명하고요**.

[제약]

① 회상 '-더-'와 결합할 수 없다.

예) 동수가 요리를 하더군요. 동생도 요리를 **하더고요**. (x)
 비가 오지 않더군요. 눈도 오지 **않더고요**. (x)

② 앞 문장과 뒤 문장의 문장 유형이 동일해야 한다.

예) 수지 씨는 빵을 먹어요. 왕밍 씨는 과자를 **먹고요**. (o)

수지 씨는 빵을 먹어요? 왕밍 씨는 과자를 **먹고요**? (o)
수지 씨는 빵을 먹어요. 왕밍 씨는 과자를 **먹고요**? (x)
수지 씨는 빵을 먹어요? 왕밍 씨는 과자를 **먹고요**. (x)

[확장]

① 의문문과 함께 쓰여 그 질문과 관련된 상황이나 덧붙여 말할 내용을 나타낸다.

예) 어머, 웬일이세요? 이 시간에 아직 집에 **있고요**.
무슨 일일까요? 미셀 씨가 화를 다 **내고요**.
지금 뭐 하세요? 손님이 오셨는데 나오지 **않고요**.

+ 이때 의문문 뒤의 '-고(요)'가 쓰인 문장은 주로 주어진 상황에 대해 의아해함을 나타낸다.

② 수사 의문문의 꼴로 쓰여 이미 언급되거나 알고 있는 내용에 관해 따져 묻거나 상황을 강조할 때 사용한다.

예) 안 간다고 할 때는 **언제고**?
네가 안 먹으면 이 많은 음식은 다 어떻게 **하고**?
이 돈을 다 쓰시면 저는 **어떡하고요**?

+ 이때에는 질문 형식이지만 수사 의문문으로 쓰였기 때문에 끝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없음.

예) 할머니는 혼자서 산책도 하셔, 식사도 **잘하시고**. - 奶奶能自己散步了, 吃得也挺好的.
수지는 빵을 먹어요. 왕밍은 과자를 **먹고요**. - 秀智吃面包, 王明吃饼干.
제주도로 간다고요? 부산이 **아니고요**? - 去济州岛啊? 不去釜山了?
한국어로 말하는 것이에요? 영어가 **아니고요**? - 用韩国语说吗? 不是英语呀?

② 용법과 오류

- 질문함을 나타낼 경우 다른 의문 방식과 혼동하여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내일 간다고요? 모레가 아니요? (x)
(‘아니고요’로 표현해야 할 경우)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머니도 안녕하세요? (x)
(‘안녕하시고요?’로 표현해야 할 경우)

- 의문문과 함께 쓰여 그 질문과 관련된 상황을 덧붙여 말하는 용법이 중국어에는 대응 표현이 없기 때문에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지금 뭐 하세요? 손님이 오셨는데 나오지 않네요. (x)
지금 뭐 하세요? 손님이 오셨는데 나오지 **않고요**. (o)

- 앞의 말에 추가적 내용을 이어서 서술함을 나타내는데 중국어에는 대응 표현이 없으므로 반드시 사용해야 될 경우와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경우를 혼동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한국어는 문법이 너무 어렵고요. 말하기도 어렵고요. (x)

한국어는 문법이 너무 어려웠어요. 말하기도 어렵고요. (o)
 어제는 고기가 특별히 맛있었고요. 과일도 신선했구요. (x)
 어제는 고기가 특별히 맛있었어요. 과일도 신선했구요. (o)

- 앞의 말에 추가적 내용을 이어서 질문하는 경우 한국어는 주로 끝을 올려서 말하지만 중국어는 평서문과 똑같은 어조이므로 그대로 내려서 말하는 오류를 범한다.

예) 어머, 웬일이세요? 이 시간에 아직 집에 있고요? (문장의 끝을 올려서 말함)
 - 哇, 怎么回事? 怎么这个点还在家?(문장의 끝을 올리지 않음)
 지금 뭐 하세요? 손님이 오셨는데 나오지 않고요. (문장의 끝을 올려서 말함)
 - 干什么呢? 客人来了怎么还不出来? (문장의 끝을 올리지 않음)

3.5.4. ‘-나요’

-나요[종결어미] 윗사람인 상대방에게 질문함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나요: (동사에 붙어)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거나 친한 사이에서 윗사람인 상대방에게 질문할 때에 사용한다. '-나요'는 의문형 어미 '-나'에 높임의 보조사 '요'가 결합하여 형성된 종결어미이다. 부드럽고 친절한 느낌을 준다. 주로 구어에서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요즘 아침에 무엇을 먹나요 ? 나: 요즘은 빵을 먹어요. 가: 어디에 사나요 ? 나: 방화동에 삽니다. 가: 그 방이 좁나요 ? 나: 네, 많이 좁아요. 가: 거기에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 나: 100명쯤 있는 것 같아요. 가: 공책이 있나요 ? 나: 네, 있어요.
문장예문	· 오늘은 어디서 먹나요 ? · 누가 책을 읽나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밍 씨는 기숙사에서 사나요? . 내일 어디서 모이나요? .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둑을 누가 잡았나요? . 무슨 일이 생겼나요? . 모임이 끝나면 집에 가도 되나요? . 방은 깨끗하나요? . 질문 있나요? . 휴식 시간은 없나요?
--	--

+ '-나요'는 의문형 '-어요?'보다 더 부드럽고 구어적인 어미이다. '요즘 아침에 무엇을 먹어요?'보다 '요즘 아침에 무엇을 먹나요?'가 더 부드러운 표현이다.

[도입]

(1)
교사: (칠판에 동사 카드를 붙여 놓은 후, 걸어가는 행동을 보이면서) 동생이 학교에?
학생: 가요.
교사: '가다'를 이용해서 물어 보세요.
학생: 동생이 학교에 가요?
교사: 잘했어요. 이때 좀더 부드럽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요'를 사용해요. '동생이 학교에 가나요? '라고 말해요.
(2)
교사: 저는 여름방학 때 미국에 가요. (교실 안의 학생을 가리킨다.) 흐영 씨는 여름방학 때 어디에 가나요? 어디에 가요?
학생: 저는 캄보디아에 가요.
교사: 언제 가요? 언제 가나요?
학생: 시험이 끝나면 가요.
교사: '가나요'가 좀더 부드럽고 구어적인 표현이에요.

+ (1)처럼 '-나요'를 도입할 때 동사 카드를 활용하거나 (2)처럼 학생 개개인의 국적, 교실 내의 물건을 물어보는 상황을 연출하여 도입을 한다. '-어요?'와 병행하여 시작한 뒤 '-나요?'와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나요'를 쓴다.

예) 먹- + -나요 → 먹나요	읽- + -나요 → 읽나요
좋- + -나요 → 좋나요	줍- + -나요 → 줍나요
있- + -나요 → 있나요	춡- + -나요 → 춡나요
가- + -나요 → 가나요	자- + -나요 → 자나요

공부하- + -나요 → 공부하나요 바쁘- + -나요 → 바쁘나요

②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이 'ㄹ' 받침으로 끝나면 'ㄹ'이 탈락하고 '-나요'를 쓴다.

예) 놀- + -나요 → 노나요 만들- + -나요 → 만드나요
 울- + -나요 → 우나요 길- + -나요 → 기나요

①	받침 ㄱ	+ -나요	먹나요, 읽나요, 종나요, 좁나요, 있나요, 춥나요,
	받침 ㄴ	+ -나요	가나요, 자나요, 공부하나요, 바쁘나요
②	ㄹ 받침	+ -나요 (어간 ㄹ 탈락)	노나요, 만드나요, 우나요, 기나요

③ '이다, 아니다'는 '-나요'를 쓰지 않고 '-ㄴ가요'를 쓴다. 단,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아-'를 생략하고 '-ㄴ가요'의 'ㄴ'이 앞 모음과 결합할 수 있다.

예) 학생이 + -나요 → 학생이나요 (x) 학생이 + -ㄴ가요 → 학생인가요 (o)
 책이 + -나요 → 책이나요 (x) 책이 + -ㄴ가요 → 책인가요 (o)
 학교이 + -나요 → 학교이나요/학교나요 (x) 학교이 + -ㄴ가요 → 학교인가요/학곤가
 요 (o)
 아니 + 나요 → 아니나요 (x) 아니 + ㄴ가요 → 아닌가요 (o)

[제약]

① '이다, 아니다'는 '-ㄴ가요'로 쓰이지만 과거 '-었-'과 결합할 때에는 '-나요'로 나타난다.

예) 영수가 학생인가요? (o)
 영수가 학생이었나요? (o)
 영수가 학생이 아니었나요? (o)

② '이다, 아니다'는 미래·추측 '-겠-'과는 결합하지 못한다.

예) 영수가 학생이겠나요? (x)
 영수가 학생이 아니겠나요? (x)

③ 형용사 어간이 모음으로 끝날 경우에는 '-나요'의 결합이 매우 부자연스럽다. 이때는 '-ㄴ
 가요'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예) 그 건물이 크나요? (??)
 그 건물이 큰가요? (o)

④ 회상 '-더-'와 결합하면 '-던가요'로 나타난다.

예) 비가 오더나요? (x) 영수가 학생이 아니더나요? (x)
 집이 춥더나요? (x) 비가 오던가요? (o)
 영수가 학생이더나요? (x) 집이 춥던가요? (o)

영수가 **학생이던가요?** (o)

영수가 학생이 **아니던가요?** (o)

[유사 문법]

① '-나요', '-어요2')

-나요	-어요2)
-----	-------

· 어떤 상황이나 사실을 질문하는 종결어미이다.

·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될 만큼 가깝거나 친한 사이에서 사용하는 비격식체이다.

예) 롯데월드는 몇 시에 문을 **여나요?**

롯데월드는 몇 시에 문을 **열어요?**

· '-나요'는 비격식체이며 부드럽다는 느낌을 준다. 예) 오늘 어디에서 모이나요?	· '-어요'도 비격식체이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지만 그 정도가 '-나요'보다는 덜하다. 예) 오늘 어디에서 모여요?
· '이다, 아니다'와 결합하지 못한다. 예) 아들이 벌써 대학생이나요? (x) 아들이 대학생이 아니나요? (x)	· '이다, 아니다'와 결합할 수 있다. 예) 아들이 벌써 대학생이에요? (o) 아들이 대학생이 아니예요? (o)
· '이다, 아니다'가 과거 '-겠-'과 결합하지 못한다. 예) 아들이 대학생이겠나요? (x) 아들이 대학생이 아니겠나요? (x)	· '이다, 아니다'가 과거 '-겠-'과 결합하지 못한다. 예) 아들이 대학생이겠어요? (x) 아들이 대학생이 아니겠어요? (x)

+ '-나요'와 '-어요'는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나 관계에서 듣는 사람을 높일 때에 사용한다. '-나요'가 좀 더 여성적이고 부드러운 의미를 지닌다는 의미적 측면과, '이다, 아니다'와의 결합에 제약을 보인다는 통사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吗', '呢', '동사/형용사+不+동사/형용사', 의문대명사.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동생이 책을 **읽었나요?**

-弟弟看书了吗?

요즘 아침에 무엇을 **먹나요?**

- 最近早晨吃什么?

아빠도 **가나요?**

- 爸爸也去? (여기의 올림을 통해 의문을 나타낸다)

② 용법과 오류

- '-나요'의 과거 표현은 '-었'과 결합하는데 중국어 '了'로 대응하여 생각하기 쉽다. 중국어 동사일 경우는 了에 대응되지만 형용사일 경우에는 了에 대응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 차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예) 어제 밤에 춥나요? (x)
 어제 중국 요리가 맛있나요? (x)
 지난번 여행이 좋나요? (x)

- 중국어 의문 표현 '동사/형용사+不+동사/형용사' 의 영향을 받아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너 오늘 나하고 간다아니간다? (x)
 오늘 요리가 맛있다맛없다? (x)
 너 어제 지각안지각? (x)

- '-나요'는 의문대명사와 함께 한 문장에서 사용되어 의문을 나타내지만 중국어는 의문대명사를 사용할 경우 '-나요'와 비슷하게 문장 끝에서 의문을 나타내는 '吗'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예) 선생님께서 오늘 무슨 책을 읽다? (x)
 오늘 어디에서 모이다? (x)
 누가 가다? (x)

- 선어말어미들이 여러 개가 함께 결합하여 쓰이는 경우가 중국어에는 있을 수 없는 전혀 다른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예) 할아버지께서 책을 읽시나요? (x)
 아버지께서 신문을 읽으셨습니까? (x)
 동생이 책을 읽으셨습니까? (x)

3.5.5. '-는구나'

-는구나[-구나][종결어미]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 는구나**: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새로운 사실을 보거나 들은 것을 주목할 때에 사용한다. 말하는 사람이 혼자 말하거나 아랫사람이나 친한 친구에게 말할 때 사용하며, 흔히 감탄의 뜻을 갖는다.

[예문]

담화예문	가: 샤오밍 씨는 매운 음식을 잘 먹어요? 나: 잘 먹지는 못하지만 좋아해요. 가: 김치찌개도 좋아해요? 나: 네, 맵지만 좋아해요. 가: 샤오밍 씨는 한국 음식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
------	--

	<p>가: 영수는 부산 사투리를 정말 잘해. 나: 영수 고향이 부산이 아니니? 가: 아니, 서울이야. 나: 서울 사람이지만 부산 사투리를 잘하는구나.</p>
문장예문	<p>. 미도리 씨가 떡볶이를 잘 먹는구나. . 영수가 고기를 잘 잡는구나. . 미셸이 피아노를 잘 치는구나. . 네 동생은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 영수가 어릴 때 귀여웠구나. . 이 강의실은 다른 곳보다 춥구나. . 기숙사 방이 크구나. . 동생이 아직 학생이구나. . 앤디 아버지는 의사시구나. . 분티안 씨는 베트남 사람이 아니었구나.</p>

+ '샤오밍 씨가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구나'는 말하는 사람이 샤오밍 씨가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고 감탄할 때에 사용한다. '-는구나'는 감탄의 의미를 지닐 때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입]

<p>(1) 교사: 누가 한국어를 제일 잘해요? 학생: 아키라 씨예요. 교사: 누가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요? 학생: 아키라 씨예요. 교사: 그렇군요. 만약 제가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으면 '아키라 씨가 가장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친구에게 말하거나 혼자 생각할 때 '-는구나'를 써요.</p>
<p>(2) 교사: (한국어 시험에 떨어진 앤디를 현우가 위로해 주는 그림을 보여 주며) 앤디 씨가 한국어 시험에 합격했어? 학생: 아뇨. 시험에 떨어졌어요. 교사: 앤디 씨에게는 한국어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학생: 어려워요. 교사: 현우 씨에게는 한국어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학생: 쉬워요. 교사: 현우 씨는 이번 일을 통해 한국어가 어려운 언어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이때 현우 씨는 '한국어가 정말 어렵구나'라고 생각하거나 말할 수 있어요.</p>

+ 단어 카드를 이용하여 용언의 활용형을 익힐 수 있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어간 뒤에 '-는구나'를 쓴다.

예) 먹- + -는구나 → 먹는구나 듣- + -는구나 → 듣는구나
 찾- + -는구나 → 찾는구나 가- + -는구나 → 가는구나
 보- + -는구나 → 보는구나

② 형용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어간 뒤에 '-구나'를 쓴다.

예) 작- + -구나 → 작구나 많- + -구나 → 많구나
 춥- + -구나 → 춥구나 크- + -구나 → 크구나
 바쁘- + -구나 → 바쁘구나 예쁘- + -구나 → 예쁘구나

①	동사	받침 o	+ -는구나	먹는구나, 듣는구나, 찾는구나
		받침 x	+ -는구나	가는구나, 보는구나
		ㄹ 받침	+ -는구나 (어간 'ㄹ' 탈락)	파는구나, 만드는구나
②	형용사	받침 o	+ -구나	작구나, 많구나, 춥구나
		받침 x	+ -구나	크구나, 바쁘구나

③ '이다, 아니다'도 '-구나'을 쓴다. 단,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주로 '명사+-구나'로 쓴다.

예) 학생이- + -구나 → 학생이구나 선생님이- + -구나 → 선생님이구나
 책상이- + -구나 → 책상이구나 의사이 + -구나 → 의사이구나/의사구나
 사과이 + -구나 → 사과이구나/사과구나 아니- + -구나 → 아니구나

[문장 구성 정보]

①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 '정말, 잘, 매우' 등과 자주 결합한다.

예) 미도리 씨가 과자를 정말 **먹는구나**.
 동생이 고기를 잘 **잡는구나**.
 옷이 매우 **예쁘구나**.

② '-는구나'는 아랫사람이나 친구에게 말하거나 혼잣말에 사용된다. 듣는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을 때는 '-는구나'의 줄임말인 '-는군' 뒤에 보조사 '요'를 결합한 '-는군요'를 사용한다.

예) 동생이 공부를 **잘하는군요**.
 영희가 피아노를 잘 **치는군요**.

[제약 정보]

- ① 주어가 2인칭 또는 3인칭일 때 주로 사용한다. '-는구나'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에 1인칭 주어를 쓸 수 없다.

예) 나는 주말에 친구를 **만나는구나**. (x)
 왕밍 씨가 주말에 친구를 **만나는구나**. (o)
 나는 요즘 많이 **바쁘구나**. (x)
 철수가 요즘 많이 **바쁘구나**. (o)

+ 다만, 주어가 1인칭이더라도 자신을 객관화하여 말할 때에는 '-는구나'를 쓸 수 있다.

예) 이번 시험에서 내가 **1등이구나**. (o)
 (1등인지 모르다가 1등인지를 새롭게 알게 된 경우)
 내가 참 **어리석구나**. (o)
 (자신의 어리석음을 새롭게 깨달은 경우)

[확장]

- ① '-는구나'는 해라체에서 사용되고 '-는군'은 해체에서 사용된다. '-는군'에는 '요'를 붙여 듣는 사람을 높일 수 있다.

예) 오늘은 수업이 늦게 **끝나는구나**. (해라체)
 오늘은 수업이 늦게 **끝나는군**. (해체)
 오늘은 수업이 늦게 **끝나는군요**. (해요체)
 너는 운동을 **좋아하는구나**. (해라체)
 너는 운동을 **좋아하는군**. (해체)

[유사 문법]

- ① '-는구나', '-네'

-는구나	-네
·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감탄함을 나타낸다.	
· 말하는 사람이 직접 경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들어 알게 된 사실에 대해 감탄하며 말할 때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예) (철수를 보고) 철수 씨는 키가 크구나 . (o) 예) 가: 철수는 엄마를 닮아서 키가 커요. 나: (철수를 보지 않고) 키가 크구나 . (o) 가: 이 식당 비빔밥이 정말 맛있어요. 나: (먹지 않고) 이 식당의 비빔밥이 맛있구나 . (o)	· 말하는 사람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해 감탄하며 말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예) (철수를 보고) 철수 씨는 키가 크네요 . (o) 예) 가: 철수는 엄마를 닮아서 키가 커요. 나: (철수를 보지 않고) 키가 크네요 . (x) 가: 이 식당 비빔밥이 정말 맛있어요. 나: (먹지 않고) 이 식당의 비빔밥이 맛있네요 . (x)
예) 가: 어제 마이클 씨가 계속 전화했어요.	예) 가: 어제 마이클 씨가 계속 전화했어요.

나: 그랬구나. (o)	나: 그랬네요. (x)
<p>. 말하는 사람이 현재와 과거에 인식하게 된 어떤 사실에 대해 감탄하며 말할 때 사용한다.</p> <p>예) 철수가 1등을 했더구나. (o) 철수가 1등을 했구나. (o)</p>	<p>. 말하는 사람이 현재 인식하게 된 어떤 사실에 대해 감탄하며 말할 때 사용한다.</p> <p>예) 철수가 1등을 했더네요. (x) 철수가 1등을 했네요. (o)</p>

+ 어떤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된 경우 '-네'로 표현하려면 화자 자신의 느낌이나 판단으로 바꾸어 말해야 한다.

예) 가: 학교에서 집까지 10시간 걸렸어요.

나: 10시간 걸렸네요. (x)

/ 오래 걸렸네요. (o)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啊', '呀', '吧'.

예) 중국 음식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 好喜欢中餐啊!

단풍이 정말 **아름답구나!** - 枫叶真美呀!

교실에 사람이 **없겠구나!** - 教室没人吧!

② 용법과 오류

- 추측을 나타낼 때는 '겠'을 붙여 '-겠구나'로 쓴다. 이런 경우에는 중국어 '啊'로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 추측을 나타내는 '吧'로 대응된다. 그러므로 중국어 '吧'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 사용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예) 주말이라서 도서관에 사람이 없습니다 (x) ('없겠구나'로 표현해야 하는 경우)

-周末, 图书馆应该没人吧!

- 중국어에서 '啊'는 '부사+啊'로도 사용 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빨리구나! (x) ('좀 빨리'로 표현해야 하는 경우)

-快点儿啊!

- 빈정거리거나 비꼬듯이 말할 때,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에서는 '倒', '还' 등의 별도의 단어를 사용하여 비꼬는 정도를 강조한다.

예) 지영 씨는 돈도 안 내면서 많이도 **먹는구나**.

- 志英不掏钱, 吃得倒挺多的.

동생이 오늘 일찍 일어난다더니 아직도 **자는구나**.

- 弟弟说要起早, 还在睡呢!

- 중국어에서는 시간 표현을 선어말어미로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는-' 자리에 '-었-', '-겠-'을 써야 할 때 쓰지 않거나 쓰지 말아야 할 때 쓰는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작년에 청주는 너무 **덥구나**. (x)

- 작년에 청주는 너무 **더웠구나**. (o)
 지금 청주는 너무 **덥었구나**. (x)
 지금 청주는 너무 **덥구나**. (o)
 내년에 청주는 너무 **덥구나**. (x)
 내년에 청주는 너무 **덥겠구나**. (o)

3.5.6. ‘-는다’

-는다[-는다, -다2][종결어미]주로 현재의 사실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종결어미.

-는다: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주로 현재의 사실이나 행위를 나타내면서 문장을 끝맺을 때에 사용한다. 신문, 서적 등 객관적인 글에 사용하며, 구어적 상황에서는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아랫사람이거나 친한 친구 사이에 사용할 수 있다.

[예문]

담화예문	<p>(고등학교 선생님이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성인이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기 바란다. 그리고 시간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다.</p> <p>가: 할아버지, 지금 어디 가세요? 나: 심심해서 친구들 만나러 나간다. 가: 저도 지금 외출하려고 하는데, 태워 드릴까요? 나: 좋지. 가: 어디에서 만나기로 하셨어요? 나: 서울역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 근처에 내려주면 돼.</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찾는다. · 이모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값을 잘 깎는다. · 아버지는 닭고기를 제일 좋아한다. · 어제 청소를 해서 오늘은 집이 매우 깨끗하다. · 시험공부 때문에 잠을 못 자서 머리가 아프다. · 이번 주는 날씨가 계속 흐리다. · 여름방학 동안 유럽을 여행할 계획이다. · 이태원으로 가는 지하철은 4호선이다. · 꾸옹 씨는 중국 사람이 아니다. · 지리산은 한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 아니다.

+ ‘-는다/는다’는 격식체 ‘-습니다/입니다’의 낮춤말로써 신문이나 객관적인 글에 주로 사용

되며, 구어적 상황에서는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아랫사람이거나 친한 친구 사이에 사용할 수 있다. '-는다'는 현재의 사실이나 행위를 나타내지만 동사에 국한되며 형용사나 '이다, 아니다'의 경우는 '-다2'와 결합한다.

[도입]

(1)

교사: (신문의 연예인 관련 자료를 보여 주며) 여러분, 한국 가수 000을 알아요?

학생: 네, 다음 주에 중국에서 공연을 해요.

교사: 이것은 000에 대한 신문 기사예요. 읽어 볼까요?

학생: 한국의 유명한 가수가 중국에 **온다**. 그는 중국에서 인기가 매우 높아 이미 표가 매진되었다고 **한다**. 그는 노래도 잘하지만 연기도 **잘한다**.

교사: 신문이나 전공 서적 등에서는 '해요'를 쓰지 않고 '-는다'를 써요.

(2)

교사: 오늘 날씨는 어때요?

학생: 비가 와요.

교사: 리포트를 쓸 때에는 '비가 와요'처럼 쓸 수 있을까요?

학생: 몰라요.

교사: 리포트를 쓸 때에는 '비가 와요'가 아니라 '비가 **온다**'로 써야 해요.

+ '-는다'는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글을 활용하여 그 쓰임을 학습할 수 있다.

+ 단어 카드를 이용하여 동사의 활용을 학습한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는다'를 쓴다.

예) 먹- + -는다 → 먹는다	읽- + -는다 → 읽는다
참- + -는다 → 참는다	잡- + -는다 → 잡는다
웃- + -는다 → 웃는다	신- + -는다 → 신는다

②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ㄴ다'를 쓴다. 단, 어간이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가- + -ㄴ다 → 간다	오- + -ㄴ다 → 온다
공부하- + -ㄴ다 → 공부한다	기다리- + -ㄴ다 → 기다린다
놀- + -ㄴ다 → 논다	만들- + -ㄴ다 → 만든다

+ '-는다/ㄴ다'는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며, 특히 'ㄹ' 받침으로 끝나는 경우는 'ㄹ'이 탈락하고 '-ㄴ다'가 결합한다.

①	받침 o	+ -는다	먹는다, 읽는다, 참는다, 잡는다, 웃는다, 신는다
②	받침 x	+ -ㄴ다	간다, 온다, 공부한다, 기다린다
	ㄹ 받침	+ -ㄴ다 (어간 'ㄹ' 탈락)	논다, 만든다

③ 형용사는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다'를 쓴다.

예) 깊- + -다 → 깊다 굶- + -다 → 굶다
 예쁘- + -다 → 예쁘다 착하- + -다 → 착하다
 둥글- + -다 → 둥글다 따뜻하- + -다 → 따뜻하다

④ '이다, 아니다'도 '-다'를 쓴다. 단,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주로 '명사+-다'로 쓴다.

예) 학생이- + -다 → 학생이다 학교이- + -다 → 학교이다/학교다
 의사이- + -다 → 의사이다/의사다 아니- + -다 → 아니다

[문장 구성 정보]

① '-는다'는 듣는 사람이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을 때는 '-습니다'로 쓴다.

예) 누나가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유명한 교수가 한국에서 발표를 합니다.

[확장]

① 이미 확정된 계획이나 의지, 확실한 미래를 나타낸다.

예) 다음 주에 한국어 시험을 친다.
 언니는 두 달 후에 결혼을 한다.
 남동생은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한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없음

예) 학생들이 교실에서 책을 읽는다.
 -学生们在教室看书.
 청주역에서 만나기로 했다.
 -说好在清州站点见面.
 이번주는 날씨가 계속 흐리다.
 -这周一直都是阴天.
 나는 한국사람이 아니다.
 -我不是韩国人.

② 용법과 오류

- 한국어에서 '-는다/-니다'는 동사에 붙어 현재의 사실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데 반해, 중국어에서는 어미가 아니라 어휘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한국어에서도 어휘로만 표현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예) 남동생은 지금 사과를 먹다. (x)
남동생은 지금 사과를 **먹는다**. (o)

- '-습니다/-입니다'의 낮춤말로써 청자가 화자보다 아랫사람이거나 친한 친구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중국어는 높임 표현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오류가 나타난다.

예) 할아버지, 저 간다. (x) ('갑니다'로 표현해야 하는 경우)
선생님, 나는 친구와 서울역에서 만나기로 했다. (x)
(‘했습니다’로 표현해야 하는 경우)

- 형용사 뒤에 '-는다/-니다'를 붙이는 오류가 나타나거나 동사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는지 모음으로 끝나는지를 고려하지 못한 데서 오류가 나타난다.

예) 열심히 공부하다. (x) 열심히 **공부한다**. (o)
세월은 가는다. (x) 세월은 **간다**. (o)
전지현은 예쁘다. (x) 전지현은 **예쁘다**. (o)

3.5.7. ‘-는다니2’

-는다니2[-니다니2, -다니3, -라니3][종결어미] 듣는 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들은 말을 물어서 **확인함**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 는다니2**: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듣는 사람에게 물어서 확인하고자 할 때에 사용한다. 종결어미 '-는다'와 인용의 '고2', 동사 '하다'의 활용형 '하니'가 함께 쓰인 '-는다고 하니'의 줄어든 표현이다.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아랫사람이거나 서로 친한 사이일 때에 사용한다. 주로 구어에서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요즘 왕밍 씨와 자주 만나니? 나: 네, 어제도 만났어요. 이번 학기에는 학교에 못 온대요. 가: 왜? 무슨 일이 생겼다니? 나: 장학금을 못 받아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대요.</p> <p>가: 새 구두가 정말 예쁘구나. 나: 어제 수진이와 같이 백화점에 가서 샀어요.</p>
------	---

	<p>가: 수진이는 모자 샀니?</p> <p>나: 아뇨. 수진이는 아무것도 안 샀어요.</p> <p>가: 왜 안 샀다니? 모자 사러 간다고 했는데.</p> <p>나: 마음에 드는 모자가 없대요.</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지가 라면을 먹는다니? · 영수가 시험 기간에 밤을 새운다니? · 아버지께서 동생을 혼낸다니? · 동생이 요즘도 물건을 훔친다니? · 낮인데도 그 방은 캄캄하다니? · 일주일 동안 청소를 안 해서 방이 지저분하다니? · 며칠 전에 사라진 강아지를 찾았다니? · 내일 휴강이라는 게 사실이라니? · 히로 씨가 결혼했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라니? · 여동생이 감기에 걸린 거라니?

+ '-는다니2'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듣는 사람에게 물어서 확인할 때에 사용한다. '장학금을 못 받아서 수업을 못 듣는다니?'에서처럼 왕밍 씨가 장학금을 못 받아서 수업을 못 듣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으나 듣는 사람에게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할 때에 사용한다.

[도입]

<p>교사: (영수와 현우가 수업을 듣는 장면, 영수가 수업 시간마다 과자를 먹는 장면, 영수가 선생님께 매일 야단을 듣는 장면, 현우가 영수 집에 놀러온 장면을 칠판에 붙인다) 영수와 현우는 어떤 관계일까요?</p> <p>학생: 친구예요.</p> <p>교사: 영수 어머니는 현우 어머니로부터 영수가 선생님께 꾸중을 듣는다는 것을 들었어요. 영수 어머니는 현우에게 무엇을 질문할까요?</p> <p>학생: 영수가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는지 물어요.</p> <p>교사: 맞아요. 영수 어머니가 그 사실을 현우에게 확인할 때에 '-는다니'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영수가 왜 선생님께 꾸중을 듣는다니?'라고 물을 수 있어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쓸 수 있어요.</p>
--

+ '-는다니'는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들은 내용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 '영수가 왜 선생님께 꾸중을 듣는다니?'에서처럼 영수 어머니가 현우 어머니로부터 영수가 매일 선생님께 꾸중을 듣는다는 것을 들었고, 그것을 현우에게 물어서 확인하고자 할 때에 '-는다니'를 사용한다. 이때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아랫사람이거나 친한 사이일 때에 사용한다.

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는다니'를 쓴다.

예) 먹- + -는다니 → 먹는다니 읽- + -는다니 → 읽는다니
 참- + -는다니 → 참는다니 잡- + -는다니 → 잡는다니
 웃- + -는다니 → 웃는다니 신- + -는다니 → 신는다니

②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ㄴ다니'를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가- + -ㄴ다니 → 간다니 오- + -ㄴ다니 → 온다니
 공부하- + -ㄴ다니 → 공부한다니 기다리- + -ㄴ다니 → 기다린다니
 놀- + -ㄴ다니 → 논다니 만들- + -ㄴ다니 → 만든다니
 + '-는다니/ㄴ다니'는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며, 특히 'ㄹ' 받침으로 끝나는 경우는 'ㄹ'이 탈락하고 '-ㄴ다니'가 결합한다.

①	받침 o	+ -는다니	먹는다니, 읽는다니, 참는다니, 잡는다니, 웃는다니, 신는다니
②	받침 x	+ -ㄴ다니	간다니, 온다니, 공부한다니, 기다린다니
	ㄹ 받침	+ -ㄴ다니 (어간 'ㄹ' 탈락)	논다니, 만든다니

③ 형용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어간 뒤에 '-다니'를 쓴다.

예) 깊- + -다니 → 깊다니 굶- + -다니 → 굶다니
 예쁘- + -다니 → 예쁘다니 착하- + -다니 → 착하다니
 둥글- + -다니 → 둥글다니 따뜻하- + -다니 → 따뜻하다니

④ '이다'나 '아니다'는 '이-'나 '아니-' 뒤에 '-라니'를 쓴다. 다만, 마지막 음절이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의 경우에는 '라니'만 실현되고 '이-'는 생략된다.

예) 외국인이- + -라니 → 외국인이라니 꽃이- + -라니 → 꽃이라니
 학교이- + -라니 → 학교라니 아니- + -라니 → 아니라니

[제약]

① '-는다니'는 보조사 '-요'가 직접 뒤에 올 수 없다. 듣는 사람을 높이고자 할 때에는 '-는대요'로 나타난다.

영희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니요? (x)
 예) 영희에게 무슨 일이 생겼대요? (o)
 그 사람이 왜 유명하다니요? (x)
 그 사람이 왜 유명하대요? (o)

+ 다만, 의아함이나 놀라움을 나타낼 때에는 '영희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니요?'가 가능하다.

[확장]

- ① 다른 사람에게 들은 사실에 대한 의아함이나 놀라움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는다니'도 있다. 이때에는 '-는다고 하니'로 교체하면 어색하거나 적절하지 못하다.

예) 가: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다니!** (o) 무슨 말이야. 어제도 만났는데.
나: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족들도 모두 당황하고 있어요.

가: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니!** (x) 무슨 말이야. 어제도 만났는데.
나: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족들도 모두 당황하고 있어요.

+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대한 의아함이나 놀라움을 표현한 것이며,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는다고 하니'로 교체하면 어색하다. 다음 예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예) 가: 모두 바빠서 쉬지 못하고 있는데 혼자서 **쉬다니!** (o)
나: 그러게요. 저도 쉬고 싶어요.

가: 모두 바빠서 쉬지 못하고 있는데 혼자서 **쉬다고 하니!** (x)
나: 그러게요. 저도 쉬고 싶어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 ① 대응 표현: '呀, 啊'. 혹은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동생이 요즘도 물건을 **훔친다니?** - 弟弟最近还偷东西呀!
내일 휴강이라는 게 **사실이라니?** - 明天不上课呀!
며칠 전에 사라진 강아지를 **찾았다니?** - 前几天丢的那只狗找到了呀!
왜 학교에 못 **온다니?** - 怎么来不了学校啊!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니?** - 老师去世了?

- ② 용법과 오류

- '-는다니'는 듣는 사람이 주로 친구 관계나 친밀한 사이에서, 또는 말하는 사람보다 아랫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쓰는데 중국어의 의문 표현에는 높임이 구별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와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교수님, 지영이가 왜 학교에 못 온다니? (x)
지영아, 교수님이 왜 학교에 못 **온다니?** (o)

- 중국어 '啊', '呀'는 부사와도 결합할 수 있다. 부사와 결합할 때에는 명사와 결합한 것처럼 '-(이)라니'를 써야 하는데 동사, 형용사와 결합할 때처럼 '-(는)다니'를 사용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예) 간혹다니? (x) / 간혹이라니? (o) - 偶尔啊?
자주다니? (x) / 자주라니? (o) - 经常呀?

- 인용의 뜻이 있는 '-다니'와 인용의 뜻이 없는 '-니'를 잘 구분하지 못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선생님이 그렇게 예쁘니? (x) ('예쁘다니'로 표현해야 할 경우)
우리가 내일 비행기니? (x) ('비행기라니'로 표현해야 할 경우)

-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들은 말을 확인할 때에 쓰는 표현이므로 중국어에서 확인을 나타내는 '是不是' '是...吧' 의 용법과 혼동하여 아래와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당신은 중국 사람이라니? (x)
당신은 중국 사람이죠? (o)
당신은 내일 비행기라니? (x)
당신은 내일 비행기 맞죠? (o)

3.5.8. '-는다면서1'

-는다면서1[-ㄴ다면서, -다면서1, -라면서1, -는다며1][종결어미]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확인하여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 는다면서1: (동사,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듣는 사람에게 물어서 확인할 때에 사용한다. '-는다면서'는 '-는다며'로 줄여서 사용할 수 있다. 주로 구어에서 사용한다.

[예문]

담화 예문	<p>가: 히로 씨, 영희한테 들었는데 내일 일본에 간다면서요?</p> <p>나: 네, 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셔서요.</p> <p>가: 많이 편찮으세요?</p> <p>나: 저도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p> <p>가: 영수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영수와 수지가 사귀다면서?</p> <p>나: 나도 좀 전에 들었어.</p> <p>가: 어쩐지 두 사람이 자주 만나더라.</p>
문장 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막내 동생이 라면을 먹는다면서? · 누나가 미국에 유학 간다면서? · 유명한 연예인이 한국에 온다면서요? · 빵을 집에서 만든다면서요? · 집이 학교에서 멀다면서? · 어제 아침에 지각했다면서요? · 어머니가 젊었을 때에는 예뻐다면서요? · 조카가 벌써 고등학생이라면서?

	· 누나가 의사라면서요? · 여기가 호텔이 아니라면서요?
--	--

+ '-는다면서'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듣는 사람에게 물어서 확인할 때에 사용한다.
 '히로 씨, 내일 일본에 간다면서요?'에서처럼 히로 씨가 내일 일본에 간다는 것을 들었고,
 듣는 사람인 히로 씨에게 확인하여 묻고자 할 때에 '-는다면서'를 사용한다.

[도입]

교사: 이번 주 토요일에 불국사에 가시죠?
학생: 네.
교사: 불국사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학생1: 몰라요.
학생2: 경주에 있어요.
교사: 맞아요. 경상남도 경주에 있어요.
학생: 선생님도 같이 가세요?
교사: 아뇨, 이번에는 못 가요. 참, 거기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도 하죠? 누가 나가요?
학생: 우리 반에서 마이클 씨만 나가요.
교사: 그렇군요. 만약 제가 마이클 씨가 말하기 대회에 나간다는 것을 이미 들었다면, '마이클 씨도 나간다면서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는다면서'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확인하고 싶을 때 쓸 수 있어요.

+ 교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학생들에게 물어서 확인할 때에 '-는다면서'를 사용한 것이다. 교사는 '마이클 씨가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나간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 그 사실을 학생들에게 확인하여 묻고자 할 때에 '-는다면서'를 사용할 수 있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는다면서'를 쓴다.

예) 먹- + -는다면서 → 먹는다면서	읽- + -는다면서 → 읽는다면서
참- + -는다면서 → 참는다면서	잡- + -는다면서 → 잡는다면서
웃- + -는다면서 → 웃는다면서	신- + -는다면서 → 신는다면서

②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ㄴ다면서'를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가- + -ㄴ다면서 → 간다면서	오- + -ㄴ다면서 → 온다면서
공부하- + -ㄴ다면서 → 공부한다면서	자- + -ㄴ다면서 → 잔다면서
놀- + -ㄴ다면서 → 논다면서	만들- + -ㄴ다면서 → 만든다면서

+ '-는다면서/ㄴ다면서'는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며, 특히 'ㄹ' 받침으로 끝나는 경우는 'ㄹ'이 탈락하고 '-ㄴ다면서'가 결합한다.

[유사 문법]

① '-는다면서1', '-는다지1'

-는다면서1	-는다지1
.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종결어미	
<p>. 말하는 사람이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 쓴다.</p> <p>예) 내일 비가 온다면서? (o)</p> <p>이것을 언제 다 만든다면서? (x)</p>	<p>. 말하는 사람이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도 쓰이고, 어떤 상황이나 상태에 대해 걱정을 하거나 의아해 할 때에도 쓴다.</p> <p>예) 내일 비가 온다지? (o)</p> <p>이것을 언제 다 만든다지? (o)</p>

+ '-는다면서1'보다 '-는다지1'가 확인의 뜻이 더 강하다. 한편, 어떤 상황이나 상태에 대해 걱정하거나 의아해할 때에는 '-는다지1'만 가능하다. '이것을 언제 다 만든다지?'처럼 말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완료하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는다지1'만 쓸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 '听说, 是不是, 是吗(吧)?, 对吗(吧)?'

예) 빵을 집에서 **만든다면서요**?

- 听说你在家做面包?
- 你是不是在家做面包?
- 你在家做面包,是不是?
- 你在家做面包, 是吗?
- 你在家做面包, 是吧?
- 你在家做面, 对吗?
- 你在家做面, 是吧?

② 용법과 오류

- '-는다면서'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아주 다양하여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쓰는 '听说~'는 '듣자 하니~'와 비슷한 뜻의 표현인데 중국인 학습자들이 중국어 어순과 표현 그대로 한국어로 사용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듣고 말하니 토요일에 설악산에 간다면서? (x)

누나가 미국에 유학 간다면서 듣고 말하니? (x)

들어 말하니 유명한 연예인이 한국에 온다면서요? (x)

- '-는다면서'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 중에 아주 강한 확인을 나타내는 '是不是'가 있다. '是不是' 주어 뒤에 혹은 문장의 끝에 놓여 사용된다. 이런 위치상의 상이한 차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예) 누나 그래요 안 그래요 중국에 유학 간다? (x)

누나 중국 유학 간다 그래요 안 그래요? (x)

따님이 면서요 정말 착하다? (x)

- '-는다면서'에 대응되는 또 다른 표현은 '是吗(吧)?'가 있다.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이런 표현을 그대로 직역하여 사용함으로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네가 이번에 일등을 하다, 그렇요? (x)

그분은 외국인이다. 그렇다쥬? (x)

그곳은 따뜻하다, 그렇습니다요? (x)

- '-는다면서'에 대응되는 중국어 또 하나의 표현은 '对吗(吧)?'가 있다.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이 표현을 직역하여 '-는다면서'를 대체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이 강물은 아주 깊다, 맞다니? (x)

여기는 친구의 학교다, 맞습시다? (x)

여동생이 아주 예쁘다, 그렇까? (x)

3.5.9. '-니2'

-니2[-으니2][종결어미] 질문함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 니2**: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친한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어떠한 사실이나 상황에 대해 물어볼 때 사용한다. 주로 구어에서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어디에 사니? 나: 방화동에 삽니다.</p> <p>가: 영수증이 필요하니? 나: 네.</p> <p>가: 저녁은 어디서 먹니? 나: 집에서 먹어요.</p> <p>가: 어디에 가니? 나: 명동에 가.</p> <p>가: 공책이 있니? 나: 응, 있어.</p>
------	--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은 어디서 먹니? · 누가 책을 읽니? · 왕밍 씨는 기숙사에서 사니? · 어제는 어디서 모였니? · 저 옷이 예쁘니? · 모임이 끝나면 집에 가도 되니? · 그 사람이 의사니? · 김 선생님은 한국 사람이 아니니? · 질문 있니? · 휴식 시간은 없니?
------	---

+ '-니'는 일상 회화에서 많이 사용하고 친한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주로 씬을 주의한다.

[도입]

(학생들에게 보여 줄 카드를 몇 개 준비한다)

교사: (동사 '가다'를 보여 주면서) '-니?'를 사용하면 질문하는 거예요. '가다'는 '가니?'가 돼요. 그러면 '집에 가다'는 어떻게 돼요?

학생: 집에 **가니**?

교사: 맞아요. ('밥을 먹다'를 보여 주면서) '-니'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세요.

학생: 밥을 **먹니**?

교사: ('도서관에서 공부하다'를 보여 주면서) 이것은 어떻게 돼요?

학생: 도서관에서 **공부하니**?

교사: '-니'는 아랫사람이나 친한 친구에게 물어볼 때에 사용할 수 있어요.

+ 동사 카드를 활용하여 '-니'의 쓰임을 연습한다.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니'를 쓴다.

예) 먹- + -니 → 먹니 읽- + -니 → 읽니
 참- + -니 → 참니 좋- + -니 → 좋니
 있- + -니 → 있니 चु- + -니 → चु니
 가- + -니 → 가니 자- + -니 → 자니
 공부하- + -니 → 공부하니 바쁘- + -니 → 바쁘니

②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에 'ㄹ' 받침으로 끝나면 'ㄹ'이 탈락하고 '-니'를 쓴다.

예) 놀- + -니 → 노니 만들- + -니 → 만드니
 살- + -니 → 사니 길- + -니 → 기니

+ '-니'는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며, 특히 'ㄹ' 받침으로 끝나는 경우는 'ㄹ'

이 탈락하고 '-니'가 결합한다.

①	받침 o	+ -니	먹니, 읽니, 참니, 종니, 있니, चु니,
	받침 x	+ -니	가니, 자니, 공부하니, 바쁘니
②	ㄹ 받침	+ -니 (어간 ㄹ 탈락)	노니, 만드니

③ '이다, 아니다'는 '-니'를 쓴다. 단,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예) 학생이- + -니 → 학생이니 학교이- + -니 → 학교이니/학교니
의사이- + -니 → 의사이니/의사니 아니- + -니 → 아니니

[문장 구성 정보]

① '-니'의 높임은 '-습니까/-ㅂ니까'로 쓴다.

예) 저 그림이 **좋습니까?**
저 그림이 **좋으십니까?**
어제 **지각했습니까?**
어제 **지각하셨습니다습니까?**
그 사람이 **갑니까?**
그분이 **가십니까?**

[제약]

① '-니'는 1인칭 주어와 사용할 수 없다.

예) 내가 지금 학교에 **가니?** (x)
네가 지금 학교에 **가니?** (o)
그/그녀가 지금 학교에 **가니?** (o)

+ 원칙적으로는 1인칭 주어와 결합할 수 없다. 그러나 나의 행동이나 상태에 대해 독백하거나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의도로 질문할 때에는 사용할 수도 있다.

예) 나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니?**
나 좀 전에 밥 먹은 것 **맞니?**

②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형용사 어간 뒤에서는 '-으니'로도 나타낼 수 있다.

예) 동생이 그렇게 **좋니?** (o)
동생이 그렇게 **좋으니?** (o)

[유사 문법]

① '-니', '-어3)

-니	-어3)
· 친한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어떤 상황이나 사실을 질문하는 종결어미이다.	

· 친한 친구나 아랫사람에게만 쓸 수 있다. 친분이 있더라도 윗사람에게는 쓸 수 없다. 예) 영수야, 밥 먹니? (o) 영수 형, 밥 먹니? (x)	· 친한 친구나 아랫사람뿐 아니라 매우 친 분이 있는 윗사람에게도 쓸 수 있다. 예) 영수야, 밥 먹어? (o) 영수 형, 밥 먹어? (o)
---	---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 '吗?', V/A+不/没+V/A, 不?' 또는 의문대명사.

예) 저 옷이 **예쁘니?**

- 那件衣服漂亮吗?

김 선생님은 한국 사람이 **아니니?**

- 金老师是不是韩国人?

오늘 또 **지각했니?**

- 今天迟没迟到?

가고 **싶니?**

- 想去不?

누가 노래를 **부르니?**

- 谁唱歌?

저녁은 어디서 **먹니?**

- 晚饭在哪儿吃?

② 용법과 오류

- '-니' 는 의문대명사와 함께 사용할 수 있지만 중국어에서는 의문대명사와 문장 끝에 놓이는 '吗'를 함께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차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예) 너 영수증이 언제 필요하? (x) ('吗'에 대응되는 '-니'를 생략함)

내일 또 어디에 갑니다? (x) ('吗'에 대응되는 '-니'를 생략함)

왜 그 약속은 취소다? (x) ('吗'에 대응되는 '-니'를 생략함)

- 중국어에서는 'V/A+不/没+V/A'의 형식으로 의문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때 '-니' 처럼 문장 끝에 놓이는 의문사 '吗'는 함께 사용할 수 없다. 중국어의 이런 특성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너 저녁을 먹아니먹니? (x) (你吃不吃晚饭?)

오늘 날씨가 좋아니좋아? (x) (今天天气好不好?)

내일 날씨가 춥다안춥다? (x) (明天天气冷不冷?)

- '-니2'는 의문대명사와 함께 사용할 수 있지만 중국어 문장의 끝에서 의문을 나타내는 '不'는 의문대명사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중국어 '不'의 의미의 영향을 받아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모임이 끝나면 집에 가도 되니아니? (x) (聚会结束以后回家行不?)

오늘은 집에 오아니? (x) (今天回家不?)

이건 어디에 쓰다? (x) (这是怎么用的?)

- 선어말어미 '-으시-', '-었-', '-겠-'의 순서로 '-니'의 앞에 사용한다. 중국어권 학습자들에게 이런 표현은 너무 생소하고 익히기 어려워 쉽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예) 선생님께서 책을 읽시니? (x)
 아빠가 신문을 읽었었니? (x)
 엄마가 신문을 읽으셨니? (x)

3.5.10. ‘-더군’

-더군{-더군요}[종결어미]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지금 상대방에게 말하면서 그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 더군:**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지금 상대방에게 말하면서 그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더구나'의 준말이다. 주로 구어에서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어제 친구들과 재미있게 보냈어요? 나: 네. 영화도 보고 노래방에도 갔어요. 가: 누가 노래를 잘하던가요? 나: 앤디 씨가 노래를 잘 부르더군요. 가: 분티안 씨. 한국에 가 봤어요? 나: 작년 겨울에 가 봤어요. 한국은 겨울에 정말 춥더군요. 가: 작년 겨울은 덜 추웠어요. 나: 그래요? 저는 정말 추웠어요. 우리나라는 겨울이 없으니까요.
문장예문	. 강아지가 음식을 전혀 안 먹더군요. . 동생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군. . KTX는 정말 빠르더군요. . 영수가 벌써 중학생이 되었더군요. . 수진이가 생각보다 착하더군요. . 부모님이 모두 입원하셨더군요. . 이제 여기저기 꽃이 많이 피었더군. . 그는 저번에 만났던 사람이더군요. . 외국인이 읽기에 좋은 책이더군요. . 영수는 우리가 찾던 사람이 아니더군요.

- + '-더군'은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말할 때에 사용하므로 '앤디 씨가 노래를 잘 부르더군요'는 앤디 씨가 노래를 잘 부른다는 새로운 사실을 직접 경험하고 그

것을 듣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본말인 '-더구나'에 비해 감탄의 뜻이 강하지 않다.

[도입]

(1)

교수: (한국의 지도를 보여 준 뒤에) 여기는 어디일까요?

학생: 제주도예요.

교사: 맞아요. 제주도에 가 본 적이 있어요?

학생: 전 작년 겨울에 가 봤어요.

교사: 제주도는 겨울에 추웠어요?

학생: 안 추웠어요.

교사: 이때에 '제주도는 안 **춥더군요**'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더군'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새로운 것에 감탄할 때에 쓸 수 있어요.

(2)

교사: (한 학생이 떡볶이를 먹으면서 웃고 있는 그림을 보여 주면서) 이 학생은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학생: 떡볶이를 좋아해요.

교사: 이 학생이 떡볶이를 처음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그때 친구에게 '떡볶이가 정말 **맛있더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더군'은 반드시 자신이 경험한 것이어야 해요. 감탄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요.

+ '-더군'은 말하는 사람이 반드시 직접 경험한 새로운 사실이어야 하며, 그 사실에 대해 감탄의 의미를 부여할 때에 사용한다.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더군'을 쓴다.

예) 먹-	+ -더군	→	먹더군	듣-	+ -더군	→	듣더군
팔-	+ -더군	→	팔더군	작-	+ -더군	→	작더군
많-	+ -더군	→	많더군	춥-	+ -더군	→	춥더군
보-	+ -더군	→	보더군	크-	+ -더군	→	크더군

①	받침 o	+ -더군	먹더군, 듣더군, 팔더군, 작더군, 많더군, 춥더군
	받침 x	+ -더군	보더군, 크더군

② '이다, 아니다'는 -더군을 쓴다. 단,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주로 '명사+-더군'이라고 쓴다.

예) 책상이-	+ -더군	→	책상이더군	의사이	+ -더군	→	의사이더군/의사더군
학교이	+ -더군	→	학교이더군/학교더군	아니-	+ -더군	→	아니더군

[문장 구성 정보]

- ① 경험하던 당시 이미 끝난 상황에 대해서는 '-었-'을 붙여 '-었더군'으로 쓴다.

예) 아침에 눈이 많이 **왔더군요**.
이번 시험에서 수지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더군**.
줄리아 씨가 어렸을 때는 정말 **귀여웠더군요**.

- ② 추측을 나타낼 때는 '-겠-'을 붙여 '-겠더군'으로 쓴다.

예) 동생은 이제 혼자서 **걸겠더군**.
엄마를 보니 딸도 **예쁘겠더군요**.
영수가 제주도에 혼자 **가겠더군요**.

- ③ '-더군'은 구어적 상황에서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사용하며, 듣는 사람이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을 때는 보조사 '요'를 덧붙여 '-더군요'로 쓴다.

예) 선생님께서는 이제 점심을 **드시더군요**.
할아버지께서 제 방에서 **주무시더군요**.

[제약 정보]

- ① 주어가 2인칭이나 3인칭일 때 주로 사용한다. '-더군'은 말하는 사람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인칭 주어를 쓸 수 없다.

예) 나는 주말에 친구를 **만나더군**. (x)
왕밍 씨가 주말에 친구를 **만나더군**. (o)
나는 요즘 많이 **바쁘더군**. (x)
철수가 요즘 많이 **바쁘더군**. (o)

- + 주어가 1인칭이더라도 자신을 객관화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자기에 대한 추측을 말할 때에는 사용할 수 있다.

예) 어제 게시판을 보니까 이번 시험은 내가 **1등이더군**. (o)
(1등인지 모르다가 1등인지를 새롭게 알게 된 경우)
아무래도 그 일은 내가 **해야겠더군**. (o)

- ② 말하는 사람이 직접 경험한 일에서만 쓸 수 있다.

예) 내가 보니까, 철수가 영희와 종로를 **걸더군**. (o)
민수에게 들으니까, 철수가 영희와 종로를 **걸더군**. (x)

[확장]

- ① '-더군'은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새로 알게 된 사실을 주목하여 전달할 때에도 쓰인다. 이때에는 감탄의 의미가 없거나 약화되어 있다.

예) 아침에 전화하니까 통화 **중이더군요**.
뚱뚱하다는 소리를 듣고 운동을 **시작했더군요**.

- ② '-더구나', '-더라', '-데'는 '-더군'과 형태 정보, 문장 구성 정보, 제약 정보 등이 유사하여 교체가 가능하다. 다만, '-더군'과 '-데'는 해체이므로 보조사 '요'를 붙여 해요체를 사용할 수 있으나, '-더구나'와 '-더라'는 해라체이므로 '요'를 붙일 수 없다.

예) . KTX는 정말 빠르더군요 .	. KTX는 정말 빠르더라 .
. 동생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군 .	. 동생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데요 .
. 영수가 벌써 중학생이 되었더군요 .	. 영수가 벌써 중학생이 되었더라 .
. 수진이가 생각보다 착하더군요 .	. 수진이가 생각보다 착하더라 .
. 부모님이 모두 입원하셨더군요 .	. 부모님이 모두 입원하셨더라 .
. 이제 여기저기 꽃이 많이 피었더군 .	. 이제 여기저기 꽃이 많이 피었데 .
. 그는 저번에 만났던 사람이더군요 .	. 그는 저번에 만났던 사람이데 .
. 외국인이 읽기에 좋은 책이더군요 .	. 외국인이 읽기에 좋은 책이더라 .
. 영수는 우리가 찾던 사람이 아니더군요 .	. 영수는 우리가 찾던 사람이 아니더라 .
. 강아지가 음식을 전혀 안 먹더군요 .	. 강아지가 음식을 전혀 안 먹데요 .

[유사 문법]

① '-더라', '더군'

-더군	-더라
· 말하는 이가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을 상대방에게 말하는 종결어미	
· 말하는 사람이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해 감탄하며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예) 철수 씨는 키가 크더군 . 이 식당 비빔밥이 정말 맛있더군요 .	· 말하는 사람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단순하게 전달할 때에 사용한다. 예) 철수 씨는 키가 크더라 . 이 식당 비빔밥이 정말 맛있더라 .
· 의문사와 같이 사용하지 못한다. 예) 그 사람 이름이 뭘더군 ? (x) 어제 갔던 식당이 어디더군 ? (x)	· 의문사와 함께 쓰여,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기억해 내기 위해 애쓰면서 혼잣말하듯이 할 때에 사용한다. 예) 그 사람 이름이 뭘더라 ? (o) 어제 갔던 식당이 어디더라 ? (o)
· 해요체 '-더군요'를 사용할 수 있다. 예) 서울에서 부산까지 열 시간 걸렸더군요 . (o)	· 해요체를 사용할 수 없다. 예) 서울에서 부산까지 열 시간 걸렸더라요 . (x)

- + '-더군'과 '-더라'는 선어말 어미 '-더-'로 인하여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더군'은 '-더라'보다 감탄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강하며, '-더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의미가 두드러질 때에 더 적절하다.
- + '-더군'과 '-더라'의 가장 큰 통사적 차이점은 의문사와의 같이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더군'은 어떤 사실에 대한 감탄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의문사와 같이 쓰이지 못하나, '-더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모르는 대상에 대해 의문사와

같이 쓰인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太 ... 了', '... 啊'.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어제 노래방에 갔는데 왕밍 씨가 노래를 잘 부르더군요.

-昨天去练歌了, 王明唱得太好了!

-昨天去练歌了, 王明唱得挺好啊!

지영이도 거기 있더군.

-志英也在那儿.

② 용법과 오류

-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과거 표현을 사용해야 할 때와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를 혼동함으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게다가 '小狗根本不吃东西'는 과거, 현재를 다 포함한 표현이다. 이런 중국어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더군'을 사용해야 할 때에도 평서문으로 표현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강아지가 음식을 전혀 안 먹더군! (x)

강아지가 음식을 전혀 안 먹었더군! (o)

강아지가 음식을 전혀 안 먹더군. (o)

강아지가 음식을 전혀 안 먹는다. (x)

- '-더군(요)'는 흔히 감탄하듯이 말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 수업에서는 감탄의 뜻으로 가르치기도 한다.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감탄 표현 '挺 ... 的', '真 ... 啊' 등은 과거의 경험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과 미래형에도 사용할 수 있다.

예) 당신 너무 인색하더군! (?)

당신 너무 인색하네요. (o)

- 你真小气啊! (현재)

내일 정말 가고 싶지 않더군. (x)

내일 정말 가고 싶지 않아요. (o)

- 明天真不想去啊! (미래)

- '아침에 전화하니까 통화 중이더군요'와 같이 감탄의 의미가 약화된 문장은 중국어 평서문에 대응되어 중국인 학습자로서는 '-더군요'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예) 아침에 전화하니까 통화 중이다. (x)

아침에 전화하니까 통화 중이더군요. (o)

서울대를 나왔다. (x)

서울대를 나왔더라. (o)

3.5.11. '-더라'

-더라[종결어미]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지금 상대방에게 말하면서 그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더라: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지금 상대방에게 말하면서 그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아랫사람이거나 친한 사이에서 사용하고 흔히 감탄의 뜻을 나타낸다. 주로 구어에서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가: 동생하고 그만 싸워. 나: 민준이가 먼저 저를 때렸어요. 가: 그래도 동생과 싸우면 되겠니? 네가 형이니까 이해해 줘야지. 나: 네, 민준이와 화해할게요. 민준이 어디 있어요? 가: 너랑 싸운 뒤 울면서 나가더라.</p> <p>가: 삼촌, 한국에는 언제 들어오셨어요? 나: 일주일 정도 되었어. 가: 오랜만에 들어오니 한국도 많이 바뀌었죠? 나: 그래, 많이 변했더라.</p>
문장예문	<p>. 앤디 씨가 김치찌개를 잘 먹더라. . 샤오밍 씨가 운동을 좋아하더라. . 서울이 베이징보다 가방이 더 비싸더라. . 어제 먹은 국이 좀 짜더라. . 과자가 생각보다 맛있더라. .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더라. . 진달래가 여기저기 많이 피었더라. . 어제 만났던 사람이 고향 선배더라. . 그 사람은 한국에서 유명한 의사더라. . 영수는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p>

+ '-더라'는 말하는 사람이 과거에 직접 경험한 새로운 사실을, 지금 듣는 사람에게 전달할 때에 사용한다. '동생이 울면서 나가더라'는 동생이 울면서 나간 사실을 직접 보았고, 그 사실을 듣는 사람에게 지금 전달하는 것이다.

[도입]

교사: 샤오밍 씨, 어제 저녁에 무엇을 했어요?
학생1: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교사: 샤오밍 씨는 자주 도서관에서 공부하세요?
학생1: 아뇨. 시험 칠 때에만 도서관에 가요.

교사: 어제 샤오밍 씨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학생2: 제가 봤어요.

교사: 앤디 씨가 보았군요. 여러분 중에서 누가 앤디 씨와 친해요?

학생3: 아사코 씨예요.

교사: 그렇군요. (샤오밍, 앤디, 아사코의 관계를 칠판에 표시한다.) 만약 아사코 씨가 "앤디, 샤오밍 못 봤어?" 라고 물으면, 앤디 씨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더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더라'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남에게 말할 때 쓸 수 있어요.

- + '-더라'는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주어가 서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들의 관계를 이해한 뒤에 사용할 수 있다. '샤오밍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더라'는 말하는 사람인 앤디가 샤오밍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것을 직접 보았고, 그것을 친한 친구인 아사코에게 말할 때에 사용할 수 있다.
- + 과거 '-었-'과 회상 '-더-'를 학습한 뒤에 어미 '-더라'의 용법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태 정보]

- ①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는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어간 뒤에 '-더라'를 쓴다. 단, '이다'의 경우 명사의 마지막 음절이 모음으로 끝나면 '이-'를 생략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예) 먹- + -더라 → 먹더라	듣- + -더라 → 듣더라
보- + -더라 → 보더라	팔- + -더라 → 팔더라
작- + -더라 → 작더라	많- + -더라 → 많더라
춡- + -더라 → 춡더라	크- + -더라 → 크더라
책상이- + -더라 → 책상이더라	의사이 + -더라 → 의사이더라/의사더라
학교이 + -더라 → 학교이더라/학교더라	아니- + -더라 → 아니더라

[제약 정보]

- ① 보조사 '요'가 뒤에 올 수 없다.

예) 아침에 눈이 많이 **왔더라요**. (x)
 어머니께서 어제부터 운동을 **하시더라요**. (x)
 줄리아 씨가 어렸을 때는 정말 **귀여웠더라요**. (x)

- ② 주어가 2, 3인칭일 때 주로 사용한다. '-더라'는 말하는 이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인칭 주어를 쓸 수 없다.

예) 나는 주말에 친구를 **만나더라**. (x)
 왕밍 씨가 주말에 친구를 **만나더라**. (o)
 나는 요즘 많이 **바쁘더라**. (x)
 철수가 요즘 많이 **바쁘더라**. (o)

- + 주어가 1인칭이더라도 자신을 객관화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자기에 대한 추측

을 말할 때에는 사용할 수 있다.

- 예) 어제 게시판을 보니까 이번 시험에서 내가 **1등이더라**. (o)
(1등인지 모르다가 1등인지를 새롭게 알게 된 경우)
아무래도 그 일은 내가 **해야겠더라**. (o)

③ 사람의 심리나 기분, 감정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어가 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예) 나는 친구를 만나 **반갑더라**. (o)
윤정이는 친구를 만나 **반갑더라**. (x)

④ 말하는 사람이 직접 경험한 일에만 쓸 수 있다.

- 예) 내가 보니까, 철수가 영희와 종로를 **걸더라**. (o)
민수에게 들으니까, 철수가 영희와 종로를 **걸더라**. (x)

[확장]

① '-더구나', '-데', '-더군'은 '-더라'와 형태 정보, 문장 구성 정보, 제약 정보 등이 유사하여 교체가 가능하다. 다만, '-더군'과 '-데'는 해체이므로 보조사 '요'를 붙여 해요체를 사용할 수 있으나, '-더구나'와 '-더라'는 해라체이므로 '요'를 붙일 수 없다.

- | | |
|----------------------------------|----------------------------------|
| 예) .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더라 . | .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더구나 . |
| . 샤오밍 씨가 운동을 좋아하더라 . | . 샤오밍 씨가 운동을 좋아하더구나 . |
| . 서울이 베이징보다 가방이 더 비싸더라 . | . 서울이 베이징보다 가방이 더 비싸더군요 . |
| . 어제 먹은 찌개가 좀 짜더라 . | . 어제 먹은 찌개가 좀 짜더구나 . |
| . 진달래가 여기저기 많이 피었더라 . | . 진달래가 여기저기 많이 피었더군 . |
| . 어제 만났던 사람이 고향 선배더라 . | . 어제 만났던 사람이 고향 선배더군요 . |
| . 그 사람은 한국에서 유명한 의사더라 . | . 그 사람은 한국에서 유명한 의사더군 . |
| . 과자가 생각보다 맛있더라 . | . 과자가 생각보다 맛있더구나 . |
| . 철수 씨는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 . | . 철수 씨는 한국 사람이 아니더군 . |
| . 영희는 좋은 사람 갈더라 . | . 영희는 좋은 사람 갈더군 . |

② 의문사 '누구, 무엇, 언제, 어디' 등과 함께 쓰여, 과거 어느 시점에 경험한 사실을 기억해 내려고 애쓰면서 혼잣말하듯이 생각해 볼 때에 사용한다. 이 경우에는 감탄의 뜻이 없으므로 '-더군', '-더구나'를 쓰지 않는다.

- 예)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o)
그 사람 이름이 **뭐더구나**? (x)
어디서 그 사람을 **보았더라**? (o)
어디서 그 사람을 **보았더군**? (x)

③ '-더라'는 해라체 종결어미로서 보조사 '요'를 붙일 수 없다. 해체는 '-데'이고 해요체는 '-데요'이며 둘 다 사용 빈도가 낮다.

- | | |
|----------------------------|---------------------------|
| 예) 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데 . | 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데요 . |
| 샤오밍 씨가 운동을 좋아하데 . | 샤오밍 씨가 운동을 좋아하데요 . |

서울이 베이징보다 가방이 더 **비싸데**.

서울이 베이징보다 가방이 더 **비싸데요**.

[유사 문법]

① '-더라', '-더군'

-더라	-더군
· 말하는 이가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을 상대방에게 말하는 종결어미	
· 말하는 사람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단순하게 전달할 때에 사용한다. 예) 철수는 키가 크더라 . 이 식당 비빔밥이 정말 맛있더라 .	· 말하는 사람이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해 감탄하며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예) 철수는 키가 크더군 . 이 식당 비빔밥이 정말 맛있더군요 .
· 의문사와 함께 쓰여,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기억해 내기 위해 애쓰면서 혼잣말하듯이 할 때에 사용한다. 예)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o) 어제 갔던 식당이 어디더라? (o)	· 의문사와 같이 사용하지 못한다. 예) 그 사람 이름이 뭐더군? (x) 어제 갔던 식당이 어디더군? (x)
· 해요체를 사용할 수 없다. 예) 서울에서 부산까지 열 시간 걸렸더라요 . (x)	· 해요체 '-더군요'를 사용할 수 있다. 예) 서울에서 부산까지 열 시간 걸렸더군요 . (o)

+ '-더군'과 '-더라'는 선어말 어미 '-더-'로 인하여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더군'은 '-더라'보다 감탄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강하며, '-더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의미가 두드러질 때에 더 적절하다.

+ '-더군'과 '-더라'의 가장 큰 통사적 차이점은 의문사와의 같이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더군'은 어떤 사실에 대한 감탄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의문사와 같이 쓰이지 못하나, '-더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모르는 대상에 대해 의문사와 같이 쓰인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없음.

예) 어제 노래방에 갔는데 왕밍 씨가 노래를 잘 **부르더라**.

- 昨天去练歌了, 王明唱得太好了!

지영이도 거기 **있더라**.

- 志英也在那儿.

그 영화 정말 **재미있더라**.

- 那个电影实在是太有意思了.

그 친구 이름이 **무엇이더라?**

- 他叫什么名字来着?

② 용법과 오류

- '-더라'가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뜻하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은 과거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한다.

예) 강아지가 음식을 전혀 안 먹었더라. (x)

(‘강아지가 음식을 전혀 안 먹더라’로 표현해야 하는 경우)

- 의문사 ‘누구, 무엇, 언제, 어디’ 등과 함께 쓰여, 과거 어느 시점에 경험한 사실을 기억해 내려고 애쓰면서 혼잣말하듯이 생각해 볼 때에 사용한다.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来着’이다.

예) 그 애 이름이 뭐더라?

- 他叫什么来着?

여기가 어디더라?

- 这是哪儿来着?

- 주어가 1인칭일 때는 자신을 객관화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지만 ‘来着’는 별 제약 없이 1인칭 주어를 사용한다. 이런 표현상의 차이로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예) 내가 어제 갔더라. (x) 내가 어제 갔었다. (o)

- 我昨天去来着.

내가 이미 그에게 말해 주더라. (x) 내가 이미 그에게 말해 주었다. (o)

- 我跟他说来着.

- ‘아침에 전화하니까 통화 중이더라’와 같이 감탄의 의미가 약화된 문장은 중국어 평서문에 대응되어 중국인 학습자는 ‘-더라’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예) 아침에 전화하니까 통화 중이다. (x) 아침에 전화하니까 통화 **중이더라**. (o)

- 早上打电话, 正在通话中.

서울대를 나왔다. (x) 서울대를 **나왔더라**. (o)

- 首尔大学毕业的.

3.5.12 ‘-던 데2’

-던 데2{-던데요}[종결어미] 말하는 이가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지금 상대방에게 말하면서 듣는 사람의 반응을 기대함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 던 데2:**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과거의 어떤 사실을 직접 경험하여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지금 상대방에게 말하면서 듣는 사람의 반응을 기대할 때에 사용한다. 주로 구어에서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어제 누가 이겼어?</p> <p>나: 너희 팀이 이겼어. 모두 열심히 하던데.</p> <p>가: 우리 팀은 매일 모여서 연습했거든.</p> <p>나: 어쩐지 잘하더라.</p> <p>가: 엄마, 방학이니까 늦잠을 자고 싶어요.</p> <p>나: 영수는 일찍 일어나던데.</p> <p>가: 영수는 일찍 자니까 일찍 일어나는 거겠죠.</p> <p>나: 너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잖아.</p>
문장예문	<p>. 고양이가 오늘 음식을 전혀 안 먹던데.</p> <p>. 버스가 정말 천천히 가던데요.</p> <p>. 수진이가 녹차를 좋아하던데요.</p> <p>. 삼촌이 자전거를 잘 타시던데요.</p> <p>. 엄마가 음식을 많이 하셨던데.</p> <p>. 동생이 벌써 대학생이 되었던데요.</p> <p>. 여기저기 목련이 피었던데요.</p> <p>. 그분은 저번에 만났던 사람이던데요.</p> <p>. 외국인이 좋아할 음식이던데.</p> <p>. 이 책은 내가 찾던 책이 아니던데요.</p>

+ ‘-던데’는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전달하면서 듣는 사람의 반응을 기대할 때에 사용한다. 예를 들어, ‘영수는 일찍 일어나던데’는 영수가 일찍 일어난다는 사건을 전달하면서 자신의 자녀가 좀 더 일찍 일어날 것을 간접적으로 기대함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도입]

<p>(1)</p> <p>교사: (한국의 사계절을 칠판에 적은 후에) 어느 계절을 좋아해요?</p> <p>학생: 봄을 좋아해요.</p> <p>교사: 왜 봄을 좋아해요?</p> <p>학생: 예쁜 꽃이 많아요.</p> <p>교사: 학교에 개나리가 핀 것을 보았어요?</p> <p>학생: 네, 보았어요.</p> <p>교사: 직접 보았다면 ‘진달래가 피었던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던데’는 내가 직접 본 새로운 사실을 친구에게 말할 때 쓸 수 있어요.</p> <p>(2)</p> <p>교사: (어떤 학생이 매일 불고기를 먹는 그림을 보여 주면서) 이 친구는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p>

- 예) 이번 시험에서 내가 **1등이던데**. (o)
 (1등인지 모르다가 1등인지를 새롭게 알게 된 경우)
 아무래도 그 일은 내가 **해야겠던데**. (o)

② 말하는 사람이 직접 경험한 일에서만 쓸 수 있다.

- 예) 내가 보니까, 철수가 영희와 종로를 **걷던데**. (o)
 현우에게 들었는데, 영수가 수지와 종로를 **걷던데**. (x)

[확장]

- ① '-던데'는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새로 알게 된 사실을 주목하여 전달할 때에도 쓰인다.
 이때에는 감탄의 의미가 없거나 약화되어 있다.

- 예) 아침에 전화하니까 통화 중이**던데요**.
 똥똥하다는 소리를 듣고 운동을 시작**했던데요**.

- ② '-더구나', '-더라', '-데'는 '-던데'와 형태 정보, 문장 구성 정보, 제약 정보 등이 유사하여 교체가 가능하다. 다만, '-더군'과 '-데'는 해체이므로 보조사 '요'를 붙여 해요체를 사용할 수 있으나, '-더구나'와 '-더라'는 해라체이므로 '요'를 붙일 수 없다.

- | | |
|---------------------------------|--------------------------------|
| 예) . KTX는 정말 빠르던데요 . | . KTX는 정말 빠르더라 . |
| . 동생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데 . | . 동생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구나 . |
| . 영수가 벌써 중학생이 되었던데요 . | . 영수가 벌써 중학생이 되었더라 . |
| . 수진이가 생각보다 착하던데요 . | . 수진이가 생각보다 착하더군요 . |
| . 부모님이 모두 입원하셨던데요 . | . 부모님이 모두 입원하셨더라 . |
| . 이제 여기저기 꽃이 많이 피었던데 . | . 이제 여기저기 꽃이 많이 피었더구나 . |
| . 그는 저번에 만났던 사람이던데요 . | . 그는 저번에 만났던 사람이데요 . |
| . 외국인이 읽기에 좋은 책이던데요 . | . 외국인이 읽기에 좋은 책이더라 . |
| . 영수는 우리가 찾던 사람이 아니던데요 . | . 영수는 우리가 찾던 사람이 아니더라 . |
| . 강아지가 음식을 전혀 안 먹던데 . | . 강아지가 음식을 전혀 안 먹데 . |

[유사 문법]

- ① '-던데', '-더군'

-던데	-더군
· 말하는 이가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지금 상대방에게 말하면서 그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종결어미	
· 말하는 사람이 과거의 어떤 상황을 전달하면서 듣는 사람의 반응을 기대할 때에 사용한다. 예) 가: 나 나간다. 나: 밖에 비가 오던데 . (o) 가: 어, 그래?	· 말하는 사람이 과거의 어떤 상황을 전달하면서 듣는 사람의 반응을 기대하지 않는다. 예) 가: 나 나간다. 나: 밖에 비가 오더군 . (x) 가: 어, 그래?

<p>· 말하는 사람이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해 감탄하며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감탄의 뜻이 강하지는 않다.</p> <p>예) 철수 씨는 키가 크던데. (o) 이 식당 비빔밥이 정말 맛있던데요. (o)</p>	<p>· 말하는 사람이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해 감탄하며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감탄의 뜻이 '-던데'보다 약간 더 강하다.</p> <p>예) 철수 씨는 키가 정말 크더군. (o) 이 식당 비빔밥이 정말 맛있더군요. (o)</p>
<p>· 해요체 '-던데요'를 사용할 수 있다.</p> <p>예) 서울에서 부산까지 다섯 시간 걸리던데요. (o)</p>	<p>· 해요체 '-더군요'를 사용할 수 있다.</p> <p>예) 서울에서 부산까지 다섯 시간 걸리더군요. (o)</p>

+ '-던데'와 '-더군'는 선어말 어미 '-더-'로 인하여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다만 '-던데'는 과거의 상황을 전달하면서 듣는 사람의 반응까지 기대함을 나타내지만 '-더군'은 과거의 상황을 감탄하면서 전달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더군'이 '-던데'보다 감탄의 의미가 약간 더 강하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啊'.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고양이가 고기를 전혀 안 **먹던데요**. - 我看小猫根本不吃肉啊!
버스가 정말 천천히 **가던데요**. - 汽车挺慢的啊.
엄마가 음식을 많이 **하셨던데**. - 饭菜, 妈妈做挺多吃的.
이 책은 내가 찾던 책이 **아니던데요**. - 这不是我要找的书.

② 용법과 오류

- '-던데'가 과거의 어떤 사실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뜻하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은 '-었-'을 붙이지 말아야 할 때에도 '-었-'을 사용하는 오류를 범한다.

예) 당신 너무 인색했는데요! (?) (과거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경우)
- 당신 너무 **인색하던데요**. (o)
그의 집이 깨끗했는데요. (x) (과거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경우)
- 그의 집이 **깨끗하던데요**. (o)

- '-던데'가 과거의 사실에 쓰인다는 용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내일 정말 가고 싶지 **않던데요**. (x)
- 내일 정말 가고 싶지 **않아요**. (o)
다음 학기부터는 그러지 **않던데요**. (x)
- 다음 학기부터는 그러지 **않을게요**. (o)

- 과거의 어떤 사실을 근거로 미래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겠던데'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동생이 혼자서 다 먹던데. (x) ('먹겠던데'로 표현해야 하는 경우)

엄마를 보니 딸도 예쁘던데. (x) ('예쁘겠던데'로 표현해야 하는 경우)

- '-던데'는 말하는 사람이 직접 경험한 일에 대해서만 쓸 수 있다. 중국어는 직접 경험하든 경험하지 않은 표현이 같은 경우가 있다. 이런 중국어의 영향으로 인해 말하는 사람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던데'를 사용하는 오류를 범한다.

예) 엄마와 아빠가 산보하고 있어. (o)

엄마와 아빠가 산보하던데. (x)

그날 우리 엄마 반찬 많이 했어요. (o)

그날 우리 엄마 반찬 많이 했던데. (x)

- '아침에 전화하니까 통화 중이던데요'와 같이 감탄의 의미가 약화된 문장은 중국어 평서문에 대응되어 중국인 학습자는 '-던데요'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예) 아침에 전화하니까 통화 중이다. (x) ('중이던데요'로 표현해야 하는 경우)

엄마와 아빠가 산보해요. (x) ('산보하던데요'로 표현해야 하는 경우)

3.5.13. '-어라1'

-어라1[-아라/-여라][종결어미] 어떤 일을 명령함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 어라1: (동사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할 것을 명령할 때에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지금 어디 가니? 나: 학교에 가요. 가: 길 건널 때 차 조심해라.</p> <p>가: 왜 이렇게 급하게 먹니? 나: 친구랑 약속이 있거든요. 가: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천천히 먹어라.</p> <p>가: 영수가 왜 다리를 다쳤니? 나: 혼자 걸어가다가 넘어졌어요. 가: 그렇구나. 밖에서는 동생 손을 꼭 잡고 다녀라.</p>
문장예문	<p>·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p> <p>· 건강을 위해 천천히 먹어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 안에서는 손잡이를 꼭 잡아라. · 12시 전에 자라. · 비가 오기 전에 빨리 집에 가라. · 여름이니까 전기를 아껴 써라. · 운동할 때에는 모자를 써라. ·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 어른에게 꼭 인사를 해라. · 지각하지 마라.
--	--

+ '-어라1'은 격식체이고 '-어3'은 비격식체로서 명령의 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어라1'은 명령의 뜻이 강하여 일반 대화에서는 '-어라1'보다 '-어3'을 쓰는 경향이 높다. 예를 들어, 엄마가 아들에게 '공부해라'와 '공부해'를 같은 억양과 목소리 크기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공부해'보다 '공부해라'가 더 강한 명령의 의미를 가진다.

[도입]

교사: 다음은 엄마와 딸이 이야기하고 있는 글입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p>엄마: 왜 이렇게 늦잠을 자니?</p> <p>딸: 죄송해요. 어제 밤에 늦게 잤어요.</p> <p>엄마: 숙제는 다 했니?</p> <p>딸: 아뇨, 다 못했어요.</p> <p>엄마: 앞으로는 일찍 자라. 그리고 숙제를 다 한 뒤에 텔레비전을 봐라.</p>
교사: 엄마가 딸에게 무엇을 강하게 말해요?
학생: '일찍 자라 ', '숙제를 다 한 뒤에 텔레비전을 봐라 '
교사: 맞아요. 이 문장의 '자라, 봐라'처럼 강하게 말하는 것이 명령이에요. 강하게 명령할 때에는 '-어라'를 사용해요. '-어'보다 더 강하고 격식적인 표현이에요.

+ 명령형 어미 '-어라'는 듣는 사람이 반드시 말하는 사람보다 아랫사람이거나 친한 친구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실제 대화에서는 격식체의 명령형 어미 '-어라'보다 비격식체의 명령형 어미 '-어3'을 사용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므로 '-어3'을 병행하여 지도하면 유익하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ㅏ, ㅑ'인 경우 '-아라'를 쓴다.

예) 앉- + -아라 → 앉아라 잡- + -아라 → 잡아라
자- + -아라 → 자라 가- + -아라 → 가라
오- + -아라 → 와라 잠그- + -아라 → 잠가라

+ 어간 음절이 'ㅏ'로 끝나면 '가라, 자라'로 줄여서 쓴다.

- + 어간 음절이 'ㄱ'로 끝나면 줄여서 '와라'와 같이 쓴다.
- + 이음절 이상의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ㅡ'일 때는 'ㅡ' 앞의 끝음절 모음에 따라 교체한다. 이때 'ㅡ' 모음은 탈락한다.

② 동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ㅏ, ㅑ'가 아닌 경우 '-어라'를 쓴다.

예) 먹- + -어라 → 먹어라 읽- + -어라 → 읽어라
 서- + -어라 → 서라 주- + -어라 → 주어라/줘라
 쓰- + -어라 → 써라 끄- + -어라 → 꺼라
 마시- + -어라 → 마시어라/마셔라 기다리- + -어라 → 기다리어라/기다려라
 지내- + -어라 → 지내어라/지내라 세- + -어라 → 세어라/세라

- + 어간 음절이 'ㄷ'로 끝나면 '서라'로 반드시 줄여서 쓴다.
- + 어간 음절이 'ㅌ'로 끝나면 줄여서 '줘라'와 같이 쓴다.
- + 2음절 이상의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ㅡ'일 때는 'ㅡ' 앞의 끝음절 모음에 따라 교체한다. 이때 'ㅡ' 모음은 탈락한다.
- + 어간 음절이 'ㄴ'로 끝나면 흔히 줄여서 '마셔라, 기다려라'와 같이 쓴다. 어간 음절이 'ㅈ, ㅊ'로 끝나면 '지내라, 세라'로 줄여서 쓴다.

③ '-하다'가 붙은 동사 어간에는 '-여라'를 쓰는데, 흔히 줄여서 '해라'로 쓴다.

예) 하- + -여라 → 하여라/해라 말하- + -여라 → 말하여라/말해라
 청소하- + -여라 → 청소하여라/청소해라 공부하- + -여라 → 공부하여라/공부해라

①	ㅏ, ㅑ	+ -아라	앉아라, 잡아라, 자라, 가라, 와라, 잠가라
②	ㅏ, ㅑ 이외	+ -어라	먹어라, 읽어라, 서라, 줘라, 써라, 마셔라, 기다려라, 지내라, 세라
③	-하다	+ -여라 (해라)	해라, 말해라, 청소해라, 공부해라

④ 불규칙 활용

듣- 예) 음악을 자주 **들어라**.
 줍- 예) 휴지를 **주워라**.
 짓- 예) 건물을 빨리 **지어라**.
 부르- 예) 기분이 안 좋을 때에는 노래를 **불러라**.

[문장 구성 정보]

① 부정 표현은 '-지 마라'를 사용한다.

예) 앉- + -지 마라 → 앉지 마라 잡- + -지 마라 → 잡지 마라
 가- + -지 마라 → 가지 마라 듣- + -지 마라 → 듣지 마라

공부하- + -지 마라 → 공부하지 마라

- ② '-어라'의 높임 표현은 '-으십시오'이다. 그러나 공식적이거나 격식적인 환경 외에는윗사람에게 거의 쓰지 않는다. 명령보다 더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요청한다.

예) 모두 여기로 오십시오.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선생님, 이쪽으로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공식적인 환경에서는 '오십시오'의 '-으십시오'를 사용할 수 있으나 개인적인 대화에서는 '오시겠습니까'와 같은 의문문이나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와 같은 간접적인 표현으로 요청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제약 정보]

- ① '-어라'는 명령형이므로 1인칭 또는 3인칭 주어와 사용할 수 없다.

예) 나는 지금 집에 **가라**. (x)

너는 지금 집에 **가라**. (o)

너희들은 지금 집에 **가라**. (o)

우리는 지금 집에 **가라**. (x)

그/그녀는 지금 집에 **가라**. (x)

그들은 지금 집에 **가라**. (x)

- ② 과거 '-았-', 미래·추측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어제 버스를 **탔어라**. (x)

내일 버스를 **타겠어라**. (x)

[확장]

- ① '-어3'과 '-어라1'은 아랫사람이거나 친한 친구 사이에 명령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어라1'이 '-어3'보다 더 강한 명령형 표현이다. '-어3'는 매우 친분이 있는윗사람에게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영역이 넓으나 '-어라1'은 아주 가까운 사이라도윗사람에게는 쓸 수 없다.

예) 민수 오빠, 빨리 내려 와. (o)

민수 오빠, 빨리 내려 **와라**. (x)

[유사 문법]

- ① '-어라1', '-어3', '-으십시오', '-으세요3'

-어라1	-어3	-으십시오	-으세요3
· 명령을 나타낸다.			
· 격식체로 반드시 말하는 사람보다 아랫사람이거나 친한 친	· 비격식체로 다소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일상적인 대화에서	· 격식체로 다소 딱딱한 느낌을 주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 비격식체로 다소 친분이 있는윗사람에게 혹은 비슷한 지

<p>구 사이에 강한 어조로 명령할 때 사용한다. 예) 밥 먹어라. 옷을 입어라.</p>	<p>두루 편하게 쓰인다. 예) 다음으로 줄리아 씨가 발표해요. (줄리아 씨와 친하며, 비격식적 상황)</p>	<p>말할 때 많이 쓰인다. 예) 다음 발표자, 발표하십시오. (사회자가 발표자에게, 격식적 상황)</p>	<p>위지만 친하지 않아서 약간 높이거나 다소 부드럽게 높여야 하는 사람에게 두루 쓴다. 예) 다음으로 줄리아 씨가 발표하세요. (줄리아 씨가 친한 윗사람이거나 친하지 않은 비슷한 또래)</p>
<p>· ‘-어라’는 듣는 사람을 아주 낮추어 말할 때에 사용한다. 예) 이 손을 잡아라.</p>	<p>· ‘-어’는 듣는 사람을 친근하게 낮출 때 사용하고, ‘-어요’는 듣는 사람을 약간 높일 때 사용한다. 예) 수지야, 이쪽으로 와. 영수 씨, 이쪽으로 와요.</p>	<p>· 듣는 사람을 높일 때 사용한다. 예) 과장님, 이쪽으로 오십시오.</p>	<p>· 듣는 사람을 친근하게 높일 때 사용한다. 예) 앤디 씨, 이쪽으로 오세요.</p>

+ ‘-으십시오’는 명령문으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으세요’, ‘-어’는 평서, 의문, 명령, 청유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吧’, ‘-啊’.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종이를 **주어라** - 把纸捡起来吧.
좀 천천히 **먹어라** - 慢慢吃吧.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 饭前一定要洗手啊.
일찍 **일어나라** - 早点儿起床!

② 용법과 오류

- 한국어는 상대 높임의 등급에 따라 다양한 명령 표현 방식을 갖고 있는 반면, 중국어에는 그러한 표현이 없다. 다음 예문 ‘慢慢吃’는 한국어 네 개 표현에 전부 대응될 수도 있다. 이런 표현 차이로 인해 명령의 높임 등급에 따라 정확한 표현을 선택하는 데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예) 천천히 먹어라! / 천천히 먹어. / 천천히 먹으세요. / 천천히 드십시오.
- 慢慢吃!

- 한국어 명령문에서는 ‘-어라’, ‘-어’, ‘-으세요’, ‘-으십시오’ 등 어미의 변화로 상대 높임의 등급을 나타내는데, 아랫사람에게 하는 명령이 강한 정도를 나타낼 수 있지만 중국어 명

령문의 동사 하나, 혹은 명사 하나에 강한 억양이 합쳐져서 명령을 나타내거나 '给我', '你给我', '叫你', '请' 등 어미가 아닌 어휘의 다양한 표현으로 명령의 강도를 나타낸다. '你给我滚出去'는 '你滚出去'보다 명령의 강도가 더 세다. 명령의 정도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여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예) 너 당장 꺼져. - 你给我滚出去! - 我叫你滚出去!
 너 꺼져. - 你滚出去! -滚!
 나가. - 出去.
 나가요. - 请出去.

- '-吧'는 명령 외에도 청유, 추측 등의 의미도 나타낸다. '-어라'는 그러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빨리 가라. (x) - 快去吧! (청유) - 빨리 가자. (o)
 빨리 먹어. (x) - 快吃吧! (청유) - 빨리 먹자. (o)
 날씨가 추울자. (x) - 天挺冷吧. (추측) - 날씨가 춥지요. (o)
 내일 아마 쉬자. (x) - 明天应该休息吧. (추측) - 내일 아마 쉬겠지요. (o)

- '-어라' 앞 동사의 불규칙 활용에 익숙하지 못하여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음악을 들어라. (x)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노래를 부러라. (x)

3.5.14. '-어야지2'

-어야지2[-아야지2/-여야지2][종결어미] 어떤 행위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종결어미

-어야지2: (동사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 사용한다. 주로 구어에서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 나: 방학 때 매일 운동했거든. 가: 그래? 나도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 가: 지난주에 개봉한 영화 봤어? 나: 아니, 아직 못 봤어. 가: 너무 좋은 영화더라. 꼭 봐. 나: 그래? 주말에 꼭 봐야지 .
------	--

	<p>가: 기말고사가 시작되었네. 공부 많이 했어?</p> <p>나: 아니, 거의 못했어. 너는?</p> <p>가: 난 오늘부터 열심히 하려고 해.</p> <p>나: 그러면 나도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해야지.</p>
문장예문	<p>. 오늘 저녁에 이 책을 읽어야지.</p> <p>. 내일은 비빔밥을 만들어 먹어야지.</p> <p>. 올해에는 꼭 휴가를 가야지.</p> <p>. 신발은 백화점에 가서 사야지.</p> <p>. 주말에 연극을 봐야지.</p> <p>. 날이 더우니까 카페에서 친구를 기다려야지.</p> <p>. 내가 언니니까 먼저 사과해야지.</p> <p>. 이제 매일 운동을 해야지.</p> <p>. 할머니께서는 힘이 없으시니 내가 도와드려야지.</p> <p>. 주말에 머리를 잘라야지.</p> <p>. 햇볕이 뜨거우니 모자를 써야지.</p>

+ '-어야지2'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표현할 때에 사용한다. 말하는 사람이 내일부터 운동하겠다는 의지를 지낼 때에 '나도 내일부터 운동해야지'를 쓴다.

[도입]

(1)	<p>교사: (지저분한 영수의 방, 청소하는 영수의 그림을 순서대로 보여준 뒤에) 영수 씨는 왜 청소하고 있어요?</p> <p>학생1: 방이 깨끗하지 않아요.</p> <p>학생2: 방이 더러워요.</p> <p>교사: 영수는 방이 더러우니까 청소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때에는 '-어야지'를 사용해서 '방을 청소해야지'라고 말해요. '난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해야지', '손을 씻어야지'처럼 쓸 수 있어요.</p>
(2)	<p>교사: (몸무게가 5kg 늘어난 그림을 보여준 뒤에) 이 학생은 한국에 온 후에 살이 많이 찼어요. 이 학생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p> <p>학생1: 살을 빼요.</p> <p>학생2: 운동을 해요.</p> <p>학생3: 다이어트를 해요.</p> <p>교사: 이 학생은 살을 빼야겠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싶을 때에는 '난 이제 살을 빼야지', '난 오늘부터 운동을 해야지', '나는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해</p>

야지'처럼 '-어야지'를 쓸 수 있어요.

- +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간에 연관성이 있는 문장을 준비한다. '-어야지2'는 첫 번째 문장으로 인하여 두 번째 문장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에 사용한다. '방이 더럽다'와 '방을 청소하다'의 두 문장을 이용하여 '-어야지'를 연습시킬 수 있다.

[형태 정보]

- ① 동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ㅏ, ㅑ'인 경우 '-아야지'를 쓴다.

예) 받- + -아야지 → 받아야지 찾- + -아야지 → 찾아야지

사- + -아야지 → 사야지 오- + -아야지 → 와야지

- + 어간 음절이 'ㅏ'로 끝나면 '가야지, 자야지'로 줄여서 쓴다.

- + 어간 음절이 'ㅑ'로 끝나면 줄여서 '와야지'와 같이 쓴다.

- ② 동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ㅓ, ㅕ'가 아닌 경우 '-어야지'를 쓴다.

예) 먹- + -어야지 → 먹어야지 읽- + -어야지 → 읽어야지

서- + -어야지 → 서야지 주- + -어야지 → 줘야지

쓰- + -어야지 → 써야지 꼬- + -어야지 → 꺼야지

마시- + -어야지 → 마셔야지 지내- + -어야지 → 지내야지

세- + -어야지 → 세야지 만들- + -어야지 → 만들어야지

- + 어간 음절이 'ㅓ'로 끝나면 '서야지'로 반드시 줄여서 쓴다.

- + 어간 음절이 'ㅕ'로 끝나면 줄여서 '줘야지'와 같이 쓴다.

- +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ㅡ'일 때는 'ㅡ' 앞의 끝음절 모음에 따라 교체한다. 이때 'ㅡ' 모음은 탈락하여 '써야지, 꺼야지'와 같이 쓴다.

- + 어간 음절이 'ㅣ'로 끝나면 흔히 줄여서 '마셔야지, 기다려야지'와 같이 쓴다. 어간 음절이 'ㅐ, ㅑ'로 끝나면 '지내야지, 세야지'로 줄여서 쓴다.

- ③ '-하다'가 붙은 동사 어간에는 '-여야지'을 쓰는데, 흔히 줄여서 '-해야지'으로 쓴다.

예) 공부하- + -여야지 → 공부해야지 좋아하- + -여야지 → 좋아해야지

운동하- + -여야지 → 운동해야지 노래하- + -여야지 → 노래해야지

①	ㅏ, ㅑ	-아야지	받아야지, 찾아야지, 사야지, 와야지
②	ㅓ, ㅕ 이외	-어야지	먹어야지, 읽어야지, 써야지, 만들어야지
③	-하다	-여야지 (-해야지)	공부해야지, 좋아해야지, 운동해야지, 노래해야지

- ④ 불규칙

듣- 예) 이번에는 꼭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눕- 예) 배가 아프니까 침대에 **누워야지**.

짓- 예) 아기가 태어났으니 좋은 이름을 **지어야지**.

부르- 예) 올해는 내가 노래를 **불러야지**.

[문장 구성 정보]

① '~ 으니까/으니, 꼭/반드시~ -어야지'의 구성으로 주로 사용한다.

예) 겨울 방학 동안에는 놀기만 했으니까 여름방학 동안에는 꼭 **공부해야지**.
1학기에는 C학점을 받았으니 2학기에는 반드시 A학점을 **받아야지**.
비가 온다고 했으니까 우산을 꼭/반드시 **가져가야지**.

② 부정문은 부사 '안'을 쓰거나 '-지 말다'를 사용할 수 있다..

예) 이제 컴퓨터 게임을 **안 해야지**.
이제 컴퓨터 게임을 **하지 말아야지**.

내일 수지 씨와의 약속을 **안 잊어야지**.
내일 수지 씨와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지**.

오늘부터 백화점에 **안 가야지**.
오늘부터 백화점에 **가지 말아야지**.

[제약 정보]

①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난 시험이 끝나면 기분이 **좋아야지**. (x)
난 점심을 먹은 후에 배가 **아파야지**. (x)
난 내일 새 옷을 입으니까 **예뻐야지**. (x)
+ 말하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므로 형용사는 의미상 적절하지 않다.

②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표현하므로 과거 '-었-'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소포를 우체국에 가서 받아 **왔어야지**. (x)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소포를 우체국에 가서 받아 **와야지**. (o)
어제부터 감기에 걸려서 집에 가서 **쉬었어야지**. (x)
어제부터 감기에 걸려서 집에 가서 **쉬어야지**. (o)
+ 과거 '-었-'이 결합한 '-었어야지'는 말하는 사람이 어떤 행위나 상황을 후회하거나 핀잔을 주는 의미로 쓰인다. '-어야지'와는 의미가 다름을 주의한다.

③ 부정 표현 '-지 않다'는 쓸 수 없다.

예) 이제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않아야지**. (x)
이제 컴퓨터 게임을 **안 해야지**. (o)

내일 수지 씨와의 약속을 **잊지 않아야지**. (x)
내일 수지 씨와의 약속을 **안 잊어야지**. (o)

오늘부터 백화점에 **가지 않아야지**. (x)

오늘부터 백화점에 **안 가야지**. (o)

- ④ '-어야지'는 구어적 상황에서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사용하며, 듣는 사람이윗사람이나 높여야 할 사람인 경우에는 해요체의 '-어야지요'로 쓴다.

예) 오늘 저녁에는 이 책을 다 **읽어야지요**.

제가 언니니까 먼저 **사과해야지요**.

[확장]

- ① 듣는 사람 혹은 주어가 어떤 일을 해야 한다거나 어떤 상태여야 함을 나타낸다.

예) 내일부터 학원하기로 했으니까 넌 일찍 **자야지**.

몸이 안 좋으면 **쉬어야지요**.

다리를 다쳤으니까 조심하 **다녔어야지요**.

뛰어난 선수가 되고 싶었으면 열심히 **했어야지**.

매일 운동을 하려면 **부지런해야지**.

그 대학에 가고 싶으면 성적이 **좋아야지**.

탈런트가 되려면 연기를 **잘해야지요**.

+ 이때에는 형용사와 결합할 수도 있고 과거 '-었-'과도 결합할 수 있다.

+ 형용사는 '부지런해야겠지, 좋아야겠지, 예뻐야겠지'처럼 '-어야겠지'가 더 자연스럽다.

- ② '-어야지'는 원하는 상황이 되지 않아 아쉬워하거나 안타까워 할 때에도 쓴다.

예) 아들이 공부를 **해야지**. 매일 게임만 해.

피아노 연습을 열심히 **해야지요**. 하루에 10분도 안 해요.

[유사 문법]

- ① '-어야지2)', '-을 거예요'

-어야지2	-을 거예요
· 어떤 행위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낸다.	
·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낸다. 예) 가: 내일 계획은 뭐니? 나: 내일은 영화를 봐야지 . (o) 예) 가: 내일 오전에 영희가 오니? 나: 응, 영희가 와야지 . (x)	· 말하는 사람의 의지뿐 아니라 추정 등을 나타낸다. 예) 가: 내일 계획은 뭐예요? 나: 내일은 영화를 볼 거예요 . (o) 예) 가: 내일 오전에 영희가 오니? 나: 응, 영희가 올 거야 . (o)
·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강할 때 주로 쓴다. 예) 난 내일부터 한국어 공부를 해야지 . (o) 아마 전 내일부터 한국어 공부를 해야지	·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강하지 않아도 쓸 수 있다. 예) 난 내일부터 한국어 공부를 할 거야 . (o)

요. (x)	아마 전 내일부터 한국어 공부를 할 거예요 . (o)
. 주어가 2인칭 또는 3인칭이면 어떤 일을 해야 하거나 어떤 상태여야 함을 나타낸다. 예) 넌 내일부터 한국어 공부를 해야지 . (o) 그/그녀는 내일부터 한국어 공부를 해야지 . (o)	. 주어가 2인칭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3인칭이면 추정의 의미를 지닌다. 예) 너는 내일부터 한국어 공부를 할 거예요 . (x) 그/그녀는 내일부터 한국어 공부를 할 거예요 . (o)
. 말하는 사람 혼자서 말할 때에 쓸 수 있다. 예) 피곤하니까 오늘은 빨리 자야지 . (o)	. 말하는 사람 혼자서 말할 때에 쓸 수 없다. 예) 피곤하니까 오늘은 빨리 잘 거예요 . (x)

+ '-어야지'는 '-을 거예요'와 같이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표현할 때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을 거예요'보다 '-어야지'가 더 강한 의지를 표현하며, '-을 거예요'는 추정, 미래 계획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 조동사 '要 ...', '得 ...'

- 예) 오늘 저녁에 영화 **봐야지**.
- 今晚我要看电影.
올 가을에는 꼭 가족여행을 **가야지**.
- 今年秋天一家人一定要去旅行.
네가 언니니까 먼저 **사과해야지**.
- 你是姐姐, 你得先道歉啊.
주말에는 머리를 **잘라야지**.
- 周末得剪头了.

② 용법과 오류

- '-어야지'는 문장 끝에 쓰이지만 중국어 대응 표현 '要-', '得' 는 조동사로서 동사의 앞에 위치한다. 이런 어순상의 차이로 인하여 중국어 어순 그대로 표현하는 오류가 생길 수 있다.

- 예) 내일은 먹어야지 친구와 함께 짜장면. (x) (明天我要跟朋友一起吃炸酱面.)
이제는 여야지 매일 운동. (x) (从今以后我要天天运动.)
햇빛이 뜨거우니 여야지 써 모자. (x) (太晒了, 得戴帽子了.)

- 부정문은 부사 '안'을 쓰거나 '-지 말다'를 써서 만든다. 중국어에서는 어떤 의지를 나타내는 '要', '得'는 긍정문일 때는 '要-', '得'를 사용하고 부정문일 때는 '不要', '不得'가 아니라 '不想'을 사용한다. 부정사의 위치도 다르고 게다가 동사를 바꾸어 사용하기 때문에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쉽게 부정문 표현에서 오류를 범하기 쉽다.

- 예) 나는 안 놓지고 싶다 내일 엄마와의 약속. (x) (我不想错过跟明天妈妈的约会.)
내일부터 저녁에 먹고 싶지 않다 라면. (x) (明天开始不想吃拉面.)

오늘부터는 안 보고 싶다 드라마. (x) (今天开始不想看连续剧了.)

- '-어야지'는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지만 중국어는 형용사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예) 나는 좋아해야지 음악을(x) (我要喜欢上音乐.)

나는 예뻐야지. (x) (我要漂亮.)

나는 씩씩해야지. (x) (我要坚强.)

- '-어야지'는 듣는 사람 혹은 주어가 어떤 일을 해야 한다거나 어떤 상태여야 함을 나타낸다. 이때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应该', '该'이다. '应该', '该'의 한국어 표현이 '마땅히, 응당히'이므로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중국어 어순과 어휘를 그대로 옮겨 표현함으로써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예) 몸이 안 좋으면 마땅히 쉬어. (x) (身体不好的话应该休息啊.)

연예인이 되려면 응당히 준비 많이 해. (x) (当明星应该做很多准备啊.)

한번 실수를 했으면 응당히 조심여야지. (x) (有了一次失误, 应该注意点儿啊.)

3.5.15. '-을걸'

-을걸[-르걸][종결어미] 어떤 사실에 대한 추측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을걸: (동사,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어떤 사실에 대한 추측의 뜻을 나타낸다. 주로 구어에서 사용한다.

[예문]

<p>담화예문</p>	<p>가: 줄리아 씨, 영수 씨가 지금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나: 회사에 있어요. 왜 그러세요? 가: 전화를 안 받아서요. 나: 지금 회의 중이라 전화를 못 받을걸요.(↗)</p> <p>가: 어제 먹던 빵을 누가 먹었어요? 나: 아빠가 먹었을걸.(↗)</p> <p>가: 오늘 누가 모임에 와요? 나: 영수와 앤디 씨가 올 거예요. 근데 앤디 씨는 조금 늦을 거예요. 가: 그러면 앤디 씨는 몇 시쯤 올까요? 나: 저녁 7시쯤에 올걸요.(↗)</p>
-------------	--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는 비빔밥을 먹을걸요. · 아이가 엄마 손을 잡을걸요. · 영수는 이번 주말 할머니 댁에 갈걸요. · 영수가 강아지 집을 지을걸요. · 방이 깨끗할걸. · 떡볶이가 맛있을걸. · 그 사람은 한국에서 유명한 의사일걸. · 그는 외국인이 아닐걸. · 동생이 교실에 있을걸. · 호랑이가 동물원에 없을걸요.
------	---

+ '-을걸'은 어떤 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나 지식을 바탕으로 추측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며 문장 끝에서 억양을 올린다. '지금 회의 중이라 전화 못 받을걸요'는 영수 씨가 회의 중에 있다는 것을 줄리아 씨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을걸'을 사용할 수 있다.

[도입]

<p>(1)</p> <p>교사: (세계 지도와 날씨 그림을 보여 준다. 그림 뒷면에는 단어를 적어둔다) 오늘은 날씨에 대해 공부해요. (베트남과 '덥다'를 보여주면서) 여러분, 베트남 날씨는 어때요?</p> <p>학생: 베트남은 더워요.</p> <p>교사: (일본과 '따뜻하다'를 보여주면서) 일본의 요즘 날씨는 어때요?</p> <p>학생: 일본은 따뜻해요.</p> <p>교사: (캐나다와 '쌀쌀하다'를 보여주면서) 캐나다의 날씨는 어때요?</p> <p>학생: 캐나다는 쌀쌀해요.</p> <p>교사: 그러면 요즘 부산 날씨는 어떨까요?</p> <p>학생: 아마 부산도 따뜻해요.</p> <p>교사: 서울이 지금 따뜻하니까 부산도 따뜻할 것 같아요. 이때 '부산도 따뜻할걸요'처럼 말할 수 있어요. '-을걸'은 어떤 것을 추측할 때 쓸 수 있어요.</p> <p>(2)</p> <p>교사: (음식 이름이 적힌 메뉴를 보여 주며) 한국 음식 중에서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p> <p>학생1: 저는 떡볶이를 좋아해요.</p> <p>학생2: 저는 김밥을 좋아해요.</p> <p>학생3: 선생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p> <p>교사: 저는 불고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앤디 씨는 어떤 음식</p>	
---	--

을 좋아할까요?

학생: 피자요.

교사: 어떻게 알아요?

학생: 저번에 혼자서 피자 하나를 다 먹었어요.

교사: 앤디 씨가 혼자서 피자 한 판을 다 먹는 것을 보았군요.
그럴 때에 '-을걸'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앤디 씨는 피자를 **좋아할걸요**'처럼 말할 수 있어요. '-을걸'은 추측이에요. 사실은 아니에요.

+ '-을걸'은 교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추측하여 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도록 유도한다. '부산은 서울보다 따뜻할걸요'는 교사가 부산의 기본 정보를 듣거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을걸'을 사용하여 말할 수 있다.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을걸'을 쓴다.

예) 찾- + -을걸 → 찾을걸	읽- + -을걸 → 읽을걸
먹- + -을걸 → 먹을걸	작- + -을걸 → 작을걸
많- + -을걸 → 많을걸	좋- + -을걸 → 좋을걸

② 동사 및 형용사 어간의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ㄹ걸'을 쓴다.

예) 타- + -ㄹ걸 → 탈걸	크- + -ㄹ걸 → 클걸
가- + -ㄹ걸 → 갈걸	예쁘- + -ㄹ걸 → 예쁠걸
열- + -ㄹ걸 → 열걸	멀- + -ㄹ걸 → 멀걸

+ '-을걸'는 동사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며, 특히 'ㄹ' 받침으로 끝나는 동사나 형용사의 경우는 'ㄹ'이 탈락하고 '-ㄹ걸'이 결합한다.

①	받침 ㅁ	+ -을걸	찾을걸, 읽을걸, 먹을걸, 작을걸, 많을걸, 좋을걸
②	받침 ×	+ -ㄹ걸	탈걸, 클걸, 갈걸, 예쁠걸
	ㄹ 받침	+ -ㄹ걸 (어간 'ㄹ' 탈락)	열걸, 멀걸

③ 불규칙

듣- 예) 수진 씨가 라디오를 **들을걸요**?

짓- 예) 영수 씨가 집을 혼자 **지을걸요**?

춡- 예) 주말에 날씨가 **추울걸요**?

파랑- 예) 옷이 **파랄걸요**?

④ '이다, 아니다'는 '-ㄹ걸'을 쓴다. 단,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이-'를 생략하고 '-ㄹ걸'의 'ㄹ'이 앞 모음과 결합할 수 있다.

예) 외국사람이- + -ㄹ걸 → 외국사람일걸 학생이- + -ㄹ걸 → 학생일걸
배우이- + -ㄹ걸 → 배우일걸/배울걸 선수이- + -ㄹ걸 → 선수일걸/선술걸
아니- + -ㄹ걸 → 아닐걸

[문장 구성 정보]

- ① '-을걸'은 구어적 상황에서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사용하며, 듣는 사람이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을 때는 '-을걸요'로 쓴다.

예) 엄마는 비빔밥을 **먹을걸요**.
아이가 엄마 손을 **잡을걸요**.

[제약 정보]

- ① 1인칭 주어, 2인칭 주어와 결합할 수 없다.

예) 내가 김밥을 **먹을걸요**? (x)
네가 김밥을 **먹을걸요**? (x)
영희가 김밥을 **먹을걸요**? (o)

- ② 과거 '-었-'과만 결합할 수 있고, 미래·추측 '-겠-'과는 결합할 수 없다.

예) 동생은 라면을 **먹었을걸**. (o)
동생은 라면을 **먹겠을걸**. (x)

- ③ '-을걸'의 부정문에서는 부정 표현 '-지 말다'를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지 말다'를 사용하면 후회의 의미로 쓰인다.

예) 사진을 찍을걸 .(↗) (o)	커피를 마실걸 .(↗) (o)
사진을 안 찍을걸 .(↗) (o)	커피를 안 마실걸 .(↗) (o)
사진을 찍지 않을걸 .(↗) (o)	커피를 마시지 않을걸 .(↗) (o)
사진을 찍지 말걸 .(↗) (x)	커피를 마시지 말걸 .(↗) (x)

+ '사진을 찍지 말걸(↘)', '커피를 마시지 말걸(↘)'은 후회의 의미를 나타낸다.

[확장]

- ① '-을걸'은 1인칭 주어의 후회나 아쉬움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해요체를 사용할 수 없다.

예) 나도 같이 **갈걸**.(↘) (o) 나도 같이 **갈걸요**.(↘) (x)
너도 같이 **갈걸**.(↘) (x) 너도 같이 **갈걸요**.(↘) (x)
동생도 같이 **갈걸**.(↘) (x) 동생도 같이 **갈걸요**.(↘) (x)

+ '-을걸'에 '요'가 붙으면 후회나 아쉬움의 의미가 아니라 추측의 의미로 쓰이게 된다.
+ 후회나 아쉬움의 '-을걸'은 '-을걸 그러다/하다'의 형태로도 쓰인다.
예) 이럴 줄 알았으면 밥이라도 많이 먹고 **울걸 그랬어요**.

[유사 문법]

① '-을걸', '-을 것 같다'

-을걸	-을 것 같다
· '추측'을 나타낸다.	
· 추측에 대한 확신이 강할 때에 사용한다. 예) 가: 내일은 비가 안 온다면서요? 나: 아뇨. 비가 올걸요 .	· 추측에 대한 확신이 강하지 않을 때에 사용한다. 예) 가: 내일은 비가 안 온다면서요? 나: 아뇨. 비가 올 것 같아요 .
· 격식적인 상황에서는 쓸 수 없다. 예) 가: 여러분, 오늘은 단체장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 의견은 중요하게 들을 필요가 있을걸요 . (x)	· 격식적인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예) 가: 여러분, 오늘은 단체장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 의견은 중요하게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o)
· 듣는 사람에게 공손한 태도로 말할 때에 사용할 수 없다. 예) 교수님, 오늘 일이 있어서 회의에 못 갈 걸요 . (x)	· 듣는 사람에게 공손한 태도로 말할 때에 사용할 수 있다. 예) 교수님, 오늘 일이 있어서 회의에 못 갈 것 같습니다 . (o)

+ '-을걸'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을 것 같다'는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사실을 전달하면서 공손한 태도로 말할 때에 사용한다. '교수님, 오늘 일이 있어서 회의에 못 갑니다'보다 '교수님, 오늘 일이 있어서 회의에 못 갈 것 같습니다'가 더 공손한 의미로 사용된다. 다시 말해, 이때의 '-을 것 같다'는 추측의 의미가 아니라 공손성의 한 표현이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 '可能 ... 吧', '(会) ... 吧', '会 ... 的'

예) 지금 수업중이라 전화를 못 **받을걸요**.

- 上课呢, 可能接不了电话吧.

그는 외국인이 **아닐걸**.

- 她不会是外国人吧.

호랑이가 동물원에 **없을걸요**.

- 老虎不在动物园吧.

조 교수님은 꼭 **오실걸요**.

- 赵教授肯定会来的.

② 용법과 오류

- '-걸요'는 문장의 끝에 놓여 추측을 나타내지만 중국어는 많은 경우 조동사 '可能, 会'와 문장 끝에 놓이는 '吧'가 함께 어울려 추측을 나타낸다. 이런 표현상의 차이로 인해 잘못된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예) 엄마는 을걸 비빔밥을 먹어요. (x) (妈妈可能吃拌饭.)

그 사람은 가능 한국에서 유명한 의사일걸. (x) (他可能是韩国有名的医生.)

방이 긍정 깨끗할걸. (x) (房间肯定很干净.)

- 부정문에서 한국어는 동사와 형용사의 부정 표현이 구분되어 있지만 중국어는 동사나 형용사나 부정 표현은 같다. 이처럼 중국어의 상이한 대응 방식으로 인해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많은 혼동을 일으켜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그 사람을 찾지 않을걸. (x)
 어제 녹차를 마시지 않을걸. (x)
 그 옷은 크지 말걸. (x)
 거기까지는 멀지 말걸. (x)

- '-을걸'은 현재 '-는-', 미래 및 추측 '-겠-'과 결합할 수 없지만 중국어는 과거 현재 미래 다 표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었-' '-는-', '-겠-'을 표현하는 방식은 단어로 표현된다. 이런 상이한 대응 방식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예) 엄마는 어제 갔어을걸. (x)
 친구는 가능 지금 학교로 가을걸. (x)
 그분은 필요한 물건들을 다 준비하을걸. (x)

- 형태 정보에서 불규칙 변화에 익숙하지 않아 다음과 같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예) 수진 씨가 이 노래를 들걸요. (x)
 다음 주에는 날씨가 춥을걸요. (x)
 가을의 단풍을 보면 그분은 시를 짓을걸요. (x)

3.5.16. ‘-자3’

-자3[종결어미] 듣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청유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 자3**: (동사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같이 할 것을 권유, 제안, 요청할 때 사용한다.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아랫사람이거나 친한 사이에서 사용하며, 주로 구어에서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지금 뭐하고 있어? 나: 한국 드라마 보고 있어. 가: 나도 보고 싶었는데 같이 보자. 나: 그래. 여기에 앉아.</p> <p>가: 이번 주말에 약속 있니? 나: 아직 없어. 가: 그러면 같이 영화 보러 가자.</p>
------	--

	나: 좋아.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좀 더 천천히 가자. · 밥을 먹은 뒤에 아이스크림을 먹자. · 음악을 같이 들자. · 빨리 집에 가자. · 과일을 사자. · 이제는 손을 잡고 다니자. · 물을 아껴 쓰자. · 날씨가 더우니 선풍기를 틀자. · 같이 빵을 만들자. · 길을 건널 때에는 차를 조심하자.

+ '-자3'는 동사와만 결합할 수 있다.

[도입]

교사: 다음 글은 '토끼와 거북이'라는 유명한 동화예요. 같이 읽어 봐요.

옛날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고 있었어요. 토끼는 매우 빨랐으나 거북이는 매우 느렸어요. 거북이는 토끼가 느리다고 놀렸어요. 거북이는 토끼에게 "토끼야, 우리 저 산꼭대기까지 달리기 시합을 **하자**."라고 말했어요. 토끼는 달리기에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말했어요.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토끼는 거의 도착했으나 거북이는 천천히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토끼는 근처에서 낮잠을 잤어요. 그러나 거북이가 먼저 도착해서 이겼어요.

교사: 거북이가 토끼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학생: 우리 저 산꼭대기까지 달리기 시합을 **하자**.

교사: 맞아요. 친구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부탁할 때 '달리기 시합을 하자'처럼 '-자'를 쓸 수 있어요. '같이 **가자**, 같이 **먹자**'처럼 쓸 수 있어요.

+ '-자'는 청유형 '-자'가 사용된 예문을 활용할 수도 있고, 단어장을 활용하여 용법을 학습할 수도 있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자'를 쓴다.

예) 앉- + -자 → 앉자

잡- + -자 → 잡자

- 읽- + -자 → 읽자 기다리- + -자 → 기다리자
 마시- + -자 → 마시자 자- + -자 → 자자
 서- + -자 → 서자 주- + -자 → 주자
- + '오다'는 '*집에 오자'처럼 청유형 어미와 결합하지 않는다.
 + '있다'는 '저기에 같이 있자'와 같이 청유형 어미가 결합할 수 있으나 '없다'는 '*저기에 같이 없자'처럼 청유형을 사용할 수 없다.

①	받침 ○	+ -자	앉자, 잡자, 읽자
	받침 ×	+ -자	기다리자, 마시자, 자자, 서자, 주자

[문장 구성 정보]

- ① 부사 '같이, 함께' 부사와 자주 쓴다.
 예) 오늘 같이 학교에 **가자**.
 함께 점심을 **먹자**.
- ② 청유형 어미 '-자'의 부정문은 '-지 말자'를 쓴다.
 예) 오늘 학교에 **가지 말자**.
 라면을 **먹지 말자**.

[제약 정보]

- ① 형용사와 결합할 수 없다.
 예) 우리 같이 얼굴이 **예쁘자**. (x)
 방이 **깨끗하자**. (x)
- ② '이다, 아니다'와 결합할 수 없다.
 예) 우리는 이제 **학생이자**. (x)
 우리는 학생이 **아니자**. (x)
- ③ '-자'는 청유형이므로 1인칭 단수, 2인칭 복수, 3인칭 주어와 결합할 수 없다.
 예) 나는 같이 라면을 **먹자**. (x)
 너는 같이 라면을 **먹자**. (o)
 그/그녀는 같이 라면을 **먹자**. (x)
 우리는 같이 라면을 **먹자**. (o)
 너희들은 같이 라면을 **먹자**. (x)
 그들은 같이 라면을 **먹자**. (x)
- ④ 과거 '-었-', 미래·추측 '-겠-'과 결합할 수 없다.
 예) 우리 같이 점심을 **먹겠자**. (x)

우리 같이 점심을 **먹었자**. (x)

[확장]

- ① '-자'는 어떤 요청을 승낙할 때에도 쓴다.

예) 가: 수업 마치고 아침 먹으러 갈래?

나: 그래, 같이 **가자**.

+ '아침을 먹으러 갈래?'라는 요청에 승낙할 때에 '가자'를 사용한 것이다.

- ② 논문이나 보고서 등의 글에서 '-자'는 어떤 행동이나 방향에 대해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임을 미리 알려 주는 기능으로도 사용한다.

예) 이 장에서는 한국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자**.

이제 세계 각국의 문화에 대해 검토해 **보자**.

+ 학술적 글쓰기에서 '살펴보다, 검토해 보다, 논의해 보다' 등과 결합하여 주로 쓰인다. 앞으로 논의할 대상이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제시할 것임을 나타낸다.

- ③ '-자'는 혼잣말의 경우, 일부 동사와 결합하여 말하는 사람의 다짐이나 결심을 나타내거나 혼자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예) **가만있자**, 내가 어제 어디에 갔더라?

두고 보자, 다음에는 내가 반드시 이길 거야.

+ 혼잣말을 할 때 사용되는 표현은 '가만있자, 두고 보자, 가만있어 보자' 등 소수의 표현에 국한된다. 이런 경우는 연어나 관용구처럼 학습하는 것이 유익하다.

- ④ 형용사는 원칙적으로 제안, 권유, 요청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자'와 결합할 수 없지만 일부 형용사는 '-자'와 결합하여 쓰이기도 한다.

예) 우리 모두 자기의 일에 **충실하자**.

우리, 이제 **침착하자**.

+ '침착하자, 부지런하자, 충실하자' 등 주로 의지를 가지고 행위를 하려는 상황을 언급할 때에는 형용사와도 결합하여 쓸 수 있다.

[유사 문법]

- ① '-자3', '-어4', '-읍시다'

-자3	-어4	-읍시다
· 청유를 나타낸다.		
· 격식체로 어떤 행동을 같이 할 것을 요구할 때 사용하는 해라체의 종결어미이다. '같이, 함께'와 결합하지 않	· 비격식체로 다소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일상적인 대화에서 두루두루 편하게 쓰인다. 주로 '같이, 함께'와 결합	· 격식적인 높임 표현의 청유형 어미로서 하오체의 종결어미이다. 자기와 비슷한 지위를 가진 사람을 존중하는

<p>아도 청유의 의미를 분명히 드러낸다. 예) 밥 먹자. 집에 가자.</p>	<p>하여 사용된다. 예) 다음엔 같이 준비해요.</p>	<p>말이고, 위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 '같이, 함께'와 결합하지 않아도 청유의 의미를 분명히 드러낸다. 공식적이거나 일정한 대상을 지정하지 않을 때에도 쓸 수 있다. 예) 미안하지만 같이 집에 갑시다. 조용히 합시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맙시다.</p>
---	--	--

+ '-어4'는 동사 뒤에 붙어 듣는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과 함께 어떠한 행동을 하자고 제안할 때 사용하는 종결어미이다. 높임 표현으로는 '-요'가 결합한 '-어요'의 형태를 사용한다. '같이, 함께' 등과 같은 부사와 자주 어울려 쓰인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吧'.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빨리 집에 **가자**. - 快点回家吧.
날씨가 더우니 선풍기를 **틀자**. - 太热了, 开空调吧.
밥을 먹은 뒤에 아이스크림을 **먹자**. - 饭后吃冰淇淋吧!
길을 건널 때에는 차를 **조심하자**. - 过马路, 小心车辆.

② 용법과 오류

- '-자3'에 가장 많이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吧'이다. '-자3'은 원칙적으로 동사와만 결합할 수 있는 반면에 중국어 '吧'는 동사뿐만 아니라 형용사와도 결합 가능하며 형용사와 결합할 경우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 '-자3'과 '吧'의 이러한 차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지금 배가 고프자. (x) 지금 배가 고프겠어요. (o) - 肚子饿吧!
어머니는 아주 예쁘자. (x) 어머니는 아주 예쁘시겠어요. (o) - 妈妈应该很漂亮吧!

- 중국어 '吧'는 추측의 의미 외에도 명령, 청유 등의 의미도 나타낸다. '吧'는 청유를 나타낼 때와 명령을 나타낼 때 같은 표현 '吧'를 사용함으로 어조, 혹은 전후 문맥에 따라 청유가 되기도 하고 명령이 되기도 한다. '-자3'과 '吧'의 이런 차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빨리 가자. (x) 빨리 가라. (o) - 快去吧! (명령 어조)
빨리 먹자. (x) 빨리 먹어라. (o) - 快吃吧! (명령 어조)
날씨가 추울자. (x) 날씨가 춥겠지요. (o) - 天挺冷吧. (추측)
내일 아마 쉬자. (x) 내일 아마 쉬겠지요. (o) - 明天应该休息吧. (추측)

- '-자3'은 혼잣말의 경우, 일부 동사와 결합하여 말하는 사람의 다짐이나 결심을 나타내거나 혼자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중국어에는 이러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은 '가만있자.', '두고 보자.'와 같은 표현을 배운 후 중국어와 혼동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나 생각해. (x) 가만있자. (o) - 让我想想.
기다려 봐. (x) 두고 보자. (o) - 等着瞧.

3.5.17. '-잖아'

-잖아[종결어미] 말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나 정보를 상대방에게 **확인**시키거나 **정정**해 주듯이 말함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잖아: (동사,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상황을 확인시키거나 그 상황을 고쳐 주려는 듯한 의도를 가질 때 사용한다. '-지 않다'가 줄어든 표현이었지만 그 의미가 변하여 독립된 종결어미로 쓰인다. 주로 구어에서 쓰인다.

[예문]

담화예문	<p>(1) 가: (아빠) 여보, 오늘 아침은 미역국이네요. 누구 생일이예요? 나: (딸) 아빠 생신이잖아요. 가: (아빠) 오늘이 내 생일이야? 나: (엄마) 네, 오늘 저녁은 빨리 집에 오세요.</p> <p>(2) 가: 빨리 나가자. 나: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가: 지금 출발 안 하면 약속 시간에 늦잖아. 나: 토요일 아침이라 괜찮아요. 가: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되잖아. 나: 어머, 그러면 막힐 수도 있겠네요.</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희가 라면을 먹잖아요. · 내일은 태풍이 오잖아. · 비가 오니까 우산을 들고 왔잖아. · 내 방에는 이제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프잖아요. · 어릴 때부터 성격이 좋았잖아. · 영희가 청소하고 있잖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사람이 범인이잖아. · 선배는 경상도 사람이 아니잖아. · 동생이 혼자서 자고 있잖아.
--	---

+ '아빠 생신이잖아요'는 아빠도 자신의 생일을 알고 있지만 오늘이 생일인 줄 잊어버렸기에 그것을 확인시키고자 할 때에 사용하였다. 이처럼 '-잖아'는 말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나 정보를 확인시키거나 수정하고자 할 때에 사용한다. 그 내용은 듣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입]

(1)

교사: (수업 계획을 설명하면서) 단어 시험이 내일이죠.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학생: 선생님, 다음 주 금요일이 아니에요?

교사: 지난주에 내일 친다고 말했는데요. 흐영 씨는 결석해서 아직 못 들었나 봐요.

학생: 예, 못 들었어요.

교사: 다음 주 금요일은 공휴일이예요. 그래서 내일 시험을 쳐요.

학생: 네, 알겠어요.

교사: 지금처럼 다음 주 금요일이 공휴일인 것을 확인시켜 줄 때 '다음 주 금요일이 **공휴일이잖아요**'라고 말해요. '-잖아요'는 어떤 내용을 고쳐 주거나 확인시켜 줄 때 사용해요.

(2)

교사: 오늘은 꽤 쌀쌀하죠?

학생: 네, 너무 추워요. 11월말인데 왜 이렇게 추워요?

교사: 겨울이 이제 **시작되었잖아요**.

학생: 언제까지 추워요?

교사: 보통 내년 2월까지 추워요. 한국은 12월부터 2월까지가 겨울이예요.

학생: 그러면 겨울에 엄청 추워요?

교사: 네,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많아요.

학생: 정말 춥겠네요.

교사: 그래서 온돌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잖아요'는 잘 모르는 사실을 알려줄 때 쓸 수 있어요. '겨울이 **시작되었잖아요**, 온돌 문화가 **발달했잖아요**'처럼 쓸 수 있어요.

+ '-잖아'는 듣는 이가 잘 모르거나 잊고 있던 정보를 말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다.

[형태 정보]

-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잖아'를 쓴다.

예) 먹-	+ -잖아	→	먹잖아	읽-	+ -잖아	→	읽잖아
웃-	+ -잖아	→	웃잖아	신-	+ -잖아	→	신잖아
문-	+ -잖아	→	문잖아	놀-	+ -잖아	→	놀잖아
만들-	+ -잖아	→	만들잖아	깊-	+ -잖아	→	깊잖아
굽-	+ -잖아	→	굽잖아	등글-	+ -잖아	→	등글잖아
가-	+ -잖아	→	가잖아	오-	+ -잖아	→	오잖아
공부하-	+ -잖아	→	공부하잖아	예쁘-	+ -잖아	→	예쁘잖아
착하-	+ -잖아	→	착하잖아	따뜻하-	+ -잖아	→	따뜻하잖아

①	받침 〇	+ -잖아	먹잖아, 읽잖아, 웃잖아, 신잖아, 문잖아, 놀잖아, 만들잖아, 깊잖아, 굽잖아, 등글잖아
	받침 ×	+ -잖아	가잖아, 오잖아, 공부하잖아, 예쁘잖아, 착하잖아, 따뜻하잖아

- ② '이다, 아니다'는 '-잖아'를 붙여 쓴다. 단,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주로 '명사+-잖아'라고 쓴다.

예) 외국인-	+ -잖아	→	외국인이잖아	꽃이-	+ -잖아	→	꽃이잖아
학교이-	+ -잖아	→	학교잖아	아니-	+ -잖아	→	아니잖아

[문장 구성 정보]

- ① '-잖아'는 구어적 상황에서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사용하며, 듣는 사람이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을 때는 '-잖아요'로 쓴다.

예) 누나가 미국에 유학을 **가잖아요**.
유명한 교수가 한국에서 **발표하잖아요**.

[제약 정보]

- ① 미래·추측 '-겠-'은 '-잖아'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내일 아침에 **지각하겠잖아**. (x)
오늘 오후에 일찍 학교에 **가겠잖아**. (x)

- ② 회상 '-더-'는 '-잖아'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선희가 어제 한국에 **도착하더잖아**. (x)
조금 전에 학교에서 **출발하더잖아**. (x)

- ③ '-잖아요'는 격식체 '-잖습니까'로 나타나지 않는다.

예)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o)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잖습니까**. (x)

저기가 **경찰서잖아요**. (o)
저기가 **경찰서입니다**. (x)

[확장]

- ① '-잖아'는 평서문과 의문문에서 그 의미가 다르다. 평서문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어떤 정보나 상황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듣는 사람도 그 정보를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고자 할 때에 사용되지만, 의문문에서는 듣는 사람에게 동조를 요구하는 형식으로 쓰인다.

예) 서울이 **넓잖아요**.

서울이 **넓잖아요?**

- + 평서문 '서울이 넓잖아요'는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도 이 정보를 알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사실에 대해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한다.
- + 의문문 '서울이 넓잖아요?'는 말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에 듣는 사람도 동조해 줄 것을 요청할 때 사용한다.

- ② '-잖아'는 부정 표현 '-지 않아'의 축약형에서 시작되었지만 '정보 전달, 사실 확인, 핀잔' 등의 의미를 지닌 독립된 어미처럼 사용된다.

예) 그 꽃이 **예뻐요**. (긍정)

그 꽃이 **예쁘지 않아요**. (부정)

그 꽃이 **예쁘잖아요**. (강한 긍정)

- + '-잖아'가 '-지 않아'의 축약형에서 발전하였으나 부정적 의미에서 긍정적 의미로 변하였고 주로 말하는 사람이 어떤 정보나 상황을 듣는 사람에게 전달할 때에 사용한다. 즉, 어미 '-잖아'는 부정적 표현으로 쓰이지 않는다.

- ③ 평서문의 격식체 '-잖습니까'는 부정 표현 '-지 않습니까'의 축약형으로만 쓰여 부정의 의미를 지니지만, 의문문의 격식체 '-잖습니까'는 긍정 표현 '-잖아'처럼 긍정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예) 한국 사회는 느린 문화를 **좋아하잖습니까**. (부정 의미)

한국 사회는 느린 문화를 **좋아하잖습니까?** (긍정 의미)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 ① 대응 표현 : '不是 ... 嘛'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내일은 **휴일이잖아**. - 明天不是休息嘛. / -明天休息.

할아버지가 **주무시고 있잖아**. - 爷爷不是睡觉呢嘛. / -爷爷睡觉呢.

동생이 떡볶이를 **먹고 있잖아요**. - 弟弟不是吃打糕条呢嘛. / -弟弟吃打糕条呢.

선생님은 중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 老师又不是中国人.

- ② 용법과 오류

- '주무시고 있잖아' 는 지금 주무시고 있는 진행 상황과 동시에 그 정보를 상대방에게 확인

예) 선생님께서 마침 책을 읽고 있어 잤아. (x)

(‘선생님께서 책을 읽고 있잖아’로 표현해야 할 경우)

애가 지금 자고 있고 잤아. (x)

(‘애가 자고 있잖아’로 표현해야 할 경우)

시키는 것이다. 중국어에서 진행형은 다양한 시간부사와 문장 끝에 놓이는 ‘呢’가 짝을 이루어 표현되기 때문에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고 있잖아’를 표현할 경우 불필요한 시간부사를 사용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 ‘-잖아’는 평서문이 될 수도 있고 의문문이 될 수도 있다. 반면에 중국어 대응 표현 ‘不是 ... 嘛’는 의문문이 될 수 없다. 이런 상이한 표현 방식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예) 한국어 선생님이 예쁘니까? (x)

(평서문 ‘한국어 선생님이 예쁘잖아요’로 표현해야 할 경우)

중국이 정말 크잖아요? (x)

(평서문 ‘중국이 정말 크잖아요’로 표현해야 할 경우)

- 선어말어미 ‘-으시’, ‘-었-’이 고립어에 속하는 중국어에는 없기 때문에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한국어적 직관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에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 어머니가 장조림을 만드시잖아. (x) (‘만드셨잖아’로 표현해야 할 경우)

교수님은 어릴 때 중국에서 사였잖아. (x)

그분은 대부분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시셨잖아. (x)

3.6. 표현

3.6.1. ‘-게 하다’

-게 하다[표현] 1) 어떤 일을 시키거나 허용함 2) 어떤 상태가 되도록 만들 등을 나타내는 표현.

-게 하다1): (동사에 붙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시키거나 허락할 때, 또는 어떤 사물이 어떤 작동을 하도록 만들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 예문	<p>가: 줄리아 씨, 왜 매일 도서관에 가요? 나: 선생님께서 매일 2시간씩 한국어를 공부하게 하셨어요. 가: 공부를 도서관에 앉아서만 해요?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나: 선생님께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도 자주 보게 하세요.</p> <p>가: 수지 엄마, 아이들을 몇 시까지 놀게 할까요? 나: 8시까지요. 가: 너무 늦지 않을까요? 내일 학교도 가야 하는데..... 가: 그럼 너무 늦지 않게 7시까지만 놀게 해요.</p>
문장 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무 더워서 학생들에게 창문을 열게 했어요. · 아이가 피곤해 할 때는 일찍 자게 하세요. · 선생님이 저희에게 매일 신문을 읽게 하셨어요. · 앤디 씨에게 매일 뉴스를 듣게 하세요. · 제가 남자친구를 화나게 해서 남자친구가 먼저 가 버렸어요. · 흐영 씨를 문밖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 선생님께서는 줄리아 씨를 말하기 대회에 나가게 하실 거예요. · 어제 밤에는 너무 늦어서 학생들을 돌아가게 했어요. · 복도에서는 신발 소리가 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 영화관에서는 휴대폰이 울리지 않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렇게 멀리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 ‘-게 하다1)’은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들거나 시키는 사동의 의미를 지니므로 ‘더워서 학생들에게 창문을 열게 했어요’, ‘아이가 피곤해 할 때는 일찍 자게 하세요’, ‘앤디 씨에게 매일 뉴스를 듣게 하세요’ 등은 모두 어떤 행위를 시키는 사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또한 ‘아이들을 몇 시까지 놀게 할까요?’, ‘8시까지 놀게 해요’는 허용의 의미를 나타낸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는 듣는 사람에게 흐영 씨를 기다리게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며, ‘제가 남자친구를 화나게 했어요’도 주어인 자신이 남자친구를 화나

게 만들었음을 의미하여 의도적으로 시킨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음을 나타낸다.

- + '핸드폰을 울리지 않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도에서는 신발 소리가 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등과 같은 관습적인 쓰임에서 사물이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한편 '이렇게 멀리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와 같이 관습적으로 사용되어 상대방을 멀리 오도록 시켰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게 만들어서 죄송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도입]

(1)

교사: 왕밍 씨, 창문을 닫으세요.

학생: 네.

교사: 여러분, 누가 창문을 닫았어요?

학생: 왕밍 씨요.

교사: 누가 왕밍 씨에게 창문을 닫으라고 했어요?

학생: 선생님이요.

교사: 선생님이 왕밍 씨에게 "창문을 닫으세요."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왕밍 씨에게 창문을 **닫게 했어요**.

(2)

교사: (책을 보고 졸려 하는 시늉을 하며) 줄리아 씨, 이 책이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학생: 아니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교사: 네, 이 책이 재미없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선생님이 졸려요. 이 책이 선생님을 졸리게 만들었어요. 이 책이 선생님을 **졸리게 했어요**.

- + 도입(1)과 같이 교실에서 학습자에게 명령하는 상황을 통해 '-게 하다1)'이 가지는 사동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이때 명령을 하는 주체와 명령을 수행하는 대상에 대한 제시를 명시적으로 해야 한다.

- + 도입(2)는 사물을 주어로 하는 상황이며, 사물이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음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시키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경우에도 '-게 하다1)'을 사용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형태 정보]

- ① 동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게 하다'를 쓴다.

예) 씻- + -게 하다 → 씻게 하다
 먹- + -게 하다 → 먹게 하다
 가- + -게 하다 → 가게 하다
 살- + -게 하다 → 살게 하다
 만들- + -게 하다 → 만들게 하다

앉- + -게 하다 → 앉게 하다
 보- + -게 하다 → 보게 하다
 사- + -게 하다 → 사게 하다
 알- + -게 하다 → 알게 하다

①	받침 o	+ -게 하다	씻게 하다, 앉게 하다, 먹게 하다
	받침 x	+ -게 하다	보게 하다, 가게 하다, 사게 하다 살게 하다, 알게 하다, 만들게 하다

[문장 구성 정보]

① 'N1+이 N2+이/을/에게/한테 V+-게 하다'의 구성으로 사용한다.

- 예) 엄마가 아이가 의자에 **앉게** 한다.
 엄마가 아이를 의자에 **앉게** 한다.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마시게** 한다.
 엄마가 아이한테 우유를 **마시게** 한다.
 엄마가 아이를 우유를 **마시게** 한다.
 엄마가 아이가 우유를 **마시게** 한다.

- + 자동사일 때는 일을 시키는 대상에 '-를/-가'가 결합하고, 타동사일 때는 -에게/-한테/-하
여금/-를/-가 모두 결합이 가능하다.
- + N1은 행위의 주체, 즉 일을 시키거나 허락하는 사람이나 사물이 되고 N2는 일을 시키는 대상
으로 일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이나 사물이 된다.
- + N1과 N2는 생략되기도 한다.

- 예) (내가) 친구에게 운전을 **하게** 했어요.
 친구가 (나에게) 설거지를 **하게** 했어요.

② 부정문은 '-게 하지 않다, '안 -게 하다'로 쓴다. '안 -게 하다'는 주로 구어에서 사용한다.

- 예) 엄마가 아이에게 만화책을 **읽게 하지 않아요.** (o)
 엄마가 아이에게 만화책을 **안 읽게 해요.** (o)

③ 시키는 주체인 N1을 높일 때는 '-게 하시다'로 쓰며, 대상인 N2를 높일 때는 '-시게 하다'로 쓴다.

- 예) 아버지께서 저를 일찍 **자게 했어요.** (x)
 아버지께서 저를 일찍 **자게 하셨습니다.** (o)
 제가 할아버지를 일찍 **자게 했어요.** (x)
 제가 할아버지를 일찍 **주무시게 했어요.** (o)
 아버지께서 할아버지를 일찍 **주무시게 했어요.** (x)
 아버지께서 할아버지를 일찍 **주무시게 하셨습니다.** (o)

[제약 정보]

① 과거는 '하다'에 '-었/았-'을 붙여 쓴다. '-게' 앞에 '-었/았-'를 붙이지 않는다.

- 예)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책을 **가져왔게 하세요.** (x)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책을 **가져왔게 하셨습니다.** (x)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책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o)

[확장]

- ① 대상이 동작을 하도록 주어가 직접적으로 행동하거나 간접적으로 행동한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지만 주로 간접적으로 시킨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예)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책을 **보게** 해요. (간접적)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공부하게** 해요. (간접적)
 엄마가 아이들이 나가지 **못하게** 해요. (직접적/ 간접적)
 엄마가 아이들을 싸우지 **못하게** 해요. (직접적/ 간접적)

- ② '사동사+-게 하다'의 형태로 쓰여 이중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예) 할머니께서 내가 동생에게 약을 **먹이게** 했다.
 선생님께서 반장한테 시험 날짜를 **알리게** 하셨습니다.
 왕밍이 미도리에게 줄리아를 **깨우게** 했어요.

- ③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 '는', '도', '만' 등을 '-게'와 함께 쓸 수 있다.

예) 비가 와도 창문을 **열게는** 해 주세요.
 아이를 충분히 **놀게도** 하고 **쉬게도** 하세요.
 아이가 **먹게만** 하지 말고 치우는 것을 **돕게도** 하세요.

- ④ '-게 하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게끔 하다'를 사용하기도 한다.

예) 화면을 멀리서도 **보게** 해 주세요.
 = 화면을 멀리서도 **보게끔** 해 주세요.
 줄리지 **않게** 해 주세요.
 = 줄리지 **않게끔** 해 주세요.

- ⑤ 주체가 대상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허락한다는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예) 선생님, 화장실에 **다녀오게** 해 주세요.
 우리 엄마는 밤 12시까지 텔레비전을 **보게** 하신다.
 줄리아 씨가 왕밍 씨가 휴대폰을 빌려 **쓰게** 해 줬어요.

+ 허락의 의미를 강조하여 나타내기 위해 '-어 주다'와 결합하여 '-게 해 주다'의 구성으로 자주 사용된다.

- ⑥ 대상이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대상이 운영되거나 움직이게 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예) 시간이 늦었지만 교수님께서 토론이 계속 **진행되게** 하셨습니다.
 왕밍이 라디오가 다시 **켜지게** 했다.

[유사 문법]

- ① '-게 하다1)', '-게 만들다'

-게 하다1)	-게 만들다
---------	--------

<p>· 어떤 일을 시킴을 나타낸다. 예) 아이에게 교실을 청소하게 했다. 아이에게 교실을 청소하게 만들었다.</p>	
<p>· 어떤 일이 행해지도록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 예) 아이가 김치를 먹게 했어요. (아이가 김치를 먹도록 시킴)</p>	<p>· 어떠한 상황이 되도록 조장했다는 의미가 보다 강하다. 예) 아이가 김치를 먹게 만들었어요. (아이가 김치를 먹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먹도록 만듦)</p>
<p>· 허용의 의미로 사용된다. 예) TV를 보게 해 주세요. (o) 오늘 친구랑 늦게까지 놀게 해 주세요. (o)</p>	<p>· 허용의 의미로 사용되면 어색하다. 예) TV를 보게 만들어 주세요. (?) 오늘 친구랑 늦게까지 놀게 만들어 주세요. (?)</p>

+ '-게 하다'는 간접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지시했다는 의미이며 '-게 만들다'는 '만들다'의 어휘적인 영향으로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상황을 이끌었다는 의미가 강하게 나타난다.

② '-게 하다1)', '-도록 하다'

-게 하다1)	-도록 하다
<p>· 어떤 일을 시키거나 허락함을 나타낸다. 예) 엄마가 언니를 일찍 일어나게 하셨다. 엄마가 언니를 일찍 일어나도록 하셨다.</p>	
<p>· 청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직접 시키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예) 식사 후에 아이스크림을 먹게 해라. (청자가 다른 누군가에게 식사 후 아이스크림을 먹게 해야 함)</p>	<p>· 청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직접 시키는 경우에도 사용한다. 예) 식사 후에 아이스크림을 먹도록 해라. (청자 스스로가 식사 후에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함)</p>
<p>· 화자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하겠다는 의지의 의미로는 사용할 수 없다. 예) 식사 후에 아이스크림을 먹게 하겠습니다. (화자는 다른 누군가에게 식사 후 아이스크림을 먹게 해야 함)</p>	<p>· 화자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하겠다는 의지로 사용할 수 있다. 예) 식사 후에 아이스크림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스스로가 식사 후에 아이스크림을 먹겠다고 결심함)</p>

+ '-게 하다1)은 동사와 결합하고, '-게 하다2)는 형용사와 결합하여 '-게 하다'는 동사 및 형용사 모두와 결합하는 꼴이 되지만 '-도록 하다'는 동사와만 결합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을 보인다.

③ '-게 하다1)', '-이-, -히-, -리-, -기-, -우-, -구-, -추-'

-게 하다1)	-이-, -히-, -리-, -기-, -우-, -구-, -추-
<p>· 어떤 일을 시킴을 나타낸다. 예) 아이를 일찍 자게 했다. 아이를 일찍 재웠다.</p>	
<p>· 대상이 행동을 하도록 주어는 간접적으로 지시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예)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해요. (아이가 옷을 입음/ 엄마가 시킴) 아빠가 아이에게 책을 읽게 해요. (아이가 책을 읽음/ 아빠가 시킴)</p>	<p>· 주로 주어가 직접 행동하여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예)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혀요. (엄마가 옷을 입힘/ 엄마가 행동함) 아빠가 아이에게 책을 읽혀요. (아이가 책을 읽음/ 아빠가 시킴)</p>
<p>· '-게 하다'는 모든 동사와 결합하여 사동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p>	<p>· 일부 동사(아래)에서만 가능하다.⁵⁾</p>

+ 동사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읽히다', '읽게 하다'와 같이 둘 다 간접적으로 시키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让', '叫', '令'

예) 선생님, 학생들에게 한국 드라마를 **보게 하세요**. - 老师, 让学生们看韩剧吧!
 직원들이 제시간에 **출근하게 하세요**. - 叫职员们按时上班!
 제가 남자친구를 **화나게 했어요**. - 我令男朋友生气了.
 영화관에서는 휴대폰이 울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 电影院里别让手机铃声响.

② 용법과 오류

- 부정문은 '-게 하지 않다, '안 -게 하다'로 쓰는데 중국어의 부정 표현 '不', '别'는 '让', '叫', '令', '使'의 앞에 오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엄마가 아이에게 만화책을 **읽게 안 해요**. (x) - 妈妈不让孩子们读漫画书.
 아이들이 **못 게임하게 하세요**. (x) - 别让孩子们玩游戏!
 학생들이 일찍 **자게 못하게 하는군요**. (x) - 不让学生们睡得早啊!

- '게 하다'의 과거 표현으로 '하다'에 '-었/았-'을 붙여 쓰는데 중국어에서는 과거를 나타내는 '了'가 동사 뒤에 오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학생들을 먼저 **돌아갔게 해요**. (x) - 让学生们先回去了.
 학생들을 먼저 **돌아갔게 했어요**. (x) - 让学生们先回去了.

- 시킴을 나타내는 '-게 하다', '-시키-', '-이-'와 같은 표현들을 혼동한 오류가 나타난다.

5) 사동사로는 끓이다, 먹이다, 보이다, 불이다, 속이다, 높이다, 눕히다, 앉히다, 읽히다, 입히다, 더럽히다, 날리다, 돌리다, 말리다, 알리다, 울리다, 얼리다, 감기다, 남기다, 맡기다, 씻기다, 신기다, 웃기다, 깨우다, 비우다, 세우다, 띄우다, 재우다, 태우다, 돌우다, 맞추다, 낮추다, 늦추다, 일구다 등이 있다.

예) 좋은 곳에서 살리고 싶다. (x) ('살게 하고 싶다'로 써야 하는 경우)
 그에게 일을 시키게 한다. (x) ('일을 하게 한다'로 써야 하는 경우)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혀 해요. (x) ('옷을 입게 해요'로 써야 하는 경우)
 그에게 일을 하게 안 한다. (x) ('일을 시키지 않는다'로 써야 하는 경우)

-게 하다2): (형용사에 붙어) 어떤 사물이 어떤 상태가 되도록 만듦을 나타낸다.

[예문]

<p>담화 예문</p>	<p>가: 흐엉 씨, 왜 울고 있어요? 나: 이 영화가 저를 슬프게 해요. 가: 무슨 내용인데요? 나: 전쟁이 나서 가족과 헤어지는 내용이에요.</p> <p>가: 선생님 내일 면접시험을 봐요. 가: 그래요? 평소대로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준비를 많이 못 해서 긴장이 돼요. 가: 긴장하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하세요.</p>
<p>문장 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에서 시끄럽게 하면 안 됩니다. · 비가 공기를 깨끗하게 해요. · 잠을 잘 때에는 방을 어둡게 하세요. · 이별이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 운동은 저를 건강하게 합니다. · 맛있는 냄새가 우리를 더 배고프게 해요. · 요리는 맛있게 하는 게 중요해요. · 더워서 머리를 짧게 했어요. · 바람이 날씨를 더 춥게 해요. · 전화를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 '-게 하다2)'는 '-게 하다1)'과 달리 형용사와 결합하므로 시킨다는 의미와 호응될 수가 없다. 따라서 어떠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의미로 사용되므로 '머리가 아파서 소리를 작게 했어요'는 주어인 내가 텔레비전의 소리를 작게 만들었다는 의미이며, '이 책이 저를 슬프게 해요'는 주어인 책으로 인해 내가 슬픈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이다.

[도입]

<p>(1)</p> <p>교사: (작은 목소리로) 여러분, 제 목소리가 잘 들려요? 학생: 아니요, 잘 안 들려요. 교사: (작은 목소리로) 목소리를 어떻게 할까요? 학생: 크게요.</p>
--

교사: (큰 목소리로) 목소리를 크게 만들어요. 목소리를 **크게 해요**. (작은 목소리로) 목소리를 작게 만들어요. 목소리를 **작게 해요**. '-게 하다'는 어떻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2)

교사: 미도리 씨는 언제 기분이 좋아요?

학생: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기분이 좋아요.

교사: 맛있는 음식이 미도리 씨 기분을 좋게 만들어요. 맛있는 음식이 미도리 씨 기분을 **좋게 해요**. 저는 쇼핑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쇼핑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요. 쇼핑이 기분을 **좋게 해요**.

+ 도입(1)과 도입(2)를 통해 '-게 하다2'가 형용사와 결합하여 어떤 상태 및 상황이 되도록 만든다는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도입(1)은 교사가 주어가 되어 교실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의미를 설명하며, 도입(2)에서는 '기분을 좋거나 나쁘게 만드는 것'에 해당하는 행위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게 하다2'의 의미를 설명한다.

[형태 정보]

앞의 '-게 하다1'을 참고하되, 형용사와만 결합하므로 이에 주의한다.

[문장 구성 정보]

① 'N1+이 N2+이/을 V+-게 하다'의 유형으로 사용한다.

예) 엄마는 아이를 **행복하게 한다**.
이 음악이 나를 **슬프게 한다**.
오늘 날씨가 기분을 **우울하게 한다**.

② 부정문은 '-게 하지 않다', '안 -게 하다'로 쓴다. '안 -게 하다'는 주로 구어에서 사용한다.

예) 돈이 저를 **행복하게 안 해요**. (x)
돈이 저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o)
돈이 저를 **안 행복하게 해요**. (o)

③ 과거는 '하다'에 '-었/았-'을 붙여 쓴다. '-게' 앞에 '-었-'를 붙이지 않는다.

예) 클래식 음악이 마음을 **편했게 해요**. (x)
클래식 음악이 마음을 **편했게 했어요**. (x)
클래식 음악이 마음을 **편하게 했어요**. (o)

[확장]

①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 '는', '도', '만' 등을 '-게'와 함께 쓸 수 있다.

예) 하이힐은 다리를 **예쁘게는 하지만 건강하게는 하지 못해요**.
아이는 부모를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합니다**.

동생은 나를 **귀찮게만** 해요.

② '-게 하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게끔 하다'를 사용하기도 한다.

예) 휴대폰은 우리의 생활을 매우 **편리하게** 해 줍니다.

= 휴대폰은 우리의 생활을 매우 **편리하게끔** 해 줍니다.

이 영화가 나를 더 **슬프게** 한다.

= 이 영화가 나를 더 **슬프게끔** 한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使', '让', '叫', '令'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건강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健康使我们幸福.

이별이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离别让我心痛.

아름다운 야경이 저를 **황홀하게** 했어요. -美丽的夜景叫我迷住了.

맛있는 냄새가 우리를 더 **배고프게** 해요. -香味儿让我们更饿.

더워서 머리를 **짧게** 했어요. -因为热, 剪短了头发.

이렇게 전화를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这么晚打电话打扰实在是抱歉.

- 부정문은 '-게 하지 않다', '안 -게 하다'로 쓰는데 부정문으로 대응하는 중국어는 '没' 뿐만 아니라 '不能'도 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건강은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x) -健康不能使我们幸福.

이별이 제 가슴을 **아프지 못하게** 합니다. (x) -离别不能让我心痛.

3.6.2. '-고 나다'

-고 나다[표현] 어떤 행위를 끝냄을 나타내는 표현.

-고 나다: (동사에 붙어) 앞 절의 행위를 끝내고 뒤 절의 행위를 하거나 어떤 상황이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주로 '-고 나서, -고 나니, -고 나면' 등과 같은 형태로 문장에서 사용된다.

[예문]

담화 예문	<p>가: 왕밍 씨, 중국에 언제 돌아갈 거예요?</p> <p>나: 한국어를 다 배우고 나서 돌아갈 거예요.</p> <p>가: 한국어를 다 배우는 데 얼마나 걸려요?</p> <p>나: 제 목표는 2년 안에 한국어를 배우는 거예요.</p> <p>가: 수지 씨, 도서관에 언제 갈 거예요?</p>
-------	--

	<p>나: 선생님을 만나고 난 뒤에 갈 거예요.</p> <p>가: 그럼 저 먼저 가 있을게요. 선생님 만나고 오세요.</p> <p>나: 선생님을 만나고 나면 너무 늦어서 도서관에 못 갈 것 같아요.</p>
문장 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를 놓고 나니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먼저 영화를 보고 나서 쇼핑을 합니다. · 흐영 씨도 이 책을 읽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 몇 시간동안 노래를 부르고 나니 배가 고파요. · 수업이 끝나고 나서 놀러가자. · 낮잠을 자고 나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고 나면 대출이 가능해질 거예요. · 한국에 대해 알고 나면 한국어를 더 좋아하게 될 거예요. · 버스에서 내리고 나서 지갑을 잃어버린 걸 알았어요. ·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건강의 소중함을 알겠습니다.

+ '-고 나다'는 연결어미 '-어서', '-으면', '-으니' 등과 결합하여 '-고 나서', '-고 나면', '-고 나니'의 형태로 쓰인다. '-고 나서'는 '먼저 영화를 보고 나서 쇼핑을 합니다', '한국어를 다 배우고 나서 돌아갈 거예요'로, '-고 나면'은 '커피를 마시고 나면 관찮을 거예요', '이 책을 읽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로, '-고 나니'는 '노래를 부르고 나니 배가 고파요', '낮잠을 자고 나니 기분이 좋아졌어요'와 같이 사용하여 앞 절의 행위가 끝나고 뒤 절의 내용이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도입]

<p>(1)</p> <p>교사: 여러분, 왕밍 씨는 지금 수업을 들어요.</p> <p>왕밍 씨, 수업을 들은 후에 뭘 할 거예요?</p> <p>학생: 밥을 먹을 거예요.</p> <p>교사: 왕밍 씨는 수업을 들은 후에 밥을 먹을 거예요. 수업을 들고 나서 밥을 먹을 거예요. 줄리아 씨는 수업 후에 뭘 할 거예요?</p> <p>학생: 저는 도서관에 갈 거예요.</p> <p>교사: 줄리아 씨는 수업 후에 도서관에 갈 거예요. 수업을 들고 나서 도서관에 갈 거예요. '-고 나서'는 '어떤 일이 끝났어요. 그 후에 또 다른 일을 할 때 써요.</p> <p>(2)</p> <p>교사: 저는 아침에 밥을 먹어요. 그리고 이를 닦아요. 흐영 씨도 밥을 먹은 후에 이를 닦아요?</p> <p>학생: 아니요. 저는 이를 닦은 후에 밥을 먹어요.</p> <p>교사: 흐영 씨는 이를 닦고 나서 밥을 먹어요. 저는 밥을 먼저 먹어요. 그 다음에 이를 닦아요. 밥을 먹고 나서 이를 닦아요.</p>
--

- + 도입(1)은 '-고 나다'가 앞 절의 행위를 마친 후에 뒤 절의 행위를 한다는 순차적 의미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방법이다. 교사가 수업을 듣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물어본 후 뒤 절을 '-고 나다'로 연결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앞 절의 행위를 끝낸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초급에서 학습한 '수업을 들은 후에', '수업 후에'를 사용한다.
- + 도입(2)에서는 문장카드를 보여 주거나 이에 맞는 그림카드를 활용하여 일을 마치는 순서대로 문장을 만들어 가시적으로 보여 줄 수도 있다.

밥을 먹어요 ⇒ 이를 닦아요 ⇒ 옷을 입어요 ⇒ 신문을 봐요
<p>저는 밥을 먹고 나서 이를 닦아요.</p> <p>이를 닦고 나서 옷을 입어요.</p> <p>옷을 입고 나서 신문을 봐요.</p>

[형태 정보]

- ① 동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고 나다'를 쓴다.

예)	찾-	+ -고 나다	→	찾고 나다		앉-	+ -고 나다	→	앉고 나다
	만들-	+ -고 나다	→	만들고 나다		보-	+ -고 나다	→	보고 나다
	가-	+ -고 나다	→	가고 나다		사-	+ -고 나다	→	사고 나다

①	받침 o	+ -고 나다	찾고 나다, 앉고 나다, 만들고 나다
	받침 x	+ -고 나다	보고 나다, 가고 나다, 사고 나다

- + '-고 나다'는 동사와 결합하고, 어떤 동사가 와도 형태가 변하지 않음을 주의한다.

[문장 구성 정보]

- ① 항상 연결어미와만 결합하여 문장을 구성하므로 종결어미가 붙을 수 없다. 주로 '-고 나서', '-고 나면', '-고 난 뒤/후', '-고 나니' 등의 구성으로 사용한다.

예)	공부를 하고 났어요. (x)
	그와 헤어지고 났어요. (x)
	먼저 일을 마치고 나세요. (x)
	기차에 타고 나서 잠이 들었다. (o)
	기차에 타고 나면 밥을 먹을 거예요. (o)
	기차에 타고 난 뒤 화장실에 갔다. (o)
	기차에 타고 나니 배가 고팠다. (o)

- + '-고 나다'와 결합한 연결어미인 '-어서', '-으면', '-은 뒤/후', '-으니' 각각의 의미를 고려하여 뒤 절의 내용을 구성해야 함에 유의한다.

- ② 높임 표현 '-시-'와 결합한다. '-시-'는 '-고'와 결합한다.

예)	아버지께서 뉴스를 들으시고 나서 출근을 하십니다. (o)
----	--

아버지께서 뉴스를 **듣고 나서서** 출근을 하십니다. (x)
 사장님께서 **출근하시고 나면** 회의를 할 거예요. (o)
 사장님께서 **출근하고 나시면** 회의를 할 거예요. (x)

[제약 정보]

① 형용사와는 결합하지 않는다.

예) 날씨가 **춥고 나니** 겨울이 될 거예요. (x)
슬프고 나니 기쁘다. (x)

교실이 **더럽고 나니** 청소를 했어요. (x)

+ 형용사에 '-어지다'가 붙으면 결합이 가능하다.

② 과거를 나타내는 '-었/았-'과 결합하지 않고, 미래·추측을 나타내는 '-겠-'과도 결합하지 않는다.

예) 드라마를 **봤고 나서** 식사를 했어요. (x)
 드라마를 **보고 났어서** 식사를 했어요. (x)
 드라마를 **보고 나서** 식사를 했어요. (o)
 드라마를 **보겠고 나서** 식사를 하겠어요. (x)
 드라마를 **보고 나겠어서** 식사를 하겠어요. (x)

드라마를 **보고 나서** 식사를 하겠어요. (o)

+ '-고 나다'는 어떤 행위의 완료라는 의미가 이미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시제를 나타내는 형태와 결합하면 어색해진다.

[확장]

① '-고 나서'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가 붙어 '-고 나서야', '-고 나서부터', '-고 나서까지'로 사용하기도 한다.

예) 그와 **헤어지고 나서야** 행복할 수 있었다.

그와 **헤어지고 나서부터** 불행해졌다.

그와 **헤어지고 나서까지** 그의 생일을 기억하다니

+ 보조사가 결합하면 앞선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을 강조하게 된다.

[유사 문법]

① '-고 나다', '-고 보다'

-고 나다	-고 보다
· 어떤 일을 끝냈음을 나타낸다. '-으니, -으면'의 구성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 쇼핑을 하고 나니 기분이 좋아졌다.(o)	
쇼핑을 하고 보니 기분이 좋아졌다.(o)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o)	
그 사람을 만나고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o)	
· 뒤 절에 행위가 일어난 후에 순차적으로	· 뒤 절에 행위가 일어난 후에 새삼 깨닫게

<p>알게 되거나 행하게 되는 내용이 온다. 예) 정신없이 공부를 하고 나니 저녁이 되었다. 부모님을 떠나고 나니 비로소 어른이 될 수 있었다.</p>	<p>된 내용이 온다. 예) 정신없이 밥을 먹고 보니 다이어트 중임을 깨달았다. 부모님을 떠나고 보니 부모님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p>
<p>· 뒤 절 없이 사용할 수 없다. 예) 먼저 약속을 잡고 나자. (x)</p>	<p>· 뒤 절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예) 먼저 약속을 잡고 보자. (o)</p>
<p>· '-어서'의 구성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 낮잠을 자고 나서 일을 합시다. (o)</p>	<p>· '-어서'의 구성으로 사용될 수 없다. 예) 낮잠을 자고 봐서 일을 합시다. (x)</p>

+ '-고 나다'는 종결형으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데 비해 '-고 보다'는 종결형으로 사용되기도 함에 주의해야 한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后', '之后', '完', '了'

- 예) 밥을 **먹고 나서** 약을 드세요. - 饭后服用药.
 잠을 **자고 나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 睡了一觉之后, 心情好多了.
 상편을 읽고 **나니** 하편이 읽고 싶어졌다. - 读完上篇, 还想读下篇.
 이 책을 읽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 读了这本书, 想法会改变的.

② 용법과 오류

- '-고 나다'는 '-고 나서', '-고 나면', '-고 나니'의 다양한 결합 형태로 쓰이지만 중국어에서는 모두 '后', '之后'로 대응되므로 이것들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 예) 도서관에서 책을 찾고 나니 수지 씨를 만났어요. (x)
 ('찾고 나서'로 표현해야 할 경우)
 수업이 끝나고 나니 놀러가자. (x)
 ('끝나고 나면'으로 표현해야 할 경우)
 낮잠을 자고 나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x)
 ('자고 나니'로 표현해야 할 경우)

- '-고 나다'는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지만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은 이런 제약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 예) 날씨가 춥고 나니 봄이 될 거예요. (x) - 一阵寒冷后, 春天会到来的. (o)
 슬프고 나니 다시 기분이 좋아진다. (x) - 伤心过后, 心情变好了. (o)
 교실이 더럽고 나니 청소를 시작했어요. (x) - 教室脏了, 才开始打扫卫生. (o)

- 과거를 나타내는 '-었-'이나 미래 추측을 나타내는 '-겠-'과 결합하지 않지만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은 이런 제약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 예) 시험이 끝났고 나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x) - 考完试了, 心情变好了. (o)

시험이 끝나고 났어서 영화를 봤어요. (x) - 考完试后, 看了电影. (o)
 먼저 음악을 들겠고 나서 책을 읽을 거예요. (x) - 先听音乐后, 要读书的. (o)
 먼저 음악을 듣고 나겠어서 책을 읽을 거예요. (x) - 先要听音乐, 之后要读书的. (o)

3.6.3. ‘-고 말다’

-고 말다[표현] 어떤 일이 결국 일어났거나 어떤 일을 어렵게 이루어 냄을 나타내는 표현.

-고 말다: (동사에 붙어) 어떤 일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일어났음을 나타내며, 기대와 다르게 일이 진행되어 안타깝거나 만족스러운 느낌, 어떤 일을 힘들게 이루어 냈다는 의미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 예문	가: 왕밍 씨, 여자 친구와 잘 지내요? 나: 아니요, 여자 친구와 헤어지고 말았어요 . 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나: 성격이 서로 달라서 자주 싸웠거든요. 가: 어제 몇 시까지 공부했어요? 나: 어제 피곤해서 일찍 잤어요. 가: 저도 어제 너무 피곤해서 9시에 자고 말았어요 . 나: 우리 오늘부터는 시험공부를 열심히 합시다.
문장 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물 받은 화분의 꽃이 결국 죽고 말았어요. · 그 가방이 너무 예뻐서 결국 사고 말았어요. · 술을 마시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술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 제가 처음으로 김치를 만들고 말았어요. · 부모님께서 결국 이혼하고 말았어요. · 동생이랑 또 싸우고 말았어요. · 결국 이 일을 다 해 내고 말았어요. · 우리나라 축구팀이 계속 지다가 마지막에 결국 이기고 말았어요. · 늦게 일어나서 지각을 하고 말았어요. · 할아버지께서 병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돌아가시고 마셨습니다.

+ 일을 끝냈다는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는 ‘-고 말다’는 주로 과거를 나타내는 ‘-았-’이 붙어 ‘-고 말았다’의 형태로 쓴다. ‘여자 친구와 헤어지고 말았어요’, ‘너무 피곤해서 9시에 자고 말았어요’, ‘꽃이 결국 죽고 말았어요’ 등은 기대와 다르게 일이 진행되어 안타깝거나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해 ‘(문제를) 결국 풀고 말았어요’, ‘우리나라 축구팀이 계속 지다가 마지막에 결국 이기고 말았어요’ 등은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이루어 만족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고 말다’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일을 마무리하는 완료의 의미를 지니지만,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 그것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가 결정되는 것에 주의한다.

[도입]

(1)

교사: 여러분, 어제 저녁에 뭘 먹었어요?

학생1: 불고기를 먹었어요.

학생2: 피자를 먹었어요. 선생님은요?

교사: 저는 다이어트 중이에요. 그런데 배가 고파서 저녁 늦게 라면을 2개나 먹었어요. 안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계속 참았어요. 그렇지만 결국 먹었어요. 결국 라면을 **먹고 말았어요**.

(2)

교사: (실망한 표정을 한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은 너무 슬퍼요. 왜 그럴까요?

학생1: 여자친구와 헤어졌어요.

학생2: 시험을 못 봤어요.

교사: 네, 맞아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이 사람은 고급 시험에 합격하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생: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요.

교사: 그래서 이 사람은 시험에 합격하려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잠도 잘 자지 않고 놀지도 않고 공부만 했어요.

(행복한 표정을 한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래서 결국 시험에 합격했어요. 시험에 **합격하고 말았어요**.

- + 도입(1)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결국 하게 되어 안타까워하는 상황에서 '-고 말다'가 사용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상황 외에도 수업시간에 자면 안 되는 상황임을 설명해 주고, 그러함에도 너무 졸려서 결국 자게 되는 상황을 제시할 수도 있다.
- + 도입(2)는 어렵거나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어떤 일을 성취하여 만족스러워하는 상황에서 '-고 말다'가 사용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어려운 상황과 그것을 극복해낸 결과를 그림 카드를 이용하여 보여주면 보다 효과적으로 의미를 제시할 수 있다.

[형태 정보]

- ① 동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고 말다'를 쓴다.

예) 찾- + -고 말다 → 찾고 말다
 먹- + -고 말다 → 먹고 말다
 가- + -고 말다 → 가고 말다
 사- + -고 말다 → 사고 말다

읽- + -고 말다 → 읽고 말다
 받- + -고 말다 → 받고 말다
 공부하- + -고 말다 → 공부하고 말다
 자- + -고 말다 → 자고 말다

①	받침 o	+ -고 말다	찾고 말다, 읽고 말다, 먹고 말다, 받고 말다
	받침 ×	+ -고 말다	가고 말다, 공부하고 말다, 사고 말다, 자고 말다

+ '-고 말다'는 동사와 결합하고, 어떤 동사가 와도 형태가 변하지 않음을 주의한다.

[제약 정보]

①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 예) 저는 **예쁘고 말았어요.** (x)
 기분이 **좋고 말아요.** (x)
 그와 헤어져서 **슬프고 말아요.** (x)

+ 형용사에 '-어지다'가 붙으면 결합이 가능하다.

② 과거의 '-었-'과 미래·추측의 '-겠-'은 '말다'에 붙여 쓴다. '-고' 앞에 붙이지 않는다.

- 예) 약속을 **어겼고 말아요.** (x) 약속을 **지키겠고 말아요.** (x)
 약속을 **어겼고 말았어요.** (x) 약속을 **지키겠고 말겠어요.** (x)
 약속을 **어기고 말았어요.** (o) 약속을 **지키고 말겠어요.** (o)

[문장 구성 정보]

① '결국, 끝내, 마침내'와 자주 결합하여 사용된다.

- 예) 아버지께서는 결국 암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어머니의 집을 끝내 **뺏기고 말았어요.**
 헤어진 가족들은 통일이 되어서 마침내 **만나고 말았어요.**

+ 끝을 의미하는 표현과 어떤 일의 결과를 의미하는 '-고 말다'의 의미가 유사하여 끝이라는 의미를 더욱 강하게 나타내게 된다.

[확장]

① 의지를 나타내는 '-겠-'이 붙으면 어떤 일을 이루려는 주어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다.

- 예) 내년에는 한국어 시험 4급에 **합격하고 말겠어요.**
 이번 게임에서는 반드시 **이기고 말겠다.**
 오늘 이 책을 다 **읽고 말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새벽에 **일어나고 말겠다.**

+ '-고 말다'의 원래 의미는 '어떤 일을 이루다'는 뜻이므로 의지의 '-겠-'이 붙으면 어떤 일을 이루겠다는 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고 말았다'는 어떤 일이 일어나서 안타깝거나 어떤 일을 이루어서 만족스럽다는 의미로, '-고 말겠다'는 어떤 일을 이루려는 의지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 '-고 말겠다'가 의지를 나타낼 때에는 말하는 사람이 주어가 되어야 한다.

- 예) 저는 한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말겠어요.** (o)

앤디 씨도 한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말겠어요.** (x)

나는 이번 게임에서 반드시 **이기고 말겠다.** (o)

너는 이번 게임에서 반드시 **이기고 말겠다.** (x)

+ '반드시, 꼭' 등의 부사와 자주 결합하여 사용된다.

예) 저는 반드시 세계일주를 **하고 말겠어요.** (o)

저는 이번 방학에 수업을 꼭 **배우고 말겠어요.** (x)

② 조사 '야'와 결합하여 강조의 뜻을 더해 준다.

예) 영수는 의사가 되겠다던 꿈을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나는 내 딸을 **만나고야 말겠어요.**

[유사 문법]

① '-고 말다', '-어 버리다'

-고 말다	-어 버리다
-------	--------

·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나타낸다.

<p>· 말하는 사람의 능력과 무관하게 어떤 일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다.</p> <p>예)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겠어. 나는 여름방학 동안 살을 빼고 말겠어.</p>	<p>· 어떤 일을 이루겠다는 자신감과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암시한다.</p> <p>예)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겠어. 나는 여름방학 동안 살을 빼 버리겠어.</p>
<p>· 주로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낸다.</p> <p>예) 결국 오늘도 지각을 하고 말았다. 살을 빼야 하는데 과식을 하고 말았다.</p>	<p>· 귀찮은 일을 끝내어 부담을 덜었음을 나타낸다.</p> <p>예) 김장을 끝내 버렸더니 마음이 편해요. 시험을 봐 버리니 속이 시원해요.</p>

+ '-고 말다'와 '-어 버리다'는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나타내지만 일이 일어난 사실 자체에 중점을 두지 않고 일로 인하여 발생한 상황과 이에서 파생되는 감정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终于', '最终', '结果', '一定要'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그는 끝내 떠나고 **말았다.** - 他终于离开了.

결국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 最终失去了机会.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말았다.** - 结果什么也没得到.

나는 반드시 성공하고야 **말겠다.** - 我一定要成功.

지금까지 미뤄온 일을 오늘 끝내고 **마시다.** - 这件事拖延到现在, 今天把它干完吧.

② 용법과 오류

'-고 말다'는 동사와만 결합하는 제약이 있으나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에는 이런 제약이 없

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친구의 소식을 듣고 슬프고 말았어요. (x) ('슬퍼지고 말았다'로 표현해야 할 경우)
성형 수술까지 받았더니 더 예쁘고 말았다. (x) ('예뻐지고 말았다'로 표현해야 할 경우)
고급 부품을 넣다보니 가격이 높고 말았어요. (x) ('높아지고 말았다'로 표현해야 할 경우)

- '-고 말겠다'가 말하는 사람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면서 1인칭이 주어가 되어야 하는 제약이 있지만 중국어의 '一定要'는 이런 제약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너는 꼭 성공하고야 말겠다. (x) - 你一定要成功. (o)
왕밍은 이번 시험에서 반드시 합격하고 말겠다. (x) - 王明一定要考过这次考试. (o)
누군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말겠다. (x) - 不管是谁一定要对这件事负责任. (o)

- 중국어의 '终于', '最终', '结果', '一定要'는 '-고 말다'와 자주 결합하여 사용되는 '결국, 끝내, 마침내' 그리고 '반드시, 꼭' 등의 의미도 포함하는데 이것은 학습자들이 '-고 말다'를 회피하는 오류로 나타난다.

예) 부모님을 결국 이혼하셨다. (?) ('결국 이혼하시고 말았다'로 표현해야 할 경우)
끝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 ('끝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말았다'로 표현해야 할 경우)
나는 꼭 성공하겠다. (?) ('꼭 성공하고 말겠다'로 표현해야 할 경우)

3.6.4. '-고 보다'

-고 보다[표현]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고 남을 나타내는 표현.

-고 보다: (동사에 붙어) 1) '-고 보자/봅시다' 등의 구성으로 쓰여 앞으로의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어떤 일을 먼저 할 것을 제안함을 나타낸다.

2) '-고 보니, -고 보면'의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한 후 뒤의 내용을 받아들이거나 새롭게 깨닫게 됨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 예문	가: 시험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걱정이야. 나: 밤을 새워 공부하면 다 할 수 있을 거야. 가: 아니야, 밤을 새워도 다 못 할 것 같아. 어찌지? 나: 걱정만 하지 말고 일단 공부를 시작하고 보자 .
	가: 왕밍 씨, 여자 친구 있어요? 나: 아니요, 그런데 그건 왜 물어요? 가: 제 친구 한 명 만나볼래요? 나: 글썄요, 여자 친구 사귀어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서요.

	가: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 보세요. 만나고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문장 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고픈데 일단 밥부터 먹고 봅시다. · 늦었으니까 우선 영화표부터 사고 보자. · 회사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병부터 낫고 봐야지. · 듣고 보니 네 말이 맞는 말 같아. · 알고 보니 왕밍 씨와 제가 같은 고향 사람이었어요. · 도서관에 도착하고 보니 휴관일이었다. · 물건을 사고 보니 고장 나 있었어요. · 시험을 끝내고 보면 그 동안 연습한 결과에 대해 알 수 있을 거예요. · 아이를 놓고 보면 부모의 마음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하고 사람부터 살리고 봅시다.

+ ‘-고 보다’는 어떤 행위를 우선 한 뒤에 그 다음 일을 생각하거나 그와 관련된 결과를 알게 되거나 함을 의미한다. 종결형에 사용될 때는 주로 ‘-고 보자, -고 봅시다’ 구성으로 사용되는데 ‘배고픈데 일단 먹고 봅시다’는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먼저 먹고 그 다음 일을 생각하자는 의미이고, ‘늦었으니까 우선 영화표부터 사고 보자’는 시간이 없으니 영화표를 먼저 사고 그 다음 일을 생각하자는 의미이다. ‘-고 보니, -고 보면’처럼 연결형으로 사용될 때는 앞의 일을 하고 난 후 뒤의 일을 알게 됨을 의미하는데, ‘듣고 보니 네 말이 맞는 말 같아’는 그 전에는 몰랐는데 상대방의 말을 들은 후에 상대방의 말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의미이다. ‘아이를 놓고 보면 부모의 마음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아이를 낳은 후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도입]

(1)
교사: 여러분,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학생1: 1년이에요.
학생2: 6개월이에요.
교사: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기억나요?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한국어를 얼마나 잘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때와 비교해서 한국에 대해 많이 알게 됐는지 생각해 보세요. 한국어 공부를 했더니 한국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됐나요?
학생: 네,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어요.
교사: 그래요.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한국어를 공부하고 보니 한국에 대해서 잘 알게 됐어요. 앞으로 한국어 1년 더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 거예요. 앞으로 한국어를 1년 더 공부하고 보면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 거예요.
(2)

교사: (컵에 든 음료를 마신 후, 깜짝 놀라며) 물인 줄 알고 마셨는데 물이 아니네요.

학생: 그럼 뭐예요?

교사: 물인 줄 알고 마셨어요. 마신 후에 알게 됐어요. 물이 아니라 주스였어요. **마시고 보니** 주스였어요.

(3)

교사: 여러분, 배가 너무 고파요. 여러분은 괜찮아요?

학생: 저희도 배가 고파요.

교사: 그럼 수업 후에 같이 햄버거 먹으러 갈까요?

학생: 네, 좋아요.

교사: 배가 고프니까 수업 후에 햄버거를 먹으러 갑시다. 그렇지만 지금은 일단 수업을 해야 해요. 지금은 수업 시간이니까 나가서 햄버거를 먹을 수 없어요. 지금은 배가 고파도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배가 고파도 일단 수업을 **하고 봅시다**.

- + 도입(1)은 학생들의 체험을 주제로 '-고 보다'의 의미를 인지하도록 한 것이다. 한국어를 공부하면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다는 사실에 대한 경험을 물어 본다. 그 후에 -고 보니, '-고 보면' 등을 제시한다. 이 부분을 설명할 때 교사는 몸짓과 말로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 다음에 알게 됐어요', '한국에 대해 내가 잘 알고 있어요'라는 문장을 설명하여 '고 보다'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 + 도입(2)는 교사가 물을 마시며 '물 마셔야지'라고 혼잣말을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물을 마신 후,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물이 아니네요. 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셨어요. 그런데 물이 아니었어요. 주스였어요. 물을 마시고 보니 주스였어요'라고 말해 '-고 보니'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실감나게 제시해 주는 게 효과적이다.
- + 도입(3)에서는 다른 것을 하고 싶지만 지금은 그것을 당장 할 수 없는 상황을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고 봅시다'의 의미를 제시하는 방법이다.

[형태 정보]

- ① 동사 어간 끝음절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고 보다'를 쓴다.

예) 찾- + -고 보다 → 찾고 보다 읽- + -고 보다 → 읽고 보다
 먹- + -고 보다 → 먹고 보다 가- + -고 보다 → 가고 보다
 사- + -고 보다 → 사고 보다 하- + -고 보다 → 하고 보다

①	받침 o	+ -고 보다	찾고 보다, 읽고 보다, 먹고 보다
	받침 x	+ -고 보다	가고 보다, 사고 보다, 하고 보다

[문장 구성 정보]

- ① '-고 보다'의 '보다'가 '눈으로 본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므로 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예) 신문은 청소를 **하고 보세요**.

텔레비전은 식사를 **하고 보는** 게 좋다.

영화는 산책을 **하고 보자**.

- + 예문의 '보다'는 보조동사가 아니라 본동사로 사용된 예로 '-고 보다'의 '보다'와는 의미가 다르다. 위의 예문은 앞의 행위를 끝낸 후에 뒤의 '보는' 행위를 한다는 뜻으로 '-고 보다' 표현에 해당하는 문장은 아니다.

- ② 부정문 '-지 않고 보다', '안 -고 보다'의 형태로 거의 쓰지 않는다.

예) 우선 영화표를 **사지 않고 보자**. (??)

우선 영화표를 **안 사고 보자**. (??)

밥을 **먹지 않고 보니** 배가 고파요. (??)

밥을 **안 먹고 보니** 배가 고파요. (??)

- + '-고 보다'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남'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행동 자체를 부정하는 부정문으로 쓰면 어색하다.

[제약 정보]

- ① 일반적으로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지만, 다음 예처럼 형용사가 변화의 의미를 지닐 때 '-고 보다' 구성이 가능하다.

예) 날이 **차고 보니** 겉옷을 입고 오지 않은 게 후회됐다. (o)

저녁밥을 먹고 배가 **부르고 보니** 저녁 약속이 있었다는 게 생각났다. (o)

- ② 일반적으로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지만, '-고 봐야 한다' 구성으로 쓰여 주어가 형용사가 가리키는 성질을 갖는 것이 좋다는 의미로 사용될 때 형용사와 결합할 수 있다.

예) 시험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예쁘고 봐요**. (x)

여자는 **예쁘고 봐야 한다**. (o)

남자는 마음이 **넓고 봐야 한다**. (o)

요리사는 음식을 **잘하고 봐야 한다**. (o)

- ③ 과거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물부터 **마셨고 보자**. (x)

물부터 **마셨고 보니** 살 것 같았다. (x)

물부터 **마시고 봤니** 살 것 같았다. (x)

물부터 **마시겠고 보자**. (x)

물부터 **마시겠고 보니** 살 것 같다. (x)

물부터 **마시고 보겠으니** 살 것 같다. (x)

[확장]

- ① '-고 볼 일이다'의 구성으로 쓰여 어떤 일을 특히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사

용된다.

예) 수지가 그렇게 공부를 잘 하더니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좋은 남편까지 만났다네요.
그러니까 공부는 **잘하고 볼 일이에요**.

왕밍이 길에서 캐스팅이 되어 영화배우가 되었다고 해요. 사람은 왕밍처럼 **잘 생각하고 볼 일이에요**.

요즘 잠을 푹 잤더니 머리 아픈 게 다 나아서 이제는 약을 먹지 않아도 돼요. 머리가 아플 때는 잠부터 푹 **자고 볼 일인 것** 같아요.

+ 해야 할 일이라는 '볼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유사 문법]

① '-고 보다'와 '-고 나다'

-고 보다	-고 나다
-------	-------

· 어떤 일을 끝냈음을 나타낸다. '-으니, -으면'의 구성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 쇼핑을 **하고 나니** 기분이 좋아졌다. (o)

쇼핑을 **하고 보니** 기분이 좋아졌다. (o)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o)

그 사람을 **만나고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o)

· 뒤 절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예) 먼저 약속을 잡고 보자 . (o)	· 뒤 절 없이 사용할 수 없다. 예) 먼저 약속을 잡고 나자 . (x)
· '-어서'의 구성으로 사용될 수 없다. 예) 낮잠을 자고 봐서 일을 합시다. (x)	· '-어서'의 구성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 낮잠을 자고 나서 일을 합시다. (o)

+ '-고 나다'는 종결형으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데 비해 '-고 보다'는 종결형으로 사용되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先……再说', '一……' 또는 대응 표현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배고프니까 일단 **먹고 보자**. - 太饿了, 先吃了再说.

수술 효과가 어떠한지는 더 **두고 봅시다**. - 手术效果怎样, 先观察一段时间再说.

너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럴 법하구나. - 一听你的话像是那么回事.

우물을 **파고 보니** 쓴 물이었다. - 挖了口井一看, 是个苦水.

알고 보니 그는 사기 전과가 있는 자였습니다. - 一打听才知道他是有过诈骗前科的人.

스피드를 **따지고 보면** 이 선수가 최고죠. - 论速度, 当属这个选手.

수능 시험을 **끝내고 보면** 시원섭섭할 거예요. - 考完了高考, 可能苦乐参半.

② 용법과 오류

- 과거 '-었-'과 결합하지 않지만 대응하는 중국어는 과거완료 표현인 '了'가 올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배고프니까 일단 먹었고 보자. (x) - 太饿了, 先吃了再说. (o)

수능 시험을 끝냈고 보면 시원섭섭할 거예요. (x) - 考完了高考, 可能苦乐参半. (o)

늦었으니까 우선 영화표부터 샀고 보자. (x) - 太晚了, 先买了票再说. (o)

- '-고 보자'에 대응하는 중국어는 '先……再说'인데 직역하면 '다시 말하다'의 의미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를 보일 수 있다.

예) 수술 효과가 어떠한지는 더 관찰하고 다시 얘기합시다. (x) ('두고 봅시다'를 써야 할 경우)

늦었으니까 우선 영화표부터 사고 다시 얘기하자. (x) ('사고 보자'를 써야 할 경우)

배고픈데 일단 밥부터 먹고 다시 얘기합시다. (x) ('먹고 보자'를 써야 할 경우)

3.6.5. '-고 싶어 하다'

-고 싶어 하다[표현] 다른 사람의 희망을 나타내는 표현.

- 고 싶어 하다: (동사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기를 원하거나 바라는 것을 나타낸다. 주로 다른 사람의 계획이나 취향 또는 선호하는 바를 전달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 예문	<p>가: 요즘 한국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나: 정말 재밌겠어요. 가: 줄리아 씨도 같이 배우러 갈래요? 혼자 다니니까 좀 심심해서요. 나: 아니요, 저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흐영 씨가 한국 요리를 배우고 싶어 해요. 흐영 씨에게 물어보는 게 어때요? 가: 그럼, 흐영 씨에게 물어봐야겠어요.</p> <p>가: 앤디 씨, 요즘에도 왕밍 씨가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나요? 나: 네, 정말 열심히 해요. 가: 왕밍 씨는 한국어를 정말 좋아하나 봐요. 나: 네, 맞아요. 그래서 왕밍 씨는 고향에 돌아가면 한국어 교사가 되고 싶어 해요.</p>
문장 예문	<p>· 앤디 씨가 김치를 먹고 싶어 해요. · 흐영이 더 자고 싶어 해요. · 제 동생도 이 가방을 갖고 싶어 했어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더 놀고 싶어 합니다. · 손님이 이 물건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 학생들이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해요. · 왕밍은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 해요. · 선생님께서 쉬고 싶어 하세요. · 수지 씨도 명동에서 만나고 싶어 해요. · 부모님께서 저와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	--

+ ‘-고 싶어 하다’는 말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희망을 나타내므로 ‘앤디 씨가 김치를 먹고 싶어 해요’, ‘흐영이 더 자고 싶어 해요’, ‘손님이 이 물건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선생님께서 쉬고 싶어 하세요’, ‘부모님께서 저와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와 같이 희망의 주체를 밝혀 사용한다.

+ 말하는 사람의 희망을 나타내는 ‘-고 싶다’와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어에 따라 달리 사용됨을 주의한다.

[도입]

(1)

교사: (여행지 사진을 보여 주며) 왕밍 씨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어요?

학생1: 저는 제주도에 가고 싶어요.

교사: 줄리아 씨, 왕밍 씨는 제주도에 **가고 싶어 해요.** 줄리아 씨는 어디에 가고 싶어요?

학생2: 저는 경주에 가고 싶어요.

교사: 흐영 씨, 줄리아 씨는 경주에 **가고 싶어 해요.** 흐영 씨는 어디에 가고 싶어요?

학생3: 저는 부산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흐영 씨는 부산에 **가고 싶어 해요.** ‘-고 싶어 하다’는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내가 말할 때 써요.

(2)

교사: 여러분, 고향에 가면 누구를 보고 싶어요?

학생1: 저는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교사: 왕밍 씨가 말했어요. ‘저는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선생님은 이것을 듣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왕밍 씨는 부모님을 보고 싶어 해요.’

학생2: 저는 여자 친구가 보고 싶어요.

교사: 흐영 씨는 말했어요. ‘저는 여자 친구가 보고 싶어요’ 선생님이 말해요. ‘여러분, 흐영 씨는 여자 친구를 **보고 싶어 해요.**’

+ 도입(1)은 학생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게 한 후, 교사가 그 내용을 다른 학

생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고 싶어 하다’의 의미와 기능을 인식하게 하는 방식이다. 단, ‘-고 싶다’와 다르게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 알아챌 수 있도록 자신의 희망과 다른 사람의 희망을 구별하여 말하는 연습을 시키는 게 좋다. 도입(2)은 학생들이 보고 싶은 것을 물어보게 한 후에 학생들이 한 말을 그대로 다시 말해준 뒤에 그것을 교사가 다른 학생들에게 전달해 줄 때는 ‘-고 싶어 하다’를 사용하여야 함을 보다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고 싶어 하다’를 쓴다.

예) 찾- + -고 싶어 하다 → 찾고 싶어 하다 읽- + -고 싶다 → 읽고 싶어 하다
 살- + -고 싶어 하다 → 살고 싶어 하다 가- + -고 싶다 → 가고 싶어 하다
 사- + -고 싶어 하다 → 사고 싶어 하다 자- + -고 싶다 → 자고 싶어 하다

①	받침 ㅇ	+ -고 싶어 하다	찾고 싶어 하다, 읽고 싶어 하다, 살고 싶어 하다
	받침 ×	+ -고 싶어 하다	가고 싶어 하다, 사고 싶어 하다, 자고 싶어 하다

+ ‘-고 싶어 하다’는 동사와 결합하고, 어떤 동사가 와도 형태가 변하지 않음을 주의한다.

[문장 구성 정보]

① 부정문은 ‘안 -고 싶어 하다’, ‘-지 않고 싶어 하다’, ‘-고 싶어 하지 않다’로 쓴다.

예) 효영은 쇼핑을 **하고 안 싶어 해요.** (x)
 효영은 쇼핑을 **안 하고 싶어 해요.** (o)
 효영은 쇼핑을 **하지 않고 싶어 해요.** (o)
 효영은 쇼핑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o)

② 과거는 ‘-고 싶어 했다’로 쓴다. ‘-고’ 앞에 ‘-었-’을 붙이지 않는다.

예) 줄리아도 김치찌개를 **먹었고 싶어 해요.** (x)
 줄리아도 김치찌개를 **먹었고 싶어 했어요.** (x)
 줄리아도 김치찌개를 **먹고 싶어 했어요.** (o)

③ 추측의 ‘-겠-’과 함께 쓸 때, 현재나 미래 사실에 대한 추측은 ‘-고 싶어 하겠다’,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은 ‘-고 싶어 했겠다’로 쓴다.

예) 앤디 씨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겠어요.**
 앤디 씨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겠어요.**
 아이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하겠어요.**
 아이가 엄마를 **보고 싶어 했겠어요.**

+ 위 문장들은 순서대로 앤디 씨도 현재나 미래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할 거라고, 앤디 씨도 과거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을 거라고, 아이가 엄마를 현재나 미래에 보고 싶어 할 거라고, 아이가 엄마를 과거에 보고 싶어 했을 거라고 추측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제약 정보]

① 대부분의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 예) 수지는 **예쁘고 싶어 해요.** (x)
 영수는 기분이 **좋고 싶어 해요.** (x)
 왕밍 씨, **빠르고 싶어 해요?** (x)

+ 형용사에 '-어지다'가 붙으면 결합이 가능하다. 이 때 '-하다' 형태의 형용사일 경우에는 '-해지고 싶어 하다'로 쓴다.

+ '건강하다, 행복하다' 등의 일부 형용사와는 결합하기도 한다.

- 예) 누구나 **건강하고 싶어 한다.**
 사람들은 늘 **행복하고 싶어 한다.**

② 말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바람을 나타낸다.

- 예) 저는 영화를 **보고 싶어 해요.** (x)
 줄리아 씨는 영화를 **보고 싶어 해요.** (o)

[확장]

① 말하는 사람이 자신을 객관화하여 말하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말하는 사람을 주어로 쓰기도 한다. 이때 주로 과거 시제와 결합하여 쓴다.

- 예) 나도 이 영화를 **보고 싶어 했어.**
나는 어렸을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했어.**
우리는 모두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유사 문법]

① '-고 싶어 하다', '-고 싶다'

-고 싶어 하다	-고 싶다
----------	-------

· '희망'을 나타낸다.

·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어가 된다. 예) 나는 제주도에 가고 싶어 한다. (x) <u>너</u> 도 제주도에 가고 싶어 한다. (x) <u>수지</u> 도 제주도에 가고 싶어 한다. (o)	· 평서문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의문문에서는 듣는 사람이 주어가 된다. 예) 왕밍 씨는 제주도에 가고 싶어요. (x) <u>나는</u> 제주도에 가고 싶어. (o) <u>너</u> 도 제주도에 가고 싶어? (o)
--	--

+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희망을 직접 말할 때나 듣는 사람의 희망에 대해 물어볼 때는 '-고 싶다'를 쓴다. 이에 비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아닌 제3자의 희망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언급할 때는 '-고 싶어 하다'를 쓴다. '-고 싶다'는 말하는 사람이 자신이 바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낼 때 사용하며 보통 청자와의 관계가 친밀할 경우에 많이 사용한다. 학생들이 '-고 싶다'와 '-고 싶어하다'를 잘 구별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오류를 자주 범하는데 교사는 두 표현이 주어에 따라 달리 사용됨을 단계적으로 교수해야 한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想', '想要'

- 예)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싶어 해요**. - 孩子们想玩游戏.
손님이 이 물건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 顾客想换这东西.
학생들이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는군요**. - 看来学生们想要去旅行啊!
제 동생도 명품 가방을 **갖고 싶어 해요**. - 弟弟也想要名牌包.

② 용법과 오류

- 부정문은 '안 -고 싶어 하다', '-지 않고 싶어 하다', '-고 싶어 하지 않다'로 쓰는데 중국어의 부정 표지 '不'는 '싶어 하다' 앞에 오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 예) 아이들은 시험을 보고 **안 싶어 한다**. (x)
학생들이 여행을 떠나고 **안 싶어 한다**. (x)

- 과거는 '싶어 했다'로 쓰는데 중국어의 과거 표지 '过'는 동사 뒤에 오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 예) 학생들이 여행을 떠났고 **싶어 해요**. (x)
학생들이 여행을 떠났고 **싶어 했어요**. (x)
김치찌개를 먹었고 **싶어 해요**. (x)
김치찌개를 먹었고 **싶어 했어요**. (x)

- 일반적으로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데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은 이런 제약이 없이 형용사와도 결합하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 예) 여동생은 더 예쁘고 **싶어 해요**. (x) - 妹妹想更漂亮. (o)
왕밍 씨는 더 빠르고 **싶어 해요**. (x) - 王明想要更快. (o)

- 제3자의 희망에 대해 말할 때 '-고 싶어 하다'를 쓰므로 문장의 주어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중국어 대응 표현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 예) 나는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한다**. (x) - 我想要去旅行. (o)
너도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니?** (x) - 你也想要去旅行? (o)

3.6.6. '-고 해서'

-고 해서[표현] 앞 절이 뒤 절 내용의 이유 중 하나임을 나타내는 표현.

-고 해서: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앞 절 내용이 뒤 절 내용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됨을 나타낸다. 어떤 상태나 결과의 이유를 말할 때 사용하며, 이 경우 다른 이유가 더 있을 수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예문]

담화 예문	<p>가: 왕밍 씨, 주말에 약속 있어요?</p> <p>나: 아니요, 다음 주가 시험이고 해서 도서관에 가려고 해요.</p> <p>가: 그래요? 저는 수지 씨랑 커피숍에서 공부하기로 했는데, 왕밍 씨도 같이 공부하는 건 어때요?</p> <p>나: 미안해요. 저는 책도 반납해야 하고 해서 도서관에 가야 할 것 같아요.</p> <p>가: 수지 씨, 어제 앤디 씨랑 영화 보러 갔어요?</p> <p>나: 아니요. 다음에 보기로 했어요.</p> <p>가: 아니, 왜요?</p> <p>나: 앤디 씨가 약속 시간에 늦고 해서 밥만 먹고 헤어졌어요.</p>
문장 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밥도 먹고 해서 배가 불러요. · 잠도 안 오고 해서 책을 읽었다. · 배도 고프고 해서 라면을 먹었다. · 시간도 남고 해서 영화를 봤어요. · 날씨도 덥고 해서 수영장에 갈까 해요. · 기분도 좋고 해서 술을 많이 마셨다. · 다음날이 주말이고 해서 늦게까지 게임을 했어요. · 컴퓨터도 고장이 나고 해서 숙제를 하지 못했다. · 자동차도 새로 샀고 해서 드라이브를 할 거예요. · 비도 내리고 해서 약속을 취소했어요. · 오랜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해서 조깅을 했다.

+ '-고 해서'는 앞 절 내용이 뒤 절 내용의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임을 나타낼 때 사용하므로 다음 주가 시험인 것과 책을 반납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와 각각 결합하여 '다음 주가 시험이고 해서 도서관에 갈 거예요', '책을 반납해야 하고 해서 도서관에 가야 할 것 같아요'와 같이 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집에 빨리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택배, 숙제, 청소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를 들어 '택배 올 게 있고 해서 빨리 가야 해요.'처럼 쓸 수 있다.

+ 문장 예문에서는 다른 이유들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날씨도 덥고 해서 수영장에 갈까 해요'는 날씨가 더운 이유만이 수영장에 가려는 전적인 이유는 아니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일단 날씨가 더운 이유를 들어 수영장에 가야겠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밥도 먹고 해서 배가 불러요'는 배가 부른 이유 가운데 밥을 먹은 것 외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밥을 먹은 이유를 들어 배가 부른 상황을 나타낸다.

+ '-고 해서'를 사용하여 이유를 제시할 때에는 제시된 이유가 매우 특별하다거나 유일무이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가벼운 이유라는 느낌이 있음에 주의한다.

[도입]

(1)

교사: 왕밍 씨, 오늘 수업 후에 어디에 갈 거예요?

학생: 집예요.

교사: 왜요?

학생: 배가 고파서요.

교사: 그리고 이유가 또 있어요?

학생: 또 피곤해서요.

교사: 왕밍 씨는 배가 고파요, 피곤해요. 그래서 수업 후에 집에 갈 거예요. 수업 후에 **피곤하고 해서** 집에 갈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명동에 갈 거예요.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쇼핑도 해야 해요. 저는 약속도 **있고 해서** 명동에 갈 거예요. '-고 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말할 때 써요.

(2)

교사: 흐영 씨, 방학 때 고향에 갈 거예요?

학생: 아뇨, 한국에 있을 거예요.

교사: 왜요? 고향에 가고 싶지 않아요?

학생: 물론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한국 여행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어 공부도 해야 해요.

교사: 흐영 씨는 방학 때 고향에 가지 않아요. 한국 여행도 하고 **싶고 해서** 한국에 있을 거예요.

+ '-고 해서'를 도입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나열하도록 유도하는 게 좋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고 해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다양한 이유를 나열할 수 있도록 그림카드나 단어카드를 보여주면 효과적으로 의미를 파악하고 예문을 생성할 수 있다.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고 해서'를 쓴다.

예) 찾- + -고 해서 → 찾고 해서
 좋- + -고 해서 → 좋고 해서
 가- + -고 해서 → 가고 해서
 느리- + -고 해서 → 느리고 해서

살- + -고 해서 → 살고 해서
 무겁- + -고 해서 → 무겁고 해서
 보- + -고 해서 → 보고 해서
 사- + -고 해서 → 사고 해서

①	받침 o	+ -고 해서	찾고 해서, 살고 해서, 좋고 해서, 무겁고 해서
	받침 x	+ -고 해서	가고 해서, 보고 해서, 느리고 해서, 사고 해서

- 시력도 **안 좋아지고 해서** 병원에 갔어요. (o)
 날씨도 **덥고 해서** 바다에 갑시다. (x)
 날씨도 **덥고 해서** 바다에 가세요. (x)
 날씨도 **덥고 해서** 바다에 갔어요. (o)
 + '-고 하니(까)'를 쓰면 뒤 절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이 올 수 있다.

예) 교통사고도 **났고 하니** 병원에 갑시다. (o)
 교통사고도 **났고 하니** 병원에 가세요. (o)
 날씨도 **덥고 하니** 에어컨을 켜시다. (o)
 날씨도 **덥고 하니** 에어컨을 켜세요. (o)

[확장]

- ① '-고 -고 해서'의 구성으로 뒤 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이유를 나열할 때 사용한다.

예) 식사도 **하고** 후식도 **먹고 해서** 배가 불러요.
 눈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해서** 추워요.
 왕밍 씨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해서** 인기가 많아요.
 시험도 **끝나고** 시간도 **많고 해서** 여행을 갈 거예요.

- ② 구어에서 '-고 해서요'의 형태로 종결 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 가: 앤디 씨, 수업 끝나고 어디에 가요?
 나: 도서관예요.
 가: 시험도 끝났는데 도서관에는 왜 가요?
 나: 반납할 책도 있고 빌릴 책도 **있고 해서요**.

- ③ 문어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의미가 함축적이고 불확실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구어적 상황에서 주로 사용된다.

예) 가: 수지 씨, 어제 왜 결석했어요?
 나: 늦잠도 자고 머리로 **아프고 해서** 그냥 결석해 버렸어요.

- + 결석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가 늦잠을 잔 것인지, 머리가 아픈 것인지, 가기 싫었던 것인지, 이 모든 것을 다 합친 것인지 모호하다. 이러한 복잡한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문어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읽는 사람에게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기 어렵다.

[유사 문법]

- ① '-고 해서'와 '-어서1')

-고 해서	-어서1)
-------	-------

·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에 대한 이유를 나타낸다.

예) 옷이 **작고 해서** 입을 수 없어요. (o)
 옷이 **작아서** 입을 수 없어요. (o)

<p>· 과거를 나타내는 '-었-', 미래, 추측을 나타내는 '-겠-'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예) 비도 왔고 해서 나가지 않았다. (o) 비도 오겠고 해서 나가지 않았다. (o)</p>	<p>· 과거를 나타내는 '-었-', 미래, 추측을 나타내는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비가 왔어서 운동하러 가지 않았다. (x) 비가 오겠어서 운동하러 가지 않았다. (x)</p>
<p>· '도'와 함께 쓰여 다른 이유도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예) 잠도 안 오고 해서 게임을 했다. 기분도 나쁘고 해서 일찍 자 버렸다.</p>	<p>· 다른 이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하나의 이유만을 제시한다. 예) 잠이 안 와서 게임을 했다. 기분이 나빠서 일찍 자 버렸다.</p>

+ '-고 해서'와 '-어서1)' 모두 뒤 절에 청유문과 명령문이 올 수 없다.

+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임을 의미하므로 앞에 '-고 해서'와 결합하는 주어나 목적어에 보조사 '도'가 결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이에 비해 '-어서1)'은 추가 이유가 있는 맥락이 아니라면 보조사 '도'가 쓰이지 않는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因为……所以……', '又'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날씨도 **덥고 해서** 수영장에 갈까 해요. - 因为天气也热, 所以要去游泳馆.

기분도 **좋고 해서** 술을 많이 마셨다. - 心情又好, 喝了很多酒.

시간이 **늦었고 해서** 다음에 만나기로 했어요. - 时间来不及了, 说好了下次见面.

② 용법과 오류

- 과거 '-었-'을 '-고'에 붙여 쓸 수 있지만 중국어의 '了'는 동사 뒤에 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장 뒤에도 붙을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음식도 만들었고 **했어서** 친구를 초대했다. (x)

- 因为做了饭了, 所以邀请了朋友. (o)

음식도 만들고 **했어서** 친구를 초대했다. (x)

- 因为饭也做了, 所以邀请了朋友. (o)

음식도 만들었고 **해서** 친구를 초대했다. (o)

- 因为饭也做了, 所以邀请了朋友. (o)

- 청유문이나 명령문과 결합할 수 없지만 중국어 대응 표현은 이러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교통사고가 났고 **해서** 병원에 갑시다. (x)

- 出了交通事故, 咱们去医院吧! (o)

교통사고가 났고 **해서** 병원에 가세요. (x)

- 出了交通事故, 你去医院! (o)

3.6.7 ‘-기 위해’

-기 위해{-기 위한}[표현] 어떤 상황이나 행동을 하는 **목적**이나 **의도**임을 나타내는 표현.

-기 위해: (동사에 붙어) 앞의 행위가 뒤의 상황이나 행동이 발생하게 된 목적이나 의도임을 나타낸다.

[예문]

담화예문	<p>가: 페이페이 씨, 오늘 수업이 끝나고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나: 미안해요. 오늘 오후에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가: 페이페이 씨는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왜 아르바이트를 해요? 나: 다음 달에 친구와 제주도에 가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어요.</p> <p>가: 앤디 씨, 요즘 흐영 씨 봤어요? 나: 네, 어제 도서관 앞에서 만났어요. 가: 그래요? 요즘 흐영 씨를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도서관에서 무엇을 해요? 나: 흐영 씨가 장학금을 받기 위해 도서관에서 매일 공부하고 있어요.</p>
문장예문	<p>. 영수 씨가 돈을 찾기 위해 은행에 갔어요. .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하여 조금씩 돈을 모읍시다. . 수지 씨가 내일 소풍을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 지영 씨가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명동에 가요. . 왕밍 씨는 운동하기 위해 매일 체육관에 가요. . 지영 씨는 요즘 시험 공부하기 위해 아침에 도서관에 가요. . 저는 주말에 친구와 놀이 위해 오늘 숙제를 모두 할 거예요. . 수업 시간에 발표하기 위해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 줄리아 씨가 한국어를 향상시키기 위해 방법으로 한국어 일기를 매일 쓰고 있어요. . 지난주부터 생일파티를 하기 위해 장소를 알아보고 있어요.</p>

+ ‘-기 위해’는 앞의 동작이나 행위가 뒤의 상황이나 행동에 대한 목적이나 의도임을 나타낸다. 명사형 어미 ‘-기’에 동사 ‘위하다’의 활용형인 ‘위해’가 결합한 형태이다. ‘영수 씨가 돈을 찾기 위해 은행에 갔어요’와 같이, ‘돈을 찾는 것’이 ‘은행에 가는 행위’의 목적임을 알 수 있다. ‘-기 위해’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형 어미(-러, -려고, -고자)처럼 기능한다.

[도입]

(1)
교사: 여러분, 올해도 이제 한 달 남았어요. 다음 달이면

<p>벌써 새해예요. 새해에는 무엇을 하고 싶어요?</p> <p>학생: 저는 여행을 가고 싶어요.</p> <p>교사: 미도리 씨는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p> <p>학생: 돈을 모아야 해요.</p> <p>교사: 맞아요. 여행을 가려면 돈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돈을 모아야 해요. 여행을 가기 위해 돈을 모아야 해요.</p> <p>(2)</p> <p>교사: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내일이면 주말이에요. 주말에 무엇을 하고 싶어요?</p> <p>학생: 저는 인사동에 가고 싶어요.</p> <p>교사: 줄리아 씨는 인사동에 무엇을 하러 가요?</p> <p>학생: 다음 달에 고향에 갈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사고 싶어요.</p> <p>교사: 줄리아 씨는 인사동에 가고 싶어요. 인사동에서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살 거예요. 줄리아 씨는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사기 위해 인사동에 갈 거예요.</p>

+ '-기 위해'를 도입할 때는 그러한 동작이나 행동을 하는 목적이나 의도를 유도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 도입(1)에서와 같이 '돈을 모으는' 행위의 목적은 '여행을 가기 위해'임을 '-기 위해'를 통해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도입(2)에서와 같이, '인사동에 가는 행동'의 의도가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사는 것'임을 보여줄 때 '-기 위해'를 사용할 수 있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기 위해'를 쓴다.

예) 먹--기 위해 → 먹기 위해	읽--기 위해 → 읽기 위해
놀--기 위해 → 놀기 위해	가--기 위해 → 가기 위해
보--기 위해 → 보기 위해	오--기 위해 → 오기 위해

①	받침 o	+ -기 위해	먹기 위해, 읽기 위해, 놀기 위해
	받침 x	+ -기 위해	가기 위해, 보기 위해, 오기 위해

[문장 구성 정보]

① 부정문은 '-지 않기 위해', '안 -기 위해'의 두 가지 형태를 모두 쓸 수 있다.

예) 학교에 늦지 않기 위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 학교에 안 늦기 위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야식을 먹지 않기 위해 밤에 공원에서 운동을 해요.
= 야식을 안 먹기 위해 밤에 공원에서 운동을 해요..

- ② 높임은 '-기 위해'에 '-으시-'를 붙여 '-으시기 위해'로 쓴다.

예) 부모님께서 한국에 오시기 위해 방금 비행기를 타셨어요.
사장님께서 퇴근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머니께서 음식을 만드시기 위해 재료를 사러 시장에 가셨어요.
선생님께서 행사를 준비하시기 위해 아침에 일찍 오셨어요.

[제약 정보]

- ①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아야 하고, 주로 뒤 절의 주어는 생략한다.

예) 저는 화장품을 사기 위해 친구는 백화점에 가요. (x)
저는 화장품을 사기 위해 (저는) 백화점에 가요. (o)
나는 컴퓨터를 고치기 위해 마이클 씨는 서비스센터에 갔어요. (x)
나는 컴퓨터를 고치기 위해 (나는) 서비스센터에 갔어요. (o)

- ② 일반적으로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미도리 씨는 시원하기 위해 창문을 열었어요. (x)
수지 씨는 기분이 좋기 위해 노래를 해요. (x)
줄리아 씨는 예쁘기 위해 화장을 했어요. (x)
영수 씨는 키가 크기 위해 아침마다 우유를 마셔요. (x)
+ 그러나 일상적인 구어에서는 '예쁘다, 크다'처럼 변화의 의미가 내재된 형용사에 '-기 위해'가 붙어 사용되기도 한다.

- ③ 과거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저는 어제 친구의 생일 선물을 샀기 위해 백화점에 갔어요. (x)
저는 어제 친구의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에 갔어요. (o)
저는 내일 친구의 생일 선물을 사겠기 위해 백화점에 갈 거예요. (x)
저는 내일 친구의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에 갈 거예요. (o)

[확장]

- ① 공식적인 말이나 글에는 주로 '-기 위하여'로 쓴다.

예)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노력해야 합니다.
체중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같이 하세요.
불우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금을 했습니다.
사장님과 이야기하기 위하여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② '-기 위한' 구성으로 목적을 나타낼 수 있다. 이때 '-기 위한'의 뒤에는 꾸밈을 받는 명사가 와야 한다.

예) 수업 시간에 발표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줄리아 씨가 한국어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어 일기를 매일 쓰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생일파티를 하기 위한 장소를 알아보고 있어요.

- ③ 'N+을 위해' 구성으로 목적을 나타낼 수 있다.

- 예) 어머니는 매일 가족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십니다.
 마이클 씨는 건강을 위해 하루에 한 시간씩 운동을 합니다.
 한국에 오신 부모님을 위해 남산타워에 갈 생각이예요.
 분티안 씨는 대학 합격을 위해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해요.
 + 공식적인 말이나 글에는 주로 'N+을 위하여'로 쓴다.

예) 내일 시험을 볼 학생들을 위하여 교장 선생님께서 격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모든 나라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유사 문법]

④ '-기 위해', '-고자', '-으려고'

-기 위해	-고자	-으려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행동의 목적이나 의도, 희망의 의미를 나타낸다. 동사와 결합한다. <p>예) 한국어를 잘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합니다. 한국어를 잘하려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한국어를 잘하고자 열심히 공부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다'와 쓸 수 없다. <p>예) 나는 훌륭한 선생님이기 위해 한다. (x) 저희들은 좋은 부모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x)</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다'와 쓸 수 있다. <p>예) 나는 훌륭한 선생님이하고자 한다. (o) 저희들은 좋은 부모이하고자 노력합니다. (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다'와 쓸 수 없다. <p>예) 나는 훌륭한 선생님이려고 고 한다. (x) 저희들은 좋은 부모이려고 고 노력합니다. (x)</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행동이 있어야 하므로 청유문이나 명령문, 당위 표현과 함께 쓸 수 있다. <p>예)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해 무슨 일이든 시작하자. (o)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해 무슨 일이든 시작해라. (o)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해 무슨 일이든 시작해야 한다. (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므로 청유문이나 명령문, 당위 표현과는 잘 쓰지 않는다. <p>예) 불우 이웃을 도우고자 무슨 일이든 시작하자. (?) 불우 이웃을 도우고자 무슨 일이든 시작해라. (?) 불우 이웃을 도우고자 무슨 일이든 시작해야 한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므로 청유문이나 명령문, 당위 표현과는 잘 쓰지 않는다. <p>예) 불우 이웃을 도우려고 무슨 일이든 시작하자. (?) 불우 이웃을 도우려고 무슨 일이든 시작해라. (?) 불우 이웃을 도우려고 무슨 일이든 시작해야 한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도만을 나타낼 경우 쓰지 않는다. <p>예)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기 위해 한다. (x)</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순히 의도만을 나타낼 수 있다. <p>예)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순히 의도만을 나타낼 수 있다. <p>예)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려고 한다. (o)</p>
공식적.비공식적 말이나 글에	주로 격식을 갖춘 말이나	공식적.비공식적 말이나

서 모두 사용한다. 예)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기 위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너를 만나기 위해 왔어.	공식적인 장소에서의 대화, 글에서 많이 사용한다. 예) 여러분께 중요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너를 만나고자 왔어. (?)	글에서 모두 사용한다. 예)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너를 만나려고 왔어.
--	---	---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为', '为了'

- 예)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매일 악착같이 일해요. - 为养家糊口, 每天拼命工作.
공격력을 **보강하기 위해** 미드필더 선수를 추가 선발할 겁니다. - 为了增强攻击力要补充选拔中场选手.
노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 为保障老年福利, 决定要修改相关法律.
빚을 **갚기 위해** 값 나가는 물건은 다 팔아 버렸군요. - 为了还债, 你把值钱的东西都变卖了呀.
폭탄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경찰들이 출동하였다. - 为了预防炸弹恐怖袭击, 出动了不少警察.
회사를 **세우기 위해** 유능한 직원을 모집합니다. - 为创建公司, 招聘优秀的职员.
왕밍 씨는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요. - 王明为了考上大学, 努力学习.

② 용법과 오류

-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데 대응하는 중국어는 형용사와 결합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 예) 수잔 씨는 더 **예쁘기 위해** 성형수술을 했어요. (x) -为了更漂亮, 秀珍做了整容手术. (o)
왕밍 씨는 기분이 **좋기 위해** 노래를 해요. (x) -王明为了心情好, 唱起歌来了. (o)
자기만 **기쁘기 위해**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않아요. (x) -只为自己快乐, 不管别人. (o)
아이가 총명하기 위해 태아 교육에 신경을 쓴다. (x) -为了孩子聪明, 关注胎儿教育. (o)

-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데 중국어의 '为', '为了'는 행위의 원인이나 목적을 나타내면서 미래 시제를 포함하므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겠-'과 대응시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 예) 공격력을 **보강하겠기 위해** 미드필더 선수를 추가 선발할 겁니다. (x)
회사를 **세우겠기 위해** 유능한 직원을 모집합니다. (x)
왕밍 씨는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요. (x)

3.6.8. '-나 보다'

-나 보다[표현] 말하는 사람의 추측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

-나 보다: (동사, '있다', '없다'에 붙어) 어떤 사실이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그런 것 같다는 추측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 예문	<p>가: 테니스 대회에서 또 우승하셨다고 들었어요. 나: 네, 운이 좋았어요. 가: 테니스를 정말 잘 치시나 봐요.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나: 네, 다음 연습 때 같이 가요.</p> <p>가: 큰 가방을 메신 걸 보니 여행가시나 봐요? 나: 네, 제주도에 가요.</p> <p>가: 어디를 그렇게 뛰어 가세요? 급한 일이 있나 봐요. 나: 약속 시간이 다 되어서요.</p> <p>가: 저 식당은 사람이 항상 많네요. 나: 그러네요. 음식이 정말 맛있나 봐요.</p>
문장 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도리 씨는 키가 커서 낮은 신발을 즐겨 신나 봐요. · 사람들이 우산을 쓴 것을 보니 밖에 비가 오나 봐요. · 유진 씨는 늘 일등을 한다.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나 보다. · 비행기가 움직이는 걸 보니까 이제 출발하나 봐요. · 살이 많이 빠졌네요. 운동을 열심히 하나 봐요? · 예쁜 옷을 입었네요. 데이트하러 가나 봐요? · 운동장이 시끄러운 것을 보니 축구 경기가 시작됐나 봐요. · 밥을 조금만 먹는 것을 보니 입맛이 없나 봐요. · 할아버지께서 전화를 안 받으세요. 댁에 안 계시나 봐요.

- + '-나 보다'는 추측의 근거가 되는 상황이나 사실을 먼저 제시한다.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한 것, 큰 가방을 멘 것, 뛰어가는 것 등을 앞에서 제시하고 이를 통해 테니스를 잘 친다는 사실, 여행을 간다는 사실, 급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추측함을 '-나 보다'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 + 이때 말하는 사람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는 말하는 사람의 확신이 없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것에 주의한다. 말하는 사람이 식당의 음식을 직접 먹어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맛있나 보다'를 사용할 수 없다.

[도입]

(1)

교사: 오늘 왕밍 씨가 안 왔어요. 왜 안 왔을까요?

학생: 아마 여행하고 있을 거예요.
 교사: 왜 그렇게 생각해요?
 학생: 어제 부모님께서 한국에 오셨다고 들었어요.
 교사: 아, 그러면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왕밍 씨는 부모님과 여행을 **하나 봐요**.

(2)

교사: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한 나라가 어디예요?
 학생: 브라질이 우승했어요.
 교사: 브라질이 월드컵에서 여러 번 우승했지요?
 학생: 네.
 교사: 브라질이 월드컵에서 우승을 여러 번 했습니다. 축구 잘 할까요? 못 할까요?
 학생: 잘 해요.
 교사: 월드컵에서 우승을 많이 한 것을 보니 브라질이 축구를 아주 **잘 하나 봐요**.

- + 도입(1)은 학생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바탕으로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여 '-나 보다'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부모님께서 한국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은 왕밍이 '학교에 오지 않은 이유'를 '부모님과 여행 중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 + 도입(2)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실을 추측할 때 '-나 보다'가 쓰이는 것을 보여준다. 브라질이 월드컵 경기에서 여러 번 우승한 사실로 볼 때 브라질이 축구를 잘 하는 나라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이 때 '-나 보다'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이다.

[형태 정보]

- ①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나 보다'를 쓴다.

예) 찾- + -나 보다 → 찾나 보다 읽- + -나 보다 → 읽나 보다
 먹- + -나 보다 → 먹나 보다 걷- + -나 보다 → 걷나 보다
 참- + -나 보다 → 참나 보다

- ②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나 보다'를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가- + -나 보다 → 가나 보다 공부하- + -나 보다 → 공부하나 보다
 사- + -나 보다 → 사나 보다 살- + -나 보다 → 사나 보다
 놀- + -나 보다 → 노나 보다 만들- + -나 보다 → 만드나 보다

①	받침 o	+ -나 보다	찾나 보다, 읽나 보다, 먹나 보다,
---	------	---------	----------------------

			견나 보다, 참나 보다
②	받침 ×	+ -나 보다	가나 보다, 공부하나 보다, 사나 보다
	ㄹ 받침	+ -나 보다 (어간 'ㄹ'탈락)	사나 보다, 노나 보다, 만드나 보다

[문장 구성 정보]

① 추측의 근거가 되는 앞 절에 '-은 걸 보니(까)', '-더니' 등이 결합하여 자주 사용된다.

예) 사람들이 우산을 쓴 것을 보니까 밖에 **비가 오나 봐요.**
 어제 늦게 자더니 늦잠을 **자고 있나 봐요.**
 급하게 나가는 걸 보니 친구가 **기다리나 봐요.**

② 과거 '-었', 추측의 '-겠-'과 결합하여 사용한다.

예) 지붕에 눈이 쌓인 것을 보니 밤새 **눈이 왔나 보다.**
 밖으로 뛰쳐 나가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못 **참겠나 봐.**

[제약 정보]

① 1인칭 주어와는 결합하지 않는다.

예) 저는 집에 **가나 봐요.** (x)
 나는 밥을 **먹나 봐요.** (x)
 우리는 내일 방학을 **하나 봐요.** (x)
 + 2인칭, 3인칭 주어와만 결합한다. 1인칭 주어를 쓰는 경우는 말하는 사람이 자신을 객관화해서 말할 때에만 가능하다.

예) 내가 어릴 때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나 봐.**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봐요.**

② '형용사', '이다'는 '-은가 보다'와 결합한다.

예) 불편하다 + -은가 보다 → 불편한가 보다
 부끄럽다 + -은가 보다 → 부끄러운가 보다
 귀찮다 + -은가 보다 → 귀찮은가 보다
 학생이다 + -ㄴ가 보다 → 학생인가 보다
 학생이 아니다 + -ㄴ가 보다 → 학생이 아닌가 보다
 + 형용사에 '-었-'이 결합한 경우에는 '-나 보다'와 '-는가 보다'를 다 쓸 수 있다.

예) 수정 씨는 어제 **한가했나 보다/한가했는가 보다.**
 이번 시험이 정말 **어려웠나 보다/어려웠는가 보다.**
 두 사람이 예전에는 정말 **친했나 보다/친했는가 보다.**

[유사 문법]

① '-나 보다', '-는 것 같다', '-는 듯하다'

-나 보다	-는 모양이다	-는 것 같다	-는 듯하다
· 말하는 사람의 추측을 나타낸다.			
<p>· 간접적인 경험이나 연관된 상황을 바탕으로 추측해 말할 때 쓴다.</p> <p>예) 앤디 씨가 테니스를 잘 치나 봐요. 앤디 씨가 테니스를 잘 치는 모양이에요. (앤디 씨가 테니스를 치는 것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잘 친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상을 받는 것을 봄)</p>		<p>· 말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실 모두에 대해 추측해서 말할 때 사용한다.</p> <p>예) 따님이 아주 춤을 잘 추는 것 같아요. 따님이 아주 춤을 잘 추는 듯해요. (듣는 사람의 딸이 춤을 추는 것을 직접 봄)</p>	
<p>· 알고 있는 사실이나 주변의 상황에 비추어 짐작하는 것이므로 이유가 있는 추측에만 사용된다.</p> <p>예) 방학이니까 고향에 갔나 봐요. 방학이니까 고향에 간 모양이에요.</p>		<p>· 근거가 있는 추측에도 쓰이지만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 ‘왠지’ 등과 함께 쓰여 주관적이거나 자신이 없이 말하는 상황에도 쓰인다.</p> <p>예) 제 생각에 오후에 비가 올 듯해요/올 것 같아요. 왠지 그 사람이 올 듯해요/올 것 같아요.</p>	
<p>· 추측을 나타내는 의미 이외에 완곡함을 나타낼 때는 쓰이지 않는다.</p> <p>예) 미안해요. 조금 늦나 봐요. 그 옷은 유진 씨에게 별로 어울리지 않는 모양이에요. (추측의 의미로만 해석된다.)</p>		<p>· 추측 표현의 형태로 말하는 사람의 완곡한 의견을 나타내기도 한다.</p> <p>예) 미안해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그 옷은 유진 씨에게 별로 어울리지 않는 듯해요.</p>	
<p>· 비격식적인 구어에서 더 많이 사용된다.</p> <p>예) 엄마, 아기가 자나 봐.</p>	<p>· 격식적인 문어에서 많이 사용된다.</p> <p>예) 국회는 법안 통과를 계속 미룰 모양입니다.</p>	<p>· 문어보다 구어에서 더 많이 쓰인다.</p> <p>예) 유진 씨, ‘ㄹ’ 발음을 좀 더 연습해야 할 것 같아요.</p>	<p>· 구어보다 문어에서 주로 사용된다.</p> <p>예) 이번 주 주식 거래는 전체적으로 오름세인 듯합니다.</p>

- + '-나 보다'는 추측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지만 '-는 것 같다'와 '-는 듯하다'는 추측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하지만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 '왠지' 등과 함께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을 말할 때와 자신이 없이 말하는 상황에도 자주 사용된다.
- + '-는 것 같다'와 '-는 듯하다'는 말하는 사람의 완곡한 요청이나 거절을 나타낼 때도 사용한다. 추측의 형태로 부드럽게 표현함으로써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피하려 할 때 사용한다.
- + '-나 보다'는 '-는 모양이다'에 비해 추측의 정도가 약하며, 놀람이나 의심의 정도는 강하

다.

예) 비가 **오려나 봐요.**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음)

비가 **올 모양이에요.**

(비가 올 거라는 생각이 더 많음)

도둑이 **들어왔나 봐요.**

(도둑이 들어왔는지 궁금하고 놀람)

도둑이 **들어온 모양이에요.**

(별로 놀라지 않음, 관조적인 태도)

+ '-나 보다'와 '-은 모양이다'는 추측의 근거가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쓰인다. '-은 모양이다'는 '-나 보다'에 비해 문어에서 더 많이 쓰여서 자연스러운 대화나 어린아이의 말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은 모양이다'는 '-나 보다'에 비해 추측이나 놀람의 강도가 약하게 나타난다. 동일한 상황에서 '도둑이 들어온 모양이에요'는 '도둑이 들어왔나 봐요'에 비해 놀람의 정도가 적게 느껴진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看上去', '看起来', '看样子', '好像', '也许', '大概', '恐怕'

예) 왕밍 씨는 공부를 열심히 **하나 봅니다.** - 看上去王明很用功学习啊.

살이 많이 빠졌네요. 운동을 자주 **하나 봐요?** - 你瘦了很多, 看起来你经常运动吧?

비행기가 움직이는 걸 보니까 이제 출발**하나 봐요.** - 飞机动了, 看样子就要出发了.

사람들이 우산을 쓴 것을 보니 밖에 비가 **오나 봐요.** - 看人们打伞, 外面好像下雨了.

너무 조용한 걸 보니 집에 아무도 **없나 봅니다.** - 太安静了, 也许家里没人吧!

전화를 아무도 안 받아요. 집에 아무도 **없나 봐요.** - 没人接电话, 大概家里没人.

바람이 세게 부는 걸 보니 소나기가 **오려나.** - 刮大风了, 恐怕要下暴雨.

② 용법과 오류

- 'ㄹ' 받침으로 끝나는 경우 'ㄹ'이 탈락하는데 중국어는 형태 변화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아들 부부의 표정이 모두 밝은 것을 보니 행복하게 **살나 봐요.** (x)

아이가 놀이터에서 재미있게 **놀나 봐요.** (x)

이 회사는 문방구를 만들**나 봐요.** (x)

-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데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은 이런 제약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그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나니 **부끄럽나 보다.** (x)

(‘부끄러운가 보다’로 표현해야 할 경우)

애기가 매일 우니깐 **귀찮나 보다.** (x) - (‘귀찮은가 보다’로 표현해야 할 경우)

- '이다', '아니다'와 결합하지 않는데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은 이런 제약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옷 차림새를 보니 학생이나 보다. (x) ('학생인가 보다'로 표현해야 할 경우)
술 담배를 하는 것을 보니 학생이 아니나 봅니다. (x) ('아닌가 보다'로 표현해야 할 경우)

- 1인칭 주어와는 결합하지 않는데 대응하는 중국어는 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나는 밥을 많이 먹나 봐요. (x) - 我看上去吃饭吃得多吃得多吧. (o)
우리는 내일 방학을 하나 봐요. (x) - 咱们大概明天放假吧. (o)

3.6.9. '-나 싶다'

-나 싶다[표현] 말하는 사람의 추측이나 회의를 나타내는 표현

-나 싶다: (동사, '있다', '없다'에 붙어)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확실하지 않은 추측, 회의나 의심을 단정적이지 않은 태도로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문]

대화 예문	가: 오늘 혹시 흐영 씨 보셨어요? 나: 네, 아까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가: 흐영 씨는 매일 도서관에 가네요. 나: 네. 그래서 늘 일등을 하나 싶어요 .
	가: 올 여름은 작년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나: 점점 더워지는 것 같아요. 가: 환경오염 때문에 매년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고 해요. 나: 한국도 아열대 기후가 되나 싶어요 .
	가: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어디 편찮으세요? 나: 며칠 동안 잠을 잘 못 잤더니 몸살이 오나 싶어요 .
	가: 어제 친구와 말다툼을 했어요. 사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나: 저런, 속상하시겠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세요. 가: 제가 말을 심하게 했나 싶어요 . 나: 조금 있다가 전화해 보세요.
	가: 시험 잘 보셨어요? 나: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통과하겠나 싶어요 .

문장 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기가 건강한 것을 보니 음식을 골고루 잘 먹나 싶어요. · 까치가 우는 것을 보니 반가운 손님이 오시나 싶어요. · 저 배우가 요즘 인기가 많아서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나 싶네요. ·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는 것을 보니 경기가 풀리나 싶습니다. · 매일 운동을 해서 건강하게 지내나 싶어요. · 공부는 안 하고 매일 노래만 해서 뭐가 되려나 싶었는데 결국 가수가 되었어요. · 이번 시험에도 떨어졌나 싶어서 결과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 졸업 후에 취업하겠나 싶었는데 내일 면접을 보러 가요.
-------	--

- + '-나 싶다'는 주로 말하는 사람의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일등을 하는 것', '한국이 아열대 기후가 되는 것', '몸살이 오는 것'을 '-나 싶다'와 함께 사용하여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함을 나타내고 있다.
- + '-나 싶다'가 '-었-', '-겠-'과 함께 쓰이면 말하는 사람의 후회나 회의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친구와 말다툼을 하면서 말을 심하게 한 것에 대해 '말을 심하게 했나 싶어요'라고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행위에 대해 후회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시험에 통과하겠나 싶다', '졸업 후에 취업하겠나 싶다'라고 표현하여 시험에 통과하는 것과 취업하는 것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회의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도입]

<p>(1)</p> <p>교사: 오늘 왕밍 씨가 학교에 왔어요?</p> <p>학생: 아뇨. 안 왔어요.</p> <p>교사: 왜 안 왔어요.</p> <p>학생: 잘 모르겠어요. 아마 자고 있는 것 같아요.</p> <p>교사: 네, 왕밍 씨가 자고 있는 것 같아요.</p> <p style="padding-left: 40px;">왕밍 씨가 자고 있나 싶어요. 자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생각이 될 때 '-나 싶어요'로 말해요.</p> <p>(2)</p> <p>교사: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 아주 피곤해요.</p> <p>학생: 그래요? 왜 피곤하세요?</p> <p>교사: 어제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피곤해요. 갑자기 운동을 너무 많이 했나 싶어요.</p>	
--	--

- + 도입(1)은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나 싶다'가 사용된 것이다. 학생들이 쉽게 추측하여 말할 수 있는 주변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 도입에 유리하다. 즉 왕밍 씨가 아직 학교에 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학생들이 쉽게 '자고 있는 상황'을 추측하여 말할 수 있으므로 '-나 싶다'의 의미와 기능에 집중하여 학습할 수 있다. 그러나 왕밍 씨가 자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추측한 것이므로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나타낼 때 '-나 싶다'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 + 도입(2)는 말하는 사람의 후회를 나타낼 때 '-나 싶다'가 쓰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갑자기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한 상황을 제시하여 피곤한 상태의 원인이 된 행위에 대해 후회함을 보여 주기 위해 '-나 싶다'를 사용함을 보여 준다. 이 외에도 학생들이 후회하는 상황을 제시하여 '-나 싶다'를 사용하여 대답하도록 하는 것도 의미 파악에 도움이 된다.

[형태 정보]

- ①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나 싶다'를 쓴다.

예) 찾- + -나 싶다 → 찾나 싶다 읽- + -나 싶다 → 읽나 싶다
 먹- + -나 싶다 → 먹나 싶다 돕- + -나 싶다 → 돕나 싶다

- ②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나 싶다'를 쓴다. 단, 'ㄹ'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가- + -나 싶다 → 가나 싶다 공부하- + -나 싶다 → 공부하나 싶다
 사- + -나 싶다 → 사나 싶다 살- + - → 사나 싶다
 놀- + - → 노나 싶다 만들- + - → 만드나 싶다

①	받침 ㅇ	+ -나 싶다	찾나 싶다, 읽나 싶다, 먹나 싶다, 돕나 싶다
②	받침 ×	+ -나 싶다	가나 싶다, 공부하나 싶다, 사나 싶다
	ㄹ 받침	+ -나 싶다 (어간 'ㄹ'탈락)	사나 싶다, 노나 싶다, 만드나 싶다

[문장 구성 정보]

- ① 행위나 상태의 주체를 높일 경우에는 '-시나 싶다'로 쓴다. '-나 싶다'는 말하는 사람이 주어이므로 '-나 싶으시다', '-시나 싶으시다'의 형태로는 쓰이지 않는다.

예) 할아버지께서는 댁에 안 계시나 **싶다**.
 할아버지께서는 댁에 안 계시나 **싶으시다**. (x)
 제가 속을 썩여서 부모님께서 **늑으셨나 싶어요**.
 제가 속을 썩여서 부모님께서 **늑었나 싶으세요**. (x)
 제가 속을 썩여서 부모님께서 **늑으셨나 싶으세요**. (x)

- ② 과거 '-었-', 미래-추측의 '-겠-'과 함께 쓰인다. '-았-', '-겠-' 뒤에 붙어 주로 말하는 사람의 후회나 회의 등을 나타낸다.

예) 어제 내가 수지를 너무 심하게 **꾸중했나 싶다**.
 어제 일은 줄리아 씨가 **너무했나 싶어요**.
 그 애가 공부를 잘 **하겠나 싶어요**.
 이제 출발해서 언제 **도착하겠나 싶어요**.

[확장]

- ① 부정 표현과 결합하여 '-지 않나 싶다', '-지 않았나 싶다', '-지 않겠나 싶다'의 형태로 주로 쓰여 '그런 것 같다'는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이고 불확실한 생각을 나타낸다.

예) 집에서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지 않나 싶어요.** (맛있다고 생각할 때 사용)
어젯밤에 잠을 못자서 피부가 **나빠지지 않았나 싶어요.** (나빠졌다고 생각할 때 사용)
다음 주 친구의 결혼식에는 **못 가지 않겠나 싶어요.** (못 가겠다고 생각할 때 사용)

- ② '형용사'는 '-은가 싶다'를 쓴다.

예) 불편하다 + -은가 싶다 → 불편한가 싶다
부끄럽다 + -은가 싶다 → 부끄러운가 싶다
귀찮다 + -은가 싶다 → 귀찮은가 싶다

+ 형용사에 '-았/었-'이 결합한 경우에는 '-나 싶다'와 '-는가 싶다'를 다 쓸 수 있다.

예) 수정 씨는 어제 **한가했나 싶다/한가했는가 싶다.**
이번 시험이 정말 **어려웠나 싶다/어려웠는가 싶다.**
두 사람이 예전에는 **정말 친했나 싶다/친했는가 싶다.**

- ③ '이다', '아니다'는 '-은가 싶다'를 쓴다.

예) 학생이다 + -은가 싶다 → 학생인가 싶다
학생이 아니다 + -은가 싶다 → 학생이 아닌가 싶다

[유사 문법]

- ① '-나 싶다', '-지 싶다'

-나 싶다	-지 싶다
· 말하는 사람의 확실하지 않은 추측이나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낸다.	
· 주로 '-지 않나 싶다', '-지 않았나 싶다', '-지 않겠나 싶다'의 형태로 그러함을 나타낼 때 쓰인다.	· '-지 싶다'의 형태로 화자의 예측이나 추측을 나타낸다.
예) 할머니께서 손자 생일이니까 오시지 않겠나 싶어요. (오실 것이다) 시간을 보니 아버지께서는 퇴근하시지 않았나 싶다. (퇴근했을 것이다)	예) 할머니께서 손자 생일이니까 오시지 싶어요. (오실 것이다) 시간을 보니 아버지께서는 퇴근하셨지 싶다. (퇴근했을 것이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 ① 대응 표현: '好像', '似乎', '也许'

예) 날씨가 쌀쌀해 진 것을 보니 겨울이 **되나 싶어요.** - 天变冷了似乎要冬天了.
요즘 한국 드라마가 인기 있어서 방송에 많이 **나오나 싶네요.** - 最近韩国电视剧人气很高好像经常在电视上播放.

사장님이 기뻐하는 걸 보니 회사 매출이 **오르나 싶습니다**. - 看老板乐成这样, 似乎公司的营销额攀升了吧.

옷차림을 보니 학생이 **아닌가 싶어요**. - 看衣着打扮, 也许不是学生.

다시 생각해보니 왕밍 씨에 대해 좀 **심했나 싶군요**. - 回过头来想想, 我对王明似乎有点过头了.

이번 시험에도 **떨어졌나 싶어서** 결과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 这次考试好像落榜了, 所以也没确认结果.

가난해서 **공부하겠나 싶었는데** 결국 대학까지 갔어요. - 因为太穷似乎很难学下去, 但还是考上了大学.

② 용법과 오류

- 행위나 상태의 주체를 높일 경우에는 '-시나 싶다'로 쓰고 '-나 싶으시다', '-시나 싶으시다'의 형태로는 쓰이지 않지만 중국어에는 위와 같은 높임 방식이 없으므로 '-시-'를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과다 사용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예) 먼 곳에서 귀한 손님이 **오나 싶다**. (x)

 먼 곳에서 귀한 손님이 **오시나 싶으시다**. (x)

 제가 선생님께 말씀 드렸나 **싶으신데요**. (x)

 제가 선생님께 말씀 드리셨나 **싶으신데요**. (x)

- '-겠-' 뒤에 붙어 주로 말하는 사람의 회의 등을 나타내는데 중국어에서 비슷한 의미로 반문을 나타내는 '能……吗'가 쓰이므로 '하겠니?'를 사용하거나 양자를 혼동하여 '-겠니 싶다'로 사용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예) 그렇게 공부해서 졸업 후에 **취업하겠니?** (?) ('취업하겠나 싶어요'를 써야 할 경우)

 그 애가 학교에라도 **입학하겠니 싶어요**. (x)

 이제 출발해서 언제 **도착하겠니 싶어요**. (x)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통과하겠니 싶어요**. (x)

- 부정 표현과 결합하여 '-지 않나 싶다', '-지 않았나 싶다', '-지 않겠나 싶다'의 형태로 주로 쓰여 '그런 것 같다'는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이고 불확실한 생각을 나타내는데 중국어에서 반문을 나타내는 '-지 않을까', '-지 않겠니'와 혼동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집에서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지 않을까 싶어요**. (x) ('맛있지 않나 싶다'고 생각할 경우)

 어젯밤에 잠을 못자서 피부가 **나빠지지 않겠니 싶어요**. (x) ('나빠지지 않았나 싶다'고 생각할 경우)

 다음 주 친구의 결혼식에는 **못 가지 않겠니 싶어요**. (x) ('못 가지 않겠나 싶다'고 생각할 경우)

3.6.10 '-는 김에'

<p>-는 김에[-ㄴ 김에/-은 김에][표현] 어떤 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그것을 기회로 다른 행위를 함을 나타내는 표현.</p>

-는 김에: (동사에 붙어) 앞 절의 행위를 함에 더하여 그 기회에 뒤 절의 다른 행위를 함께 함을 나타낸다. 앞 절의 행동이 원래의 목적이지만 앞 절의 행동을 하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다른 행동도 같이 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줄리아 씨, 오늘 오후에 시장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나: 네, 좋아요. 시장에 가는 김에 맛있는 음식도 먹어요. 가: 그럼, 무엇을 먹을 건지 잘 생각해 놓으세요. 나: 걱정 마세요. 벌써 다 생각해 뒀어요.</p> <p>가: 앤디야 어디에 가? 나: 도서관에 책 좀 반납하러 가는 길이야. 가: 그래? 혹시 반납하는 김에 내 책도 같이 반납해 줄 수 있어? 나: 당연히 해 줄 수 있지. 어서 책 줘.</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앤디 씨, 건강검진 받는 김에 저번에 다쳤던 곳까지 검사 받으세요. · 수지야, 냉장고에서 물 꺼내는 김에 주스도 꺼내 줘. · 스파게티를 만드는 김에 샐러드도 만들어 줄게요. · 세탁소에 옷을 맡기는 김에 신발도 맡겼어요. · 왕밍, 세탁소에서 옷 찾는 김에 내 옷도 같이 찾아줘. · 경복궁을 구경하는 김에 시청에도 가 보세요. · 내 컴퓨터 고치는 김에 네 것도 고쳐 줄게. · 이번 주말에 청소를 하는 김에 빨래도 했다. · 흐엉, 커피 뽑는 김에 유자차도 뽑아 줄 수 있어? · 다음 달에 부산에 가는 김에 생선회도 실컷 먹어야겠습니다.

+ '-는 김에'는 어떤 행위를 하는 기회에 더불어 다른 행위를 함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그러므로 앞의 행위와 뒤의 행위는 의미적으로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야 한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는 김에 주스도 꺼내 줘', '스파게티를 만드는 김에 샐러드도 만들어 줄게요', '세탁소에 옷을 맡기는 김에 신발도 맡겼어요', '청소를 하는 김에 빨래도 했다', '커피를 뽑는 김에 콜라도 뽑아 줄 수 있어?' 등의 예문에서와 어떤 행위를 앞서 하는데, 그 기회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다른 행위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도입]

<p>(1)</p> <p>교사: 왕밍 씨, 주말에 뭐 할 거예요? 학생: 친구랑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교사: 왕밍 씨는 영화관에 갈 거예요. 선생님도 표를 예매하러 영화관에 가야 해요. 혹시 선생님 표를 좀 예매해 줄 수 있어요?</p>

학생: 네, 예매해 드릴 수 있어요.

교사: 고마워요. 자, 여러분, 왕밍 씨는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가요. 그리고 선생님 영화표도 예매할 거예요. 왕밍 씨는 영화관에 **가는 김에** 선생님 표도 예매할 거예요.

(2)

교사: 줄리아 씨는 방학 때 고향에 다녀왔어요?

학생: 네, 부모님을 만나러 고향에 다녀왔어요.

교사: 고향에 가서 부모님만 만나고 왔어요?

학생: 아니요. 친구들도 만나고 쉬고 왔어요.

교사: 줄리아 씨는 부모님을 만나러 고향에 갔어요. 그런데 고향에 갔으니까 부모님은 물론 만났고 또 친구도 만나고 쉬기도 했어요. 부모님을 만나러 고향에 **간 김에** 친구도 만나고 쉬고 왔어요.

- + 도입(1)은 교사가 학생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지 물어 보고 나서, 그와 관련된 행위를 하도록 부탁함으로써 '-는 김에'의 의미를 제시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때 먼저 교사의 부탁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교사의 부탁과 상관없이 그 일을 해야 하므로 그와 관련된 질문을 먼저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회에 교사의 부탁도 더불어 해줄 수 있는지를 설명하여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야 함에 주의한다.
- + 도입(2)는 원래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데 그와 관련된 다른 일을 하는 상황으로 학습자의 경험을 떠올려 '-는 김에'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형태 정보]

- ① 동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는 김에'를 쓴다.

예) 씻- + -는 김에 → 씻는 김에 읽- + -는 김에 → 읽는 김에
 먹- + -는 김에 → 먹는 김에 보- + -는 김에 → 보는 김에
 가- + -는 김에 → 가는 김에 사- + -는 김에 → 사는 김에
 살- + -는 김에 → 사는 김에 놀- + -는 김에 → 노는 김에
 만들- + -는 김에 → 만드는 김에

①	받침 0	+ -는 김에	씻는 김에, 읽는 김에, 먹는 김에
	받침 ×	+ -는 김에	보는 김에, 가는 김에, 사는 김에
	ㄹ 받침	+ -는 김에 (어간 'ㄹ' 탈락)	사는 김에, 노는 김에, 만드는 김에

- + '-는 김에'는 동사 어간의 받침 유무에 상관없이 형태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ㄹ' 받침으로 끝나는 동사의 경우는 'ㄹ'이 탈락함에 주의한다.

[문장 구성 정보]

① 앞 절과 뒤 절의 시제가 같거나 달라도 된다.

예) 부산으로 **출장가는 김에** 친구도 만난다.
부산으로 **출장가는 김에** 친구도 만났다.
부산으로 **출장가는 김에** 친구도 만날 것이다.
부산으로 **출장간 김에** 친구도 만난다.
부산으로 **출장간 김에** 친구도 만났다.
부산으로 **출장간 김에** 친구도 만날 것이다.

② 과거는 '-은/ㄴ 김에'의 형태로 사용되지만, 미래를 나타내는 '-을 김에'의 형태는 사용되지 않는다.

예) 명동에 **간 김에** 쇼핑을 했어요. (o) / 명동에 **가는 김에** 쇼핑을 했어요. (o)
영수를 **만난 김에** 영화를 봤어요. (o) / 영수를 **만나는 김에** 영화를 봤어요. (o)
명동에 **갈 김에** 청소를 할 거예요. (x) / 아기가 **자는 동안에** 청소를 할 거예요. (o)
영수를 **만날 김에** 영화를 볼 거예요. (x) / 영수를 **만나는 김에** 영화를 볼 거예요. (o)
+ 뒤 절이 과거일 때 앞 절은 '-은/ㄴ 김에'와 '-는 김에'를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뒤 절이 추측이나 미래의 의미를 나타낼 때 앞 절에는 '-을 김에'가 올 수 없다.

[제약 정보]

①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방이 **추운 김에** 옷을 두껍게 입어요. (x)
건강에 **좋은 김에** 운동을 시작하세요. (x)

② 과거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명동에 **갔는 김에** 쇼핑을 했어요. (x)
영수를 **만났는 김에** 영화를 봤어요. (x)
명동에 **가겠는 김에** 쇼핑을 할 거예요. (x)
영수를 **만나겠는 김에** 영화를 보겠어요. (x)
명동에 **간 김에** 쇼핑을 했어요. (o)
영수를 **만나는 김에** 영화를 볼 거예요. (o)

③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아야 한다.

예) (내가) 찌개를 **끓이는 김에** (내가) 밥을 했다.
(네가) 도서관에 **가는 김에** (네가) 내 책도 빌려줄 수 있어?
왕밍이 마트에 **가는 김에** (왕밍이) 고기를 사다주기로 했어요.
+ 첫 예문의 앞 절과 뒤 절의 주어는 화자이고, 동일하다. 이때, 주어는 주로 생략된다. 두 번째 예문은 앞 절은 '너', 즉 청자가 주어이며, 뒤 절도 동일하게 '너'가 주어이며 이 또한 구어에서 생략이 가능하다. 세 번째 예문도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왕밍으로 동일하다. 이처럼 '-는 김에'로 연결되는 두 문장의 주어는 같아야 한다.

[확장]

① 조사 '에'를 생략할 수 없다.

예) 청소하는 김 빨래도 했다. (x)

청소하는 김에 빨래도 했다. (o)

산책을 나가는 김 장을 봐 올게요. (x)

산책을 나가는 김에 장을 봐 올게요. (o)

+ 부사절을 이끄는 다른 표현('는 탓에', '-는 바람에', '-는 동안에', '-는 사이에')과 달리 '-는 김이다', '-는 김으로', 'N 김에' 등의 구성으로 쓸 수 없다. '-는 탓에', '-는 바람에', '-는 동안에', '-는 사이에' 등처럼 유사한 구성들과 비교하여 확장 가능한 구성과 그렇지 못한 구성에 대한 항목별 차이를 구별하여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유사 문법]

① '-는 김에', '-으면서'

-는 김에	-으면서
· '둘 이상의 행위를 함께 함'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 어떤 행위가 선행되는데 그 기회에 다른 행위를 한다는 뜻이다. 주요 행위가 앞에 나오고 그 기회에 하는 부수적인 행위가 뒤에 나오므로 앞 절과 뒤 절을 바꾸면 의미가 바뀐다. 예) 내 책상을 닦는 김에 내 짝 책상도 닦았다. ≠ 내 짝 책상을 닦는 김에 내 책상도 닦았다.	· 두 가지 행위를 겹하여 동시에 한다는 뜻이 강하다. 앞 절과 뒤 절을 바꾸어도 의미가 바뀌지 않는다. 예) 내 책상을 닦으면서 내 짝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 내 짝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책상을 닦았다.
+ '-으면서'를 사용한 문장은 '책상을 닦는 행위와 이야기를 하는 행위를 동시에 했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에 비해 '-는 김에'를 사용한 문장은 '내 책상을 닦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지만 그 기회에 내 짝의 책상도 더불어 닦아 주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顺便', '随手', '顺……', '乘……', '趁……', '既然……就'와 대응함.

예) 지방에 출장 간 김에 고향에 들려 부모님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到地方出差, 顺便路过家乡拜见了父母.

발간실을 지나는 김에 내 편지가 도착했는지 좀 확인해 주게나. -你经过收发室, 顺便确认一下我的信件到了没有.

나가는 김에 에어컨을 좀 꺼주세요. -离开时请随手关空调.

승리한 김에 더 추격해서 아예 완승합시다. -乘胜追击, 干脆取得全胜吧.

말이 나온 김에 응낙했지만 곧바로 후회하고 말았네요. -顺口答应了, 可马上又后悔了.

거리에 나가는 김에 나에게 도시락을 하나 사다 주렴. -你逛街的时候, 趁便给我买个盒饭回来吧.

회사까지 온 김에 아들 얼굴을 한 번 보고 가자. -既然来了公司, 就见儿子一面再走吧.

② 용법과 오류

- 과거 '-었-'과 결합하지 않지만 중국어의 '既然……就'에서는 과거완료의 '了'가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회사까지 왔는 김에 아들을 만나 보고 가자. (x) - 既然来了公司, 就见儿子一面再走吧. (o)

못 본 지 오래된 친구를 만났는 김에 한참이나 수다를 떨었어요. (x) - 既然见了久别的朋友, 就唠叨了一阵子. (o)

너 시장에 갔는 김에 과일 좀 사오려무나. (x) - 你既然去了菜市场, 就卖点水果回来呗. (o)

네가 이왕 했는 김에 이 일도 겸행해라. (x) - 你已经干上了, 就把这件事也兼上吧. (o)

- 미래를 나타내는 '-을 김에'의 형태가 사용되지 않지만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들은 시제 구분없이 사용하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나갈 김에 에어컨을 좀 꺼 주세요. (x) - 你要离开时请随手关空调. (o)

내일 퇴근할 김에 채소를 좀 사다 주세요. (x) - 明天你下班的时候, 顺便买些菜回来. (o)

회사까지 올 김에 한 번 보고 가자. (x) - 既然要来公司, 见个面再走吧. (o)

-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지만 대응하는 중국어에서는 동사에 시제 표현 없이 사용하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나가겠는 김에 에어컨을 좀 꺼주세요. (x) - 你要离开时请随手关空调. (o)

내일 퇴근하겠는 김에 채소를 좀 사다 주세요. (x) - 明天你下班的时候, 顺便买些菜回来. (o)

회사까지 오겠는 김에 한 번 보고 가자. (x) - 既然要来公司, 见个面再走吧. (o)

3.6.11 ‘-는다거나2’

-는다거나2[-는다거나2]{-다거나/-라거나}[표현] 반대되는 어떤 하나를 선택함을 나타내는 표현.

- 는다거나2: (동사, 형용사나 '있다, 없다, 계시다'에 붙어) 반대되는 사실들 중 하나를 선택함을 나타낸다.

[예문]

<p>담화예문</p>	<p>가: 앤디야, 오늘 우리집에 가서 숙제 같이 할래? 나: 글썄..... 가: 오늘 무슨 약속 있어? 나: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가: 답답하게 그러지 말고 간다거나 못 간다거나 빨리 말해 줘. 나: 미안해. 가고는 싶은데 가려면 약속을 하나 취소해야 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고 말해 줄게. 가: 수지야, 어제 많이 기다렸니? 연락 늦게 해서 미안해. 나: 못 오면 못 온다고 빨리 말을 해야지, 왜 그랬어? 가: 사실은 어제 피곤해서 잠깐 눕는다는 게 그만 자 버렸지 뭐야. 나: 그랬구나. 알람이라도 맞춰놓고 잤어야지. 네가 못 온다거나 온다거나 하는 연락이 없어서 2시간이나 기다렸어.</p>
<p>문장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의 답이 이게 맞는다거나 틀리다거나 하는 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 줄리아한테 사실을 말한다거나 말하지 않는다거나 결정을 해야 할 것 아니야. · 오늘 저녁에 시간이 있다거나 없다고 먼저 얘기해 주세요. · 선생님이 결혼을 했다거나 안 했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 말이에요? · 그 사람이 좋다거나 싫다거나 하는 네 감정을 솔직히 말해 봐. · 저녁을 같이 먹는다거나 못 먹는다고 전화로 알려 주세요. · 수술을 받겠다거나 안 받겠다고 한 달 안에 결정해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 상을 탄다거나 못 탄다고 빨리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가 범인이라는 것이 사실이라거나 거짓이라거나 진실은 둘 중 하나이다. · 거기가 여기보다 덥다거나 춥다거나 말씀해 주셔야 옷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는다거나2’는 반대되는 상황을 제시하여 선택을 요구해야 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는다고 하거나’를 줄인 말이다.

+ ‘문제의 답이 이게 맞는다거나 틀리다거나 하는 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는 문제의 답이 맞는지 또는 틀리는지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알고 싶다는 의미이다. ‘줄리아한테 사실을 말한다거나 말하지 않는다거나 결정을 해야 할 것 아니야’는 사실을 말하든지 말하지 않든지 한 가지를 결정하라고 따지는 것이다. ‘오늘 저녁에 시간이 있다거나 없다고 먼저 얘기해 주세요’는 저녁에 시간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에 대해 말해 달라는 것이다. ‘선생님이 결혼을 했다거나 안 했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 말이에요?’는 선생님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사실이 맞는지 묻는 것이다. 위의 예문은 모두 반대 상황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해야 하는 ‘-는다거나2’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도입]

(1)

교사: 주말에 다 함께 공연을 보러 갈까요?

학생: 좋아요./싫어요.

교사: 모두 시간 괜찮아요? 주말에 공연을 '본다, 보지 않는다'에 대해 손을 들고 결정해 볼까요? 공연을 **본다거나** 보지 **않는다거나** 하는 걸 결정해 볼까요? '-는다거나'는 반대되는 걸 가지고 선택할 때 사용해요.

(2)

교사: 오늘 수업을 쉬는 시간 없이 한꺼번에 하고 일찍 끝낼까요?

학생: 좋아요./싫어요.

교사: '쉬어야 한다, 쉬지 않아도 된다'를 다수결로 결정해 주세요. 쉬어야 **한다거나** 쉬지 않아도 **된다거나** 하는 걸 결정해 주세요.

+ 도입(1), 도입(2) 어떤 것에 대한 찬반을 결정하는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반대되는 상황을 가지고 선택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는다거나'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구성하였다. 상황에 맞게 다양한 찬반 주제를 가지고 도입 활동을 구성할 수 있겠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는다거나'를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나는 동사는 제외한다.

예)	씻- + -는다거나 → 씻는다거나	읽- + -는다거나 → 읽는다거나
	먹- + -는다거나 → 먹는다거나	눅- + -는다거나 → 눅는다거나
	잡- + -는다거나 → 잡는다거나	찾- + -는다거나 → 찾는다거나
	남- + -는다거나 → 남는다거나	앉- + -는다거나 → 앉는다거나

② 동사 어간의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ㄴ다거나'를 쓴다.

예)	오- + -ㄴ다거나 → 온다거나	하- + -ㄴ다거나 → 한다거나
	쉬- + -ㄴ다거나 → 쉰다거나	보- + -ㄴ다거나 → 본다거나
	가- + -ㄴ다거나 → 간다거나	사- + -ㄴ다거나 → 산다거나
	살- + -ㄴ다거나 → 산다거나	놀- + -ㄴ다거나 → 논다거나
	만들- + -ㄴ다거나 → 만든다거나	

①	받침 ○	+ -는다거나	씻는 다거나, 읽는 다거나, 먹는 다거나, 눅는다거나, 잡는다거나, 찾는다거나, 남는다거나, 앉는다거나
②	받침 ×	+ -ㄴ다거나	온다거나, 한다거나, 쉰다거나,

			본다거나, 간다거나, 산다거나
	ㄹ 받침	+ -ㄴ다거나 (어간 'ㄹ' 탈락)	산다거나, 논다거나, 만든다거나

- ③ 형용사 어간의 끝음절에 받침 유무에 상관없이 '-다거나'을 쓴다.

예) 작- + -다거나 → 작다거나
 짧- + -다거나 → 짧다거나
 좋- + -다거나 → 좋다거나
 크- + -다거나 → 크다거나
 싸- + -다거나 → 싸다거나
 길- + -다거나 → 길다거나

많- + -다거나 → 많다거나
 높- + -다거나 → 높다거나
 맑- + -다거나 → 맑다거나
 예쁘- + -다거나 → 예쁘다거나
 깨끗하- + -다거나 → 깨끗하다거나
 멀- + -다거나 → 멀다거나

+ '-았-', '-겠-' 뒤에도 '-다거나'를 쓴다.

③	받침 ㅇ	+ -다거나	작다거나, 많다거나, 짧다거나, 높다거나, 좋다거나, 맑다거나
	받침 x	+ -다거나	크다거나, 예쁘다거나, 싸다거나, 깨끗하다거나
	ㄹ 받침	+ -다거나	길다거나, 멀다거나

- ④ '이다, 아니다'는 '-라거나'를 쓴다. 단,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주로 '명사+-라거나'라고 쓴다.

예) 외국인이- + -라거나 → 외국인이라거나
 학교이- + -라거나 → 학교라거나
 아니- + -라거나 → 아니라거나

꽃이- + -라거나 → 꽃이라거나
 의사이- + -라거나 → 의사라거나

[문장 구성 정보]

- ① '-는다거나 -는다거나', '-는다거나 -는다고'의 구성으로 주로 사용된다. 이때 둘은 반대되는 내용이 오며, 긍정형과 부정형이 오는 경우가 많다.

예) 왕밍 씨, 이제는 여행을 **간다거나 못 간다거나** 대답을 확실히 해 주세요.
 흐엉, **좋다거나 싫다고** 말 좀 해 줘.
 선생님, 내일 시험을 **본다거나** 다음 주에 시험을 **본다거나** 하면 반드시 먼저 알려 주세요.

[제약 정보]

- ①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

예) 제가 장학금을 받게 **된다거나** 받지 **못한다거나** 하는 사실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열이 **난다거나** 나지 않는다고 (네가) 간호사에게 알려 주세요.

- ② 과거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여 '-었다거나', '-겠다거나'의 형태로 사용된다.

예) 영수야, 가만히 있지 말고 **알았다거나 몰랐다거나** 하는 대답을 해 봐.
수지가 그 날 **만나겠다거나** 안 만나겠다고 결정하면 알려줄게.
흐영 씨, 이 일을 **하겠다거나** 하지 **못하겠다거나** 빨리 결정 부탁드립니다.
수지야, **아팠다거나** 아프지 **않았다거나** 하는 말을 해 줘야 알지.

+ 과거를 '-ㄴ/은다거나'로, 미래를 '-을다거나'의 형태로 쓰지 않는다.

[유사 문법]

① '-는다거나2'와 '-는다거나1'

-는다거나2	-는다거나1
· '어떤 일을 나열하여 선택함'을 나타낸다.	
· 반대되는 상황에서 한 가지를 선택함을 나타낸다. 예) 회의에 참석하겠다거나 못 하겠다고 알려 주십시오. 기분이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해 보세요. 머리가 아프다거나 안 아프다거나 하는 걸 정확히 말해 주세요.	· 둘 이상의 행위나 사실을 나열함을 나타낸다. 예) 주말에는 청소를 한다거나 빨래를 하며 밀린 집안일을 합니다. 방학에 여행을 간다거나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하는 계획 있어요? 왕밍 씨, 여자 친구가 착하다거나 예쁘다거나 하는 자랑 좀 해 보세요.

+ '-는다거나2'는 대립되는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나열의 의미는 연결어미 '-는다거나1'로 쓴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要么.....要么.....', '是.....还是.....'

예) 집에 **온다거나 못 온다거나** 하는 연락도 없이 불쑥 나타나면 어떡해? - 回家还是不回也不联系, 突然就回来你让我怎么办?
저녁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다거나 없다거나** 미리 알려 주십시오. - 要么能一起吃晚餐, 要么不能吃, 请提前告诉一声.
그 사람에 대해 **좋다거나 싫다거나** 태도 표시를 해야 할 것 아니니? - 对对方喜欢还是不喜欢, 总得有个表态啊?
여행지가 **덥다거나 춥다거나** 정보를 알고 떠나야 해요. - 旅游景点热还是冷, 知道一些信息后出发才对啊.
얼굴만 쳐다보지 말고 계속 **만나겠다거나 안 만나겠다거나** 대답을 좀 해 봐. - 别只看着脸, 要么继续见人, 要么不见你回答呀.
도둑질을 **했다거나 하지 않았다거나** 사실대로 말해. - 偷了还是没偷要说实话.
아팠다거나 아프지 **않았다거나** 하는 말을 해 줘야 알지. - 疼过还是没疼过, 你说了才知道.

그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거나 거짓이라거나**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 - 他所说的是事实还是谎言我们无法判断.

② 용법과 오류

- '이다, 아니다'와 결합할 때는 '-는다거나' 대신 '-라거나'를 쓰는데 대응하는 중국어는 이런 차이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사실이다거나 거짓이다거나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x) ('사실이라거나 거짓이라거나'를 써야 할 경우)

사과다거나 바나나다거나 한가지 밖에 살수 없다. (x) ('사과라거나 바나나라거나'를 써야 할 경우)

- 형용사 어간의 끝음절에 받침 유무에 상관없이 '-다거나'를 쓰지만 동사에서는 구별해 쓴다. 대응하는 중국어에서는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이 따로 없이 사용되므로 형용사에서도 구분해 쓰는 오류가 나타난다.

예) 공의 크기가 크다거나 작다거나 알려줘야 합니다. (x)
등산 코스 거리가 먼다거나 짧다거나 선택해야 합니다. (x)

-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여 사용되지만 중국어는 '-겠-'에 대한 대응 표현이 없이 사용되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이후로 계속 만난다거나 안 만난다거나 결정하면 알려줄게. (x) ('만나겠다거나'를 써야 할 경우)

내일부터 이 일을 한다거나 하지 못한다거나 빨리 결정 부탁드립니다. (x) ('하겠다거나'를 써야 할 경우)

3.6.12 '-는 대로'

-는 대로1[-은 대로2(-ㄴ 대로1)]{-은 대로1[-ㄴ 대로2]}[표현] 1) 어떤 동작이나 상태와 같은 모양으로, 2) 어떤 일이 일어나고 곧바로 나타내는 표현.

- **는 대로1**: (동사, 형용사나 있다, 없다, 계시다에 붙어) '어떤 동작이나 상태와 같은 모양으로'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앞 절의 동작이나 상태와 같은 모양으로 뒤 절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앤디야, 내년에도 한국에 있을 거야? 나: 응, 내년에 한국에서 취직을 하게 되면 한국에 있고 싶어. 가: 한국에서 취직하려고?
------	--

	<p>나: 응, 한국에서 취직이 되면 여기에서 계속 살고 싶어.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p> <p>가: 열심히 준비하면 원하는 대로 다 될 거야.</p> <p>나: 고마워. 생각하는 대로 다 되면 좋겠어.</p> <p>가: 줄리아 씨, 면접 시험이 언제예요?</p> <p>나: 내일이요. 그래서 많이 긴장돼요.</p> <p>가: 시험이 내일이에요? 정말 긴장되겠어요. 준비는 많이 했어요?</p> <p>나: 네, 한 달 동안 연습하고 준비했지만 그래도 걱정되고 떨려요.</p> <p>가: 그렇게 열심히 연습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연습한 대로 하면 문제 없을 거예요.</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지가 먹는 대로 똑같이 먹으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거야. · 줄리아한테 내가 말하는 대로 전해 줘. · 선생님이 만드는 대로 따라하세요. ·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는 대로 따라 쳐 보세요. · 이 안경을 쓰고 보이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내가 공부한 대로 시험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 · 부모님께 배운 대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 선생님께 들은 대로 말해 줄 수 있어요? · 왕밍 씨, 수업 시작했으니까 급한 대로 제 책을 같이 보고 나중에 책을 사세요. · 날씨가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다.

- + ‘-는 대로1’)은 어떤 것과 같은 모양으로 다른 것을 한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수지가 먹는 대로 똑같이 먹으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거야’는 수지가 먹는 행동의 방식이나 먹는 양과 똑같이 먹으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거라는 의미이다. ‘줄리아한테 내가 말하는 대로 전해 줘’는 줄리아한테 자신이 말하는 내용이나 방식을 동일하게 하여 전해 달라는 의미이다. ‘선생님이 만드는 대로 따라하세요’는 선생님이 만드는 방식과 모양을 보고 그것을 따라 만들어 보라는 의미이다. ‘선생님께 들은 대로 말해 줄 수 있어요?’는 선생님께 들은 것과 내용이나 느낌을 동일하게 말해 달라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는 대로1’)은 앞 절의 행동이나 상황, 방식을 똑같이 반복해야 하거나 전해 줘야 할 때에 사용되는 표현이다.
- + ‘-는 대로’는 동사에, ‘-은 대로’는 형용사와 결합하며, 동사의 과거를 나타낼 때는 ‘-은 대로’가 결합한다.

[도입]

(1)

교사: (그림을 그리며) 뭘 그린 것 같아요?

학생: 나무요.

교사: 왕밍 씨, 앞에 나와서 선생님이 그린 그림을 똑같이

<p>따라 그려 보세요.</p> <p>학생: 네.</p> <p>교사: 왕밍 씨가 선생님의 그림을 똑같이 따라 그렸어요. 선생님이 그리는 대로 왕밍 씨가 그림을 그렸어요.</p> <p>(2)</p> <p>교사: 여러분 즐겨요? (기지개를 펴며) 저를 따라 해 보세요. 선생님이 한 동작을 따라하니 어때요?</p> <p>학생: 즐리지 않아요.</p> <p>교사: 선생님이 한 동작을 따라하니 즐리지 않아요. 선생님이 한 대로 하니 즐리지 않아요.</p> <p>(3)</p> <p>교사: 여러분, 떡볶이 좋아해요?</p> <p>학생: 네.</p> <p>교사: 떡볶이 맵지 않아요? 매운데 괜찮아요?</p> <p>학생: 맵지만 괜찮아요. 매워도 맛있어요.</p> <p>교사: 맵지만 괜찮아요. 매워도 맛있어요. 떡볶이는 맵지만 매운 대로 괜찮아요. 매운 대로 맛있어요.</p>
--

- + 도입(1)과 도입(2)는 동사와 결합하는 '-는 대로1)'과 관련한 제시이다. 도입(1)은 교사가 그린 그림을 보고 똑같이 그리도록 하여 사물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도입(2)는 교사의 동작을 똑같이 따라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는 대로1)'의 동작을 따라한다는 의미를 이해하도록 할 수 있다.
- + 도입(3)은 형용사와 결합하는 '-는 대로1)'과 관련한 제시이다. 형용사와 결합하여 '현재의 상태와 같은 모양 그대로'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떡볶이가 맵지만, 매워도 매운 상태 그대로 먹을 수 있고, 맛있다는 상황을 통하여 '-는 대로1)'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형태 정보]

- ① 동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는 대로'를 쓴다.

예)	씻- + -는 대로 → 씻는 대로	읽- + -는 대로 → 읽는 대로
	먹- + -는 대로 → 먹는 대로	보- + -는 대로 → 보는 대로
	가- + -는 대로 → 가는 대로	사- + -는 대로 → 사는 대로
	살- + -는 대로 → 사는 대로	놀- + -는 대로 → 노는 대로
	만들- + -는 대로 → 만드는 대로	

①	받침 0	+ -는 대로	씻는 대로, 읽는 대로, 먹는 대로
	받침 ×	+ -는 대로	보는 대로, 가는 대로, 사는 대로
	ㄹ 받침	+ -는 대로	사는 대로, 노는 대로, 만드는 대로

		(어간 'ㄹ' 탈락)	
--	--	-------------	--

+ '-는 대로'는 동사 어간의 받침 유무에 상관없이 형태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ㄹ' 받침으로 끝나는 동사의 경우는 'ㄹ'이 탈락함에 주의한다.

② 형용사 어간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은 대로'를 쓴다.

예) 작- + -은 대로 → 작은 대로 많- + -은 대로 → 많은 대로
 짧- + -은 대로 → 짧은 대로 높- + -은 대로 → 높은 대로
 좋- + -은 대로 → 좋은 대로 맑- + -은 대로 → 맑은 대로

③ 형용사 어간의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ㄴ 대로'를 쓴다.

예) 크- + -ㄴ 대로 → 큰 대로 예쁘- + -ㄴ 대로 → 예쁜 대로
 싸- + -ㄴ 대로 → 싼 대로 깨끗하- + -ㄴ 대로 → 깨끗한 대로
 길- + -ㄴ 대로 → 긴 대로 멀- + -ㄴ 대로 → 먼 대로

②	받침 ㅁ	+ -은 대로	작은 대로, 많은 대로, 짧은 대로, 높은 대로, 좋은 대로, 맑은 대로
	받침 x	+ -ㄴ 대로	큰 대로, 예쁜 대로, 싼 대로, 깨끗한 대로
③	ㄹ 받침	+ -ㄴ 대로 (어간 'ㄹ' 탈락)	긴 대로, 먼 대로

+ '-은 대로'는 형용사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며, 특히 'ㄹ' 받침으로 끝나는 형용사의 경우는 'ㄹ'이 탈락하고 '-ㄴ'이 결합한다. '길은 대로, 멀은 대로'처럼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불규칙

춡- 예) 추우면 **추운 대로** 여행하는 재미가 있어요.
 짓- 예) 내가 밥을 하면 엄마가 **지은 대로** 되지 않는다.
 빨강- 예) 피부가 하얗면 **하얀 대로** 까마면 **까만 대로** 각각 장점이 있다.

⑤ '있다, 없다'나 '있다, 없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합성어 '재미있다, 재미없다, 맛있다, 맛없다' 등의 형용사는 '-는'을 붙여 쓴다.

예) 나는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책이 재미가 없어도 **재미없는 대로** 끝까지 읽는 편이다.
 맛없으면 **맛없는 대로** 먹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문장 구성 정보]

①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거나 달라도 된다.

예) (내가) 한국어를 공부한 대로 (내가) 영어 공부도 해 볼 거예요.
네가 공부하는 대로 나도 공부해 봤더니 한국어를 잘할 수 있게 됐어.
왕밍이 공부한 대로 흐영도 한국어를 공부해 봤지만 왕밍처럼 한국어를 잘 할 수 없었다.

+ 첫 예문의 앞 절과 뒤 절의 주어는 화자이고, 동일하다. 이때, 주어는 구어에서는 주로 생략된다. 두 번째 예문은 앞 절은 '너', 즉 청자가 주어이며, 뒤 절은 화자인 '나'가 주어이다. 세 번째 예문은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다르다. 이처럼 '-는 대로'로 연결되는 두 문장의 주어는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

② 앞 절과 뒤 절의 시제가 같거나 달라도 된다.

예) 네가 **일하는 대로** 나도 일한다.
네가 **일하는 대로** 나도 일했다.
네가 **일하는 대로** 나도 일할 것이다.
네가 **일한 대로** 나도 일한다.
네가 **일한 대로** 나도 일했다.
네가 **일한 대로** 나도 일할 것이다.

③ 과거는 '-은/ㄴ 대로'의 형태로 사용된다.

예) 내가 **기다린 대로** 너는 기다릴 수 없을 거야.
줄리아 씨가 **참은 대로** 흐영 씨도 참아 보세요.
작년에 제주도 여행을 와서 **다닌 대로** 똑같이 다녀 보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해 줄 수 있어요?

[제약 정보]

① 과거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영수가 **알았는 대로** 나도 알았어. (x)
수지가 **피곤했는 대로** 나도 피곤해. (x)
영수가 **알겠는 대로** 나도 알았어. (x)
수지가 **피곤하겠는 대로** 나도 피곤해. (x)

② 앞 절에 부정 표현이 올 수 없다.

예) 영수가 돈을 **쓰지 않는 대로** 나도 돈을 쓰지 않을 거야. (x)
영수가 돈을 **안 쓰는 대로** 나도 돈을 안 쓸 거야. (x)
수지가 **자지 않는 대로** 나도 자지 않았다. (x)
수지가 **안 자는 대로** 나도 안 잤더니 피곤해. (x)

[확장]

① '-을 대로'의 구성으로 관용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예) 저도 **참을 대로** 참았어요.
저도 나이 **먹을 대로** 먹었는데, 왜 저한테 반말을 쓰세요?
한국에서 10년이나 살았더니 이제 한국에 대해서 **알 대로** 안다.
한때는 돈을 **쓸 대로** 다 써 본 적이 있었다.
네가 **좋은 대로** 해.
그는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책임감 없는 태도를 보였다.

+ '-을 대로'와 결합하는 동사가 뒤 절에 반복되는 형태로, 어떤 것에 대한 행위가 충분하며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며 '-을 수 있는 만큼'으로 바뀌 쓸 수 있다.

② 명사와 함께 쓰여 앞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을 나타낼 수 있다. 이때 '대로'은 조사로 명사에 붙여 쓴다.

예) 엄마 말**대로** 되면 좋겠다.

거짓말 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라.

모든 일이 네 생각**대로** 되지는 않을 거야.

선생님께서 성적**대로** 자리를 정해 주셨다.

+ 이때 '대로'는 '만큼'의 의미를 나타내지는 않음에 주의한다.

예) 작년의 더위**대로** 올해도 덥다. (x)

줄리아의 성공**대로** 나도 성공하고 싶다. (x)

노력**대로** 확실한 성공의 방법은 없다. (x)

③ '-있던 대로'로 과거를 나타낼 수도 있으며 동사 및 형용사가 모두 결합할 수 있다.

예) 언니가 열심히 공부**했던 대로** 나도 할 수 있을까?

엄마가 **챙겨주셨던 대로** 아빠도 우리를 챙겨주셨다.

아팠어도 **아팠던 대로** 전화 정도는 해 줄 수 있었잖아요?

놀이동산에 사람이 많았지만 **많았던 대로** 재미있었다.

④ 형용사와 결합할 때 '-은 대로' 앞에 결합된 형용사가 반복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예) 기분이 나빠도 **나쁜 대로** 참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넓은 방은 **넓은 대로** 청소하기 힘들 것 같고, 좁은 방은 **좁은 대로** 답답할 것 같아서 걱정이예요.

저는 밥이 맛없으면 **맛없는 대로** 맛있으면 **맛있는 대로** 잘 먹어요.

농구가 재미없어도 **재미없는 대로** 볼 만하지 않아요?

+ '-으면 -은 대로', '-어도 -은 대로', '-은 사람은 -은 대로' 등의 구성으로 자주 쓰인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按', '照' 또는 대응 표현 없이 사용됨.

예) 여러분들은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 하세요. - 各位请**照**我说的去做吧.

이번 일은 왕밍 씨가 **맘먹은 대로** 해 보세요. - 这次的事情**按**你的主意做吧.

언제든지 **시간 되는 대로** 오십시오. - 不管什么时候, 只要有时间就来吧.

수잔 씨는 소문에 **들은 대로** 과연 미인이시군요. - 名不虚传, 您果真是个美女啊.

요즘 **말한 대로** 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요. - 最近说话不算话的政界人士太多了.

선생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십시오. - 照老师吩咐的去办吧.

무엇이든 **갖고 싶은 대로** 가져도 됩니다. - 不管是什么, 想拿就拿走吧.

직원들은 회사가 **시키는 대로** 일만 하였습니다. - 职员们只是**照**公司指使的去工作而已.

② 용법과 오류

- 'ㄹ' 받침으로 끝나는 동사의 경우는 'ㄹ'이 탈락하고 형용사의 경우는 'ㄹ'이 탈락하고 '-ㄴ'이 결합하는데 중국어는 동사, 형용사에 이런 형태 변화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평소에 **살는 대로** 보여주면 돼. (x)

대학생들이 **놀는 대로** 고등학생들이 따라 하게 된다. (x)

선생님이 **만드는 대로** 따라하세요. (x)

머리카락이 **길면 길 대로** 멋을 낼 수 있어요. (x)

회사가 **멀면 멀 대로**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 (x)

- 과거는 '-은/ㄴ 대로' 혹은 '-있던 대로'의 형태로 사용되며 과거 '-었-'과는 결합하지 않는 데 중국어의 과거 '过', '了'는 이런 구분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서로 혼동해서 사용하는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내가 **기다렸는 대로** 너는 기다릴 수 없을 거야. (x)

줄리아 씨가 **참았는 대로** 흐영 씨도 참아 보세요. (x)

작년에 제주도 여행을 와서 **다녔는 대로** 똑같이 다녀 보자. (x)

선생님이 **말씀시었는 대로** 말해 줄 수 있어요?

영수가 **알았는 대로** 나도 알았어. (x)

수지가 **피곤했는 대로** 나도 피곤해. (x)

-는 대로2): (동사에 붙어) '앞 절의 행위가 끝나고 곧바로'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예문]

담화예문	<p>가: 혹시 이 자리에 있던 가방 못 보셨어요? 나: 가방 놓고 가셨어요? 여기서 못 본 것 같은데요. 가: 그래요? 분명히 여기에다 놓고 간 것 같거든요. 혹시 청소하시다가 찾게 되면 이 번호로 연락 좀 주시겠어요? 나: 네, 그럴게요. 가방을 찾게 되면 찾는 대로 바로 알려드릴게요.</p> <p>가: 수지 씨, 왕밍 씨가 요즘 연락이 안 돼요. 나: 왕밍 씨는 고향에 갔는데, 몰랐어요? 가: 그래요? 저는 고향에 간 것도 모르고 매일 전화가 안 돼서 걱정했네요. 방학 과제 하려면 왕밍 씨한테 빌려준 책이 꼭 필요하기도 하고요. 나: 왕밍 씨가 다음 주쯤에 온다고 했으니까 도착하는 대로 연락해 보라고 할게요.</p>
문장예문	<p>· 전화를 받는 대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업을 마치는 대로 집에 가야 해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향 소식을 듣는 대로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 한국어 시험에 합격하는 대로 대학 입학 준비를 할 거예요. · 저녁 먹는 대로 쇼핑하러 갈까요? · 돈이 생기는 대로 빌려간 돈을 먼저 갚을 거예요. · 영수가 들어오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 학교를 졸업하는 대로 결혼하고 싶어요. · 방학이 시작되는 대로 여행을 떠날 거예요. · 비가 그치는 대로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	---

+ '-는 대로2'는 앞 절의 행위가 끝나는 그 시간을 의미한다. '전화를 받는 대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는 전화를 받으면 곧바로 알려달라는 의미이다. '수업을 마치는 대로 집에 가야 해요'는 수업을 마치자마자 바로 집에 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고향 소식을 듣는 대로 저에게도 알려주세요'는 고향 소식을 들으면 바로 알려달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는 대로2'는 '어떤 일이 끝나자마자'의 의미로 사용된다.

[도입]

(1)	<p>교사: 시험이 끝난 후에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게 뭐예요?</p> <p>학생: 자고 싶어요.</p> <p>교사: 왕밍 씨는 시험이 끝난 후에 첫 번째로 자고 싶어요. 시험이 끝나는 대로 자고 싶어요. 흐영 씨는 시험이 끝난 다음에 뭐 하고 싶어요?</p> <p>학생: 저는 게임을 하고 싶어요.</p> <p>교사: 흐영 씨는 시험이 끝난 후에 바로 게임을 하고 싶어요. 시험이 끝나는 대로 게임을 하고 싶어요. '-는 대로'는 어떤 일 다음에 바로 다른 일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써요.</p>
(2)	<p>교사: 줄리아 씨, 언제 결혼하고 싶어요?</p> <p>학생: 취직하게 되면 바로 결혼 하고 싶어요.</p> <p>교사: 줄리아 씨는 취직한 다음에 바로 결혼하고 싶어요. 취직하는 대로 결혼하고 싶어요. 수지 씨는요?</p> <p>학생: 저는 돈을 많이 벌면 결혼할 거예요.</p> <p>교사: 수지 씨는 돈을 많이 벌면 바로 결혼할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대로 결혼할 거예요.</p>

+ 도입(1)은 시험이 끝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즉 뒤 절의 내용에 대해 물어보며 '-는 대로'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도입(2)는 앞 절에 해당하는 내용을 물어봄으로써 '-는 대로'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형태 정보]

앞의 '-는 대로1')을 참고하되, 형용사와는 결합하지 않음에 주의한다.

[문장 구성 정보]

①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거나 달라도 된다.

예) (내가) 한국어 수업을 **마치는 대로** (내가) 영어 수업을 들을 거예요.

네가 나한테 빌린 돈을 **갚는 대로** (나는) 차를 살 거야.

사람들이 밥을 **먹는 대로** 흐영이 설거지를 했다.

+ 첫 예문의 앞 절과 뒤 절의 주어는 화자이고, 동일하다. 이때, 주어는 구어에서는 주로 생략된다. 두 번째 예문은 앞 절은 '너', 즉 청자가 주어이며, 뒤 절은 화자인 '나'가 주어이다. 세 번째 예문은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다르다. 이처럼 '-는 대로'로 연결되는 두 문장의 주어는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

② 앞 절과 뒤 절의 시제가 같거나 달라도 된다.

예) 흐영 씨가 **오는 대로** 회의를 시작한다.

흐영 씨가 **오는 대로** 회의를 시작했다.

흐영 씨가 **오는 대로** 회의를 시작할 것이다.

[제약 정보]

①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한국어 공부가 **어려운 대로** 영어 공부가 어렵기 시작했다. (x)

머리가 **아픈 대로** 배도 아팠다. (x)

날씨가 **흐린 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x)

배가 **고픈 대로** 밥을 먹었다. (x)

② 과거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줄리아가 **갔는 대로** 밥을 먹었다. (x)

흐영 씨가 **왔는 대로** 회의를 시작했다. (x)

줄리아 씨가 **가겠는 대로** 밥을 먹자. (x)

흐영 씨가 **오겠는 대로** 회의를 시작할 것이다. (x)

③ '-은/ㄴ 대로', '-을 대로'의 형태로 사용되지 않는다.

예) 줄리아가 **간 대로** 밥을 먹었다. (x)

흐영 씨가 **온 대로** 회의를 시작했다. (x)

줄리아 씨가 **갈 대로** 밥을 먹자. (x)

흐영 씨가 **올 대로** 회의를 시작할 것이다. (x)

④ 앞 절에 부정 표현이 올 수 없다.

예) 영수가 **도착하지 않는 대로** 전화 주세요. (x)

수지가 **안 자는 대로** 나도 안 잘 거야. (x)

시험이 **안 끝나는 대로** 잠을 잘 거예요. (x)

- 비가 **그치지 않는 대로** 집에 있을 거야. (x)
 + 행위를 마쳐야 하는 시간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의미와 결합될 수 없다.

[확장]

- ①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는 그때'라는 의미가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는 때마다', '어떤 동작이 나타나는 하나하나'라는 의미로 확장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예) **틈나는 대로** 영어 공부를 할 거예요.
용돈을 받는 대로 다 써 버리는 편이다.
발길이 닿는 대로 가고 싶다.
 할머니께서 **주시는 대로** 다 먹다가는 배탈이 나고 말 거예요.

[유사 문법]

- ① '-는 대로2)', '-자마자'

-는 대로2)	-자마자
· 앞 절의 동작이 이루어지고 곧 다음 절의 동작이 일어남을 나타낸다. 예) 도착하자마자 연락드리겠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 앞뒤의 상황이 우연적인 경우에 사용할 수 없다. 예) 집을 나서는 대로 비가 왔다. (x) 수업이 끝나는 대로 전화벨이 울렸다. (x)	· 앞뒤의 상황이 우연적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예) 집을 나서자마자 비가 왔다. (o) 수업이 끝나자마자 전화벨이 울렸다. (o)
· 과거 상황에는 잘 쓰이지 않는다. 예) 어제는 집에 들어가는 대로 잤어요. (x) 어제는 밥을 먹는 대로 이를 닦았어요. (x)	· 과거 상황에서도 많이 쓰인다. 예) 어제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잤어요. (o) 어제는 밥을 먹자마자 이를 닦았어요. (o)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 ① 대응 표현: '就' 또는 대응 표현 없이 사용됨.

예) 서울에 **도착하는 대로** 전화로 연락해라. - 到了首尔就用电话联系.
 내일 새벽 날이 **밝는 대로** 출발하자. - 明天天一亮就出发吧.
 이 사건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선생님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 我处理完这件事, 就尽快赶到老师办公室去.
 서류를 검토한 후 **결정되는 대로** 사장님께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 审核材料之后, 决定了就给您打电话的.

- ② 용법과 오류

-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지만 대응하는 중국어 '就'는 이런 제약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날씨가 **흐린 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x) - 阴天了, 就开始下雨了.

배가 **고픈 대로** 밥을 먹었다. (x) - 肚子饿了, 就吃了饭.

- 과거 '-었-'과 '-은/ㄴ 대로' 형태로 결합하지 않지만 중국어의 '就'는 시제와 관계없이 사용하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서울에 **도착했는 대로** 전화로 연락해라. (x) - 到了首尔就用电话联系.

서울에 **도착한** 전화로 연락해라. (x) - 到了首尔就用电话联系.

이 사건이 **끝났는 대로** 곧바로 선생님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x) - 我处理完这件事, 就尽快赶到老师办公室去.

이 사건이 **끝난 대로** 곧바로 선생님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x) - 我处理完这件事, 就尽快赶到老师办公室去.

서류를 검토한 후 **결정됐는 대로** 사장님께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x) - 审核材料之后, 决定了就给您打电话的.

서류를 검토한 후 **결정된 대로** 사장님께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x) - 审核材料之后, 决定了就给您打电话的.

- '-을 대로' 및 미래·추측의 '-겠-'의 형태로 사용되지 않는데 중국어의 '就'는 시제와 관계없이 사용하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내일 새벽 날이 **밝을 대로** 출발하자. (x) - 明天天一亮就出发吧.

내일 새벽 날이 **밝겠는 대로** 출발하자. (x) - 明天天一亮就出发吧.

왕밍 씨가 **갈 대로** 밥을 먹자. (x) - 王明一走就吃饭吧.

왕밍 씨가 **가겠을 대로** 밥을 먹자. (x) - 王明一走就吃饭吧.

- '-는 대로2)'와 '-자마자'는 모두 중국어의 '一……就'와 대응되지만 두 표현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므로 양자를 혼동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집을 **나서는 대로** 비가 왔다. (x)

집을 **나서자마자** 비가 왔다. (o)

집에 **들어가는 대로** 잤어요. (x)

집에 **들어가자마자** 잤어요. (o)

3.6.13 ‘-는 대신에’

-는 대신(에)[-ㄴ 대신에/-은 대신에][표현] 1) 어떤 행위를 다른 행위로 대체하거나
2) 어떤 행위에 대해 보상함을 나타내는 표현.

- **는 대신에1):** (동사에 붙어) 앞 절의 행위를 하지 않고 뒤 절의 행위로 대체함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구어에서는 '에'를 생략한 '-는 대신'을 더 많이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왕밍 씨, 어제 뭐 했어요? 나: 쇼핑하러 백화점에 갔어요. 가: 뭐 샀는데요? 나: 모자요. 그런데 너무 비싸서 사는 대신에 구경만 하고 왔어요.</p> <p>가: 줄리아 씨, 운동하러 갈래요? 나: 네, 좋아요. 줄넘기를 할까요? 가: 저도 하고 싶은데 줄넘기가 없어요. 나: 그럼 줄넘기를 하는 대신에 배드민턴을 할까요? 가: 네, 좋아요.</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이 없어서 신문을 읽는 대신에 잡지를 읽었어요. ·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도서관에 가는 대신에 집에서 공부했어요. · 친구에게 말로 사과하는 대신에 편지로 사과했어요. · 줄리아랑 오늘 못 만나는 대신에 내일 만나려고요. · 마트에서 장보는 대신에 전통시장에서 장보는 게 어때요? · 그녀는 싫다고 말하는 대신에 울어 버렸다. · 라디오를 듣는 대신에 텔레비전을 봤어요. · 일요일에 늦잠을 자는 대신에 운동을 하기로 했다. · 시험을 잘 보려면 새로운 문제를 풀어보는 대신에 틀렸던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 ‘-는 대신에1)’은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그것을 대체하여 다른 행위를 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앞 절의 내용은 하기로 되어 있거나 해야 하지만 하지 않는 행위가 와야 하고, 뒤 절의 행위는 앞 절의 행위에 상응하여 대체되는 행위가 와야 한다. ‘신문을 읽는 대신에 잡지를 읽었어요.’는 신문을 읽지 않고 잡지를 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서관에 가는 대신에 집에서 공부했어요.’는 도서관에 가지 않고 그것을 대체하는 장소인 집에서 공부했음을 나타낸다.

+ ‘-는 대신에’의 ‘에’를 생략하고 사용하기도 한다. 주로 구어에서 ‘에’의 생략이 자유롭다.

[도입]

<p>(1)</p> <p>교사: 밥을 먹고 싶어요. 밥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학생: 빵을 먹어요. 교사: 밥을 먹고 싶은데 밥이 없고 빵이 있어요. 밥을 먹는 대신에 빵을 먹어요. 학생: 떡을 먹어요. 교사: 밥을 먹고 싶은데 밥이 없고 떡이 있어요. 밥을 먹는</p>
--

대신에 떡을 먹어요.

(2)

교사: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커피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학생: 녹차를 마셔요.

교사: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커피가 없고 녹차만 있어요. 커피를 **마시는 대신에** 녹차를 마셔요.

학생: 우유를 마셔요.

교사: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커피가 없고 우유만 있어요. 커피를 **마시는 대신에** 우유를 마셔요.

+ 도입(1)과 도입(2)는 어떤 상황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을 제시한 뒤, 그것을 할 수 없을 때 어떤 것을 대신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물음으로써 ‘-는 대신에1)’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카드를 활용하여 대신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제시해 주며, 최선의 것이 아닌 어떠한 것을 대체하는 것임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무엇보다도 앞 절의 행위가 이루어 질 수 없음을 강조하여 ‘-는 대신에2)’의 의미와 구분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는 대신에’를 붙여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씻- + -는 대신에 → 씻는 대신에 읽- + -는 대신에 → 읽는 대신에
 먹- + -는 대신에 → 먹는 대신에 보- + -는 대신에 → 보는 대신에
 가- + -는 대신에 → 가는 대신에 사- + -는 대신에 → 사는 대신에
 살- + -는 대신에 → 사는 대신에 놀- + -는 대신에 → 노는 대신에
 만들- + -는 대신에 → 만드는 대신에

①	받침 〇	+ -는 대신에	씻는 대신에, 읽는 대신에, 먹는 대신에
	받침 ×	+ -는 대신에	보는 대신에, 가는 대신에, 사는 대신에
	ㄹ 받침	+ -는 대신에 (어간 ‘ㄹ’ 탈락)	사는 대신에, 노는 대신에, 만드는 대신에

+ ‘-는 대신에’는 동사 어간의 받침 유무에 상관없이 형태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ㄹ’ 받침으로 끝나는 동사의 경우는 ‘ㄹ’이 탈락함에 주의한다.

[문장 구성 정보]

① 앞 절에 ‘-는 대신에’의 형태만 올 수 있다. ‘-ㄴ 대신에, -은 대신에’는 ‘-는 대신에2)’의 뜻으로만 사용된다. 문장의 시제는 뒤 절에 나타낸다.

예) 노래를 **하는 대신에** 춤을 취요.
 노래를 **하는 대신에** 춤을 찾어요.
 노래를 **하는 대신에** 춤을 출 거예요.

- ②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

예) 오늘은 (내가) 밥을 **하는 대신에** (내가) 라면을 끓였다.

엄마가 밥을 **하는 대신에** 내가 라면을 끓였다.

왕밍이 밥을 **하는 대신에** 줄리아가 라면을 끓였다.

- + 첫 예문의 앞 절과 뒤 절의 주어는 화자이고, 동일하다. 이때 주어는 구어에서 주로 생략된다. 두 번째 예문은 앞 절은 '엄마'가 주어이며 뒤 절은 '나', 즉 화자가 주어인 예이다. 이때는 주어의 생략이 불가능하다. 세 번째 예문은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다른 예이다. 이처럼 '-는 대신에'로 연결되는 두 문장의 주어는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

[제약 정보]

- ①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수지는 얼굴이 **예쁜 대신에** 공부를 못해요. ('-는 대신에2)의 뜻)

이 집은 방이 **좁은 대신에** 방이 더 많아요. ('-는 대신에2)의 뜻)

이 식당 음식은 **맛있는 대신에** 많이 기다려야 해요. ('-는 대신에2)의 뜻)

우리 남편은 키가 **큰 대신에** 저는 키가 작아요. ('-는 대신에2)의 뜻)

- ② 과거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낮잠을 **자는 대신에** 밤에 일찍 자겠다. (x)

연극을 **봤는 대신에** 영화를 볼 거예요. (x)

낮잠을 **자겠는 대신에** 밤에 일찍 자겠다. (x)

연극을 **보겠는 대신에** 영화를 볼 거예요. (x)

낮잠을 **자는 대신에** 밤에 일찍 자겠다. (o)

연극을 **보는 대신에** 영화를 볼 거예요. (o)

[확장]

- ① 'N+대신에'의 구성으로도 사용된다.

예) 밥 **대신에** 국수를 먹었어요.

연극 **대신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남자친구 **대신에** 과제를 했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 ① 대응 표현: '而', '反而', '换成' 또는 대응 표현 없이 사용되기도 함.

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어머니는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는 대신에** 집에서 간호했습니다. - 因为经济困难, 母亲没把孩子送进医院, **而是**在家照料他.

오늘은 일반 넥타이를 **매는 대신에** 나비넥타이를 매고 오세요. - 今天不要戴一般的领带, **而要**打高领领结.

그녀는 화를 **내는 대신** 미소를 지었어요. - 她不但不生气, **反而**笑了.

요즘 쇼밍은 긴 머리를 **자른 대신** 수염을 기르고 있었어요. - 小明最近剪了长发, **换成**留胡子了.

콜라를 **마시는 대신에** 우유를 많이 마시세요. - 不喝可乐, **要多**喝牛奶.

② 용법과 오류

- 과거 '-었-'과 결합하지 않지만 대응하는 중국어에서는 과거완료 '了'가 올 수 있거나 대응표현 없이 사용되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요즘 쇼밍은 긴 머리를 잘랐는 대신 수염을 기르고 있었어요. (x) - 小明最近剪了长发, 换成留胡子了. (o)

텔레비전을 봤는 대신에 라디오를 들었어요. (x) - 没看电视, 听了收音机. (o)

-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지만 대응하는 중국어에서는 동사에 시제 표현이 붙지 않고 사용되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이번 일요일에는 낮잠을 자겠는 대신에 운동을 하겠어요. (x) - 这个周末不睡午觉, 打算要运动. (o)

내일 연극을 보겠는 대신에 영화를 볼 거예요. (x) - 明天不看话剧, 而要看电影. (o)

- 'N 대신에'의 구성으로 쓰기도 하는데 중국어의 '대신하다(替代)'로 대응시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오늘은 일반 넥타이를 대신하여 나비넥타이를 매고 오세요. (x)

연극을 대신하여 영화를 봤어요. (x)

시험을 대신하여 과제물을 제출합니다. (x)

- 는 대신에2): (동사, 형용사나 '있다, 없다, 계시다'에 붙어) 앞 절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나타낸다. 앞 절의 행위를 하고 그것을 뒤 절의 행위로 보상함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구어에서는 '에'를 생략한 '-는 대신'을 더 많이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의사 선생님, 제가 요즘 속이 안 좋아요. 나: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나요? 가: 아니요, 요즘 살이 찌서 저녁을 먹지 않았어요. 나: 그럼 안 돼요. 저녁도 잘 챙겨 먹어야 속이 편안해져요. 가: 속이 편안해지고 살도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나: 저녁을 좀 일찍 먹으세요. 그리고 저녁을 먹는 대신에 운동도 열심히 하세요.</p> <p>가: 언니, 내 숙제 좀 도와줄 수 있어? 나: 아니, 나 지금 청소해야 해. 가: 내가 청소 도와줄게. 나: 청소 도와주는 대신에 숙제 도와달라는 거지? 그래 좋아.</p>
문장예문	· 이 식당은 음식의 양이 적은 대신에 가격이 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잠을 잔 대신에 밤에 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 우리 집 강아지는 예쁜 대신에 말을 잘 안 듣는다. · 내가 고기를 굽는 대신에 너는 찌개를 끓여라. · 늦게까지 일한 대신에 월급을 더 받았다. · 비가 많이 와서 습한 대신에 공기는 맑아졌다. · 힘들게 한국어를 공부한 대신에 한국어 시험에 합격했다. · 비싼 옷을 산 대신에 신발은 싼 걸 사야겠다. · 설거지는 왕밍이 하는 대신에 빨래는 내가 할게요. · 수업이 늦게 끝난 대신에 쉬는 시간도 뒤로 늦추겠습니다.
--	---

- + ‘-는 대신에2)’는 ‘-는 대신에1)’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행위로 대체하는 것에 비해,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할 것에 대한 보상적 행위가 뒤 절에 온다. 따라서 ‘음식의 양이 적은 대신에 가격이 싸다’는 음식이 양이 적지만 이에 대한 보상으로 가격이 싸다는 것을 의미한다. ‘낮잠을 잔 대신에 밤에 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는 낮잠을 자서 공부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 ‘-는 대신에’의 ‘에’를 생략하고 사용하기도 한다. 주로 구어에서 ‘에’의 생략이 자유롭다.

[도입]

(1)	<p>교사: 드라마를 밤 늦게까지 보느라 잠을 많이 못 자요. 어떻게 해요?</p> <p>학생: 드라마를 조금만 봐요.</p> <p>교사: 안 돼요.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요. 어찌지요?</p> <p>학생: 그러면 낮에 인터넷으로 봐요.</p> <p>교사: 드라마를 밤에 보는 대신에 낮에 인터넷으로 봐요. 그러면 밤에는 잠을 많이 잘 수 있어요.</p>
(2)	<p>교사: 커피를 마셔요. 잠이 안 와요. 어떻게 해요?</p> <p>학생: 커피를 적게 마셔요.</p> <p>교사: 그렇지만 커피를 너무 좋아해요. 커피를 꼭 마셔야 해요. 다른 방법 없어요?</p> <p>학생: 그러면 커피를 마시고, 잠이 잘 오도록 운동을 많이 해요.</p> <p>교사: 커피를 많이 마시는 대신에 운동도 많이 해요.</p>

- + 도입(1)과 도입(2)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시 방법을 학생들에게 들음으로써 ‘-는 대신에2)’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바꿀 수는 없으며, 그것을 유지하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도록 유도하여 ‘-는 대신에2)’가 가지는 보상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입(1), 도입(2)에서 학생들이 ‘드라마를 조금만 봐요’, ‘커피를 적게 마셔요’ 등과 같이 근본

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그것을 바꿀 수 없음을 언급해야 한다.

[형태 정보]

- ① 동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는 대신에’를 붙여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씻- + -는 대신에 → 씻는 대신에 읽- + -는 대신에 → 읽는 대신에
 먹- + -는 대신에 → 먹는 대신에 보- + -는 대신에 → 보는 대신에
 가- + -는 대신에 → 가는 대신에 사- + -는 대신에 → 사는 대신에
 살- + -는 대신에 → 사는 대신에 놀- + -는 대신에 → 노는 대신에
 만들- + -는 대신에 → 만드는 대신에

①	받침 〇	+ -는 대신에	씻는 대신에, 읽는 대신에, 먹는 대신에
	받침 ×	+ -는 대신에	보는 대신에, 가는 대신에, 사는 대신에
	ㄹ 받침	+ -는 대신에 (어간 ‘ㄹ’ 탈락)	사는 대신에, 노는 대신에, 만드는 대신에

+ ‘-는 대신에’는 동사 어간의 받침 유무에 상관없이 형태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ㄹ’ 받침으로 끝나는 동사의 경우는 ‘ㄹ’이 탈락함에 주의한다.

- ② 형용사 어간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은 대신에’를 쓴다.

예) 작- + -은 대신에 → 작은 대신에 많- + -은 대신에 → 많은 대신에
 짧- + -은 대신에 → 짧은 대신에 높- + -은 대신에 → 높은 대신에
 좋- + -은 대신에 → 좋은 대신에 맑- + -은 대신에 → 맑은 대신에

- ③ 형용사 어간의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ㄴ 대신에’를 쓴다.

예) 크- + -ㄴ 대신에 → 큰 대신에 예쁘- + -ㄴ 대신에 → 예쁜 대신에
 싸- + -ㄴ 대신에 → 싼 대신에 깨끗하- + -ㄴ 대신에 → 깨끗한 대신에
 길- + -ㄴ 대신에 → 긴 대신에 멀- + -ㄴ 대신에 → 먼 대신에

②	받침 〇	+ -은 대신에	작은 대신에, 많은 대신에, 짧은 대신에, 높은 대신에, 좋은 대신에, 맑은 대신에
③	받침 ×	+ -ㄴ 대신에	큰 대신에, 예쁜 대신에, 싼 대신에, 깨끗한 대신에
	ㄹ 받침	+ -ㄴ 대신에 (어간 ‘ㄹ’ 탈락)	긴 대신에, 먼 대신에

+ ‘-은 대신에’는 형용사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며, 특히 ‘ㄹ’ 받침으로 끝나는 형용사의 경우는 ‘ㄹ’이 탈락하고 ‘-ㄴ’이 결합한다. ‘길은 대신에, 멀은 대신에’처럼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④ ‘있다, 없다’나 ‘있다, 없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합성어 ‘재미있다, 재미없다, 맛있다, 맛없

다' 등의 형용사는 '-는'을 붙여 쓴다.

- 예) 음식이 **맛있는 대신에** 너무 비싸요.
이 영화는 **재미있는 대신에** 너무 길어요.

⑤ 불규칙

- 덥- 예) 날씨가 **더운 대신에** 습하지 않아요.
짓- 예) 건물을 천천히 **지은 대신에** 튼튼합니다.
까맣- 예) 하늘이 **까만 대신에** 별이 잘 보여요.

[문장 구성 정보]

①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

- 예) (나는) 매일 게임을 **하는 대신에** (나는) 공부도 열심히 해요.
수지가 영어를 **가르쳐주는 대신에** (저는) 수지에게 중국어를 가르쳐줄 거예요.
왕밍이 설거지를 **하는 대신에** 줄리아는 빨래를 할 거예요.

+ 첫 예문의 앞 절과 뒤 절의 주어는 화자이고, 동일하다. 이때, 주어는 구어에서 주로 생략된다. 두 번째 예문은 앞 절은 '수지' 뒤 절은 '나', 즉 화자가 주어인 예이다. 이 또한 구어에서 화자가 주어인 경우 생략이 가능하다. 세 번째 예문은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다른 예이다. 이처럼 '-는 대신에'로 연결되는 두 문장의 주어는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

② 앞 절과 뒤 절의 시제가 같거나 달라도 된다.

- 예) 거리가 **먼 대신에** 교통이 편리해서 쉽게 갈 수 있어요.
거리가 **먼 대신에** 교통이 편리해서 쉽게 갈 수 있었어요.
거리가 **먼 대신에** 교통이 편리해서 쉽게 갈 수 있을 거예요.
아기가 낮에 잠을 **자는 대신에** 밤에 잠을 안 자요.
아기가 낮에 잠을 **자는 대신에** 밤에 잠을 안 갔어요.
아기가 낮에 잠을 **자는 대신에** 밤에 잠을 안 잘 거예요.

③ 과거는 '-은/ㄴ 대신에'의 형태로 사용되지만, 미래를 나타내는 '-을 대신에'의 형태는 사용되지 않는다.

- 예) 어제 일찍 **잔 대신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했다. (o)
늦게까지 **공부한 대신에** 늦게 일어났어요. (o)
내일 일찍 **잘 대신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할 거예요. (x)
늦게까지 **공부할 대신에** 늦게 일어날 거예요. (x)

결합어의 품사	시제 및 형태		예문
동사	현재	-는 대신에	라면을 먹는 대신에 1시간 동안 운동하기로 약속했다. 게임을 하는 대신에 TV를 보지 않기로 했다.
	과거	-은 대신에 -ㄴ 대신에	월급을 조금 받은 대신에 일도 조금만 했습니다. 비가 내린 대신에 공기가 맑아졌다.

형용사	현재	-은 대신에 -ㄴ 대신에	우리 집은 방이 좁은 대신에 거실이 넓어요. 날씨가 흐린 대신에 춥지는 않아요.
-----	----	------------------	---

[확장]

① 동사 및 형용사에 '-었던 대신에', '-던 대신에'가 붙어 과거를 나타낼 수 있다.

- 예) **아팠던 대신에** 쉴 수 있어서 좋았어요.
길이 **막히던 대신에**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할 수 있었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作为……补偿', '但', '而'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사용되기도 함.

- 예) 그가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대신에** 나는 그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다. - 作为教韩语的补偿, 我教他学英语.
매일 콜라를 **마시지 않는 대신** 우유를 마시고 있어요. - 每天不喝可乐, 就喝牛奶.
늦게까지 야근을 **한 대신에** 야근 수당을 더 받았어요. - 作为加班到很晚的补偿, 多拿了加班费.
평소에 열심히 땀 흘리며 **훈련한 대신에** 메달을 땀습니다. - 作为平时刻苦训练的补偿, 获得了奖牌.
이 식당의 음식은 가격이 **비싼 대신에** 맛있어요. - 这个饭店的菜价钱贵, 但味道好.
베이징은 교통이 **편리한 대신** 공기가 너무 안 좋아요. - 北京交通方便, 而空气实在太差了.
거리가 **먼 대신에** 통신이 발달해서 매일 연락할 수 있어요. - 距离远, 但通讯发达, 可以每天联络.

② 용법과 오류

- 동사는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는 대신에'를 붙여 쓰지만 형용사는 어간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은 대신에'를 쓰고 받침이 없거나 'ㄹ'받침으로 끝나면 '-ㄴ 대신에'를 쓴다. 대응하는 중국어에서는 동사와 형용사를 따로 구분하지 않으므로 형용사 어간의 끝음절의 차이를 주의하지 않거나 혹은 반대로 동사 어간의 끝음절을 구분해 사용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 예) 이 빵은 크는 대신에 맛은 별로예요. (x)
새로 산 집은 교통이 불편하는 대신에 주위 풍경이 아름다워요. (x)
학교가 머는 대신에 스쿨버스가 있어서 편해요. (x)
손을 비누로 씻은 대신 물티슈로 깨끗이 닦았어요. (x)
게임을 놀은 대신 텔레비전을 보게 해요. (x)

- '있다, 없다'나 '재미있다, 재미없다, 맛있다, 맛없다' 등 '있다, 없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합성어는 '-는'을 붙여 쓰는데 대응하는 중국어 '有, 没有'는 동사인 반면, '好, 不好'는 형용사로 임의로 대응된다. 그리하여 동사와 형용사를 혼동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이 회사는 복지가 없는 대신에 연봉이 높다. (x)
음식이 맛있는 대신에 오래 기다려야 돼요. (x)

3.6.14 ‘-는 만큼’

-는 만큼[-은 만큼(-ㄴ 만큼)/-을 만큼(-ㄹ 만큼)][표현] 1) 정도, 수량이 비슷하거나 2) 근거나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

-는 만큼1): (동사, 형용사나 ‘있다, 없다, 계시다’에 붙어) 뒤 절이 앞 절과 비슷한 정도나 수량을 나타낸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앤디야, 어디에 가? 나: 도서관에 가서 책 좀 빌려 보려고. 가: 어제도 도서관에 가던데, 앤디 너는 매일 도서관에 가는 것 같아. 나: 도서관에 가서 전공 공부도 하고 책도 읽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거든. 가: 그래? 나도 네가 다니는 만큼 도서관에 다니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텐데.</p> <p>가: 왕밍, 이번 시험에서 효영이 1등을 했대. 나: 말도 안 돼. 효영이 어떻게 1등을 해? 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1등을 했지. 왜 말이 안 돼? 나: 효영이랑 나랑 같이 시험공부를 했어. 나도 효영이 공부한 만큼 공부했는데 어떻게 효영만 1등을 할 수 있어?</p> <p>가: 줄리아 씨,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요? 나: 그럼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해요. 가: 저도요. 그래서 매일 한국 드라마를 봐요. 나: 저는 드라마 대본을 다 외울 만큼 많이 봤어요.</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돈을 받는 만큼 돈을 쓸 수 있어요. · 손님이 오는 만큼 음식을 준비하세요. · 돈이 있는 만큼만 돈을 쓰세요. · 제 방이 작은 만큼 효영 씨 방도 작아요? · 수지가 예쁜 만큼 수지 동생도 예뻐요? · 제가 기쁜 만큼 줄리아 씨도 기쁠 거예요. · 내가 힘든 만큼 너도 힘들어 봐야 내 마음을 알 수 있을 거야. · 김치가 매운 만큼 비빔밥도 매워요? · 밥을 먹을 만큼만 먹고 남기세요.

· 비가 **내릴 만큼**만 내리고 멈추면 좋겠다.

- + '-는 만큼1'은 어떤 것과 비슷한 정도나 수량이 됨을 나타낸다. '용돈을 받는 만큼 돈을 쓸 수 있어요'는 받는 용돈의 정도로만 돈을 쓸 수 있다는 의미이다. '손님이 오는 만큼 음식을 준비하세요'는 음식의 양을 오는 손님의 수와 비례하여 만들라는 의미이다. '내가 힘든 만큼 너도 힘들어 봐야 내 마음을 알 수 있을 거야'는 상대방이 자신이 힘이 든 정도와 유사한 정도로 힘들어 봐야 한다는 의미이다.
- + '-는 만큼'은 시제에 따라 '-은 만큼, -을 만큼'으로도 사용되며, 형용사와 결합할 때는 '-은 만큼, -ㄴ 만큼'이 결합하여 '작은 만큼, 예쁜 만큼'처럼 사용한다.

[도입]

(1)

교사: 줄리아 씨, 하루에 몇 시간 한국어를 공부해요?

학생: 저는 2시간 정도 한국어 공부를 해요.

교사: 흐영 씨는요?

학생: 저도 2시간 정도 공부해요.

교사: 줄리아 씨가 하루에 2시간 한국어를 공부해요. 흐영 씨도 하루에 2시간 한국어를 공부해요. 같은 시간 공부해요. 줄리아 씨가 **공부하는 만큼** 흐영 씨도 공부해요.

(2)

교사: 왕밍 씨의 고향은 날씨가 어때요?

학생: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 추워요.

교사: 한국과 비교하면 여름에 어디가 더 더워요?

학생: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교사: 한국이 더운 것과 비슷하게 더워요. 한국이 **더운 만큼** 왕밍 씨 고향도 더워요. '-는 만큼'은 비슷한 정도를 말할 때 써요. 그럼 겨울은 어때요? 어디가 더 추워요?

학생: 한국이 더 추운 것 같아요.

교사: 그러면 한국이 추운 것과 왕밍 씨 고향이 추운 것이 비슷하지 않아요. 한국이 더 추워요. 이 경우에는 '한국이 **추운 만큼** 제 고향은 춥지 않아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 + 도입(1)은 동사와 결합하는 '-는 만큼1'로, 도입(2)는 형용사와 결합하는 '-ㄴ/은 만큼1'로 구성하였다. '-는 만큼1'은 앞 절과 수량과 정도가 유사하다는 의미이므로 비교할 대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향과의 날씨를 비교해서 '-는 만큼1'의 의미를 제시할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학생들끼리 비교할 수 있는 학습시간을 가지고 '-는 만큼1'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는 만큼'을 쓴다.

예)	씻- + -는 만큼 → 씻는 만큼	읽- + -는 만큼 → 읽는 만큼
	먹- + -는 만큼 → 먹는 만큼	보- + -는 만큼 → 보는 만큼
	가- + -는 만큼 → 가는 만큼	사- + -는 만큼 → 사는 만큼
	살- + -는 만큼 → 사는 만큼	놀- + -는 만큼 → 노는 만큼
	만들- + -는 만큼 → 만드는 만큼	

①	받침 〇	+ -는 만큼	씻는 만큼, 읽는 만큼, 먹는 만큼
	받침 ×	+ -는 만큼	보는 만큼, 가는 만큼, 사는 만큼
	ㄹ 받침	+ -는 만큼 (어간 'ㄹ' 탈락)	사는 만큼, 노는 만큼, 만드는 만큼

+ '-는 만큼'는 동사 어간의 받침 유무에 상관없이 형태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ㄹ' 받침으로 끝나는 동사의 경우는 'ㄹ'이 탈락함에 주의한다.

② 동사 및 형용사 어간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은 만큼'을 쓴다.

예)	먹- + -은 만큼 → 먹은 만큼	입- + -은 만큼 → 입은 만큼
	읽- + -은 만큼 → 읽은 만큼	높- + -은 만큼 → 높은 만큼
	좋- + -은 만큼 → 좋은 만큼	맑- + -은 만큼 → 맑은 만큼

③ 동사 및 형용사 어간의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ㄴ 만큼'을 쓴다.

예)	가- + -ㄴ 만큼 → 간 만큼	보- + -ㄴ 만큼 → 본 만큼
	사- + -ㄴ 만큼 → 사 만큼	깨끗하- + -ㄴ 만큼 → 깨끗한 만큼
	길- + -ㄴ 만큼 → 긴 만큼	멀- + -ㄴ 만큼 → 먼 만큼

②	받침 〇	+ -은 만큼	먹은 만큼, 입은 만큼, 읽은 만큼, 높은 만큼, 좋은 만큼, 많은 만큼
③	받침 ×	+ -ㄴ 만큼	간 만큼, 본 만큼, 산 만큼, 깨끗한 만큼
	ㄹ 받침	+ -ㄴ 만큼 (어간 'ㄹ' 탈락)	긴 만큼, 먼 만큼

+ '-은 만큼'는 형용사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며, 특히 'ㄹ' 받침으로 끝나는 형용사의 경우는 'ㄹ'이 탈락하고 '-ㄴ'이 결합한다. '길은 만큼, 멀은 만큼'처럼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불규칙 형용사

춡-	예) 중국이 추운 만큼 프랑스도 춥니?
짓-	예) 밥을 지은 만큼 손님이 오셔서 다행이다.
파랳-	예) 그곳은 하늘이 파란 만큼 바다도 파랳다.

⑤ '있다, 없다'나 '있다, 없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합성어 '재미있다, 재미없다, 맛있다, 맛없

다' 등의 형용사는 '-는'을 붙여 쓴다.

예) 저는 커피가 **맛없는 만큼** 녹차도 맛이 없어요.
농구가 **재미있는 만큼** 축구도 재미있어요?

[문장 구성 정보]

①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거나 달라도 된다.

예) (내가) 커피를 **좋아하는 만큼** (내가) 녹차도 좋아해요.

네가 커피를 **좋아하는 만큼** 나도 커피를 좋아해.

왕밍이 커피를 **좋아하는 만큼** 흐영도 커피를 좋아한다..

+ 첫 예문의 앞 절과 뒤 절의 주어는 화자이고, 동일하다. 이때, 주어는 구어에서는 주로 생략된다. 두 번째 예문은 앞 절은 '너', 즉 청자가 주어이며, 뒤 절은 화자인 '나'가 주어이다. 세 번째 예문은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다르다. 이처럼 '-는 만큼'으로 연결되는 두 문장의 주어는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

② 앞 절과 뒤 절의 시제가 같거나 달라도 된다.

예) 네가 **일하는 만큼** 나도 일한다.

네가 **일하는 만큼** 나도 일했다.

네가 **일하는 만큼** 나도 일할 것이다.

네가 **일한 만큼** 나도 일한다.

네가 **일한 만큼** 나도 일했다.

네가 **일한 만큼** 나도 일할 것이다.

네가 **일할 만큼** 나도 일한다.

네가 **일할 만큼** 나도 일했다.

네가 **일할 만큼** 나도 일할 것이다.

③ 과거는 '-은/니 만큼'의 형태로 사용되며, 미래는 '-을 만큼'의 형태로 사용된다.

예) 내가 **기다린 만큼** 너는 기다릴 수 없을 거야.

줄리아 씨가 **참은 만큼** 흐영 씨도 참아 보세요.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보다 **잘 만큼만** 자는 것이 좋다.

도시락은 **먹을 만큼만** 싸 오세요.

④ '-있던 만큼'으로 과거를 나타낼 수도 있으며 동사 및 형용사가 모두 결합할 수 있다. 형용사의 과거에는 '-은'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형용사의 과거는 '-있던 만큼'으로 쓴다.

예) 네가 기분 **나빴던 만큼** 나도 그랬어.

작년에 **더웠던 만큼** 올해도 더우면 큰일인데.

언니가 열심히 **공부했던 만큼** 나도 할 수 있을까?

엄마가 **챙겨주셨던 만큼** 아빠도 우리를 챙겨주세요.

결합어의 품사	시제 및 형태		예문
동사	현재	-는 만큼	한국 사람이 매운 음식을 잘 먹는 만큼 중국 사람도 매운 음식을 잘 먹는다.

	과거	-은 만큼	아키코는 한국어를 잘하는 만큼 프랑스어도 잘해요.
		-ㄴ 만큼	흐영 씨가 먹은 만큼 저도 케이크를 먹을 수 있어요.
	미래	-을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한 만큼 너를 사랑해.
		-ㄹ 만큼	지갑을 찾을 만큼 찾아 봤지만 찾을 수 없었다.
형용사	현재	-은 만큼	돈을 쓸 만큼 다 써 보고 싶다.
		-ㄴ 만큼	내 방도 네 방이 넓은 만큼 넓어. 네 동생도 네가 똑똑한 만큼 똑똑하구나.

[제약 정보]

① 과거 '-았-',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 예) 영수가 **알았는 만큼** 나도 알았어. (x)
수지가 **피곤했는 만큼** 나도 피곤해. (x)
영수가 **알겠는 만큼** 나도 알았어. (x)
수지가 **피곤하겠는 만큼** 나도 피곤해. (x)

[확장]

① '-는 만큼'에 보조사 '은', '만' 등이 붙을 수 있다.

- 예) 수업이 늦게 **끝난 만큼만** 쉬는 시간을 더 주세요.
네가 **하는 만큼**은 나도 할 수 있어.
저도 영수가 아르바이트로 **버는 만큼**은 벌 수 있어요.

② 'V-을 만큼 V'의 구성으로 관용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 예)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왜 저한테 반말을 쓰세요?
한국에서 10년이나 살다 보니 한국에 대해 **알 만큼**은 알고 있다.
한때는 돈도 **쓸 만큼** 다 써 본 적이 있었다.

+ '-을 만큼'과 결합하는 동사가 뒤 절에 반복되는 형태로, 어떤 것에 대한 행위가 충분하며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③ 명사와 함께 쓰여 앞 말과 비슷한 정도임을 나타낼 수 있다. 이때 '만큼'은 조사로 명사에 붙여 쓴다.

- 예) 나도 **형만큼** 키가 크고 싶어요.
저도 줄리아 씨**만큼**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오늘도 어제**만큼** 추울 거예요.
노력**만큼** 확실한 성공의 방법은 없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대응 표현 없음.

- 예) 왕밍 씨가 **원하시는 만큼** 이 곳에 계속 머무르셔도 됩니다. - 王明想呆多长时间就呆

多长时间.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으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 一份耕耘一份收获, 一定要坚持到底.

수진이는 **예쁜 만큼** 마음씨도 착해요. - 秀真很善良, 像她长相一样.

아들 녀석이 천장에 키가 **닿을 만큼** 건강하게 자랐다. - 孩子已经长大成人了, 个大得能够着顶棚了.

어제는 의식이 **없을 만큼** 만취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 昨天醉得不省人事, 实在是抱歉.

이제는 날 수 **있을 만큼** 날개가 다 자랐으니 자립해도 되겠군. - 现在已经羽翼丰满, 能够自立了吧.

이 쌍둥이 자매는 분별 **안 될 만큼** 닮았군요. - 这双胞胎姐妹像得难以分辨啊.

② 용법과 오류

- 동사 및 형용사 어간의 끝음절에 받침의 유무에 따라 '-은 만큼'과 '-ㄴ 만큼'이 사용된다. 중국어는 동사 및 형용사의 형태 변화가 없으므로 어간의 끝음절의 차이를 주의하지 않는 오류가 나타난다.

예) 하늘이 높은 만큼 가을이 깊어 간다. (x)

아침의 공기가 좋은 만큼 기분도 상쾌하군요. (x)

거리가 깨끗하는 만큼 도시도 밝아질 거예요. (x)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머는 만큼 학업 성적이 떨어집니다. (x)

- '있다, 없다'나 '재미있다, 재미없다, 맛있다, 맛없다' 등 '있다, 없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합성어는 '-는'을 붙여 쓰는데 중국어는 '있다, 없다'가 동사인 '有, 没有', 형용사인 '好, 不好'로 임의로 대응되므로 양자를 혼동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예) 공부가 재미없는 만큼 스포츠도 재미없어요. (x)

이 커피숍은 커피가 맛있는 만큼 녹차도 맛있어요. (x)

- 과거는 '-은/ㄴ 만큼'의 형태로 사용되며, 과거 '-었-'과 결합하지 않는데 중국어의 과거완료 '了'를 대응시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내가 마셨은 만큼 당신들도 마셔야 하지 않겠소. (x)

쇼밍도 읽었은 만큼 왕밍 씨도 읽어 보세요. (x)

옆 집에서 샀는 만큼 우리도 사야해요. (x)

다른 사람들이 피곤했는 만큼 저도 피곤합니다. (x)

- **는 만큼2):** (동사, 형용사나 있다, 없다, 계시다에 붙어) 앞 절이 뒤 절에 대한 근거를 나타낸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수지 씨, 이번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나: 여행을 갈까 해요. 영수 씨는 무슨 계획 있어요? 가: 저는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런데 여행 갈 장소는 정했어 요? 나: 네, 오랜 만에 휴가를 떠나는 만큼 해외에 가려고요.</p> <p>가: 줄리아 씨, 어제 잃어버렸던 지갑은 찾았어요? 나: 네, 누가 경비실에 맡겨놓았지 뭐예요. 가: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나: 고마워요. 흐영 씨,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지갑도 찾은 만큼 오늘 저녁은 제가 살게요.</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학교에 다니는 만큼 학교를 사랑할 거예요. · 오늘은 폭우가 내리는 만큼 밖에 나가지 맙시다. · 오늘은 약속이 없는 만큼 집에 일찍 돌아가야겠어요. · 방이 작은 만큼 물건도 별로 없어요. · 이 차는 비싼 만큼 성능도 좋아요. · 한국어가 어려운 만큼 다른 것보다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 방학인 만큼 여행도 다니고, 밀린 공부도 하려고요. · 시험이 끝난 만큼 오늘은 꼭 쉬어야겠다. · 한국으로 여행온 만큼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 장학금을 받게 된 만큼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 ‘-는 만큼2)’는 뒤 절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때 쓴다. ‘방이 작은 만큼 물건도 별로 없어요’는 방이 작기 때문에 물건이 별로 없다는 의미이다. ‘이 차는 비싼 만큼 성능도 좋아요’는 차가 비싸니까 성능도 좋다는 의미이다. ‘오늘은 약속이 없는 만큼 집에 일찍 돌아가야겠어요’는 약속이 없으므로 집에 일찍 가겠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는 만큼2)’는 ‘-는 만큼1)’처럼 어떤 내용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의 근거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다.

+ ‘-는 만큼2)’은 시제에 따라 ‘-은 만큼’으로도 사용되며, 형용사와 결합할 때는 ‘-은 만큼, -ㄴ 만큼’이 결합하여 ‘작은 만큼, 비싼 만큼’처럼 사용한다.

[도입]

<p>(1)</p> <p>교사: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수업 후에 뭐 할 거예요? 학생: 내일 학교에 안 와요. 그래서 집에 가서 실컷 잘 거예요.</p> <p>교사: 흐영 씨는 내일 학교에 안 오는 만큼 집에 가서 실컷 잘 거예요. 선생님도 내일 출근을 안 하니까 오늘 친구를 만나 늦게까지 놀 거예요. 내일 출근을 안 하는 만큼 오늘 늦게까지 놀 거예요.</p>
--

(2)

교사: 지난 주말에 날씨가 정말 좋았는데 뭐 했어요?

학생: 한강에 가서 자전거를 탔어요.

교사: 날씨가 정말 좋아서 한강에 가서 자전거를 탔어요. 날씨가 **좋은 만큼** 한강에 가서 자전거를 탔어요. 줄리아 씨는 주말에 뭐 했어요?

학생: 저는 밀린 빨래를 했어요.

교사: 줄리아 씨는 날씨가 좋아서 밀린 빨래를 했어요. 날씨가 **좋은 만큼** 밀린 빨래를 했어요. '-는 만큼'은 어떤 이유를 나타낼 때 써요.

- + 도입(1)은 동사와 결합하는 예를 보여주면 도입(2)는 형용사와 결합하는 예를 보여 준다. 이유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를 도입하여 '-는 만큼2'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도입(1)의 경우 금요일인 상황으로 한정하여 예시를 제시하였으나, 상황에 맞게 특정한 휴일이 있거나, 휴일이 아닌 평일로 바꾸어 활용할 수 있다.

[형태 정보]

앞의 '-는 만큼1'을 참고한다.

[문장 구성 정보]

- ① 과거는 '-은/니 만큼'의 형태로 사용되지만, 미래를 나타내는 '-을 만큼'의 형태는 사용되지 않는다.

예) 열심히 **준비한 만큼** 이번 시험은 합격하게 될 거예요.
줄리아 씨가 진심으로 **사과한 만큼** 흐영 씨도 화가 풀릴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만큼** 시험이 어려울까요? ('-는 만큼1'의 뜻)
커피를 5잔이나 **마실 만큼** 졸려요? ('-는 만큼1'의 뜻)

- ② '-었던 만큼'으로 과거를 나타낼 수도 있으며 동사 및 형용사가 모두 결합할 수 있다. 형용사의 과거에는 '-은'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형용사의 과거는 '-었던 만큼'으로 쓴다.

예) 어제는 엄마가 기분이 **좋으셨던 만큼** 나를 혼내지 않으셨다.
작년에는 너무 **더웠던 만큼** 올해는 덥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공부했던 만큼** 시험도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어려웠던 만큼** 이제는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확장]

- ① '-는 만큼2'에 보조사 '은', '만' 등이 붙을 수 없다.

예) 수업이 늦게 **끝난 만큼**만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x)
요즘 날씨가 **추운 만큼**은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x)
수업이 늦게 **끝난 만큼**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o)
요즘 날씨가 **추운 만큼**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o)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因为', '既然'과 대응하거나 대응 표현 없이 사용됨.

예) 너는 **고3학생인 만큼** 공부에만 전념해라. - 因为你是高三学生, 要专心学习.

미국에 **유학 가는 만큼** 미국 사회에 대해 알고 싶어요. - 既然去美国留学, 想了解美国的社会.

방학인 만큼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려고요. - 因为是假期想做运动, 也去旅行.

공무원인 만큼 국가의 법과 규정을 숙선수범하여 지켜야 한다. - 既然是公务员就应该以身作则遵守国家的法律法规.

시험이 **끝난 만큼** 오늘은 꼭 쉬어야겠다. - 考完试了, 今天得好好休息.

② 용법과 오류

- 미래를 나타내는 '-을 만큼'의 형태는 사용되지 않지만 중국어 '既然'은 '...할 것이다' 의미의 '要'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미국에 유학 갈 것일 만큼 미국 사회에 대해 알아야 해요. (x) - 既然要去美国留学, 得了解美国的社会.

가야 할 길일 만큼 빨리 떠나는 게 좋겠어요. (x) - 既然是要走的路就快出发吧.

이왕 할 만큼 사람들을 모아 함께 하자. (x) - 既然要做, 就把人集中起来一起做吧.

집에 돌아갈 것일 만큼, 친척들을 방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x) - 既然要回家一趟, 少不了多拜访亲戚们.

- 과거를 나타낼 때 형용사에는 '-었던 만큼'이 결합하고 '-은 만큼'을 사용하지 않지만 대응하는 중국어는 '了'가 나타나지 않아도 되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대학에 다닐 때는 젊은 만큼 배낭 여행이 힘들지 않았습시다. (x) ('젊었던 만큼'을 써야 할 경우)

작년에 시험이 너무 어려운 만큼 금년에는 좀 쉽게 출제 될 거예요. (x) ('어려웠던 만큼'을 써야 할 경우)

어릴 때 이쁜 만큼 나이가 들어서도 이쁘네요. (x) ('이뻐던 만큼'을 써야 할 경우)

지난주에 날씨가 추운 만큼 이번 주에는 좀 포근했으면 좋겠어요. (x) ('추웠던 만큼'을 써야 할 경우)

3.6.15. '-는 바람에'

-는 바람에[표현]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원인이나 까닭을 나타내는 표현.

-는 바람에: (동사에 붙어) 앞 절의 어떤 원인이나 까닭에 의한 부정적인 결과 또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뒤 절에 나올 때 사용한다. 주로 부정적인 결과의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낸다.

[예문]

<p>담화 예문</p>	<p>가: 줄리아 씨, 어제 달리기 대회에서 1등 하셨지요? 나: 아뇨, 1등을 못했어요. 가: 왜요? 줄리아 씨가 제일 유력한 1위 후보였잖아요. 나: 뛰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1등을 못했어요.</p> <p>가: 수지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나: 정말 미안해. 가: 선생님도 일찍 오셔서 아까부터 기다리셨어. 나: 일찍 오려고 했는데 은행에 들르는 바람에 좀 늦었어. 기다리는 사람이 좀 많았거든.</p>
<p>문장 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학 동안 계절학기 수업을 듣는 바람에 여행을 못 갔어요. · 텔레비전을 3시간이나 보는 바람에 숙제를 못 했어요. · 스파게티를 만드는 바람에 부엌이 엉망이 됐어요. · 어제 저녁 마트가 문을 닫는 바람에 우유를 못 샀어요. · 비싼 옷을 사는 바람에 용돈이 다 떨어졌어요. · 갑자기 비가 내리는 바람에 등산을 하지 못했어요. · 어제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친구와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 계시는 바람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 휴대폰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전화할 수가 없었어요. · 제가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미도리 씨가 화가 났어요.

+ '-는 바람에'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위의 두 대화는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그것을 이루지 못한 상황으로 부정적 결과에 대한 원인을 '-는 바람에'를 통하여 나타내고 있다. 앞 절의 내용 자체가 부정적인 상황도 있고 부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위의 문장들에 모두 나타나지만 이 두 가지의 경우 모두 부정적 결과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는 바람에'를 사용할 수 있다.

[도입]

<p>(1)</p> <p>교사: 누가 오늘 지각을 했어요? 학생: 제가 지각을 했어요. 늦게 일어나서요. 교사: 왕밍 씨가 늦게 일어나서 지각을 했어요.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지각을 했어요. 또 누가 지각을 했어요? 학생: 저는 버스를 잘못 타서 늦었어요. 교사: 미도리 씨는 버스를 잘못 타서 늦었어요. 버스를 잘못 타는 바람에 늦었어요. '-는 바람에'는 좋지 않은 일이</p>

일어났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써요.

(2)

교사: 어제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어땠어요?

학생: 비가 와서 시원했어요.

교사: 네, 수지 씨는 비가 와서 시원했어요. 좋았겠어요. 미도리 씨는요?

학생: 저는 싫었어요. 비가 와서 빨래를 하지 못했어요.

교사: 미도리 씨는 비가 오는 바람에 빨래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싫었어요.

- + 도입(1)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일을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상황이다. 누가 지각을 했는지, 왜 지각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는 바람에'를 사용하는 상황에 대해 인식하도록 한다. 도입(2)는 좋은 영향을 끼친 것과 나쁜 영향을 끼친 것을 대비하여 제시하는 방법이다. 이 때, 과거의 일, 즉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함에 주의한다.
- + 부정적 결과를 오른쪽에 판서한 후, 왼쪽에는 그 원인에 대해 제시하도록 하여 의미 관계에 대해 보다 쉽게 파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예)

원인, 이유		부정적 결과
늦게 일어났어요. 버스를 잘못 탔어요.	-는 바람에	지각했어요.
비가 왔어요		빨래를 못 했어요.

[형태 정보]

- ① 동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는 바람에'를 붙여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씻- + -는 바람에 → 씻는 바람에

읽- + -는 바람에 → 읽는 바람에

먹- + -는 바람에 → 먹는 바람에

보- + -는 바람에 → 보는 바람에

가- + -는 바람에 → 가는 바람에

사- + -는 바람에 → 사는 바람에

팔- + -는 바람에 → 파는 바람에

놀- + -는 바람에 → 노는 바람에

만들- + -는 바람에 → 만드는 바람에

①	받침 ㄱ	+ -는 바람에	씻는 바람에, 읽는 바람에, 먹는 바람에
	받침 ㄴ	+ -는 바람에	보는 바람에, 가는 바람에, 사는 바람에
	ㄹ 받침	+ -는 바람에 (어간 'ㄹ' 탈락)	파는 바람에, 노는 바람에, 만드는 바람에

[문장 구성 정보]

①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

예) (내가) 12시까지 드라마를 **보는 바람에** (내가) 늦잠을 잤어요.

비가 오는 바람에 (내가) 산책을 할 수 없다.

왕밍이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줄리아가** 화가 났어요.

+ 첫 예문의 앞 절과 뒤 절의 주어는 화자이고 동일하다. 이때, 주어는 구어에서는 주로 생략된다. 두 번째 예문의 주어는 앞 절은 '비'이고, 뒤 절은 '나', 즉 화자가 주어진 예이다. 이 또한 구어에서 화자가 주어진 경우 생략이 가능하다. 세 번째 예문은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다른 예이다. 이처럼 '-는 바람에'로 연결되는 두 절의 주어는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

② 시제와 무관하게 동일한 형태로 사용한다.

예) 아이가 **우는 바람에** 잠을 자기 어려워요.

아이가 **우는 바람에** 잠을 자기 어려웠어요.

+ 앞 절에는 과거에 일어난 일의 내용만 쓸 수 있다.

③ 뒤 절의 내용, 즉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이 주로 부정적이다. 때때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때도 사용한다.

예)	(긍정적 원인) 일찍 일어나는 바람에	+	피곤했어요. (부정적 결과)	(o)
	(부정적 원인)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오늘도 지각을 했어요. (부정적 결과)	

(부정적 원인) 지각하는 바람에	+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예상치 못한 긍정적 결과)	(o)
-------------------	---	------------------------------------	-----

+ 앞 절의 내용 자체가 반드시 부정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앞 절의 내용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것이 뒤 절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함에 주의한다.

+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때, 즉, 부정적 원인이 있었음에도 의외의 긍정적 결과가 생긴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부정적 원인으로 인한 예상되는 부정적 결과가 아닌 의외의 긍정적 결과가 생긴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는 바람에'를 사용한다.

④ 연결 기능만 가능하고 종결의 기능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예) 지각을 하게 된 것은 버스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이다. (x)

휴대폰이 고장이 난 것은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바람이다. (x)

[제약 정보]

①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비행기에서 자리가 불편한/불편하는 바람에 피곤해요. (x)

- 시험이 **어려운/어렵**는 **바람에** 성적이 떨어졌어요. (x)
 + 형용사와 결합한다면 '-은 바람에'가 결합하여 '불편한 바람에, 어려운 바람에'와 같이 사용되겠으나 형용사와 결합이 불가능하기에 이와 같이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형용사와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는 바람에'의 결합은 의미상 가능해 보이지만 그 자체가 형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학생들이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② 과거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 예) 일찍 **갔**는 **바람에** 축구 경기를 못 봤어요. (x)
 일찍 **자**겠는 **바람에** 축구 경기를 못 볼 것 같아요. (x)
 요즘 일찍 **자**는 **바람에** 축구 경기를 못 봐요. (o)
 + 의미 용법이 유사한 '-은/ㄴ 탓에'와 달리 '-은/ㄴ 바람에'의 형태로 사용되지 않는다.

③ 뒤 절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이 올 수 없다.

- 예) 배가 **고**픈 **바람에** 밥을 먹자/먹읍시다/먹을래요?/먹을까요?/먹는 건 어때요? (x)
 배가 **고**픈 **바람에** 밥을 먹어라/먹어/먹어요. (x)

④ '-는 바람에' 뒤 절은 현재와 과거만 올 수 있고 미래 시제는 올 수 없다.

- 예) 아이가 **우**는 **바람에** 잠을 자기 어려워요. (o)
 아이가 **우**는 **바람에** 잠을 자기 어려웠어요. (o)
 아이가 **우**는 **바람에** 잠을 자기 어려울 거예요. (x)

[확장]

① 조사 '에'를 생략할 수 없다.

- 예) 버스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 지각을 하게 됐어요. (x)
 버스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지각을 하게 됐어요. (o)
 사고가 **나**는 **바람**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x)
 사고가 **나**는 **바람에**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o)

[유사 문법]

① '-는 바람에', '-는 탓에', '-기 때문에'

-는 바람에	-는 탓에	-기 때문에	-는 통에
· '어떤 일의 이유나 원인'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 과거 '-었-'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비가 왔 는 바람에 여행을 취소했다. (x)	· 과거 '-었-'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비가 왔 는 탓에 여행을 취소했다. (x)	· 과거 '-었-'과 결합한다. 예) 비가 왔 기 때문 에 여행을 취소했다. (o)	· 과거 '-었-'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비가 왔 는 통에 여행을 취소했다. (x)

· 주로 앞 절의 내용이 뒤 절의 부정적 결과에 영향을 끼친다. 예) 비가 오는 바람에 여행을 갈 수 없다. (o) 기차가 늦게 오는 바람에 기차를 탈 수 있었다. (o)	· 앞 절의 내용이 뒤 절의 부정적 결과에 영향을 끼쳐야 한다. 예) 비가 오는 탓에 여행을 갈 수 없다. (o) 기차가 늦게 온 탓에 기차를 탈 수 있었다. (x)	· 앞 절과 뒤 절의 내용이 긍정적, 부정적인 것과 상관이 없다. 예) 비가 오기 때문에 여행을 갈 수 있다. (o) 기차가 늦게 왔 기 때문에 기차를 탈 수 있었다. (o)	· 앞 절의 내용이 뒤 절의 부정적 결과에 영향을 끼쳐야 한다. 예) 비가 오는 통에 여행을 갈 수 없다. (o) 기차가 늦게 오는 통에 기차를 탈 수 있었다. (x)
---	--	---	---

+ '-는 바람에', '-는 탓에', '-기 때문에', '-는 통에' 모두 뒤 절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이 올 수 없다.

예) 비가 **오는 바람에** 여행을 취소하자. (x)

비가 **오는 탓에** 여행을 취소하자. (x)

비가 **오기 때문에** 여행을 취소하자. (x)

비가 **오기 통에** 여행을 취소하자. (x)

+ '-는 탓이다', '-는 탓으로', 'N 탓에'의 구성으로 쓸 수 있는 데 비해, '-는 바람이다', '-는 바람으로', 'N 바람에'의 구성으로는 쓸 수 없음에 주의한다.

+ 과거를 나타낼 때는 각각 '-는 바람에', '-은 탓에', '-(었)기 때문에', '-은 통에'로 쓴다.

예) 비가 **오는 바람에** 여행을 취소했다.

비가 **온 탓에** 여행을 취소했다.

비가 **왔기 때문에** 여행을 취소했다.

비가 **온 통에** 여행을 취소했다.

② '-는 바람에', '-는 덕분에'

-는 바람에	-는 덕분에
--------	--------

· '어떤 일의 이유나 원인'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 앞 절이 뒤 절에 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예) 비가 오는 바람에 여행이 취소됐다. (o) 비가 오는 바람에 가뭄이 해소됐다. (x)	· 앞 절이 뒤 절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예) 바람이 부는 덕분에 더웠던 날씨가 시원해졌다. (o) 바람이 부는 덕분에 날씨가 더 추워졌다. (x)
· 과거도 '-는 바람에'로 나타낸다. 예)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지각을 했다. (o) 늦게 일어난 바람에 지각을 했다. (x)	· 과거는 '-은 덕분에'로 나타낸다. 예) 일찍 잔 덕분에 일찍 일어났다. (o)
· 'N 바람에'의 구성으로 사용할 수 없다.	· 'N 덕분에'의 구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 태풍 바람에 여행이 취소됐다. (x)	예) 네 덕분에 일찍 일어났어. (o)
-------------------------	-----------------------

+ '-는 바람에', '-는 덕분에'는 모두 과거 '-었-'과 결합하지 않으며 뒤 절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이 올 수 없다.

- 예) 비가 **왔는 바람에** 여행을 취소했다. (x) 비가 **왔는 덕분에** 가뭄이 해소됐다. (x)
 비가 **오는 바람에** 여행을 취소하자. (x) 비가 **오는 덕분에** 여행을 취소하자. (x)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因为', '由于'

- 예)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시는 **바람에** 당황했어요. - 因为来了太多客人, 不知所措.
 휴대폰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전화할 수가 없었어요. - 因为丢了手机, 打不了电话.
 비싼 옷을 **사는 바람에** 용돈이 다 떨어졌어요. - 由于买贵衣服, 零用钱都花没了.
 갑자기 비가 **내리는 바람에** 등산을 하지 못했어요. - 由于突然下雨, 没能登山.

② 용법과 오류

- '-는 바람에' 뒤 절은 미래 시제가 올 수 없지만 대응하는 중국어는 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 예) 아이가 우는 바람에 잠을 자기 어려울 거예요. (x)
 갑자기 비가 내리는 바람에 등산을 하지 못할 거예요. (x)

- 과거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지만 대응하는 중국어는 과거 시제 '了'와 미래 표현 '将要'와 결합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 예) 일찍 잤는 바람에 축구 경기를 못 봤어요. (x)
 - 因为睡得早了, 没看成球赛. (o)
 일찍 자겠는 바람에 축구 경기를 못 볼 것 같아요. (x)
 - 由于将要早点睡, 恐怕球赛看不成了. (o)

- 뒤 절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이 올 수 없지만 대응하는 중국어는 이런 제약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 예) 배가 고픈 바람에 우리 밥을 먼저 먹자 (x) - 因为饿了, 咱们先吃吧! (o)
 배가 고픈 바람에 너 먼저 밥을 먹어라 (x) - 因为饿了, 你先吃吧! (o)

- 주로 앞 절의 내용이 뒤 절의 부정적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만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은 그러한 의미 관계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 예) 비가 안 오는 바람에 여행을 갈 수 있다. (x)
 - 因为不下雨, 能去旅行了. (o)
 휴대폰을 안 잃어버리는 바람에 전화할 수가 있어요. (x)
 - 由于没丢手机, 能打电话了. (o)

3.6.16 ‘-는 반면에’

-는 반면에[-ㄴ 반면에/-은 반면에][표현]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반대**임을 나타내는 표현.

-는 반면에: (동사나 형용사, ‘있다, 없다, 계시다’에 붙어) 앞 절의 내용이 뒤 절의 내용과 서로 상반됨을 나타낸다.

[예문]

담화예문	<p>가: 박사님께서서는 주말에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나: 저는 주말에 주로 미술관에 갑니다. 가: 아, 그러시군요. 보통 사람들은 영화관으로 많이 가는데 미술관으로 가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나: 영화관은 시끄러운 반면에 미술관은 조용하기 때문에 평소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p> <p>한국은 교통이 편리하여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여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런데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는 버스를 타지 않는 것이 좋다. 길이 막혀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대신 지하철은 길이 막히지 않는 반면에 여러 번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양에서는 주식으로 밥을 먹는 반면에 서양에서는 빵을 먹습니다. · 효영은 성격이 급한 반면에 효영의 동생은 성격이 급하지 않아요. · 이 일은 힘이 드는 반면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 여름에는 날씨가 더운 반면에 겨울에는 날씨가 춥다. · 한국의 여름은 습도가 높은 반면에 미국의 여름은 습도가 낮다. · 수지는 한국어를 잘하는 반면에 영어는 못해요. · 왕밍은 피아노를 잘 치는 반면에 노래는 못해요. · 저는 키가 작은 반면에 저희 오빠는 키가 커요. · 선생님께서는 커피를 싫어하는 반면 차는 좋아하세요. · 작년에는 눈이 내린 반면 올해는 눈이 많이 오지 않았어요. · 지하철을 타면 막히지 않는 반면에 버스를 타면 막힐 수도 있다. · 대학 진학률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취직률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 ‘-는 반면에’는 반대되는 상황이나 행동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그러므로 앞 절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뒤 절로 연결되어야 한다. 위의 예문에서와 같이 ‘동양에서는 주식으로 밥을 먹는 반면에’의 뒤 절에는 반대로 ‘서양에서는 빵을 먹어요’가 연결될 수 있다. ‘효영은 성격이 급한 반면에’의 뒤 절에는 ‘효영의 동생은 성격이 급하지 않아요’가 연결될 수 있다. 반대의 내용이 하나의 주체 가운데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이 일은 힘이 드는 반면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수지는 한국어를 잘하는 반면에 영어는 못해요’, ‘왕밍은 피아노는 잘 치는 반면에 바이올린은 못 쳐요’와 같은 문장은 하나의 주체가 가지는 상반되

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 '에'를 생략한 '-는 반면'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도입]

(1)

교사: 왕밍 씨는 샤워를 아침에 해요, 저녁에 해요?

학생: 저는 아침에 샤워를 해요.

교사: 선생님은 저녁에 샤워를 해요. 호영 씨랑 반대예요. 호영 씨는 아침에 **샤워하는 반면에** 선생님은 저녁에 샤워해요. '-는 반면에'는 반대되는 것을 말할 때 써요.

(2)

교사: 줄리아 씨, 취미가 뭐예요?

학생: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교사: 운동이요? 저는 운동을 정말 싫어해요. 줄리아 씨랑 선생님은 반대예요. 줄리아 씨는 운동은 좋아하지만 선생님은 운동을 싫어해요. 줄리아 씨는 운동을 **좋아하는 반면에** 선생님은 운동을 싫어해요.

(3)

교사: 여러분, 한국어 공부가 쉬워요?

학생: 아니요, 한국어 공부는 어려워요.

교사: 그러면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요?

학생: 네, 한국어 공부는 재미있어요.

교사: 한국어 공부는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한국어 공부는 **어려운 반면에** 재미있어요.

+ 도입(1)과 도입(2)는 학생들의 행동이나 취향과 교사가 반대되는 행동이나 취향을 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는 반면에'의 의미를 제시하도록 구성하였다. 이에 비해 도입(3)은 주체를 동일하게 구성한 문장으로 '-는 반면에'를 사용하도록 구성하였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는 반면에'를 붙여 쓴다.

예)	씻-	+ -는 반면에	→	씻는 반면에		읽-	+ -는 반면에	→	읽는 반면에
	먹-	+ -는 반면에	→	먹는 반면에		보-	+ -는 반면에	→	보는 반면에
	가-	+ -는 반면에	→	가는 반면에		사-	+ -는 반면에	→	사는 반면에
	살-	+ -는 반면에	→	사는 반면에		놀-	+ -는 반면에	→	노는 반면에
	만들-	+ -는 반면에	→	만드는 반면에					

①	받침 o	+ -는 반면에	씻는 반면에, 읽는 반면에, 먹는 반면에
---	------	----------	------------------------

	받침 ×	+ -는 반면에	보는 반면에, 가는 반면에, 사는 반면에
	ㄹ 받침	+ -는 반면에 (어간 'ㄹ' 탈락)	사는 반면에, 노는 반면에, 만드는 반면에

+ '-는 반면에'는 동사 어간의 받침 유무에 상관없이 형태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ㄹ' 받침으로 끝나는 동사의 경우는 'ㄹ'이 탈락함에 주의한다.

② 형용사 어간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은 반면에'를 쓴다.

예) 작- + -은 반면에 → 작은 반면에 많- + -은 반면에 → 많은 반면에
 짧- + -은 반면에 → 짧은 반면에 높- + -은 반면에 → 높은 반면에
 좋- + -은 반면에 → 좋은 반면에 맑- + -은 반면에 → 맑은 반면에

③ 형용사 어간의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ㄴ 반면에'를 쓴다.

예) 크- + -ㄴ 반면에 → 큰 반면에 예쁘- + -ㄴ 반면에 → 예쁜 반면에
 싸- + -ㄴ 반면에 → 싼 반면에 깨끗하- + -ㄴ 반면에 → 깨끗한 반면에
 길- + -ㄴ 반면에 → 긴 반면에 멀- + -ㄴ 반면에 → 먼 반면에

②	받침 ㅅ	+ -은 반면에	작은 반면에, 많은 반면에, 짧은 반면에, 높은 반면에, 좋은 반면에, 많은 반면에
③	받침 ×	+ -ㄴ 반면에	큰 반면에, 예쁜 반면에, 싼 반면에, 깨끗한 반면에
	ㄹ 받침	+ -ㄴ 반면에 (어간 'ㄹ' 탈락)	긴 반면에, 먼 반면에

+ '-은 반면에'는 형용사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며, 특히 'ㄹ' 받침으로 끝나는 형용사의 경우는 'ㄹ'이 탈락하고 '-ㄴ'이 결합한다. '길은 반면에, 멀은 반면에'처럼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불규칙 형용사

춥- 예) 요즘 아침에는 **추운 반면에** 낮에는 더워요.
 젖- 예) 밥은 많이 **지은 반면에** 국은 조금 끓었어요.
 까맣- 예) 수지 씨는 머리가 **까만 반면에** 수지 씨 동생은 머리가 갈색이에요.

⑤ '있다, 없다'나 '있다, 없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합성어 '재미있다, 재미없다, 맛있다, 맛없다' 등의 형용사는 '-는'을 붙여 쓴다.

예) 찌개가 **맛있는 반면에** 반찬은 맛이 없어요.
 수학은 **재미없는 반면에** 과학은 재미있어요.

[문장 구성 정보]

①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

예) 나는 영어를 **잘하는 반면에** (나는) 수학을 못한다.

철수는 농구를 좋아하는 반면에 나는 축구를 좋아해요.

철수가 방학 때 중국에 가는 반면에 영희는 일본에 간다.

- + 첫 예문의 앞 절과 뒤 절의 주어는 화자이고, 동일하다. 이때, 뒤 절의 주어는 구어에서는 주로 생략된다. 두 번째 예문은 앞 절은 '철수' 뒤 절은 '나', 즉 화자가 주어인 예이다. 세 번째 예문은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다르며 화자가 주어가 아닌 예이다. 이처럼 '-는 반면에'로 연결되는 두 문장의 주어는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

- ② 과거는 '-은/ㄴ 반면에'의 형태로 사용되지만, 미래를 나타내는 '-을 반면에'의 형태는 사용되지 않는다.

예) 그는 돈을 많이 번 반면에 쓸 수 없었다. (o)

잠을 많이 못 잔 반면에 피곤하지는 않았다. (o)

그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반면에 쓸 수 없을 거예요. (x)

이 약을 먹으면 잠을 많이 못 잘 반면에 피곤하지는 않을 거예요. (x)

결합어의 품사	시제 및 형태		예문
동사	현재	-는 반면에	매운 음식을 잘 먹는 반면에 신 음식은 잘 먹지 못해요. 한국어를 잘하는 반면에 영어는 못해요.
	과거	-은 반면에 -ㄴ 반면에	잃어버렸던 휴대폰은 찾은 반면에 지갑은 찾지 못했어요. 오전에는 폭우가 내린 반면에 오후에는 비가 그쳤어요.
형용사	현재	-은 반면에	방은 좁은 반면에 거실은 넓어요.
		-ㄴ 반면에	집에서 학교가 가까운 반면에 교회는 멀다.

- ③ '-있던 반면에', '-던 반면에'로 과거를 나타낼 수도 있으며 동사 및 형용사가 모두 결합할 수 있다. 형용사의 과거에는 '-은'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형용사의 과거는 '-있던 반면에', '-던 반면에'로 쓴다.

예) 작년에는 살이 찌서 이 옷을 못 입었던 반면에 올해는 살이 빠져서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예로부터 남자는 바지를 입던 반면에 여자는 치마를 입는다.

옷놀이는 재미있던 반면에 제기차기는 어려워서 재미가 없었다.

휴가 기간 동안 날씨가 흐렸던 반면에 비는 오지 않아 다행이었다.

- ④ 앞 절과 뒤 절의 시제가 같거나 달라도 된다.

예) 공부를 잘하는 반면에 운동은 못해요.

공부를 잘하는 반면에 운동은 못했어요.

공부를 잘하는 반면에 운동은 못할 거예요.

어머니는 아주 엄하신 반면에 아버지는 자상하세요.

어머니는 아주 엄하신 반면에 아버지는 자상하셨어요.

어머니는 아주 엄하신 반면에 아버지는 자상하실 거예요.

[제약 정보]

① 과거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 예) 어릴 때, 저는 일찍 **갔는 반면에** 동생은 늦게까지 안 갔어요. (x)
 취직을 하면 돈을 많이 **벌겠는 반면에** 제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x)
 어릴 때, 저는 일찍 **자는/잔 반면에** 동생은 늦게까지 안 잤어요. (o)
 취직을 하면 돈을 많이 **버는 반면에** 제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o)

+ 앞 절에 '-는 반면에'가 올 때 뒤 절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올 수 있다. 앞 절에 '-은/ㄴ 반면에'가 올 때 뒤 절에 과거, 현재는 자연스러우나 미래는 자연스럽지 않다.

- 예) 왕밍은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에** 효영은 배우는 것을 싫어해요. (o)
 왕밍은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에** 효영은 배우는 것을 싫어했어요. (o)
 왕밍은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에** 효영은 배우는 것을 싫어할 거예요. (o)
 왕밍은 배우는 것을 **좋아한 반면에** 효영은 배우는 것을 싫어해요. (o)
 왕밍은 배우는 것을 **좋아한 반면에** 효영은 배우는 것을 싫어했어요. (o)
 왕밍은 배우는 것을 **좋아한 반면에** 효영은 배우는 것을 싫어할 거예요. (x)

[확장]

① '-는 반면이다', '-는 반면으로', 'N 반면에' 등의 구성으로 쓸 수 없다.

- 예) 커피를 **좋아하는 반면으로** 차는 좋아하지 않아요. (x)
 작년 **반면에** 올해는 눈이 많이 오지 않았어요. (x)
 중국에 비해 한국의 겨울은 **추운 반면이다**. (x)

+ '-는 탓에', '-는 바람에', '-는 동안에', '-는 김에' 등의 비슷한 구성들과 비교하여 확장 가능한 구성과 그렇지 못한 구성에 대한 항목별 차이를 구별하여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유사 문법]

① '-는 반면에', '-지만', '-으나'

-는 반면에	-지만	-으나
--------	-----	-----

· 앞의 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이야기를 이음을 나타낸다.

· 과거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서울은 눈이 왔는 반면에 부산에는 눈이 오지 않았다. (x) 서울은 눈이 오겠는 반면에 부산에는 눈이 오지 않을 거예요. (x)	· 과거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한다. 예) 서울은 눈이 왔지만 부산에는 눈이 오지 않았다. (o) 서울은 눈이 오겠지만 부산에는 눈이 오지 않을 거예요. (o)	· 과거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한다. 예) 서울은 눈이 왔으나 부산에는 눈이 오지 않았다. (o) 서울은 눈이 오겠으나 부산에는 눈이 오지 않을 거예요. (o)
· 앞의 내용에 대한 조건이나 다른 추가적인 정보를 이야기하는 의미로도 사용하기	· 앞의 내용에 대한 조건이나 다른 추가적인 정보를 이야기하는 의미로도 사용된	· 앞의 내용에 대한 조건이나 다른 추가적인 정보를 이야기하는 의미로는 사용할

어렵다. 예) 그 휴대폰은 모양도 예 쁜 반면에 가격도 아주 싸다. (?)	다. 예) 그 휴대폰은 모양도 예 쁘지만 가격도 아주 싸 다. (o)	수 없다. 예) 그 휴대폰은 모양도 예 쁘나 가격도 아주 싸다. (x)
· 격식적인 문어에서 주로 사용된다. 예) 오늘 날씨는 오전에는 쌀쌀한 반면에 오후부터는 따뜻해지겠습니다.	· 문어, 구어에서 다 잘 사용 된다. 예) 오늘 날씨는 오전에는 쌀쌀하겠지만 오후부터는 따 뜻해지겠습니다. 한국어는 재밌지만 어려워 요.	· 구어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예) 한국어는 재미있으나 어 려워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但', '而', '却', '相比之下'와 대응되거나 대응 표현 없이 사용되기도 함.

예) 이 회사는 복지가 **좋은 반면에** 야근도 많습니다. - 这个公司福利很好, 但另一方面加班也多.
수진은 얼굴이 **예쁜 반면** 성격이 너무 야박하다. - 秀珍长得漂亮, 而为人太损.
사무실의 몇몇 동료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반면에**, 뒤에서 험담하는 재간은 많아요.
- 办公室那几个同事不关心业务, 却大有背后搞小动作的能耐.
중국 동부쪽 사람들은 주식으로 밥을 **먹는 반면에** 서부 쪽은 주로 밀가루음식을 먹
습니다. - 中国东部地区的主食吃米饭, 相比之下, 西部地区主要吃面食.
이 직원은 규칙은 **잘 지키는 반면에**, 창의성이 부족하다. - 循规蹈矩有余, 开拓创新不
足.

② 용법과 오류

- 동사는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는 반면에'를 붙여 쓰지만 형용사는 어간의
끝음절에 받침의 유무에 따라 '-은 반면에'와 '-ㄴ 반면에'로 사용된다. 대응하는 중국어에
서는 동사와 형용사를 따로 구분하지 않으므로 형용사 어간의 끝음절의 차이를 주의하지
않거나 혹은 동사 어간의 끝음절에서 구분해 사용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예) 그녀는 키가 작은 반면에 대단히 총명해요. (x)
시골은 공기가 맑는 반면에 교통이 불편합니다. (x)
아침에 빵을 먹은 반면에 점심은 밥을 먹거든요. (x)
딸 아이가 매일 손은 깨끗이 씻은 반면에 머리감는 것은 정말 싫어해요. (x)

- '있다, 없다'나 '재미있다, 재미없다, 맛있다, 맛없다' 등 '있다, 없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합
성어형용사는 '-는'을 붙여 쓰는데 대응하는 중국어는 '있다, 없다'가 동사인 '有, 没有', 형
용사인 '好, 不好'로 임의로 대응되므로 양자를 혼동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어떤 직원들은 일에는 관심이 없는 방면에 남의 뒷얘기에는 관심이 많아요.(x)
이 커피숍은 커피가 맛있는 반면에 다른 음료는 맛없어요.(x)

왕밍은 무뚝뚝해서 재미없는 반면에 그의 여동생은 귀여워요.(x)

- 미래를 나타내는 '-을 반면에'의 형태는 사용되지 않으며 뒤 절이 추측이나 미래의 의미를 나타낼 때도 앞 절에는 '-을 반면에'가 올 수 없지만 대응하는 중국어에서는 앞 절과 뒤 절에서 모두 추측이나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可能', '或许', '将来' 등이 올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이 회사는 앞으로 복지가 좋을 반면에 야근도 많아 질 거예요. (x) - 这个公司将来可能提高福利, 但另一方面可能也要多加班. (o)

맞벌이 부부는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 반면에 자녀 교육에는 영향이 있을 거예요. (x) - 双职工家庭挣的钱或许多一点, 孩子的教育却可能受影响. (o)

왕밍은 배우는 것을 좋아할 반면에 수잔은 배우는 것을 싫어할 거예요. (x) - 王明可能喜欢学习, 而秀珍可能不喜欢. (o)

- 과거 '-었-'과 결합하지 않지만 대응하는 중국어에서는 과거완료 '了'가 올 수 있거나 대응 표현 없이 사용되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왕밍은 시험을 수월하게 치렀는 반면에, 수잔은 어려워했다. (x) - 王明顺利通过了考试, 而秀珍却奋力挣扎. (o)

어릴 때, 저는 일찍 잤는 반면에 동생은 늦게까지 안 잤어요. (x) - 小时候, 我睡得早, 而妹妹很晚才睡. (o)

3.6.17 '-는 사이에'

-는 사이에[-은 사이에/-ㄴ 사이에][표현] 어떤 상태나 행위가 일어나는 **중간 어느 짧은 시간**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

- 는 사이에: (동사나 '있다, 없다, 계시다'에 붙어) 앞 절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뒤 절의 행위가 이루어짐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줄리아, 저번 주에 빌려준 책 가져왔어? 나: 깜박했어. 어찌지? 가: 큰일이네. 오늘 그 책이 꼭 필요하거든. 나: 그럼 여기서 잠깐 수진 씨와 이야기하고 있을래? 이야기하는 사이에 얼른 집에 갔다 올게.</p> <p>가: 주문하시겠습니까? 나: 피자와 스파게티를 주세요. 가: 20분 기다리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나: 네, 괜찮아요.</p>
------	--

	가: 그럼 피자가 준비되는 사이에 샐러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방에서 지갑을 찾는 사이에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는 사이에 겨우 교실에 들어갔어요. · 고기를 굽는 사이에 찌개를 끓였어요. · 친구랑 이야기하는 사이에 버스가 지나가 버렸다. · 수업 중에 다른 생각을 하는 사이에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말았다. · 마트에서 장을 보는 사이에 제 차가 없어졌어요. · 내가 낮잠을 자는 사이에 친구가 왔다 갔어요. · 라면을 끓이고 있는 사이에 잠이 들어버렸다. · 아기가 잠든 사이에 저도 조금 쉴 수 있었어요. ·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수업 시작종이 울렸다.

+ '-는 사이에'는 어떤 행위를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뒤 절의 행위가 일어남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앞 절의 내용은 '가방에서 지갑을 찾는 사이에', '출석을 부르는 사이에', '고기를 굽는 사이에' 등과 같이 짧은 시간의 동안을 나타내며 뒤 절의 내용은 각각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교실에 들어갔다', '찌개를 끓였어요'와 같은 행위가 나타난다.

[도입]

<p>(1)</p> <p>교사: 여러분, 잠깐 기다려 주세요. (30초 정도 나갔다 온다.)</p> <p>교사: 왕밍 씨, 선생님을 기다렸어요. 기다릴 때 뭘 했어요?</p> <p>학생: 책을 봤어요.</p> <p>교사: 왕밍 씨는 선생님을 기다릴 때 책을 봤어요. 왕밍 씨는 기다리는 사이에 책을 봤어요. 앤디 씨는 기다리는 사이에 뭘 했어요?</p> <p>학생: 저는 커피를 마셨어요.</p> <p>교사: 앤디 씨는 기다리는 사이에 커피를 마셨어요.</p> <p>(2)</p> <p>교사: 줄리아 씨는 공부하다가 잠깐 쉴 때 뭐 해요?</p> <p>학생: 저는 음악을 들어요.</p> <p>교사: 공부하다가 잠깐 쉴 때 음악을 들어요. 잠깐 쉬는 사이에 음악을 들어요. 수지 씨는 잠깐 쉴 때 뭐 해요?</p> <p>학생: 저는 공부하다가 쉴 때 산책을 해요.</p> <p>교사: 수지 씨는 쉬는 사이에 산책을 해요. 선생님은 일을 하다가 쉬는 사이에 노래를 들어요.</p>

+ 도입(1)은 그 자리에서 학생들을 잠깐 기다리게 하고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물어

봄으로써 '-는 사이에'의 의미를 유추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도입(2)와 같이 구체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상황을 제시하여 무엇을 하는지를 물어봄으로써 '-는 사이에'의 의미를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형태 정보]

- ① 동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는 사이에'를 붙여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씻- + -는 사이에 → 씻는 사이에	읽- + -는 사이에 → 읽는 사이에
	먹- + -는 사이에 → 먹는 사이에	보- + -는 사이에 → 보는 사이에
	가- + -는 사이에 → 가는 사이에	사- + -는 사이에 → 사는 사이에
	살- + -는 사이에 → 사는 사이에	놀- + -는 사이에 → 노는 사이에
	만들- + -는 사이에 → 만드는 사이에	

①	받침 ㄱ	+ -는 사이에	씻는 사이에, 읽는 사이에, 먹는 사이에
	받침 ㄴ	+ -는 사이에	보는 사이에, 가는 사이에, 사는 사이에
	ㄹ 받침	+ -는 사이에 (어간 'ㄹ' 탈락)	사는 사이에, 노는 사이에, 만드는 사이에

+ '-는 사이에'는 동사 어간의 받침 유무에 상관없이 따라 형태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ㄹ' 받침으로 끝나는 동사의 경우는 'ㄹ'이 탈락함에 주의한다.

[문장 구성 정보]

- ①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

예) (내가) 찌개를 끓이는 사이에 (내가) 밥을 했다.
(내가) 쉬는 사이에 엄마가 청소를 하셨다.

왕망이 여행을 가는 사이에 줄리아도 여행을 갈 거예요.

+ 첫 예문의 앞 절과 뒤 절의 주어는 화자이고, 동일하다. 이때, 주어는 구어에서는 주로 생략된다. 두 번째 예문은 앞 절은 '나', 즉 화자가 주어이며 뒤 절은 '엄마'가 주어인 예이다. 이 또한 구어에서 화자가 주어인 경우 생략이 가능하다. 세 번째 예문은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다른 예이다. 이처럼 '-는 사이에'로 연결되는 두 문장의 주어는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

- ② 앞 절과 뒤 절의 시제가 같거나 달라도 된다.

예) 아이가 자는 사이에 나도 잠을 자요.
아이가 자는 사이에 나도 잠을 잤어요.
아이가 자는 사이에 나도 잠을 잘 거예요.
아이가 잔 사이에 나도 잠을 자요.
아이가 잔 사이에 나도 잠을 잤어요.
아이가 잔 사이에 나도 잠을 잘 거예요.

- ③ 과거는 '-은/ㄴ 사이에'의 형태로 사용되지만, 미래를 나타내는 '-을 사이에'의 형태는 사

용되지 않는다.

예) 가게에 **간 사이에** 택배가 왔어요. (o)

가게에 **갈 사이에** 택배가 올 거예요. (x)

+ 뒤 절이 과거일 때 앞 절은 '-은/ㄴ 사이에'와 '-는 사이에'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데 비
해 뒤 절이 추측이나 미래의 의미를 나타낼 때 앞 절에는 '-을 사이에'가 올 수 없다.

결합어의 품사	시제 및 형태		예문
동사	현재	-는 사이에	밥을 먹는 사이에 뉴스가 끝났어요. 내가 게임을 하는 사이에 동생은 잠을 잤어요.
	과거	-은 사이에 -ㄴ 사이에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비가 내린 사이에 비를 피해서 도서관에 있었어요.

[제약 정보]

①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날씨가 **추운 사이에** 겨울이 되었다. (x)

약속에 **늦은 사이에** 그는 먼저 가 버렸다. (x)

내가 배가 **아픈 사이에** 엄마가 약을 사 오셨다. (x)

② 과거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낮잠을 **잤는 사이에** 저녁이 되었다. (x)

드라마를 **봤는 사이에** 밤이 되었다. (x)

낮잠을 **자겠는 사이에** 저녁이 될 거예요. (x)

드라마를 **보겠는 사이에** 밤이 될 거예요. (x)

낮잠을 **자는/잔 사이에** 저녁이 되었다. (o)

드라마를 **보는 사이에** 금방 밤이 될 거예요. (o)

[확장]

① 조사 '에'를 생략할 수 있다.

예) 열심히 **공부하는 사이** 새벽이 되었다.

비가 **내리는 사이** 축제가 끝나 버렸다.

② '-는 사이다', '-는 사이로', 'N 사이에' 등의 구성으로 쓸 수 없다.

예) 열심히 **공부하는 사이다**. (x)

비가 **내리는 사이로** 축제가 끝나 버렸다. (x)

낮잠 **사이에** 저녁이 되었다. (x)

+ '-는 탓에', '-는 바람에', '-는 동안에', '-는 김에' 등의 비슷한 구성들과 비교하여 확장 가능한 구성과 그렇지 못한 구성에 대한 항목별 차이를 구별하여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모르는 사이에'와 같이 관용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사랑하게 됐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이 찐다.

④ '눈 깜빡할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와 같이 관용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예)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방학이 되었네.

눈 깜짝할 사이에 왕밍은 종적도 없이 사라졌다.

+ 이때는 '-을 사이에' 형으로 사용된다.

[유사 문법]

① '-는 사이에', '-는 동안에'

-는 사이에	-는 동안에
· '어떤 행위를 하는 계속되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시간의 중간이나 짧은 시간의 사이에 다른 일이 행해짐을 의미한다. 예) 영수가 집을 비운 사이에 친구가 왔다가 갔다. (집을 비운 중간에 친구가 왔다가 갔다.)	· 어떤 행위가 계속되는 전체 시간에 걸쳐 다른 일이 행해짐을 의미한다. 예) 영수가 집을 비운 동안에 친구가 와 있었다. (영수가 집을 비운 순간부터 올 때까지 친구가 와 있었다.)
· 관용적 표현 외에는 '-을 사이에' 형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예) 내가 밥 먹을 사이에 수지가 청소를 했다. (x)	· '-을 동안에' 형으로 사용된다. 예) 내가 밥 먹을 동안에 수지가 청소를 했다. (x)

+ '-는 동안'은 어떤 행위가 계속되는 전체 시간에 걸쳐 다른 일이 행해짐을 의미하는 데 비해, '-는 사이'는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시간의 중간이나 짧은 시간의 사이에 다른 일이 행해짐을 의미할 때 쓴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时间', '之间', '工夫'

예) 연휴로 쉬는 **사이에** 해외로 여행가자. - 利用长假歇工时间去国外旅行吧.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골을 넣을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 犹豫不决之间错过了进球的良机.

잠깐 **조는 사이에** 도착역을 지나쳐 버렸어요. - 瞬间打盹的工夫, 就过了下车的站点了.

② 용법과 오류

- 동사 어간 끝음절이 'ㄹ' 받침으로 끝나는 경우는 'ㄹ'이 탈락하지만 중국어는 이런 변화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는 **사이에** 마트에서 빵을 샀어요. (x)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드는 **사이에** 택배원이 도착했어요. (x)

- 과거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지만 대응하는 중국어의 '.....时间'은 시제 구분 없이 사용하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방금 전에 방심했는 사이에 도둑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x)
아까 낮잠을 잤는 사이에 비가 왔어요. (x)
어제 샤워를 했는 사이에 전화가 왔군요. (x)
좀 있다가 고기를 굽겠는 사이에 왕밍 씨는 찌개를 끓여요. (x)
아마 드라마를 보겠는 사이에 곧 밤이 될 거예요. (x)

- 미래를 나타내는 '-을 사이에'의 형태는 사용되지 않지만 대응하는 중국어의 '时间'은 시제 구분 없이 사용하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가게에 갈 사이에 택배가 올 거예요. (x)
친구랑 이야기할 사이에 버스가 지나가 버릴 거예요. (x)

3.6.18 ‘-는 줄’

-는 줄[-은 줄(-ㄴ 줄)/-을 줄(-ㄹ 줄)][표현] 어떤 방법이나 사실을 나타내는 표현.

- 는 줄: (동사나 '있다, 없다, 계시다'에 붙어) 어떤 사실이나 방법에 대해 알거나 모른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주로 뒤에 '알다, 모르다'가 결합되어 사용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앤디야, 어디에 가? 나: 도서관에 가서 책 좀 빌려 보려고. 가: 오늘 도서관 쉬는데 몰랐어? 나: 정말? 오늘 도서관 문을 여는 줄 알았어. 고마워.
	가: 미안하지만 돈 좀 빌려 줄 수 있어요? 나: 네, 얼마나요? 가: 만 원이요. 지갑을 가져온 줄 알았는데 놓고 왔어요. 나: 여기 있어요.
	가: 줄리아 씨, 한국 음식 좋아해요? 나: 그럼요. 저는 불고기를 정말 좋아해요. 가: 저도 불고기를 좋아해서, 자주 해 먹어요. 나: 불고기를 만들 줄 알아요? 가: 네, 처음에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앤디 씨가 이번에 장학금을 받는 줄 몰랐어요. · 밖에 눈이 오는 줄 몰랐어요. · 도둑이 내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는 줄 모르고 있었다. · 힘든 줄 모르고 열심히 청소하다 보니 저녁이 됐다. · 수지가 얼마나 예쁜 줄 알아요? · 오늘 약속이 없는 줄 알았어요. · 나는 오늘 시험을 볼 줄 알았어. · 한국의 은행에서 돈을 찾을 줄 모른다. · 한국어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 저는 방학이 다음 주에 시작인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	--

- + ‘-는 줄’은 어떤 사실에 대해 알거나 모른다는 뜻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명사절이다. 뒤 절에는 항상 ‘알다’, ‘모르다’가 와야 함에 주의한다. ‘앤디 씨가 이번에 장학금을 받는 줄 몰랐어요’는 앤디 씨가 이번에 장학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힘든 줄 모르고 열심히 청소하다 보니 저녁이 됐다’는 힘들다는 사실을 모른 채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다.
- + ‘-을 줄’은 사실뿐 아니라 방법의 의미로 사용된다. ‘나는 오늘 시험을 볼 줄 알았어’는 ‘오늘 시험을 보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뜻으로 이때 ‘줄’은 사실로 해석되며, ‘한국의 은행에서 돈을 찾을 줄 모른다’는 은행에서 돈을 찾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으로 이때 ‘줄’은 방법의 의미로 해석된다.

[도입]

<p>(1)</p> <p>교사: 선생님은 용산구에 살아요. 흐영 씨는 어디에 살아요?</p> <p>학생: 저는 마포구에 살아요.</p> <p>교사: 흐영 씨가 마포구에 살아요? 몰랐어요. 흐영 씨가 마포구에 사는 사실을 몰랐어요. 흐영 씨가 마포구에 사는 줄 몰랐어요. 흐영 씨는 선생님이 용산구에 사는 줄 알고 있었어요?</p> <p>학생: 네, 알고 있었어요.</p> <p>교사: 흐영 씨는 선생님이 용산구에 사는 사실을 알고 있어 있었어요. 용산구에 사는 줄 알고 있었어요.</p> <p>(2)</p> <p>교사: 왕밍 씨, 숙제 했어요?</p> <p>학생: 숙제가 있었어요? 몰랐어요.</p> <p>교사: 왕밍 씨, 숙제가 있었어요. 몰랐어요. 왕밍 씨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숙제가 있는 줄 몰랐어요. 숙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p> <p>(3)</p> <p>교사: 김치 좋아해요?</p>	
--	--

학생: 네/아니요.

교사: 김치를 담그는 방법을 알아요?

학생: 네/아니요.

교사: 줄리아 씨는 김치 담그는 방법을 알아요. 김치 **담글 줄** 알아요. 선생님은 김치 담그는 방법을 몰라요. 김치 **담글 줄** 몰라요. '김치 담그는 방법을 알아요/몰라요'를 표현할 때 '-을 줄'을 쓸 수 있어요.

- + 도입(1)과 도입(2)는 어떠한 사실에 대해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봄으로써 '-는 줄'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는 사실을 알다/모르다'를 '-는 줄 알다/모르다'로 바꾸어 제시하여 학생들이 그 의미를 파악하도록 한다.
- + 도입(3)은 '-을 줄'이 방법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다. '-는 방법을 알다/모르다'를 '-을 줄 알다/모르다'로 바꾸어 제시하는 것으로 학습자가 그 의미를 파악하도록 한다.

[형태 정보]

- ① 동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는 줄'을 쓴다.

예) 씻- + -는 줄 → 씻는 줄 읽- + -는 줄 → 읽는 줄
 먹- + -는 줄 → 먹는 줄 보- + -는 줄 → 보는 줄
 가- + -는 줄 → 가는 줄 사- + -는 줄 → 사는 줄
 살- + -는 줄 → 사는 줄 놀- + -는 줄 → 노는 줄
 만들- + -는 줄 → 만드는 줄

①	받침 0	+ -는 줄	씻는 줄, 읽는 줄, 먹는 줄
	받침 x	+ -는 줄	보는 줄, 가는 줄, 사는 줄
	ㄹ 받침	+ -는 줄 (어간 'ㄹ' 탈락)	사는 줄, 노는 줄, 만드는 줄

- + '-는 줄'는 동사 어간의 받침 유무에 상관없이 형태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ㄹ' 받침으로 끝나는 동사의 경우는 'ㄹ'이 탈락함에 주의한다.

- ② 동사 및 형용사 어간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은 줄'을 쓴다.

예) 먹- + -은 줄 → 먹은 줄 입- + -은 줄 → 입은 줄
 읽- + -은 줄 → 읽은 줄 높- + -은 줄 → 높은 줄
 좋- + -은 줄 → 좋은 줄 맑- + -은 줄 → 맑은 줄

- ③ 동사 및 형용사 어간의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ㄴ 줄'을 쓴다.

예) 가- + -ㄴ 줄 → 간 줄 보- + -ㄴ 줄 → 본 줄
 사- + -ㄴ 줄 → 사 줄 깨끗하- + -ㄴ 줄 → 깨끗한 줄
 만들- + -ㄴ 줄 → 만든 줄 멀- + -ㄴ 줄 → 먼 줄

②	받침 o	+ -은 줄	먹은 줄, 입은 줄, 읽은 줄, 높은 줄, 좋은 줄, 많은 줄
③	받침 x	+ -ㄴ 줄	간 줄, 본 줄, 산 줄, 깨끗한 줄
	ㄹ 받침	+ -ㄴ 줄 (어간 'ㄹ' 탈락)	만든 줄, 먼 줄

+ '-은 줄'은 동사 및 형용사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며, 특히 'ㄹ' 받침으로 끝나는 동사, 형용사의 경우는 'ㄹ'이 탈락하고 '-ㄴ'이 결합한다. '길은 줄, 멀은 줄'처럼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불규칙

춡- 예) 날씨가 **추운 줄** 몰랐어요.

짓- 예) 건물을 급하게 **지은 줄** 몰랐다.

파랑- 예) 줄리아 씨의 눈동자가 **파란 줄** 알고 있었다.

⑤ '있다, 없다'나 '있다, 없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합성어 '재미있다, 재미없다, 맛있다, 맛없다' 등의 형용사는 '-는'을 붙여 쓴다.

예) 불고기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이 드라마가 **재미없는 줄** 알았다면, 절대로 보지 않았을 거예요.

[문장 구성 정보]

① 뒤 절에 주로 '알다, '모르다'가 온다.

예) 수지랑 흐영이랑 **사귀는 줄** 알았어. (o)

지금 비가 **오는 줄** 몰랐어. (o)

수지랑 흐영이랑 **사귀는 줄** 생각했어. (x)

지금 비가 **오는 줄** 예상했어. (x)

②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거나 달라도 된다.

예) (내가) 상을 **받을 줄** (내가) 몰랐다.

(네가) 도서관에 **가는 줄** (내가) 몰랐어.

왕밍이 반장이 **된 줄** 흐영은 몰랐다.

+ 첫 예문의 앞 절과 뒤 절의 주어는 화자이고, 동일하다. 이때, 주어는 구어에서는 주로 생략된다. 두 번째 예문은 앞 절은 '너', 즉 청자가 주어이며, 뒤 절은 화자인 '나'가 주어이며 이 또한 구어에서 생략이 가능하다. 세 번째 예문은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다르다. 이처럼 '-는 줄'로 연결되는 두 문장의 주어는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

③ 앞 절과 뒤 절의 시제가 같거나 달라도 된다.

예) 수지는 철수가 장학금을 **받는 줄** 모른다.

수지는 철수가 장학금을 **받는 줄** 몰랐다.

수지는 철수가 장학금을 **받는 줄** 모를 것이다.

수지는 철수가 장학금을 **받은 줄** 모른다.
수지는 철수가 장학금을 **받은 줄** 몰랐다.
수지는 철수가 장학금을 **받은 줄** 모를 것이다.
수지는 불고기를 **만들 줄** 모른다.
수지는 불고기를 **만들 줄** 몰랐다.
수지는 불고기를 **만들 줄** 모를 것이다.

④ '-을 줄 알다/모르다'는 사실뿐 아니라 방법의 의미로 사용된다.

⑤ 사실의 의미로 사용되는 '-는 줄 알다/모르다', '-은 줄 알다/모르다', '-을 줄 알다/모르다'는 각각 현재, 과거, 미래(또는 예측) 사실을 나타낸다.

예) 철수가 장학금을 **받는 줄** 알았다. (철수가 장학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음.)
철수가 장학금을 **받은 줄** 알았다. (철수가 장학금을 이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철수가 장학금을 **받을 줄** 알았다. (철수가 장학금을 받을 것으로 예측함.)
철수가 장학금을 **받는 줄** 몰랐다. (철수가 장학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음.)
철수가 장학금을 **받은 줄** 몰랐다. (철수가 장학금을 이미 받은 것을 모르고 있음.)
철수가 장학금을 **받을 줄** 몰랐다. (철수가 장학금을 받을 것을 예측하지 못함.)

[제약 정보]

① 과거 '-었-'과는 결합하지만, 미래·추측의 '-겠-'과는 결합하지 않는다.

예) 너도 명동에 **갔는 줄** 알았어. (o)
너랑 영수랑 **싸웠는 줄** 알았어. (o)
너도 명동에 **가겠는 줄** 알았어. (x)
너랑 영수랑 **싸우겠는 줄** 알았어. (x)

[확장]

① '-는 줄'에 조사 '로', '을', '은', '만' 등이 붙을 수 있다.

예) 오늘 수업이 빨리 **끝나는 줄로** 알고 있었다.
다음 주가 남자친구 **생일인 줄을** 모르고 있었다.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매운 줄은** 몰랐다.
저는 오늘 소풍을 **가는 줄만** 알고, 도시락을 싸 왔어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대응표현 없음.

예) 지갑을 놓고 **온 줄** 몰랐어요. - 忘了带钱包了.
힘든 줄 모르고 달렸습니다. - 只是不知疲倦地奔跑着.
그는 차를 **운전할 줄** 알아요. - 他会开车.
오늘 비가 **올 줄** 알았는데 다행히 비가 안 왔어요. - 我以为今天会下雨, 幸好没下啊.

② 용법과 오류

- 앞 내용이 과거에 관한 것이라면 동사에 '-은 줄'을 쓰거나 과거 '-었-'을 쓰지만 시제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으로 '了'와 '过'가 다 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왕밍 씨가 작년에 장학금을 이미 받았은 줄 몰랐어요. (x) ('받은 줄' 혹은 '받았는 줄'을 써야 할 경우)

도둑이 내 가방에서 지갑을 이미 꺼냈은 줄 몰랐어요. (x) ('꺼낸 줄' 혹은 '꺼냈는 줄'을 써야 할 경우)

쇼밍이가 이미 학교에 가는었 줄을 몰랐다. (x) ('간 줄' 혹은 '갔는 줄'을 써야 할 경우)

- '-는 줄'이 어떤 사실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 사실은 예정되거나 가정적일 수 있다. 중국어의 과거완료 '了'도 예정되거나 가정적인 동작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나는 선배가 잤는 줄 알았어요. (x) -我以为师兄睡了. (o)

퇴근하자마자 슈퍼에 갔는 줄 몰랐어요. (x) -不知道下了班就去了超市. (o)

- '있다, 없다'나 '재미있다, 재미없다, 맛있다, 맛없다' 등 '있다, 없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합성어는 '-는'을 붙여 쓰는데 대응하는 중국어 '有, 没有'는 동사인 반면, '好, 不好'는 형용사이다. 동사와 형용사를 혼동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친구가 돈이 없은 줄 알았더라면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x)

불고기가 이렇게 맛있은 줄 몰랐어요. (x)

이 드라마가 재미없은 줄 알았다면, 절대로 보지 않았을 거예요. (x)

3.6.19. '-는 탓에'

-는 탓에[표현]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원인이나 까닭을 나타내는 표현.

- **는 탓에:** (동사, 형용사나 '있다, 없다, 계시다'에 붙어) 앞 절이 뒤 절의 부정적인 내용에 대한 원인이나 까닭이 됨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는 탓에'는 동사와 결합하고, '-은 탓에'는 형용사와 결합한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줄리아 씨, 이번 주말에 뭐 해요?</p> <p>나: 원래 친구와 등산을 하려고 했는데 못 갈 것 같아요.</p> <p>가: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p> <p>나: 날씨가 흐린 탓에 등산이 어려울 것 같아요.</p>
------	--

	<p>가: 왕밍, 오늘 강의에 왜 안 왔어?</p> <p>나: 아침에 못 일어났어.</p> <p>가: 왜? 어디 아팠어?</p> <p>나: 아니, 요즘 늦게 자는 탓에 너무 피곤해.</p>
문장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늦게 저녁을 먹는 탓에 살이 찌는 것 같아요. · 백화점에 갈 때마다 옷을 사는 탓에 옷이 너무 많아요. · 명동은 사람이 많은 탓에 쇼핑하기가 불편해요. · 서울 지리를 잘 모르는 탓에 택시를 자주 타는 편이에요. · 앤디는 시력이 나쁜 탓에 안경을 쓴다. · 담배를 많이 피우는 탓에 건강이 안 좋아요. · 아이가 게임을 좋아하는 탓에 공부를 안 해요. · 저는 요리하는 것을 싫어하는 탓에 주로 외식을 하는 편이에요. · 요즘 일이 바쁜 탓에 운동을 못 했어요. · 이곳은 바람이 센 탓에 날씨가 더 추운 것 같습니다.

+ '-는 탓에'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 때 앞 절의 내용은 '서울의 지리를 잘 모르는 탓에 택시를 자주 타는 편이에요', '담배를 많이 피우는 탓에 건강이 안 좋아요' 등과 같이 부정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아이가 게임을 좋아하는 탓에 공부를 안 해요'처럼 앞 절의 내용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는 탓에'를 사용하여 앞 절의 내용이 부정적 결과에 영향을 끼침을 나타낸다. '-은 탓에'도 마찬가지로 '날씨가 너무 추운 탓에 등산하기가 어려워요', '명동은 사람이 많은 탓에 쇼핑하기가 불편해요'와 같이 부정적 결과에 대한 원인을 '-은 탓에'로 나타내고 있다.

[도입]

(1)
교사: 왕밍 씨, 요즘 피곤해 보여요. 무슨 일이 있어요?
학생: 네, 요즘 늦게까지 공부를 해서 피곤해요.
교사: 왕밍 씨는 요즘 늦게까지 공부를 해서 피곤해요.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 탓에 피곤해요. 선생님도 요즘 피곤해요.
학생: 왜요?
교사: 저는 요즘 일이 많아서 늦게 퇴근해요. 그래서 피곤해요. 늦게 퇴근하는 탓에 피곤해요. '-는 탓에'는 일이 안 좋게 된 것에 대해 이유를 설명할 때 써요.
(2)
교사: 수지 씨는 어느 계절을 좋아해요?
학생: 겨울이요. 눈이 와서요.
교사: 그래요? 저는 겨울을 싫어해요. 눈이 와서요. 눈이 와

서 다니기가 불편해요. 수지 씨는 눈이 와서 겨울을 좋아해요. 선생님은 눈이 **오는 탓에** 겨울을 좋아하지 않아요. 좋지 않은 일에 대한 이유를 말할 때 '-는 탓에'를 사용해요. '수지 씨는 눈이 **오는 탓에** 겨울을 좋아해요'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3)

교사: 싫어하는 계절이 있어요?

학생: 네, 저는 여름이 싫어요. 너무 더워서요.

교사: 앤디 씨는 너무 **더운 탓에** 여름을 싫어해요. 저는 더운 건 괜찮은데 추운 게 싫어요. 그래서 겨울을 싫어해요. 저는 날씨가 **추운 탓에** 겨울을 싫어해요.

- + 도입(1)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일을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상황이다. '-는 탓에'는 일이 안 좋게 된 것에 대해 이유를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입(2)는 '눈이 온다'는 동일한 사실이 겨울을 좋아하는 이유도 되고 싫어하는 이유도 되는 상황을 동시에 제시하고 부정적인 결과가 생기게 된 원인이 되는 경우에 '-는 탓에'를 사용함을 보여주는 방법이다. 도입(3)은 형용사와 결합하는 '-은 탓에'에 대한 것이다. 겨울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도입(2)와 연결하여 제시할 수 있다.
- + 부정적 결과를 오른쪽에 판서한 후, 왼쪽에는 그 원인에 대해 제시하도록 하여 의미 관계에 대해 보다 쉽게 파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예)

원인, 이유	문법	부정적 결과
늦게까지 공부를 해요. 늦게까지 일을 해요.	-는 탓에	요즘 피곤해요.
눈이 많이 와요. 감기에 걸려요.		겨울을 좋아하지 않아요.
날씨가 너무 더워요. 날씨가 너무 추워요.	-은 탓에	여름을 좋아하지 않아요. 겨울을 좋아하지 않아요.

[형태 정보]

- ① 동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는 탓에'를 붙여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씻- + -는 탓에 → 씻는 탓에 읽- + -는 탓에 → 읽는 탓에
 먹- + -는 탓에 → 먹는 탓에 보- + -는 탓에 → 보는 탓에
 가- + -는 탓에 → 가는 탓에 사- + -는 탓에 → 사는 탓에
 살- + -는 탓에 → 사는 탓에 놀- + -는 탓에 → 노는 탓에
 만들- + -는 탓에 → 만드는 탓에

①	받침 ㅅ	+ -는 탓에	씻는 탓에, 읽는 탓에, 먹는 탓에
	받침 ㅁ	+ -는 탓에	보는 탓에, 가는 탓에, 사는 탓에
	ㄹ 받침	+ -는 탓에 (어간 'ㄹ' 탈락)	사는 탓에, 노는 탓에, 만드는 탓에

② 형용사 어간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은 탓에'를 쓴다.

예) 작- + -은 탓에 → 작은 탓에 많- + -은 탓에 → 많은 탓에
 짧- + -은 탓에 → 짧은 탓에 높- + -은 탓에 → 높은 탓에
 좋- + -은 탓에 → 좋은 탓에 맑- + -은 탓에 → 맑은 탓에

③ 형용사 어간의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ㄴ 탓에'를 쓴다.

예) 크- + -ㄴ 탓에 → 큰 탓에 예쁘- + -ㄴ 탓에 → 예쁜 탓에
 싸- + -ㄴ 탓에 → 싼 탓에 깨끗하- + -ㄴ 탓에 → 깨끗한 탓에
 길- + -ㄴ 탓에 → 긴 탓에 멀- + -ㄴ 탓에 → 먼 탓에

②	받침 ㅅ	+ -은 탓에	작은 탓에, 많은 탓에, 짧은 탓에, 높은 탓에, 좋은 탓에, 많은 탓에
③	받침 ㅁ	+ -ㄴ 탓에	큰 탓에, 예쁜 탓에, 싼 탓에, 깨끗한 탓에
	ㄹ 받침	+ -ㄴ 탓에 (어간 'ㄹ' 탈락)	긴 탓에, 먼 탓에

+ '-은 탓에'는 형용사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며, 특히 'ㄹ' 받침으로 끝나는 형용사의 경우는 'ㄹ'이 탈락하고 '-ㄴ'이 결합한다. '길은 탓에, 멀은 탓에'처럼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불규칙 형용사

춥- 예) 날씨가 **추운 탓에** 집에만 있었어요.
 짓- 예) 건물을 급하게 **지은 탓에** 튼튼하지 못합니다.
 까맣- 예) 수지 씨는 머리가 **까만 탓에** 어려 보여요.

⑤ '있다, 없다'나 '있다, 없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합성어 '재미있다, 재미없다, 맛있다, 맛없다' 등의 형용사는 '-는'을 붙여 쓴다.

예) 음식이 **맛있는 탓에** 너무 많이 먹었어요.
 영화가 **재미없는 탓에**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나왔어요.

[문장 구성 정보]

①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

예) (내가) 매일 밤 12시까지 텔레비전을 **보는 탓에** (내가) 늘 늦잠을 자요.
 지금 **비가 오는 탓에** (내가) 축구를 할 수 없어요.

- 왕밍이 방학 때 배낭여행을 가는 **탓에** 줄리아는 왕밍을 만날 수 없어요.
- + 첫 예문의 앞 절과 뒤 절의 주어는 화자이고, 동일하다. 이때, 주어는 구어에서는 주로 생략된다. 두 번째 예문은 앞 절은 '비' 뒤 절은 '나', 즉 화자가 주어인 예이다. 이 또한 구어에서 화자가 주어인 경우 생략이 가능하다. 세 번째 예문은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다른 예이다. 이처럼 '-는 탓에'로 연결되는 두 문장의 주어는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

② 앞 절과 뒤 절의 시제가 같거나 달라도 된다.

- 예) 아이가 **우는 탓에** 잠을 자기 어려워요.
 아이가 **우는 탓에** 잠을 자기 어려웠어요.
 아이가 **우는 탓에** 잠을 자기 어려울 거예요.
 거리가 **먼 탓에** 갈 수 없어요.
 거리가 **먼 탓에** 갈 수 없었어요.
 거리가 **먼 탓에** 갈 수 없을 거예요.

③ 과거는 '-은/ㄴ 탓에'의 형태로 사용되지만, 미래를 나타내는 '-을 탓에'의 형태는 사용되지 않는다.

- 예) 일찍 **잔 탓에** 뉴스를 못 봤어요. (o)/ 일찍 **자는 탓에** 뉴스를 못 봤어요. (o)
 뉴스를 늦게까지 **본 탓에** 피곤했어요. (o)/ 뉴스를 늦게까지 **보는 탓에** 피곤했어요. (o)
 일찍 **잘 탓에** 뉴스를 못 볼 것 같아요. (x)/ 일찍 **자는 탓에** 뉴스를 못 볼 것 같아요. (o)
 왕밍 씨는 뉴스를 늦게까지 **볼 탓에** 피곤할 거예요.(x) / 왕밍 씨는 뉴스를 늦게까지 **보는 탓에** 피곤할 거예요. (o)

+ 뒤 절이 과거일 때 앞 절은 '-은/ㄴ 탓에'와 '-는 탓에'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데 비해 뒤 절이 추측이나 미래의 의미를 나타낼 때 앞 절에는 '-을 탓에'가 올 수 없다.

결합어의 품사	시제 및 형태		예문
동사	현재	-는 탓에	라면만 먹는 탓에 똥똥해졌어요. 게임을 좋아하는 탓에 시력이 나빠졌어요.
	과거	-은 탓에 -ㄴ 탓에	커피를 5잔이나 마신 탓에 잠을 못 잤어요. 비가 내린 탓에 축구 시합이 취소됐어요.
형용사	현재	-은 탓에	복도가 좁은 탓에 다니기가 어렵네요.
		-ㄴ 탓에	날씨가 흐린 탓에 기분도 우울하다.

+ '-있던 탓에', '-던 탓에'로 과거를 나타낼 수도 있으며 동사 및 형용사가 모두 결합할 수 있다. 형용사의 과거에는 '-은'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형용사의 과거는 '-있던 탓에', '-던 탓에'으로 쓴다.

- 예) 입- + -있던 탓에/-던 탓에 → 입있던 탓에/입던 탓에
 잡- + -있던 탓에/-던 탓에 → 잡있던 탓에/잡던 탓에
 재미없- + -있던 탓에/-던 탓에 → 재미없었던 탓에/재미없던 탓에
 나쁘- + -있던 탓에/-던 탓에 → 나빴던 탓에/나쁘던 탓에

[제약 정보]

① 과거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 예) 일찍 **자는 탓에** 드라마를 못 봤어요. (x)
 드라마를 늦게까지 **봤는 탓에** 피곤하네요. (x)
 일찍 **자겠는 탓에** 드라마를 못 볼 것 같아요. (x)
 드라마를 늦게까지 **보겠는 탓에** 피곤할 거예요. (x)
 일찍 **자는 탓에** 드라마를 못 봐요. (o)
 드라마를 늦게까지 **보는 탓에** 피곤해요. (o)

② 뒤 절의 내용, 즉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이 부정적이어야 한다.

예)	(긍정적 원인) 일찍 일어난 탓에	+	피곤해요. (부정적 결과)	(o)
	(부정적 원인) 늦게 일어난 탓에		오늘도 지각을 했어요. (부정적 결과)	
	(긍정적 원인) 일찍 일어난 탓에	+	오늘은 지각을 하지 않았어요. (긍정적 결과)	(x)
	(부정적 원인) 늦게 일어난 탓에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긍정적 결과)	

+ 앞 절의 내용 자체가 부정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앞 절의 내용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것이 뒤 절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함에 주의한다.

③ 뒤 절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이 올 수 없다.

- 예) 시간이 **없는 탓에** 빨리 밥을 먹자/먹읍시다/먹을래요?/먹을까요?/먹는 건 어때요? (x)
 시간이 **없는 탓에** 빨리 밥을 먹어라/먹어/먹어요. (x)
 공부할 게 **많은 탓에** 도서관에 가자/갑시다/갈까요?/갈래요?/가는 건 어때요? (x)
 공부할 게 **많은 탓에** 도서관에 가라/가/가세요. (x)

[확장]

① 조사 '에'를 생략할 수 없다.

- 예) 커피를 **좋아하는 탓** 너무 많이 마시게 돼서 걱정이에요. (x)
 비가 **내리는 탓** 축제가 취소됐어요. (x)
 커피를 **좋아하는 탓에** 너무 많이 마시게 돼서 걱정이에요. (o)
 비가 **내리는 탓에** 축제가 취소됐어요. (o)

② '-는 탓이다', '-는 탓으로'의 구성으로 쓰기도 한다.

- 예) 살이 찌는 것은 군것질을 많이 **하는 탓이다**.
 군것질을 많이 **하는 탓으로** 살이 찐다.
 운동을 잘 못하는 것은 열심히 **연습하지 않는 탓이다**.
 열심히 **연습하지 않는 탓으로** 운동을 잘 못한다.

+ '-는 탓이다'를 사용하면 이유가 뒤 절에 온다.

- 예) 저는 술을 **좋아하는 탓에**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 제가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을 술을 좋아하는 탓입니다.

- ③ 'N 탓에', 'N 탓이다'의 구성으로 쓰기도 한다. 명사가 부정적인 결과의 원인이나 이유가 될 때 사용한다.

예) 무더위 탓에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교통사고 탓에 길이 막힌다.
 네 탓에 우리도 선생님께 혼났어.
 왕밍 탓에 지각하고 말았다.
 이 모든 게 네 탓이야.
 여행을 가지 못한 건 날씨 탓이다.

[유사 문법]

- ① '-는 탓에', '-는 바람에', '-기 때문에'

-는 탓에	-는 바람에	-기 때문에	-는 통에
-------	--------	--------	-------

· '어떤 일의 이유나 원인'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 과거 '-었-'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비가 왔는 탓에 여행을 취소했다. (x)	· 과거 '-었-'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비가 왔는 바람에 여행을 취소했다. (x)	· 과거 '-었-'과 결합한다. 예) 비가 왔기 때문에 여행을 취소했다. (o)	· 과거 '-었-'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비가 왔는 통에 여행을 취소했다. (x)
· 앞 절의 내용이 뒤 절의 부정적 결과에 영향을 끼쳐야 한다. 예) 비가 오는 탓에 여행을 갈 수 없다. (o) 기차가 늦게 온 탓에 기차를 탈 수 있었다. (x)	· 주로 앞 절의 내용이 뒤 절의 부정적 결과에 영향을 끼친다. 예) 비가 오는 바람에 여행을 갈 수 없다. (o) 기차가 늦게 오는 바람에 기차를 탈 수 있었다. (o)	· 앞 절과 뒤 절의 내용이 긍정적, 부정적인 것과 상관이 없다. 예) 비가 오기 때문에 여행을 갈 수 있다. (o) 기차가 늦게 왔기 때문에 기차를 탈 수 있었다. (o)	· 앞 절의 내용이 뒤 절의 부정적 결과에 영향을 끼쳐야 한다. 예) 비가 오는 통에 여행을 갈 수 없다. (o) 기차가 늦게 오는 통에 기차를 탈 수 있었다. (x)

+ '-는 탓에', '-는 바람에', '-기 때문에', '-는 통에' 모두 뒤 절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이 올 수 없다.

예) 비가 **오는** 탓에 여행을 취소하자. (x)
 비가 **오는** 바람에 여행을 취소하자. (x)
 비가 **오기** 때문에 여행을 취소하자. (x)
 비가 **오기** 통에 여행을 취소하자. (x)

+ '-는 탓이다', '-는 탓으로', 'N 탓에'의 구성으로 쓸 수 있는 데 비해, '-는 바람이다', '-는

바람으로', 'N 바람에'의 구성으로는 쓸 수 없음에 주의한다.

+ 과거를 나타낼 때는 각각 '-은 탓에', '-는 바람에', '-(있)기 때문에', '-은 통에'로 쓴다.

예) 비가 **온 탓에** 여행을 취소했다.

비가 **오는 바람에** 여행을 취소했다.

비가 **왔기 때문에** 여행을 취소했다.

비가 **온 통에** 여행을 취소했다.

② '-는 탓에', '-는 덕분에'

-는 탓에	-는 덕분에
· '어떤 일의 이유나 원인'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 앞 절이 뒤 절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예) 비가 오는 탓에 여행이 취소됐다. (o) 비가 오는 탓에 가뭄이 해소됐다. (x)	· 앞 절이 뒤 절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예) 비가 오는 덕분에 가뭄이 해소됐다. (o) 비가 오는 덕분에 여행이 취소됐다. (x)

+ '-는 탓에', '-는 덕분에'는 모두 과거 '-었-'과 결합하지 않으며 뒤 절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이 올 수 없다.

예) 비가 **왔는 탓에** 여행을 취소했다. (x)

비가 **오는 탓에** 여행을 취소하자. (x)

비가 **왔는 덕분에** 가뭄이 해소됐다. (x)

비가 **오는 바람에** 여행을 취소하자. (x)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怪', '怨', '因为', '由于'

예) 아이가 계속 **우는 탓에** 어젯밤에 잘 자지 못했어요.

- 都怪孩子一直哭闹, 昨晚没睡好.

아버지는 평소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탓에** 건강이 별로 안 좋아요.

- 都怨爸爸平时饮酒过多, 健康不怎么好.

배가 아픈 것은 상한 음식을 **먹은 탓**이다.

- 肚子疼是因为吃了坏了的食物.

맞벌이 **부부인 탓에** 아이 교육에 소홀했습니다.

- 由于是双职工夫妇, 忽略了对孩子的教育.

② 용법과 오류

-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지만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은 형용사와 결합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공원에 사람이 많은 탓에 길을 잃었어요. (x) - 都怪公园人多, 所以迷路了. (o)

머리가 나쁜 탓에 암송하기 어렵네요. (x) - 都怨脑袋不聪明, 不容易背诵啊! (o)

- 과거 '-었-', 미래 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지만 대응하는 중국어는 과거 시제 '了'와 미래 표현 '将要'와 결합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 예) 일찍 잤는 탓에 드라마를 못 봤어요. (x)
 - 怪我睡得早了, 没看成电视剧. (o)
 일찍 자겠는 탓에 드라마를 못 볼 것 같아요. (x)
 - 因为我将要早点睡, 恐怕看不了电视剧了. (o)

- 뒤 절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이 올 수 없지만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은 이런 제약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 예) 배가 너무 고프는 탓에 우리 많이 먹자 (x) - 都怪太饿了, 咱们多吃吧! (o)
 배가 너무 고프는 탓에 너희들 많이 먹어라 (x) - 都怨太饿了, 你们多吃吧! (o)

3.6.20 ‘-는 한’

-는 한[표현] 조건을 나타내는 표현.

-는 한: (동사나 ‘있다, 없다, 계시다’에 붙어) 앞 절이 뒤 절의 상태나 행위의 전제, 또는 조건임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가: 매일 아침 학교에 함께 가니까 정말 좋아요. 나: 그렇지요? 저도 심심하지 않고 좋아요. 가: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데리러 오실 수 있어요? 나: 제가 이 동네에 사는 한 항상 데리러 올게요.</p> <p>가: 수학은 어려워서 정말 재미가 없어요. 계속 수학을 공부해야 해요? 나: 그럼, 수학이 기본이니까 안 하면 안 돼. 가: 언제까지 재미없는 수학 공부를 해야 해요? 나: 전공을 바꾸지 않는 한 계속 해야지.</p> <p>가: 줄리아 씨, 무슨 일이 있어요? 나: 요즘 좀 피곤해서요. 항상 기운이 없어요. 가: 그럴수록 운동을 하셔야 해요. 나: 힘들어서 운동은 생각도 못해요. 가: 운동을 하지 않는 한 피곤한 건 고칠 수가 없어요.</p>
문장예문	<p>· 아직까지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 한 독립했다고 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은 주말이어서 지하철을 타지 않는 한 제시간에 도착할 수 없어요. ·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는 한 돈을 모으기는 힘들다. ·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일처럼 힘을 합치는 한 이웃들의 어려움은 쉽게 해결될 수 있어요. · 바람이 세계 부는 한 비행기가 뜨는 건 불가능해요. ·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는 한 건강이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 열심히 공부하는 한 시험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 한국어 공부를 계속 하는 한 한국어를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 지금처럼 길이 막히는 한 약속 시간을 맞추기는 힘들 것 같아요. ·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 성공할 수 있습니다.
--	---

+ ‘-는 한’은 조건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앞 절의 내용은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 한, 지하철을 타지 않는 한, 돈을 함부로 쓰는 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는 한, 바람이 세계 부는 한, 담배를 많이 피우는 한, 열심히 공부하는 한, 한국어 공부를 계속 하는 한, 지금처럼 길이 막히는 한,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 등과 같이 뒤 절이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이나 전제를 나타낸다. 즉,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정적 상황이 뒤 절에 제시된다.

[도입]

<p>(1)</p> <p>교사: 여러분 오늘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셨어요.</p> <p>학생: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정말 재미있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감사합니다.</p> <p>교사: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요. 그러면 선생님은 계속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한 선생님은 한국어를 열심히 가르칠 거예요.</p>
<p>(2)</p> <p>교사: 줄리아 씨,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p> <p>학생: 네,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p> <p>교사: 김치도 잘 먹어요?</p> <p>학생: 아니요, 매운 음식은 못 먹어요. 하지만 다른 한국 음식을 잘 먹을 수 있어요.</p> <p>교사: 하하하, 김치를 먹지 못하면 한국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김치를 먹지 못하는 한 한국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p>

+ 도입(1)은 학생들이 지각을 하거나 최근에 결석한 일에 대해 그 이유를 물어봄으로써 지

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도록 한다. 선행 학습한 ‘-으면’과 ‘-는 한’을 교체하여 제시하면 의미를 유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 도입(2)는 어떠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 조건에 대해 언급할 때 ‘-는 한’을 사용하는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여행한 곳에 대한 소재를 활용할 수도 있다. 가령, ‘명동을 가 보지 않는 한 서울을 가 봤다고 말할 수 없다’와 같은 형태의 문장을 만들 수도 있다.

[형태 정보]

- ① 동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는 한’을 붙여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씻- + -는 한 → 씻는 한	읽- + -는 한 → 읽는 한
	먹- + -는 한 → 먹는 한	보- + -는 한 → 보는 한
	가- + -는 한 → 가는 한	사- + -는 한 → 사는 한
	살- + -는 한 → 사는 한	놀- + -는 한 → 노는 한
	만들- + -는 한 → 만드는 한	

①	받침 ㄹ	+ -는 한	씻는 한, 읽는 한, 먹는 한
	받침 ×	+ -는 한	보는 한, 가는 한, 사는 한
	ㄹ 받침	+ -는 한 (어간 ‘ㄹ’ 탈락)	사는 한, 노는 한, 만드는 한

- + ‘-는 한’은 동사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ㄹ’ 받침으로 끝나는 동사의 경우는 ‘ㄹ’이 탈락함에 주의한다.

- ② ‘있다, 없다’나 ‘있다, 없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합성어 ‘재미있다, 재미없다, 맛있다, 맛없다’ 등은 ‘-는’을 붙여 쓴다.

예) 음식이 **맛없는 한** 그 식당은 손님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주인공이 유명하지 않아도 영화가 **재미있는 한** 관객이 많을 거예요.

[문장 구성 정보]

- ①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

예) (내가) 매일 밤 12시까지 텔레비전을 **보는 한** (내가) 늦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비가 이렇게 계속 **오는 한** (내가) 축구를 할 수 없어요.

왕밍이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는 한** 줄리아는 왕밍과 여행을 같이 갈 수 없다.

- + 첫 예문의 앞 절과 뒤 절의 주어는 화자이고, 동일하다. 이때, 주어는 구어에서는 주로 생략된다. 두 번째 예문은 앞 절은 ‘비’ 뒤 절은 ‘나’, 즉 화자가 주어인 예이다. 이 또한 구어에서 화자가 주어인 경우 생략이 가능하다. 세 번째 예문은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다른 예이다. 이처럼 ‘-는 한’으로 연결되는 두 문장의 주어는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

- ② 앞 절과 뒤 절의 시제가 같거나 달라도 된다.

- 예) 내가 함께 **사는 한** 모른 척 할 수 없어요. (o)
 내가 함께 **사는 한** 모른 척 할 수 없었어요. (o)
 내가 함께 **사는 한** 모른 척 할 수 없을 거예요. (o)
 남자친구와 **헤어진 한**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요. (o)
 남자친구와 **헤어진 한** 더 이상 만날 수 없었어요. (o)
 남자친구와 **헤어진 한**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거예요. (o)

③ 과거는 '-은/ㄴ 한'의 형태로 사용되지만, 미래를 나타내는 '-을 한'의 형태는 사용되지 않는다.

- 예) 게임을 안 하겠다고 **약속한 한**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o)
 쇼핑을 **나온 한** 뭐라도 사야겠다. (o)
 커피를 5잔이나 **마실 한** 꼭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x)
 쇼핑을 **나올 한** 뭐라도 사야겠다. (x)

[제약 정보]

① 과거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 예) 일찍 **잡는 한** 드라마를 볼 수 없어요. (x)
 드라마를 늦게까지 **봤는 한** 피곤하지 않을 수 없어요. (x)
 일찍 **자겠는 한** 드라마를 볼 수 없을 거예요. (x)
 드라마를 늦게까지 **보겠는 한** 피곤하지 않을 수 없어요. (x)
 일찍 **자는 한** 드라마를 볼 수 없어요. (o)
 드라마를 늦게까지 **보는 한** 피곤하지 않을 수 없어요. (o)

② 뒤 절의 내용은 앞 절의 조건에 대한 추측이나 가정, 믿음이나 의지가 되어야 한다.

예)			성공할 것이다. 성공하지 않을 수 없다. 성공하게 될 것이다. 성공하는 게 당연하다. 성공한다.
	열심히 공부하는 한	+	

[확장]

① 조사 '은'이 붙을 수 있다.

- 예) 계속 술을 **좋아하는 한은** 건강해질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계속 눈이 **내리는 한은** 기차가 출발하지 못할 거예요.

+ 조건의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 '-는 한이다', '-는 한으로', '-는 한데', 'N 한' 등의 구성으로 쓸 수 없다. '-는 탓에', '-는 바람에', '-는 동안에', '-는 김에' 등의 비슷한 구성들과 비교하여 확장 가능한 구성과 그렇지 못한 구성에 대한 항목별 차이를 구별하여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② '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한', '아는 한', '관한 한'과 같이 관용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예) **될 수 있는 한**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흐엉 씨는 내가 **아는 한**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야구에 **관한 한**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유사 문법]

- ① '-는 한', '-으면'

-는 한	-으면
· '어떤 일의 조건'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 동사와만 결합한다. 예) 비가 오는 한 여행이 취소될 거예요. (o) 날씨가 맑은 한 여행을 갈 수 있다. (x)	· 동사, 형용사와 결합한다. 예) 비가 오면 여행이 취소될 거예요. (o) 날씨가 맑으면 여행을 갈 수 있다. (o)
·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예) 내가 서울에 사는 한 당장 갔을 거야. (x) 내가 서울에 사는 한 자주 만나야지요. (o) (현재 서울에 살고 있고 그러한 조건하에서는 자주 만나야 한다는 의미.)	· 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 내가 서울에 산다면 당장 갔을 거야. (서울에 살지 않지만 만약 서울에 산다면 당장 갔을 것이라는 가정의 의미.)

+ '-으면'은 뒤 절의 내용이 일어나기 위한 근거나 상황에 대한 조건뿐만이 아니라, 확실하지 않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가정하여 말할 때에도 사용된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 ① 대응 표현: '只要……就', '既然……就', '尽可能……范围', '尽最大……限度', '至少'

예) 내가 **살아 있는 한** 아이는 행복할 거예요. - 只要我还活着, 孩子们就会幸福的.
 이토록 열심히 **일하는 한** 굶어 죽지는 않을 겁니다. - 只要这样努力工作, 就不会饿死的.
 늦게 **일어난 한** 일찍 가기는 틀렸다. - 既然睡过了, 就不能按时到了.
 될 수 있는 한 거짓말은 삼가세요. - 尽可能不要说谎.
 제가 힘이 **자라는 한**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 我会尽我最大能力帮助你的.
 야구에 **관한 한**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 至少关于棒球没有比我更内行的.

- ② 용법과 오류

- '-었던 한'의 형태로 과거를 나타낼 수 없지만 대응하는 중국어의 '只要……就', '既然……就'는 과거를 나타내는 '了'와 결합이 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늦게 일어났던 한 일찍 가기는 틀렸다. (x) - 既然睡过了, 就不能按时到了. (o)

약속을 했던 한 만나야지. (x) - 只要约好了, 就得见. (o)

기왕 나왔던 한, 아예 실컷 놀아보자. (x) - 既然出来了, 干脆玩个痛快. (o)

-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지만 대응하는 중국어의 '只要……就', '既然……就'는 장래 소망을 나타내는 '想', '要'와 함께 쓸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일찍 자겠는 한 드라마를 볼 수 없을 거예요. (x) - 只要想早点睡, 可能就看不电视剧了. (o)

기왕에 갚아야 하겠는 한 빨리 갚는 게 좋다. (x) - 既然是要还的就快还吧. (o)

-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지만 대응하는 중국어 '只要……就'는 가정의 의미도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사려는 사람이 나서는 한 당장에라도 넘길 거야. (x) - 只要有买主, 见钱就卖. (o)

왕밍이 한국에 오는 한, 그녀는 당장 마중 올 것이다. (x) - 只要王明来韩国, 她肯定会来接站. (o)

서둘러 하는 한, 제 시간에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x) - 只要抓紧时间, 就能按时完成. (o)

왕명만 나타나는 한 그는 자리를 피할 것이다. (x) - 只要王明一出现, 秀珍就会避开的. (o)

3.6.21 '-려고 들다'

-려고 들다[표현]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또는 집요하게 하고자 함을 나타내는 표현.

-려고 들다: (동사에 붙어) 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고자 함을 나타낸다. 행위를 거침없이 지나치게 또는 집요하게 한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 예문	가: 줄리아 씨, 무슨 걱정이 있어요?
	나: 네, 저번 주에 월급을 받았는데 벌써 다 써 버렸지 뭐예요.
	가: 벌써요? 뭘 했는데요?
	나: 제가 돈만 있으면 자꾸 옷을 사려고 들어요 . 안 사려고 해도 새 옷을 보면 사고 싶은 걸 참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좋아요?
	가: 큰일이네요. 쇼핑하러 가지 말고 다른 취미를 찾아보세요.
	가: 흐엉, 강아지는 왜 데리고 왔어?
	나: 놓고 나오려고 했는데, 자꾸 따라오려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가: 어떻게 하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기로 했잖아.
	나: 나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너 혼자 들어갔다 와.

	<p>가: 그럼 내가 다녀온 후에 너도 들어갔다 올래?</p> <p>나: 그러면 좋겠지만, 강아지가 따라 들어가려고 들 거야.</p>
문장 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기가 늦게까지 놀려고 들어요. · 그 부부는 싸울 때마다 서로 잘못을 따지려고 든다. · 지하철 자리가 비어서 앉으려고 들면 어느새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 · 남자친구가 제 휴대폰 메시지를 항상 읽으려고 들어서 짜증이 나요. · 우리 아이가 매일 게임만 하러 들고 공부는 안 해요. · 마이클은 시간만 있으면 자려고 들어요. · 그는 컴퓨터가 고장 나기만 하면 뜯어보려고 든다. · 그는 얘기도 듣기 전에 신경질부터 내려고 든다. · 두 차가 서로 먼저 가려고 들다가 사고가 났다. · 그 사실에 대해 너무 알려고 들지 마십시오.

+ '-려고 들다'는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함을 나타낸다. '게임만 하러 들고 공부는 안 해요'는 다른 것은 제쳐 두고 게임을 하고자 한다는 뜻이다. '남자친구가 제 휴대폰 메시지를 항상 읽으려고 들어서 짜증이 나요'는 남자친구가 휴대폰 메시지를 읽고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기가 늦게까지 놀려고 들어요'는 아기가 늦은 시간까지 놀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려고 들다'는 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또는 집요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입]

<p>(1)</p> <p>교사: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 또는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 그림을 보여 주며) 이 사람은 스포츠를 좋아해요. 그래서 스포츠 경기를 꼭 봐요. 일이 있어서 좋아하는 축구 경기를 못 보면 어떻게 할까요?</p> <p>학생: 인터넷 찾아봐요.</p> <p>교사: 맞아요. 이 사람은 스포츠 경기를 보기 위해 TV도 예약해 놓고 인터넷도 찾아봐요. 그리고 스포츠 뉴스도 꼭 봐요. 열심히 적극적으로 경기를 보려고 노력해요. 스포츠 경기를 다 보려고 들어요. '-려고 들다'는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행동한다는 뜻이에요.</p> <p>(2)</p> <p>교사: 줄리아 씨, 시험 준비를 잘하고 있어요?</p> <p>학생: 아니요. 한국어가 너무 어려워서 공부를 해도 잘 모르겠어요.</p> <p>교사: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해요?</p>
--

학생: 1시간이요.

교사: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자막 없이 보세요. 무슨 뜻인지 계속 생각하면서요. 그러면 한국어가 더 쉬워질 거예요. 한국 친구도 만들려고 노력해 보고, 여기 저기 여행도 다니며 적극적으로 이것저것 노력해 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면 못 할 게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들면** 못 할 게 없어요.

+ 도입(1)과 도입(2)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나열하게 한 뒤에 그러한 행위를 함하여 '-려고 들다'로 쓸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으려고 들다'를 쓴다.

예) 씻- + -으려고 들다 → 씻으려고 들다 앉- + -으려고 들다 → 앉으려고 들다
 먹- + -으려고 들다 → 먹으려고 들다 잡- + -으려고 들다 → 잡으려고 들다
 남- + -으려고 들다 → 남으려고 들다 읽- + -으려고 들다 → 읽으려고 들다

②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려고 들다'를 쓴다.

예) 가- + -려고 들다 → 가려고 들다 오- + -려고 들다 → 오려고 들다
 이기- + -려고 들다 → 이기려고 들다 자- + -려고 들다 → 자려고 들다
 파- + -려고 들다 → 파려고 들다 따지- + -려고 들다 → 따지려고 들다
 만들- + -려고 들다 → 만들려고 들다 살- + -려고 들다 → 살려고 들다

①	받침 ㅇ	+ -으려고 들다	씻으려고 들다, 앉으려고 들다, 먹으려고 들다, 잡으려고 들다, 남으려고 들다, 읽으려고 들다
②	받침 ×	+ -려고 들다	가려고 들다, 오려고 들다, 이기려고 들다, 자려고 들다, 파려고 들다, 따지려고 들다,
	ㄹ 받침	+ -려고 들다	만들려고 들다, 살려고 들다

③ 불규칙 동사

듣- 예) 남편이 내 얘기를 잘 안 **들으려고 들어서** 속상해요.
 돕- 예) 땅에 떨어진 것을 **주우려고 들지** 마세요.
 짓- 예) 자꾸 새 밥을 **지으려고 들지** 말고 남은 것 먼저 먹어라.

[문장 구성 정보]

① 부정문은 '-려고 들지 않다, '안 -려고 들다', '-지 않으려고 들다'로 쓴다.

예) 아이가 만화책을 **읽으려고 들지 않아요.** (o)
 아이가 만화책을 **안 읽으려고 들어요.** (o)
 아이가 만화책을 **읽지 않으려고 들어요.** (o)

아이가 만화책을 읽으려고 안 들어요. (x)

- ② '-려고 들다'의 높임은 '-으시려고 드시다'로 쓸 수 있지만, '-려고 들다'에는 행동을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한다는 부정적인 태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높임 표현으로 쓰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가 많으니 조심해야 한다.

예) 아버지께서는 매일 밤 일찍 주무시려고 드세요. (?)
 선생님께서 수업을 더 하시려고 드십니다. (?)
 할아버지께서 학교에 자꾸 전화하시려고 드십니다. (?)

[제약 정보]

- ①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얼굴이 예쁘려고 들어요. (x)
 마음이 착하려고 든다. (x)

- ② 과거 '-었-'과 미래 추측의 '-겠-'을 '들다'에 붙여 쓴다.

예) 아이가 텔레비전을 많이 봤으려고 들어요. (x)
 아이가 텔레비전을 많이 봤으려고 들었어요. (x)
 아이가 텔레비전을 많이 보려고 들었어요. (o)
 아이가 텔레비전을 많이 보겠으려고 들어요. (x)
 아이가 텔레비전을 많이 보겠으려고 들겠어요. (x)
 아이가 텔레비전을 많이 보려고 들겠어요. (o)

+ '-려고' 앞에 '-었-', '-겠-'을 붙이지 않는다.

[확장]

- ① 보조사 '만'과 함께 쓸 수 있다.

예) 비가 와도 창문을 열려고만 들어요.
 아들이 매일 놀려고만 들어요.
 아이가 먹으려고만 들어요.

+ 행위를 집요하게 함을 강조한다.

[유사 문법]

- ① '-려고 들다', '-려고 하다'

-려고 들다	-려고 하다
·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나타낸다.	
·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함을 의미하지만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한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낼 때가 많다.	·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며,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을 나타낼 때도 사용한다.
예) 아이가 반찬은 안 먹고 밥만 먹으려고 들어서 걱정이에요.	예) 저는 선생님이 되려고 합니다. 날이 어두워지려고 한다.

+ '-려고 들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을 나타낼 때에는 주어가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무생물이 주어로 쓰인다. 주로 문학적인 표현에서 이와 같이 사용된다.

예) 비가 **쏟아지려고** 든다.
또다시 기분이 **우울해지려고** 든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就要', '想方设法'

예) 수잔 씨는 남의 얘기는 듣기도 전에 화부터 **내려고 들어요**. - 秀珍还没听别人的话就要先发火.
이 아이는 스마트폰만 갖고 **놀려고 든다**. - 这个孩子就要玩手机.
서로 상대방의 잘못부터 **따지려고 들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互相就要指责对方的错, 不利于解决问题.
조금만 일하고는 또 휴식하**려고 들면** 어떡해? - 才工作了一点, 想方设法又要休息, 这怎么能行呢?
넌 왜 철없이 게임을 밤새워 **놀려고 드느냐?** - 你怎么这么不懂事, 玩游戏就要玩通宵阿?

② 용법과 오류

- '-려고 안 들다'가 부정문으로 쓰지 않지만 대응하는 중국어 '就要'의 부정은 '就是不'가 되므로 기타 부정문과 혼동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왕밍은 좀처럼 휴식을 하려고 안 든다. (x) - 王明就是不休息. (o)
먼저 자기의 잘못부터 반성하려고 안 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x) - 就是不先反省自己, 不利于解决问题.(o)
넌 왜 공부는 밤 새워 하려고 안 드느냐? (x) - 你怎么学习上就是不通宵阿? (o)

- 과거를 나타내는 '-었-'을 '들다'에 붙여 쓰며 '-려고' 앞에 붙이지 않지만 중국어의 과거완료를 나타내는 '了'는 '就要'에 붙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 뒤에 붙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이 아이는 스마트폰만 갖고 놀**었**려고 든다. (x) - 这个孩子就要玩手机了. (o)
수잔 씨는 남의 얘기는 듣기도 전에 화부터 내**렸**으려고 들어요. (x) - 秀珍还没听别人的话就要先发火了. (o)

- 미래·추측의 '-겠-'을 '들다'에 붙여 쓰며 '-려고' 앞에는 붙이지 않는데 중국어의 추측을 나타내는 '可能'은 '就要' 앞에 붙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아이가 아마 텔레비전을 많이 보**겠**으려고 들**겠**죠. (x) - 孩子可能就要多看电视. (o)
어린이들은 아마 아이스크림을 먹**겠**으려고 들**거**예요. (x) - 孩子们可能就要吃冰淇淋.

(o)

3.6.22 ‘만 같아도’

만 같아도[표현] 어떤 상태나 상황에 대해 그러하다고 **가정함**을 나타내는 표현.

만 같아도: (명사에 붙어) 어떤 상태나 상황이 그러하다고 가정함을 나타낸다. 앞의 상황과 비교하여 가정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앤디 씨는 언제 처음으로 휴대폰을 샀어요?</p> <p>나: 저는 대학생 때 처음 휴대폰을 샀어요.</p> <p>가: 정말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다 휴대폰을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p> <p>나: 맞아요. 10년 전만 같아도 초등학생들이 휴대폰을 갖고 다니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에요.</p> <p>가: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요?</p> <p>나: 성적표가 나왔는데 성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p> <p>가: 왜요? F가 있어요?</p> <p>나: 아니요, 성적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데 0.1점이 모자라요.</p> <p>가: 제 성적이 왕밍 씨만 같아도 걱정이 없을 텐데요.</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날씨가 작년만 같아도 눈이 많이 오지 않을 거예요. · 동생이 형만 같아도 공부를 잘 할 거예요. · 평일만 같아도 길이 이렇게 막히지 않을 거예요. · 내 방 크기가 여기만 같아도 훨씬 넓고 좋을 것 같아요. · 어제만 같아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 학기 초만 같아도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 철수 키가 너만 같아도 축구 선수를 한다고 했을 거야. · 오늘 회의만 같아도 직원들의 참여가 매우 활발했습니다. · 우리 회사만 같아도 1년 안에 그만두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 10년 전까지만 같아도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 ‘만 같아도’는 앞의 상황을 예로 들어 비교하며, 뒤의 상태나 상황이 그러함을 가정하여 나타낸다.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을 비교하여 서로 비슷하거나 같음을 비유하여 나타내기도 하고, 두 개의 상황(이전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반대가 됨을 보여 주기도 한다. ‘동생이 형만 같아도 공부를 잘 할 거예요’와 같이 ‘동생이 형과 같다’는 가정이 성립한다

면, '공부를 잘하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10년 전까지만 같아도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많지 않았어요'와 같이, '10년 전'의 상황은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많지 않은 상태'였으나 지금은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많음'을 비교하여 짐작할 수 있다.

[도입]

(1)

교사: 여러분, 오늘 날씨가 어때요?

학생: 너무 추워요. 바람이 많이 불어요.

교사: 맞아요.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추워요. 어제 날씨는 어땠어요?

학생: 어제는 날씨가 맑고 따뜻했어요.

교사: 네. 어제는 날씨가 맑고 따뜻했어요. 오늘은 추워요. 날씨가 어제**만 같아도** 산책하기 좋았는데, 오늘은 추워서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2)

교사: 여러분, 강원도에 가 봤어요?

학생: 네, 가 봤어요.

교사: 서울과 비교해서 강원도 공기가 어때요?

학생: 서울보다 공기가 좋아요.

교사: 네, 강원도는 서울보다 복잡해요?

학생: 아니요, 복잡하지 않아요.

교사: 맞아요. 서울이 강원도**만 같아도** 공기도 좋고 복잡하지 않아서 살기 좋을 것 같아요. '만 같아도'는 무엇과 비교해서 추측할 때 사용해요. 서울을 강원도와 비교해서 추측하고 있어요.

+ '만 같아도'를 도입할 때는 같은 범위 안에서 비교할 수 있는 상태나 상황을 두 개 이상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 도입(1)에서와 같이 교사는 학생에게 오늘 날씨를 물어본 후에, 자연스럽게 어제 날씨도 물어본다. 어제 날씨와 오늘 날씨 두 가지를 제시하고, 이를 '만 같아도'를 사용하여 '어제만 같아도 맑고 따뜻했지만,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고 추워요'와 같이 서로 비교할 수 있다. 도입(2)에서도 '서울과 강원도' 두 개의 도시를 제시하여 각각의 특징을 학생들에게 물어본다. '강원도만 같아도 서울보다 공기가 더 좋고 복잡하지 않아요'와 같이 두 개를 비교하여, 강원도가 공기가 더 좋고 복잡하지 않은 반면에 서울은 그렇지 않음'을 '만 같아도'를 사용하여 말할 수 있다.

[형태 정보]

① 명사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만 같아도'를 쓴다.

예) 지금 + 만 같아도 → 지금만 같아도

학생 + 만 같아도 → 학생만 같아도

오늘 + 만 같아도 → 오늘날만 같아도

친구 + 만 같아도 → 친구만 같아도

어제 + 만 같아도 → 어제만 같아도

나 + 만 같아도 → 나만 같아도

①	받침 o	+ 만 같아도	지금만 같아도, 오늘만 같아도, 학생만 같아도
	받침 x	+ 만 같아도	친구만 같아도, 어제만 같아도, 나만 같아도

[문장 구성 정보]

- ① 앞과 뒤의 상황이 반대인 상황에서도 '만 같아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만 같아도'의 앞에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예) 지난주**만 같아도** 춥지 않았는데, 오늘은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작년**만 같아도** 이 옷이 맞았었는데, 올해는 살이 찘는지 작아요.
 아침**만 같아도** 청계천에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렸을 때**만 같아도** 동생이 키가 작았는데, 지금은 저보다 훨씬 커요.

- ② 비교의 의미를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 '까지', '으로', '에서'와 같은 조사가 결합하여, '까지만 같아도', '으로만 같아도', '에서만 같아도'로 쓰인다.

예) 이틀 전까지만 같아도 흐영 씨가 한국에 있었어요.
 이런 방법으로**만 같아도** 금방 한국어 실력이 좋아질 거예요.
 어제 공항에서만 같아도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확장]

- ① 큰 의미 차이 없이 '만 해도', '만 하더라도', '의 경우만 봐도'로 바꿔 쓸 수 있다.

예) 몇 년 **전만 같아도**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 몇 년 **전만 해도**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 몇 년 **전의 경우만 봐도**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회사**만 같아도**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 우리 회사**만 해도**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 우리 회사**만 하더라도**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 우리 회사**의 경우만 봐도**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 ① 대응 표현: 哪怕像……也, 即使像……也

예) 몸 상태가 작년**만 같아도** 마라톤 완주에 도전할 거예요. - 身体状况**哪怕像**去年, **也会**挑战马拉松的.
 형이 동생**만 같아도**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 哥哥**哪怕像**弟弟, 父母**也**不会担心的.
 명절 연휴 첫날**만 같아도** 고속도로가 원활했습니다. - **即时像**节假日第一天, 高速公路**也**比较畅通.
 베이징은 10년 **전만 같아도** 자동차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 北京**即使像**十年前, 车

也没那么多.

② 용법과 오류

- 대응하는 중국어 '哪怕像……也', '即使像……也'를 직역하는 '설령……같아도'의 표현으로 '만 같아도'를 대체하는 오류를 나타낸다.

예) 몸 상태가 설령 작년 같아도 마라톤 완주에 도전할 거예요. (?)

설령 지난주 같아도 춥지 않았는데, 오늘은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 (?)

형이 설령 동생 같아도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

- 비교의 의미를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 '까지', '으로', '에서'와 같은 조사가 결합하여 쓰이기도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까지', '으로', '에서'에 대응하는 표현이 문장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회피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예) 이틀 전만 같아도 흐영 씨가 한국에 있었어요. (?) ('이틀 전까지만 같아도'로 표현해야 하는 경우)

이런 방법만 같아도 금방 한국어 실력이 좋아질 거예요. (?) ('이런 방법으로만 같아도'로 표현해야 하는 경우)

어제 공항만 같아도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 ('공항에서만 같아도'로 표현해야 하는 경우)

3.6.23 '만 아니면'

만 아니면[표현] 어떤 상태나 내용이 벗어날 수 없는 조건이나 이유임을 나타내는 표현.

만 아니면: (명사에 붙어) 앞의 명사가 가리키는 내용이 피할 수 없는 이유나 조건임을 나타낸다. 앞의 명사가 나타내는 상황 때문에 뒤의 행위를 못하거나 상태가 충족되지 않을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앤디 씨, 삼청동에 가 봤어요? 나: 네, 지난주에 흐영 씨와 같이 갔어요. 가: 정말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이번 주에 시간이 있으면 저와 같이 가요. 나: 네, 좋아요. 저는 내일만 아니면 이번 주에 시간이 많아요.</p> <p>가: 왕밍 씨, 영화 좋아해요? 나: 네, 좋아해요. 제 취미가 영화 감상이에요. 가: 저도 영화 좋아해요. 왕밍 씨는 무슨 영화를 좋아해요? 나: 저는 공포 영화만 아니면 다 좋아해요.</p>
------	---

	가: 저는 로맨틱 코미디를 제일 좋아해요.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일 시험만 아니면 저도 줄리아 씨의 생일 파티에 가고 싶어요. · 금요일만 아니면 현우 씨도 같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 오늘 졸업식만 아니면 학교에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 수지 씨는 공부만 아니면 다 잘 해요. · 아까 제 친구만 아니었으면 싸웠을 거예요. · 연필만 아니면 아무거나 사용해서 써도 됩니다. · 제 남자친구도 키만 아니면 모두 완벽해요. · 주말만 아니면 어디든 금방 갈 수 있을 텐데요. · 돈만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 ·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었습니다.

- + '만 아니면'은 앞의 상태나 내용이 벗어날 수 없는 조건이나 이유로 작용함을 나타낸다. '만 아니면'은 '오직 그것만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조사 '만'과 '아니다'에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면'이 결합한 형태이다. '저는 내일만 아니면 이번 주에 시간이 많아요'는 이번 주에 시간이 많은데 내일은 그렇지 않음을 뜻한다. 저는 공포 영화만 아니면 다 좋아해요'는 공포 영화는 좋아하지 않고 다른 것은 다 좋아한다는 뜻이다.

[도입]

(1)
교사: 여러분,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학생: 네, 좋아해요.
교사: 혹시 한국 음식 중에서 못 먹는 음식이 있어요?
학생: 네, 있어요. 저는 매운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다른 음식은 다 먹을 수 있어요.
교사: 마이클 씨는 매운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다른 음식은 다 먹을 수 있어요. 매운 음식 만 아니면 다 먹을 수 있어요.
(2)
교사: 요즘 날씨가 좋아요. 우리 언제 같이 등산 갈까요?
학생: 네, 좋아요.
교사: 언제 갈까요? 미도리 씨는 토요일, 일요일 언제가 좋아요.
학생: 토요일 좋아요.
교사: 선생님이 토요일 오전에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등산을 못 가요. 다른 날은 괜찮아요. 토요일 오전 만 아니면 등산 갈 수 있어요.

- + '만 아니면'을 도입할 때는 상황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학생이 싫어하거나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 도입(1)에서와 같이 '매운 음식만 아니면 다 먹을 수 있어요'는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데 매운 음식은 못 먹는다는 뜻이다. 학생이 '매운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없는' 상황임을 나타낸다. 도입(2)에서도 '토요일 오전만 아니면 등산 갈 수 있어요'와 같이, '토요일 오전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등산을 갈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형태 정보]

- ① 명사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만 아니면'을 쓴다.

예) 학생 + 만 아니면 → 학생만 아니면 시험 + 만 아니면 → 시험만 아니면
 주말 + 만 아니면 → 주말만 아니면 어제 + 만 아니면 → 어제만 아니면
 공부 + 만 아니면 → 공부만 아니면 너 + 만 아니면 → 너만 아니면

①	받침 o	+ 만 아니면	학생만 아니면, 시험만 아니면, 주말만 아니면
	받침 x	+ 만 아니면	어제만 아니면, 공부만 아니면, 너만 아니면

[문장 구성 정보]

- ① '만 아니면 -었을 것이다' 구성으로 사용하여, 과거의 사건에 대한 가정을 나타낸다. '만 아니면'의 뒤 절에 오는 '-었을 것이다'는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다.

예) 부장님만 **아니면** 이미 회사를 그만두었을 거예요.
 (부장님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다.)
 아기 울음소리만 **아니면** 잠을 잘 자았을 거예요.
 (아기 울음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했다.)

[제약 정보]

- ① 과거는 '아니다'에 '-었-'을 결합하여, '아니었으면'으로 쓴다. 미래 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시험만 **아니었으면** 도서관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o)
 시험만 **아니겠으면** 도서관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x)
 아르바이트만 **아니었으면** 저도 여행을 같이 갔을 거예요. (o)
 아르바이트만 **아니겠으면** 저도 여행을 같이 갔을 거예요. (x)

[확장]

- ① 큰 의미 차이 없이 '만 아니라면'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예) 사람이 많은 곳만 **아니면** 같이 갈 수 있어요.
 = 사람이 많은 곳만 **아니라면** 같이 갈 수 있어요.
 오늘이 월요일만 **아니면** 저도 파티에 같이 갈 수 있을 텐데요.
 = 오늘이 월요일만 **아니라면** 저도 파티에 같이 갈 수 있을 텐데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 ① 대응 표현: 只要不……就

예) 내일 낚시는 날씨만 **아니면** 등산하러 가고 싶군요. - 明天只要不是阴天, 就想去登山呢.
 과제만 **아니면** 주말에 마음 편이 쉴 수 있을 거예요. - 只要不是作业, 周末就会心安

理得地好好休息.

돈만 **아니면** 직장을 그만 두고 해외로 떠나고 싶어요. - 只要不是钱, 就想辞职去海外.
사람이 많은 곳만 **아니면** 편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어요. - 只要不是人多的地方, 就能舒舒服服地度假.

어린 자녀만 **아니었으면** 벌써 이혼했을 겁니다. - 只要不是孩子还小, 早就离婚了.

② 용법과 오류

-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데 '只要不……就'에는 시제 관련 표현이 붙지 않으므로 '-었-'과 '-겠-'을 혼동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예) 돈만 아니겠으면 취직하고 쉽지 않습니다. (x)

내일 곳은 날씨만 아니겠으면 등산하러 가고 싶군요. (x)

숙제만 아니겠으면 저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갈 거예요. (x)

오늘 공휴일만 아니겠으면 입학 신청을 마칠 수 있었을 거예요. (x)

3.6.24. '-어 가다'

-어 가다[-아 가다/-여 가다][표현]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계속 **변화**하거나 **진행됨**을 나타내는 표현.

-어 가다: (동사에 붙어) 어떤 동작이나 행위의 상태가 계속 변화하거나 진행되어 감을 나타낸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유진 씨는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 누구를 닮았어요? 나: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닮았다고 들었어요. 가: 지금은 어때요? 나: 점점 자라면서 어머니를 닮아 가요.</p> <p>가: 흐영 씨, 연습 문제 다 풀었어요? 나: 아니요. 지금 거의 다 풀어 가고 있어요. 가: 그래요? 다 하면 저와 같이 답을 맞춰 봐요.</p>
문장예문	<p>· 저도 점심을 거의 다 먹어 가요.</p> <p>· 마이클 씨가 한국에 산 지도 벌써 5년이 되어 가요.</p> <p>· 날씨를 봐 가면서 여름휴가 계획을 세워야겠어.</p> <p>· 면접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수지 씨가 안 왔어요.</p> <p>· 지금까지 쌓아 온 것을 유지해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p> <p>· 잘 바뀔 것 같지 않던 왕밍 씨가 이제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어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씨가 더워지니 꽃이 점점 시들어 가요. . 새로 오신 부장님께서 업무를 하나씩 배워 가는 중이세요. . 어제까지 할머니의 병이 회복되어 가고 있었어요. . 처음부터 하나씩 천천히 배워 가겠습니다.
--	---

- + '-어 가다'는 어떤 행위나 상태가 목표점을 향해 계속 변화하거나 진행하고 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이때 '가다' 동사는 본래 지니고 있는 '이동'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가까운 미래나 현재에 이루어질 목표를 하나의 기준점으로 가정하고, 그것을 향해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벌써 5년이 되어 가요'에서처럼 기준점인 5년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하기도 하고, '점심을 거의 다 먹어 가요', '면접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와 같이 기준점에 도달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거의', '다' 등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부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변화, 진행과 같이 움직임 표현하기 위해 '점점, 조금씩'과 같은 부사와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도입]

(1)	<p>교사: (거의 다 먹은 물병을 보여주며) 지금 물이 많이 있어요?</p> <p>학생: 아니요. 물이 별로 없어요.</p> <p>교사: 그러면, 선생님이 물을 다 마셨어요?</p> <p>학생: 아니요. 다 마시지 않았어요. 아직 물이 조금 남아 있어요.</p> <p>교사: 선생님이 지금 물을 마셔요. 조금만 더 마시면 다 마셔요. 거의 다 마셔 가요.</p>
(2)	<p>교사: 지금 몇 시예요?</p> <p>학생: (시계를 보며) 12시 40분이에요.</p> <p>교사: 오늘 수업이 몇 시에 끝나요?</p> <p>학생: 수업이 12시 50분에 끝나요.</p> <p>교사: 수업이 끝나려면 몇 분 남았어요?</p> <p>학생: 10분 남았어요.</p> <p>교사: 10분 후에 수업이 끝날 거예요. 곧 수업이 끝나요. 수업이 끝나 가고 있어요.</p>

- + 도입(1)과 같이 '물을 마시는 상황'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며, 곧 '물을 다 마시게 되는' 기준점을 향하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면서 '어 가다'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진행 상황을 학생들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예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어 가다'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 + 도입(2)와 같이 '수업이 끝남'을 향하고 있는 과정 중에 위치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학습자에게 어떠한 목표점을 향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행위를 유도하는 질문을 하면서 도입할 수 있다.

[형태 정보]

- ① 동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ㅌ, ㄷ'인 경우 '-아 가다'를 쓴다.

예) 닦- + -아 가다 → 닦아 가다 앉- + -아 가다 → 앉아 가다
 끝나- + -아 가다 → 끝나 가다 보- + -아 가다 → 봐 가다

- ② 동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ㅌ, ㄷ'이 아닌 경우 '-어 가다'를 쓴다.

예) 먹- + -어 가다 → 먹어 가다 만들- + -어 가다 → 만들어 가다
 되- + -어 가다 → 되어 가다 쉬- + -어 가다 → 쉬어 가다

- ③ '-하다'가 붙은 동사 어간에는 '-여 가다'를 쓰는데, 흔히 줄여서 '-해 가다'로 쓴다.

예) 변화하- + -여 가다 → 변화해 가다 더하- + -여 가다 → 더해 가다
 준비하- + -여 가다 → 준비해 가다 유지하- + 여 가다 → 유지해 가다

①	ㅌ, ㄷ	+ -아 가다	닦아 가다, 앉아 가다, 끝나 가다, 봐 가다
②	ㅌ, ㄷ 이외	+ -어 가다	먹어 가다, 만들어 가다, 되어 가다, 쉬어 가다
③	-하다	+ -여 가다 (-해 가다)	변화해 가다, 더해 가다, 준비해 가다, 유지해 가다

- ④ 불규칙

신- 예) 제가 미도리 씨의 이삿짐을 **싣어 가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굽- 예) 고기를 다 **구워 가니** 이제 아이들을 오라고 하세요.
 짓- 예) 밥이 거의 다 **지어 가니** 모두 식탁에 앉으세요.

[문장 구성 정보]

- ① 진행의 의미를 강조하여 나타내기 위해 '거의, 다, 점점, 점차'와 같은 부사가 함께 사용된다.

예) 어렸을 때의 추억이 거의 **사라져 가고** 있어요.
 줄리아 씨, 저녁 준비가 다 **되어 가요**.
 할아버지의 상태가 점점 **회복되어 가니** 다행이에요.

- ② '가다'에 과거 '-었-'과 미래·추측의 '-겠-'이 결합한다.

예) 오랜 공사로 인해 강물이 점점 **오염되어 갔다**.
 지영 씨와 남자친구가 점점 서로를 **닦아 갔다**.
 앞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가겠다**.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조금씩 **모아 가겠다**.

[제약 정보]

- ①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11월이 되니 날씨가 점차 **추워** 가요. (x)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 명동에 사람이 **많아** 가요. (x)

+ 형용사 뒤에 '-어지다'가 결합하면 '-어져 가다' 형태로 쓸 수 있다. '-어져 가다' 뒤에 조사 '만'을 결합하여 그 의미를 강조할 수 있다.

예) 어머니가 보내주시는 선물이 점점 **많아** 간다. (x)

어머니가 보내주시는 선물이 점점 **많아져** 간다. (o)

어머니가 보내주시는 선물이 점점 **많아져만** 간다. (o)

연말이 되니 일이 더 **바빠** 가요. (x)

연말이 되니 일이 더 **바빠져** 가요. (o)

연말이 되니 일이 더 **바빠져만** 가요. (o)

+ 상태의 변화나 정도를 나타내는 일부 형용사가 '-어 가다'와 결합하여 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예) 흐영 씨가 고향 음식이 먹고 싶어서 자꾸 **여위어** 간다.

겨울이 다가오니 날이 빠르게 **어두워** 간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전체 온도가 점점 **높아** 간다.

사이좋은 친구는 같이 건강하게 **늙어** 간다.

② 신체의 일부와 탈부착이 완료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낼 때는 '-어 가다'를 사용할 수 없다. 이때는 '-고 있다'를 사용한다.

예) 햇빛이 강하니 모자를 **써** 가세요. (x)

햇빛이 강하니 모자를 **쓰고** 가세요. (o)

오늘은 남자친구가 선물해 준 목걸이를 **해** 가야겠어요. (x)

오늘은 남자친구가 선물해 준 목걸이를 **하고** 가야겠어요. (o)

[확장]

① '-어 가면서'나 '-어 가며'의 구성으로 쓰여, 어떤 동작과 동시에 다른 동작을 계속함을 나타낸다.

예) 저는 길을 몰라서 사람들에게 **물어 가면서/물어 가며** 겨우 왔어요.

현우 씨, 물도 **마셔 가면서/마셔 가며** 천천히 드세요.

시간이 없으니 생일파티를 **준비해 가면서/준비해 가며** 친구들에게 전화해요.

줄리아 씨는 지금 몸무게를 **유지해 가면서/유지해 가며** 운동을 해야 해요.

② '-어 가다'가 결합하여 이미 하나의 동사로 된 것도 있다.

예) 요스케 씨는 아무리 힘들어도 매일 웃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페이페이 씨, 날이 추우니 어서 집으로 **들어가요**.

지영 씨는 배가 고파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에 **달려갔어요**.

병원에 다녀와서인지 흐영 씨의 감기가 거의 **나아가고** 있어요.

+ '살아가다, 들어가다, 달려가다, 나아가다' 등 '-어 가다'가 동사와 결합하여 이미 이동의 의미를 내재시킨 합성동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가다'가 지니고 있는 '이동'이라는

의미가 본래의 동사가 갖고 있는 의미와 결합하였다.

③ '-어 가다'는 어떤 행위를 완료한 후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옴을 나타낼 때도 사용한다.

예) 유진 씨의 집들이 파티에 꽃을 선물로 **사 갔어요**.
 어머니께서 수지 씨가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어 가셨어요**.
 내일 비가 올 지도 모르니 우산을 **가지고 갈게요**.

[유사 문법]

① '-어 가다', '-고 있다'

-어 가다	-고 있다
· 어떤 행위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예) 마이클 씨가 열심히 공부하며 한국어 실력을 유지해 간다 . 마이클 씨가 열심히 공부하며 한국어 실력을 유지하고 있다 .	
· 어떤 동작이 목표점을 향해 진행 중임을 나타낸다. 예) 수지 씨가 커피를 거의 다 마셔 간다 .	· 어떤 동작이 그 순간에 진행 중임을 나타낸다. 예) 수지 씨가 커피를 마시고 있다 .

+ '-어 가다'는 말하는 이가 현재 진행하는 동작이 어떤 목표점을 향해 계속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고 있다'는 단순히 어떤 시점에 동작이 이루어지는 중임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下去', '起来', '逐渐', '正(在)'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처음부터 하나씩 배워 **가겠습니다**. - 从头开始要一个一个学下去.
 날씨가 더워지니 꽃도 시들**어 가요**. - 天气热了, 花也蔫下去.
 어느새 단풍잎도 붉**어 가요**. - 不知不觉枫叶也红起来了.
 금융개혁 후 한국경제가 회복**되어 간다**. - 金融改革后, 韩国经济逐渐恢复.
 그 일이 잘 되**어 가고** 있다. - 这件事正在顺利地进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어 가며** 일해라. - 别太累了, 边休息边工作吧!
 날씨를 **봐 가면서** 휴가 계획을 세워야겠어. - 看天气情况, 再定休假计划.
 면접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왕밍 씨가 안 왔어요.
 - 面试时间快到了, 可王明还没来.

② 용법과 오류

- 동사 어간 끝음절 모음에 따라 '-어 가다', '-아 가다', '-해 가다'로 쓰는데 중국어는 이런 형태 변화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아기가 자라면서 점점 어머니를 닮**어 가요**. (x)
 잘 바뀔 것 같지 않던 왕밍 씨가 이제 조금씩 변화하**아** 가고 있어요. (x)

- 어떤 행위를 완료한 후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옴을 나타낼 때, 주로 '-어 가세요'의 형태로 쓰는데 중국어는 이때 동사 '가다(去)'의 의미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비가 올 지도 모르니 우산을 준비하고 가세요. (x) ('준비해 가세요'로 표현해야 할 경우)

유진 씨의 집들이 파티에 꽃을 선물로 사고 가요. (x) ('사 가요'로 표현해야 할 경우)

- 진행의 의미를 강조하여 나타내기 위해 '점점, 점차'와 함께 사용되는데 중국어의 '逐渐', '正(在)'는 '점점, 점차'의 의미도 포함하므로 '-어 가다'를 회피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예) 날씨가 더우니 꽃도 점점 시들어요. (?) ('시들어 가요'로 표현해야 할 경우)

교통사고를 당한 뒤 기억을 점점 잃어요. (?) ('잃어 가요'로 표현해야 할 경우)

3.6.25. '-어 가지고'

-어 가지고[-아 가지고/-여 가지고][표현] 1) 시간적 선후 관계 2)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

- 어 가지고1): (동사에 붙어) 앞의 행위가 먼저 일어난 후에 뒤의 행위가 일어나는 순차적 선후 관계를 나타낸다. 주로 구어에서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여보세요. 앤디 씨, 저 줄리아예요.</p> <p>나: 네, 줄리아 씨. 무슨 일이에요?</p> <p>가: 차가 막혀서 약속 시간에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p> <p>나: 괜찮아요. 제가 유진 씨에게 연락해 가지고 약속 시간을 늦춰 볼게요.</p> <p>가: 와~ 생선이 진짜 크네요! 누가 잡았어요?</p> <p>나: 제가 잡았어요.</p> <p>가: 이 생선을 어떻게 요리할까요?</p> <p>나: 집에 가서 구워 가지고 가족들과 같이 먹어요.</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리를 하기 전에 야채를 깨끗이 씻어 가지고 오세요. · 수지 씨는 선물을 사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려고 해요. · 저는 돈을 빨리 모아 가지고 집을 살 거예요. · 다음 주가 어머니의 생신이어서 카드를 써 가지고 보냈어요. · 곧 시험이 있으니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가야 해요. · 제가 내일 회의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발표할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냄비에 물을 가득 부어 가지고 끓여 보세요. · 미도리 씨가 바다에서 예쁜 조개를 주워 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요. · 식탁 위에 있는 고구마를 삶아 가지고 같이 먹읍시다. · 선생님께서 좋은 생각이 나 가지고 칠판에 쓰고 계십니다.
--	--

- + '-어 가지고1)'은 어떠한 행동이나 동작을 시간적 순서대로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앞의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뒤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발생하므로 두 행위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저는 돈을 빨리 모아 가지고 집을 살 거예요'와 같이 앞 절의 '돈을 모으는 행위'를 한 다음에 '집을 사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앞 절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뒤 절의 행위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 + '-어 가지고1)'은 연결 어미 '-어'와 동사 '가지다'의 활용형인 '가지고'가 결합한 표현이다. 주로 구어에서 사용하는데, '-어 가지고' 뒤에서 일시적으로 잠깐 포즈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입]

<p>(1)</p> <p>교사: 여러분,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비빔밥은 어때요?</p> <p>학생: 네, 비빔밥을 좋아해요.</p> <p>교사: 비빔밥에 무슨 재료를 넣어요?</p> <p>학생: 당근(또는 계란, 오이, 고기, 버섯)을 넣어요.</p> <p>교사: 맞아요. 먼저 재료들을 모두 썰어요. 그 다음에 같이 넣어요. 재료를 썰어 가지고 같이 그릇에 넣어요. 그릇에 넣어요. 그 다음에 밥과 비벼요. 그릇에 넣어 가지고 밥과 비벼요.</p> <p>(2)</p> <p>교사: 내일 소풍을 갈 거예요.</p> <p>학생: 와~ 좋아요. 어디로 갈 거예요?</p> <p>교사: 서울타워에 가서 케이블카를 탈 거예요. 지금 봄이라서 경치가 아주 아름다워요. 사진을 찍으면 아주 예쁘게 나올 거예요.</p> <p>학생: 그럼 카메라가 필요하겠네요.</p> <p>교사: 네, 카메라를 꼭 준비하세요. 그리고 오세요. 카메라를 준비해 가지고 오세요. 예쁘게 사진을 찍으세요. 그리고 선생님께 보여 주세요. 예쁘게 사진을 찍어 가지고 선생님께 보여 주세요.</p>

- + '-어 가지고1)'은 두 가지의 일이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일어날 때 사용하므로, 도입할 때 두 개의 행위가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여준다. 도입(1)에서 '재료를 썰는 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재료를 넣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앞의 행위가 발생한 후에 뒤의 행위가 이루어짐을 '어 가지고'를 통해 나타낼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릇에 넣은 후'에

'밥을 비비는 행위'가 차례대로 이루어짐도 확장해 가면서 보여줄 수 있다. 각각의 행위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행위는 순서가 바뀔 수 없음에 주의시킨다.
+ 도입(2)에서도 '카메라를 준비한 후'에 '오는 행위'가 일어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진을 찍는 행위' 다음에 '선생님께 보여주는 행위'가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학습자들의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두 개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는 질문을 유도한다.

[형태 정보]

① 동사, 형용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ㅏ, ㅑ'인 경우 '-아 가지고'를 쓴다.

예) 앉- + -아 가지고 → 앉아 가지고 사- + -아 가지고 → 사 가지고
 놓- + -아 가지고 → 놓아 가지고 오- + -아 가지고 → 와 가지고

② 동사, 형용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ㅓ, ㅕ'가 아닌 경우 '-어 가지고'를 쓴다.

예) 먹- + -어 가지고 → 먹어 가지고 입- + -어 가지고 → 입어 가지고
 쓰- + -어 가지고 → 써 가지고 마시- + -어 가지고 → 마셔 가지고

③ '-하다'가 붙은 동사, 형용사 어간에는 '-여 가지고'를 쓰는데, 흔히 줄여서 '-해 가지고'로 쓴다.

예) 공부하- + -여 가지고 → 공부해 가지고 시작하- + -여 가지고 → 시작해 가지고
 준비하- + -여 가지고 → 준비해 가지고 말하- + -여 가지고 → 말해 가지고

①	ㅏ, ㅑ	+ -아 가지고	앉아 가지고, 사 가지고, 놓아 가지고, 와 가지고
②	ㅓ, ㅕ 이외	+ -어 가지고	먹어 가지고, 입어 가지고, 써 가지고, 마셔 가지고
③	-하다	+ -여 가지고 (-해 가지고)	공부해 가지고, 시작해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말해 가지고

③ 불규칙

신- 예) 줄리아 씨가 짐을 차에 **싣어 가지고** 바로 공항에 갔어요.
굽- 예) 오늘 생일 파티를 할 예정이니, 고기를 **구워 가지고** 오세요.
짓- 예) 미도리 씨가 많이 아파서 약국에서 약을 **지어 가지고** 왔어요.
부르- 예) 주말에 부장님께서 저를 회사로 **불러 가지고** 회사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문장 구성 정보]

① 동사와만 결합한다. 형용사와 결합할 경우 '-어 가지고2'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 회사 일이 **많아 가지고** 집에 일찍 갈 수 없어요. ('-어 가지고2'의 의미)
 어제는 너무 **바빠 가지고** 전화를 할 수 없었어요. ('-어 가지고2'의 의미)
 오늘은 날씨가 **좋아 가지고** 공원에 사람이 많아요. ('-어 가지고2'의 의미)

② 앞 절과 뒤 절은 반드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 절의 동

작이나 행위 없이는 뒤 절이 이루어질 수 없다.

예) 어제 책을 **사 가지고** 친구에게 선물했어요. (o)

어제 책을 **사 가지고** 친구와 같이 밥을 먹었어요. (x)

과일을 예쁘게 **씻어 가지고** 그릇에 담았어요. (o)

과일을 예쁘게 **씻어 가지고** 텔레비전을 봤어요. (x)

+ '-어 가지고1)'로 연결되는 앞 절과 뒤 절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동이어야 하지만, 앞 절이 뒤 절의 행위에 대한 수단이나 방법,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과일을 씻 후'에 '(그 과일을) 그릇에 담는 행위'와 같이 단지 시간적인 순서와 단계를 나타낸다.

③ 시간에 따른 선후 관계만을 나타낼 때는 '-어 가지고'의 뒤 절에 청유형과 명령형을 사용할 수 있다.

예) 저 의자에 **앉아 가지고** 책을 읽으시다. (o)

저 의자에 **앉아 가지고** 책을 읽으세요. (o)

저 의자에 **앉아 가지고** 책을 읽었어요. (o)

④ 부정문은 '-지 않아 가지고', '안 -어 가지고'의 두 가지 형태를 모두 쓸 수 있다. '-어 가지고'는 말할 때 주로 쓰므로 '안 -어 가지고'의 형태를 자주 쓴다.

예) 돈을 **모으지 안 가지고** 차를 살 수 없어요. (x)

돈을 **모으지 않아 가지고** 차를 살 수 없어요. (o)

돈을 **안 모아 가지고** 차를 살 수 없어요. (o)

[제약 정보]

①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아야 하고, 주로 뒤 절의 주어는 생략한다.

예) 나는 어제 김밥을 **만들어 가지고** 친구가 먹었어요. (x)

나는 어제 김밥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먹었어요. (o)

나는 돈을 **모아 가지고** 동생은 차를 샀어요. (x)

나는 돈을 **모아 가지고** (나는) 차를 샀어요. (o)

② 과거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커피를 많이 **마셨 가지고** 잠을 잘 수 없어요. (x)

커피를 많이 **마셔겠 가지고** 잠을 잘 수 없어요. (x)

커피를 많이 **마셔 가지고** 잠을 잘 수 없어요. (o)

[확장]

① '-어 가지고'는 준말인 '-어 갖고'의 형태로 쓸 수 있다.

예) 음식을 예쁘게 **담아 가지고** 냉장고에 넣어 두었어요.

= 음식을 예쁘게 **담아 갖고** 냉장고에 넣어 두었어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 선생님이 학생들을 **불러 갖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유사 문법]

① '-어 가지고1)', '-어다가'

-어 가지고1)	-어다가
<p>· 앞과 뒤의 행위가 시간 순서에 따라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예) 은행에서 돈을 찾아 가지고 쇼핑하러 가요. 은행에서 돈을 찾아다가 쇼핑하러 가요.</p>	
<p>· 앞 절의 행위가 뒤 절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방법이나 수단을 나타낸다. 예) 꽃을 사 가지고 식탁 위에 두었어요. (o) (앞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일어나며 뒤 절의 행위에 대한 방법이나 수단을 나타냄)</p>	<p>· 앞 절의 행위가 뒤 절이 행위가 이루어지는 방법이나 수단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예) 꽃을 사다가 식탁 위에 두었어요. (o) (앞과 뒤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짐)</p>

+ '-어 가지고'와 '-어다가'는 두 행위가 시간적 선후 관계에 따라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하지만 '-어다가'는 단순히 앞 절과 뒤 절의 순서를 보여주는 것일 뿐, '-어 가지고'처럼 '식탁에 둔 꽃'이 어떤 경로에 의해 오게 된 것인지에 대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 가지고'와 차이가 난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再', '然后' 또는 대응 표현 없이 실현되기도 함.

- 예) 과일을 **썰어 가지고** 드세요. - 把水果切了再吃.
옷을 **다려 가지고** 옷장에 정리합니다. - 把衣服熨好了再放进柜子里.
냄비에 물을 가득 **부어 가지고** 끓이세요. - 把锅倒满水, 然后烧开.
고구마를 **구워 가지고** 같이 먹읍시다. - 把地瓜烤了, 然后一起吃.
수잔은 물건을 모두 **챙겨 가지고** 떠나갔어요. - 秀珍带上所有的东西离开了.
저는 돈을 **모아 가지고** 집을 살 거예요. - 我要攒钱买房子.
어제 책을 **사 가지고** 친구에게 선물했어요. - 昨天我买了本书送给朋友了.

② 용법과 오류

- '-어 가지고'는 결합하는 앞의 동사 어간 끝음절의 형태에 따라 변하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 예) 공항 면세점에서 사아 가지고 온다. (x)
감독이 상황을 보아 가지고 판단한다. (x)
세면 도구를 준비하여 가지고 와야 한다. (x)
물고기를 굽어 가지고 맛있게 먹었다. (x)

- '-어 가지고'는 과거 '-었-'과 결합하지 않지만 중국어 '再'는 과거 표지 '了'와의 결합에 제약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 예) 과일을 썰었어 가지고 드세요. (x) - 把水果切了再吃. (o)

옷을 다렸어 가지고 옷장에 정리합니다. (x) - 把衣服熨好了再放进柜子里. (o)

야채를 깨끗이 씻었어 가지고 오세요. (x) - 把蔬菜洗干净了再过来. (o)

- '-어 가지고'는 '-겠-'과 결합하지 않고 뒤의 행위동사에 '-겠-'이 붙지만 대응하는 중국어에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要'는 앞뒤 행위동사에 모두 결합가능하며 각각 다른 의미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저는 돈을 모아겠 가지고 집을 사겠어요. (x) - 我要攒钱买房子. (o)

선물을 사겠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겠어요. (x) - 买礼物要回老家. (o)

고구마를 구워겠 가지고 같이 먹겠습니다. (x) - 要把地瓜烤了, 然后一起吃. (o)

- '-어 가지고'는 앞 절과 뒤 절이 반드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앞 절의 동작이나 행위가 없이는 뒤 절이 이루어질 수 없지만 대응하는 중국어 '然后'는 이런 제약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어제 책을 사 가지고 친구와 같이 밥을 먹었어요. (x) - 昨天买了书, 然后跟朋友一起吃了饭. (o)

과일을 썰어 가지고 텔레비전을 봤어요. (x) - 切好了水果, 然后看了电视. (o)

- 어 가지고2):**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앞 절의 행위나 상태가 뒤 절 내용의 이유나 원인이 됨을 나타낸다. 어떤 상태나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하며, 주로 구어에서 쓴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앤디 씨, 어젯밤에 도서관에서 계속 기다렸어요. 나: 미안해요, 왕밍 씨. 가: 그런데 어제 왜 도서관에 안 왔어요? 나: 도서관 문이 닫혀 가지고 도서관에 못 들어갔어요.</p> <p>가: 흐영 씨, 오늘 수업이 끝나고 영화를 보러 갈까요? 나: 미안해요. 오늘은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가: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왜 집에 빨리 가세요? 나: 어제 잠을 못 자 가지고 피곤해요.</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줄리아 씨는 성격이 좋아 가지고 학교에서 인기가 많아요. · 그 가방은 너무 비싸 가지고 못 사겠어요. · 영수 씨는 어제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부산에 못 갔어요. · 퇴근 시간이어서 길이 막혀 가지고 저녁 식사에 늦었어요. · 침대가 너무 편안해 가지고 금방 잠이 들었어요. · 현우 씨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해 가지고 하루에 3개씩 먹어요. · 선생님의 주소를 몰라 가지고 편지를 보낼 수 없었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는 돈이 없어 가지고 어머니의 생신 선물을 못 샀어요.· 아버지께서 바빠 가지고 졸업식에 오지 않으실 겁니다.· 미도리 씨, 어제 많이 걸어 가지고 다리가 아프지요?
--	--

- + '-어 가지고2'는 앞 절의 행위나 상태로 인해 뒤 절의 상황이 발생하게 됨을 나타낸다. '퇴근 시간이어서 길이 막혀 가지고 저녁 식사에 늦었어요'에서 앞 절의 '길이 막히는 상황'은 뒤 절인 '저녁 식사에 늦는 행위'의 원인임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어 가지고2'는 앞 절의 행위나 상태가 뒤 절의 행위나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나 근거가 됨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앞 절과 뒤 절은 의미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순서를 바꿔서 사용할 수 없다.

[도입]

(1)
교사: 여러분은 한국에 왜 왔어요?
학생1: 저는 한국 노래를 좋아해서 왔어요.
학생2: 저는 한국어가 재미있어서 왔어요.
교사: 페이페이 씨는 한국 노래를 좋아해서 한국에 왔어요. 한국 노래를 좋아해 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앤디 씨는 한국어가 재미있어서 한국에 왔어요. 앤디 씨는 한국 어가 재미있어 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2)
교사: 어제 흐영 씨가 학교에 안 왔어요. 왜 안 왔어요?
학생: 배가 아파서 못 왔어요.
교사: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어제 학교에 못 왔어요. 어제 배가 아파 가지고 학교에 못 왔어요.

- + '-어 가지고2'를 도입할 때는 먼저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그 상황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를 묻는다. 그리고 그 이유에 '-어 가지고'를 결합하여 사용함을 보여 주도록 한다.
- + 도입(1)과 같이 '학생들이 한국에 온 이유'나 도입(2)에서와 같이 '학생이 학교에 오지 못한 이유'에 대한 질문을 한 후에, '-어 가지고'를 사용하여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냄을 보여 준다. 이때 학생들이 쉽게 이유나 원인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해당 항목의 기능과 의미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형태 정보]

- ① 동사나 형용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ㅏ, ㅑ'인 경우 '-아 가지고'를 쓴다.

예) 찾- + -아 가지고 → 찾아 가지고
바쁘- + -아 가지고 → 바빠 가지고
보- + -아 가지고 → 봐 가지고

작- + -아 가지고 → 작아 가지고
높- + -아 가지고 → 높아 가지고
고프- + -아 가지고 → 고파 가지고

② 동사나 형용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ㅌ, ㅊ'가 아닌 경우 '-어 가지고'를 쓴다.

예) 열- + -어 가지고 → 열어 가지고 걸- + -어 가지고 → 걸어 가지고
 끄- + -어 가지고 → 꺼 가지고 힘들- + -어 가지고 → 힘들어 가지고
 크- + -어 가지고 → 커 가지고 예쁘- + -어 가지고 → 예뻐 가지고

③ '-하다'가 붙은 동사, 형용사 어간에는 '-여 가지고'를 쓰는데, 흔히 줄여서 '-해 가지고'로 쓴다.

예) 운동하- + -여 가지고 → 운동해 가지고 시작하- + -여 가지고 → 시작해 가지고
 말하- + -여 가지고 → 말해 가지고 깨끗하- + -여 가지고 → 깨끗해 가지고
 조용하- + -여 가지고 → 조용해 가지고 착하- + -여 가지고 → 착해 가지고

①	ㅌ, ㅊ	+ -아 가지고	찾아 가지고, 작아 가지고, 바빠 가지고, 높아 가지고, 봐 가지고, 고파 가지고
②	ㅌ, ㅊ 이외	+ -어 가지고	열어 가지고, 걸어 가지고, 꺼 가지고, 힘들어 가지고, 커 가지고, 예뻐 가지고
③	-하다	+ -여 가지고 (-해 가지고)	운동해 가지고, 시작해 가지고, 말해 가지고, 깨끗해 가지고, 조용해 가지고, 착해 가지고

③ 불규칙

걷- 예) 여행을 가서 너무 많이 **걸어 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덥- 예) 날씨가 **더워 가지고** 에어컨을 틀었어요.
нат- 예) 아키라 씨가 감기가 다 **나아 가지고** 이제 학교에 올 수 있어요.
파랗- 예) 제주도는 바다가 **파래 가지고** 아름다워요.
다르- 예) 저와 남자친구는 성격이 **달라 가지고** 처음에 자주 싸웠어요.

[제약 정보]

① 과거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커피를 많이 **마셨어 가지고** 잠을 잘 수 없어요. (x)
 커피를 많이 **마셔겠어 가지고** 잠을 잘 수 없어요. (x)
 커피를 많이 **마셔 가지고** 잠을 잘 수 없어요. (o)

② 원인이나 이유의 뜻을 나타내는 '-어 가지고'의 뒤 절에 청유형과 명령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예) 아키라 씨가 몸이 **아파 가지고** 병원에 갑시다. (x)
 아키라 씨가 몸이 **아파 가지고** 병원에 가세요. (x)
 아키라 씨가 몸이 **아파 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o)

+ 시간에 따른 선후 관계만을 나타내는 '-어 가지고1)'의 뒤 절에 청유형과 명령형을 사용할 수 있다.

예) 저 의자에 **앉아 가지고** 책을 읽읍시다. (o)

저 의자에 **앉아 가지고** 책을 읽으세요. (o)

저 의자에 **앉아 가지고** 책을 읽었어요. (o)

[확장]

- ① '-어 가지고'는 '-어' 또는 '-어서'를 강조하여 나타낸 것으로, '어 가지고'를 '-어' 또는 '-어서'와 대치할 수 있다.

예) 영수 씨는 화가 **나 가지고** 집에 가버렸어요.

= 영수 씨는 화가 나서 집에 가버렸어요.

= 영수 씨는 화가 나 집에 가버렸어요.

영화가 **재미없어 가지고** 중간에 영화관에서 나왔어요.

= 영화가 재미없어서 중간에 영화관에서 나왔어요.

= 영화가 재미없어 중간에 영화관에서 나왔어요.

- ② '-어 가지고'는 준말인 '-어 갖고'의 형태로 쓸 수 있다.

예) 음식을 예쁘게 **담아 가지고** 냉장고에 넣어 두었어요.

= 음식을 예쁘게 담아 갖고 냉장고에 넣어 두었어요.

집이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 집이 너무 시끄러워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유사 문법]

- ① '-어 가지고2)', '-어서1)', '-어2)'

-어 가지고2)	-어서1)	-어2)
·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에 대한 이유나 원인임을 나타낸다.		
· '이다, 아니다'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이것은 내 동생의 책이어 가지고 너에게 빌려줄 수 없다. (??)	· '이다, 아니다'와 결합한다. 예) 이것은 내 동생의 책이어서 너에게 빌려줄 수 없다. (o)	· '이다, 아니다'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이것은 내 동생의 책이어 너에게 빌려줄 수 없다. (x)
· 구어에서 많이 사용한다. 예) 요즘 너무 많이 놀아 가지고 일이 하기 싫어졌어요. (o) 현대 국가는 국민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 가지고 그에 따른 법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	· 구어와 문어에 관계없이 쓰인다. 예) 요즘 너무 많이 놀아서 일이 하기 싫어졌어요. (o) 현대 국가는 국민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그에 따른 법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o)	· 구어와 문어에 관계없이 쓰인다. 예) 요즘 너무 많이 놀아 일이 하기 싫어졌어요. (o) 현대 국가는 국민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 그에 따른 법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o)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因为……所以……'

- 예) 어제 밤에 눈이 **와 가지고** 길이 미끄럽습니다. - 因为昨晚下雪了, 所以路很滑.
왕밍은 **성격이 좋아 가지고** 친구가 많아요. - 王明因为性格好, 所以朋友很多.
길이 **막혀 가지고**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했어요. - 因为堵车了, 所以没能按时到.
그는 늘 직장 일로 **바빠 가지고** 가정을 소홀히 했습니다. - 他因为公司很忙, 所以忽略了家庭.
저는 돈이 **없어 가지고** 여자 친구에게 줄 생일 선물을 사지 못했어요. - 因为我没钱, 所以没买到给女朋友的生日礼物.

② 용법과 오류

- '-어 가지고'는 결합하는 앞의 동사나 형용사 어간 끝음절의 형태에 따라 변하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 예) 키가 작어 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다. (x)
얼굴이 예뻐어 가지고 인기가 많다. (x)
키가 크아 가지고 맨 뒷줄에 앉았다. (x)

- '-어 가지고'는 과거 '-었-'과 결합하지 않지만 중국어의 '因为……所以……'는 과거 '了'와의 결합에 제약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 예) 커피를 많이 마셨 가지고 잠을 잘 수 없어요. (x) - 因为喝多了咖啡, 睡不着觉. (o)
어제 밤에 눈이 와었 가지고 길이 미끄럽습니다. (x) - 因为昨晚下雪了, 所以路很滑. (o)
길이 막혀었 가지고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했어요. (x) - 因为堵车了, 所以没能按时到. (o)

- 원인이나 이유의 뜻을 나타내는 '-어 가지고'의 뒤 절에 청유형과 명령형을 사용하지 않지만 중국어의 '因为……所以……'는 이런 제약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 예) 키가 커 가지고 뒷줄에 앉읍시다. (x) - 因为你个子高, 所以一起坐后排吧! (o)
키가 커 가지고 뒷줄에 앉으세요. (x) - 因为你个子高, 所以坐后排吧! (o)

- '-어 가지고'는 '-어서'를 강조하여 나타낸 것으로, '-어서'와 대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 가지고'와 '-어서'는 모두 중국어의 '因为……所以……'와 대응되므로 '-어 가지고'와 '-어서'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 예) 우리 집은 넓어서 가지고 저만 있을 때는 조금 외로울 수 있습니다. (x)
얼굴이 예뻐서 가지고 인기가 많아요. (x)
감독이 상황을 봐서 가지고 판단할 일이다. (x)

3.6.26. '-어 놓다'

-어 놓다[-아 놓다/-여 놓다][표현] 어떤 행위의 완료된 상태가 그대로 지속됨을 나타

내는 표현.

-어 놓다: (동사에 붙어) 어떤 행위를 완료한 상태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이전의 어떤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지영 씨, 오늘이 어머니의 생신이지요? 무엇을 준비할 거예요? 나: 네, 저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릴 생각이예요. 가: 그래요? 제가 좀 도와 드릴까요? 나: 괜찮아요. 아침에 재료를 미리 준비해 놓았어요.</p> <p>가: 다음 주부터 휴일이에요. 아사코 씨는 무엇을 할 거예요? 나: 저는 고향에 다녀오려고 해요. 가: 휴일이라서 비행기 표가 없다는데, 비행기 표는 샀어요? 나: 네, 저는 지난 달에 미리 사 놓았어요.</p>
문장예문	<p>. 어제 줄리아 씨가 알려준 요리 방법을 공책에 적어 놓았어요. . 교실에 있는 책상부터 닦아 놓고 청소를 시작해야겠어요. . 이것은 줄리아 씨가 어렸을 때부터 모아 놓은 우표예요. . 아기가 무서워해서 밤새 불을 켜 놓았어요. . 저는 어젯밤에 숙제를 다 해 놓아서 마음이 편해요. . 어머니, 내일 아침에 일찍 출발할 테니 미리 준비해 놓고 계세요. . 할머니께서 시킨 대로 일단 냄비에 물을 부어 놓았어요. . 아기가 다음 달에 태어날 예정이라 이름을 미리 지어 놓아야겠어요. . 어머니께서 이미 저녁을 차려 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 내일 회의실은 2층으로 예약해 놓았으니까 준비해 주세요.</p>

+ '-어 놓다'는 어떤 행위가 끝나고 난 상태나 상황이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재료를 모두 준비해 놓았어요'나 '내일 회의실은 2층으로 예약해 놓았습니다'와 같이 '재료의 준비나 예약'이 이미 완료되었으며 그 결과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앞에 이루어진 행위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입]

(1)

교사: 날씨가 너무 더워요.

학생: 네, 정말 더워요. 창문을 좀 열까요?

교사: 네, 창문을 열어요. 그리고 창문을 계속 열고 있어요.
창문을 **열어 놓으세요**.

(2)
 교사: (휴대폰 벨소리를 들려주며) 교실에서 휴대폰을 사용해도 될까요?
 학생: 아니요. 교실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교사: 네, 맞아요. 교실에서는 휴대폰을 끄세요. 계속 끄고 있어요. 휴대폰을 **꺼 놓으세요**.

- + '-어 놓다'는 어떤 행위가 완료된 후 그 결과나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므로, 먼저 어떤 행위를 하게 하거나 보여준 후에 그 행위의 결과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제시한다.
- + 도입(1)의 '창문을 연 행위'는 '열어 놓아요'로 표현하여 시간이 지나도 창문을 연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도입(2)의 '휴대폰을 계속 끈 상태' 또한 '꺼 놓으세요'로 표현하여 휴대폰을 끈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으며 다른 행위로의 변화가 없음을 나타낸다.

[형태 정보]

- ① 동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ㅌ, ㄷ'인 경우 '-아 놓다'를 쓴다.

예) 찾- + -아 놓다 → 찾아 놓다 반- + -아 놓다 → 받아 놓다
 사- + -아 놓다 → 사 놓다 오- + -아 놓다 → 와 놓다
 보- + -아 놓다 → 봐 놓다 모으- + -아 놓다 → 모아 놓다

- ② 동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ㅌ, ㄷ'가 아닌 경우 '-어 놓다'를 쓴다.

예) 먹- + -어 놓다 → 먹어 놓다 넣- + -어 놓다 → 넣어 놓다
 열- + -어 놓다 → 열어 놓다 켜- + -어 놓다 → 켜 놓다
 고치+ -어 놓다 → 고쳐 놓다 만들- + -어 놓다 → 만들어 놓다

- ③ '-하다'가 붙은 동사 어간에는 '-여 놓다'를 쓰는데, 흔히 줄여서 '-해 놓다'로 쓴다.

예) 준비하- + -여 놓다 → 준비해 놓다 보관하- + -여 놓다 → 보관해 놓다
 공부하- + -여 놓다 → 공부해 놓다 청소하- + -여 놓다 → 청소해 놓다
 전화하- + -여 놓다 → 전화해 놓다 요리하- + -여 놓다 → 요리해 놓다

①	ㅌ, ㄷ	+ -아 놓다	찾아 놓다, 받아 놓다, 사 놓다, 와 놓다, 봐 놓다, 모아 놓다
②	ㅌ, ㄷ 이외	+ -어 놓다	먹어 놓다, 넣어 놓다, 열어 놓다 켜 놓다, 고쳐 놓다, 만들어 놓다
③	-하다	+ -여 놓다 (-해 놓다)	준비해 놓다, 보관해 놓다, 공부해 놓다 청소해 놓다, 전화해 놓다, 요리해 놓다

③ 불규칙

- 듣- 예)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 놓으면**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굽- 예) 고기를 맛있게 **구워 놓았으니** 빨리 집으로 오세요.
 짓- 예) 작년에 집을 **지어 놓기를** 잘한 것 같아요.
 부르- 예) 부장님께서 아까부터 사람을 **불러 놓고**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문장 구성 정보]

① 부정문은 '-어 놓지 않다, 안 -어 놓다'로 쓴다.

- 예) 저는 여기에 자전거를 **세워 안 놓아요.** (x)
저는 여기에 자전거를 **세워 놓지 않아요.** (o)
저는 여기에 자전거를 **안 세워 놓아요.** (o)

② 높임은 '놓다'에 '-시-'를 붙여 '-어 놓으시다'로 쓴다.

- 예) 어머니께서 제가 잠든 사이에 김밥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머니께서 물을 **틀어 놓으신** 것을 깜박 잊어버리셨어요.
선생님께서 교실 문을 **열어 놓으시고** 나가셨어요.

③ '놓다'에 과거 '-었-'과 미래.추측 '-겠-'이 결합한다. '-어 놓았다'는 줄여서 '-어 뒀다'로 쓴다. '-어 뒀다'는 주로 구어에서 사용된다.

- 예) 친구를 기다리는 동안 미리 커피를 **타 놓았어요/타 뒀어요.**
집에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방을 **정리해 놓았어요/정리해 뒀어요.**
교실이 더울 것 같으니, 제가 미리 가서 에어컨을 **틀어 놓겠어요.**
내일 소풍을 가기 전에 미리 도시락을 **싸 두겠어요.**

[제약 정보]

① '-어 놓다'는 동사 '놓다'와 결합하지 않는다.

- 예) 어젯밤에 분명히 휴대폰을 침대 옆에 **놓아 놓았어요.** (x)
줄리아 씨, 문 앞에 **놓아 놓은** 선물을 봤어요? (x)
지영 씨가 고향에서 온 편지를 책상 위에 **놓아 놓았어요.** (X)
+ 이때 동사 '놓다'는 '-어 두다'와 결합하여 '놓아 두다'로 나타낸다.

- 예) 아키라 씨가 식탁 위에 꽃병을 **놓아 놓았습니다.** (x)
아키라 씨가 식탁 위에 꽃병을 **놓아 두었습니다.** (o)

[확장]

① '-어 놓다'가 '-어요, -어서' 등과 결합할 경우 '-어 뒀어요, '-어 뒀어서'로 줄여서 쓸 수 있다.

- 예) 줄리아 씨가 입학 서류를 미리 **준비해 뒀서** 다행이에요.
= 줄리아 씨가 입학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아서** 다행이에요.
저는 아침을 많이 **먹어 뒀더니** 배가 안 고파요.
= 저는 아침을 많이 **먹어 놓았더니** 배가 안 고파요.

② 주로 형용사와 결합하여 '-어 놓아서', '-어 놓으니' 등의 구성으로 쓴다. 이때 앞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앞 절은 뒤 절의 행위나 상태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나타낸다.

- 예) 자전거가 너무 **비싸 놓으니** 아무도 사지 않는다.

집값만 **높여 놓아서** 살기가 더 힘들다.

영수 씨는 성격이 **느긋해 놓아서** 행동도 답답해 보인다.

+ 주로 앞 절의 상황을 강조하여 말할 때 사용한다.

[유사 문법]

① '-어 놓다', '-어 두다'

-어 놓다	-어 두다
<p>· 어떤 행위가 완료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p> <p>예) 밤에는 문을 꼭 잠가 놓으세요.</p> <p>밤에는 문을 꼭 잠가 두세요.</p>	
<p>. 다른 일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행동에 사용하는 것이 '-어 두다'에 비해 자연스럽게 않다.</p> <p>예) 내일 경기를 위해 힘을 아껴 놓으시다 (??)</p>	<p>. 다른 일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함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p> <p>예) 내일 경기를 위해서 힘을 아껴 두시다. (o)</p>
<p>. 부정적 의미의 동사와 결합할 수 있다.</p> <p>예) 그 일은 이미 엎질러 놓은 물이다. (o)</p> <p>네가 망쳐 놓은 일을 다시 복구하느라 정말 힘들었어. (o)</p>	<p>. 부정적 의미의 동사와 결합하지 않는다.</p> <p>예) 그 일은 이미 엎질러 둔 물이다. (x)</p> <p>네가 망쳐 둔 일을 다시 복구하느라 정말 힘들었어. (x)</p>
<p>. 형용사, '이다'와 결합하여 '-어 놓아서, 어 놓으니'의 구성으로 쓴다.</p> <p>예) 그 가방은 너무 비싸 놓으니 잘 팔리지가 않는다. (o)</p>	<p>. 동사와만 결합한다.</p> <p>예) 그 가방은 너무 비싸 두니 잘 팔리지가 않는다. (x)</p>

+ '-어 두다'는 후에 나타날 일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책임하거나 부정적인 의미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 우리집 강아지가 내가 만든 작품을 다 부숴 **놓았어요** (o)

우리집 강아지가 내가 만든 작품을 다 부숴 **두었어요** (?)

② '-어 놓다', '-었-'

-어 놓다	-었-
<p>· 어떤 행위나 상태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낸다.</p> <p>예) 내일 공연 때 실수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연습해 놓았다.</p> <p>내일 공연 때 실수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다.</p>	
<p>. 어떤 행위나 상태가 완료된 후 그대로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한다.</p>	<p>. 어떤 행위나 상태의 완료를 나타내지만, 그 후 지속되거나 변화하였는지의 여부는 알 수</p>

<p>예) 마이클 씨가 자전거를 문 옆에 세워 놓았다. (마이클 씨가 자전거를 문 옆에 놓은 사실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에 초점을 둬.)</p>	<p>없다. 예) 마이클 씨가 자전거를 문 옆에 세웠다. (마이클 씨가 자전거를 문 옆에 세웠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그 후 다른 상태가 변화하였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음.)</p>
<p>+ '-어 놓다'는 '세워 놓았다'와 같이 어떤 행위가 완료된 후 그 사실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에 초점을 둔다. 그에 반해 '-었-'은 '세웠다'와 같이 단순히 어떤 행위를 했다는 데 초점이 있으며, 그 결과가 계속 유지되는지 또는 변화되는지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p>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着', '完', '好'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 예) 수박을 **남겨 놓았다**가 내일 드세요. - 西瓜留着明天吃吧!
 날씨가 추우니 창문을 **열어 놓지** 말아요. - 天冷, 别把窗户开着!
 책상부터 **닦아 놓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 先擦完桌子后, 开始打扫卫生了.
 어젯밤에 이미 숙제를 **해 놓았습니다**. - 昨晚已经做好作业了.
 제가 몇 분 후에 아침을 **준비해 놓을**게요. - 我将在几分钟后把早餐准备好.
 호텔예약을 미리 **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 可以先预约宾馆.

② 용법과 오류

- 앞의 동사 어간 끝음절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 예)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방한복을 미리 사아 놓아야 한다. (x)
 도서관에 자리를 찾아 놓았다. (x)
 작년에 집을 짓어 놓길 잘 한 것 같아요. (x)
 부장님께서 아까부터 사람을 부르어 놓고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x)

- '-어 놓다'가 '-을게요'와 결합하면 미래에 완료되어 지속될 행위에 대한 약속을 나타낸다. 학습자들은 '-어 놓다'를 생략하거나 회피하는 오류를 보인다.

- 예) 제가 내일 맛있는 식당을 많이 **찾을**게요. (?) ('찾아 놓을게요'로 표현해야 할 경우)
 제가 몇 분 후에 아침을 **준비할**게요. (?) ('준비해 놓을게요'로 표현해야 할 경우)

- '-어 놓다'가 과거 '-었-'과 미래·추측 '-겠-'과 결합하여 사용되기도 하는데 학습자들은 '-어 놓다'를 생략하여 회피하는 오류를 보인다.

- 예) 제가 커피를 미리 **탔**어요. (?) ('타 놓았어요'로 표현해야 할 경우)
 제가 미리 도시락을 **싸**겠어요. (?) ('싸 놓겠어요'로 표현해야 할 경우)

3.6.27. ‘-어 대다’

-어 대다[-아 대다/-여 대다][표현]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계속 반복함을 나타내는 표현.

-어 대다: (동사에 붙어)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계속하여 지나치게 반복함을 나타낸다. 말하는 사람이 특정 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주로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가: 흐영 씨, 안색이 별로 좋지 않아요. 어제 잠을 못 잤어요?</p> <p>나: 네, 어젯밤에 잠을 조금밖에 못 잤어요.</p> <p>가: 왜 잠을 자지 못했어요?</p> <p>나: 옆집 아기가 계속 울어 대서 잠을 못 잤어요.</p> <p>가: 엄마! 먹을 거 더 없어요?</p> <p>나: 방금 밥 먹었잖아. 왜 그렇게 먹어 대니?</p> <p>가: 오늘 점심을 조금 먹고 운동을 했더니, 배가 많이 고파서 그래요.</p>
문장예문	<p>. 어젯밤부터 마이클 씨가 노래를 불러 대요.</p> <p>. 줄리아 씨가 자꾸 인터넷 쇼핑으로 옷을 사 댕다.</p> <p>. 어젯밤에 공원에서 계속 폭죽을 쏘아 대서 잠을 한숨도 못 잤다.</p> <p>. 동생이 한 시간 넘게 소리를 질러 대고 있다.</p> <p>. 왕밍 씨는 미도리 씨만 만나면 싸워 댕다.</p> <p>. 수지 씨는 아까부터 남자 친구에게 계속 전화해 댕다.</p> <p>. 흐영 씨가 밤낮으로 노래 연습을 해 대더니 드디어 가수가 되었다.</p> <p>. 유진아, 자꾸 장난감을 사 달라고 졸라 대지 마.</p> <p>. 영수 씨가 이 말을 들으면 분명히 자기 생각이 맞다고 우겨 댕 거예요.</p> <p>. 오빠가 어릴 때부터 제 키가 작다고 놀려 댕어요.</p> <p>. 제 아내는 늘 나에게 잔소리를 해 댕니다.</p>

- + 같은 동작이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주로 짧은 시간 안에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사용한다. 대부분 부정적인 행위나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나 반복적인 행위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때 사용한다. ‘줄리아 씨가 자꾸 인터넷 쇼핑으로 옷을 사 댕다’에서는 계속적으로 옷을 사는 행위에 대한 말하는 이의 부정적인 시각이 나타난다. ‘어젯밤에 공원에서 계속 폭죽을 쏘아 대서 잠을 한숨도 못 잤다’에서는 ‘폭죽을 쏘는 반복적인 행위’로 인해 ‘잠을 자지 못하는’ 부정적 결과가 나타남을 보여준다.
- + ‘-어 대다’가 항상 부정적 행위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흐영 씨가 밤낮으로 노래 연습을 해 대더니 드디어 합격하였다’와 같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반복해서 계속 시도한 행위가 긍정적인 결과를 이루었음을 나타낼 때도 사용할 수 있다.

[도입]

(1)

교사: 여러분은 스트레스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학생1: 먹어요. 계속 먹어요.

학생2: 자요. 계속 자요.

교사: 네. 스트레스가 있을 때 계속 먹어요. 계속 **먹어 대요**.

스트레스가 있을 때 계속 자요. 계속 **자 대요**.

(2)

교사: 여러분, 쉬는 시간에 무엇을 해요?

학생: 친구와 이야기해요.

교사: 수업 시간에 친구와 떠들어도 돼요?

학생: 아니요, 수업 시간에 떠들면 안 돼요.

교사: 그런데 아까부터 수업 시간에 미도리 씨와 왕밍 씨가

떠들어요. 계속 떠들어요. **떠들어 대요**.

+ 도입(1),(2)는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학생들이 교사가 제시하는 반복적인 행동을 떠올리면서 쉽게 '-어 대다'를 연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도입(2)에서는 '-어 대다'가 주로 부정적인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는 점을 설명하며, '-어 대다'가 긍정적 행위의 동사를 사용하는 데에는 제한적임을 주의하도록 한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ㅌ, ㅊ'인 경우 '-아 대다'를 쓴다.

예) 찾- + -아 대다 → 찾아 대다

사- + -아 대다 → 사 대다

잡- + -아 대다 → 잡아 대다

쏘- + -아 대다 → 쏘아 대다

② 동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ㅌ, ㅊ'가 아닌 경우 '-어 놓다'를 쓴다.

예) 울- + -어 대다 → 울어 대다

먹- + -어 대다 → 먹어 대다

떠들- + -어 대다 → 떠들어 대다

피우- + -어 대다 → 피워 대다

③ '-하다'가 붙은 동사 어간에는 '-여 놓다'를 쓰는데, 흔히 줄여서 '-해 놓다'로 쓴다.

예) 계속하- + -여 대다 → 계속해 대다

비난하- + -여 대다 → 비난해 대다

전화하- + -여 대다 → 전화해 대다

손짓하- + -여 대다 → 손짓해 대다

①	ㅌ, ㅊ	+ -아 대다	찾아 대다, 사 대다, 잡아 대다, 쏘아 대다
②	ㅌ, ㅊ 이외	+ -어 대다	울어 대다, 먹어 대다, 떠들어 대다, 피워 대다
③	-하다	+ -여 대다	계속해 대다, 비난해 대다, 전화해 대다, 손짓해 대다

		(-해 대다)	
--	--	---------	--

④ 불규칙

- 문- 예) 친구가 계속 내 점수를 **몰어 대서** 이젠 그 친구를 만나기 싫어졌어요.
 굵- 예) 아까부터 아키라 씨가 스테이크를 **구워 대고** 있어요.
 짓- 예) 집을 빠르게 **지어 대더니**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자르- 예) 동생이 종이를 계속 **잘라 대서** 화를 내고 말았다.

[문장 구성 정보]

- ① 반복적인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 '부터, 계속'과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예) 이웃집 개가 나만 보면 **계속 짖어 댄다**.
 아사코 씨에게 일주일 전부터 전화를 **해 대고** 있으나 받지 않는다.
 영수 씨가 여자 친구와 헤어진 후부터 **계속 술을 마셔 댄다**.

- ② '대다'에 과거 '-었-'과 미래·추측의 '-겠-'이 결합한다.

예) 힘이 센 아키라 씨가 무서워서 다들 말은 못 하고 뒤에서 손가락질만 **해 댔다**.
 흐영 씨는 새로 산 가방을 들고 계속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 댔다**.
 집에 가면 동생이 아이스크림을 사 달라고 **줄라 대겠다**.
 다음 주가 시험이니 줄리아 씨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계속 **먹어 대겠다**.

- ③ 명령문과 청유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예)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떠들어 **대지 마라**.
 아침부터 소리를 **질러 대지 마**.
 힘들게 바다까지 왔는데 신나게 폭죽이나 **쏘아 대자**.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 마음껏 **먹어 댄시다**.

- ④ 부정문은 '-어 대지 않다', '안 -어 대다'로 쓴다.

예) 어제 주인에게 혼나더니 이제 강아지가 **짖어 안 댄다**. (x)
 어제 주인에게 혼나더니 이제 강아지가 **짖어 대지 않는다**. (o)
 어제 주인에게 혼나더니 이제 강아지가 **안 짖어 댄다**. (o)

[제약 정보]

- ①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어 대다'는 행위의 반복을 나타내므로 상태를 뜻하는 형용사는 의미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예) 그 가방이 너무 **비싸 대서** 살 수 없다. (x)
 수지 씨는 얼굴이 **예뻐 대서** 인기가 많다. (x)
 한국어 시험이 작년부터 계속 **어려워 댄다**. (x)

[확장]

- ① 주로 부정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어 대다'는 윗사람에게 사용하면 공손하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예) 할머니께서 계속 차를 **마셔 대시더니** 배가 아프시다고 한다. (?)
부장님께서서는 회의 때마다 그 의견을 계속 **우겨 대신다**. (?)
아버지께서 요즘 집에서 담배를 **피워 대셔서** 목이 아파요. (?)
어머니께서 어제부터 계속 **전화해 대셔서** 피곤해요. (?)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 ① 대응 표현: '.....个不停', '.....个没完没了'

예) 동생이 한 시간 동안 소리를 **질러 대고** 있다.
- 弟弟一个小时一直叫喊个不停.
왕밍 씨는 아까부터 여자 친구에게 계속 **전화해 댄다**.
- 王明刚才开始一直给女朋友打电话打个不停.
부모님이 성적표가 나온 후부터 잔소리를 **해 댁니다**.
- 自从成绩单出来后, 父母唠叨个没完没了.
저녁 자율학습 시간에 선생님이 자리에 안 계시자 학생들이 떠들어 댔다.
- 晚自习时趁老师不在, 学生们吵个没完.

- ② 용법과 오류

- 동사 어간 끝음절 모음에 따라 '-아 대다', '-어 대다', '-해 대다'로 쓰는데 중국어는 형태 변화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어젯밤에 공원에서 계속 폭죽을 쏘어 **대서** 잠을 한숨도 못 잤다. (x)
답답한 마음에 담배만 **피우어** 댄다. (x)
아까부터 아키라 씨가 스테이크를 굽어 **대고** 있어요. (x)

- 반복적인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 '계속'과 함께 사용하기도 하는데 '不停'과 '没完没了'도 '계속', '끊임없이'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학습자들은 아예 '-어 대다'를 생략하는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이웃집 개가 나만 보면 계속 **짚는다**. (?) ('계속 짚어 댄다'로 표현해야 할 경우)
기분이 우울해서 끊임없이 담배를 **피운다**. (?)
('끊임없이 담배를 피워 댄다'로 표현해야 할 경우)
아까부터 아키라 씨가 계속 전화를 **한다**. (?)
('계속 전화를 해 댄다'로 표현해야 할 경우)

- 과거 '-었-'과 결합하는데 중국어의 과거 '了'는 동사 뒤에 오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떠들**었** 대다. (x)
새로 산 가방을 들고 자랑을 **했** 대다. (x)

3.6.28. ‘-어 두다’

-어 두다[-아 두다/-여 두다][표현] 어떤 행위의 완료된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표현

-어 두다: (동사에 붙어) 어떤 행위의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다른 행위를 대비하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가: 마이클 씨, 언제 학교에 가요? 나: 저는 9시쯤 갈 거예요. 분티안 씨는요? 가: 저는 오늘 시험이 있어서 일찍 가려고요. 문을 잠가 주시겠어요? 나: 네, 제가 문을 잠글게요. 열쇠는 경비실에 맡겨 둘게요.</p> <p>가: 지영 씨, 지금 무엇을 하고 계세요? 나: 김장을 하고 있어요. 가: 김장이 뭐예요? 나: 겨울에 먹을 김치를 미리 담가 두는 거예요.</p>
문장예문	<p>. 줄리아 씨, 집에 아무도 없으니 꼭 문을 잠가 두세요. . 어머니께서 요리하시는 모습을 잘 봐 두었다가 똑같이 해 주세요. .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예정이니 지금 밥을 많이 먹어 두어야 해요. .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은 시간이 있을 때 미리 읽어 두어야겠어요. . 앤디 씨, 잠시 차를 여기에 세워 두어도 될까요? .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열심히 공부해 두세요. . 다음 주가 부모님 생신이어서 미리 선물을 준비해 두려고요. . 제가 흐영 씨의 전화번호를 적어 두었던 수첩이 여기에 있을 거예요. . 수영장에 입장하시기 전에 귀중품은 미리 맡겨 두시기 바랍니다. . 현우 씨는 회사에 취직하기 전에 미리 자격증을 따 두었습니다.</p>

+ ‘-어 두다’는 앞에 제시된 행위나 상태가 완료되고 난 후 그 결과가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경비실에 맡겨 둘게요’에서 ‘맡기다’라는 행위가 이미 완료되었고, 행위의 결과인 맡긴 상태가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겨울’을 대비하여 ‘김치를 미리 담가 두는 것’과 같이 다른 행위나 상황을 위해 미리 대비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도입]

(1)

교사: 날씨가 너무 더워요.
 학생: 네, 아주 더워요. 에어컨을 켜까요?
 교사: 네, 에어컨을 켜세요. 계속 에어컨을 켜고 있어요.
 에어컨을 **켜 두세요**. 끄지 마세요.

(2)

교사: 내일이 대학교 면접일이예요. 준비를 많이 했어요?
 학생: 아니요, 많이 못 했어요.
 교사: 면접 때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미리 연습해서 준비하세요. 면접 전에 미리 **연습해 두세요**.

- + 도입(1)에서는 날씨가 더우므로 에어컨을 켜는 행위의 결과가 그대로 지속되는 상황을 제시하여 '-어 두다'의 의미를 파악하게 한다. 이때 어떤 상태의 지속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예로 드는 것이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 + 도입(2)에서는 면접을 대비하여 '연습해 두세요'와 같이 뒤에 일어날 일이나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어떠한 행위를 완료하여 준비함을 보여준다. 학생들이 자주 접하는 상황인 '시험을 대비하여 공부해 두세요', '여행을 위해서 돈을 모아 두세요' 등과 같은 예를 제시하고, 어떤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어 두다'를 사용하여 말하도록 유도한다.

[형태 정보]

- ① 동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ㅌ, ㄷ'인 경우 '-아 두다'를 쓴다.

예) 받- + -아 두다 → 받아 두다	말- + -아 두다 → 말아 두다
달- + -아 두다 → 달아 두다	보- + -아 두다 → 봐 두다
놓- + -아 두다 → 놓아 두다	모으- + -아 두다 → 모아 두다

- ② 동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ㅌ, ㄷ'이 아닌 경우 '-어 두다'를 쓴다.

예) 읽- + -어 두다 → 읽어 두다	세우- + -어 두다 → 세워 두다
쓰- + -어 두다 → 써 두다	만들- + -어 두다 → 만들어 두다
접- + -어 두다 → 접어 두다	고치- + -어 두다 → 고쳐 두다

- ③ '-하다'가 붙은 동사 어간에는 '-여 두다'를 쓰는데, 흔히 줄여서 '-해 두다'로 쓴다.

예) 연습하- + -여 두다 → 연습해 두다	말하- + -여 두다 → 말해 두다
준비하- + -여 두다 → 준비해 두다	정리하- + -여 두다 → 정리해 두다
선물하- + -여 두다 → 선물해 두다	이사하- + -여 두다 → 이사해 두다

①	ㅌ, ㄷ	+ -아 두다	받아 두다, 말아 두다, 달아 두다, 봐 두다, 놓아 두다, 모아 두다
②	ㅌ, ㄷ 이외	+ -어 두다	읽어 두다, 세워 두다, 써 두다 만들어 두다, 접어 두다, 고쳐 두다
③	-하다	+ -여 두다	연습해 두다, 말해 두다, 준비해 두다

	(-해 두다)	정리해 두다, 선물해 두다, 이사해 두다
--	---------	------------------------

③ 불규칙

- 듣- 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잘 **들어 두는** 것이 좋아요.
 굽- 예) 현우 씨가 도착할 때가 된 것 같으니 미리 고기를 **구워 두세요**.
 짓- 예) 곧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니 이름을 미리 **지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고르- 예) 책자를 보고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두면** 나중에 직원이 물건을 갖다 줍니다.

[문장 구성 정보]

① 부정문은 '-어 두지 않다, 안 -어 두다'로 쓴다.

- 예) 줄리아 씨의 주소를 **적어 안 뒀어요**. (x)
 줄리아 씨의 주소를 **적어 두지 않았어요**. (o)
 줄리아 씨의 주소를 **안 적어 뒀어요**. (o)

② 높임은 '두다'에 '-시-'를 붙여 '-어 두시다'로 쓴다.

- 예) 어머니께서 **모아 두신** 돈으로 저에게 자전거를 사 주셨어요.
 회장님께서 모든 회사 직원들의 이름을 **외워 두셨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여행 전에 책을 많이 **읽어 두시는** 습관이 있으세요.

③ '두다'에 과거 '-었-'과 미래.추측 '-겠-'이 결합한다. '-어 두었다'는 줄여서 '-어 뒀다'로 쓴다. '-어 뒀다'는 주로 구어에서 사용된다.

- 예) 제가 어제 지영 씨가 찾던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 두었어요/빌려 뒀어요**.
 여름 휴가를 가려고 두 달 전부터 호텔을 **예약해 두었어요/예약해 뒀어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기 위해 오늘밤에 짐을 **챙겨 두겠어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미리 **공부해 두겠어요**.

[제약 정보]

① '-어 두다'는 동사 '두다'와 결합하지 않는다.

- 예) 미도리 씨는 책상 옆에 가방을 **두어 두었다**. (x)
 아저씨, 소포를 문 앞에 **두어 두세요**. (x)
 어머니께서 방금 구운 케이크를 식탁 위에 **두어 두셨다**. (x)

[유사 문법]

① '-어 두다', '-어 놓다'

-어 두다	-어 놓다
-------	-------

- 어떤 행위가 완료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예) 밤에는 문을 꼭 **잠가 두세요**.
 밤에는 문을 꼭 **잠가 놓으세요**.

. 다른 일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 다른 일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행동에 사
---------------------------	--------------------------

<p>함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 내일 경기를 위해서 힘을 아껴 둥시다. (o)</p>	<p>용하는 것이 '-어 두다'에 비해 자연스럽게 않다. 예) 내일 경기를 위해 힘을 아껴 놓으시다 (??)</p>
<p>. 부정적 의미의 동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그 일은 이미 엎질러 둔 물이다. (x) 너가 망쳐 둔 일을 다시 복구하느라 정말 힘들었어. (x)</p>	<p>. 부정적 의미의 동사와 결합할 수 있다. 예) 그 일은 이미 엎질러 놓은 물이다. (o) 너가 망쳐 놓은 일을 다시 복구하느라 정 말 힘들었어. (o)</p>
<p>. 동사와만 결합한다. 예) 그 가방은 너무 비싸 두니 잘 팔리지 않는다. (x)</p>	<p>. 형용사, '이다'와 결합하여 '-어 놓아서, 어 놓으니'의 구성으로 쓴다. 예) 그 가방은 너무 비싸 놓으니 잘 팔리지 가 않는다. (o)</p>

+ '-어 두다'는 후에 나타날 일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책임하거나 방관하는 의미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 그가 일을 다 망쳐 **놓았어요** (o)
그가 일을 다 망쳐 **두었어요** (?)

+ 다른 사람에게 행동을 전가하는 무관심의 뜻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망쳐 놓았어요'는
자연스럽지만 '고쳐 두었어요'는 어색하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着', '在', '到', '好'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에어컨을 그냥 계속 **켜 둥시다**. - 空调就那样一直开着吧!
그림을 벽에 **걸어 두었다**. - 把画挂在墙上了.
등산하기 전에 먼저 물을 준비**해 둔다**. - 登山之前, 先备好水.
짐은 화물칸에 위탁**해 두십시오**. - 将把行李托运到行李舱.
예약석 자리를 **비워 둥니다**. - 空出预定席位.

② 용법과 오류

- '-어 두다'는 앞의 동사 어간 끝음절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집에 아무도 없으니 꼭 문을 잠그**아** 두어야 한다. (x)
잠시 갓길에 차를 세우**어** 두고 휴식을 취했다. (x)
한국에 오기 전에 운전 면허 자격증을 따**아** 두었습니다. (x)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잘 들어 두는 것이 좋아요. (x)

- 중국어에는 높임을 나타내는 문법적 표현이 없으므로 동사에 '-시-'를 붙이거나 동사와 '두
다'에 모두 '-시-'를 붙이는 등의 오류가 나타난다.

예) 어머니께서 손수 담그서 둔 김치를 저에게 보내 주셨어요. (x)
 회장님께서 발언 원고를 직접 고치서 두셨어요. (x)
 할아버지께서는 여행 후 사진을 정리하시어 두신다. (x)

- '-어 두다'가 동사 '두다'와 의미나 형태적으로 비슷하므로 학습자들이 혼동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를 보이게 된다.

예) 집 열쇠를 문에 두고 학교에 간 적이 있다. (x)
 ('꽂아 두고'로 표현해야 할 경우)
 잠시 차를 여기에 두어도 될까요? (x) ('세워 두어도'로 표현해야 할 경우)
 열쇠는 경비실에 둘게요. (x) ('맡겨 둘게요'로 표현해야 할 경우)
 수영장에 입장하시기 전에 귀중품은 미리 두시기 바랍니다. (x)
 ('맡겨 두시기'로 표현해야 할 경우)

3.6.29. '-어 드리다'

-어 드리다[-아 드리다/-여 드리다][표현]윗사람을 위하여 도움을 주는 어떤 행위를 함을 나타내는 표현.

-어 드리다: (동사에 붙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어떤 행위를 함을 나타낸다. 주로 상대방을 높이거나 윗사람에게 말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앤디 씨, 혹시 한국어 사전이 있어요? 나: 네, 집에 있어요. 가: 사전 좀 빌려 주시겠어요? 나: 네, 좋아요. 내일 빌려 드릴게요.</p> <p>가: 줄리아 씨, 요즘 요가를 배운다면서요? 나: 네, 한 달 전부터 배우고 있어요. 가: 저도 요가를 배우고 싶어요. 나: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p>
문장예문	<p>· 수지 씨, 시간이 늦었으니 제가 택시를 잡아 드릴게요. · 날씨가 더워지니 할머니 댁에 에어컨을 달아 드려야겠어요. · 왕밍 씨, 경치가 멋있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 드릴까요? · 제가 휴대폰 번호를 써 드릴 테니,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 마이클 씨, 남은 음식을 포장해 드릴게요. · 부모님께 지영 씨의 남자친구를 소개해 드리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님,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 어머니 생신을 잊어버려서 선물을 보내 드리지 못했어요. . 내일 있을 행사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약국에서 약을 지어 드렸어요. . 현우 씨가 어제 지하철에서 할머니의 짐을 들어 드렸어요. . 부장님께 이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

- + '-어 드리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할 때 사용되는 표현으로, '택시를 잡아 드릴게요'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드릴게요'에서처럼 주로 도움을 약속할 때 사용한다. 그리고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나 '사진을 찍어 드릴까요?'에서처럼 '-어 드릴까요?'는 도움이 필요한 지의 여부를 물어볼 때도 사용한다.
- + '-어 주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어 드리다'는윗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듣는 이를 높여서 말할 때 사용한다.

[도입]

<p>(1)</p> <p>교사: 내일이 선생님의 생일이예요.</p> <p>학생: 정말요? 저희가 선물을 준비할게요.</p> <p>교사: 선생님에게 노래를 해 주세요.</p> <p>학생: 알겠어요. 저희가 노래를 할게요.</p> <p>교사: 여러분이 내일 저를 위해 노래하기로 약속해요. '노래해 드릴게요.'로 말해요.</p> <p>(2)</p> <p>교사: (교실의 불을 끈 후) 흐영 씨, 앞이 잘 보여요?</p> <p>학생: 아니요. 잘 안 보여요.</p> <p>교사: 그럼 흐영 씨가 잘 볼 수 있게, 흐영 씨를 위해서 제가 불을 켜까요? 불을 켜 드릴까요?</p> <p>학생: 네, 불을 켜 주세요.</p> <p>교사: 네, 불을 켜 드릴게요.</p>

- + 도입(1)은 먼저 교사가 도움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어 드리다'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노래를 해 주세요'라고 하면 '노래를 해 드릴게요'로 답하도록 하여 학습자가 '-어 드릴게요'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의미와 기능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외에도 '그림을 그려 주세요',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름을 써 주세요' 등 다양한 요청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어 드릴게요'를 사용하여 답하도록 지도한다.
- + 도입(2)는 상대방이나 말하는 대상이 불편하거나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교실을 어둡게 한 후 그러한 상황에서 '흐영 씨를 위해 불을 켜 드릴까요?'라고 하여 도움이 필요한 지의 여부를 물어보는 '-어 드릴까요?'의 의미와 기능을 인식하도록 한다. 이때 도움을 부탁하거나 요청할 경우에는 '-어 드리세요'가 아니라, 주로 '-어

주세요'의 형태로 대답함에 주의시킨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ㅏ, ㅑ'인 경우 '-아 드리다'를 쓴다.

예) 찾- + -아 드리다 → 찾아 드리다 사- + -아 드리다 → 사 드리다
 놓- + -아 드리다 → 놓아 드리다 보- + -아 드리다 → 봐 드리다

② 동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ㅓ, ㅕ'가 아닌 경우 '-어 드리다'를 쓴다.

예) 읽- + -어 드리다 → 읽어 드리다 쓰- + -어 드리다 → 써 드리다
 만들- + -어 드리다 → 만들어 드리다 세우- + -어 드리다 → 세워 드리다

③ '-하다'가 붙은 동사 어간에는 '-여 드리다'를 쓰는데, 흔히 줄여서 '-해 드리다'로 쓴다.

예) 축하하- + -여 드리다 → 축하해 드리다 소개하- + -여 드리다 → 소개해 드리다
 포장하- + -여 드리다 → 포장해 드리다 안내하- + -여 드리다 → 안내해 드리다

①	ㅏ, ㅑ	+ -아 드리다	찾아 드리다, 사 드리다, 놓아 드리다, 봐 드리다
②	ㅓ, ㅕ 이외	+ -어 드리다	읽어 드리다, 써 드리다, 만들어 드리다, 세워 드리다
③	-하다	+ -여 드리다 (-해 드리다)	축하해 드리다, 소개해 드리다, 포장해 드리다, 안내해 드리다

④ 불규칙

듣- 예) 제가 수지 씨의 이야기를 잘 **들어 드릴**게요.
 돕- 예) 저는 어제 김장을 하시던 어머니를 **도와 드렸**어요.
 짓- 예) 저는 부모님께 큰 집을 **지어 드릴** 거예요.
 부르- 예) 제가 할머니께 노래를 **불러 드릴**게요.

[문장 구성 정보]

① 부정문은 '-어 드리지 않다, 안 -어 드리다'로 쓴다. 주로 '안 -어 드리다'는 구어에서 사용한다.

예) 할머니께 책을 **읽어 안 드렸다**. (x)
 할머니께 책을 **읽어 드리지 않았다**. (o)
 할머니께 책을 **안 읽어 드렸다**. (o)

②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향을 물어볼 때 '-어 드릴까요?'를 사용한다.

예) 아사코 씨, 제가 교실에서 **기다려 드릴**까요?
 할머니, 날씨가 더운데 에어컨을 **켜 드릴**까요?
 제가 마이클 씨에게 돈을 **빌려 드릴**까요?

③ 대상을 낮추어 말할 때는 '-어 주다'로 쓴다. '-어 드리다'는 '-어 주다'의 높임 표현이다.

예) 영숙아, 내가 가방을 **들어 드릴게**. (x)

영숙아, 내가 가방을 **들어 줄게**. (o)

수진아, 내 숙제 좀 **도와 드려**. (x)

수진아, 내 숙제 좀 **도와줘**. (o)

+ '-어 드릴까요?'에 대한 대답은 말하는 사람 자신이 도움의 대상일 경우에는 '-어 주세요'로 해야 하고, 제3자일 경우 나이가 많거나 신분이 더 높을 경우, '-어 드리세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 주세요'로 쓴다. 학생들이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에 유의하여 지도해야 한다.

④ '~께/한테/에게 -어 드리다'의 형태로 자주 쓴다.

예) 다음 주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선물을 **보내 드릴게요**.

제가 지영 씨한테 편지를 **써 드릴게요**.

제가 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부탁 **말씀해 드릴게요**.

+ 도움을 받는 대상이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을 경우 또는 친밀하지 않은 경우 공손함을 나타내기 위해 쓴다.

[제약 정보]

①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선생님, 제가 교실을 **깨끗해 드릴게요**. (x)

선생님, 제가 교실을 **깨끗하게 해 드릴게요**. (o)

제가 음식을 **맛있어 드릴게요**. (x)

제가 음식을 **맛있게 해 드릴게요**. (o)

+ 형용사와 결합할 수 없으므로 주로 '-게 하다'와 결합하여 '-게 해 드리다'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동사 '드리다'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어머니 생신 선물로 꽃다발을 **드려 드리겠어요**. (x)

어머니 생신 선물로 꽃다발을 **드리겠어요**. (o)

사장님께서 아침에 오시자마자 서류를 **드려 드리겠습니다**. (x)

사장님께서 아침에 오시자마자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o)

+ 동사 '드리다'의 의미와 '-어 드리다'의 의미가 충돌하여 이중 표현이 되어서 어색하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给'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왕밍 씨, 제가 사진을 **찍어 드릴까요?** - 王明, 我给你拍张照片吗?

제가 부장님께 이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我给部长转告这个消息.

손님,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 您好, 我能帮您做什么吗?

② 용법과 오류

- 부정문은 '-어 드리지 않다, 안 -어 드리다'로 쓰는데, 중국어에서 부정 표현 '没'와 '不'는 '주다' 의미를 갖는 '给'의 앞에 오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부모님께 학교를 안내해 **안** 드렸다. (x) - 没给父母介绍学校. (o)

건강을 고려해서 저는 부모님께 술담배를 사다 **안** 드려요. (x)

- 考虑到健康, 我不给父母买烟酒. (o)

- '-어 드리다'는 '-어 주다'의 높임 표현인데 중국어는 높임과 낮춤의 구분 없이 모두 '给'를 쓰거나 대응 표현 없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왕밍아, 내가 너의 가방을 들어 드릴게. (x) - 王明, 我给你拎包.

왕밍아, 내가 너의 가방을 들어 줄게. (o) - 王明, 我给你拎包.

어머님께 기쁜 소식을 알려 주겠습니다. (x) - 告诉妈妈一个好消息.

어머님께 기쁜 소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o) - 告诉妈妈一个好消息.

- 형용사와 결합할 수 없으므로 주로 '-게 하다'와 결합하여 '-게 해 드리다'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지만 중국어는 '드리다'의 대응표현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선생님, 제가 교실을 깨끗하게 할게요. (x) ('깨끗하게 해 드릴게요'로 표현해야 할 경우)

제가 음식을 맛있게 할게요. (x) ('맛있게 해 드릴게요'로 표현해야 할 경우)

-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어 주시겠어요?'를 사용할 수 있는데 중국어는 '주시다'와 '드리다'에 대응하는 표현이 따로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수잔 씨, 저를 좀 도와 드리겠어요? ('도와 주시겠어요?'로 표현해야 할 경우)

왕밍 씨, 저희들을 사진을 좀 찍어 드리겠어요? ('찍어 주시겠어요?'로 표현해야 할 경우)

3.6.30. '-어 버리다'

-어 버리다[-아 버리다/-여 버리다][표현] 어떤 행위를 완전히 끝냄을 나타내는 표현.

- 어 버리다: (동사에 붙어) 어떤 행위를 완전히 끝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 결과 심리적으로 부담이 없거나 또는 아쉽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줄리아, 오늘 정말 예쁘다. 그 옷이 정말 잘 어울려.</p> <p>나: 그래? 나한테 잘 어울리니?</p> <p>가: 응, 옷이 진짜 예쁘다. 어디에서 샀어?</p> <p>나: 사실은 언니가 사 온 옷을 몰래 입고 나와 버렸어.</p>
------	---

	<p>가: 이제 옷을 다 샀으니 영화 보러 갈까요? 나: 미안해요. 나는 영화를 못 볼 것 같아요. 가: 아까 쇼핑 후에 영화 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나: 옷을 사는 데 돈을 다 써 버려서 영화 볼 돈이 없어요.</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가 너무 고파서 밥술의 밥을 먹어 버렸다. · 남자 친구가 약속을 잘 안 지켜서 헤어져 버렸다. · 다리가 너무 아파서 노약자석에 앉아 버렸어요. · 피곤을 참지 못해 초저녁부터 침대에 누워 버렸어요. ·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러 버렸다. · 다음 주 숙제까지 다 해 버렸다. · 아이를 혼내야 하는데, 너무 귀여워서 그만 웃어 버렸다. · 장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끊어 버렸어요. · 내일이 시험인데 그만 자 버렸어요. · 아버지, 건강에 좋지 않으니 이제 담배를 끊어 버리세요.

+ '-어 버리다'는 어떤 일을 다 끝냄을 뜻하며, 그 결과 심리적으로 부담을 덜거나 아쉬운 감정을 가짐을 나타낸다. '다음 주 숙제까지 다 해 버렸다.'는 숙제를 다 끝냈으며 그 결과로 심리적 부담이 없어졌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남자 친구가 약속을 잘 안 지켜서 헤어져 버렸다'는 약속을 잘 안 지키는 남자 친구와 헤어져서 속이 시원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다리는 너무 아파서 노약자석에 앉아 버렸어요'는 다리가 아파서 노약자석에 앉으면 안 되는데 앉는 행위를 해서 스스로에게 안타까웠다는 의미이다. '피곤을 참지 못해 초저녁부터 침대에 누워 버렸어요'는 피곤을 참지 못해서 초저녁인데도 침대에 눕는 행위를 했다는 뜻으로 아쉬움 내지는 안타까움을 부수적으로 나타낸다.

[도입]

(1)
<p>교사: 여러분, 용돈이 1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사고 싶은 옷이 10만원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학생: 사면 안 돼요./ 그냥 사요. 교사: 그냥 사요. 그러면 돈이 남지 않아요. 그래도 그 옷을 너무 사고 싶어요. 그래서 옷을 사 버려요.</p>
(2)
<p>교사: 선생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학생: 고백하세요./ 고백하지 마세요. 교사: 용기를 내서 고백하고 싶어요. 고백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해요. 부끄럽지만 고백하면 마음이 시원해요. 고백해 버릴까요?</p>

+ 도입(1)에서는 어떤 행위를 끝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어 버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든 돈으로 옷을 사 버린다는 상황을 설정하여 파악하도록 한다.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좋지는 않지만 그 행위를 감행하는 상황에서 '-어 버리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상황을 통해 잘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도입(2)는 부담스러운 행위를 끝내어 마음이 시원하다는 '-어 버리다'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구성하였다. 행위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행위 후에 답답함이 없다는 상황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ㅌ, ㄷ'인 경우 '-아 버리다'를 쓴다.

예) 남- + -아 버리다 → 남아 버리다 찾- + -아 버리다 → 찾아 버리다
 만나- + -아 버리다 → 만나 버리다 갈- + -아 버리다 → 갈아 버리다
 오- + -아 버리다 → 와 버리다 가- + -아 버리다 → 가 버리다

② 동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ㅌ, ㄷ'가 아닌 경우 '-어 버리다'를 쓴다.

예) 입- + -어 버리다 → 입어 버리다 먹- + -어 버리다 → 먹어 버리다
 서- + -어 버리다 → 서 버리다 쓰- + -어 버리다 → 써 버리다
 그리- + -어 버리다 → 그리어 버리다/그려 버리다

③ '-하다'가 붙은 동사 어간에는 '-여 버리다'를 쓰는데, 흔히 줄여서 '해 버리다'로 쓴다.

여행하- + -여 버리다 → 여행해 버리다
 예) 시작하- + -여 버리다 → 시작해 버리다
 연락하- + -여 버리다 → 연락해 버리다
 공부하- + -여 버리다 → 공부해 버리다
 청소하- + -여 버리다 → 청소해 버리다
 도전하- + -여 버리다 → 도전해 버리다

①	ㅌ, ㄷ	+ -아 버리다	남아 버리다, 찾아 버리다, 만나 버리다, 갈아 버리다, 와 버리다, 가 버리다
②	ㅌ, ㄷ 이외	+ -어 버리다	입어 버리다, 먹어 버리다, 서 버리다, 써 버리다, 그려 버리다
③	-하다	+ -여 버리다 (-해 버리다)	여행해 버리다, 시작해 버리다, 연락해 버리다, 공부해 버리다, 청소해 버리다, 도전해 버리다

[문장 구성 정보]

① 높임은 '-어 버리시다'로 쓴다.

예) 할아버지께서 그 사실을 전부 **알아 버리셨어**. (o)
 선생님께서 교실 청소를 혼자 다 **해 버리셨어**. (o)
 아버지께서 나 때문에 화가 **나 버리셨다**. (o)

[제약 정보]

- ①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파 버렸어요**. (x)
저도 한번 **예뻐 버리고** 싶어요. (x)
마이크가 고장 나서 소리가 **작아 버렸다**. (x)
기분이 **나빠 버렸어**. (x)

- ② 과거를 나타내는 '-었-', 미래, 추측을 나타내는 '-겠-'이 '-어' 앞에 붙지 않는다.

예) 이 책까지 다 **읽었어 버려요**. (x)
이 책까지 다 **읽었어 버렸어요**. (x)
이 책까지 다 **읽어 버렸어요**. (o)
이 책까지 다 **읽겠어 버려요**. (x)
이 책까지 다 **읽겠어 버리겠어요**. (x)
이 책까지 다 **읽어 버리겠어요**. (o)

[확장]

- ① '그냥'이나 '다'와 잘 어울려 쓰인다.

예) 머리가 아파서 **그냥 자 버렸어요**.
밥 차리기 귀찮아서 **그냥 굶어 버렸어요**.
그릇에 남은 거 **다 먹어 버려**.
기분이 너무 좋아서 술을 **다 마셔 버렸다**.

+ '그냥'은 부담스럽지만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행위를 끝내야 함을 강조할 때 사용한다. '다'는 행위를 통해 아무것도 남지 않음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 ② 행위를 끝낸다는 의미이므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잇다, 도착하다, 열리다 등)와 쓰일 때는 그 행위를 끝낸다는 의미를 강조하게 된다.

예)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합시다.
기차는 이미 **도착해 버렸다**.
창문을 잘 닫았는데 다시 **열려 버렸어**.

- ③ '-어 버리다'에 '-겠-'이 결합하면 일을 끝내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

예)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겠어**.
나는 여름방학 동안 살을 **빼 버리겠어**.
오늘 밤까지 반드시 이 일을 **끝내 버리겠어**.

[유사 문법]

- ① '-어 버리다', '-고 말다'

-어 버리다	-고 말다
--------	-------

· '어떤 일을 끝냄'을 나타낸다.

<p>· 대체로 의도적으로 그 행위를 했음을 나타낸다. 부가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을 끝낸 데에 대해 시원한 느낌을 나타내기도 한다.</p> <p>예) 꽃병을 깨 버렸다. (일부러 깨) 사고로 그가 크게 다쳐 버렸다. (?) 밤을 새워 일을 다 해 버렸다.</p>	<p>· 대체로 의도적인 행위에 대해 쓰지 않는다. 부가적으로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데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낸다.</p> <p>예) 꽃병을 깨고 말았다. (일부러 깨지 않음) 사고로 그가 크게 다치고 말았다. 밤을 새워 일을 다 하고 말았다. (?)</p>
<p>· 의지의 '-겠-'과 함께 쓰일 때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할 능력이 있다.</p> <p>예) 오늘은 이 팀을 이겨 버리겠다.</p>	<p>· 의지의 '-겠-'과 함께 쓰여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데 말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할 능력이 없을 수 있다.</p> <p>예) 오늘은 이 팀을 이기고 말겠다.</p>
<p>· 명령문이나 청유문에 사용된다.</p> <p>예) 담배를 끊어 버려. (o) 담배를 끊어 버리세요. (o)</p>	<p>· 명령문이나 청유문에 잘 사용되지 않는다.</p> <p>예) 담배를 끊고 마. (x) 담배를 끊고 마세요. (x)</p>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掉', '完', '光'

- 예) 건강에 좋지 않으니 이제 담배를 **끊어 버리세요**. - 吸烟有害健康, 请戒掉烟吧.
 대출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아 버렸습니다**. - 为了还债, 卖掉了房子.
 책의 내용이 너무 재미있어서 하루 만에 다 **읽어 버렸다**. - 书的内容太有意思了, 所以一天就读完了.
 다음 주 숙제까지 다 **해 버렸다**. - 下周的作业也都做完了.
 한국에 유학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돈을 다 **써 버렸어요**. - 来韩国留学不长时间, 钱都花光了.
 어렸을 때의 안 좋았던 기억은 거의 **잊어 버렸어요**. - 小时候的不愉快的记忆差不多忘光了.

② 용법과 오류

- 높임은 '-어 버리시다'로 쓰지만 중국어는 '-시-'와 같이 어미로 실현되는 높임 표현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 예) 할아버지께서 그 사실을 전부 **알으셔 버리셨어**. (x)
 할아버지께서 그 사실을 전부 **알으셔 버렸어**. (x)
 할아버지께서 그 사실을 전부 **알아 버렸어**. (?)
 선생님께서 교실 청소를 혼자 다 **하셔 버리셨어**. (x)
 선생님께서 교실 청소를 혼자 다 **하셔 버렸어**. (x)
 선생님께서 교실 청소를 혼자 다 **해 버렸어**. (?)

- 동사와 결합한 '掉', '完', '光'뿐만 아니라 '了'도 행위의 완료를 나타내므로 과거를 나타내는 '-었-'을 중복 사용하는 오류를 보이게 된다.

예) 이 책까지 다 읽었어 버렸어요. (x)

집을 팔았어 버렸습니다. (x)

하루 만에 다 읽었어 버렸어요. (x)

돈을 다 썼어 버렸어요. (x)

안 좋았던 기억은 거의 잊었어 버렸어요. (x)

3.6.31. ‘-어서인지’

-어서인지[-아서인지/-여서인지][표현] 원인이나 이유를 추측함을 나타내는 표현.

-어서인지: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앞 절의 행위나 상태가 뒤 절의 원인이나 이유라고 추측함을 나타낸다. 그러한 원인이나 이유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울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앤디 씨, 다음 주 월요일이 벌써 개학이에요. 나: 네, 맞아요. 방학이 얼마 안 남았어요. 가: 방학이 얼마 안 남아서인지 저는 요즘 잠이 안 와요. 나: 개학하는 게 좋아서요? 가: 아니요, 공부할 생각을 하니 걱정이 되어서요.</p> <p>가: (옷가게에서) 줄리아 씨, 이 옷이 어때요? 나: 음... 이 원피스는 흐영 씨에게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가: 그렇죠? 제가 키가 작아서인지 원피스는 안 어울려요. 나: 흐영 씨에게는 이 블라우스가 어울릴 것 같아요. 한번 입어 보세요.</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우 씨는 책을 많이 읽어서인지 모르는 것이 없어요. · 지영 씨가 남자친구를 만나서인지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 어제 설악산 등산으로 피곤해서인지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 대학교를 졸업해서인지 우리 과 친구들을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 아기가 새로 산 침대에 누워서인지 금방 잠이 들었다. · 영수 씨가 머리를 짧게 잘라서인지 더 어려 보여요. · 줄리아 씨는 겁이 많아서인지 놀이기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 항상 활발하던 수지 씨가 머리가 아파서인지 기운이 없어 보여요. · 오늘이 주말이어서인지 어디를 가도 길이 너무 막혀요.

	. 퇴근 시간이어서인지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서 매우 복잡합니다.
--	--

- + '-어서인지'는 앞의 행위나 상태가 뒤의 상황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라고 추측함을 나타낸다. '방학이 얼마 안 남아서인지', '키가 작아서인지', '주말이어서인지'가 뒤 절의 원인이나 이유임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추측함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어서인지'는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어서'와 '이다'의 활용형인 '인지'가 결합한 형태이다. '방학이 얼마 안 남아서인지 저는 요즘 잠이 잘 안 와요.'에서 '요즘 잠이 안 오는 이유'가 반드시 '방학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 사용한다.

[도입]

(1)

교사: 여러분, 한국 노래를 좋아해요?

학생: 네, 좋아해요. 저는 슈퍼주니어의 노래를 좋아해요.

교사: 미도리 씨는 왜 슈퍼주니어의 노래를 좋아해요?

학생: 잘 모르겠지만 가수가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노래도 좋은 것 같아요.

교사: 정말요? 가수가 멋있어요. 그래서 노래도 좋은 것 같아요. 가수가 **멋있어서인지** 노래도 좋은 것 같아요.

(2)

교사: 왕밍 씨, 오늘 옷이 너무 잘 어울려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학생: 네, 잘 어울려요.

교사: 왜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학생: 왕밍 씨는 얼굴이 하얘요. 그래서 파란색 옷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교사: 선생님도 그런 것 같아요. 왕밍 씨는 얼굴이 하얘요. 파란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왕밍 씨는 얼굴이 **하얗서인지** 파란색 옷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유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 같을 때 '-어서인지'로 말할 수 있어요.

- + '-어서인지'를 도입할 때는 그 상황에 대한 이유나 원인을 유도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 단, 너무 명백한 이유를 댈 수 있는 질문은 피해서 하도록 한다. 도입(1)에서와 같이 학생에게 '그 노래는 좋아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노래 자체에 대한 대답보다는 단지 '가수가 멋있어서'라는 이유를 말함으로써 그러한 이유도 포함이 됨을 추측하여 말하는 상황을 유도한다. 도입(2)에서도 단정적으로 꼭 그러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파란색 옷이 잘 어울리는 원인'이 '얼굴이 하얗기 때문'일 것이라는 점을 '-어서인지'를 사용하여 말할 수 있도록 한다.

[형태 정보]

① 동사나 형용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ㅌ, ㅊ'인 경우 '-아서인지'를 쓴다.

예) 찾--아서인지 → 찾아서인지 많--아서인지 → 많아서인지
 좋--아서인지 → 좋아서인지 사--아서인지 → 사서인지
 가--아서인지 → 가서인지 오--아서인지 → 와서인지
 아프- + -아서인지 → 아파서인지 고프- + -아서인지 → 고파서인지

② 동사나 형용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ㅌ, ㅊ'가 아닌 경우 '-어서인지'를 쓴다.

예) 먹--어서인지 → 먹어서인지 읽--어서인지 → 읽어서인지
 쉬--어서인지 → 쉬어서인지 두- + -어서인지 → 두어서인지/뒤서인지
 슬프- + -어서인지 → 슬퍼서인지 기쁘- + -어서인지 → 기뻐서인지
 막히- + -어서인지 → 막히어서인지/막혀서인지
 마시- + -어서인지 → 마시어서인지/마셔서인지
 보내- + -어서인지 → 보내어서인지/보내서인지
 있- + -어서인지 → 있어서인지 없- + -어서인지 → 없어서인지

③ '-하다'가 붙은 동사나 형용사 어간에는 '-여서인지'를 쓰는데, 흔히 줄여서 '-해서인지'로 쓴다.

예) 노래하- + -여서인지 → 노래하여서인지/노래해서인지
 결혼하- + -여서인지 → 결혼하여서인지/결혼해서인지
 피곤하- + -여서인지 → 피곤하여서인지/피곤해서인지
 편하- + -여서인지 → 편하여서인지/편해서인지

①	ㅌ, ㅊ	+ -아서인지	찾아서인지, 많아서인지, 좋아서인지, 사서인지, 가서인지, 아파서인지, 고파서인지
②	ㅌ, ㅊ 이외	+ -어서인지	먹어서인지, 읽어서인지, 쉬어서인지, 두어서인지, 슬퍼서인지, 기뻐서인지, 막혀서인지, 마셔서인지, 보내서인지, 있어서인지, 없어서인지
③	-하다	+ -여서인지 (-해서인지)	노래해서인지, 결혼해서인지, 피곤해서인지, 편해서인지

④ '이다, 아니다'는 '어서인지/라서인지'를 쓴다. 단,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여서인지'라고 쓴다.

예) 학생이--어서인지 → 학생이어서인지/학생이라서인지
 책이--어서인지 → 책이어서인지/책이라서인지
 의사이--어서인지 → 의사여서인지/의사라서인지
 친구이--어서인지 → 친구여서인지/친구라서인지
 아니--어서인지 → 아니어서인지/아니라서인지
 + '아니어서인지'를 소리 나는 대로 '아니여서인지'라고 쓰면 틀린다.

⑤ 불규칙

- 듣- 예) 밤에 태풍이 온다는 말을 **들어서인지** 계속 걱정이 되었다.
출- 예) 날씨가 **추워서인지** 백화점에만 사람들이 많아요.
нат- 예) 이제 감기가 거의 다 **나아서인지**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어요.
하얏- 예) 수지가 얼굴이 **하얗서인지** 흰 드레스가 잘 어울렸다.
다르- 예) 저는 동생과 성격이 **달라서인지** 자주 싸우기도 해요.

[문장 구성 정보]

- ① 부정문은 '-지 않아서인지', '안 -어서인지'의 두 가지 형태를 모두 쓸 수 있다.

- 예) 시험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인지** 도서관에 사람이 많아요.
= 시험이 아직 **안 끝나서인지** 도서관에 사람이 많아요.
오늘 운동을 **하지 않아서인지** 소화가 잘 되지 않아요.
= 오늘 운동을 **안 해서인지** 소화가 잘 되지 않아요.
+ 'N+이어서인지'를 부정할 때는 'N이 아니라서인지/아니어서인지'의 형태로 쓴다.

- 예) 여름이 **아니라서인지/아니어서인지** 수영장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최신 컴퓨터가 **아니라서인지/아니어서인지** 컴퓨터 속도가 느려요.
휴가 기간이 **아니라서인지/아니어서인지** 공항에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어머니가 만드신 음식이 **아니라서인지/아니어서인지** 웬지 맛이 없어요.

- ② 높임은 '-어서인지'에 '-으시-'를 붙여 '-으셔서인지'로 쓴다.

- 예) 선생님께서 **피곤하셔서인지** 오늘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부장님께서 휴가를 **가셔서인지** 다른 직원들도 휴가를 많이 갔어요.
할머니께서 집에 **오셔서인지** 아이들이 매우 좋아해요.
어머니께서 용돈을 **주셔서인지** 줄리아 씨가 기분이 좋아 보여요.

[제약 정보]

- ① 과거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뒤 절의 동사나 형용사에 시제를 나타낸다.

- 예) 남자 친구를 **만났어서인지** 기분이 좋았어요. (x)
남자 친구를 **만나서인지** 기분이 좋았어요. (o)
남자 친구를 **만나겠어서인지** 기분이 좋겠어요. (x)
남자 친구를 **만나서인지** 기분이 좋겠어요. (o)
날씨가 **추웠어서인지** 명동에 사람이 없었어요. (x)
날씨가 **추워서인지** 명동에 사람이 없었어요. (o)
날씨가 **춥겠어서인지** 명동에 사람이 없겠어요. (x)
날씨가 **추워서인지** 명동에 사람이 없겠어요. (o)

[확장]

- ① '-어서인지'는 '-어서 그런지'로 바꿔 쓸 수 있으며, 의미적 차이가 거의 없다.

- 예) 비가 많이 **와서인지** 차가 많이 막혀요.
=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차가 많이 막혀요.

줄리아 씨는 한국 친구들이 **많아서인지** 한국어를 잘해요.

= 줄리아 씨는 한국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한국어를 잘해요.

+ 앞의 상황이나 행동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을 때 사용한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可能是因为', '也许是因为'

예) 할아버지는 **약술을 드셔서인지**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 可能是因为喝了点酒, 爷爷看起来心情好.

오늘이 주말이**어서인지** 백화점에 사람이 많았어요. - 今天可能是因为周末, 百货店里有很多人.

왕명 씨는 연속 며칠 간 잠을 잘 **자지 못해서인지**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 王明也许是因为连续几天没睡好觉, 提不起精神.

독감이어서인지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 也许是因为重感冒, 吃药也没用.

② 용법과 오류

- 동사나 형용사 어간 끝음절 모음에 따라 '-아서인지', '-어서인지', '-여서인지'로 쓰는데 중국어는 이런 형태 변화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단팥빵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인지** 따로 팔았어요. (x)

지영 씨는 책을 많이 **읽다서인지** 아는 것이 많아요. (x)

- 과거 '-었-'과 결합하지 않지만 중국어는 과거 시제 '了'가 올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여자 친구를 만났**어서인지** 오늘 왕명 씨는 기분이 매우 좋았어요. (x)

- 可能是因为见了女朋友, 今天王明心情好极了. (o)

날씨가 추웠**어서인지** 목수건을 사는 사람이 많았어요. (x)

- 也许是因为天气变冷了, 买围巾的人多了. (o)

- 높임은 '-어서인지'에 '-으시-'를 붙여 '-으셔서인지'로 쓰는데 중국어는 이런 높임 표현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할아버지는 술을 마시**어서인지**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x)

피곤하**어서인지** 오늘 선생님의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x)

부장님께서 휴가를 가**서인지** 다른 직원들도 휴가를 많이 갔어요. (x)

3.6.32. '-어야겠-'

-어야겠-[-아야겠-/-여야겠-][표현] 1) 어떤 행위나 상황에 대한 의지 2)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

-어야겠-1): (동사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주로 말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줄리아 씨, 오늘 날씨가 어때요? 나: 어제보다 더 추운 것 같아요. 가: 그래요? 오늘은 아무리 불편해도 두꺼운 코트를 입어야겠네요. 가: 민수 씨, 안색이 좋지 않아요. 어디 아파요? 나: 점심을 먹었는데 소화가 되지 않아요. 가: 빨리 약국에 가서 소화제를 사 먹어야겠어요.</p>
문장예문	<p>. 오늘 저녁에는 꼭 그 책을 다 읽어야겠어요. . 이번 여름에는 꼭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가야겠어요. . 주말에 남자 친구와 같이 그 영화를 봐야겠어요. . 저는 여기에서 친구를 기다려야겠으니, 현우 씨 먼저 가세요. . 어제 동생과 싸웠는데, 제가 언니니까 먼저 사과해야겠어요. . 요즘 살이 많이 찌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어요. .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니, 저라도 도와 드려야겠어요. . 머리가 너무 길어서 주말에 머리를 잘라야겠어요. . 지영 씨,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모자를 써야겠어요. . 올해는 작년보다 신제품을 더 많이 팔아야겠습니다.</p>

+ '-어야겠-1)'은 연결어미 '-어야'와 미래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겠-'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표현으로, 말하는 사람이 미래에 어떤 행동이나 동작을 꼭 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 '오늘은 아무리 불편해도 두꺼운 코트를 입어야겠네요.', '이번 여름에는 꼭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가야겠어요'에서와 같이 미래(오늘, 이번 여름)에 '두꺼운 코트를 입겠다, 휴가를 가겠다'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보여준다. 주로 구어에서 쓴다.

[도입]

(1)
교사: 벌써 12시예요. 수업이 끝나면 무엇을 할 거예요?
학생: 배가 고파요. 밥을 먹을 거예요.
교사: 배가 고파서 밥을 먹을 거예요. 밥을 먹어야겠어요 .
(2)
교사: 내일이 시험이에요. 오늘 무엇을 할 거예요?
학생: 집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교사: 내일이 시험이어서 집에 가서 꼭 공부해야 해요. 공부

해야겠어요.

+ '-어야겠-'은 미래에 그 행위를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도입(1)에서 배가 고프므로 '밥을 먹어야겠다'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도입(2)에서는 '내일이 시험'이라는 상황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하고 또 그럴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마땅히 그러한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학생들에게 미래에 반드시 해야 할 어떤 행위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질문을 유도하여 다양한 상황을 '-어야겠-'을 통해 표현하도록 한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ㅌ, ㄷ'인 경우 '-아야겠-'을 쓴다.

예) 받--아야겠--다 → 받아야겠다 찾--아야겠--다 → 찾아야겠다
사--아야겠--다 → 사야겠다 오--아야겠--다 → 와야겠다

② 동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ㅌ, ㄷ'이 아닌 경우 '-어야겠-'을 쓴다.

예) 먹--어야겠--다 → 먹어야겠다 읽--어야겠--다 → 읽어야겠다
쓰--어야겠--다 → 써야겠다 만들--어야겠--다 → 만들어야겠다

③ '-하다'가 붙은 동사 어간에는 '-여야겠-'을 쓰는데, 흔히 줄여서 '-해겠-'으로 쓴다.

예) 공부하--여야겠--다 → 공부해야겠다 좋아하--여야겠--다 → 좋아해야겠다
운동하--여야겠--다 → 운동해야겠다 노래하--여야겠--다 → 노래해야겠다

①	ㅌ, ㄷ	-아야겠-	받아야겠다, 찾아야겠다, 사야겠다, 와야겠다
②	ㅌ, ㄷ 이외	-어야겠-	먹어야겠다, 읽어야겠다, 써야겠다, 만들어야겠다
③	-하다	-여야겠- (-해야겠-)	공부해야겠다, 좋아해야겠다, 운동해야겠다, 노래해야겠다

④ 불규칙

듣- 예) 이번에는 꼭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어요**.
눕- 예) 아까부터 계속 배가 아파서 침대에 **누워야겠어요**.
짓- 예) 아기가 태어났으니 좋은 이름을 **지어야겠어요**.
부르- 예) 수지 씨의 생일이니 제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야겠어요**.

[문장 구성 정보]

① '꼭/반드시~ -어야겠어요'의 구성으로 주로 사용한다.

예) 부산 바다가 멋있다는데, 이번 여름에는 꼭 **가야겠어요**.
이번 시험에는 반드시 제가 1등을 **해야겠어요**.

밖에 비가 많이 오니 우산을 꼭/반드시 가져가야겠어요.

② 부정문은 '-지 않아야겠어요', '안 -어야겠어요'의 두 가지 형태를 모두 쓸 수 있다.

예) 다음 주가 시험이니, 이제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안 해야겠어요.** (x)

다음 주가 시험이니, 이제 컴퓨터 게임을 **안 해야겠어요.** (o)

다음 주가 시험이니, 이제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않아야겠어요.** (o)

[제약 정보]

①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저는 시험이 끝나면 기분이 **좋아야겠어요.** (x)

저는 점심을 먹은 후에 배가 **아파야겠어요.** (x)

제가 내일 새 옷을 입을 테니 **예뻐야겠어요.** (x)

+ 말하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므로 형용사는 의미상 어울리지 않는다.

② 과거 '-었-'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소포를 우체국에 가서 받아 **왔아야겠어요.** (x)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소포를 우체국에 가서 받아 **와야겠어요.** (o)

어제부터 감기에 걸려서 집에 가서 **쉬었어야겠어요.** (x)

어제부터 감기에 걸려서 집에 가서 **쉬어야겠어요.** (o)

[확장]

① 문어에서는 주로 '-어야 하겠-'으로 쓴다.

예) 내일은 전 직원들이 지방으로 출장을 **가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서류를 꼼꼼히 읽고 모두 **숙지해야 하겠습니다.**

[유사 문법]

① '-어야겠1)-', '-을 것이1)-'

-어야겠1)-	-을 것이1)-
· 어떤 행위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낸다.	
· 모든 주어에 사용할 수 있다. 예) 저는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해야겠어요. (o) 언젠가 진실은 밝혀져야겠지요. (o)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냄)	· 1인칭 주어에서만 의지를 나타낸다. 예) 저는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할 거예요. (o)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 (1인칭 외의 주어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냄)

+ '-어야겠-'은 '-을 것이-' 보다 더 강하고 확고한 의지를 나타낸다. '-을 것이-'는 미래의 행위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 않은 반면에, '-어야겠-'은 꼭 해야 하는 상황을 제시할 때 사용하므로 의지가 강하게 나타난다.

- 예) 저는 오늘 오후에 지방으로 출장을 **가야겠어요**.
 (오후에 출장을 꼭 가야하며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저는 오늘 오후에 지방으로 출장을 **갈 거예요**.
 (오후에 출장을 갈 예정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말할 경우)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得要', '要', '得', '应该', '该'

- 예)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가야겠어요**. - 这个中秋节我**得要**去一趟家乡.
 주말에 친구와 같이 영화를 **봐야겠어요**. - 周末我**要**跟朋友一起看电影.
 오늘 저녁에는 야근을 **해야겠어요**. - 今天晚上我**得**加班.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워**야겠어요**. - 我**应该**更加努力学习韩国语.
 고기잡이철이 왔어요. 젊은 어부들은 바다로 나가**야겠어요**.
 - 捕鱼的季节到了, 年轻的渔夫们**该**出海了.
 언젠가 진실은 밝혀져**야겠지요**. - 不管到什么时候, **应该**搞清真相.

② 용법과 오류

-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낼 때는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지만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은 일부 형용사와 결합이 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 예) 동창들을 만나니 나는 예뻐야겠어요. (x) - 见同学, 我**得要**漂亮一点阿! (o)
 어머니의 병이 나았으니 나도 기뻐야겠어요. (x) - 妈的病好了, 我**得**高兴啊! (o)

- '꼭/반드시~ -어야겠어요'의 구성으로 주로 사용하는데 중국어의 '得要', '要', '得' 등 자체가 '꼭', '반드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어야겠어요'를 생략하거나 회피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 예) 내일 저는 꼭 세미나에 참가할 거예요. (?) ('참가해야겠어요'로 표현해야 할 경우)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 ('밝혀야겠어요'로 표현해야 할 경우)

- 어야겠-2):**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자신의 의견이나 근거를 바탕으로 그러한 상황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추측할 때 사용한다.

[예문]

<p>담화예문</p>	<p>가: 마이클 씨, 가방이 무거워 보여요. 무엇을 갖고 다녀요? 나: 저는 책을 좋아해서 항상 책을 3권 정도 갖고 다녀요. 가: 그렇군요. 마이클 씨의 가방은 커야겠어요. 가: 수지 씨는 이상형이 누구예요? 나: 저는 배우 이민호 씨가 이상형이에요. 가: 정말요? 수지 씨의 남자친구는 잘생겨야겠네요.</p>
-------------	--

문장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 만에 한라산 정상에 다녀오려면 체력이 좋아야겠어요. . 지영 씨, 1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려면 옷을 편하게 입어야겠지요? . 기차가 방금 떠났으니 다음 기차가 올 때까지 적어도 한 시간은 기다려야겠어요. . 줄리아 씨가 키가 크니 남자친구도 키가 커야겠어요. . 현우 씨가 열심히 공부했으니 당연히 현우 씨가 1등을 해야겠지요. . 흐영 씨가 지금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고 싶으면 많이 연습해야겠어요. . 내일 바다에서 수영하려면 날씨가 오늘보다 더워야겠어요. . 전공을 선택하려면 여러 학과들에 대해 알아봐야겠어요. . 할머니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앉으셔야겠으니 자리를 좀 마련해 주세요. . 아이들 방은 활기찬 분위기를 위해 벽지가 밝은 색이어야겠어요.
------	--

+ '-어야겠-2)'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추측을 나타낸다. '수지 씨의 남자친구는 잘생겨야겠어요'와 같이 지금은 '남자친구가 없는 상황'이지만, 미래에 '남자친구가 있을 경우'를 전제로 한다면 '그 남자친구는 잘생겨야 할 것'이라는 추측을 보여준다. 또한 '날씨가 오늘보다 더워야겠어요'에서도 바다에서 수영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날씨가 더워야 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도입]

<p>(1)</p> <p>교사: 내일이 미도리 씨의 생일이에요. 우리 모두 같이 파티를 할까요?</p> <p>학생: 네, 좋아요. 무엇을 준비할까요?</p> <p>교사: 파티 음식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반에서 누가 요리를 잘 해요?</p> <p>학생: 페이페이 씨가 요리를 잘 해요.</p> <p>교사: 그래요? 그럼 내일 페이페이 씨가 요리를 해요. 그러면 좋겠어요. 페이페이 씨가 음식을 만들어야겠어요.</p> <p>(2)</p> <p>교사: 앤디 씨는 가족이 몇 명이에요?</p> <p>학생: 제 가족은 모두 6명이에요. 저와 동생, 그리고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두 같이 살아요.</p> <p>교사: 정말요? 가족이 많네요. 그러면 집이 크면 좋겠어요. 집이 커야겠어요.</p>	
--	--

+ 도입(1)과 같이 교사는 어떤 특정 상황(생일 파티)을 제시하여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행위(파티 음식 준비, 요리 등)를 학생들에게 질문함으로써 '-어야겠-'의 사용을 유도해 볼 수 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파티 준비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야겠어

요'라고 표현함을 보여준다.

- + 도입(2)에서는 현재의 상황(지금 앤디 씨가 같이 사는 가족의 수)을 질문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어떤 상황이 그러해야 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답변을 유도하여 '-어야겠-'의 의미와 기능을 익히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형태 정보]

- ① 동사나 형용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ㅏ, ㅑ'인 경우 '-아야겠-'을 쓴다.

예) 앉-+-아야겠-+-다 → 앉아야겠다 작-+-아야겠-+-다 → 작아야겠다
가-+-아야겠-+-다 → 가야겠다 보-+-아야겠-+-다 → 봐야겠다
높-+-아야겠-+-다 → 높아야겠다 좋-+-아야겠-+-다 → 좋아야겠다

- ② 동사나 형용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ㅓ, ㅕ'가 아닌 경우 '-어야겠-'을 쓴다.

예) 입-+-어야겠-+-다 → 입어야겠다 벗-+-어야겠-+-다 → 벗어야겠다
쉬-+-어야겠-+-다 → 쉬어야겠다 힘들-+-어야겠-+-다 → 힘들어야겠다
크-+-어야겠-+-다 → 커야겠다 예쁘-+-어야겠-+-다 → 예뻐야겠다

- ③ '-하다'가 붙은 동사 어간에는 '-여야겠-'을 쓰는데, 흔히 줄여서 '-해야겠-'으로 쓴다.

예) 생각하-+-여야겠-+-다 → 생각해야겠다 취직하-+-여야겠-+-다 → 취직해야겠다
깨끗하-+-여야겠-+-다 → 깨끗해야겠다 조용하-+-여야겠-+-다 → 조용해야겠다

①	ㅏ, ㅑ	-아야겠-	앉아야겠다, 작아야겠다, 가야겠다, 봐야겠다, 높아야겠다, 좋아야겠다
②	ㅓ, ㅕ 이외	-어야겠-	입어야겠다, 벗어야겠다, 쉬어야겠다, 힘들어야겠다, 커야겠다, 예뻐야겠다
③	-하다	-여야겠- (-해야겠-)	생각해야겠다, 취직해야겠다, 깨끗해야겠다, 조용해야겠다

- ④ '이다, 아니다'는 '-어야겠-'을 쓴다. 단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주로 '명사+-어야겠-'을 쓴다.

예) 학생이-+-어야겠-+-다 → 학생이어야겠다. 반장-+-이어야겠-+-다 → 반장이어야겠다
의사이-+-어야겠-+-다 → 의사여야겠다 아니-+-어야겠-+-다 → 아니어야겠다

- ⑤ 불규칙

건- 예) 내일 학교에서 소풍을 가면 많이 **걸어야겠어요**.
춥- 예) 주말에 스키를 타러 가려면 날씨가 **추워야겠어요**.
낮- 예) 다음 주 휴가 때 바다에 가려면 미도리 씨의 감기가 빨리 **나아야겠어요**.
다르- 예) 토론을 할 때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서로 **달라야겠지요**.

[문장 구성 정보]

① 부정문은 '-지 않아야겠어요', '안 -어야겠어요'의 두 가지 형태를 모두 쓸 수 있다.

예) 할아버지와 같이 가려면 식당이 집에서 멀지 **않아야겠어요/안 멀어야겠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면 방이 어둡지 **않아야겠어요/안 어두워야겠어요.**
 여자 친구와 같이 보려면 영화가 무섭지 **않아야겠어요/안 무서워야겠어요.**

[제약 정보]

① 과거 '-었-'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밤에 동생이 무서워서 불을 **켰어야겠어요.** (x)
 밤에 동생이 무서워서 불을 **켜야겠어요.** (o)
 제가 집에 없으니 소포를 유진 씨가 대신 **받았어야겠어요.** (x)
 제가 집에 없으니 소포를 유진 씨가 대신 **받아야겠어요.** (o)

+ '-어야겠-'과 과거의 결합은 과거의 동작이나 상황에 대한 추측이 되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어야겠-'은 주로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데 사용한다.

[확장]

① 수사 의문문의 꼴로 쓰여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 따져 묻거나 상황을 확인 또는 강조할 때 사용한다.

예) (내가) 그걸 꼭 말을 **해야겠어?**
 ('말을 하지 않아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
 (내가) 거길 꼭 **가야겠어?**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 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경우)

② 추측을 나타낼 경우 의지의 뜻이 같이 결합하여 추측과 의지의 의미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예) 꽃이 피려면 정원에 물을 많이 **줘야겠어요.**
 ('앞으로 물을 많이 줘야 한다'고 추측함과 동시에 '물을 많이 줄 것'이라는 의지를 설명한다.)
 한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야겠어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추측함과 동시에 '미래에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할 것'이라는 의지를 설명한다.)

[유사 문법]

① '-어야겠-2)' '-을 것이2)-'

-어야겠-2)	-을 것이2)-
·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다.	
· 추측의 근거가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을 바탕으로 한다.	· 추측의 근거가 말하는 이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 일반적 사실에 있다.

예) 지영 씨는 남자친구와 3년 동안 사귀었으니 내년쯤 결혼해야겠어요 . 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입원을 하셔야겠어요 . (곧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추측하여 평가함을 나타냄)	예) 지영 씨는 남자친구와 3년 동안 사귀었으니 내년쯤 결혼할 거예요 . 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입원을 하실 거예요 . (곧 일어날 상황에 대해 일반적으로 추측함)
---	--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应该', '必须'

예) 1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려면 옷이 **편해야겠어요**.

- 要坐十多个小时的飞机, 衣服应该穿舒服的.

학생 회장이 되고 싶은 학생은 모범생**이어야겠어요**.

- 想要当学生会长, 必须是模范学生.

입학식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참석해야겠습니다**.

- 必须所有学生都要参加毕业典礼.

② 용법과 오류

- 동사나 형용사 어간 끝음절 모음의 차이에 따라 '-아야겠-', '-어야겠-', '-여야겠-'을 쓰지만 중국어는 이런 형태 변화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장학금은 현우 씨가 받아야겠어요. (x)

줄리아 씨가 키가 크니 남자친구도 키가 커야겠어요. (x)

주말에 스키를 타러 가려면 날씨가 춥어야겠어요. (x)

다음 주 휴가 때 바다에 가려면 미도리 씨의 감기가 빨리 낫아야겠어요. (x)

3.6.33. '-어 오다'

-어 오다[-아 오다/-여 오다][표현]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계속 **변화**하거나 **진행됨**을 나타내는 표현.

-어 오다: (동사나 일부 형용사에 붙어) 어떤 동작이나 행위의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 변화하는 것을 나타내거나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수지 씨, 아사코 씨와 언제부터 알았어요? 나: 3년 전부터 알았어요. 가: 그때부터 친하게 지냈어요? 나: 아니요, 한 6개월 전부터 친하게 지내 오고 있어요.
------	---

	<p>가: 선생님, 언제 처음 한국어를 가르치셨어요?</p> <p>나: 2009년에 처음 한국어를 가르쳤어요.</p> <p>가: 지금까지 계속 한국어를 가르치셨어요?</p> <p>나: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국어를 가르쳐 왔어요.</p>
문장예문	<p>. 지금까지 저는 영희 씨의 이상한 행동을 참아 왔어요.</p> <p>. 서울 지하철 2호선은 1984년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p> <p>. 날이 밝아 오니 이제 출발해야겠어요.</p> <p>. 어머니는 10년 전부터 집 뒤에서 토마토를 키워 오고 계세요.</p> <p>. 흐영 씨가 1년 전부터 편지를 보내 와서 저도 가끔 답장을 해 줍니다.</p> <p>. 시험 날이 가까워 오니 도서관에 사람이 많아요.</p> <p>. 페이페이 씨는 오래 전부터 계속 한국 요리를 연습해 왔어요.</p> <p>. 현우 씨가 한 달 전부터 매일 아침 운동을 해 왔어요.</p> <p>. 회사에 들어가면서 항상 높은 구두를 신어 왔더니 발에 이상이 생겼어요.</p> <p>. 줄리아 씨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부터 외국 친구들을 도와 왔어요.</p> <p>. 작년부터 지어 온 집이 아직 완성이 안 되었어요.</p> <p>. 저는 환경 문제에 대해 전부터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p>

+ '-어 오다'는 어떤 행위나 상태가 과거부터 특정 시점까지 변화하거나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시작되는 시점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또는 말하는 시점까지 지속되어 왔음을 나타내지만, '1984년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10년 전부터 집 뒤에서 토마토를 키워 오고 계세요.', '1년 전부터 계속 편지를 보내 왔어요.'처럼 과거에 동작이나 상태가 시작되는 시점을 명시적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많다. '-어 오다'의 진행은 말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시점까지 행위나 상태가 진행되어 왔음을 나타낸다.

[도입]

(1)

교사: 한국어를 언제부터 배웠어요?

학생1: 저는 1년 전부터 배웠어요.

학생2: 저는 6개월 전부터 배웠어요.

교사: 한국어를 1년 전부터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1년 전부터 **배워 왔어요**. 6개월 전부터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6개월 전부터 **배워 왔어요**.

(2)

교사: 앤디 씨는 누구와 같이 살아요?

학생: 저는 친구와 같이 살아요.

교사: 언제부터 친구와 같이 지냈어요?
 학생: 한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같이 지냈어요.
 교사: 한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이 지냈어요. 친구와 같이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지내 왔어요.**

+ 도입(1),(2)의 '한국어를 배워 왔어요', '친구와 같이 지내 왔어요'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지속하고 있는 행위나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어 오다'를 도입할 때는 학생들에게 어떤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일상적인 행위를 유도하여 학생들이 '-어 오다'의 의미를 쉽게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좋다.

[형태 정보]

① 동사나 일부 형용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ㅏ, ㅑ'인 경우 '-아 오다'를 쓴다.

예) 앉- + -아 오다 → 앉아 오다 참- + -아 오다 → 참아 오다
 밝- + -아 오다 → 밝아 오다 아프- + -아 오다 → 아파 오다
 보- + -아 오다 → 봐 오다

② 동사나 일부 형용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ㅓ, ㅕ'가 아닌 경우 '-어 오다'를 쓴다.

예) 읽- + -어 오다 → 읽어 오다 키우- + -어 오다 → 키워 오다
 쓰- + -어 오다 → 써 오다 사귀- + -어 오다 → 사귀어 오다
 시리- + -어 오다 → 시려 오다

③ '-하다'가 붙은 동사 어간에는 '-여 오다'를 쓰는데, 흔히 줄여서 '-해 오다'로 쓴다.

예) 연습하- + 여 오다 → 연습해 오다 발전하- + -여 오다 → 발전해 오다
 생각하- + -여 오다 → 생각해 오다 연구하- + -여 오다 → 연구해 오다

①	ㅏ, ㅑ	+ -아 오다	앉아 오다, 참아 오다, 밝아 오다, 아파 오다, 봐 오다
②	ㅓ, ㅕ 이외	+ -어 오다	읽어 오다, 키워 오다, 써 오다, 사귀어 오다, 시려 오다
③	-하다	+ -여 오다 (-해 오다)	연습해 오다, 발전해 오다, 생각해 오다, 연구해 오다

④ 불규칙

듣-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어 왔어요.**
 돕- 예) 줄리아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왔어요.**
 짓- 예) 앤디 씨는 3년 전부터 집을 조금씩 **지어 왔어요.**

[문장 구성 정보]

① '계속 -어 왔다', '~부터 -어 왔다'의 구성으로 사용하여 행위나 상태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을 명시적으로 나타낸다.

예) 왕밍 씨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계속 강아지를 **키워 왔다**.
호영 씨는 3년 전부터 남편과 같이 한국에서 **지내 왔다**.
그 공연은 두 달 전부터 계속 매진을 **기록해 왔다**.

② '오다'에 과거 '-었-'과 추측의 '-겠-'이 결합한다.

예) 어젯밤부터 이웃집에서 떠드는 소리를 **참아 왔다**.
저는 인터넷을 통해 세계 여러 친구들과 계속 **사귀어 왔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날이 **밝아 오겠다**.
오늘 시험은 중요한 시험이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 오겠지요**.

[제약 정보]

① 일부 형용사와 결합하여 어떠한 상황이나 상태가 시작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예) 드디어 기말 시험이 **가까워 오고** 있다.
이삿짐을 쌀 생각을 하니 벌써 머리가 **아파 온다**.
추운 날씨에 밖에서 친구를 기다리니 코가 **시려 온다**.

②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 온다**. (x)
앤디 씨의 키가 작년보다 더 **커 온다**. (x)
어제보다 지영 씨가 더 **바빠 온다**. (x)
내일 줄리아 씨가 한국을 떠나니 기분이 **나빠 온다**. (x)

③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사용할 수 없다.

예) 수완 씨는 한국에 유학 온 후부터 (지금까지) 잘 **지내 왔다**. (o)
수완 씨는 한국에 유학 온 후부터 (지금까지) 잘 **지내 올 것이다**. (x)
20년 동안 교육 문제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 온** 지영 씨가 정말 자랑스럽다. (o)
20년 동안 교육 문제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 올** 지영 씨가 정말 자랑스럽다. (x)
+ 말하는 시점의 기준이 '현재'나 '과거'이므로, 출발점을 미래로 설정할 수 없다. '지금까지'를 생략하더라도 말하는 사람의 기준이 암묵적으로 '현재'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 시제를 사용할 수 없다.
+ '-을 거예요'와 결합하는 경우는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어 왔을 거예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예) 지영 씨와 남자친구는 아마도 3년 전부터 **사귀어 왔을 거예요**.
정확하게 알지는 못 하지만 그 가게는 오랫동안 **영업을 해 왔을 거예요**.

[확장]

① 일부 동사와 결합하여 말하는 사람(또는 나)에게 어떤 동작을 취하거나, 어떤 행위나 상태가 말하는 사람에게 발생했음을 나타낸다.

예) 왕밍 씨가 다음 주 시험 문제에 대해 나에게 **물어 왔다**.
남자친구가 어젯밤부터 나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왔다**.

유진 씨가 자꾸 나에게 가방을 맡겨 왔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一直', '着', '起来'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어머니는 농사만 지어 오신 분이예요. - 父亲一直务农.

그는 1년 전부터 나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 왔다. - 他一年前开始一直给我写信.

저는 환경 문제에 대해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 我一直考虑着环境问题.

하늘이 점점 밝아 오네요. - 天亮起来了.

그녀는 고향에서 이미 십년이나 일해 왔다. - 她在家乡已经工作了十年.

공부를 견지하여 온 결과, 대학에 입학했다. - 坚持学习的结果, 考上了大学.

② 용법과 오류

- 동사 어간 끝음절 모음의 차이에 따라 '-아 오다', '-어 오다', '-여 오다'로 바뀌지만 중국어는 이런 형태 변화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나기 쉽다.

예) 몇 년 전부터 마당에 토마토를 키우어 왔다. (x)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왔어요. (x)

줄리아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돕아 왔어요. (x)

- 형용사와 잘 결합하지 않지만 대응하는 중국어는 일부 형용사와 결합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 오다. (x) - 住在首尔的人越来越多起来. (o)

어제보다 왕밍 씨가 더 바빠 오다. (x) - 王明比昨天更忙起来. (o)

- '계속'과 함께 사용하여 행위나 상태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중국어의 '一直'는 '계속'과 '-어 오다'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학습자들이 '-어 오다'를 생략하거나 회피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예) 왕밍 씨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계속 장학금을 받았다. (?)

(‘장학금을 받아 왔다’로 표현해야 할 경우)

영화 『명량』은 2주 째 계속 관객 수 기록을 갱신했다. (?)

(‘갱신했다’로 표현해야 할 경우)

3.6.34. ‘-어지다’

-어지다[-아지다/-여지다][표현] 1) 어떤 행위가 발생하게 됨을 나타내거나 2) 어떤 상태가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표현.

-어지다1): (동사에 붙어) 어떤 행위가 저절로 또는 외부에 의해 일어나게 되거나 이미 그러한 상태가 됨을 나타낸다.

[예문]

담화예문	<p>가: 흐영 씨, 무슨 일이 있어요?</p> <p>나: 네, 휴대폰이 고장난 것 같아요.</p> <p>가: 그래요? 휴대폰이 어떻게 안 되나요?</p> <p>나: 어제부터 화면이 안 켜져요.</p> <p>가: 수지 씨, 조심하세요! 옷에 아이스크림이 묻었어요.</p> <p>나: 앗! 새 옷인데 어떻게 하지요?</p> <p>가: 얼른 화장실로 가서 지워 보세요.</p> <p>나: 네, 잠시만요.</p> <p>가: (화장실에서 돌아온 수지 씨에게) 어때요? 괜찮은가요?</p> <p>나: 네, 지영 씨 말대로 바로 화장실에 가서 비누로 닦으니 지워졌어요.</p>
문장예문	<p>· 지금 입맛이 없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안 먹어져요.</p> <p>· 제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무래도 잘 안 봐져요.</p> <p>· 아기를 보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사랑이 느껴져요.</p> <p>· 마이클 씨의 출국 날짜가 정해졌어요?</p> <p>· 매일 친구와 한국어로 이야기해서 한국어가 잘해졌어요.</p> <p>· 그 사람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어요.</p> <p>· 고구마가 구워질 동안 잠시 쉬고 계세요.</p> <p>· 조카가 걷는 모습을 보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져요.</p> <p>· 폭우로 정전이 되어서 아직도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p> <p>· 저희 회사는 20개의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p>

+ '-어지다1)'은 어떠한 동작이나 행위가 그러한 상태로 저절로 또는 외부적 상황에 의해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폭우로 정전이 되어서 아직도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와 같이 말하는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상황이 저절로 됨을 의미한다. '-어지다1)'은 피동을 제시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도입]

<p>(1)</p> <p>교사: (잘 써지지 않는 오래된 펜으로 칠판에 글을 쓰면서) 여러분, 글이 잘 보여요?</p> <p>학생: 아뇨, 안 보여요.</p> <p>교사: 네, 잘 안 보여요. 펜이 오래 되어서 글을 못 써요. 글이 안 써져요. (새로운 펜을 보여 주면서) 그래서 선생님이 새 펜을 샀어요. (판서를 하면서) 어때요?</p>

[문장 구성 정보]

- ① '-어 있다'와 결합하여 어떠한 동작이나 행위가 이미 그러한 상태로 되어서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한다.

예) 어제부터 교실에 불이 계속 **켜져 있어요**.
태풍에 의해 나무가 여기저기 **쓰러져 있어요**.
집 앞에 강아지가 **버려져 있어요**.

- ② 주로 조사 '이/가'와 결합하여 '~이/가 -어지다'의 형태로 쓴다.

예) 만년필로 쓰니 글씨가 더 잘 **써져요**. (o)
만년필로 쓰니 글씨를 더 잘 **써져요**. (x)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먹으니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져요**. (o)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먹으니 어머니의 사랑을 **느껴져요**. (x)
+ 학습자들이 '~을/를 -어지다'의 형태로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③ 부정문은 '-어지지 않다', '안 -어지다'의 두 가지 형태를 모두 쓸 수 있다.

예) 제가 대학교에 합격했다니 **믿어지지 않아요/안 믿어져요**.
어제부터 초인종이 **눌러지지 않아요/안 눌러져요**.
동생이 벽에 낙서한 자국이 **지워지지 않아요/안 지워져요**.

- ④ '-어지다'에 과거 '-었-'과 미래.추측 '-겠-'이 결합한다.

예)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편지에서 어머니의 진심이 **느껴졌다**.
그 건물은 오직 나무로만 **만들어졌다**.
매일 한국 친구와 1시간씩 대화하면 한국어가 **잘해지겠지요?**
줄리아 씨가 3일 동안 밤을 새면서 일을 하니 곧 **쓰러지겠어요**.

[확장]

- ① 피동접미사가 결합하는 동사에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요즘에는 피동의 의미를 확실하게 보이기 위해 둘 다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 어둠 속에서도 저 멀리서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다**. (o)
어둠 속에서도 저 멀리서 불빛이 흐릿하게 **보여졌다**. (o)
어머니와 통화하다가 전화가 **끊겼어요**. (o)
어머니와 통화하다가 전화가 **끊겨졌어요** (o)

[유사 문법]

- ① '-어지다1)', '-게 되다'

-어지다1)	-게 되다
· 어떠한 행위가 저절로 또는 외부의 상황에 의해 변화함을 나타낸다.	
예) 우리 팀이 두 개로 나누어졌다 . 우리 팀을 두 개로 나누게 되었다 .	

· 타동사와 결합하여 자동사로 사용된다. 예) 올해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졌다 . (조사 '이/가'와 결합함)	· 타동사와의 결합이 자유롭다. 예) 올해 새로운 상품을 만들게 되었다 . (조사 '을/를'과 결합함)
· 일부 동사와는 결합이 자유롭지 못하다. 예) 올해부터 부모님과 함께 서울에서 살아 졌다 . (x)	· 결합하는 동사가 비교적 자유롭다. 예) 올해부터 부모님과 함께 서울에서 살게 되었다 . (o)

+ '-어지다1)'은 '-게 되다'와 같이 피동의 의미로 사용하나, '-어지다1)'은 타동사와 결합하여 자동사로 사용되므로 조사의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 동사와 결합할 경우 '변화의 과정'이 아니라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때 변화한 결과는 '-게 되다'로 사용한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了'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할머니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다**. - 奶奶迫切的愿望实现了.
어머니의 눈빛에서 사랑이 **느껴져요**. - 妈妈的目光中感觉到了爱.
왕명 씨의 출근 시간이 **정해졌어요**? - 王明的上班时间定了吗?
저희 회사는 20개의 계열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我们公司分成20个支社.
새로 산 연필이 잘 **써져요**. - 新买的铅笔好用.

② 용법과 오류

- 동사 어간 끝음절 모음의 차이에 따라 '-아지다', '-어지다', '-여지다'를 쓰는데 중국어는 이런 형태 변화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사전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쉽게 **찾어진다**. (x)
이 와인은 캐나다에서 만들져서 세계 각지에서 **팔린다**. (x)
정하어진 코스에 따라 등산하면 **된다**. (x)

- 과거 부정문은 '안 -어지다'에 '-었-'이 결합한 형태를 사용하는데 대응하는 중국어는 과거 부정문에서 '了'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었-'을 생략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예) 어제 보내 온 친구의 편지에서 그의 진심이 **안 느껴져습니다**. (x)
(‘안 느껴졌습니다’로 표현해야 할 경우) - 昨天寄来的朋友的信中没感觉到他的诚意.
(o)
그때는 제가 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사실이 **안 믿어져요**. (x)
(‘안 믿어졌어요’로 표현해야 할 경우) - 那时我不敢相信自己考上了大学的事实. (o)

-**어지다2**): (형용사에 붙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여 어떤 상태가 되어가는 과정을 나타낸다.

[예문]

담화예문	<p>가: 마이클 씨, 벌써 7월이에요. 날씨가 덥지요?</p> <p>나: 네, 7월인데 날씨가 너무 더워요.</p> <p>가: 8월에는 한국 날씨가 어때요?</p> <p>나: 지금보다 더 더워요. 앞으로 점점 더워질 거예요.</p> <p>가: 저는 요즘 한국 화장품을 쓰고 있어요. 흐영 씨는 어떤 화장품을 쓰세요?</p> <p>나: 저도 한국 화장품을 쓰고 있어요.</p> <p>가: 그렇군요. 한국 화장품이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은 것 같아요.</p> <p>나: 그런데 요즘 한국 화장품 가격이 점점 비싸지고 있어요.</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식당이 방송에 나온 이후로 손님이 많아졌어요. ·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 이제 한국이 더 좋아졌어요. · 연말이 다가오면 점점 바빠질 거예요. · 동생이 우유를 많이 마시더니 갑자기 키가 커졌어요. · 미도리 씨, 주말 동안 청소를 했는데 방이 좀 깨끗해졌지요? · 어머니께서 아직도 새로 산 휴대폰에 익숙해지지 않아요. · 흐영 씨가 온 후로 교실이 시끄러워졌어요. · 새 가구가 들어와서 집 분위기 완전히 달라졌어요. · 밤새 눈이 와서 온 세상이 하얘졌어요. · 할머니께서 수술을 받으신 후로 정말 건강해지셨습니다.

+ '-어지다2)'는 어떤 상태가 시간이 지남에 의해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이나 그러한 상태로 됨을 나타낸다. '이 식당이 방송에 나온 이후로 손님이 많아졌어요'와 같이 과거 시제로 사용될 경우 비교 대상이 되는 이전의 상태보다 손님이 많은 상태로 변화하였음을 제시한다. '연말이 다가오면 점점 바빠질 거예요'와 같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연말)에 있을 변화를 추측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도입]

<p>(1)</p> <p>교사: (머리가 짧은 사진을 보여주며) 머리가 어때요?</p> <p>학생: 머리가 짧아요.</p> <p>교사: 자, 이제 1년이 지났어요. 머리가 어때요?</p> <p>학생: 머리가 길어요.</p> <p>교사: 1년 전에 머리가 짧았어요. 지금은 길어요. 머리가 길어졌어요.</p> <p>(2)</p> <p>교사: 한국에 언제 왔어요?</p> <p>학생: 6개월 전에 왔어요.</p>	
--	--

[문장 구성 정보]

- ① '점점, 차츰, 점차, 차차' 등의 부사와 자주 결합한다.

예) 민수 씨의 감기가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새로운 반의 학생들과 차츰 **친해지는** 중이에요.

+ '-어지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점점, 차츰, 점차, 차차' 등의 부사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상황이나 상태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강조하기 위해 '조금씩 변화함'을 나타내는 부사와 호응 관계를 가진다.

- ② 주로 조사 '이/가'와 결합하여 '~이/가 -어지다'의 형태로 쓴다.

예) 겨울이 되니 밤이 점점 **길어져요**. (o)

겨울이 되니 밤을 점점 **길어져요**. (x)

지영 씨는 술을 마시니 얼굴이 **빨개져요**. (o)

지영 씨는 술을 마시니 얼굴을 **빨개져요**. (x)

+ 학습자들이 '~을/를 -어지다'의 형태로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③ 부정문은 '-어지지 않다', '안 -어지다'의 두 가지 형태를 모두 쓸 수 있다.

예)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해지지 않아요/안 건강해져요**.

새로 산 휴대폰을 아무리 써 봐도 **익숙해지지 않아요/안 익숙해져요**.

아무리 연습을 해도 한국어 발음이 **좋아지지 않아요/안 좋아져요**.

- ④ '-어지다'에 과거 '-었-'과 미래.추측 '-겠-'이 결합한다.

예) 식탁에 꽃병을 놓으니 집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어렸을 때는 작았던 동생이 갑자기 키가 **커졌어요**.

새로 생긴 식당이 음식도 맛있고 값도 싸서 금방 사람이 **많아지겠어요**.

줄리아 씨가 요즘 밤마다 라면을 먹으니 **똥똥해지겠어요**.

[제약 정보]

- ① 동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동사와 결합할 경우에는 '-어지다1)'의 의미를 갖는다.

예) 올해 지영 씨가 새로 디자인한 옷이 매우 **기다려져요**. ('-어지다1)'의 의미)

올해 지영 씨가 새로 디자인한 옷이 작년보다 **예뻐졌어요**. (o)

마이클 씨와 이야기하다 보니 마이클 씨의 관심이 **느껴져요**. ('-어지다1)'의 의미)

마이클 씨와 이야기하다 보니 마이클 씨가 점점 **좋아져요**. (o)

[유사 문법]

- ① '-어지다2)', '-게 되다'

-어지다2)	-게 되다
· 어떠한 상황이나 상태로 변화를 나타낸다.	
예) 시험을 못 봐서 합격이 어려워졌다 .	
시험을 못 봐서 합격이 어렵게 되었다 .	

· 변화하는 과정을 더 강조한다. 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 사정이 어려워졌어요.	· 변화한 결과를 더 강조한다. 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 사정이 어렵게 되었어요.
· 형용사와 결합하여 동사로 사용된다. 예) 과일 값이 비싸졌어요. (o) 마음이 따뜻해졌다. (o) 얼굴이 고와졌다. (o)	· 일부 형용사 결합에 제약을 보인다. 예) 과일 값이 비싸게 되었어요. (x) 마음이 따뜻하게 되었다. (x) 얼굴이 곱게 되었다. (x)

+ '-어지다2)'는 어떤 상황이나 상태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말할 때 사용한다. 그러므로 '점점, 차츰'과 같이 모양이 천천히 변화하는 것을 뜻하는 부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게 되다'는 변화하는 과정이 아니라 변화한 결과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결국, 마침내, 드디어'와 같이 상황의 국면이 이미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부사와 함께 사용한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变', '起来'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 예) 노인들은 키가 점점 **작아집니다.** - 老人的身高会越来越**变**小.
강한 불빛에 주위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 由于是强光, 周围突然**亮**起来了.
대학입시를 앞두고 왕밍 씨의 학습 성적이 날로 **좋아졌어요.**
- 临高考, 王明的学习成绩越来越**好**起来了.
경기가 점점 **재미있어지는데.** - 这比赛真是激动人心啊.
성형 수술을 하니 **예뻐지기는 했지만** 자기만의 스타일은 잃어버렸어요.
- 做了整容手术后是**变**漂亮了, 但是丢掉了自己的个性.

② 용법과 오류

- 과거 부정문은 '안 -어지다'에 '-었-'이 결합한 형태를 사용하는데 대응하는 중국어는 과거 부정문에서 '了'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었-'을 생략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 예) 강한 불빛에도 주위가 **안 밝아져요.** (x) - 在强光下, 周围也**没**亮起来. (o)
왕밍 씨의 학습 성적이 **안 좋아져요.** (x) - 王明的学习成绩**没**好起来. (o)
성형 수술을 해도 **안 예뻐져요.** (x) - 做了整容手术也**没**变漂亮. (o)

- 부정문은 '-어지지 않다', '안 -어지다'의 두 가지 형태를 모두 쓸 수 있지만 중국어에 형태적으로 대응하는 부정 표현은 '안 -어지다'이므로 '-어지지 않다'의 사용빈도가 낮고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 예) 한국어 발음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 韩国语发音**没**变好.
한국어 발음이 **안 좋아져요.** - 韩国语发音**没**变好.

3.6.35. ‘에 대하여’

에 대하여[**에 대해**]{**에 대해서**}{**에 대한**}[**표현**] 앞의 내용이 뒤의 상황이나 행동의 대상이 됨을 나타내는 표현.

에 대하여: (명사에 붙어) 앞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여 뒤의 상황이나 행동이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줄리아 씨, 왜 오늘 학교에 안 왔어요? 나: 어젯밤부터 배가 아파서 학교에 못 갔어요. 가: 그래요? 집에서 약을 먹고 꼭 쉬세요. 나: 네, 고마워요. 그런데 오늘 숙제가 뭐예요? 가: 오늘 숙제는 한국의 식사 예절에 대하여 조사해 오는 것이예요.</p> <p>가: 흐영 씨,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했어요? 나: 요즘 새로 보는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가: 정말요? 혹시 ‘별에서 온 그대’ 아니예요? 나: 맞아요. 김수현이 정말 멋있어요.</p> <p>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는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의 흡연율 증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p>
문장예문	<p>· 왕밍 씨가 외국어 교육에 대하여 졸업 논문을 쓰고 있어요. · 저는 그 문제에 대하여 할 말이 없어요. · 오늘 회의에서는 환경 오염의 심각성에 대하여 토론할 예정입니다. · 지난주에 발생한 화재 사건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 다음 주에 볼 토픽 시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 영수 씨, 어제 태풍에 대한 뉴스를 봤어요? · 지금부터 현우 씨가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설명을 해 줄 거예요. · 사람들은 평소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 사장님께서 회사의 복지에 대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 발표하고 계십니다.</p>

- + ‘에 대하여’는 앞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여 뒤의 상황이나 행동이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조사 ‘에’와 ‘대상이나 상대로 삼다’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 ‘대하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표현이다. ‘왕밍 씨가 외국어 교육에 대하여 졸업 논문을 쓰고 있어요’는 ‘외국어 교육’을 대상으로 ‘졸업 논문을 쓰고 있음’을 나타낸다.
- + ‘에 대하여’는 줄여서 ‘에 대해’로 사용하기도 하고 ‘에 대해서’로 사용하기도 한다.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구성으로 ‘에 대한’을 사용하기도 한다.
- + 주로 구어보다는 문어에 많이 사용되고, 구어에 사용될 경우에는 격식적인 상황이나 뉴스

보도와 같이 인과 관계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하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된다.

[도입]

(1)

교사: 여러분, 오늘 말하기 시간에는 한국에서 관심 있는 분야를 이야기할 거예요.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학생1: 저는 한국 영화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학생2: 저는 한국 가수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교사: 미도리 씨는 한국 영화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국 영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어요. 앤디 씨는 한국 가수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국 가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어요. '에 대하여'는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여'라는 뜻이에요.

(2)

교사: 왕밍 씨, 어제 뉴스를 봤어요?

학생: 네, 봤어요.

교사: 어제 뉴스에서 기억이 나는 내용이 있어요?

학생: 네, 어제 뉴스에 인천 아시안 게임이 나왔어요. 여러 선수들이 나와서 이야기했어요.

교사: 어제 뉴스에 인천 아시안 게임이 나왔어요. 여러 선수들이 나와서 인천 아시안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어제 뉴스에 인천 아시안 게임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에 대하여'는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여 뒤의 행위를 한다는 뜻이에요. '에 대한'은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한 무엇을 표현할 때 써요. 뒤에 꼭 꾸밈을 받는 명사가 와야 해요.

+ '에 대하여'를 도입할 때는 대상이나 상대로 삼는 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 도입(1)에서와 같이 학생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를 생각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에 대하여'의 의미를 유도할 수 있다. '한국 영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어요'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대상'이 '한국 영화'임을 추측할 수 있다. 도입(2)에서도 이야기한 주제를 떠올릴 수 있도록 유도하여, '인천 아시안 게임'을 대상으로 할 때 '에 대하여'를 사용하여 말할 수 있다.

+ '에 대하여'를 이해시키고 난 후 '에 대한' 역시 같은 의미로 사용되나 구성이 달리 사용됨을 설명하면 쉽게 표현을 확장할 수 있다.

[형태 정보]

① 명사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에 대하여'를 쓴다.

예) 교육 + 에 대하여 → 교육에 대하여

건강 + 에 대하여 → 건강에 대하여

환경 + 에 대하여 → 환경에 대하여
복지 + 에 대하여 → 복지에 대하여

문제 + 에 대하여 → 문제에 대하여
문화 + 에 대하여 → 문화에 대하여

①	받침 o	+ 에 대하여	교육에 대하여, 건강에 대하여, 환경에 대하여
	받침 x	+ 에 대하여	문제에 대하여, 복지에 대하여, 문화에 대하여

[문장 구성 정보]

① 큰 의미 차이 없이 '에 대해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예) 흐영 씨, 이 잡지에서 요즘 유행하는 패션에 **대하여/대해서** 찾아 주세요.
지금부터 한국인의 식습관에 **대하여/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앤디 씨가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하여/대해서** 잘 설명해 주었어요.

② '에 대한'은 '에 대한 N'의 구성으로 사용한다.

예)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다.
사람들이 새로운 스마트폰에 **대한** 흥미가 높다.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내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확장]

① '에 대하여, 에 대해, 에 대해서'는 큰 의미 차이 없이 '에 관하여', '에 관해', '에 관해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예) 백화점과 시장의 가격 차이에 **관하여/관해/관해서** 조사해 오세요.
노인 복지 환경에 **관하여/관해/관해서** 문의드립니다.
한국어 문법에 **관하여/관해/관해서** 토론할 예정입니다.

② '에 대한'은 큰 의미 차이 없이 '에 관한'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예)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관한**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이 새로운 스마트폰에 **대한/관한** 흥미가 높다.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한/관한** 토론회가 내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사 문법]

① '-에 대하여', '-에 관하여'

에 대하여/에 대한	에 관하여/에 관한
------------	------------

· 앞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여 뒤의 상황이나 행동이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예) 백화점과 시장의 가격 차이에 **대하여** 조사해 오세요. (o)

백화점과 시장의 가격 차이에 **관하여** 조사해 오세요. (o)

<p>· 행위의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다.</p> <p>예)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경향이 있다. (o)</p> <p>올해부터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o)</p> <p>부정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했다. (o)</p>	<p>· 행위의 방향성을 나타낼 수 없다.</p> <p>예)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관해서는 엄격하지만 자신에 관해서는 너그러운 경향이 있다. (x)</p> <p>올해부터 한부모 가정에 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x)</p> <p>부정 행위를 한 학생에 관하여 경고 조치를 했다. (x)</p>
--	--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对', '对于', '就', '向', 또는 대응 표현 없이 사용되기도 함.

- 예) 자식**에 대하여** 너무 간섭하지 마라. - 对孩子不要过多干涉.
원자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협의는 계속해야 합니다. - 对原子能问题, 继续进行全社会的协商.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 - 对于不同的意见, 也应该接纳.
그 사건**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对于那个事件我发表个人意见.
직원들의 복지 문제**에 대하여** 토론합시다. - 就职员福利问题展开讨论吧!
모조품 판매 상인**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 向贩卖假冒商品的商人采取了严重警告措施.
국제 정치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 讨论了国际政治问题.

② 용법과 오류

- '向'과도 대응되므로 '向'의 원래 의미인 '향하여'를 사용하는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 예) 모조품 판매 상인**에 향하여** 엄중 경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x)
사고를 낸 쪽**에 향해**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x)

- '에 대한'은 '에 대한 N'의 구성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대응하는 중국어에서는 이런 제약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 예) 원자력 문제**에 대한** 계속 협의를 해야 합니다. (x)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토론하였다. (x)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의논합시다. (x)

3.6.36. '에 따라'

에 따라[표현] 어떤 상황이나 사실, 기준에 의거함을 나타내는 표현

에 따라: (명사에 붙어) 어떤 상황이나 사실, 기준에 의거함을 나타낸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왜 경영학을 전공하기로 했어요?</p> <p>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결정했어요.</p> <p>가: 왕밍 씨의 생각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p> <p>나: 아직 제가 잘 몰라서 아버지 말씀을 듣기로 했어요.</p> <p>가: 도둑이 잡혔다면서요?</p> <p>나: 네, 곧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거래요.</p> <p>가: 어떻게 하면 방학을 잘 보낼 수 있을까요?</p> <p>나: 먼저 계획표를 만들고 그것에 따라 생활해 보세요.</p> <p>가: 알겠습니다. 오늘 당장 방학 계획부터 세워야겠어요.</p> <p>가: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걱정이예요.</p> <p>나: 네, 물가가 오름에 따라 서민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국가를 운영할 것을 다짐했다. · 서울은 지역에 따라 집값의 차이가 크다. · 직업은 각자의 적성에 따라 신중하게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 식당 운영의 성공과 실패는 음식의 맛과 서비스에 따라 결정된다. · 일기예보에 따라 여행 일정을 조정할 계획이에요. · 같은 재료로 만든 음식이라도 요리사의 솜씨에 따라 맛이 달라져요.

+ '에 따라'는 기델 만하거나 기준이 될 만한 명사와 결합하여 그것이 기준이 됨을 표현한다. 왕밍이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는 데 아버지의 뜻이 기준이 되었고, 도둑을 처벌하는 데 법이 기준이 됨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의 집값의 차이를 결정하는 기준이 '지역'이므로 '지역'에 '에 따라'를 붙이고, 직업을 고르는데 중요한 기준이 '적성'이므로 '적성'에 '에 따라'를 붙여서 사용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에 따라'는 명사와 결합하여 뒤에 오는 내용을 설명하는 기준이나 기델 수 있는 상황에 의거함을 표현하는 데 사용한다.

+ 서술어의 의미를 제한하거나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사용한다.

[도입]

<p>(1)</p> <p>교사: 여러분, 피자 좋아해요?</p> <p>학생: 네. 아주 좋아해요.</p> <p>교사: 피자 가격이 어때요?</p> <p>학생1: 비싸요.</p> <p>학생2: 싸요.</p> <p>교사: 어떤 것은 비싸요. 어떤 것은 싸요. 무엇 때문에 가격이 달라요?</p>
--

학생: 큰 것은 비싸요.

교사: 네. 큰 것은 비싸요. 작은 것은 싸요. 크기가 다른
가격이 달라요.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달라요. 종류가 다
르면 가격이 달라요.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달라요.

(2)

교사: 화장실에 사람이 많습니다. 줄을 서지 않고 앞으로 가
도 돼요?

학생: 아니요. 안 돼요.

교사: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학생: 줄을 서야 해요.

교사: 네, 줄을 서서 순서대로 들어가야 해요. **순서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와서 줄을 섰어요.
먼저 사용해요. 나중에 와서 줄을 섰어요. 나중에 사
용해요. **순서에 따라**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어요.

+ 도입(1)은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기준을 예를 들어 '에 따라'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예이다. 학생들이 자주 먹는 음식의 가격이 다른 이유를 말하도록 유도하여 그것이 기
준이 되면 '-에 따라'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음식의 종류를 다양하게 제시
하여 연습시키는 것도 좋다.

+ 도입(2)는 화장실을 사용할 때 줄을 서서 순서대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이 때
기준이 되는 '순서'에 '-에 따라'를 붙여서 사용함을 알려준다. 이 외에도 사회나 학교에서
지켜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말하게 하고 '법에 따라', '선생님 말씀에 따라', '규칙에 따라'
등으로 확장하여 연습시킬 수 있다.

[형태 정보]

① 명사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에 따라'를 쓴다.

예) 규칙 + 에 따라 → 규칙에 따라
사람 + 에 따라 → 사람에게 따라
법 + 에 따라 → 법에 따라

나이 + 에 따라 → 나이에 따라
지위 + 에 따라 → 지위에 따라
업무 + 에 따라 → 업무에 따라

①	받침 ○	+ -에 따라	규칙에 따라, 사람에게 따라, 법에 따라
	받침 ×	+ -에 따라	나이에 따라, 지위에 따라, 업무에 따라

[확장]

① '-에 따라서'의 구성으로 쓰기도 한다.

예) 줄을 선 **순서에 따라/따라서** 입장하세요.

성적에 따라/따라서 대학 합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기예보에 따라/따라서 여행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 ② 동사나 형용사가 앞에 올 때는 의문사와 함께 'V-(느)냐에 따라(서)', 'A-(으)냐에 따라(서)'의 형태로 사용한다.

예) 언제 **예약하느냐에 따라** 요금이 달라져요.
 유학을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준비할 시험이 결정됩니다.
 일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근무 시간이 달라집니다.

[유사 문법]

- ① '에 따라'와 '에 의하여'

에 따라	에 의하여
------	-------

· 앞의 내용이 뒤 절의 기준이 되거나 제한함을 나타낸다.

예) 그 사기꾼은 **법에 따라** 처벌될 것입니다.(o)
 그 사기꾼은 **법에 의하여** 처벌될 것입니다.(o)

<p>· 어떤 사람이나 행위가 뒤 절의 주체가 되거나 수단 또는 방법이 될 경우에 사용할 수 없다.</p> <p>예) 철수에 따라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x) 그는 투표에 따라 반장으로 뽑혔다. (x)</p>	<p>· 어떤 사람이나 행위가 뒤 절의 주체가 되거나 수단 또는 방법이 됨을 나타낸다.</p> <p>예) 철수에 의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o)</p>
<p>· '-에 따라'의 뒤 절은 피동의 형태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p> <p>예) 장군의 결정에 따라 전쟁의 방향이 결정되었다.</p> <p>시험 결과에 따라 유학 여부를 결정하겠다.</p>	<p>· '-에 의하여'의 뒤 절은 주로 피동의 형태가 사용된다.</p> <p>예) 장군의 결정에 의하여 전쟁의 방향이 결정되었다.</p> <p>시험 결과에 의하여 유학 여부가 결정된다.</p>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 ① 대응 표현: '依', '依照', '按', '按照', '按着', '随着'

예) 이번 사건은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 这次案件要依法严惩.
 공무원들은 국가 관련 **정책에 따라** 공무를 집행합니다. - 公务员依照国家有关政策执行公务.
 처음부터 **계획에 따라** 진행합니다. - 一开始就按计划执行吧.
 금년부터 국가 **규정에 따라** 한글날은 하루 쉰다. - 从今年开始按照国家规定, 韩文日放假一天.
 우리는 원래 정한 **일정에 따라** 경복궁에 놀러 갔습니다. - 我们按着原定计划游玩了景福宫.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자연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 - 随着经济的发展, 人们对自然环境的要求也越来越高.

② 용법과 오류

- '에 따라'에 대응하는 중국어의 '依', '依照' 등이 '에 의하여'에도 대응되므로 양자를 혼동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철수**에 따라**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x) 철수**에 의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o)
그는 투표**에 따라** 반장으로 뽑혔다. (x) 그는 투표**에 의하여** 반장으로 뽑혔다. (o)

3.6.37. '에 비하여'

에 비하여[표현] 비교의 대상 또는 기준을 나타내는 표현

에 비하여: (명사에 붙어) 앞의 명사가 비교의 대상 또는 기준이 되어 뒤 내용과 같은 평가가 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가: 미도리 씨 시험 잘 봤어요? 나: 아뇨, 잘 못 봤어요. 가: 무슨 과목이 어려웠어요? 나: 다른 과목에 비하여 쓰기가 어려웠어요.</p> <p>가: 흥영 씨, 나이에 비하여 아주 젊어 보이는데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어요? 나: 아뇨, 특별한 것은 없어요. 그냥 평소에 물을 많이 마셔요. 그리고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운동을 해요. 가: 그렇군요. 그게 바로 비결이네요.</p> <p>가: 마이클 씨, 한국의 여름 날씨가 어때요? 나: 더워요. 가: 마이클 씨 고향은 여름에 덥지 않아요? 나: 제 고향은 한국에 비하여 여름이 덥지 않아요.</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력에 비하여 성과가 적다. · 그 물건은 값에 비하여 품질이 좋다. · 그 사람은 아는 것에 비하여 표현을 잘 못해요. · 말하기 실력에 비하여 쓰기 실력이 부족했습니다. · 미도리 씨는 많이 먹는 것에 비하여 살이 찌지 않네요. · 그는 나이에 비하여 조숙한 편이에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햄버거에 비하여 샌드위치는 칼로리가 낮은 편이에요. ·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에 비하여 월급이 많은 편이에요. · 시골은 도시에 비하여 공기가 좋아요. · 우리 할아버지는 연세에 비하여 젊어 보이세요.
--	---

- + '에 비하여'는 명사에 붙어 그 명사가 기준이나 비교 대상이 되어 뒤 절의 내용이 어떠함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다른 과목에 비하여 쓰기가 어렵다'는 앞에 나온 다른 과목이 비교 대상이 되어 쓰기가 어려움을 나타내고 '나이에 비하여 어려 보인다'는 나이가 기준이 될 때 어려 보임을 표현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노력에 비하여/ 값에 비하여/ 다른 회사에 비하여' 등에서도 '노력/ 값/ 다른 회사'가 기준이 되어 뒤 절에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내용이 나온다.

[도입]

<p>(1)</p> <p>교사: (키가 각각 다른 세 사람의 사진이나 크기가 다른 사물을 보여주며) 흐영 씨와 미도리 씨 중에 누가 키가 더 커요?</p> <p>학생: 흐영 씨가 더 커요.</p> <p>교사: 그럼 흐영 씨와 왕명 씨 중에 누가 더 커요?</p> <p>학생: 왕명 씨요.</p> <p>교사: 흐영 씨는 미도리 씨에 비하여 키가 커요.</p> <p> 흐영 씨는 왕명 씨에 비하여 키가 작아요.</p> <p>(2)</p> <p>교사: 소피아 씨, 영어를 잘해요?</p> <p>학생: 네, 조금 해요.</p> <p>교사: 와! 그럼 소피아 씨는 한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요?</p> <p>학생: 아니에요. 영어는 한국어만큼 잘하지 못해요.</p> <p>교사: 소피아 씨는 영어를 잘 해요. 하지만 한국어를 더 잘해요. 소피아 씨는 영어에 비하여 한국어를 더 잘해요.</p>

- + 도입(1)은 세 학생을 비교하여 '에 비하여'의 앞에 오는 명사가 비교의 대상이 됨을 나타낸다. '미도리 씨'를 기준으로 하면 흐영 씨의 키가 크고 '왕명 씨'를 기준으로 하면 흐영 씨의 키가 작다고 표현하게 되는 것을 통해 '에 비하여'는 절대적인 사실에 대해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의 기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표현할 때 사용함을 보여준다.
- + 도입(2)은 한 대상의 세부적인 특성들을 비교하는 상황을 제시하여 '에 비하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예이다.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지만 두 언어를 비교할 때 '에 비하여' 앞에 오는 비교 대상보다 잘하거나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도 우리 반에서 나이에 비해서 어려보이는 친구 찾기, 먹는 것에 비해서 날씬한 친구 찾기 등을

통해 '에 비하여'의 의미를 인식하고 실제 사용에 적용시킬 수 있다.

[형태 정보]

① 명사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에 비하여'를 쓴다.

예) 노력 + 에 비하여 → 노력에 비하여	외모 + 에 비하여 → 외모에 비하여
시간 + 에 비하여 → 시간에 비하여	인기 + 에 비하여 → 인기에 비하여
한국 + 에 비하여 → 한국에 비하여	나이 + 에 비하여 → 시기에 비하여
가격 + 에 비하여 → 가격에 비하여	숨씨 + 에 비하여 → 숨씨에 비하여

①	받침 o	+ 에 비하여	노력에 비하여, 시간에 비하여, 한국에 비하여
	받침 x	+ 에 비하여	외모에 비하여, 인기에 비하여, 나이에 비하여

[문장 구성 정보]

① '에 비하여'는 비교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더', '덜', '훨씬', '훨씬 더' 와 같은 부사가 자주 함께 사용된다.

예) 이번 시험은 공부한 것에 비하여 성적이 더 잘나왔다.
우리 할머니는 연세에 비하여 훨씬 건강한 편이세요.
저녁은 점심에 비하여 덜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

② '에 비하여'의 뒤 절은 현재, 과거, 미래 시제가 모두 가능하다.

예) 올 여름은 작년 여름에 비하여 더 더워요.
지난 학기에는 이번 학기에 비하여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내년에는 올해에 비하여 책을 더 많이 읽을 거예요.

[확장]

① 큰 의미 차이 없이 '에 비하면', '에 비해서', '에 비해'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예) 그는 나이에 비하면/비해서/비해 어려 보인다.
제 고향에 비해서/비하면/비해 한국의 겨울이 더 추워요.
이 식당은 가격에 비해서/비하면/비해 별로 맛이 없네요.

[유사 문법]

① '에 비해서', '보다'

에 비해서	보다
· 비교 대상뿐만 아니라 비교 기준을 나타내기도 한다.	· 비교 대상일 경우만 쓰인다.

예) 왕명 씨는 얼굴 크기에 비해서 너무 큰 안경을 쓰고 있다. 미도리 씨는 먹는 것에 비해서 살이 찌지 않아요.	예) 왕명 씨의 얼굴 보다 안경이 더 크다. 미도리 씨는 먹는 것 보다 살이 찌지 않아요. (x)
--	---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比', '相比', '比起', '相对于……而言'

- 예) 시골은 **도시에 비하여** 공기가 좋아요. - 农村比城市空气好.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에 비하여** 월급이 많은 편이에요. - 我们公司跟其他公司相比, 工资还算高一些.
국토면적에 비하여 인구가 적다. - 比起国土面积人口少.
우리 할머니는 **연세에 비하여** 훨씬 건강한 편이세요. - 我奶奶相对于年龄而言, 更健康一些.

② 용법과 오류

- '에 비하여'를 쓰면 '보다'를 중복 사용할 필요가 없지만 '보다'가 중국어 '比'에도 대응하므로 함께 사용하는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 예) 제 고향에 비하여 보다 한국의 겨울이 더 추워요. (x)
그는 나이보다 비하여 어려 보인다. (x)
이 식당은 가격에 비해서 보다 별로 맛이 없네요. (x)

- '에 비하여'는 기준이나 비교 대상이 되는 명사의 뒤에 오지만 대응하는 중국어 '比'는 기준이나 비교 대상이 되는 명사의 앞에 고정되므로 중국인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

- 예) 샌드위치는 햄버거**에 비하여** 칼로리가 낮은 편이에요. (o) - 三明治比汉堡热量低. (o)
샌드위치에 비하여 햄버거는 칼로리가 낮은 편이에요. (x)
("샌드위치가 햄버거에 비하여 칼로리가 낮다"로 표현해야 하는 경우)
동생은 **왕명 씨에 비하여** 키가 작아요. (o) - 弟弟比王明个子矮. (o)
동생에 비하여 왕명 씨는 키가 작아요. (x)
("동생이 왕명 씨에 비하여 키가 작다"로 표현해야 하는 경우)

3.6.38. '에 의하면'

에 의하면[표현] 어떤 상황이나 사실, 기준에 근거함을 나타내는 표현

에 의하면: (명사에 붙어) 어떤 상황이나 사실, 기준을 근거로 정보의 출처를 밝히거나 인용

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아침 먹었어요? 나: 아니요. 요즘 다이어트를 해서 아침을 안 먹어요. 가: 어제 본 뉴스에 의하면 아침을 먹는 것이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해요. 나: 정말요? 그럼 내일부터는 아침을 꼭 먹어야겠네요.</p> <p>가: 어쩌다가 팔을 다치셨어요? 나: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졌어요. 가: 깁스를 오래 해야 해요? 나: 의사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2주 정도 깁스를 해야 한대요.</p> <p>가: 이번 주말 날씨가 어떨까요? 나: 일기예보에 의하면 주말 내내 비가 온대요. 가: 주말에 등산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겠네요.</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제가 아버지의 어릴 때 모습과 많이 닮았다고 해요. · 선배들 말에 의하면 그 시험이 아주 어렵대요. · 어제 토픽 시험을 본 친구의 소식에 의하면 읽기 시험이 쉬운 편이 었대요. · 일기예보에 의하면 올 여름은 무척 덥다고 해요. · 뉴스에 의하면 내년부터 집값이 오를 거라고 해요. ·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만이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 '에 의하면'은 기델 만하거나 기준이 될 만한 명사와 결합하여 그것을 근거로 함을 표현 할 때 사용한다. 이때 앞에 오는 명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뉴스나 이론, 실험결과 등'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가능하다. 뒤 절에는 인용하는 내용이 오고 문장의 끝은 주로 간접화법의 형태가 많이 사용된다. 아침을 먹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은 뉴스를 근거로 한 것이고, 2주 정도 깁스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의사 선생님의 진단에 기댄 것이다. 할머니 말씀, 일기예보, 선생님의 말씀, 뉴스, 연구 결과 등이 출처가 되어 그것을 인용하여 근거로 삼고 있다.

[도입]

<p>(1)</p> <p>교사: 미도리 씨, 고향의 날씨는 어때요? 미도리: 제 고향은 비가 많이 와요. 교사: 여러분, 미도리 씨의 고향 날씨는 어때요? 학생: 비가 많이 와요.</p>

교사: 네. 비가 많이 와요. 어떻게 알았어요?
 학생: 미도리 씨가 말했어요.
 교사: 네. 미도리 씨가 말했어요. 미도리 씨 고향에는 비가 많
 이 와요. **미도리 씨에 의하면** 미도리 씨 고향에 비가 많
 이 와요.

(2)

교사: 왕밍 씨, 어제 저녁에 뉴스를 봤어요?
 학생: 네, 봤어요.
 교사: 기억나는 기사가 있어요?
 학생: 일기예보에서 이번 주말부터 태풍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교사: 일기예보에서 말했어요. 이번 주말부터 태풍이 시작될 거
 예요. **일기예보에 의하면** 이번 주말부터 태풍이 시작될
 거라고 했어요.

+ '에 의하면'은 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에 대한 이유를 물어 봄으로써 '에 의하면'의 사용 상황을 유도해 낼 수 있다. 주의할 점
 은 어떤 사실을 알게 된 경로나 생각의 근거가 충분히 기댈 만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을 보여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은 그 곳이 고향인 사
 람이 경험한 사실이므로 충분히 기댈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태풍이 오는 사실 또
 한 일기예보를 통해 알았고 믿을 만한 사실이기 때문에 '일기예보에 의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형태 정보]

① 명사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에 의하면'을 쓴다.

예) 선생님 + 에 의하면 → 선생님께 의하면 전문가 + 에 의하면 → 전문가에 의하면
 신문 + 에 의하면 → 신문에 의하면 뉴스 + 에 의하면 → 뉴스에 의하면
 소문 + 에 의하면 → 소문에 의하면 기자 + 에 의하면 → 기자에 의하면

①	받침 o	+ 에 의하면	신문에 의하면, 소문에 의하면, 진술에 의하면
	받침 x	+ 에 의하면	목격자에 의하면, 일기예보에 의하면, 전문가에 의하면

[문장 구성 정보]

① 주로 간접 화법 형태와 함께 나타난다.

예)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이번 태풍이 부산을 지나간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금연을 해야 한대요.
 목격자**에 의하면** 범인이 운동장 쪽으로 도망갔대요.

+ '에 의하면'은 기댈 수 있는 근거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말하는 사
 람의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의지할 만한 사실이나 정보를 인용하여 '-대요'나 '-래요'와
 같은 간접화법과 결합된다.

[제약 정보]

① 뒤 절에는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없다.

예) 전문가**에 의하면** 아침을 꼭 먹어라. (x)
과 대표**에 의하면** 다음 주 주말에 엠티를 가자. (x)

+ 명령이나 청유의 근거가 말하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당위를 나타내는 표현 '아침을 꼭 먹어야 한다'는 올 수 있지만 직접적인 명령이나 청유의 형태는 올 수 없다.

[확장]

① 큰 의미 차이 없이 '에 따르면'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예)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따르면** 성실한 학생이 꿈을 이룹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따르면** 꾸준히 운동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따르면** 올 여름 5만 명이 해외로 휴가를 떠났다고 합니다.

[유사 문법]

① '에 의하면'과 '에 의하여'

-에 의하면	-에 의하여
· 기댓 만하거나 기준이 될 만한 것을 근거로 함을 나타낸다.	· 뒤에 오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는 방법이나 수단, 상황이나 기준임을 나타낸다.
예) 일기예보 에 의하면 올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릴 거라고 합니다. 선행 연구 에 의하면 이 실험결과가 일반화될 수 없다고 한다.	예) 아버지의 결정 에 의하여 우리 가족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 의사선생님의 판단 에 의하여 수술이 확정되었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按', '按照', '据'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계획**에 의하면** 연말에 두 회사가 합병될 겁니다. - 按计划到年底两公司会合并的.
타견**에 의하면** 금년에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 按照其他的看法, 今年能走出经济危机.
주치 의사선생님**에 의하면** 어떤 암은 완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 据主治医生说, 有些癌症能根治.
소문**에 의하면** 그는 큰 부자라고 해요. - 据说他是大富翁.
전설**에 의하면** 용궁에 용왕이 산다고 합니다. - 据传, 龙宫里住着龙王.
기상 캐스터**에 의하면** 내일 하루 눈이 더 올 것이라고 해요.
- 天气播报员说明天还将有更多降雪.
조사**에 의하면** 각 사회 계층마다 음식 취향이 크게 다릅니다.
- 研究表明各社会阶层的饮食口味大不相同.

② 용법과 오류

- 뒤 절에는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없지만 대응하는 중국어는 이런 제약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 예) 규장 제도에 **의하면**, 반드시 엄벌하십시오. (x) - 按照规章制度必须严惩! (o)
 전문가에 **의하면** 아침을 꼭 먹어라. (x) - 据专家说你一定要吃早饭吧! (o)
 계획에 **의하면** 연말에 가서 차량을 인계받으시다. (x) - 咱们按计划年底接车吧! (o)
 반 친구에 **의하면** 다음 주에 함께 기말고사를 보자. (x) - 据朋友说, 咱们下周一起考试. (o)

3.6.39. ‘-으라니2’

-으라니2[-라니5][표현] 다른 사람에게서 명령 또는 요청 받은 것을 1) 상대방에게 묻거나 확인함, 2) 판단의 근거로 삼음을 나타내는 표현.

-으라니2 1): (동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듣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명령 받거나 요청 받은 것을 듣는 사람에게 다시 확인하거나 물어봄을 나타낸다. 다른 사람에게 들었을 것이라고 여기는 명령이나 요청의 내용에 대해 확인하거나 물어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 예문	<p>가: 내일은 늦잠을 자도 되겠다. 나: 왜? 무슨 일이 있어? 가: 너 못 들었어? 내일 오전에 학교에 행사가 있어서 오후에 오래. 나: 정말? 그럼 오후에 몇 시까지 학교에 오라니? 가: 너 요즘 살이 좀 빠진 것 같아. 나: 어, 운동으로 5킬로그램이나 뺐어. 가: 근데 왜 살을 뺐 거야? 혹시 남자 친구가 살을 빼라니? 나: 그게 아니라 남자 친구랑 헤어져서 살을 빼려고 결심했어.</p>
문장 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선생님이 이 약을 다 먹으라니? · 엄마가 너도 일찍 자라니? · 사회자가 자리에 언제 앉으라니? · 선생님께서 너도 왕밍이 청소하는 걸 도우라니? · 내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니? · 언제부터 방학이라니? · 오늘은 집에 몇 시에 가라니? · 이 옷이 맘에 안 든대? 바꿔 오라니? · 언제까지 등록금을 내라니?

	· 숙제 끝나면 텔레비전을 보라니?
--	----------------------------

- + '-으라니2'의 첫 번째 용법은 '동사, 이다, 아니다' 뒤에 붙어 듣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들은 명령이나 요청의 내용을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다시 묻거나 확인하는 표현이다. '-으라고 하니'가 줄어든 말이다. '의사 선생님이 이 약을 다 먹으라니?'는 의사 선생님이 이 약을 먹으라고 말했는지를 상대방에게 확인하기 위해 묻고 있는 것이다. '엄마가 너도 일찍 자라니?'는 엄마가 일찍 자라고 말했는지를 역시 상대방, 청자에게 확인하기 위해 물어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으라니2'는 말하는 사람이 직접 들은 내용이 아니라 청자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청자에게 확인하거나 알기 위해 물어볼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문장의 끝에 사용된다.

[도입]

(1)

(학생들에게 대화문을 주거나 칠판에 적어 놓고 역할을 나누어 읽게 한다.)

학생1: 줄리아, 요즘 예뻐졌어. 옷도 예쁘게 입고, 화장도 하고.... 혹시 남자 친구가 생겼어?

학생2: 응, 남자 친구가 생겼어.

학생1: 축하해. 그런데 혹시 남자 친구가 치마만 입으라고 해? 요즘 치마만 입는 것 같아.

학생2: 응, 남자 친구가 치마 입은 게 예쁘다고 치마만 입으라고 해.

학생1: 정말 치마만 **입으라니?** 다른 건 안 되고 치마만?

교사: 여러분, '남자 친구가 치마를 입으라고 해?'를 '**치마를 입으라니?**'로 바꿔 말할 수 있어요. '-으라니'는 다른 사람이 한 말을 확인하려고 물어볼 때 써요.

(2)

(학생들에게 대화문을 주거나 칠판에 적어 놓고 역할을 나누어 읽게 한다.)

학생1: 왕밍, 어제 동아리 모임 못 갔는데 별 일 없었어?

학생2: 응. 이번 주말에 동아리 엠티 갈 계획이래. 회장이 미리 숙소 예약하래.

학생1: 엠티? 방을 몇 개나 예약하라고 하니?

교사: 여러분, '방을 몇 개나 예약하라고 하니?'라는 말은 '**방을 몇 개나 예약하라니?**'로 바꿔 말할 수 있어요.

- + '-으라니1'은 반말(해라체)이므로 교사가 암시적으로 상황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상황을 제시하여 그 뜻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으라니'를 쓴다.

예) 먹- + -으라니 → 먹으라니 읽- + -으라니 → 읽으라니
 잡- + -으라니 → 잡으라니 받- + -으라니 → 받으라니
 놓- + -으라니 → 놓으라니 찾- + -으라니 → 찾으라니

②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라니'를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가- + -라니 → 가라니 주- + -라니 → 주라니
 자- + -라니 → 크라니 오- + -라니 → 오라니
 살- + -라니 → 살라니 만들- + -라니 → 만들라니

①	받침 o	+ -으라니	먹으라니, 읽으라니, 잡으라니 받으라니, 놓으라니, 찾으라니
②	받침 x	+ -라니	가라니, 주라니, 자라니, 오라니
	ㄹ 받침	+ -라니	살라니, 만들라니

③ 불규칙

듣- 예) 선생님께서 매일 라디오를 **들으라니**?
 눅- 예) 피곤하다고 하니까 좀 **누우라니**?
 붓- 예) 여기에 물을 **부으라니**?

[문장 구성 정보]

① 부정문은 '-지 말라니'로 쓴다.

예) 의사 선생님이 저녁을 **먹지 말라니**?
 이 책상을 여기에 **놓지 말라니**?
 여자 친구가 술을 **마시지 말라니**?
 추우니까 밖에 **나가지 말라니**?

[제약 정보]

①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이 옷을 입고 **따뜻하라니**? (x)
 찌개가 **맛있으라니**? (x)
 드라마가 **슬프라니**? (x)
 기분이 **우울하라니**? (x)

+ '-으라니2'는 '-으라고 하니'가 줄어든 말로 명령한 내용을 전달할 때 사용한다. 따라서 형용사와는 결합할 수 없다.

② 과거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 예) 이 일을 **마쳤으라니?** (x)
어제까지 청소를 **했으라니?** (x)
5시까지 **기다리겠으라니?** (x)
열심히 **공부하겠으라니?** (x)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让.....吗?' 또는 대응 표현 없이 사용되기도 함.

- 예) 선생님께서 너도 시험을 **보라니?** - 老师也让你考试吗?
언제까지 등록금을 **내라니?** - 交学费的日期截止到什么时候?
감독이 너를 언제 **출전하라니?** - 教练让你什么时候上场?
의사 선생님이 뜨거운 물을 많이 **마시라니?** - 大夫让你多喝热水吗?
경찰이 우리 스스로 도둑을 **잡으라니?** - 警察让我们自己抓小偷吗?
미국은 언제부터 방학이**라니?** - 美国什么时候开始放假?
부모님께서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오라시니?** - 父母让我们这次中秋回故乡吗?

② 용법과 오류

- 부정문은 '-지 말라니'로 쓰는데 대응하는 중국어 '让.....吗?'의 부정 '不', '没', '别'은 '让.....吗?'의 앞에 오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 예) 엄마가 햄버거를 안 먹으라니? (x)
과장님이 컴퓨터를 안 끄라니? (x)
아내가 술을 안 마시라니? (x)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니까 바깥에 안 나가라니? (x)

- 과거를 나타내는 '-었-'과 결합하지 않지만 과거완료 '了'는 이런 제약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 예) 사회자가 자리에 언제 **앉았으라니?** (x)
선생님께서 너도 왕밍이 청소하는 걸 **도왔으라니?** (x)
오늘은 집에 몇 시에 **갔으라니?** (x)

-**으라니2 2)**: (동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다른 사람에게 명령 또는 요청 받은 것을 판단의 근거로 삼음을 나타낸다.

[예문]

담화 예문	가: 수지 씨,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나: 어제 TV를 늦게까지 보느라 잠을 못 잤어요. 가: 몇 시까지 봤는데요? 나: 새벽 3시까지 봤어요. 가: 다음 주부터 시험인데 그러다가는 시험도 망치겠어요. 오늘부터
-------	---

	<p>TV는 절대로 보지 말고 책만 보세요.</p> <p>나: TV는 보지 말고 책만 보라니 듣기만 해도 끔찍해요.</p> <p>가: 줄리아 뭐 하고 있었어요?</p> <p>나: 뭘 좀 쓰고 있었어요.</p> <p>가: 뭔데요? 숨기지 말고 좀 보여 줘요.</p> <p>나: 사실 소설을 쓰려고 연습 중이에요.</p> <p>가: 줄리아 씨가 소설을 쓰다니. 한번 보고 싶은데요? 좀 보여 주세요.</p> <p>나: 아직 연습 중인데 보여 달라니 보여 주는데 홍보지는 마세요.</p>
문장 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물을 받으라니 받았는데 괜히 받은 것 같다. · 이 책을 다 외우라니 말도 안 돼. · 시험을 보려면 이 책을 다 읽으라니 힘들어도 다 읽는 게 좋겠어요. · 잠이 안 와도 침대에 누우라니 누워 있어 봐야겠다. · 그런 사람이 선생님이라니 믿을 수가 없다. · 오늘이 쉬는 날이 아니라니 너무 실망이야. · 이곳에서 기다리라니 기다리고 있을게. · 할아버지께서 밥을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니 먹을 수밖에 없었다. · 설명도 안 해주고 무조건 따라오라니 따라가긴 하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거야? · 엄마가 일찍 자라니 일찍 자려고요.

+ '-으라니2'의 두 번째 용법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명령이나 요청의 내용을 판단의 근거로 삼아 뒤의 내용을 이어서 말할 때 사용한다. '선물을 받으라니 받았는데~'는 선물을 주는 사람이 받으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받았다는 뜻으로 받은 것의 근거가 받으라고 한 것에 있음을 뜻한다. '이 책을 다 외우라니 말도 안 돼'는 어떤 사람이 책을 다 외우라고 말한 것에 대해 말도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처럼 '-으라니2'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기반으로 하여 판단을 내릴 때 사용하여 연결어미와 같은 기능을 한다.

[도입]

<p>(1)</p> <p>교사: 왕밍 씨, 이 커피 좀 마셔요.</p> <p>학생: 왜요?</p> <p>교사: 일단 커피를 마셔요.</p> <p>학생: 마셨어요. 그런데 왜요?</p> <p>교사: 왕밍 씨가 피곤해 보여서요. 왕밍 씨는 커피를 마시라고 하니 마셨는데 왜 마셨는지 몰라요. 마시라니 마셨는데 왜 마셨는지 몰라요. '-으라니'는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해서'라는 뜻이에요.</p> <p>(2)</p>

교사: 줄리아 씨, 일어나세요. 흐영 씨, 창문을 닫으세요. 줄리아 씨가 **일어나라니** 일어났어요. 흐영 씨가 창문을 **닫으라니** 닫았어요.

+ '-으라니2'의 '2'는 '-으라고 해서'의 의미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 '-으라니'가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학습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한 후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준다. 그리고 나서 '-으라니'를 활용해 이러한 상황을 문장으로 만들어 보여주는 방식으로 '-으라니2'의 두 번째 의미를 파악하게 할 수 있겠다.

[형태 정보]

앞의 '-으라니2 1)'을 참고한다.

[문장 구성 정보]

① 부정문은 '-지 말라니'로 쓴다.

예) 수업 시간에 **지각하지 말라니** 앞으로는 절대로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야식을 **먹지 말라니** 먹지 말아야죠.
술을 **마시지 말라니** 마시지 않겠습니다.

② '-으라니'와 결합하는 동사가 뒤에 반복하여 나타나는 구성이 있다.

예) 엄마가 이 공책을 **쓰라니** 썼을 뿐이지, 네 것인 줄 몰랐어.
선생님께서 이 책을 **읽으라니** 읽었지요.
열심히 **공부하라니**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합격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 많은 걸 **먹으라니** 먹었는데 다 먹지는 못하겠어요.

[제약 정보]

①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길이 **미끄러우라니** 미끄러워야지요. (x)
찌개가 **맛있으라니** 맛있겠지요. (x)
날씨가 **더우라니** 더워야겠습니다. (x)

② 과거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이 일을 **마쳤으라니** 마쳤습니다. (x)
이 일을 **마치라니** 마쳤습니다. (o)
주말까지 숙제를 다 **하겠으라니** 하겠다. (x)
주말까지 숙제를 다 **하라니** 하겠다. (o)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让……'과 대응하거나 혹은 대응 표현 없이 사용함.

예) 자기를 **믿으라니** 믿어야지. - 让我相信他, 我就相信呗.

선물을 **받으라니** 받았지요. - 让我收下礼物.

계속 **기다리라니** 기다리고 있을 수 밖에 없군요. - 让我继续等着, 只好等了呗.

지금 당장 **떠나라니** 어처구니가 없군. - 让我现在马上离开, 真是不可思议.

그 애가 나의 **친구라니** 믿을 수가 없다. - 难以相信他是我的朋友.

② 용법과 오류

- 부정문은 '-지 말라니'로 쓰는데 대응하는 중국어 '让……吗?'의 부정 '不', '没', '别'은 '让……'의 앞에 오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경기장에 안 오라니 집에서 쉬는 게 좋겠어요. (x)

침대에 안 누우라니 의자에 앉아 있어야겠다. (x)

- 과거를 나타내는 '-었-'과 결합하지 않지만 과거완료 '了'는 이런 제약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밥을 다 먹었으라니 먹을 수밖에 없었다. (x)

엄마가 일찍 일어났으라니 일찍 자야 한다. (x)

3.6.40. '으로 인하여'

으로 인하여[로 인하여/으로 인해/로 인해]]{으로 인해서[로 인해서]]{으로 인한[로 인한]]}[표현] 앞에 나오는 상황이나 행동이 원인이나 이유가 됨을 나타내는 표현.

으로 인하여: (명사에 붙어) 어떤 행위나 상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나 이유가 되어 뒤의 결과가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주로 격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가: 흐영 씨, 어제 뉴스를 봤어요? 나: 아니요, 못 봤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가: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요.</p> <p>가: 왕명 씨, 피곤해 보여요. 무슨 일이 있어요? 나: 요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곤해요. 가: 왜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나: 다음 주가 시험이에요. 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아서 잠이 잘 오지 않아요.</p> <p>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날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 제주도에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p>
------	---

	됩니다.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제부터 내린 폭설로 인하여 출근길에 교통이 너무 혼잡했어요. . 조기 교육으로 인하여 아이들의 외국어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 줄리아 씨가 교통사고로 인해 학교에 지각했어요. . 어머니께서 저로 인해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 방송으로 인해 그 식당이 정말 유명해졌어요. . 취업난으로 인해 졸업을 늦추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요. . 산불로 인한 이재민의 발생과 재산 피해가 예상됩니다. . 직장인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 최근 흡연으로 인한 사망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 '으로 인하여'는 앞의 행위나 상태가 원인이나 이유로 작용하여 뒤의 결과를 발생시킴을 나타낸다. '으로 인하여'는 어떤 일의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와 '어떤 사실로 말미암다'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 '인하다'의 활용형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표현이다. '줄리아 씨가 교통사고로 인해 학교에 지각했어요'에서 '교통사고'가 '학교에 지각을 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 '으로 인하여'는 줄여서 '으로 인해'로 사용하기도 하고 '으로 인해서'로 사용하기도 한다.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구성으로 '으로 인한'을 사용하기도 한다.
- + 주로 구어보다는 문어에 많이 사용되고, 구어에 사용될 경우에는 격식적인 상황이나 뉴스 보도와 같이 인과 관계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하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된다.

[도입]

(1)
교사: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친구들이 모두 왔어요?
학생: 아니요. 왕명 씨가 안 왔어요.
교사: 왕명 씨가 왜 안 왔어요?
학생: 감기 걸렸어요.
교사: 왕명 씨가 감기가 걸려 학교에 못 왔어요. '왕명 씨가 감기로 인하여 학교에 못 왔어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으로 인하여'는 주로 글 쓸 때 많이 써요.
(2)
교사: 여러분, 요즘 날씨가 어때요?
학생: 추워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교사: 맞아요. 날씨가 추워졌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학생: 아니요. 거리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교사: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그래서 거리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해 거리에 사람

들이 별로 없어요.

+ '으로 인하여'를 도입할 때는 어떤 상황의 결과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물어보는 질문을 통해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도입(1)에서와 같이 교실에서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여 의미를 유도할 수 있다. 도입(2)에서도 '갑자기 추워진 날씨'가 이유가 되어, '거리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와 같은 결과가 나타남을 '으로 인해'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형태 정보]

①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으로 인하여'를 쓴다.

예) 지진 + 으로 인하여 → 지진으로 인하여 방송 + 으로 인하여 → 방송으로 인하여
 사건 + 으로 인하여 → 사건으로 인하여 태풍 + 으로 인하여 → 태풍으로 인하여
 오염 + 으로 인하여 → 오염으로 인하여 교육 + 으로 인하여 → 교육으로 인하여

②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로 인하여'를 쓴다.

예) 사고 + 로 인하여 → 사고로 인하여 감기 + 로 인하여 → 감기로 인하여
 오해 + 로 인하여 → 오해로 인하여 날씨 + 로 인하여 → 날씨로 인하여
 몸살 + 로 인하여 → 몸살로 인하여 산불 + 로 인하여 → 산불로 인하여

①	받침 o	+ 으로 인하여	지진으로 인하여, 방송으로 인하여, 사건으로 인하여, 태풍으로 인하여, 오염으로 인하여, 교육으로 인하여
②	받침 x	+ 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감기로 인하여, 오해로 인하여, 날씨로 인하여
	ㄹ 받침	+ 로 인하여	몸살로 인하여, 산불로 인하여

[문장 구성 정보]

① 큰 의미 차이 없이 '으로 인해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예)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 음주 운전**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② '으로 인한'은 '으로 인한 N'의 구성으로 사용한다.

예)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다.

③ 공식적인 말이나 글에 주로 사용한다.

예)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2050년에는 세계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요. (?)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2050년에는 세계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o)

올해는 가뭄으로 인하여 농작물이 많은 피해를 입었어. (?)
올해는 가뭄으로 인하여 농작물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o)

[확장]

① 어떤 상황이나 행위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를 뜻하는 '으로'로 줄여 쓸 수 있다.

예)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민수 씨가 요즘 살이 많이 찼어요.

= 잘못된 식습관으로 민수 씨가 요즘 살이 많이 찼어요.

국제 결혼으로 인해 다문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 국제 결혼으로 다문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 '인하다'는 '생기다, 발생하다'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므로, '으로 인한'은 '으로 생긴, 으로 발생한'의 구성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예) 환경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증가하고 있다.

= 환경 오염으로 생긴 생태계 파괴가 증가하고 있다.

= 환경 오염으로 발생한 생태계 파괴가 증가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문화재의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 화재로 생긴 문화재의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 화재로 발생한 문화재의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② '으로 해서'와 바꿔 쓸 수 있다.

예) 선생님께서 몸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 선생님께서 몸살로 해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저는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하여 두통이 심해졌어요.

= 저는 무리한 다이어트로 해서 두통이 심해졌어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因为', '由于', '因', '以', '被'

예) 오진으로 인하여 병 치료 시기를 지체했어요.

- 因为误诊, 把病耽搁了.

경영 전략의 실패로 인하여, 회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 因为经营决策失误, 公司遇到了危机.

기술 문제로 인하여, 제때에 일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 由于技术原因, 没能按时开工.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인하여 저의 연설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 由于时间的关系, 我的讲演到此结束.

사정으로 인하여 결석합니다. - 因故缺席.

승리로 인하여 머리가 혼미해져서는 안 된다. - 不能被胜利冲昏头脑.

② 용법과 오류

- '때문에'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이 같으므로 '으로 인하여'를 회피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예) 시간이 부족한 관계 때문에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 ('으로 인하여'로 표현

해야 할 경우)

개인 사정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 ('으로 인하여'로 표현해야 할 경우)

국제결혼 때문에 다문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 ('으로 인하여'로 표현해야 할 경우)

선생님께서 몸살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 ('으로 인하여'로 표현해야 할 경우)

3.6.41. '-으면 안 되다'

-으면 안 되다[표현] 1) 금지나 제한을 서술하거나 2) 허락이나 요청을 질문함을 나타내는 표현.

-으면 안 되다-1): (동사,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을 금지함을 서술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 예문	<p>가: 나가서 놀아도 돼요? 나: 숙제는 다 했니? 가: 아니요. 조금 남았어요. 나: 숙제도 하지 않고 나가서 놀면 안 돼.</p> <p>가: 영미 씨, 두 시 이후에 사무실로 갈게요. 나: 공항에 가야 해서 그 시간에는 사무실에 없을 거예요. 가: 그럼 휴대전화로 전화할게요. 나: 비행기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되니까 연락이 어려울 것 같아요.</p> <p>가: 수영장에 갈 때 무엇이 필요해요? 나: 수영복과 수영 모자를 가지고 오세요. 가: 수영 모자는 없는데 수영 모자도 꼭 필요해요? 나: 네, 수영 모자가 없으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p> <p>가: 이 영화는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15세 미만이면 안 됩니다. 나: 그럼 다른 영화를 봅시다.</p> <p>가: 배가 아프고 자꾸 설사를 해요. 나: 날씨가 덥다고 차가운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p> <p>가: 이 가방은 어떠세요? 요즘 인기 있는 디자인이에요.</p>
-------	--

	나: 예쁘긴 한데..... 여행갈 때 사용할 거라서 너무 작으면 안 돼요.
문장 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요리는 너무 많이 끓이면 안 돼요. · 라면을 끓일 때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엄마 손을 놓으면 안 된다. · 출장을 다녀와서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수업시간에 친구하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 술을 마신 후에 운전하면 안 되니까 차를 두고 가세요. · 이번 패션쇼의 모델은 키가 너무 크면 안 돼요. · 밥을 먹지 않고 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입맛이 없어도 밥을 먹었어요.

- + '-으면 안 되다'는 어떤 행동이나 상황이 금지되어 허락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숙제를 하지 않고 나가서 노는 것, 비행기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임을 표현할 때 '놀면 안 돼요, 사용하면 안 돼요, 드시면 안 돼요'의 형태로 쓸 수 있다. 또한 '15세 미만이면 안 돼요', '키가 너무 크면 안 돼요' 등은 15세 미만인 상태, 키가 너무 큰 상태가 허락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 + '-으면 안 되다'는 의무의 뜻을 가진 '-아야 하다'와 관계가 있는데 '식사를 하지 않고 약을 먹을 수 없다'는 금지의 표현은 '식사를 하고 약을 먹어야 한다'는 의무의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출장을 다녀와서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출장을 다녀와서 보고해야 한다'로 쓸 수 있다.

[도입]

(1)
교사: 극장에서 영화를 봅니다. 그런데 전화가 와요. 어떻게 해요?
학생: 휴대전화를 꺼요.
교사: 네, 영화를 볼 때 휴대전화를 꺼요. 영화를 볼 때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마세요.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돼요.
(2)
교사: ['주차금지' 표지판을 보여준다] 주차를 할 수 있어요?
학생: 할 수 없어요.
교사: 네, 주차할 수 없어요. 주차하면 안 돼요.

- + 도입(1)은 어떤 장소나 상황에서 특정 행위를 금지할 때 '-으면 안 되다'가 사용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도 도서관에서의 예절, 교실에서 지켜야 할 예절 등으로 들어 '-으면 안 되다'가 사용되는 상황을 제시할 수 있다.
- + 도입(2)는 주차금지 표지판을 이용해서 '-으면 안 되다'가 금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도 '출입금지', '사진 촬영 금지' 등 다양한 금지 표지판을 이용할 수 있다.

[형태 정보]

① 동사와 형용사의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으면 안 되다'를 쓴다.

예) 찾- + -으면 안 되다 → 찾으려면 안 되다
 잡- + -으면 안 되다 → 잡으려면 안 되다
 먹- + -으면 안 되다 → 먹으려면 안 되다
 작- + -으면 안 되다 → 작으려면 안 되다
 짧- + -으면 안 되다 → 짧으려면 안 되다
 많- + -으면 안 되다 → 많으려면 안 되다

② 동사와 형용사의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면 안 되다'를 쓴다.

예) 자- + -면 안 되다 → 자면 안 되다
 가- + -면 안 되다 → 가면 안 되다
 보- + -면 안 되다 → 보면 안 되다
 크- + -면 안 되다 → 크면 안 되다
 예쁘- + -면 안 되다 → 예쁘면 안 되다
 놀- + -면 안 되다 → 놀면 안 되다
 팔- + -면 안 되다 → 팔면 안 되다
 길 + -면 안 되다 → 길면 안 되다

①	받침 ㅇ	+ -으면 안 되다	찾으면 안 되다, 잡으면 안 되다, 먹으면 안 되다, 작으면 안 되다
②	받침 ×	+ -면 안 되다	가면 안 되다, 자면 안 되다, 보면 안 되다, 크면 안 되다
	ㄹ 받침	+ -면 안 되다	놀면 안 되다, 팔면 안 되다, 길면 안 되다

③ 불규칙

듣- 예) 선생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돼요.**
 눕- 예) 어른에게 누워서 **인사하면 안 돼요.**
 짓- 예) 급하다고 건물을 대충 **지으면 안 됩니다.**

④ '이다, 아니다'는 '-면 안 되다'를 쓴다. 단,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명사+-면 안 되다'라고 쓴다.

예) 학생이- + -면 안 되다 → 학생이면 안 되다
 선생님이- + -면 안 되다 → 선생님이면 안 되다
 선물이- + -면 안 되다 → 선물이면 안 되다
 가수이- + -면 안 되다 → 가수면 안 되다
 자동차이- + -면 안 되다 → 자동차면 안 되다

+ 'N+-면 안 되다'는 격식적인 문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문장 구성 정보]

① '-으면 안 되다'는 '-으면 되지 않는다'의 형태로 쓰이지 않는다.

- 예) 거실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되지 않는다**.(X)
 식사를 할 때 어른보다 먼저 수저를 **들면 되지 않는다**.(X)
 한국어를 배울 때 **영어를 쓰면 되지 않는다**.(X)

+ '-으면 안 되다'가 하나의 단위로서 지위를 갖기 때문에 '-으면 되지 않는다'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다.

+ '지 않으면 안 되다'는 '-어야 하다'와 같은 뜻으로 쓴다.

- 예) 지금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만나야 **합니다**.
 이 약을 **드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약을 꼭 **드셔야 합니다**.

[제약 정보]

①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 예) 오늘 비가 **오겠으면 안 돼요**.(X)
 밤에 위험한 곳으로 **다니겠으면 안 돼요**.(X)

[확장]

① 연결어미 '-는데'와 결합하여 '으면 안 되는데' 또는 '-었으면 안 되는데'의 형태로 사용되면 금지의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바람, 우려' 또는 '희망'을 나타낸다.

- 예) 영화표가 **매진되면 안 되는데**
 내일 비가 **오면 안 되는데**
 그가 벌써 **도착했으면 안 되는데**

+ '영화표가 매진되면 안 되는데'는 영화표가 매진되는 데 대한 말하는 사람의 우려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

[유사 문법]

① '-으면 안 되다', '-어서는 안 되다'

-으면 안 되다	-어서는 안 되다
· 금지나 제한을 나타내는 표현	
· '-어서는 안 되다'보다 금지의 뜻이 약해서 가벼운 금지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예) 도둑질한 것을 용서하면 안 돼요 .	· 금지의 뜻을 더 강조하는 느낌이 있다. 의미를 강력하게 전달하거나 설득할 때 또는 경고할 때 쓴다. 예) 도둑질한 것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

· 비격식적인 구어에서 많이 사용된다. 예) 길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돼요.	· 격식적인 문어에서 많이 사용된다. 예)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	---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不能', '不成', '不可'

- 예) 식사를 하지 않고 약을 **먹으면 안 됩니다.** - 不能空腹吃药.
운전하면서 **졸면 안 돼요.** - 开车打盹可不成.
나이트클럽은 미성년자**면 안 되는데.** - 未成年人不可进入夜总会.
이 영화는 **안 보면 안 된다.** - 这部电影不能不看.
오늘의 회의는 매우 중요하므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 今天的会议很重要, 不能不去.

② 용법과 오류

- '-으면 되지 않는다'의 형태로 쓰이지 않는데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형식은 양자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 예) 거실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되지 않는다. (x) - 进客不能查词典. (o)
라면을 끓일 때 물이 너무 많으면 되지 않는다. (x) - 煮方便面时, 水不可太多. (o)
한국어를 배울 때 한국어를 안 쓰면 되지 않는다. (x) - 学韩国语不能不用韩国语. (o)
오늘의 회의는 매우 중요하므로 가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x)
- 今天的会议很重要, 不能不去. (o)

-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데 대응하는 중국어에는 이런 제약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 예) 운전하면서 **졸겠으면 안 돼요.** (x)
이 영화는 **안 보겠으면 안 된다.** (x)
오늘의 회의는 매우 중요하므로 **가지 않겠으면 안 된다.** (x)

- 으면 안 되다-2): (동사,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허락을 구할 때나 요청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 예문	가: 유진 씨, 수업시간에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 친구에게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안 돼요? 가: 목소리가 너무 크면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가 돼요. 나: 네, 알겠습니다.
	가: 내일 소풍 갈 때 김밥 대신 빵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나: 네, 빵을 가지고 가도 괜찮아요.

	<p>가: 그럼 돈을 가지고 와서 사 먹으면 안 돼요? 나: 사먹는 것은 안 돼요.</p> <p>가: 밥을 다 먹었으니까 아이스크림 한 개만 먹으면 안 돼요? 나: 그래, 딱 하나만 먹도록 해.</p> <p>가: 내일 모두 흰 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오세요. 나: 저는 반팔 흰색 티셔츠가 없어요. 긴팔이면 안 돼요?</p>
문장 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보면 안 돼요? · 제가 좋아하는 반찬만 먹으면 안 돼요? · 숙제를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 안 돼요? · 오늘 국이 싱겁게 되었는데 좀 싱겁게 드시면 안 돼요? · 이 놀이기구를 타려면 키가 작으면 안 돼요? · 입맛이 없는데 밥을 먹지 않고 약을 먹으면 안 됩니까? · 제 결혼식에 오실 때 한복을 입고 오시면 안 될까요? · 전달 사항이 있는데 아래층으로 내려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 '-으면 안 되다'가 질문하는 형태로 쓰여 듣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에 대한 허락을 구하거나 요청할 때 쓰인다. 수업 시간에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빵을 가져오는 것, 사먹는 것 등에 대한 허락을 구할 때 '-으면 안 되다'를 사용할 수 있다. 어떤 상황이나 상태에 대한 허락을 구할 때도 사용되는데 '티셔츠가 긴팔이면 안 돼요?', '키가 작으면 안 돼요?'에서는 긴팔을 입어도 되는지, 키가 작아도 되는지에 대해 허락을 묻는 예이다.

[도입]

<p>(1)</p> <p>교사: 여러분 더워요? 학생: 네, 더워요. 교사: 선생님은 감기에 걸려서 추워요. 에어컨을 끄면 좋겠어요. 여러분, 에어컨을 끄면 안 돼요? 학생: 네, 괜찮아요. 끄세요.</p> <p>(2)</p> <p>교사: 수업시간에 화장실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학생: 없어요. 교사: 그런데 수업시간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선생님께 어떻게 말해요? 학생: 화장실에 갈 수 있어요? 교사: 네,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더 좋아요. "선생님, 화장실에 가면 안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교실에서 노래하고 싶어요. 어떻게 말해요?</p>

학생: 노래할 수 있어요? 노래하면 안 돼요?

교사: 네, 좋아요. '선생님, 노래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 + 도입(1)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허락을 구하는 상황을 제시하여 '으면 안 되다'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선생님이 먼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해당 표현이 사용되는 예를 보여준다. 이 밖에도 반 친구들에게 '창문을 열면 안 돼요?', '문을 닫으면 안 돼요?' 등 상대방의 동의나 협조가 필요한 일을 요청하는 상황을 통해 '-으면 안 되다'의 쓰임을 알려줄 수 있다.
- + 도입(2)는 도입(1)과 반대로 학생들이 선생님께 허락을 구하는 상황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수업시간에 화장실에 갈 때는 선생님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것은 학생들이 모두 알고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허락을 구할 때 '-으면 안 되다'가 사용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 밖에도 음식을 먹는 것, 큰 소리로 이야기 하는 것, 잠을 자는 것 등 수업 시간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소재로 '-으면 안 되다'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할 수 있다.

[형태 정보]

앞의 '-으면 안 되다1)'을 참고한다.

[제약 정보]

- ①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짧은 치마를 입**겠**으면 안 돼요? (x)

옷이 더 크**겠**으면 안 돼요? (x)

[확장]

- ① '-으면 안 되다'의 대답이 부정이면 조건과 금지의 뜻을 가진 '-으면 안 되다'를 쓰고, 긍정이면 허락이나 허용을 나타내는 '-어도 되다'를 쓴다.

예) 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나: 네, **들어가면 안 돼요**/아니요, **들어가도 돼요**.

가: 칠판 글씨를 지우면 안 돼요?

나: 네, **지우면 안 돼요**/ 아니요, **지워도 돼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 ① 대응 표현: '不可以吗?', '不行吗?', '可以……吗?'

예) 제가 군대에 가려고 하는데 키가 작으면 안 돼요?

- 我想参军, 可是个子矮就不可以吗?

선생님께 물어보면 안 돼요? - 问老师不行吗?

짜장면을 먹으면 안 됩니까? - 吃炸酱面不行吗?

지금 곧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 现在马上过来可以吗?

- ② 용법과 오류

-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데 대응하는 중국어에는 이런 제약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시험을 치면서 사전을 보겠으면 안 돼요? (x)

저의 졸업식 때 양복을 입고 오시겠으면 안 될까요? (x)

- 허락을 구하기 위해 '-아도 돼요?'라고 물어보면 '-아도 돼요' 또는 '-으면 안 돼요'로 대답하는데 중국어는 '能'과 그것의 부정 형태인 '不能'으로 대응되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가: 시험 볼 때 사전을 찾아도 돼요?

나: 네, 사전을 찾으시면 돼요. (?) ('찾아도 돼요'로 표현해야 할 경우)

- 可以, 能查词典. (o)

아니요, 사전을 찾아도 안 돼요. (?) ('찾으시면 안 돼요'로 표현해야 할 경우)

- 不可以, 不能查词典. (o)

3.6.42. '-으면 좋겠다'

-으면 좋겠다[표현] 말하는 사람의 희망이나 현실과 다른 상황의 바람, 또는 가정을 나타내는 표현.

- 으면 좋겠다:** (동사,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상황이 되기를 바랄 때, 또는 현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소망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의 가정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 예문	<p>가: 유진 씨, 생일 선물로 받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나: 예쁜 우산을 받으면 좋겠어요.</p> <p>가: 요스케 씨에게 그 옷은 좀 짧은 것 같아요. 나: 키가 5센티미터만 작으면 좋겠어요.</p> <p>가: 지영 씨, 오늘 뉴스 봤어요? 나: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아주 크다고 해요. 가: 올 여름에는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나: 이제 비가 그만 내리면 좋겠어요.</p> <p>가: 앤디 씨, 올해 꼭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나: 토픽시험에 꼭 합격하면 좋겠어요. 가: 앤디 씨는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꼭 합격할 거예요. 나: 고마워요.</p>
-------	--

	<p>가: 레이첼 씨, 곧 개학이지요?</p> <p>나: 네, 새 담임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면 좋겠어요.</p>
문장 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좋겠어요. · 아이에게 친구들과 싸우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 바지가 조금 짧으면 좋겠어요. · 내년엔 대학에 가면 좋겠어요. · 키가 좀 더 크면 좋겠어요. · 한국이 월드컵 경기에서 16강에 진출하면 좋겠어요. · 생일선물이 우산이면 좋겠어요. · 기말고사가 다음 주면 좋겠어요. · 동생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좋겠는데 아직 철이 없어요. · 할아버지의 병이 빨리 나으시면 좋겠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회복이 느려요.

+ '-으면 좋겠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소망이나 현재와는 다른 상황을 바라거나 가정할 때 쓰인다. '예쁜 우산을 받으면 좋겠어요.', '토픽시험에 꼭 합격하면 좋겠어요.', '내년에 대학에 가면 좋겠어요.'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희망을 나타내거나, '이제 비가 그만 내리면 좋겠어요, 키가 더 크면 좋겠다'와 같이 현재 사실과 반대되거나 이루어질 수 없는 일에 대한 바람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기말고사가 다음 주면 좋겠어요'처럼 기말고사가 다음 주가 아닌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한다.

[도입]

<p>(1)</p> <p>교사: 남자 친구 있어요?</p> <p>학생: 아니요. 없어요.</p> <p>교사: 어떤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어요?</p> <p>학생: 착한 남자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p> <p>교사: 착한 남자 친구를 만나면 좋겠어요.</p>
<p>(2)</p> <p>교사: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 그림을 보여준다. 꿈에서 슈퍼맨이 되어 하늘을 날고 있다.) 누구예요?</p> <p>학생: 슈퍼맨이에요.</p> <p>교사: 슈퍼맨이 되고 싶어요?</p> <p>학생: 네!</p> <p>교사: 슈퍼맨이 될 수 있어요?</p> <p>학생: 아니요.</p> <p>교사: 슈퍼맨이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슈퍼맨이 되고 싶어요. 슈퍼맨이 되면 좋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되</p>

고 싶어요. 희망을 말할 때, '-면 좋겠어요.'라고 말해요.

- + 도입(1)은 학생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바람을 질문함으로써 '-으면 좋겠다'의 사용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어떤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어요?'와 같이 학생들의 관심사를 소재로 제시하면 해당 문법의 지도가 좀 더 흥미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외에도 바라는 직업이나 여행하고 싶은 곳, 주말에 하고 싶은 일, 방학 때 하고 싶은 일 등을 소재로 할 수 있다.
- + 도입(2)는 현실과 반대되거나 불가능한 일을 가정하는 상황을 제시하여 도입하는 방법이다. '슈퍼맨이 되는 것'은 현실에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를 가정할 때 '-으면 좋겠다'를 사용함을 보여준다. 과거나 미래로 가는 것과 같이 자신의 현재와 반대되는 소망 말하기를 통해 '-으면 좋겠다'의 쓰임을 연습해 볼 수 있다.

[형태 정보]

- ① 동사와 형용사의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으면 좋겠다'를 쓴다.

예) 찾- + -으면 좋겠다 → 찾으면 좋겠다
 잡- + -으면 좋겠다 → 잡으면 좋겠다
 먹- + -으면 좋겠다 → 먹으면 좋겠다
 작- + -으면 좋겠다 → 작으면 좋겠다
 짧- + -으면 좋겠다 → 짧으면 좋겠다
 많- + -으면 좋겠다 → 많으면 좋겠다

- ② 동사와 형용사의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면 좋겠다'를 쓴다.

예) 자- + -면 좋겠다 → 자면 좋겠다
 가- + -면 좋겠다 → 가면 좋겠다
 보- + -면 좋겠다 → 보면 좋겠다
 크- + -면 좋겠다 → 크면 좋겠다
 예쁘- + -면 좋겠다 → 예쁘면 좋겠다
 울- + -면 좋겠다 → 울면 좋겠다
 만들- + -면 좋겠다 → 만들면 좋겠다
 길 + -면 좋겠다 → 길면 좋겠다

①	받침 ○	+ -으면 좋겠다	찾으면 좋겠다, 잡으면 좋겠다, 먹으면 좋겠다, 작으면 좋겠다
②	받침 ×	+ -면 좋겠다	가면 좋겠다, 자면 좋겠다, 보면 좋겠다,
	ㄹ 받침	+ -면 좋겠다	울면 좋겠다, 만들면 좋겠다, 길면 좋겠다

- ③ '이다', '아니다'는 '-면'을 쓴다. 단,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명사+면 좋겠다'라고 쓴다.

- 예) 학생이- + -면 좋겠다 → 학생이면 좋겠다
선생님이- + -면 좋겠다 → 선생님이면 좋겠다
선물이- + -면 좋겠다 → 선물이면 좋겠다
가수이- + -면 좋겠다 → 가수면 좋겠다
자동차이- + -면 좋겠다 → 자동차면 좋겠다

+ 'N+ -면 좋겠다'는 격식적인 문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④ 불규칙

- 견- 예) 조용한 산길을 **걸으면 좋겠다**.
돕- 예) 재벌들이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우면 좋겠다**.
낫- 예) 할아버지께서 빨리 병이 **나으시면 좋겠다**.

[문장 구성 정보]

① 부정문은 '안 -으면 좋겠다', '-지 않으면 좋겠다'로 쓴다.

- 예) 이 옷을 입으면 **안 좋겠어요**. (?)
이 옷을 **안 입으면 좋겠어요**. (o)
이 옷을 **입으면 좋지 않겠어요**. (?)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좋겠어요**. (o)

+ '-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단위로 쓰이므로 '-으면'과 '좋겠다' 사이에 '안'이 들어가지 않는다.

[제약 정보]

① 청유형, 명령형과 결합하지 않는다.

- 예) 옷이 더 **크면 좋겠자**. (x)
옷이 더 **크면 좋겠어라**. (x)

+ '좋다'가 형용사이므로 청유형이나 명령형과 결합하지 않는다.

[확장]

① 희망의 의미 외에 요청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 예) 조용히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내일 좀 일찍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 말하는 사람의 바람이라기보다는 '조용히 해 주세요', '일찍 와 주세요'라는 요청을 완곡하게 표현할 때 사용한다.

[유사 문법]

① '-으면 좋겠다', '-었으면 좋겠다'

-으면 좋겠다	-었으면 좋겠다
· 말하는 사람의 희망이나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나 가정을 나타낸다.	

<p>·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나 상황에 대한 바람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한다.</p> <p>예) 키가 좀 더 크면 좋겠다. 그럼 모델이 될 수 있을 텐데 (아직 키가 더 클 가능성이 있고 더 크기를 바란다. 앞으로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다.)</p>	<p>· 이미 일어난 현재의 사실이나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주로 사용한다.</p> <p>예)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그럼 모델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나이가 되었다. 앞으로 모델이 될 가능성이 없다.)</p>
<p>· 화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현재 혹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사용하므로 더 직접적이고 강한 표현이다.</p> <p>예) 철수 씨가 가면 좋겠어요.</p>	<p>· 화자가 청자에게 비교적 완곡하게 요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p> <p>예) 철수 씨가 갔으면 좋겠어요.</p>

+ '-으면 좋겠다'는 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한 희망인데 반해 '-었으면 좋겠다'는 이미 일어난 일과 반대되는 내용,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많이 쓴다. '-었으면 좋겠다'는 현실이 달라지기를 희망하거나 현실이 그렇지 않음을 애석해함을 나타낸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希望', '就好了'

예)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좋겠어요**. - 希望考试能取得好成绩.
내년에 대학에 가**면 좋겠어요**. - 希望明年能考上大学.
생일선물이 우산**이면 좋겠어요**. - 希望生日礼物是个雨伞.
바지가 조금 짧**으면 좋겠어요**. - 裤子稍微短一点就好了.
키가 좀 더 크**면 좋겠어요**. - 个子稍微再大一点就好了.

② 용법과 오류

- 동사와 형용사의 어간 끝음절에 받침의 유무에 따라 '-으면 좋겠다', '-면 좋겠다'를 쓰는데 중국어에는 형태 변화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여자 친구가 예**쁘으면** 좋겠다. (x)
팔이 길**으면** 좋겠다. (x)
마중 나오는 차가 한국 자동차**으면** 좋겠다. (x)
할아버지께서 빨리 병이 낫**으면** 좋겠다. (x)

- 부정문은 '안 -으면 좋겠다'로 쓰는데 중국어는 부정 표현 '不'가 '希望' 혹은 '好'의 앞에 오거나, '不是'가 명사 앞에 오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네가 이 옷을 입**으면** 안 좋겠어. (x) - 你穿这件衣服就不好了. (o)
네가 이 옷을 입**으면** 좋지 않아. (?) - 你穿这件衣服就不好了. (o)
생일선물이 안 우산**이면** 좋겠어요. (x) - 希望生日礼物不是雨伞. (o)

3.6.43. ‘-은 결과’

-은 결과[-ㄴ 결과][표현] 어떤 일을 한 후에 생긴 **결말**을 나타내는 표현.

-은 결과: (동사에 붙어)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생긴 일을 나타낸다.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결말임을 명시적으로 나타낼 때 사용한다. 주로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문어적 표현이다.

[예문]

담화예문	<p>(기자과 인터뷰)</p> <p>가: 감독님, 우승을 축하드립니다.</p> <p>나: 감사합니다.</p> <p>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나: 모든 선수들이 함께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p> <p>가: 네, 선수들이 모두 열심히 노력한 결과 우승을 하게 되었군요.</p> <p>우승을 정말 축하드립니다.</p> <p>(기자과 인터뷰)</p> <p>가: 이번에 시행된 토픽 시험에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습니까?</p> <p>나: 전문적인 어휘가 많이 나와서 좀 어려웠습니다.</p> <p>가: 그렇군요. 줄리아 씨는 어떻게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었나요?</p> <p>나: 매일 신문을 읽고 기사에 나오는 모르는 어휘들을 열심히 암기한 결과 이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 라면을 먹은 결과 건강이 나빠졌어요. · 3년 동안 한국어를 배운 결과 한국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 한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결과 농사가 잘 되지 않았다. · 매일 한국어 뉴스를 들은 결과 듣기가 많이 좋아졌다. · 열심히 다이어트를 한 결과 살이 빠졌다. · 오랫동안 치료를 받은 결과 병이 다 나았다. ·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결과 시험에 합격했다. · 추위가 계속된 결과 감기 환자가 많아졌다. · 어머니께서 정성껏 음식을 만드신 결과 맛있는 저녁이 완성되었다. · 새벽에 출발하는 첫 기차를 탄 결과 아침 일찍 부산에 도착할 수 있었다.

+ ‘-은 결과’는 원인을 나타내는 앞 절과 결과를 나타내는 뒤 절로 구성된다. 따라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은 결과 병이 다 나았다, 열심히 운동한 결과 살이 빠졌다, 열심히 공부한 결과 시험에 합격했다, 추위가 계속된 결과 감기 환자가 많아졌다’와 같은 문장에서 오랫동안

동안 치료를 받은 것과 열심히 운동을 한 것, 열심히 공부한 것과 추위가 계속된 것이 모두 원인에 해당하며, 병이 다 나은 것과 살이 빠진 것, 시험에 합격한 것과 감기 환자가 많아진 것은 결과에 해당한다.

- + '-은 결과'라는 표현 자체에 어떤 사건이 원인과 결과임을 명시적으로 지시하고 있기에 이 표현은 주로 인터뷰나 뉴스 보도와 같이 인과 관계를 확실하게 드러내야 하는 공식적인 상황이나 문어에서 주로 사용된다.

[도입]

(1)

교사: 왕밍 씨, 어떻게 시험에 합격했어요?

학생: 열심히 공부했어요.

교사: 왕밍 씨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에 합격했어요. 열심히 **공부한 결과** 시험에 합격했어요.

(2)

교사: 앤디 씨, 어떻게 키가 커졌어요?

학생: 열심히 운동했어요.

교사: 앤디 씨는 열심히 운동을 해서 키가 커졌어요. 열심히 **운동한 결과** 키가 커졌어요.

- + '-은 결과'를 도입할 때에는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 그 원인을 물어봄으로써 의미를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이유를 나타내는 다른 표현인 '-어서, -니까, -기 때문에'와의 차이를 도입 부분부터 제시하면 혼란스러우므로 주의한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다양한 예시를 제시하여 의미의 이해를 돕는 게 좋다.

[형태 정보]

- ①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은 결과'를 쓴다.

예) 먹- + -은 결과 → 먹은 결과	씻- + -은 결과 → 씻은 결과
찾- + -은 결과 → 찾은 결과	남- + -은 결과 → 남은 결과
입- + -은 결과 → 입은 결과	읽- + -은 결과 → 읽은 결과

- ②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ㄴ 결과'를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가- + -ㄴ 결과 → 간 결과	만나- + -ㄴ 결과 → 만난 결과
떠나- + -ㄴ 결과 → 떠난 결과	일하- + -ㄴ 결과 → 일한 결과
팔- + -ㄴ 결과 → 판 결과	만들- + -ㄴ 결과 → 만든 결과

①	받침 o	+ -은 결과	먹은 결과, 씻은 결과, 찾은 결과, 남은 결과, 입은 결과, 읽은 결과
②	받침 x	+ -ㄴ 결과	간 결과, 만난 결과, 떠난 결과, 일한 결과

	ㄹ 받침	+ -ㄴ 결과 (어간 'ㄹ' 탈락)	판 결과, 만든 결과
--	------	------------------------	-------------

③ 불규칙

- 듣- 예) 선생님 말씀을 잘 **들은 결과** 대학에 합격했어요.
 돕- 예) 모든 사람이 **도운 결과** 아이가 구조될 수 있었다.
 낫- 예) 도서관을 **개방한 결과** 주민들이 책을 많이 읽게 됐습니다.

[문장 구성 정보]

①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

예) 어제 (내가) 오랜 시간 영수와 **이야기한 결과**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가 내린 결과 가뭄이 해소됐다.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되었다.

- + 첫 예문의 앞 절과 뒤 절의 주어는 말하는 사람이면서 동일하다. 이때, 주어는 구어에서는 주로 생략된다. 두 번째 예문은 앞 절은 '비', 뒤 절은 '가뭄', 즉 말하는 사람이 주어가 아닌 예이다. 세 번째 예문은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다른 예이다. 이처럼 '-은 결과'로 연결되는 두 문장의 주어는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

② 부정은 '-지 않은 결과', '안 -은 결과'로 쓴다. '안 -은 결과'는 주로 구어에서 쓴다.

예) 예방 주사를 **맞지 않은 결과** 전염병에 걸리고 말았다.

예방 주사를 **안 맞은 결과** 전염병에 걸리고 말았다.

컴퓨터를 **고치지 않은 결과** 보고서를 쓸 수 없었다.

컴퓨터를 **안 고친 결과** 보고서를 쓸 수 없었다.

[제약 정보]

①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날씨가 **추운 결과** 사람들이 감기에 걸렸어요. (x)

건강이 **좋은 결과** 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x)

- + 형용사는 '-어지다'가 붙으면 자동사가 되어 '-은 결과'와 결합이 가능하다.

예) 날씨가 **추워진 결과** 사람들이 감기에 걸렸어요. (o)

건강이 **좋아진 결과** 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o)

② 과거 '-었-'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택시를 **탔은 결과** 지각을 하지 않았어요. (x)

그 드라마를 **봤은 결과**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x)

택시를 **탄 결과** 지각을 하지 않았어요. (o)

그 드라마를 **본 결과** 한국을 좋아하게 됐어요. (o)

- + '-은 결과'의 '-은'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었-'이 결합할

필요가 없다. 앞 절의 내용은 과거에 해당하는 것만 올 수 있다.

[확장]

① '-은 결과로', '-은 결과이다'의 구성으로 자주 사용된다.

예) 한국어를 **배운 결과로** 한국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다.

환경이 **오염된 결과로** 기온 변화가 생겼다.

대학원에 합격한 것은 열심히 **공부한 결과이다**.

저의 꿈을 이룬 것은 꿈을 **버리지 않은 결과입니다**.

+ '-은 결과이다'를 사용하면 결과가 앞 절에 온다.

예)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진 결과** 한국어의 인기도 높아졌다.

= 한국어의 인기가 높아진 것은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진 결과이다**.

[유사 문법]

① '-은 결과', '-기 때문에', '-어서', '-으니까'

-은 결과	-기 때문에	-어서	-으니까
-------	--------	-----	------

· '어떤 일의 원인'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 과거 '-었-'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비가 왔은 결과 여행이 취소됐다. (x)	· 과거 '-었-'과 결합한다. 예) 비가 왔기 때문에 여행을 취소했다. (o)	· 과거 '-었-'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비가 왔어서 여행을 취소했다. (x)	· 과거 '-었-'과 결합한다. 예) 비가 왔으니까 여행을 취소했다. (o)
·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날씨가 흐린 결과 여행이 취소됐다. (x)	· 형용사와 결합할 수 있다. 예) 날씨가 흐리기 때문에 여행이 취소됐다. (o)	· 형용사와 결합할 수 있다. 예) 날씨가 흐려서 여행이 취소됐다. (o)	· 형용사와 결합할 수 있다. 예) 날씨가 흐리니까 여행이 취소됐다. (o)
· 뒤 절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이 올 수 없다. 예) 비가 온 결과 여행을 <u>취소하자</u> . (x)	· 뒤 절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이 올 수 없다. 예) 비가 오기 때문에 여행을 <u>취소하자</u> . (x)	· 뒤 절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이 올 수 없다. 예) 비가 와서 여행을 <u>취소하자</u> . (x)	· 뒤 절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이 올 수 있다. 예) 비가 오니까 여행을 <u>취소하자</u> . (o)

+ '-어서', '-기 때문에', '-니까'에 비해 결과를 더 분명하게 표현하는 효과가 있다. '-은 결과'라는 표현에서 이미 '결과'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제시됨으로써 뒤 절에 초점을 두는 표현이 되기 때문이다.

- 예) 저는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니까**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를 **좋아한 결과**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 '-은 결과'는 구어보다 문어에서 더 자연스럽게 사용한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结果'

- 예) 오랫동안 치료를 **받은 결과** 병이 다 나았어요. - 经过长期治疗, (结果)病都好了.
병이 다 나은 것은 오랫동안 치료를 **받은 결과**입니다.
- 之所以病都好了, 是因为长期治疗的结果.
오랫동안 치료를 **받은 결과로** 병이 다 나았어요.
- 长期治疗的结果, 病都好了.

② 용법과 오류

- 동사 어간 끝음절 받침에 따라 '-은 결과'나 '-ㄴ 결과'를 쓰는데 중국어에는 이런 형태 변화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 예) 남자 친구를 만나는 결과 다투고 말았다. (x)
책임자가 떠나는 결과 일은 엉망이 되었다. (x)
힘을 모아 음식을 만들은 결과 맛있게 먹었습니다. (x)
모든 사람이 돕은 결과 아이가 구조될 수 있었다. (x)

-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지만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은 이런 제약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 예) 날씨가 추운 결과 사람들이 감기에 걸렸어요. (x) - 天气冷, 结果人们感冒了. (o)
건강이 좋은 결과 여행을 다니게 되었다. (x) - 身体好, 结果能去旅行了. (o)
날씨가 흐린 결과 여행이 취소됐다. (x) - 天气阴, 结果旅行被取消了. (o)

- 과거 '-었-'과 결합하지 않지만 중국어는 과거를 나타내는 '了'가 사용되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 예) 택시를 탔은 결과 지각을 하지 않았어요. (x) - 坐了出租车, 结果没迟到. (o)
그 드라마를 봤은 결과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x)
- 看了那部电视剧, 结果喜欢上了韩国. (o)
비가 왔은 결과 여행이 취소됐다. (x) - 下雨了, 结果旅行被取消了. (o)

3.6.44. '-은 다음에'

-은 다음에[-ㄴ 다음에][표현] 어떤 일이나 과정이 끝난 후를 나타내는 표현.

-은 다음에: (동사에 붙어) 어떤 행위를 먼저 한 후에 뒤의 행위를 함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시간 순서에 따라 행위를 나열하거나, 특정 시점이 지난 후에 일어날 행위에 대해 강조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왕밍 씨, 어제 저녁에 뭐 했어요? 나: 수지 씨랑 저녁에 산책을 했어요. 가: 몇 시쯤예요? 저도 저녁에 산책을 했거든요. 나: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어요. 드라마를 본 다음에 산책하러 나갔으니까 8시쯤이었을 거예요.</p> <p>가: 왕밍 씨, 주말에 어디 갈까요? 나: 동대문에 가서 옷을 사고 싶어요. 가: 그럼 옷을 산 다음에 뭐 할까요? 나: 영화를 보는 건 어때요? 나: 그것보다 식사 먼저 하는 건 어때요? 가: 그래요. 먼저 식사한 다음에 영화를 봅시다.</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의 전화를 받은 다음에 바로 집에서 나왔어요. · 신문을 다 읽은 다음에 외출을 할 거예요. · 강의를 들은 다음에 도서관에 갑시다. · 번개가 친 다음에 천둥이 칩니다. · 눈이 내린 다음에 날씨가 추워질 거예요. · 숙제를 끝낸 다음에 게임을 할 거예요. · 화분에 물을 준 다음에 설거지도 하세요. · 미도리는 선생님이 된 다음에 결혼을 했습니다. · 한국어를 배운 다음에 한국에 여행을 갈 거예요. · 모든 학생이 강당에 들어간 다음에 문을 닫겠습니다.

+ '-은 다음에'는 시간의 선후에 따른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따라서 여러 가지의 행위를 시간적인 순서대로 나열할 때 사용하거나, 특정 행위가 끝난 이후에 일어날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제 저녁에 뭐 했어요?'와 같은 질문에 선후관계에 있는 두 행위, 즉, 드라마를 본 행위와 산책을 한 행위가 있을 때에 '드라마를 본 다음에 산책을 했어요'와 같이 대답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옷을 산 다음에 뭐 할까요?'처럼 특정 행위 이후에 일어날 행위에 대해 말하기 위해 '-은 다음에'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뒤 절의 행위가 내용의 중심이 된다.

+ '눈이 내린 다음에 날씨가 추워질 거예요.'와 같은 문장에서는 앞 절과 뒤 절의 내용이 단

순히 시간상의 선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앞 절의 행위에 의한 결과적 행위로 뒤 절이 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도입]

(1)

교사: 왕밍 씨,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해요?

학생: 세수해요.

교사: 세수를 한 후에 뭐 했어요?

학생: 밥을 먹어요.

교사: 왕밍 씨는 세수를 한 후에 밥을 먹어요. 세수를 **한 다음에** 밥을 먹어요. 줄리아 씨는요?

학생: 저는 커피를 마신 후에 세수를 해요.

교사: 줄리아 씨는 커피를 **마신 다음에** 세수를 해요. 저는 밥을 **먹은 다음에** 세수를 해요. '-은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고 난 후에 다른 일을 할 때 사용해요.

(2)

교사: 줄리아 씨, 수업이 끝나면 뭐 할 거예요?

학생: 미도리 씨랑 백화점에 가서 쇼핑할 거예요.

교사: 수업이 끝나요. 그 후에 미도리 씨랑 쇼핑할 거예요. 수업이 **끝난 다음에** 미도리 씨랑 쇼핑할 거예요. 그리고 **쇼핑한 다음에** 뭐 할 거예요?

학생: 집에 와서 숙제를 할 거예요.

교사: 줄리아 씨는 미도리 씨와 백화점에 가서 **쇼핑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숙제를 할 거예요.

+ '-은 다음에'의 도입은 어떤 행위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알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는 게 좋다. 먼저 한 일을 문장을 만들어 '-은 다음에'와 결합하여 제시해 주고, 다음에는 앞으로 할 일을 연결하여 순차적으로 제시한다. 도입(2)에서는 목표 문법을 도입한 후 학습자들에게 '줄리아 씨는 수업이 끝난 다음에 쇼핑을 할 거예요? 쇼핑한 다음에 집에 가서 숙제를 할 거예요?'라는 확인 질문을 하여, '-은 다음에'가 시간의 선후를 나타내므로 행위의 순서 배열에 따라 앞 절과 뒤 절이 달라짐을 알 수 있도록 유도하면 좋다.

+ 도입을 통해 시간에 따른 행위를 순차적으로 판서하고 설명을 하면 시간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목표 문법에 대한 인식을 도울 수 있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은 다음에'를 쓴다.

예) 씻- + -은 다음에 → 씻은 다음에

찾- + -은 다음에 → 찾은 다음에

먹- + -은 다음에 → 먹은 다음에

받- + -은 다음에 → 받은 다음에

읽- + -은 다음에 → 읽은 다음에

잡- + -은 다음에 → 잡은 다음에

- ②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이 오면 '-ㄴ 다음에'를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타- + -ㄴ 다음에 → 탄 다음에 배우- + -ㄴ 다음에 → 배운 다음에
 보- + -ㄴ 다음에 → 본 다음에 쓰- + -ㄴ 다음에 → 쓴 다음에
 놀- + -ㄴ 다음에 → 논 다음에 만들- + -ㄴ 다음에 → 만든 다음에

①	받침 0	+ -은 다음에	씻은 다음에, 받은 다음에, 찾은 다음에, 읽은 다음에, 먹은 다음에, 잡은 다음에
②	받침 ×	+ -ㄴ 다음에	탄 다음에, 배운 다음에, 본 다음에, 쓴 다음에
	ㄹ 받침	+ -ㄴ 다음에 (어간 'ㄹ' 탈락)	논 다음에, 만든 다음에

③ 불규칙

문- 예) 왕밍 씨의 생각을 **물은 다음에** 시간을 정할까요?
 좁- 예) 쓰레기를 **주운 다음에** 쓰레기통에 버려 주세요.
 낮- 예) 감기가 **나은 다음에** 공부를 하고 싶어요.

[제약 정보]

- ①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날씨가 **더운 다음에** 비가 올 거예요. (x)
 건강이 **좋은 다음에** 학교에 다닐 거예요. (x)
 + 형용사는 '-어지다'가 붙으면 '-은 다음에'와 결합이 가능하다.

예) 날씨가 **더워진 다음에** 눈이 올 거예요. (o)
 건강이 **좋아진 다음에** 학교에 다닐 거예요. (o)
 + 어떤 행위의 시간적 앞섬을 뜻하므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와는 결합하지 않는다.

- ② 과거 '-었-'이나 미래·추측의 '-겠-'이 결합하지 않는다.

책을 **읽었은 다음에** 토론을 했어요. (x)
 식사를 **했은 다음에** 운동을 했어요. (x)
 예) 책을 **읽은 다음에** 토론을 했어요. (o)
 식사를 **한 다음에** 운동을 했어요. (o)
 책을 **읽겠는 다음에** 토론을 할 거예요. (x)
 식사를 **하겠는 다음에** 운동을 할 거예요. (x)
 책을 **읽은 다음에** 토론을 할 거예요. (o)
 식사를 **한 다음에** 토론을 할 거예요. (o)
 + '-은'은 과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과거를 나타내는 '-었-'이 이중으로 결합할 필요가 없다.

[확장]

- ① 조사 '에'를 생략하여 '-은 다음/-ㄴ 다음'의 구성으로 쓰기도 한다. 주로 구어에서 사용한

다.

- 예) 저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어요.
수지는 숙제를 **마친 다음** 놀 거예요.
저는 한국에 **온 다음**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됐어요.
철수 씨는 미도리 씨를 **만난 다음** 사랑에 빠졌어요.
비가 **온 다음** 날씨가 추워졌어요.

- ② '-은 다음에' 뒤에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가 붙어 '-은 다음에야' '-은 다음에는' '-은 다음에도' 등의 구성으로 쓰기도 한다.

- 예) 약을 **먹은 다음에야** 두통이 사라졌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반드시 취직을 하고 싶어요.
밥을 **먹은 다음에도** 계속 배가 고파서 빵을 먹었어요.
숙제를 다 **마친 다음에야**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커피를 **마신 다음에도** 계속 졸리면 어찌지요?

- ③ '-은 뒤에', '-은 후에', '-고 나서'와 바꿔 쓸 수 있다.

- 예) 철수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한 후(에)** 밥을 먹어요.
철수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한 뒤(에)** 밥을 먹어요.
철수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나서** 밥을 먹어요.
철수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한 다음(에)** 밥을 먹어요.

- + '-은 뒤에, 은 후에'는 '-은 다음에'와 의미적 차이가 거의 없으며 이때 조사 '에'는 모두 생략될 수 있다.

- ④ '-은 다음이다'의 구성으로 쓰여 앞 절과 뒤 절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 예) 한국을 좋아하게 된 것은 한국어를 **배운 다음입니다**.
요리를 잘하게 된 건 **결혼한 다음이에요**.
제가 이사를 한 건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이에요**.
왕밍 씨를 만난 건 **대학교를 입학한 다음이었어요**.

- ⑤ 행위의 단순 나열의 의미로 사용될 때 부정 형태 '-지 않은 다음에', '안 -은 다음에'가 사용되면 의미적으로 어색한 경우가 많다.

- 예) 샤워를 **한 다음에** 잠을 잤다.
샤워를 **안 한 다음에** 잠을 잤다. (?)
손을 **씻지 않은 다음에** 밥을 먹었다. (?)
손을 **안 씻은 다음에** 밥을 안 먹었다. (??)

[유사 문법]

- ① '-은 후에', '-고'

-은 다음에	-고2)
--------	------

· '어떤 행위를 한 뒤에'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예)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취직을 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 앞 절의 행위가 뒤 절의 행위보다 앞섬을 나타내며, 앞 행위의 완료에 초점을 둔다.
예) 수지는 숙제를 **한 다음에** 친구를 만났다.

· 앞 절의 행위가 끝났다는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며, 단순히 행동의 연결에 초점을 둔다.
예) 수지는 숙제를 **하고** 친구를 만났다.

+ '-은 다음에'는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고2)'와 기본 의미는 유사하지만 '-은 다음에'의 경우에는 앞 행위를 완료했음을 중시할 때 사용될 수 있다.

② '-은 다음에', '-은 후에'

-은 다음에	-은 후에
--------	-------

· 앞 절의 행위가 뒤 절의 행위보다 먼저임을 나타낸다.

예) 준비 운동을 **한 다음에** 수영을 하세요.

준비 운동을 **한 후에** 수영을 하세요.

· '명사+다음에'의 구성으로 쓰지 않는다.
예) 샤워 **다음에** 식사를 합시다. (x)
저는 **출근 다음에** 신문을 봅니다. (x)

· '명사+후에'의 구성으로 쓸 수 있다.
예) 샤워 **후에** 식사를 합시다. (o)
저는 **출근 후에** 신문을 봅니다. (o)

+ '명사+후에'에서 명사는 시간을 나타내거나 행위와 관련된 의미, 즉 서술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 어머니는 **밤 후에** 텔레비전을 봐요. (x)
남자친구는 **학교 후에** 아르바이트를 갑니다. (x)
어머니는 **식사 후에** 텔레비전을 봐요. (o)
남자친구와 **졸업 후에** 결혼할 거예요. (o)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以后', '之后', '然后'

예) 식사를 **한 다음에** 바로 이를 닦는 게 좋아요. - 吃完饭以后, 最好马上刷牙.
한국어를 **배운 다음에** 한국에 여행을 갈 거예요. - 学韩国语之后, 去韩国旅行.
신문을 다 **읽은 다음에** 외출을 할 거예요. - 读完了报纸, 然后要出门.

② 용법과 오류

-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지만 대응하는 중국어는 형용사와 결합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날씨가 더운 다음에 비가 올 거예요. (x) - 天气酷热之后会下雨的. (o)
건강이 좋은 다음에 학교에 다닐 거예요. (x) - 身体好了以后要上学. (o)

- 과거 '-었-'이 결합하지 않지만 대응하는 중국어는 과거 시제 '了'와 결합이 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책을 읽었은 다음에 토론을 해요. (x) - 读了书之后进行讨论. (o)
 식사를 했은 다음에 운동을 했어요. (x) - 吃完了饭以后运动了. (o)

- '명사+다음에'의 구성으로 쓰지 않지만 중국어는 이런 제약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샤워 다음에 식사를 합시다. (x) - 先洗澡, 然后吃饭吧! (o)
 저는 출근 다음에 신문을 봅니다. (x) - 我是上班以后看报纸. (o)

3.6.45. '-을 따름이다'

-을 따름이다[-ㄴ 따름이다]{-을 뿐이다/-ㄴ 뿐이다}[표현]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표현.

- 을 따름이다: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낸다. 오직 한 가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왕밍 씨, 무슨 일이 있어요? 나: 아니요, 왜요? 가: 화가 난 것처럼 보여서요. 나: 그냥 좀 피곤할 따름이에요.</p> <p>가: 효영 씨는 샌드위치를 정말 좋아하나 봐요. 나: 네? 특별히 좋아하지는 않아요. 가: 효영 씨가 항상 샌드위치만 먹길래 진짜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나: 시간 없을 때 편하게 사먹을 수 있어서 자주 먹을 따름이에요.</p> <p>가: 그렇게 원하던 대학에 합격한 기분이 어때요? 나: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저 감사할 따름이에요.</p> <p>가: 라면을 두 개나 끓였는데 혼자 다 먹었어요? 많이 배고팠나 봐요. 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먹었을 따름이에요.</p>
문장예문	<p>· 제 생일을 기억해 주시다니 고마울 따름이에요. · 저는 큰 욕심 내지 않고 시험을 준비할 따름이에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훌쩍 자란 아이를 보면 그저 기쁠 따름입니다. · 2년 동안이나 한국어 공부를 했지만 저에게는 아직도 한국어가 어려울 따름이에요. · 저는 말하라고 해서 말했을 따름입니다. · 저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팬일 따름이에요. · 당신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에요. · 길이 막혀서 좀 늦었을 따름인데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내요? · 저는 가난한 유학생일 따름이라서 빨리 졸업을 해야 합니다. · 이렇게 빨리 헤어지게 돼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	---

+ ‘-을 따름이다’는 선택의 가능성이나 여지가 없음을 의미한다. ‘시합을 준비할 따름이에요’는 시합을 준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음을 의미한다. ‘훌쩍 자란 아이를 보면 그저 기쁠 따름이다’는 훌쩍 자란 아이를 보며 뿌듯하여 기뻐할 뿐임을, 즉 기쁜 마음이 가득함을 의미한다. ‘2년 동안이나 한국어 공부를 했지만 저에게는 아직도 한국어가 어려울 따름이에요’는 오랜 기간 한국어 공부를 했지만 어렵기만 함을 의미한다. ‘저는 말하라고 해서 말했을 따름입니다’는 누군가가 말하라고 시켜서 말을 전했을 뿐, 다른 책임은 없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을 따름이다’는 어떤 행위나 상태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의미를 기본으로 가지지만, 오직 그것뿐이므로 그것으로 가득하게 되어 매우 그러하다는 의미로 확장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또는 오직 그것뿐이어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차선의 것을 선택했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도입]

(1)	<p>교사: 왕밍 씨, 주말에 주로 뭐 해요?</p> <p>학생: 저는 영화를 봐요.</p> <p>교사: 그래요? 왕밍 씨는 영화를 정말 좋아하나 봐요. 선생님은 주로 청소를 해요. 그렇지만 청소를 정말 좋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주말이 아니면 청소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로 주말에는 청소를 해요. 다른 건 잘 못해요. 주말에는 청소를 할 따름이에요. ‘-을 따름이다’는 이것만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선택이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p>
(2)	<p>(신랑, 신부는 활짝 웃고 있고 신부 어머니는 웃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결혼식 사진을 보여 주며)</p> <p>교사: 결혼식을 하고 있어요. 신부의 엄마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p> <p>학생: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요.</p> <p>교사: 맞아요. 아이가 커서 결혼을 하니 기쁘겠지만, 이제 헤어져서 살아야 하니 슬프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신부</p>

는 기분이 어때 보여요?
 학생: 신부는 웃고 있어요. 행복해 보여요.
 교사: 신부는 슬퍼 보이지 않아요. 활짝 웃고 있어요. 오직
 행복하기만 해요. **행복할 따름이에요.**

- + 도입(1)은 주말에 하는 활동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말에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내용을 이해하게 한 후, 이와 같이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을 따름이다'를 사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시할 때에는 최고의 것이 아니라,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상황으로 설정하여 '-을 따름이다'의 의미를 이해하게 할 수 있다.
- + 도입(2)에서 '-을 따름이다'는 오직 그것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그 이외에 다른 것이 없기에 위의 도입(1)의 상황과 조금 다르게 매우 그렇다는 최고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두 경우 모두 '-을 따름이다'의 기본 의미는 변함이 없으나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확장되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형태 정보]

-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을 따름이다'를 쓴다.

예) 찾- + -을 따름이다 → 찾을 따름이다 먹- + -을 따름이다 → 먹을 따름이다
 입- + -을 따름이다 → 입을 따름이다 중- + -을 따름이다 → 중을 따름이다
 신- + -을 따름이다 → 신을 따름이다 넓- + -을 따름이다 → 넓을 따름이다

- ②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으면 '-ㄹ 따름이다'를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예쁘- + -ㄹ 따름이다 → 예쁠 따름이다 가- + -ㄹ 따름이다 → 갈 따름이다
 배우- + -ㄹ 따름이다 → 배울 따름이다 크- + -ㄹ 따름이다 → 클 따름이다
 만들- + -ㄹ 따름이다 → 만들 따름이다 졸- + -ㄹ 따름이다 → 졸 따름이다

- ③ '이다, 아니다'는 '-ㄹ 따름이다'를 쓴다.

예) 외국사람이- + -ㄹ 따름이다 → 외국사람일 따름이다
 선생님이- + -ㄹ 따름이다 → 선생님일 따름이다
 배우이- + -ㄹ 따름이다 → 배우일 따름이다
 운동선수이- + -ㄹ 따름이다 → 운동선수일 따름이다
 아니- + -ㄹ 따름이다 → 아닐 따름이다

①	받침 ○	+ -을 따름이다	찾을 따름이다, 먹을 따름이다, 입을 따름이다, 중을 따름이다, 작을 따름이다, 넓을 따름이다
②	받침 ×	+ -ㄹ 따름이다	갈 따름이다, 클 따름이다, 배울 따름이다, 예쁠 따름이다
	ㄹ 받침	+ -ㄹ 따름이다 (어간 'ㄹ' 탈락)	졸 따름이다, 만들 따름이다

- ④ 불규칙

- 듣- 예) 저는 뉴스를 **들을 따름이다**.
 덩- 예) 날씨가 좀 **더울 따름인데** 땀이 나요.
 잇- 예) 저는 묵묵히 가업을 **이를 따름이다**.
 그렇- 예) 내 생각도 **그렇 따름이다**.

[문장 구성 정보]

- ① 부정문은 '-지 않을 따름이다, 안 -을 따름이다'로 쓴다. '안 -을 따름이다'는 주로 구어에서 쓴다.

- 예) 피곤해서 **안 나갈 따름이다**. (o)
 피곤해서 **나가지 않을 따름이다**. (o)
 피곤해서 **나갈 따름이지 않다**. (x)
 피곤해서 **나갈 안 따름이다**. (x)

- ② 높임은 '-으실 따름이다, '을 따름이시다'로 쓴다.

- 예) 할머니께서도 그저 **기뻐하실 따름이다**. (o)
 할머니께서도 그저 **기뻐할 따름이시다**. (o)
 할머니께서도 그저 **기뻐하실 따름이시다**. (o)

[제약 정보]

- ① 과거 '-었-'과는 결합하지만 미래·추측의 '-겠-'과는 결합하지 않는다.

- 예) 다리가 좀 **아팠을 따름이에요**. (o)
 다리가 좀 **아플 따름이었어요**. (o)
 다리가 좀 **아프겠을 따름이에요**. (x)
 다리가 좀 **아플 따름이겠어요**. (x)

- ② '-ㄴ/은 따름이다, -는 따름이다'의 형태로 쓰지 않는다.

- 예) 어제는 기분이 좀 **나쁜 따름이었다**. (x)
 이제 집에 가고 **있는 따름이다**. (x)
 아까 이 책을 **읽은 따름이다**. (x)
 피곤해져 잠깐 **조는 따름이다**. (x)

- + 형용사와 결합할 때에도 '-을 따름이다'를 사용한다.

[유사 문법]

- ① '-을 따름이다, '-을 뿐이다'

-을 따름이다	-을 뿐이다
·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나타낸다.	
저는 들은 대로 말씀드릴 뿐입니다 .	
저는 들은 대로 말씀드릴 따름입니다 .	

이 사람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일 뿐입니다 .	
이 사람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일 따름입니다 .	
· '-을 따름 아니라'의 형태로 사용될 수 없다. 예) 배가 고플 따름 아니라 졸리기도 해요. (x) 여행을 갈 시간이 없을 따름 아니라 돈도 없어요. (x)	· '-을 뿐 아니라'의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 예) 배가 고플 뿐 아니라 졸리기도 해요. (o) 여행을 갈 시간이 없을 뿐 아니라 돈도 없어요. (o)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只不过', '只', '而已' 또는 대응 표현 없이 사용되기도 함.

- 예) 저는 일개 평범한 **학생일 따름입니다**. - 我只不过是一介平凡的学生.
나는 나의 실력만 **믿을 따름이다**. - 我只相信我的实力.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결국 자신만 **고통스러울 따름이에요**. - 痛恨别人, 结果只苦了自己.
자식으로서 그저 해야 할 도리 **했을 따름입니다**. - 只是做了作为一个子女应该做的事而已.
기숙사에 들어박혀 잠만 자는 것은 자신을 **속일 따름이다**. - 整天在宿舍睡觉是骗自己而已.
틈만 나면 컴퓨터 게임만 하니 **한심할 따름이죠**. - 一有空就玩电脑游戏, 真不像话.
이번 긴 여행에 평안하기를 **바랄 따름이다**. - 但愿这次远行能够一路平安.

② 용법과 오류

- 미래·추측을 나타내는 '-겠-'과는 결합하지 않지만 대응하는 중국어는 시제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겠-'과 결합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 예) 시간이 없으니 열심히 **하겠을 따름입니다**. (x)
이제부터 나는 너만 **믿겠을 따름이다**. (x)
젊어서 노력하지 않으면, 늙어 부질 없이 **슬퍼지겠을 따름이다**. (x)
자식으로서 할 도리를 **하겠을 따름입니다**. (x)

- '-ㄴ/은 따름이다, -는 따름이다'의 형태로 쓰지 않는데 대응하는 중국어는 형태 변화와 시제 제약이 없으므로 '-을'을 '-ㄴ/은/는'으로 임의로 바꾸는 오류가 나타난다.

- 예) 나는 일개 **농민인 따름이오**. (x)
접대가 소홀히 해서 두 분께 **죄송하는 따름입니다**. (x)
좋은 물건은 많지만 사람들이 몰라서 **사지 못하는 따름이다**. (x)

3.6.46. '-을 테니'

-을 테니[-ㄴ 테니]{-을 테니까[-ㄴ 테니까]}[표현] 말하는 사람의 1) 의지, 2)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

-을 테니1): (동사에 붙어)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낸다.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는 앞 절의 내용에 근거하여 듣는 사람에게 뒤 절의 내용을 요청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왕밍 씨, 어디 아파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p> <p>나: 그게 아니라 어제 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잠을 못 자서 그래요.</p> <p>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다가 정말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p> <p>나: 네, 알겠어요. 오늘은 게임을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p> <p>가: 흐영 씨, 뭐 먹을까요?</p> <p>나: 김밥, 라면, 떡볶이, 순대, 튀김이요.</p> <p>가: 그렇게 많이 시켜요? 다 먹을 수 있어요?</p> <p>나: 그럼요. 제가 다 먹을 테니 주문해 주세요.</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가 반드시 범인을 잡을 테니 기다려 주세요. · 약국에 다녀올 테니 아파도 조금만 참아. · 방에서 책을 읽을 테니 시끄럽게 하지 마. · 피곤해서 침대에 누울 테니 5시에 깨워 주세요. · 자동차를 사 줄 테니 면허증부터 따. · 약속을 지킬 테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 내가 설거지를 할 테니 너는 빨래를 할래? · 엄마,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할 테니 한국어로 유학을 보내 주세요. · 지금부터 1시간만 잘 테니 조용히 해 주세요. · 제가 도와드릴 테니 일을 빨리 끝냅시다.

+ '-을 테니1)'은 말하는 사람의 의지에 근거하여 듣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거나 명령함을 나타낸다. '제가 반드시 범인을 잡을 테니 기다려 주세요'는 말하는 사람이 범인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그렇기에 기다려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약국에 다녀올 테니 아파도 조금만 참아'는 약국에 다녀오겠으니 조금만 참고 있으라고 요청하고 있다. '방에서 책을 읽을 테니 시끄럽게 하지 마'는 책을 읽겠다는 의지와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요청이 나타난다. '피곤해서 침대에 누울 테니 5시에 깨워 주세요'는 침대에 눕겠다는 의지와 깨워 달라는 요청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을 테니1)'은 앞 절에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 뒤 절에는 듣는 사람에 대한 요청으로 구성된다.

[도입]

(1)
교사: (전화를 받으며) 여보세요? 여러분 전화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해 주세요.

학생: 네.

교사: (전화를 끊으며) 고마워요.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말했
어요?

학생: '전화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해 주세요.'라고
말했어요.

교사: 네, '전화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해 주세요'
는 '전화를 **받을 테니** 조용히 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목소리를 작게 하며) 목이 아파서 작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해 주세요. 작게 **말할 테니**
조용히 해 주세요. '-을 테니'는 '내가 어떤 걸 할 거니
까'라는 뜻이에요.

(2)

교사: 내일 시험을 보려고 해요. 열심히 공부해 오세요.

학생: 정말요? 갑자기 시험을 본다고요?

교사: 네, 내일 오늘 배운 것만 시험을 보려고 해요. 그러니
까 열심히 공부해 오세요. 내일 시험을 **볼 테니** 열심히
공부해 오세요.

+ 도입(1)과 도입(2)는 교사가 의지를 나타내는 상황으로 유도하여 '-을 테니1)'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도입(1)은 '-을 테니1)'을 '-을 거예요'로, 도입(2)는 '-려고 해요'를 사
용하여 '-을 테니1)'이 의지를 나타내고 있음을 인식하도록 한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을 테니'를 쓴다.

예) 찾- + -을 테니 → 찾을 테니 먹- + -을 테니 → 먹을 테니
입- + -을 테니 → 입을 테니 반- + -을 테니 → 받을 테니
놓- + -을 테니 → 놓을 테니 잡- + -을 테니 → 잡을 테니

②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으면 '-ㄹ 테니'를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그리- + -ㄹ 테니 → 그릴 테니 가- + -ㄹ 테니 → 갈 테니
배우- + -ㄹ 테니 → 배울 테니 자- + -ㄹ 테니 → 잘 테니
만들- + -ㄹ 테니 → 만들 테니 불- + -ㄹ 테니 → 불 테니

③ 불규칙

신- 예) 제가 짐을 **실을 테니** 저쪽에 가서 좀 쉬고 계세요.

굽- 예) 내가 고기를 **구울 테니** 너는 상추를 씻을래?

잇- 예) 화가가 되어 부모님의 뒤를 **이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①	받침 ㅁ	+ -을 테니	찾을 테니, 먹을 테니, 입을 테니, 받을 테니, 놓을 테니, 잡을 테니
②	받침 ×	+ -ㄹ 테니	그릴 테니, 갈 테니, 배울 테니, 잘 테니
	ㄹ 받침	+ -ㄹ 테니 (어간 'ㄹ' 탈락)	만들 테니, 볼 테니

[문장 구성 정보]

① '-을 테니'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므로, 말하는 사람(1인칭)이 주어로 온다.

- 예) 내가 고기를 **구울 테니** 넌 상추 좀 씻어 줘. (o)
 내가 고기를 **구울 테니** 나는 상추를 씻을게. (x)
 철수가 고기를 **구울 테니** 넌 상추를 좀 씻어 줘. ('-을 테니2')의 뜻)

② 부정문은 '-지 않을 테니, 안 -을 테니'로 쓴다. '안 -을 테니'는 주로 구어에서 쓴다.

- 예) 저는 저녁을 **먹지 않을 테니** 제 것은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저녁을 **안 먹을 테니** 제 것은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술을 **마시지 않을 테니** 술을 권하지 마세요.
 저는 술을 **안 마실 테니** 술을 권하지 마세요.

③ 뒤 절에는 주로 명령이나 요청의 내용이 온다.

- 예) 커피를 **마실 테니** 물을 끓여라. (o)
 커피를 **마실 테니** 물을 끓여 줄래? (o)
 커피를 **마실 테니** 물을 끓이세요. (o)
 커피를 **마실 테니** 물을 끓인다. (x)

[제약 정보]

①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 예) (제가) 다리가 **아플 테니** 의자에 앉겠습니다. (x)
 (내가) 기분이 **우울할 테니** 꼭 자야겠어요. (x)
 다리가 **아플 테니** 의자에 앉으세요. ('-을 테니2')의 뜻)
 기분이 **우울할 테니** 꼭 자세요. ('-을 테니2')의 뜻)

+ 형용사와 결합할 때는 추측의 의미인 '-을 테니2')의 의미가 된다.

② 과거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 예) 내일까지 이 일을 **마쳤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x)
 오늘은 반드시 청소를 **했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x)
 내일까지 이 일을 **마치겠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x)
 오늘은 반드시 청소를 **하겠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x)

③ '-ㄴ/은 테니, -는 테니'의 형태로 쓰지 않는다.

예) 오늘은 가게 문을 일찍 **닫은 테니** 너도 집에 일찍 돌아가서 쉬어. (x)
피곤해서 잠깐 **자는 테니** 깨우지 마. (x)
이 책을 **읽은 테니** 조용히 해 줘. (x)
커피를 **마신 테니** 물을 끓여 줄래? (x)

[확장]

① '-을 테니까'와 특별한 구분 없이 바꿔 쓸 수 있다.

예) 저는 밥을 **할 테니** 왕밍 씨는 찌개를 끓이세요.
= 저는 밥을 **할 테니까** 왕밍 씨는 찌개를 끓이세요.
제가 나갔다 오면서 약을 사다 **드릴 테니** 좀 쉬고 계세요.
= 제가 나갔다 오면서 약을 사다 **드릴 테니까** 좀 쉬고 계세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대응 표현 없음.

예) 난 사정이 있어 먼저 **갈 테니** 남은 일은 수잔 씨가 알아서 처리해요. - 我有事先走了, 剩下的事由秀珍看着处理吧.
내가 한 권 **줄 테니**, 잘 읽어 보거라. - 我送你一本, 你好好读一遍.
내가 공을 오른쪽으로 **찰 테니**, 넌 정확히 받아야 해. - 我会把球踢到右边, 你一定要接准啊.
제가 옷만 갈아입고 바로 **나갈 테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 请你稍等片刻, 我换上衣服马上出来.
제가 먼저 **할 테니** 모두 따라 하세요. - 我先示范, 大家跟着做.
그가 반드시 **해낼 수 있을 테니** 절대 비웃지 마세요. - 他一定能做好, 请不要嘲笑他.
절대로 힘들게는 **하지 않을 테니** 우리 회사로 오세요. - 绝对不会让你累的, 来我们公司吧.

② 용법과 오류

- 미래·추측을 나타내는 '-겠-'과 결합하지 않지만 중국어에서 '-을 테니'에 대응하는 표현이 없으므로 미래·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겠-'과 '-을 테니'를 함께 쓰는 오류가 나타난다.

예) 내가 먼저 **시작하겠을 테니** 나를 따라 부르세요. (x)
좀 이따가 **알려 주겠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x)
제가 사람을 **찾아 오겠을 테니**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리세요. (x)

- 중국어에 대응하는 표현이 없으므로 회피 오류가 나타난다.

예) 난 사정이 있어 먼저 갑니다. 남은 일은 수잔 씨가 알아서 처리해요. (?) ('갈 테니'를 써야 할 경우)
내가 책 한 권을 줄 거예요. 잘 읽어 보세요. (?) ('줄 테니'를 써야 할 경우)

내가 공을 오른쪽으로 찰 거니까 정확히 받아요. (?) ('찰 테니'를 쓸 수 있는 경우)
 제가 옷만 갈아입고 바로 나갈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 ('나갈 테니'를 써야 할 경우)
 제가 먼저 하면 모두 따라 하세요. (?) ('할 테니'를 써야 할 경우)

-을 테니2): (동사, 형용사에 붙어) 말하는 사람의 추측을 나타낸다. 말하는 사람의 추측을 나타내는 앞 절의 내용에 근거하여 듣는 사람에게 뒤 절의 내용을 요청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수지야, 오늘 옷 사러 갈 건데 같이 갈래? 나: 그래. 마침 나도 신발을 사러 백화점에 가려고 했거든. 가: 잘 됐다. 어디로 갈까? 나: 백화점은 비쌀 테니 동대문 시장으로 가자.</p> <p>가: 흐영, 뭐 먹을까? 나: 김밥, 라면, 떡볶이, 순대, 튀김 시킬래? 가: 그렇게 많이 시켜? 다 먹을 수 있겠어? 나: 아니, 우리 둘이서는 다 못 먹지. 왕밍이랑 수지도 온다고 했거든. 가: 그래? 네 명이면 그 정도는 먹을 테니 다 시키자.</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씨가 좋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 비가 올 테니 우산을 가져가세요. · 주말이라 영화관에 사람이 많을 테니 가지 말자. · 이 영화는 무서울 테니 다른 영화를 보는 건 어때요? · 저녁에 손님이 오실 테니 일찍 들어 와. · 휴대폰을 찾게 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 영화가 시작했을 테니 다음 영화를 보자. · 날씨가 추울 테니 따뜻하게 입으세요. · 배가 고플 테니 어서 식사를 하세요. · 길이 막힐 테니 지하철을 탑시다.

+ '-을 테니2)'는 말하는 사람의 추측에 근거하여 듣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거나 명령함을 나타낸다. '날씨가 좋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는 날씨가 좋을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비가 올 테니 우산을 가져가세요'는 비가 올 것 같으니 우산을 가져가라고 명령하고 있다. '주말이라 영화관에 사람이 많을 테니 가지 말자'는 주말이라 영화관에 사람이 많을 것 같으니 가지 말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영화는 무서울 테니 다른 영화를 보는 건 어때요?'는 영화가 무서울 것으로 추측이 되니 다른 영화를 볼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을 테니2)'는 앞 절에는 말하는 사람의 추측, 뒤 절에는 듣는 사람에 대한 요청으로 구성된다.

[도입]

(1)

교사: 여러분, 다음 주에 시험을 보려고 해요.

학생: 정말요? 무슨 시험이요?

교사: 이번 주에 배운 것을 가지고 시험을 볼 거예요. 시험 문제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시험 문제가 **어려울 테니**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학생: 시험 문제를 쉽게 내 주시면 안 돼요?

교사: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아마 시험 문제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시험 문제가 **어려울 테니** 열심히 공부하세요.

(2)

교사: 왕밍 씨는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어요?

학생: 제주도요.

교사: 언제 제주도로 여행을 가고 싶어요?

학생: 여름에 가고 싶어요.

교사: 그런데 여름에는 너무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하기 좋지 않을 거예요. 여름에는 너무 **더울 테니** 봄이나 가을에 가는 게 좋을 거예요.

- + 도입(1)은 시험 문제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니 열심히 공부하라는 내용을 통하여 '-을 테니2)'가 가지는 추측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할 때 단순히 미래가 아닌 추측임을 나타내기 위해 '아마', '확실하지는 않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등과 같은 표현을 같이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도입(2)는 날씨에 대한 예상을 통해 '-을 테니2)'의 의미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날씨를 보여주는 다양한 그림 카드를 활용하여 상황을 보다 확장하여 제시할 수 있겠다.

[형태 정보]

앞의 '-을 테니1)'을 참고하되, 형용사와도 결합함에 주의한다.

[문장 구성 정보]

- ①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

예) (네가) 오후가 되면 **배고플 테니** (네가) 도시락을 싸 가세요.

(네가) 오후가 되면 **배고플 테니** (내가) 도시락을 싸 줄까요?

수지 씨는 **늦을 테니** 왕밍 씨가 먼저 출발하세요.

- + 첫 예문의 앞 절과 뒤 절의 주어는 듣는 사람이고, 동일하다. 두 번째 예문은 앞 절은 듣는 사람, 뒤 절은 말하는 사람이 화자가 주어인 예이다. 세 번째 예문은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다르며 앞 절의 주어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아닌 예이다. 이처럼 '-을 텐데'로 연결되는 두 문장의 주어는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

- ② 부정문은 '-지 않을 테니, 안 -을 테니'로 쓴다. '안 -을 테니'는 주로 구어에서 쓴다.

예) 왕밍 씨는 커피를 **마시지 않을 테니** 녹차로 사 올까요?
왕밍 씨는 커피를 **안 마실 테니** 녹차로 사 올까요?
날씨가 맑아서 비가 **오지 않을 테니** 우산을 놓고 가세요.
날씨가 맑아서 비가 **안 올 테니** 우산을 놓고 가세요.

- ③ 높임은 '-으실 테니'로 쓴다.

예) 할머니께서 너를 보면 **기뻐하실 테니** 같이 가자.
선생님께서 **바쁘실 테니** 다음에 찾아 갑시다.
지금 교수님께서 식사하고 **계실 테니** 나중에 전화 드리자.

[제약 정보]

- ① 앞 절에는 말하는 사람이 추측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말하는 사람이 주어로 나올 수 없다.

예) 내가 **늦을 테니** 기다리지 마세요. (x)
왕밍 씨가 **늦을 테니** 기다리지 마세요. (o)
나는 커피를 **마시지 않을 테니** 다른 차로 사 오세요. ('-을 테니1')의 뜻)
왕밍 씨는 커피를 **마시지 않을 테니** 다른 차로 사 오세요. (o)

- ② 과거 '-었-'과는 결합하지만 미래·추측의 '-겠-'과는 결합하지 않는다.

예) 왕밍이 한국에 **도착했을 테니** 전화해 보세요. (o)
커피가 **식었을 테니** 마셔도 돼요. (o)
다리가 좀 **도착하겠을 테니** 전화해 보세요. (x)
커피가 **식겠을 테니** 마셔도 돼요. (x)

- ③ '-ㄴ/은 테니, -는 테니'의 형태로 쓰지 않는다.

예) 이 영화를 **본 테니** 같이 가세요. (x)
피곤해서 **조는 테니** 깨우지 않는 게 좋겠어요. (x)
이제 집에 가고 **있는 테니** 조금 있다가 전화해 봐요. (x)

[확장]

- ① '-을 테니까'와 특별한 구분 없이 바꿔 쓸 수 있다.

예) 제 컴퓨터는 **고장났을 테니** 왕밍 씨 컴퓨터를 쓰세요.
= 제 컴퓨터는 **고장났을 테니까** 왕밍 씨 컴퓨터를 쓰세요.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울 테니** 조심하세요.

=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울 테니까** 조심하세요.

[유사 문법]

① '-을 테니2)', '-을 텐데'

-을 테니2)	-을 텐데
---------	-------

· '추측'을 나타낸다.

<p>· 뒤 절의 조건이나 근거가 된다.</p> <p>예)</p> <p>잠을 못 자서 피곤할 테니 어서 들어가 쉬세요. (o)</p> <p>잠을 못 자서 피곤할 테니 빨리 안 자고 뭐 해요? (x)</p> <p>저녁을 먹어서 배가 부를 테니 그만 드세요. (o)</p> <p>저녁을 먹어서 배가 부를 테니 또 먹어요? (x)</p>	<p>· 뒤 절을 제시하는 배경 상황이 된다.</p> <p>예)</p> <p>잠을 못 자서 피곤할 텐데 어서 들어가 쉬세요. (o)</p> <p>잠을 못 자서 피곤할 텐데 빨리 안 자고 뭐 해요? (o)</p> <p>저녁을 먹어서 배가 부를 텐데 그만 드세요. (o)</p> <p>저녁을 먹어서 배가 부를 텐데 또 먹어요? (o)</p>
---	--

+ '-을 텐데'와 '-을 테니2)'는 모두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렇지만 '-을 텐데'는 뒤 절의 제안이나 명령에 대한 배경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는 데 비해 '-을 테니2)'는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 따라서 '잠을 못 자서 피곤할 테니 어서 들어가 쉬세요'는 앞 절이 뒤 절의 근거가 되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지만 '잠을 못 자서 피곤할 테니 빨리 안 자고 뭐 해요?'는 뒤 절의 근거가 아닌 뒤 절의 제안에 대한 배경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비문이 된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可能' 혹은 대응 표현 없이 사용됨.

예) 가출한 애가 얼마 못가서 **돌아 올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 离家出走的孩子不长时间会回来的, 你不必担心.

날이 곧 **어두워질 테니**, 오늘은 갈 수 없겠군요. - 天快黑了, 恐怕今天去不成了.

오늘은 왕밍 씨가 너무 **피곤할 테니** 혼자 있게 두어라. - 今天王明可能太累了, 让他一个人呆着吧.

손해는 **안 볼 테니** 내 말을 믿고 통 크게 투자해도 되네. - 相信我, 你不会吃亏的, 可以大胆投资.

이 영화는 틀림없이 **재미있을 테니** 한번 꼭 보게나. - 这部电影肯定很好看, 你一定要看一看啊.

틀림없이 스스로 **물러날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 肯定自己会离开的, 用不着担心.

② 용법과 오류

- 높임은 '-으실 테니'로 쓰는데 중국어에는 '-시-'에 대응하는 높임 표현이 없으므로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과다 사용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 예) 부모님께서 너를 보면 무척 **반가워할 테니** 어서 집에 들어가라. (x)
 할머니께 받은 유물이면 소중한 **책이실 테니** 잘 보관하세요. (x)
 지금 할아버지께서 일하시고 **계실 테니** 가서 도와 드릴까요? (x)
 총장님께서 평일에는 **바쁘실 테니** 휴일에 찾아 뵙겠습니다. (x)

- '-ㄴ/은 테니, -는 테니'의 형태로 쓰지 않지만 과거를 나타내는 '-었-'과는 결합하므로 중국어 학습자는 '동사+过' 형태에 대응시켜 양자를 혼동하여 함께 쓰거나, 혹은 '동사+了'를 대응시켜 '-을 테니' 대신 '-ㄴ/은 테니, -는 테니'의 형태를 쓰는 오류가 나타난다.

- 예) 식사를 많이 **하셨는 테니** 간식은 조금 먹읍시다. (x)
 며칠 전에 이 책을 **읽었는 테니** 다 아시겠죠? (x)
 이제는 서울에 **도착한 테니** 전화해 보세요. (x)

3.6.47. '-을 텐데'

-을 텐데[-ㄴ 텐데]{-을 텐데요/-ㄴ 텐데요}[표현] 말하는 사람의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

- 을 텐데: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어떤 내용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추측을 나타낸다. 뒤 절에는 추측한 내용과 관련되거나 반대되는 내용을 제시한다.

[예문]

담화예문	<p>가: 왕밍 씨, 어디 아파요? 나: 네, 요즘 계속 밤을 새워 일을 해서요. 가: 피곤할 텐데 얼른 집에 가서 쉬세요. 나: 네, 알겠어요.</p> <p>가: 앤디 씨, 밥 먹으러 갈래요? 나: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가: 학생 식당으로 가요. 흥영 씨도 도서관에 있을 텐데 같이 갈까요? 나: 그래요. 제가 전화해 볼게요.</p>
문장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이 내릴 텐데 따뜻하게 입고 가세요. · 동생이 엄마에게 제 성적을 말할 텐데 어찌지요? · 왕밍 씨, 커피를 많이 마셨을 텐데 주스를 드세요. · 아무리 서둘러도 6시까지 도착하지 못할 텐데 다른 영화를 보는 건 어때요? · 제가 오늘 많이 늦을 텐데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어요? · 주말에는 사람이 많을 텐데 명동에서 만나도 괜찮겠어요? · 한국어가 어려울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한국어를 잘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생님, 바쁘실 텐데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도 돈이 없을 텐데 이렇게 나를 도와주다니 정말 고마워.· 돌아가신 할머니께 받은 거면 소중한 책일 텐데 잘 보관하세요.
--	--

+ ‘-을 텐데’는 말하는 사람의 추측을 나타낸다. ‘제가 오늘 많이 늦을 텐데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어요?’는 말하는 사람이 스스로가 늦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듣는 사람에게 그것을 고려하여 기다릴 수 있겠는지를 묻고 있다. ‘눈이 내릴 텐데 따뜻하게 입고 가세요’는 눈이 내릴 것 같다는 추측에 근거하여 따뜻하게 입고 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주말에는 사람이 많을 텐데 명동에서 만나도 괜찮겠어요?’는 주말에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 추측하여 명동에서 만나도 되겠는지를 묻고 있다. ‘한국어가 어려울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한국어를 잘해요?’는 듣는 사람에게 한국어가 어려울 것이라 추측이 되는데도 어떻게 한국어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묻거나 또는 감탄하고 있는 문장이다.

[도입]

(1)

교사: 왕밍 씨,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요?

학생: 네, 좋아요.

교사: 액션 영화, 코미디 영화, 로맨스 영화가 있어요. 저는 로맨스 영화를 보고 싶어요. 그런데 선생님 생각에 왕밍 씨는 액션 영화를 **좋아할 텐데** 로맨스 영화를 봐도 괜찮겠어요?

학생: 저는 액션 영화를 좋아해요. 로맨스 영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교사: 선생님 생각이 맞았어요. 왕밍 씨는 액션 영화를 좋아해요. 그럼 액션 영화를 같이 봐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왕밍 씨는 액션 영화를 좋아할 거야. 로맨스 영화를 봐도 괜찮을까?’라고 선생님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왕밍 씨는 액션 영화를 **좋아할 텐데** 로맨스 영화를 봐도 괜찮아요? 이렇게 ‘-을 텐데’는 말하는 사람이 추측하는 것을 말할 때 써요.

(2)

교사: 줄리아 씨, 아침 먹었어요?

학생: 아니요, 못 먹었어요.

교사: 아침에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러면 배가 고프겠어요. 배가 **고플 텐데** 이 초콜릿 좀 드세요. 흐영 씨는 아침 먹었어요?

학생: 저도 아침 못 먹었어요.

교사: 그럼 아마 흐영 씨도 배가 많이 고프겠어요. 배가 **고플 텐데** 이 초콜릿 좀 드세요. 여러분, 저도 아침을 못

먹었어요. 어떨 것 같아요?
 학생: 선생님도 배가 고플 것 같아요. 선생님도 초콜릿을 드세요.
 교사: 고마워요. 이때도 여러분이 '선생님도 배가 **고플 텐데** 초콜릿을 드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 도입(1)은 동사 '좋아하다'와 '-을 텐데'가 결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을 텐데'를 사용하여 학생이 좋아하는 것을 추측하여 제시함으로써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입(2)는 형용사와 결합하는 '-을 텐데'를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에게 밥을 먹었는지 먼저 물어봄으로써 배가 고플 상태를 추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후에 '-을 텐데'를 사용하여 추측하는 문장을 제시하도록 한다.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을 텐데'를 쓴다.

예) 찾- + -을 텐데 → 찾을 텐데 먹- + -을 텐데 → 먹을 텐데
 입- + -을 텐데 → 입을 텐데 좋- + -을 텐데 → 신을 텐데
 작- + -을 텐데 → 신을 텐데 넓- + -을 텐데 → 넓을 텐데

②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으면 '-ㄹ 텐데'를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예쁘- + -ㄹ 텐데 → 예쁠 텐데 가- + -ㄹ 텐데 → 갈 텐데
 배우- + -ㄹ 텐데 → 배울 텐데 크- + -ㄹ 텐데 → 쓸 텐데
 만들- + -ㄹ 텐데 → 만들 텐데 졸- + -ㄹ 텐데 → 졸 텐데

①	받침 ○	+ -을 텐데	찾을 텐데, 먹을 텐데, 입을 텐데, 좋을 텐데, 작을 텐데, 넓을 텐데
②	받침 ×	+ -ㄹ 텐데	갈 텐데, 클 텐데, 배울 텐데, 예쁠 텐데
	ㄹ 받침	+ -ㄹ 텐데 (어간 'ㄹ' 탈락)	졸 텐데, 만들 텐데

③ '이다, 아니다'는 '-ㄹ 텐데'를 쓴다.

예) 외국사람이- + -ㄹ 텐데 → 외국사람일 텐데
 선생님이- + -ㄹ 텐데 → 선생님일 텐데
 배우이- + -ㄹ 텐데 → 배우일 텐데
 운동선수이- + -ㄹ 텐데 → 운동선수일 텐데
 아니- + -ㄹ 텐데 → 아닐 텐데

④ 불규칙

듣- 예) 흐영 씨도 뉴스를 **들을 텐데** 사고 소식을 알게 되겠지요.
 덮- 예) 날씨가 좀 **더울 텐데** 옷을 얇게 입으세요.

짓- 예) 겨울에 집을 **지을 텐데** 힘들지 않을까요?

이렇- 예) 주말이라 길이 많이 막히네요. 다음 주도 **이럴 텐데** 주중에 만나는 게 어때요?

[문장 구성 정보]

①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

예) (네가) 아침을 안 먹어서 **배고플 텐데** (네가) 빵이라도 먹을래?

(네가) 시험 기간이라 **바쁠 텐데** (내가) 시간 뺏는 것 아니에요?

수지네 엄마는 몸이 약해서 등산을 **힘들어할 텐데** 수지는 자꾸 산에 가자고 해요.

+ 첫 예문의 앞 절과 뒤 절의 주어는 듣는 사람이고, 동일하다. 두 번째 예문은 앞 절은 듣는 사람, 뒤 절은 말하는 사람이 화자가 주어인 예이다. 세 번째 예문은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다르며 화자가 주어가 아닌 예이다. 이처럼 '-을 텐데'로 연결되는 두 문장의 주어는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

② 부정문은 '-지 않을 텐데, 안 -을 텐데'로 쓴다. '안 -을 텐데'는 주로 구어에서 쓴다.

예) 왕밍은 피곤해서 영화 보러 **가지 않을 텐데** 어찌지요?

왕밍은 피곤해서 영화 보러 **안 갈 텐데** 어찌지요?

날씨가 맑아서 비가 **오지 않을 텐데** 우산을 놓고 가세요.

날씨가 맑아서 비가 **안 올 텐데** 우산을 놓고 가세요.

③ 높임은 '-으실 텐데'로 쓴다.

예) 할머니께서 너를 보면 **기뻐하실 텐데** 같이 가자.

선생님께서 **바쁘실 텐데** 다음에 찾아 갑시다.

지금 교수님께서 식사하시고 **계실 텐데** 기다릴 수 있어요?

[제약 정보]

① 과거 '-았-'과는 결합하지만 미래·추측의 '-겠-'과는 결합하지 않는다.

예) 다리가 좀 **아팠을 텐데**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o)

저녁을 **먹었을 텐데** 배가 또 고프다고요? (o)

다리가 좀 **아프겠을 텐데** 걸어갈 생각이에요? (x)

저녁을 **먹졌을 텐데** 간식을 먹지 말자. (x)

② '-ㄴ/은 텐데, -는 텐데'의 형태로 쓰지 않는다.

예) 어제는 날씨가 **나쁜 텐데** 운동을 하러 나갔다고요? (x)

이제 집에 가고 **있는 텐데** 다시 돌아오라고 할까요? (x)

저번에 이 책을 **읽은 텐데** 또 읽는 거예요? (x)

피곤해져 **자는 텐데** 깨우지 마세요. (x)

[확장]

① '-을 텐데'의 뒤 절이 생략되어 추측만 나타내기도 한다.

예) 가: 앤디야, 같이 저녁 먹을래?
 나: 그래, 좋아.
 가: 왕밍한테도 같이 먹자고 할까?
 나: 왕밍은 저녁을 일찍 먹잖아. 아마 저녁을 **먹었을 텐데**.

가: 여기 좀 앉으세요.
 나: 아니에요. 서 있는 게 편해요.
 가: 그래도 계속 서 있어서 다리가 **아플 텐데요**.
 나: 괜찮아요. 다음 역에서 내릴 거예요. 감사해요.

+ 문장 종결에 사용되는 '-을 텐데'에 조사 '-요'가 붙어 '-을 텐데요'로 쓸 수 있다.

예)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다리가 좀 **아팠을 텐데요**.
 배가 또 고프다고요? 아까 저녁을 **먹었을 텐데요**?
 우산 가져가는 게 어때요? 오늘 비가 **올 텐데요**.

[유사 문법]

① '-을 텐데', '-을 테니2'

-을 텐데	-을 테니2)
· '추측'을 나타낸다.	
· 뒤 절을 제시하는 배경이나 상황이 된다. 예) 잠을 못 자서 피곤할 텐데 어서 들어가 쉬세요. (o) 잠을 못 자서 피곤할 텐데 빨리 안 자고 뭐 해요? (o) 저녁을 먹어서 배가 부를 텐데 그만 드세요. (o) 저녁을 먹어서 배가 부를 텐데 또 먹어요? (o)	· 뒤 절의 조건이나 근거가 된다. 예) 잠을 못 자서 피곤할 테니 어서 들어가 쉬세요. (o) 잠을 못 자서 피곤할 테니 빨리 안 자고 뭐 해요? (x) 저녁을 먹어서 배가 부를 테니 그만 드세요. (o) 저녁을 먹어서 배가 부를 테니 또 먹어요? (x)

+ '-을 텐데'와 '-을 테니2)'는 모두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렇지만 '-을 텐데'는 뒤 절의 제안이나 명령에 대한 배경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는 데 비해 '-을 테니2)'는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 따라서 '잠을 못 자서 피곤할 테니 어서 들어가 쉬세요'는 앞 절이 뒤 절의 근거가 되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지만 '잠을 못 자서 피곤할 텐데 빨리 안 자고 뭐 해요?'는 뒤 절의 근거가 아닌, 뒤 절의 제안에 대한 배경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비문이 된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可能', '或许'와 대응되거나 혹은 대응 표현 없이 사용함.

예) 내일 비가 **내릴 텐데** 우산을 챙겨 가세요. - 明天可能下雨, 别忘了带雨伞.
 요즘 경기가 **어려울 텐데** 회사는 잘 되는지요? - 最近经济不太景气, 您过得怎样呢?

주말에는 도로가 심하게 **막힐 텐데** 나들이 가도 괜찮겠어요? - 周末或许堵车堵得厉害, 能去郊游吗?

오늘은 숙제가 **많을 텐데** 다 해낼 수 있겠어요? - 今天可能作业多, 能做完吗?

아침을 많이 **드셨을 텐데** 점심은 좀 늦게 드시죠. - 大家可能早饭吃得多, 午饭稍微晚点儿吃吧.

내빈 여러분, **바쁘실 텐데**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各位来宾, 非常感谢百忙之中参加婚礼.

② 용법과 오류

- 높임은 '-으실 텐데'로 쓰는데 중국어에는 '-시-'에 대응하는 높임 표현이 없으므로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과다 사용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예) 부모님이 너를 보면 무척 반가워할 텐데 어서 집에 들어가라. (x)
할머니께 받은 유물이면 소중한 책이실 텐데 잘 보관하세요. (x)
지금 할아버지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테신데 가서 도와 드릴까요? (x)
부장님께서 평일에는 바쁘실 테신데 휴일에 찾아 뵙겠습니다. (x)

- '-ㄴ/은 텐데, -는 텐데'의 형태로 쓰지 않는데 중국어 학습자는 '-었-'과 결합할 때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아침을 많이 드셨는 텐데 오늘 점심은 좀 늦게 먹읍시다. (x)
바쁘셨는 텐데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x)
어제는 날씨가 나뻤는 텐데 어떻게 골프 치러 갔겠어요? (x)
며칠 전에 이 책을 읽었는 텐데 오늘 다시 읽고 있어요. (x)

- '-을 텐데'의 뒤 절이 생략될 때 조사 '-요'가 붙을 수 있는데 중국어 학습자는 '-요'를 종결어미로 적용하여 기타 화계의 종결어미를 붙이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예) 오늘 많이 걸었죠? 다리가 좀 아팠을 텐데지요.(x)
벌써 배 고프다구요? 아까 저녁을 먹었을 텐데잖아요.(x)
일찍 돌아가시죠? 오늘 비가 올 텐데습니다요.(x)

제4장 연구의 의의와 과제

4.1. 연구의 의의

본 연구가 한국어교육 연구로서 갖는 의의를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

- 언어 정보, 교육 정보를 정리한 충실한 교수 자료 마련

본 연구는 문법·표현 항목에 대한 교육 내용을 심도 있고 충실하게 기술하여 한국어교육 문법의 기초 자료를 풍부하게 함으로써 한국어 교수자나 연구자, 교재 개발자, 그리고 학습자가 교육, 연구, 교재 개발, 학습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실한 참조 자료의 역할을 할 것이다.

착수 보고회, 자문회의,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를 거치면서 외부 위원들로부터 사업 방향에 대한 주요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1) 중·고급 용법을 초급 문법 항목의 용법을 기술하는 데 포함하고 이를 ‘확장’이라는 필드 안에 포함하였다.

2) 사업 초반에 초보 교사를 위한 쉬운 문법 설명에 중점을 두었으나 문법 내용 개발이라는 본 사업의 목적에 맞추어 정확하고 상세한 설명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에 따라 의미 및 용법 기술의 원칙을 수정하고, 각 필드에 ‘상세 설명’을 추가하였다.

3) 예문을 풍부히 하였다. 담화 예문은 4~5개(중급은 2~3개), 문장 예문은 10개, 형태 정보 등 각 필드의 예문은 4개 이상 제시하였다.

4) 유사 문법의 기술 대상을 초급 문법 항목에 출현하는 것으로만 한정하였다가 중·고급 문법 항목으로 확대하였다. 이 부분은 중·고급 문법 항목을 기술하면서 수정,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임을 밝힌다.

- 교육 현장의 요구 및 경험이 반영된 결과물

본 연구에는 교육 현장 경험이 1년~3년 이하인 초보 교사들의 요구와 3년 이상의 경력 교사들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실제성과 연구의 정확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현장 교사들의 요구 분석 성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한국어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는 연구 결과물이 한국어 문법·표현 교육을 위한 실용적인 참조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문법·표현 항목 정렬과 개별 문법·표현 항목의 내용 기술에는 그간 국어학과 한국어교육학 분야에서 축적된 연구 성과가 반영되었으며, 코퍼스 언어학의 방법론이 적용된 교재 말

문치를 활용하고, 한국어교육 현장의 교수 경험을 통해 교수·학습에 효과적인 예문을 엄선하고 학습자의 전형적인 오류 정보를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간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조언어학적 연구 결과물들을 모두 반영하여 교수·학습에 필요한 대조언어학적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인접 학문 분야의 성과를 모두 반영하여 구축된 다양한 언어적, 교육적 정보는 현장 교수자에게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하며 연구자들에게도 문법·표현 교육 내용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1단계)」 사업의 계승·발전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1단계)」(2012) 사업의 연장선에서 진행된 사업이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2단계)」이다. 본 사업은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1단계)」 외에도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2010, 2011)에서 마련된 수준별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항목의 기본 틀을 토대로 하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2」(2005)의 개발 이후 지금까지 학계와 교육 현장에 축적된 연구 결과 및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어교육용 문법·표현 항목의 내용을 개발함으로써 이전 사업의 성과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이를 통합적으로 보완하고 그 내용들을 실제 교육 현장에 맞게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받아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용 문법·표현 항목을 선정하고 위계화한 초급 문법·표현 항목을 보다 정교하게 체계화하여 내용을 기술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수자에게 한국어 문법·표현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전 사업의 결과물에 더하여 중급 문법·표현 항목을 보다 정교하게 체계화하여 정련하였다.

4.2. 향후 과제

본 연구는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3단계)」로 앞서 논의한 의의와 함께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학계와 정부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초급, 중급 문법·표현 기술 내용의 활용

초급 및 중급 문법·표현 기술 내용은 빠르면 내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될 예정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전문 교사 풀을 활용하여 기술 내용의 문제점이나 오류 등을 잡아내고, 일반 교사들이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림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삽입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현재 기술 방식은 항목당 기술 내용이 상세하여 간단하게 주요 내용만 보기를 원하는 교사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정리한 문법서나 대조언어학적 내용만 볼 수 있는 문법서 등을 출판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 중·고급 문법·표현 항목의 정련

2단계 사업 내용 중 하나는 중급 문법·표현 항목의 선정과 정련이다. 이미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2010, 2011)과 「한국어능력시험」에서 등급별 문법·표현 항목을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항목 간 불일치로 인하여 교사나 학습자들은 곤란을 겪고 있다. 한국어교육의 체계화와 연구 내용의 집적, 경험의 축적으로 표준적인 문법·표현 항목의 정련이 가능하리라 본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결과물과 본 사업의 결과물을 기초로 학계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단계별로 문법·표현 항목을 선정하고 항목을 정련하여 그 결과를 교사와 학습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내용 검토 및 한·중 대조 체계화

1~3단계 작업을 진행하면서 한국어교육적 관점에서 한·중 문법 대조를 연구하는 인력이 생각보다 풍부하지 않고, 연구 방법론 또한 체계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중국어뿐 아니라 다른 언어권의 학습자를 가르치는 교사를 위해 한국어와 외국어 대조에 기초한 용법적 오류와 그 원인을 파악하고, 교수를 위한 지침 내지는 유의점 등을 기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숨어있는 연구 인력을 발굴하고, 언어권별 대조 연구 결과물을 집적하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대조 연구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탐구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문법 내용을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기 전에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의 내용을 외부 연구자에게 검토 의뢰하고 조금 더 풍부한 내용을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업 내용의 확장을 위한 요구도 조사

앞서 기술한 것처럼 문법·표현 항목의 기술 내용은 사업 초반에는 초보 교사들을 대상으로 쉬운 설명 위주로 추진되다가 사업 중반에 정확하고 상세한 설명으로 주요 방향이 변경되었다. 초보 교사 중심의 문법 내용 개발 연구는 1단계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이 사업에 대

한 다양한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고자 하다 보니 이와 같이 사업 방향이 변경된 것이다.

이처럼 한국어교육과 관련한 사업은 필요자들의 요구가 다양하다. 앞으로 한국어교육 문
법 내용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장, 심화하기 위해서는 결과물을 사용할 당사자들의
요구도 조사가 미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3. 정책 제안

본 연구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 과제에 대해서는 4.2.에서 기술하였으므로 이 절에서는 한국어교육 전반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물론 이 내용의 상당 부분은 2012년부터 수행한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

첫째, 한국어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을 위한 연구와 자료 구축이 좀 더 심층적으로,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한다. 사실 그동안 한국어교육은 놀랄 정도로 양적, 질적 향상을 거듭해 왔다. 2013년에 간행된 「한국어교육 연구의 현황」(신구문화사)에 따르면 1969년부터 2013년까지 발표된 논문은 7,380여 편에 이른다. 1969년부터 조사된 이 저작물에 따르면 2011년, 2012년에는 한국어교육 논문이 각각 1,285편, 1,223편에 이른다. 그리고 논문의 성격에 따라 보면 간행물 논문이 4,044편, 석사 학위 논문이 3,143편에 이른다. 세부적 주제에 따라 보면 문법 교육이 1,509편, 어휘 교육이 1,118편, 교재론 808편, 대조언어학 668편, 문화교육 592편, 교수법 546편, 학습자 513편, 발음(음성, 음운론) 459편, 다문화(여성결혼이민자, 방언) 449편 순이다. 그런데 이번 연구를 수행하며 찾아본 문법 교육에 대한 논저들은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는데, 기대보다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논저들의 주제가 중복이 많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위에서 언급한 상위의 한국어교육 연구 주제는 한국어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연구 목표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발음, 어휘, 문법 교육 등 기본적인 언어 지식 교육과 교재론, 교수법 등 실제 교육에 필요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는 그만큼 이 영역의 연구가 중요함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분야에 대한 심층적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향후 과제에서도 지적인 ‘단계별 문법 항목 선정’에 대한 연구, 그리고 본 연구에서 힘들여 작업했지만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유사 문법 항목’에 대한 연구가 그 한 예가 된다. 이러한 연구는 개인이 수행하기에는 한계점이 분명하다. 국가 주도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대형 프로젝트로 수행하거나(‘단계별 문법 항목 선정’), 관련 연구의 전문가를 섭외하여 장기 프로젝트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유사 문법 항목’)

다음은 연구의 다각화에 대한 제안이다. 앞서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이는 연구 주제는, - 총론 등 개괄적인 내용을 제외하면-, 학습 목적별 연구 195편, 언어습득/이중언어 33편, 교사 양성 134편, 구어 137편, 문어 28편, 화행/담화 157편, 사례 연구 70편 등이다. 이들 분야의 연구가 좀더 활성화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언어습득이나 이중언어 연구는 역시 개인이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연구이며, 화행/담화, 사례 연구 등은 교실 상황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오랜 관찰 시간이 필요한 연구 주제이다. 이 외에도 표현과 이해 영역을 비교해 보면 표현보다 이해 영역(201편:35편)의 비중이 낮고 4가지 기능 영역을 보면 쓰기가 319편으로 가장 많고, 읽기(245편), 말하기(171편), 듣기(98편)으로 말하기, 듣기 즉 구어와 관련한 기능 영역의 논저가 적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쓰기 관련 연구물이 많지만 실제로 쓰기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 자료는 교재 외에는 부족하며, 이는 읽기, 말하기, 듣기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요약하면 한국어교육 연구에 기초한 교육 자료 구축을 위해 질적 연구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나온 연구 업적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정책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둘째, 교실 상황에 맞는 교육 자료 개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첫째 제안과도 밀접

하게 관련된다. 이번 연구를 수행하며 알게 된 점은 같은 대학 부설 교육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기관별, 학습자별 변인에 따라 교육 상황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어떤 좋은 교육 자료가 만들어져도 교사가 이를 학습자나 교육 환경에 따라 가공하여 쓸 능력이 없으면 불필요하거나 불완전한 자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심층적 연구와 연구 결과물의 축적, 가공도 중요하지만 이를 교실 상황에 맞게 운용해서 쓸 수 있는 교사의 양성과 교사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 교육 이전에 충분한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다문화 가정 자녀, 여성 결혼 이민자, 세종학당 학습자, 재외 동포 등을 위한 교재가 개발되어 나온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 1, 2」의 보완 필요성에 근거하여 수행된 본 사업을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위의 교재들의 부족한 점과 보완점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면은 바로 교실 상황에 맞는 교육 자료 개발과 같은 이야기다. 이를 정책이나 사업으로 연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한 가지 제안해 보고 싶은 것은 교육 여건이 안 좋은 학습자 100명 이하의 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 지원을 하여 그 기관에 맞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도록 돕는 것이다. 대학의 한국어교육 기관은 국제화 지수를 높이기 위해 또는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여러 곳에 생겨났다. 그러나 몇 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한국어교육을 해서 얻은 수익이 교육에 투여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 1000만원을 투자하면 정부에서 그만큼의 재원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한국어교육 기관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물론 사업의 내용은 교실 상황에 맞는 교육 자료의 개발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정부는 질 높은 한국어교육을 위해 교사 자격 제도와 교육 기관 인증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는 방향을 바로 잡지 못하고 있는 기관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이지만 한편으로 교육의 일방화, 획일화를 조장하는 규제가 될 수도 있다. 다양한 학습자, 학습 목적, 기관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한국어교육의 질적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교사와 연구자가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 마련을 제안한다. 최근 누리세종학당 홈페이지가 전격 가동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 학당에는 교육 자료는 많지만 이것을 이용하는 교사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은 없는 것 같다. 주로 개인적 공간(주로 블로그나 카페)을 통해 교사들은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 같다. 가르치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질문을 올리고 그러면 다른 교사가 답을 하고 논의하는 방식의 공간을 국가 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 공간을 통해 국가 기관은 이미 수행 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를 거름 장치 없이 들을 수 있고, 연구 개발 자료에 대한 선호도 등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간접적 방법이 있기는 하다. 예를 들어 국립국어원에서 출간한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올리면 누적 다운로드 횟수가 나온다. 그러나 그것은 자료 이용 건수만 나올 뿐이지 주관적 반응은 알 수 없다. 몇몇 연구자들에게 정책 제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공간을 마련하여 모니터를 통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회원들끼리는 경험을 공유하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어 좋다. 물론 처음에는 인터넷 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냥 만들어만 놓고는 아무런 반응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향후 과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이 사업의 보고서인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2012~2014)와 또 「한국어교육 어휘 내용 개발」(2012~2014)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해 보면 좋겠다. 물론 의견을 낸 사람들에게는 국어원에서 나온 자료를 나누어 주는 등의 보상책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한국어교육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 가능하겠지만 크게 이 세 가

지를 제안한다. 정책의 내용이 정련되지 못하고 투박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아마도 정책 수립자의 손을 거치게 되면 더 훌륭한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본다.

[ABSTRACT]

Research on development of grammar·express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3rd stage)

As the 3rd stage of the “Research on development of grammar · express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je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first, provide a standard criteria of Korean pedagogical grammar in various fields by selecting and ranking grammatical expression examples that correspond to the intermediary level of Korean proficiency. The second is to create abundant resources for basic Korean pedagogical grammar by describing in depth and detail the grammar education content on intermediary examples of grammar and expression, which would allow Korean teachers, researchers, and teaching material developers to contribute to the language development and communication capabilities of learners . The third is to provide precautions for Korean educators when teaching Chinese learners with contrastive linguistics research materials on Korean and Chinese, and establish a foundation for developing multilingual contrasted Korean pedagogical grammar expression.

Stage 1 three detailed research assignments were conducted, involving selecting and ranking of grammar and expressions that are provided in the beginner’s stage, developing grammar and expression content description, and comparing grammar and expressions with the learner’s mother tongue. , the beginner’s grammar and expression examples determined in Stage 1 were refined and the grammar education content were described. In the research of Stage 3, the intermediary grammar and expression categories determined in stage 2 were refined, the final description entries were determined, and the intermediary grammar education content were described. For example selection, the grammar examples of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ly Recognized Standard Korean Education Model”were used as the base and ultimately determined based on the grammar examples of 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In stage 3, the selected examples of grammar and expressions consisted of 19 postpositions, 1 prefinal ending, 28 connective endings, 1 changing ending, 17 final endings, and 47 expressions, a total of 113 examples. The grammar education content was composed of ‘entry, meaning and usage, introduction, form information, sentence structure information, constraint information, expansion, similar grammar’and were described accordingly.

The authenticity of the example sentences was increased by a providing conversational example with grammatical expressions before providing a sentence example. In the introduction, a conversational situation in which the educator is preparing to teach the grammar and expression examples in an actual class setting was provided. The

combined form of verbs and adjectives frequently used in the beginner level were regularized for information on forms. Patterned syntactic information were described for information on sentence structure. Combination constraints for verbs and adjectives, subject person constraints, identical subject constraints, combination constraints for tense morphemes, sentence ending constraints, and others occurring in sentence composition were described for information on constraints. Ancillary and intense information such as usage of related forms of the relevant grammar and expression examples, abbreviations and original forms, idiomatic usage, intermediary and expert usage were described for information on expansion. For similar grammar, all grammar and expressions similar to the particular examples of form and meaning were described through comparison and contrast.

The standard grammar and expression examples of intermediary Korean education and the described details of intermediary grammar and expression examples determined through the present study, and the analysis on contrastive linguistics with Chinese, can be actively utilized in Korean classes for systematic and authentic grammar education and is expected to be utilized as basic data for Korean education research in various ways.

[Keywords] Korean education, intermediary stage, grammar example, expression example, selection, ranking, introduction, form information, sentence structure information, constraint information, similar grammar, contrastive linguistics, Chinese learner

연구 책임자: 양 명 희 (중앙대학교, 교수)
공동 연구원: 안 경 화 (서울대학교, 교수)
 김 재 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이 선 웅 (경희대학교, 교수)
 박 성 일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현 정 희 (충북대학교, 교수)
 정 선 화 (중앙대학교, 교수)
 김 선 호 (중국문화대학교, 교수)
 이 정 화 (서울대학교, 강사)
 서 경 숙 (서울대학교, 강사)
 이 지 용 (중앙대학교, 강사)
 이 나 래 (국립국어원, 담당 연구원)
연구 보조원: 이 현 주 (경희대학교, 강사)
 김 지 연 (중앙대학교, 강사)
담당 연구원: 이 나 래 (국립국어원, 담당 연구원)
 박 지 순 (문화체육관광부, 학예연구사)
 허 은 (국립국어원, 연구원)

한국어교육 문법 · 표현 내용 개발 연구(3단계)

발 행 인 민 현 식
발 행 처 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방화3동 827번지)
 전화: 02-2669-9745 전송: 02-2669-9747
인 쇄 일 2014년 12월 12일
발 행 일 2014년 12월 12일
인 쇄 유일문화사

